十七世 入鄕祖 諱 滾
입향조 곤

공은 생원공 당(塘)의 손자로서 아버지는 생원(生員) 숙경(淑景)이다.

공이 불지를 떠나 경상도 예천군 지보면 수월리에 자리를 잡으니 이곳에 후손들이 집성촌을 이루었다.

배위는 안동권씨(安東權氏)이며 묘는 예천군 지보면 수월리 진봉산(陣峰山) 손좌에 합봉이며 표석이 있다.

시제는 양력 11월 둘째 일요일이다.

十七世 贈吏曹參議公 諱 潤源
증이조참의공 윤원

공은 부호군 유길(有吉)의 외아들이며 파조 생원공 당(塘)의 손자이며 부제학 만리(萬理)공의 증손이다.

관은 증이조참의(贈吏曹參議)이며 묘는 울진군 죽변면 화성리 용장동 小白峯下에 고묘(先考의 묘) 왼편에 축좌로 있다.

배위는 숙부인 청주한씨로 영수(永秀)의 따님이다. 묘는 부군과 합봉이고、슬하에 아들 충순위훈련봉사 학동(鶴同)이 있다.

十九世 閒吾公 諱 就明
한오공 취명

공의 자는 일중(日中)、아호(雅號)는 한오(閒吾)이다. 입향조 곤(滾)의 손자이며 생원공 당(塘)의 현손이다.

배위는 안동권씨(安東權氏) 처기(處基)의 따님이다. 묘는 예천군 지보면 수월리 진봉산(陣峰山) 병좌에 쌍봉으로 있으며 표석이 있다.

12세손 두영(斗榮) 등 제족이 지보면 수월리에 정자를 지어 현판을 한오정(閒吾亭)이라 지어 공을 추모하니 그 유래는 아래와 같다.

閒吾亭記
한오정기

예천군청 남쪽 지보의 평지마을은 해주최씨가 대대로 살아온 곳이다. 조선조 선조 소경왕(昭敬王)25년에 섬나라(일본) 괴수 도요토미히데요시가 명나라를 공략할 것이니 길을 내달라는 구실로 이리떼 같은 짐승의 야욕으로 우리 조선을 임진년 여름 4월에 육해 병력 수십만 명을 일으켜 삼천리 강토를 유린하니 무릇 가슴에 적개심이 불타는 혈기 있는 사람은 보국에 정진하지 않는 이가 없었다.

이때를 당하여 최공 취명(就明)이 나이 17세로 전선에 나가 죽을 뜻을 품었으나 병환으로 활동이 어려운 모친 곁을 잠시도 떠날 수 없어 모친을 업고 피란길에 올라야 했

다。피란 도중 왜적과 마주쳐 몸을 숨겨 위험을 모면하는 험난함을 겪으면서도 밥 지을 나무를 해야 하고、열매를 주어 모친을 봉양하고、헐벗은 몸으로 품팔이를 하면서 적이 물러간 뒤까지 8년 동안 몸과 마음으로 극진히 봉양하니、이는 중국 漢나라의 강혁(江革、자는 차옹、임치인이다. 홀어머니를 모시고 봉양하던 중 천하의 난리를 만나 老母를 업고 피난하여 도적을 무찔러 평정하고 母子가 모두 온전함을 얻는 충효에 힘을 다한 名士) 같은 사람도 더 할 수 없는 일로서 주자가 쓴 소학편말에 등재되지 못한 것이 한이 되고、비록 헛되이 세상을 보낸 불우한 감이 있으나 이러한 것이 공에게 있어 무엇이 그리 대단한 일이겠는가。

이제 공이 살아온 선조들의 세상을 되돌아보니 고려로부터 조선조에 이르기까지 혁혁한 족벌로 명망이 높고 대대로 닦은 훌륭한 덕행이 족보에 끊임없이 기록되어 있도다。공의 代에 이르러 사친(四親) 이상은 가난하면서도 도(道)를 즐기기를 안표(顔瓢)와 원도(原堵)같이 처세하여 학문에 헌신하고 도의를 몸소 실천하여 탁파를 쳐서 청파를 일게 하니 마치 냇물이 쌓이고 교악이 높이 솟고 옥이 빛나고 얼음이 맑은 것 같아 이것이 존귀해서 더욱 빛이 나고 천지가 열악해도 스스로 극복하는 것이 아니겠는가。근본이 세워져 도(道)가 생기고 선(善)을 행하여 세속을 순화하니 아는 자는 이를 따르고 착한 자는 이에 부지하여 창암(蒼菴) 이윤수(李潤壽) 같은 이는 유문충공(柳文忠公、유성용)의 매서(妹婿)라。그 도의로 상교하고 시문으로 왕래한 자 반드시 그 흔적이 남아있을 터인데 병화(兵火)의 변으로 참고할 만한 것이 전무하니 이것이 후손들의 숨은 아픔이요、역사가의 통한이니 그 기송무징(杞宋無徵)을 어찌 하겠는가。이에 13세손 두영(斗榮)이 재운(在運)、재후(在厚)、재주(在柱)、신영(信榮)、병영(炳榮) 등 제족과 더불어 공이 덕과 명성을 끼친 곳에 정자를 지어 현판을 한오정(閒吾亭)이라 한 것은 선조의 아름답고 위대한 삶을 숭모하기 위함이다。(이하 생략)



한오정(閒吾亭)
지보면 수월2리 평지마을에 마련된 재실

二十世 副護軍公 諱 慶南

부호군공 경남

공의 자는 두경(斗卿)、부친은 취명(就明)이며 생원공 당(塘)의 6세손이다.

관은 선략장군(宣略將軍) 부호군(副護軍、從四)을 지내고、묘는 예천군 지보면 어화동(漁火洞) 라부산(羅浮山) 유좌에 위치한다。표석이 있다。

배위는 영인(令人) 파평윤씨(坡平尹氏)、父는 수향(壽享)이다。묘는 수월리 진봉산(陣峰山) 북쪽 기슭 병좌에 위치하며 표석이 있다。

進士公(垠)派

진사공(은)파

十五世 進士公 諱 垠

진사공 은

進士公墓碣銘 幷序

진사공묘갈명

白蓮峯下佛智村上有枕丑之原即進士公衣履之藏也公諱垠姓崔氏貫海州高麗世宗十九年乙巳生世祖四年乙卯文科成均進士成宗二十四年癸卯卒贈通訓大夫禮佐郎麗世有諱溫海州大寧郡人歷世以文學稱始爲肇祖生諱冲字浩然號惺齋高麗成宗丙戌生穆宗八年擢甲科官開府儀同三司三重大匡太師中書令判吏部事監修國史上柱國謚文憲收召後進設九齋以教之東方學校之興盖由公始時稱海東孔子海州有文惠書院延安有飛底書院京城和順沔川洪川皆有影堂始爲顯祖自後贈謚勳爵連世奕葉蔚爲海東名閥生諱惟善字樂夫號松灘官開府儀同三司三重大匡太師中書令判吏部事監修國史上柱國謚文和生諱思齊官中書侍郎判吏部事上柱國謚良平生諱淪官榮祿大夫禮部尚書翰林學士生諱允仁進士官監察御史生諱敏官銀青光祿大夫尚書左僕射生諱滋字樹德號東山叟明宗壬申文科官金紫光祿大夫門下侍郎平章事修文殿太學士謚文清生諱有湌官三韓三重大匡監察司大寧府院君謚忠憲生諱繼通官中正大夫判典客寺事行親御史大護軍生諱珙字共甫官奉列大夫司宰監令生諱安海字季夏官嘉靖大夫漢城尹生諱荷字求旱官奉列大夫禮賓寺少尹贈嘉善大夫吏曹叅判生諱萬理字明誠文科官通政大夫集賢殿副提學知制敎世子侍講院選清白吏謚恭惠於公爲王考生五男長塙縣監次堉佐郎次

塘生員次垠進士次堉典翰爲分派祖進士公配尙州金氏父叅贊無嗣以生員公子入系諱淑孫文科進士官通政大夫禮賓寺集賢殿副提學生八男世臣元享時東重錫琨聖敏琳璡其餘後裔多不勝記嗚呼公之歿己過四百有稔而世代遙遠累經兵燹守護不全仰瞻邱壠封營頹敗墓儀俱闕位土未備爲子孫者豈不悚懼而含恨哉是以浦內與唐津族相議買入山下畓四斗落以爲香火之策越二年甲寅營爲儀物而發論則財力不逮且難圖成族弟武鎬奮然曰方今世降道襄生存父母未能孝養況遠代祖先有其誠力者鮮矣我等年己七旬際此不爲來後幾百年又因循度了安可遷推哉乃與永鎬君合意率先出力不計勞苦再三訪問於各處諸族募金于期年竟至竣工雖曰諸宗協助之力若非二君爲先之誠焉能如是哉畧叙顚末以爲後日觀鑑而係之以銘曰文憲偉勳闡于萬年陰德垂後簪纓世連公趾厥美三尊俱全堅此貞珉永世遺傳

進士公十四世孫 址鎬 謹撰

진사공 묘갈명

백련봉(白蓮峯) 아래 불지촌(佛智村) 위에 있는 침축지원(枕丑之源)이 바로 진사공(進士公)의 혼백을 모신 곳이다。공의 휘는 은(垠)이며 성은 최씨이니、관향은 해주이다。고려 [원문의 잘못이니、「조선」으로 고쳐야 할 것이다] 세종 十九년(一四三七) 을사 [세종 十九년은 정사년이다] 에 태어나、세조 四년(一四五八) 을묘 [세조 四년은 무인년이다] 문과에 급제하여 성균 진사에 오르고、성종 二十四년(一四九三) 계묘 [성종 二十四년은 계축년이다] 에 죽었다。통훈대부(정三품) 예조좌랑(정六품)에 추증되었다。

고려시대에 휘 온(溫)이 있었으니、해주 대령군(大寧郡) 사람이다。대대로 문장과 학문으로 이름이 알려졌는데、이분이 비로소 해주 최씨의 시조가 되었다。이분이 휘 충(冲)을 낳으니、자는 호연(浩然)이고 호는 성재(惺齋)이다。고려 성종 병술년(九八六)에 태어나 목종 八년(一〇〇五) 갑과에 급제하니、벼슬은 개부의동삼사(開府儀同三司)·삼중대광(三重大匡)·태사(太師)·중서령(中書令)·판이부사(判吏部事)·감수국사(監修國史)·상주국(上柱國)이며 시호는 문헌(文憲)이다。후진들을 불러 모아 구재(九齋)를 설치하고 그들을 가르치니、동방 학교가 일어난 것도 공으로부터 시작되었다。그때 사람들이 해동공자(海東孔子)라고 불렀다。해주에 문헌서원이 있고 연안에 비봉서원(飛鳳書院)이 있으며、경성·화순·면천(沔川)·홍천에 모두 영당(影堂)이 있다。이분이 처음으로 널리 알려진 조상이니、이뒤로부터 시호와 훈작을 받은 후손들이 대를 이어 많이 나와 해동에 이름난 집안이 되었다。

이분이 휘 유선(惟善)을 낳으니、자는 낙부(樂夫)이고 호는 송탄(松灘)이다。벼슬은 개부의동삼사·삼중대광·태사·

중서령·판이부사·감수국사·상주국이었으며、시호는 태화(文和)이다。이분이 휘 사제(思齊)를 낳으니 벼슬은 중서시랑(中書侍郎)·판이부사(判吏部事)·상주국이며、시호는 양평(良平)이다。이분이 휘 약(瀹)을 낳으니 벼슬은 영록대부(榮祿大夫)·예부상서(禮部尙書)·한림학사(翰林學士)였다。이분이 휘 윤인(允仁)을 낳으니、진사에 올랐다가 감찰어사(監察御史) 벼슬을 하였다。이분이 휘 민(敏)을 낳으니 벼슬은 은청광록대부(銀靑光祿大夫)·상서좌복야(尙書左僕射)이었다。이분이 휘 자(滋)를 낳으니、자는 수덕(樹德)이고 호는 동산수(東山叟)이다。명종 임신년 [명종 때에는 임신년이 없다。명종 十八년인 一一八八년에 태어나 一二一二년인 강종 임신년에 급제하였다] 문과에 급제하여 벼슬이 금자광록대부(金紫光祿大夫)·문하시랑(門下侍郎)·평장사(平章事)·수문전(修文殿)태학사(太學士)에 올랐으며、시호는 문청(文淸)이다。이분이 휘 유엄(有渰)을 낳으니 벼슬은 삼한삼중대광(三韓三重大匡)·감찰사(監察司)대령부원군(大寧府院君)에 올랐으며、시호는 충헌(忠憲)이다。

이분이 휘 계통(繼通)을 낳으니、벼슬은 중정대부(中正大夫)·판전객시사(判典客寺事)·행친어사(行親御史)·대호군(大護軍)이다。이분이 휘 공(珙)을 낳으니、자는 공보(共甫)이고、벼슬은 봉렬대부(奉列大夫)·사재감령(司宰監令)이다。이분이 휘 안해(安海)를 낳으니、자는 계하(季夏)이고、벼슬은 가정대부(嘉靖大夫)·한성윤(漢城尹)이다。이 분이 휘 하(荷)를 낳으니、자는 구한(求早)이고、벼슬은 봉렬대부·예빈시(禮賓寺)소윤(少尹)에 올랐으며、가선대부·이조 참판에 추증되었다。

이분이 휘 만리(萬理)를 낳으니、자는 명성(明誠)인데 문과에 급제하였다。벼슬은 통정대부·집현전 부제학·지제교(知製敎)·세자시강원(世子侍講院)에 올랐으며、청백리(淸白吏)에 뽑혔고、시호는 공혜(恭惠)이다。이분이 공에게 왕고(王考)1인데、다섯 아들을 낳았다。장남 각(塙)은 현감이고、차남 정(靖)은 좌랑이며 三남 당(塘)은 생원이고、四남 은(垠)은 진사이며、五남 연(堧)은 전한(典翰)이니 분파(分派)의 중시조(中始祖)들이다。

진사공의 부인은 상주 김씨이니、그 부친은 참찬(叅贊)이다。뒤를 이을 아들이 없어 생원공의 아들로 양자를 삼으니、휘 숙손(淑孫)이다。문과·진사에 오르고 벼슬은 통정대부(정三품)·예빈시(禮賓寺)·집현전 부제학(정三품)이다。이분이 아들 여덟을 낳으니、세신(世臣)·원향(元享)·시동(時東)·중석(重錫)·곤(琨)·성민(聖敏)·진(璡)·림(琳)이다。그 나머지 후손들은 많아서 이루 다 기록할 수가 없다。

오호、공이 세상을 떠난 지 벌써 四백년이나 지났다。세대가 멀어지고 여러 차례 전란을 겪으면서、지켜오던 것들이 온전치 못하게 되었다。묘 있는 언덕을 올려다 보니 봉분은 다 무너지고 석물들도 다 이지러졌으며、위토(位土)도 갖추어지지 않았다。자손된 자들이 어찌 송구해하지 않으며、한을 품지 않으랴? 그래서 포내(浦內)와 당진(唐津)의 친족들이 서로 의논하여、산 아래 논 네 마지기를 사들여 제사 지낼 비용을 마련하게 되었다。그로부터 二년 뒤인 갑인년(一九七四)에는 묘 앞에 석물을 세우기로 의견을 내었는데、

재력이 딸려서 실행하기가 어려울 판이었다。그런데 족제(族弟)무호(武鎬)가 분연히 말하길

「지금 세상이 점점 타락해가고 도(道)가 쇠퇴해져서、살아계신 부모님도 제대로 효성껏 봉양치 못하고 있다。하물며 먼 조상들을 정성껏 섬기는 자는 더욱 드물다。우리들 나이가 벌써 일흔이 되었으니 이때 이 일을 하지 않으면、이 뒤 몇백년 동안 습관대로 넘기기만 할테니 어찌 실천에 옮길 수 있으랴?」

하고는 영호(水鎬)군과 뜻을 합하여 남보다 먼저 돈을 내었다。그리고는 노고를 아끼지 않고 여러 곳에 흩어져 사는 여러 친족들을 두세 번씩이나 방문하여 모금하였다。이제 한 해가 지나 준공하게 되었다。비록

「여러 종친들이 힘을 합하였다」

고는 하지만、만약 이 두 사람의 조상 위하는 정성이 아니었다면 어찌 이러한 일을 이룰 수 있으랴。이에 그 전말을 대략 서술하여 뒷날 볼거리를 삼고、잇달아 명(銘)을 짓는다。

문헌공의 위대한 공적이
천년 만년을 길이 밝히고
음덕(陰德)을 후세에 끼쳐
고관 대작이 대를 이어 일어났네。
공의 발자취 아름다워
삼존(三尊)이 모두 온전하시니、
여기에 이 빗돌을 세워
이 세상 길이 길이 남겨 전하리다。

진사공 十四세손 지호(址鎬)삼가 짓다。

註:1。조부가 아니라 부친이다。

十六世 贈吏曹判書公 諱 淑孫

증 이조판서 공 숙손

공의 生父는 세종조 집현전부제학(世宗朝集賢殿副提學) 萬理(만리)공의 三男인 당(塘)으로、계부(季父) 진사공 垠(은)의 뒤를 이었다。

성종 계묘(1483) 진사(進士)、병오(1486) 증광(增廣)1 文科에 급제하여 통정대부집현전부제학(通政大夫集賢殿副提學)에 올랐다。

公은 연산조(燕山朝)의 쟁신(諍臣)으로서 부당한 폭정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항거(抗訴不諱)하였다。연산4년(1498) 무오사화(戊午士禍) 때에 좌직언(坐直言)2하며 불의에 굴하지 않고 정쟁(廷爭)하다가 남해(南海) 땅으로 출보(黜補)되어 그곳 임지에서 울분으로 생을 마쳤다。그리고 7년 후인 연산10년(1504)의 갑자사화(甲子士禍)에 또 참화、소위 부관참시(剖棺斬屍)3를 당하였다。

그후 중종반정(中宗反正)4이 일어나 조정에서는 관리를 보내 글을 내려 제사를 지내게 하고、증직 이조판서(吏曹判書)를 추서(追敍)했다。다음해인 을축년(1505)에 양주해동촌(楊洲海東村)5에 장사지냈다가 中宗2년 정묘(1507)에 다시 선고(先考) 진사공(進士公) 묘하(안성시

원곡면 지문리)에 축좌로 면례(緬禮)하였다。그러나 오랜 세월과 누차의 병난으로 봉분이 퇴폐해지자 도식(道植、종친회고문)、종식(宗植、종친회장) 등 후손이 앞장서고、진사공파 후손 모두가 협력하여 묘역을 정화하고 비석과 둘레석 등을 갖추어 考(진사 휘 垠)묘하에 배위와 합봉하고 1997(丁丑)년 11월 29일 父子분의 묘역복원준공식을 성대히 거행하였다。



숙손공묘 안성시 원곡면 지문리 진사공 은(垠) 묘하

배위는 의성김씨이며、슬하에는 세신(世臣)、원형(元亨)、시동(時東)、중석(重錫)、곤(琨)、성민(聖敏)、진(璡)、림(琳)공 등 8형제와 문명원(文命元)、이형(李衡)의 두 따님이 있다。그 중 넷째인 중석(重錫)은 병란으로 문경으로 피신하여 그곳에 집성촌을 이루게 되었고、칠남 진(璡)은 당진으로 피신하여 당진에 집성촌을 이루었다。

註:1。증광문과:이조 때、나라에 경사가 있을 때에 보인 임시 과거。
2。좌직언:王 앞에 연좌하여 항의함。
3。부관참시:죽은 사람에게 가하던 극형。무덤을 파고 시체를 베거나 목을 베어 거리에 내걸던 형벌。
4。중종반정:폭군 燕山을 폐하고 새 임금 中宗을 세운 정변。
5。양주 해동촌:현 서울 방학동。

贈資憲大夫吏曹判書海州崔氏 諱
증자헌대부이조판서해주최씨

淑孫公 墓碣銘 幷序
숙손공 묘갈명

公諱淑孫姓崔氏海州人始祖諱溫麗朝以海州大寧君
人累世文學稱生諱冲號惺齊高麗穆宗八年嶝甲科歷
事五朝官至開府儀同三司三重大匡太師門下侍中中
書令內史仍令判吏部事監修國史上柱國諡文憲致仕
後設九齊于開城紫霞洞開牖後進東方學校之興盖由
公始時稱海東孔子海州建文憲書院延安飛鳳書院烏

山文憲書院洪川魯東書院康津明谷書院永川大東影堂唐津海東影堂和順茶山影堂潭陽三賢影堂長湍谷山各有影堂而奉安其後聯世煇赫爲東方望族生諱惟善號松灘官開府儀同三司三重大匡太師門下侍中中書令判吏部事監修國史上柱國諡良平生諱瀹官榮祿大夫禮部尚書翰林學士監修國史生諱允仁官監察御史生諱敏官銀靑光祿大夫尚書左僕射生諱滋號東山叟官金紫光祿大夫門下侍郎平章事修文殿太學士諡文淸生諱有渰官三韓三重大匡匡靖大夫監察司事大寧府院君諡忠憲生諱繼通官中正大夫親御大護軍生諱珙官奉列大夫司宰監令高祖諱安海官嘉靖大夫漢城尹曾祖諱荷官奉列大夫禮賓寺少尹　贈嘉善大夫吏曹參判祖諱萬理登文科官通政大夫集賢殿副提學知製敎世子侍講院左輔德首選淸白吏考諱垠文科進士及第　贈通訓大夫禮曹佐郎妣淑人尙州金氏參贊宣女无育生考諱塘生員妣昌寧成氏敎理　贈都承旨仁齊女以朝鮮世祖庚辰五月十三日生公　成宗癸卯中增廣文科試歷踐淸顯官至集賢殿副提學燕山朝戊午抗疏不諱流于南海卒于謫沂甲子追被慘禍翌年乙丑葬于楊州海東村　中宗反正後特遣官賜文致祭贈吏曹判書丁卯移窆於佛智先考墓下丑坐有表石翰林朴祐撰碑銘直提學金魯書配貞夫人義城金氏參奉贈吏判璉女墓雙封生八南二女男世臣通仕郎元亨丁酉司馬郡守男時東男重錫男琨副護軍聖敏武科通政璡文科工曹參議縣監琳參奉女文命元參奉綾州人李衡進士仁川人世臣男鏶元亨男涵通德郎時東男嵩重錫男忠遜琨男汝極將仕郎聖敏男永汶武科宣傳璡男汝興武科通政琳男汝深同中樞鏶男彦弼宣敎郎涵男英瑞嵩男應立忠遜男業汝極男潑展力副尉永汶三男宗弼光弼武科宣傳光碩通政汝興男汀武科宣略將軍汝深男玉達彦弼男夢海副司勇英瑞男應春業男龜欽進士潑男有弼宗弼男漢石光弼男瑞副護軍光碩男彦雲壽職通政泓武科主簿汀男德峻玉達男得龍曾玄外繁不錄鳴字公生文憲之世以諱萬理副提學爲祖克紹先訓學問之正爲國之忠執義之確操守之潔而適值燕山戊午暴政不勝憤欝抗疏不諱屢事廷爭流于南海卒于謫所百世之不令人起敬不已令歲閱半千百千遺昆散居各處守護不謹墓失其傳者積年尋山得石物而考證丁丑十月移葬於先考墓下而合封後孫道植宗植寬在再訪余聞慶主屹敝廬求顯刻之文不敢而亦不能耄

廢無聞辭畧書前後顚趾如右系之以銘曰　崔以國民得貫海州偉哉惺翁九齋書樓開牖後進禮從西周厥世顯揚振振公侯公迺繼作集賢之長昏朝戊午禍起廟堂抗疏不屈義存先王流于南海士氣盡褫卒於謫所禍及泉壤　中廟改玉伸雪法網葬于楊州　贈以正卿有媺佛智山麗水明次序永窆後孫之誠三世於此其歸必寧

檀紀四千三百三十一年戊寅三淸明節

眞城李源榮敬撰

安東權五宅敬書

증 자헌대부 이조판서 해주 최씨 휘 숙손 묘비명(贈 資憲大夫 吏曹判書 海州 崔公 墓碑銘)

이 어른 이름은 숙손(淑孫)이요, 성(姓)은 최(崔)씨이며, 해주인(海州人)이시다。시조 이름은 온(溫)인데, 고려때 해주 대령군 사람으로 여러대를 문학으로 칭송돼 왔다。

아들 충(冲)은 호(號)가 성제인데, 고려 목종 8년에 갑과 과거에 올라 다섯왕을 섬기고, 벼슬이 개부의동、삼사、삼중대광、태사(왕의스승)、문하시중(영의정)、중서령(영의정)、내사잉영、판이부사、감수국사、상주국이요、시호(諡號)는 문헌공(文憲公)이다。

벼슬을 다 마친후 개성 자하동에 구제학당을 설치하여 후진을 가르치니 우리나라 학교의 일어남이 이로부터 시작되어 그시대 사람들은 해동공자(海東孔子)1라고 일컬었다。

해주에 문헌서원、연안에 비봉서원、오산에 문헌서원、홍천에 노동서원、강진에 명곡서원을 세우고、영천대동영당、당진해동영당、화순다산영당、담양삼현영당、장단、곡산 등에 각각 영당을 지어 봉안하고 있다。그후로 대를 이어 혁혁하게 빛나니 우리나라 대망의 거족(巨族)이 되었다。

아들 유선(惟善)의 호(號)는 송탄(松灘)이며、벼슬이 개부의동、삼사、삼중대광、태사(왕의스승)、문하시중(영의정)、중서령、판이부사、감수국사、상주국이고、시호(諡號)는 문화공(文和公)이다。

그의 아들 약(瀹)의 벼슬은 영록대부、예부서상、한림학사、감수국사요、그의 아들 윤인(允仁)의 벼슬은 감찰어사이며、그의 아들 민(敏)은 벼슬이 은청광록대부、상서、좌복야이며、그의 아들 자(滋)는 호(號)가 동산수이며 벼슬이 금자광록대부、문하시랑、평장사、수문전、태학사요、시호(諡號)는 문청공(文淸公)이다。

그의 아들 유엄(有淹)의 벼슬은 삼한、삼중대광、광정대부、감찰사사、대령부원군이고、시호(諡號)는 충헌공(忠憲公)이다。

그의 아들 계통(繼通)은 벼슬이 중정대부、친어 대호군이며、그의 아들 공(珙)은 벼슬이 봉현대부、사재감령이다。

고조부 안해(安海)는 벼슬이 가정대부、한성윤(서울시장)이요、증조부 하(荷)는 벼슬이 조봉(朝奉)대부、예빈시、소윤이며、증 가선대부 이조참판이다。

조부 만리(萬理)는 문과에 급제하여 벼슬이 통정대부、세

종때 집현전부제학、지제교、세자시강원、좌보덕이며、청백리에 으뜸으로 뽑혔다。

아버지 은(垠)은 문과 진사에 합격하였고、증 통훈대부 예조좌랑이며、어머니 숙인(淑人) 상주(尙州) 김씨(金氏)는 참찬 선(宣)의 딸로 아들을 낳지 못하였고、친아버지는 당(塘)이요、생원에 합격했다。친어머니 창령(昌寧) 성씨(成氏)는 교리로 증 도승지가 된 인제(仁齊)의 딸로써 조선 세조 경진년 5월13일에 이분을 낳았다。

이분은 조선 성종 계묘년에 생진과 증광문과에 합격하여、요직을 두루 거쳐 벼슬이 집현전 부제학에 이르렀다。연산군 무오사화때는 죽음을 무릅쓰고 상소로 항의하다가 남해로 유배되어 계해년에 귀양지 남해에서 돌아가셨고、다음해 갑자년에 추가로 참화(부관참시)를 당했으며、다음해 을축년에 양주 해동촌에 장사를 지냈다。

중종이 정권을 잡은뒤(中宗反正 後) 특사관리를 보내 글을 내려 제사를 지내도록 하고、이조판서 직함을 내렸으며、3년만인 중종2년 정묘년(서기 1507년)에 안성 불지아버님(진사공)묘 아래 축좌로 이장하고 비(碑)를 세웠는데 한림학사 박우(朴祐)가 비문(碑文)을 짓고、직제학 김노(金魯)가 글을 썼다。

부인 증(贈) 정부인(貞夫人) 의성(義城) 김씨(金氏)는 참봉 증 이조판서 연(璉)의 딸이며、묘는 쌍봉이다。(駐：21년뒤에 별세)

자녀는 8남2녀를 두었는데、첫째아들 세신(世臣)은 통사랑이요、둘째는 원형(元亨)인데 정유년 사마시험에 합격하여 군수였고、셋째 시동(時東)、넷째 중석(重錫)、다섯째 곤(琨)은 부호군이요、여섯째 성민(聖敏)은 무과통정이며、일곱째 진(璡)은 문과에 합격하여 공조참의 및 현감을 지냈고、여덟째 림(琳)은 참봉이다。

첫째딸은 남편이 문명원(文命元)인데 능주사람으로 참봉이었고、둘째딸은 남편이 이형(李衡)인데 인천사람으로 진사를 했다。

세신(世臣)의 아들은 집(鏶)이요、원형(元亨)의 아들은 함(涵)인데 통덕랑이며、시동(時東)의 아들은 숭(嵩)이고、중석(重錫)의 아들은 충손(忠遜)이며、곤(琨)의 아들은 여극(汝極)인데 장사랑이요、성민(聖敏)의 아들은 영문(永汶)인데 무과선전이요、진(璡)의 아들 여흥(汝興)은 무과통정이요、림(琳)의 아들 여심(汝深)은 동중추였다。

집(鏶)의 아들 언필(彦弼)은 선교랑이요、함(涵)의 아들은 영서(英瑞)요、숭(嵩)의 아들은 응립(應立)이고、충손(忠遜)의 아들은 업(業)이요、여극(汝極)의 아들은 발(潑)인데 전력부위를 지냈고、영문(永汶)은 3남을 두었는데 첫째 종필(宗弼)과 둘째 광필(光弼)은 무과선전을 지냈고、셋째 광석(光碩)은 통정대부를 지냈고、여흥(汝興)의 아들은 정(汀)인데 무과선략장군이요、여심(汝深)의 아들은 옥달(玉達)이다。

언필(彦弼)의 아들은 몽해(夢海)인데 부사용이요、영서(英瑞)의 아들은 응춘(應春)이고、업(業)의 아들은 구흠(龜欽)이요、발(潑)의 아들은 유필(有弼)이요、종필(宗弼)의 아들은 한우(漢右)이고、광필(光弼)의 아들은 복(瑞)인데 부호군이며、광석(光碩)의 두아들중 언운(彦雲)은 수직통정대부요、홍

(泓)은 무과주부이다。정(汀)의 아들은 덕준(德峻)이요、옥달(玉達)의 아들은 득용(得龍)이다。증손、현손 외에는 번창해서 다 기록하지 못한다。

아! 이 어른은 문헌세손으로 나셔서 만리(萬理)부제학이 할아버지가 되어 선조의 가르침을 이어 능히 소개하고 학문의 바르게함과 나라를 위한 충성함과 의리의 확연함과 결백을 지키는데 적절하게 가치를 두었다。연산군 무오사화 폭정에 분하고 답답함을 이기지 못하여 죽음을 무릅쓰고 꺼리낌없이 항소하고 여러 국사에 투쟁하다가 남해땅으로 유배되어 귀양지에서 울분을 못이겨 돌아가시니 오랜 세월을 사람들로 하여금 존경심을 일으켜 마지 않았다。이제 세월이 500년이 지나고 많은 자손들이 각지에 흩어져 살고있어 보호에 성의를 다하지 못하고 묘를 실전(失傳)하여 여러해를 산을 찾아 헤매다가 옛 석물(石物等)을 발견하고 고증(考證)하여 단기 4330년 정축 10월에 아버지 묘 밑에 내외분을 이장、합봉하고 후손 도식(道植)、종식(宗植)、관재(寬在)가 재차 나를 찾아 문경 주흘산 밑 허름한 집에 와서 비문(碑文)을 청(請)해 구하니 감히 할 수가 없고、또한 능하지도 못하고 노쇠하고 잘 듣지도 못하는 지라 사양하다가 대략 앞 뒤 전말 자취를 위와 같이 기록하고 이어서 비명(碑銘)에 일러 가로되、

『최(崔)』라고 나라성(온 나라에서 알아주는 국성(國姓))으로 해주라 본(本)을 얻으니 위대하다、문헌공(文憲公 : 二世冲)이여!

구제학당에서 후진을 가르치고 예(禮)는 중국공자가 있던 서쪽 주나라를 따르니、온 세상에 이름 빛나고 고관대작이 진진하네。

이 어른(諱 : 淑孫)께서도 이에 그 뜻을 이어서 집현전에 장(長)이 되었네。연산군 무오사화때는 그 화(禍)가 나라 조정에서 일어나자 항의상소로 끝까지 굴하지 않고 의리를 옛 선왕(先王)에 두었구나。

이에 남해땅으로 유배되고 사기(士氣)는 다 죽었으며 귀양땅(南海)에서 돌아가시고 또 그 화(禍)가 묘소에 까지(剖棺斬屍) 미쳤구나。

중종반정(中宗反正)으로 바른법도가 원한을 풀어주고 양주땅에 장사지내고 고관대작(吏曹判書) 직함을 주었네。

아름다운 불지땅은 산이 곱고 물도 맑은데、차례대로 장사를 모셨구나。후손의 정성으로 3대가 여기에 있으니 그는 돌아가서 반드시 편안하시리라。

단기 4331년 무인년(戊寅年) 청명절(淸明節)

진성(眞城) 이원영(李源榮) 공경히 지음。

31세손(世孫) 도식(道植) 공경히 옮김。

註 : 1。우리나라 공자

十七世 魯城縣監 入鄕祖 諱 璡

노성현감 입향조 진

공의 초휘는 맹권(孟權)、字는 맹헌(孟獻)이다。진사공 은(垠)의 손자요、증이조판서 숙손(淑孫)의 7남이다。

中宗 정묘文科에 급제하여 통정대부 공조참의(通政大夫工曹參議)로 있다가 노성현감(魯城縣監、공주 부근)으로 출보되었다。

연산군 폭정 당시 부친 숙손(淑孫)공이 연산군에 항소불휘(抗訴不諱)하고 좌직언(坐直言)으로 출보되고、갑자사화에 추가로 피해를 당하니 자손들이 각지로 피신하였는데 공(璡)은 지금의 고대면 옥현리로 이주하여 자손들이 집성촌을 이루니 진사공파 당진종중의 입향시조가 되었다。

묘는 당진군 고대면 당진포리 고산동(高山洞) 봉화산(烽火山) 下 서록(西麓)에 갑좌(甲坐)로 모시였다。배위는 숙부인 안동권씨(安東權氏) 이판 건(建)의 따님이다。

묘는 쌍봉으로 모시고 봉시제(奉時祭)는 장산재에서 매년 11월 둘째주 토요일에 전종친이 모여 성대히 지내고 있다。

소생은 통정대부 여흥(汝興)이 있다。

長山齋
장산재

부제학공(副提學公) 휘 만리(萬理) 祖가 자녀를 5남 1여를 두시었는데 1남 휘 각(塙) 祖는 현감공파 파조(派祖)이시고 2남 휘 정(靖) 祖는 좌랑공파 파조이시며 3남 휘 당(塘) 祖가 생원공파 파조 되시며 4남 휘 은(垠) 祖가 진사공파 파조가 되시고 5남 휘 연(堧) 祖가 전한공파 파조가 되신다。

진사공파(進士公派) 휘 은(垠) 祖의 아들 16세 집현전 부제학 증이조판서 휘 숙손(淑孫)公의 자녀가 8남 1여를 두었는데 무호사화 당시 좌직언(坐直言)으로 남해에 출포(出捕) 되면서 고향에서 살기가 불안하여 8형제가 각 지방(地方)으로 흐터져 살게 되었다、4남 중석(重錫) 祖는 경상도 문경에서 8남 림(琳) 祖는 인천지역에서 터전을 마련하였고 7남인 진(璡) 祖가 충청남도 당진시 고대면 옥현리 구노지로 낙향하시어 300여호의 집성촌(集成村)을 이루고 입향조(入鄕祖)가 되신다。

현재 진사공파 당진종친회를 결성하여 살고 있으며 매년 음10월10일이 되면 10일 이상 이산 저산으로 묘소를 찾아 다니며 시제을 모시는 것이 발전하는 시대에 부응치 못해 구노지 장산(長山)下 남록(南麓)에 조상(祖上)의 묘(墓)를 이장(移葬)하고 묘지(墓地) 아래에 재실(齋室)을 세우기로 주재(珠在) 동재(東在) 공재(公在) 충재(冲在) 종친이 앞장서 추진하기로 의결하고 성금(誠金)을 모으기로 하였다。

종친의 자발적인 성금으로 2년만인 1997년에 재실(齋室)을 건축(建築)하고 이름을 장산재(長山齋)라 명명(命名)하고 이곳에서 매년(每年) 11월 둘째주 토요일에 입향조 부터 24세까지는 종회에서 시제(時祭)공동으로 모시고 25세 이후 선조님들은 자손들의 희망에 따라 같이 모시기로 하였는데 회망자가 날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집에서 4대봉사가 점점 어려운 시대로 변하고 있어 장산재에서 선조님의 시제를 같이 모시는 것이 훌륭한 일이라 평가하고 있다。



◀**장산재** : 충남 당진시 고대면 옥현리
▼장산재기
▼장산재(長山齋) 외경





2020년 11월 두째주 토요일에 문헌공 휘 충(冲) 문화공 휘 유선(惟善) 14세 부제학공 휘 만리(萬理) 祖의 영정을 모시고 먼저 분향 재배하고 입향조 이하 85분의 신위(神位)를 모시고 90여명의 종친이 모여 시제를 지내고 있으며 그곳에서 당진종친회 총회를 개최하며 종친간 친목을 다지고 있다。

追遠齋
추원재

추원재는 문경시 영순면 포내리에 진사공 은(垠)의 후손들이 세운 우모소(寓慕所)로 입향조(入鄕祖) 업(業、19世)의 증손 증통정대부 승정원좌승지(贈通政大夫承政院左承旨) 종벽(宗壁、22世)조의 추모행사를 위한 재실(齋室)이다。국권을 빼앗긴 20세기 초에 선조마저 잃을 것을 염려하여 一門이 힘을 모아 주변의 뫼 봉우리가 굽어 공읍(拱揖)하고 장강(長江)이 일대를 구비치는 이 마을 언덕에 방 2칸 퇴 1칸을 지은 것이 임술(1922)년이고 해마다 원근의 자손들은 이곳에 모여 세찬(歲饌)을 올린다。세향일은 매년 음 10월 13일이다。

세월의 흐름에 따라 여러 차례 보수와 중건을 해오던 중、을유(2005)년에는 입향(入鄕) 400주년을 기념하여 마을 입구에 해주최씨후손들이 대대로 살아온 마을임을 기념하는 세거지지비(世居之地碑)를 세웠다。



추원재

경북 문경시 영순면 포내리 뒤편 영강(潁江)의 맑은 물을 바라보는 마을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다.

庵村齋 仰巢亭

암촌재 앙소정

암촌재는 문경시 영순면 포내동 암촌리(포내리 뒤편)에 있는 문헌공 충(冲)선생의 25세손이요 부제학 만리(萬理)공의 12세손 범순(範淳)조를 기리기 위한 재실(齋室)이다.

후손들의 오랜 숙원에 따라 사현손(嗣玄孫) 기호(基鎬)공이 암자리(庵子里)에 있는 선고(先考)의 앙소정(仰巢亭) 일부를 『암촌재』로 사용하기로 하고 매년 제향을 올릴 때에 사용되고 있다. 제향일은 음 10월 13일이다.



암촌재 앙소정

仰巢亭
앙소정

原韻(원운) : 嗣子 基鎬(사자 기호)

遲遲歲月此亭成
지지세월차정성
더디고 더딘 긴 세월에 이 정자이루니

滿地雲林景復明
만지운림경부명
땅 가득히 무성한 숲에 경치 다시 밝도다。

不染囂塵今世獨
부염효진금세독
시끄럽고 혼탁한 요즘 세상에 홀로 물들지 않고

回思往跡古人淸
회사왕적고인청
지난 옛사람 맑은 자취 돌이켜 사모하네。

鶯花紫陌何須說
앵화자맥하수설
앵화자백(부귀)을 어찌 모름지기말하리요

猿鳥靑山却是情
원조청산각시정
원조청산(은사)에 정을 못 있고

潁水亦能如有慕
영수역능여유모
영강물 또한 사모함이 있는 것 같이

東流嗚咽送波聲
동유오인송파성
동으로 흐르며 목 메인 파도소리 보내네。

次韻(차운) : 嗣曾孫 道植(사증손 도식)

1964年 甲辰 3月

亭以仰巢有意成
정이앙소유의성
정자이름「앙소」1라고 뜻있게 지어 이루니

繼來先祖慕賢明
계래선조모현명
이어 내려온 조상들의 어질고 밝음을 사모함일세。

重重遠峀箕山碧
중중원수기산벽
겹겹이 먼 산봉우리에 기산은 더욱 푸르고

滾滾流波潁水淸
곤곤유파영수청
세차게 파도치며 흐르는 영강물도 맑도다。

好爵令名安足說
호작령명안족설
벼슬 좋아하고 이름 날리는 것을 어찌 족히 말하리요

麤衣疏食亦稱情
추의소식역칭정
허름한 옷 거친 밥 먹고 사는데 또한 정을 둔다。

後孫若有羹墻慕
후손약유갱장모
후손들은 만약 조상을 위하는 뜻있거든

庶幾將來不替聲
서기장래부체성
먼 훗날에도 조상의 이소리 이어가고 바꾸지 말라。

註:1。소부의 청렴군자 정신을 우러러보다。

追慕 海東孔子崔文憲先生
추모 해동공자최문헌선생

世稱夫子降吾東
세칭부자강오동
세칭 부자(공자) 우리나라에 탄강하시니
靈地烏山洙泗同
영지오산수사동
영위 모신 오산 땅은 수사(주)와도 같네。
高麗國中傳聖訓
고려국중전성훈
고려국에 성훈을 전하시고
三韓域內振儒風
삼한역내진유풍
삼한 땅1에 유풍을 진작하셨네。
至今廟殿呈章士
지금묘전정장사
지금 와서 묘전에 선비들 글 올리고
思舊文翁達道雄
사구문옹달도웅
옛 어른 생각하니 도에 통달한 영웅일세。

輔主太師施善政
보주태사시선정
임금 돕는 태사로서 선정을 베푸셨으니
小孫俯伏頌勳功
소손부복송훈공
소손은 업들여 그 훈공을 칭송하네。

31세손 도식(道植) 작

註:1。孔子가 강론(講論)한 땅

十八世 宣略將軍公 諱 汀
선략장군공 정

초휘는 언정(彦汀)、부제학 만리(萬理)공의 5대손이며 진사공 은(垠)의 현손이다。明宗신유 무과(武科)에 급제하여 선략장군(宣略將軍)을 지냈다。
배위는 순흥安氏이며 참봉 유근(惟謹)의 따님이다。소생은 아들 덕준(德峻)을 두었다。

十九世 入鄕祖 諱 業
입향조 업

공의 자는 계조(繼祚)요、부친은 충손(忠遜)이며 진사공 은(垠)의 현손이다。
공은 자손이 귀(貴)하게 되므로 증가선대부(贈嘉善大夫)

가 되었다。천성이 온유돈후(溫柔敦厚)하고 근검독행(勤儉篤行)하며 재예(才藝)에 총명하였다。어려서 부친을 여의고 편모슬하에서 조상을 받들고 가사에 진력하며 정성으로 어머니께 효도하였으나 어린 나이에 자수성가는 어려웠다。조부 중석(重錫、증이조판서 숙손(淑孫)공의 아들)공과 부친(휘 忠遜)의 묘를 생존시 살던 경북 영주 땅에 두고 어머니 全州李氏를 따라 문경 땅 영순면(永順面) 포내동(浦內洞)으로 이주함으로써 후손들의 입향조가 되었다。

그리고 영주 땅의 先山과 위토는 40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 대를 이은 산지기(관리인)에게 관리를 맡기고 있다。관리인 정병걸은 『해주최씨 묘소를 받들고 복을 받은 우리는 대를 이어 영원히 잘 모셔야 한다。』라는 그 부친의 유훈으로 산소관리를 잘해 오고 있다。

공의 묘는 문경시 영순면 진목동 뒷산에 해좌(亥坐)로 모셨다。

배위는 청주한씨이시고 父는 천복(天福)이며 묘는 산양면 사동(山陽面 蛇洞) 을좌(乙坐)이다。슬하에 외아들인 進士 구흠(龜欽)이 있다。孫子로는 시영(時永)과 증 통정대부 좌승지(右承旨) 재영(再永) 그리고 계영(季永) 등 3형제가 있으며、증손에는 증통정대부 승정원 좌승지 종벽(宗璧、호 桂山)과 고묘(考墓)에 여막(廬幕)살이 3년을 마치고 時稱 孝子로 알려진 종의(宗義) 등이 있어 후대에 이르러 家勢가 성하게 되었다。



세거지지비
영순면 포내동

二十一世 司憲府監察公 諱 好龍
사헌부 감찰공 호 룡

공의 부친은 덕준(德峻)이요、조부는 선략장군(宣略將軍) 정(汀)、노성현감(魯城縣監)으로 입향조가 된 진(璡)의 현손이며、진사공 은(垠)의 7세손이다。

인조(仁祖) 갑술(甲戌) 무과(武科)에 급제하여 관이 통훈대부(通訓大夫) 사헌부감찰(司憲府監察)에 이르렀다는 기록이 경오보에 전하고 있다。

배위는 숙부인(淑夫人) 전주이씨 천용(天龍)의 따님으로 묘는 당진군 고대면 옥현리(玉峴里) 구로지(九老地) 장산(長山)下 자좌(子坐)에 공의 묘와 함께 쌍봉으로 있다。

소생은 사헌부지평 윤(贇)과 찬(贊) 그리고 통덕랑 보(寶)이다。

二十二世 贈左承旨公 諱 宗璧
증좌승지공 종벽

字는 득화(得和)、호는 계산(桂山)이며、세종조 부제학 만리(萬理) 선생의 9세손이며、입향조(入鄕祖) 엽(業)의 증손이고、부친은 증통정대부、우승지(贈通政大夫、右承旨) 재영(再永)이다。

공은 어려서부터 총명하고 풍모가 뛰어났다。나이 8세에 효경(孝經)을 수학하고 일찍이 대의를 깨우쳐 부모를 섬기는데 효성이 지극하고 여묘(廬墓、시묘살이 할 오두막집)에서 3년을 울부짖으니 향리 사람들이 그 효성에 감동하고 나라에서 포상하고자 하나 공이 거부하였다。공은 평생 학문과 권농에 힘쓰다가 향년 70에 세상을 떠났으며 후에 자식이 귀하게 되어 증 좌승지가 되었다。(비문 요약)

묘는 문경군 영순면 포내리 동쪽 언덕의 묘좌에 있으며、묘비가 있는데 영가(永嘉) 권상규(權相圭)가 비문을 썼다。

배위는 증숙부인 밀양박씨로 철(哲)의 따님이고、묘는 같은 언덕에 같은 좌향에 있다。후사로는 성후(聖垕)、증가선대부 예조참판 성필(聖弼)、부호군 성준(聖俊)이 있다。

二十二世 孝子 諱 宗義
효자 종의

字는 득인(得仁)、호는 제산(霽山)으로 공의 8대조는 세종조 부제학 만리(萬理) 선생이요、부친은 증통정대부、우승지(贈通政大夫、右承旨) 재영(再永)이다。

공은 나서부터 자질이 빼어나고 외모가 단정하고 백씨(종벽)와 더불어 부모 봉양에 남달리 극진하였다。부친의 이질(痢疾) 병세가 위급함을 보고 똥(糞)을 맛보아 그 쓰고 단것을 가려 대처하였고、엄동(嚴冬)에 얼음을 깨어 목욕하고、매일 밤 하늘에 정성으로 기도하니 병환이 나았다。그후 父母 내외상(喪)을 당하여 가례를 준수하며、가시넝쿨에 몸을 상하며 시묘살이 3년을 정성껏 하니 당시 사람들이 감복하여 나라에 올려 포정(褒旌、효자 표창)코저 하였으나 끝까지 이를 거절하였다。

만년에 영수(潁水)의 양지바른 곳에 우거하면서 세간의 시비(是非)를 멀리하고 시서(詩書)로 낙을 삼았다。묘는 문경군 호계면 봉서산(鳳棲山) 남록 해좌에 있다。

배위는 경주정씨、여성(汝誠)의 따님이며 묘는 동좌(同坐)이고 아들은 성득(聖得)이다。(이상 묘비문(眞城 李祥鎬 지음 요약)

二十三世 贈禮曹參判公 諱 聖弼
증예조참판공 성필

공의 자는 은보(殷甫)、증좌승지(贈左承旨) 종벽(宗璧)의 둘째 아들이며、진사공 은(垠)의 9세손이다。

관은 증가선대부 예조참판(贈嘉善大夫 禮曹參判)이다。묘

는 영순면 뱀골(蛇谷) 을좌에 있다.

배위는 증정부인 경주정씨(慶州鄭氏)이며, 묘는 공과 같은 언덕의 뱀골 간좌(艮坐)에 있다. 소생으로는 운서(雲瑞)와 운복(雲福)의 두 아들이 있다.

二十六世 贈工曹參議公 諱 桓
증공조참의공 환

자는 백겸(白兼), 아버지는 증통정대부 군자감(贈通政大夫 軍資監) 종한(宗漢)으로 사헌부 감찰 호룡(好龍)의 현손이며, 파조 진사공 은(垠)의 12세손이다.

공의 관은 증통정대부 공조참의(贈通政大夫 工曹參議)이었다. 묘는 고대면 옥현리 구로지 안산(案山)에 건좌로 장사지냈다.

배위는 숙부인 밀양손씨(密陽孫氏) 광학(光學)의 따님이다. 재취는 숙부인 공주이씨(公州李氏) 정갈(廷碣)의 따님이며, 묘는 쌍봉이다.

소생은 증한성부 좌윤(漢城府左尹) 성태(成泰)와 경태(慶泰), 호태(浩泰)의 세 아들이 있다.

二十七世 贈漢城府左尹公 諱 成泰
증한성부좌윤공 성태

자는 백유(伯攸), 증공조참의 환(桓)의 아들이며, 사헌부 감찰 호룡(好龍)의 7세손, 진사공 은(垠)의 13세손이다.

관은 증가선대부 한성부좌윤(贈嘉善大夫 漢城府左尹) 겸 오위도총부부총관(兼五衛都摠府副摠管)이다. 묘는 고대면 당진포리 고산동하치막(高大面 唐津浦里 高山東河峙幕) 자좌에 있다.

배위는 증정부인 교동인씨(喬桐印氏) 정원(廷元)의 따님이며. 묘는 합봉이다. 소생은 동지중추부사 욱(頊)과 형(珩) 등 두 아들이 있다.

二十八世 愛國志士 諱 璨
애국지사 찬

愛國志士海州崔公璨先生追慕碑銘幷序
애국지사해주최공찬선생추모비명

공의 휘는 찬(璨)이오, 字는 진옥(振玉)이며 호는 춘해(春海)이니 본관은 海州이다. 고종 을사년(1905) 관이 통덕랑서 호조참의 승3품 이조참판(通德郎署 戶曹參議 陞三品 吏曹參判)이다. (진사공 은(垠)의 14세손)

고려태사(高麗太師) 문헌공(文憲公) 최충(崔冲) 선생의 27세손이다. 철종 병진 12월 8일 문경시 호서남 영신리(聞慶市 戶西南 永新里)에서 운포 택헌(雲圃 澤憲)의 장남으로 태어나 체국(體局)이 건장하고 품성이 강직하며 지모가 출중하고 어릴 때부터 한학을 전공하여 충효사상이 특출하였고 의약역학병서(醫藥易學兵書)에도 조예가 깊어 세

인의 추앙을 받았다.

당시 제한(帝韓) 말엽에 열강의 세력다툼으로 국정이 문란하여 고종은 친일파의 갑신정변(甲申政變) 후 왜적의 위협을 받아 종사(宗社)의 운명이 불안한 나날을 보내게 되었다.

을미년에 왜적이 조선침략의 야욕으로 친일파들과 음모하여 국정을 농락하면서 배일친로(排日親露)의 이유를 들어 國母를 시해함으로써 전 국민이 분노하는 가운데 병신년 정월에 운강 이강년(李康秊) 선생이 항일의 의병을 일으키니 공은 분연히 일어나 운강과 내통하여 동지의 의(義)를 맺고 왜적토멸에 적극 가담하여 의병모집활동에 큰 공을 세웠다。그로부터 이강년 병영에서 토적에 앞장서 고모산성(姑母山城)에서 접전하였으나 전세가 불리하여 산중으로 일시 피신하였다。그후 왜적들은 노일전쟁의 승리로 더욱 오만해져 고종 을사에 적괴(敵魁) 이등박문(伊藤博文)이 매국오역(賣國五逆)과 합세하여 고종을 협박하여 오조약(五條約)을 이루어 병영을 해산하고 국권을 약탈하니 전 국민의 분노는 폭발 충천하였고 혹은 절사하고 혹은 도해결사(渡海結社)하여 역신(逆臣) 암살과 국권회복에 활동하게 되었다。이때 단양 산중에서 은밀히 활동하던 이강년 대장은 왜적을 토벌할 계획을 세워 분산된 의병을 다시 규합하니 공은 신속히 운강(雲崗)을 도와 영남、영북、영동、영서 등지에서 대소 접전 수십여 차례에 혈전 고투하여 많은 왜적을 섬멸하였다。무신6월(1908) 4일 운강이 적탄에 부상으로 왜군에 생포되니 의병의 사기는 떨어져 각자가 피신하게 되니 공은 비분의 한을 안은 채 단신으로 충주 신당리(新塘里)에 은거 활동 중 그해 9월 19일 운강의 처형(處刑) 비보를 듣고 비통함을 금할 수 없어 복수 구국에 더욱 몰두하여 운강의 아들 승재(承宰)、긍재(兢宰)와 연락하여 기회를 엿보던 중 承宰마저 독살 당하니 공은 천추의 한을 품고 고향으로 돌아와 서당(書堂)의 훈장(訓長)으로 근근히 연명하였다。경술년(1910) 8월에 한일합방(韓日合邦)이 되자 두문불출(杜門不出)하였으며 그후 고종이 승하하시니 식음을 전폐하고 三日 동안 통곡하였다。

감상시사(感傷時事)하여 구국일념으로 초지일관하게 진력하다가 광복 전 무진(1928) 10월 20일 세상을 떠났다。광복 후 경오년(1990)에 정부에서 건국훈장 애족장(愛族章)을 추서하니 증손 도식(道植)이 공의 약사(略史)를 가지고 와서 비문을 청탁하니 그 의리에 감동하여 노폐(老廢)를 불고하고 事行의 기록을 한 다음、이어서 명왈(銘曰)

帝韓之末
제한지말
대한제국의 말엽에

黑齒竊國
흑치절국
검은 이빨의 야만족이 나라를 절취하고

入闕弑后
입궐시후
궁궐에 들어가 황후를 시해하니

餘禍不測
여화불측
남은 화를 헤아릴 수 없네

士是元氣
사시원기
선비는 이에 원기를 내어

掩卷持戟
엄권지극
책을 덮고 창을 잡아

義同討賊
의동토적
의리를 같이하여 적을 치고자

雲翁之幕
운옹지막
운강(雲崗) 노장의 막사에 갔네

逆倭脅帝
역왜협제
역도와 왜적이 황제를 협박하여

乙巳成約
을사성약
을사조약을 성사시켜

轅門兵散
원문병산
군영의 병사를 해산시키니

楓宸月黑
풍신월흑
궁전에는 달빛마저 어두워지네

誓死救國
서사구국
구국에 죽기를 맹서하고

許多助力
허다조력
허다한 전투에 힘을 보태니

驅南馳北
구남치북
남으로 쫓고 북으로 달려

偵察連絡
정찰연락
정찰하고 연락하다가

大運之傾
대운지경
대운은 기울어지고

星落京獄
성낙경옥
별(운강대장)이 경성감옥에서 떨어지니

飮恨隱居
음한은거
한을 머금고 숨어서

箕潁之曲
기영지곡
기산영수(箕山潁水)1 한 구석에 살면서

一念復讎
일념복수
오직 복수 일념으로

至死不忒
지사불특
죽음에 이르도록 변치 않았네。

褒賞受勳
포상수훈
나라의 포상으로 훈장을 받으니

建國愛族
건국애족
「건국훈장 애족장」이라。

鑱辭樹石
참사수석
이 문장을 새겨 비석을 마련하여

仰巢前麓
앙소전록
앙소정(仰巢亭)2 앞 기슭에 세우며

精爽左右
정상좌우
정상좌우에

敬告今昔
경고금석
삼가 지금 옛것을 고합니다。

세(歲) 단기 4324년(1991) 신미 3월
진성(眞城) 이원영(李源榮) 근찬(謹撰)

註 : 1。기산영수 : 중국의 은사(隱士)、소부(巢父)와 허유(許由)가 은거하던 곳。여기서는 문경시 영순면 포내리를 이름、마을 앞에 영강(潁江)이 흐른다。

2。앙소정 : 애국지사 최찬 선생의 유지를 받들고 기리기 위하여 선생의 향리、영순면 포내리에 세운 정자。

典翰公派
전한공파

十五世 典翰公 諱 堧
전한공 연

字는 태보(台甫) 부제학공 만리(萬理)의 다섯째 아들이며、고려 수태사중서령(高麗守太師中書令) 충(冲)선생의 14세손이다。생년은 미상이나 아버지 만리공이 강원도 관찰사로 부임할 때에 공이 1세(歲)의 아기였다고 하니 세종21(기미생 1439)으로 추정된다。

世祖 기묘(1459)文科에 올라、통훈대부집현전전한(通訓大夫集賢殿典翰、從三)을 지내고、청주부사、성천부사지제용감정(淸州府使、成川府使止濟用監正)으로도 출보(出補)하였다。

(본 파조편 현감공파조 각(搞)의 수난과 직첩회복란 참조。)

배위는 숙인태인송씨(淑人泰仁宋氏)로 슬하에 아들 헌납(獻納、正五) 세걸(世傑)과 따님은 덕수인 이권(李蓘)과 문화인 유창석(柳彰碩)의 둘이 있다。

전한(典翰) 헌납(獻納)공 父子의 묘는 임진왜란 등 잦은 병란으로 실전(失傳)되어 오랫동안 찾지 못한 고로、자손들

이 그 송구함을 견디지 못하였다。8世孫 증(贈)참판 석징(參判 碩徵)공이 오매불망(寤寐不忘) 산소 찾기에 상심한 나머지 현몽(現夢)까지 하여 꿈에 본 산소가 있다는 장소에 가 헤매어 찾아보았으나 찾지 못하였다。그후 현종 신해년(1671)에 參判공의 아들 충청도 병마절도사 운서(雲瑞)공이 여러 종제와 더불어 대를 이어 애쓴 정성으로 부친이 찾던 그 부근에 가서 산소를 찾았다는 고사(故事)가 있다。

兩公의 묘는 본래 고양시 덕양구 선유동에 있었으나、2004년 3월 30일 후손들이 정성을 모아 조부 소윤공과 부친 부제학공(副提學公) 그리고 여러 형제분들이 잠들어 있는 안성시 원곡면 지문리 산정봉(山亭峯) 기슭의 간좌(艮坐)로 이장했다。

왕조실록(성종13년 7월 7일)에 공의 성천부사(成川府使) 시절의 기록이 있음。(위의 현감공파 조 塤란 참조)

典翰公 崇慕碑銘

전한공 숭모비명

(前面) 안성 지문리 불지의 백련봉 산하(山下)는 해주최씨의 세장천(世葬阡)으로 산세(山勢)에 문기(文氣)가 어려 있는 길지(吉地)로서 수백 년 명조상(名祖上)의 묘를 지성으로 모시며 후손들이 화목하게 지내온 곳이다。전한공파 종의(宗意)에 의하여 公의 선조와 자손들이 안장되어 있는 이곳으로 公의 묘를 옮겨 모시게 됨에 따라 그 사유와 내력을 간략히 새긴다。

公의 휘는 연(堧)、字는 태보(台甫)이고 해주최씨(海州崔氏)의 시조이신 온(溫)조의 15세손으로 고려시대에 문하시중을 지내시고 은퇴 후 구재학당을 세워 인재를 많이 양성하여 해동공자의 칭호를 받으셨던 문헌공 충의 14세손이며 조선 세종시대의 명신으로 청백리에 수선되신 부제학공 만리(萬理)의 다섯 아들 중 막내로서 전한공 문중의 파조이시다。公께서는 세조 기묘年(1459)에 文科에 급제하여 제용감정 집현전 전한겸지제교 경연시강관 춘추관 편수관(濟用監正 集賢殿典翰兼知製敎 經筵侍講官 春秋館編修官)을 역임하셨다。여기에 함께 천묘한 헌납공 세걸(世傑)은 公의 외아들로서 성종 병오년(1486)에 문과에 급제하여 사간원 헌납(司諫院 獻納)을 지내셨으며 천묘시에 뵈오니 전해 듣던 바대로 기골이 걸출한 장부이셨다。公의 손자로는 공조참판을 지내신 응(凝)과 릉(凌)、빙(憑) 삼형제와 증손으로는 평안병마절도사를 지내신 수인(守仁)과 수의(守義)、수예(守禮) 삼형제를 두셨다。현손은 종성부사(鐘城府使)를 지내시고 당대 팔문장 삼당시인(八文章 三唐詩人)으로 유명한 고죽공 경창(孤竹公 慶昌)이며、이조판서를 지내신 만취공 집(晩翠公 潗)은 6세손이고、7세손은 참봉공 정해(參奉公 挺海)와 좌찬성 륵촌공 진해(左贊成 櫟村公 振海)이시다。충청병마절도사를 지내신 병사공 운서(雲瑞)와 경종시대에 영의정에 오르신 간재공 규서(奎瑞)는 9세손이며 그 외 선후대의 상세한 내력은 다 기록하지 못한다。

본래 두 분의 묘는 고양 선유리(高陽 仙遊里)에 있었으며 파주 교하문중에서 모셔왔으나 2004年 3月 30日 이

곳 산정봉의 기맥(山亭峯 氣脈)이 충만한 명당 간좌에 옮겨 모셨다.

이에 후손들은 충효 가문의 명맥을 이어 나라의 발전에 기여하신 선조의 높으신 뜻을 이어받은 후예로서 도리를 다하며, 가문의 뿌리를 굳건히 하는 숭조 양덕의 정신으로 자자손손 번영하기를 기원한다.

2004年 10月

公의 18世孫 이섭(理燮) 삼가 碑文을 짓고

전한공파 종의로

이 비를 세움.



전한공 연(堧)의 새 유택(지문리 어서각 뒤편)

十六世 司諫院獻納公 諱 世傑

사간원헌납공 세걸

字는 士豪(사호)이며, 전한공 연(堧)의 외아들이다. 성종 14년 계묘(1483)에 사마시(司馬試), 병오(1486)에 증광(增廣) 문과에 급제하여 한림정언을 거쳐 예조, 병조, 이조의 원외랑(員外郎, 正六)을 지내고, 연산4년(1498) 7월 25일 사간원(司諫院) 헌납(獻納, 正五)에 제수되어 쟁신(諍臣)으로서 부당한 폭정에 두려워하지 않고 항거하였다.

그 해의 무오사화(戊午史禍) 때에 좌직언(坐直言)하며 굴하지 않고 정쟁(廷爭)하다가 태안(泰安) 땅으로 출보(黜補, 지방직으로 쫓겨남)되어 40세 젊은 나이에 울분으로 생을 마쳤다. 그리고 6년 후 연산10년 6월 19일에 또 갑자사화(甲子士禍)에 부관참시(剖棺斬屍)를 당하였다.(왕조실록 13집 640면)

그후 중종반정(中宗反正)이 일어나 조정에서는 관리를 보내 글을 내려 제사를 지내게 하고 증직으로 증통정대부 병조참의(贈通政大夫兵曹參議, 正三)를 제수하였다.

배위는 숙부인 고령이씨, 교위(校尉) 이근선(李根善)의 딸이며, 조부는 좌찬성 이장손(李長孫)이다.

소생은 응(凝), 능(凌), 빙(憑)의 세 아들을 두었다.

묘는 선고(先考), 전한공과 함께 안성 불지로 면례하였다.

十八世 平安道兵馬使公 諱 守仁

평안도병마사공 수인

字는 일초(一初)、부제학 만리(萬理)공의 현손이며 양구현감(楊口縣監)을 지내고 공조참판(工曹參判、從二)의 증직을 받은 응(凝)의 장남이다。중종26년(1531)에 무과(武科)에 급제하여 경흥도호부사(慶興都護府使)、가선대부(嘉善大夫) 함경도병마절도사(咸鏡道兵馬節度使、從二)、병조참의(兵曹參議、正三)를 거쳐 평안도병마절도사 겸영변대도호부사(平安道兵馬節度使、從二 兼寧邊大都護府使、正三)를 역임하였다。

공은 관직에는 근면과 청렴으로 임하고、사리를 식별하는 능력과 재주、국량(局量)이 뛰어나 명종(明宗)의 총애를 받게 되어 특별히 절도사(節度使)로 제수되니 공의 명성과 공적이 세간에 알려졌다。또 북관성(北關城、함경도)을 지킬 때에는 번(蕃)、호(胡) 등 오랑캐들이 공을 두려워하여 복종하였다고 전한다。

배위는 정부인 해평윤씨로 도사(都事) 윤필경(尹弼卿)의 따님이며、슬하에는 외아들인 고죽(孤竹) 경창(慶昌)공과 두 딸이 있다。

묘는 파주시 교하면 다율리 고묘의 좌측 기슭(考墓左麓)에 건좌 합봉이다。(명종실록 20집)

十九世 孤竹公 諱 慶昌

고죽공 경창

孤竹集序

고죽 집서

余少也則聞孤竹詩詞是近世絶調時余未能曉事不知他求於公也壯歲得依金文敬公門墻獲與公嗣孫鎭安公父子遊因想像公家法之懿風流之美而惜其只以詩聞也及其老也遍閱公遺事又從先輩長者得公之事蹟尤詳乃喟然而歎曰是將以人掩詩而乃反以詩而掩人耶自恨其淺之爲知公也盖撮而言之則公之所與遊牛栗兩先生也朴思庵鄭松江辛白鹿諸公也古語云不見其山願見其木斯寔語也栗谷嘗以氷霜素履稱公盖其清苦之節人有所不堪而處之悠然見山海等閃姦之狀便絶舊栗以故玉堂湖堂銓郎之選皆被阻遏而終不悔焉其以先見之明諷切栗谷又似獻可之於司馬文正而其言之符合如左契焉然則公之爲人不待臚列而可知也公之詩雖逼於天寶元和豈足以掩其人乎抑公之詩栗谷先生稱之以清新俊逸有人合刊於白玉峯詩集則崔簡易豈以爲非所班而著說以難之華使朱給事之藩

歎賞不已並與鄭圃隱諸賢之作刊布於中朝若是者詩可以掩人乎人可以掩詩乎必有能辨之者矣公海州人諱慶昌字嘉運孤竹其號也隆慶戊辰及第官止鍾城府使鎭安公諱振海今收輯公詩而繡梓者其季胤碩英嘗遊文敬公門下者也鎭安公亦淸疎喜爲詩文敬公嘗稱其固窮之節云時

崇禎癸亥仲夏

恩津 宋時烈 叙

고죽집 서

내가 젊었을 때에 고죽(孤竹)의 시사(詩詞)를 들으니 바로 근세에 뛰어난 가락이었다。그때 나는 아직 사리에 밝지 못해서、공에 대하여 다른 것은 알아볼 줄을 몰랐다。

장년이 되어 김문경공(金文敬公)문하에서 공의 사손(嗣孫) 진안공(鎭安公)부자를 만나 노닐면서、공의 의젖한 가법(家法)과 아름다운 풍류를 상상해 보았다。그러나 안타까운 점은 시에 대해서만 들었다는 것이다。

내가 늙어서야 공의 유사(遺事)를 두루 찾아보고、또 선배·장자들을 통하여 공의 사적을 더욱 상세히 알고 나서는 한숨을 쉬며 말하였다。

「사람 때문에 시를 가린다더니、도리어 시 때문에 사람이 가리워졌었구나」

그리고는 내가 공을 안 것이 너무나 얕았음을 스스로 한탄하였다。간추려 말한다면、공이 더불어 노닌 분들은 우계(牛溪:성혼)·율곡(栗谷:이이) 두 선생이었으며、사암(思庵)박순(朴淳)·송강(松江)정철(鄭澈)·백록(白鹿)신응시(辛應時) 제공이다。옛말에 이르기를

「산은 보지 않고、나무만 보려 한다」

더니、참으로 바른 말이다。율곡이 일찌기

「얼음이나 서리 위에서도 스스로 마음이 평안한 사람」이라고 공을 평했으니、그의 청고(淸苦)한 기질을 다른 사람들은 감당할 수 없음을 말한 것이다。

「물끄러미 산과 바다를 바라본다」

등의 섬간지상(閃姦之狀)으로 구요(舊要)를 끊었으므로、옥당(玉堂)·호당(湖堂)·전랑(銓郎)1에 피선되었지만 모두 길이 막혔는데、끝내 섭섭해하지 않았다。공은 또한 선견지명(先見之明)이 있어 율곡을 풍간하고 또 사마문정(司馬文正)2에다가 견주었는데、그 말이 나중에 들어맞은 것이 마치 좌계(左契)3같았다。그러니 공의 사람됨을 하나 하나 다 기록하지 않고도 알 수 있을 것이다。

공의 시가 비록 천보(天寶)4·원화(元和)5의 시에 가깝다고 칭찬하지만、어찌 그 시로써 그의 사람됨을 가릴 수 있겠는가? 공의 시를 율곡선생은 「청신준일(淸新俊逸)하다」고 칭찬하였다。

어떤 사람이 공의 시를 백옥봉(白玉峰)6과 합하여 간행하였는데、간이(簡易)최립(崔岦)이 「두 시집을 한데 놓을 것이 아니다」고 생각하고는 설(說)7을 지어 비판하였다。

명나라 사신 급사(給事)주지번(朱之蕃)이 공의 시를 읽어

보고는 감탄하여 마지않더니, 포은 정몽주를 비롯한 여러 선현들의 시와 함께 책을 엮어 중국에서 간행하였다。이와 같은 점을 본다면 시가 사람을 가리겠는가? 아니면 사람이 시를 가리겠는가? 반드시 이점을 밝혀줄 자가 있을 것이다。

공은 해주 사람이니, 휘는 경창(慶昌)이요 자는 가운(嘉運)이고, 고죽(孤竹)은 그의 호이다。융경(隆慶)8 무진년(一五六八)에 급제하여 벼슬을 종성 부사(종三품)에 그쳤다。

진안공(鎭安公)의 휘는 진해(振海)이고, 지금 공의 시를 수집하여 간행하려고 하는 이는 그의 막내아들 석영(碩英)인데 일찌기 문경공(文敬公) 문하에서 글을 배웠다。진안공도 또한 청소(淸疎)하여 시 짓기를 좋아하였으니, 문경공이 일찌기 그의 고궁지절(固窮之節)을 칭찬하였다。

숭정(崇禎) 계해년9 五월, 은진(恩津) 송시열(宋時烈) 쓰다。

註：1。이조의 정랑·좌랑
2。문정은 司馬光의 시호
3。둘로 나눈 왼쪽의 절반
4。당나라 현종의 연호, 七四二—七五五, 두보와 이백이 활동하였다。
5。당나라 순종의 연호, 八〇六—八二〇, 백거이·유우석·한유·유종원 등이 활동하였다。
6。백광호의 호, 一五三七—一五八二, 고죽 최경창。손곡 이달과 함께 삼당시인으로 이름이 알려졌다。
7。(정옥봉고죽집합간불가설(訂玉峯孤竹集合刊不可說) [고죽집]에 부록으로 실려 있다。
8。명나라 목종의 연호, 一五六七—一五七二
9。숭정 시대에는 계해년이 없다。(고죽집)이 나온 一六八三년은 강희(康熙) 계해년이며, 송시열 식의 정확한 간기로는 숭정기원후(崇禎紀元後) 계해(癸亥)이다。

東溪祠

동 계 사

동계사는 영암(靈巖) 땅 구림(鳩林)에 사는 우리 해주최문이 경천 숭조의 뜻을 모아 세운 사우(祠宇)이다。

배향위(配享位)와 제향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 고려태사 중서령 문헌공 충(高麗太師中書令文憲公諱冲) 선조
- 세종조 집현전부제학。청백리 만리(世宗朝集賢殿副提學淸白吏諱萬理) 선조
- 고죽공 경창(孤竹公 慶昌) 선조
- 양파공 석징(陽坡公 碩徵) 선조
- 만성재공 치헌(晩醒齋公 致憲) 선조

제향(祭享)은 매년 음력 10월 초정일(初丁日) 전국의 문자질(門子姪)들이 참예한 가운데 향유(鄕儒)들이 집전한다。

영암지방에는 열두 姓氏의 사우(祠宇)가 있는데 그들은 영암향사회(靈巖鄕祠會)라는 명칭의 모임을 조직하여 회원 가문의 모든 향사(享祀)를 공동으로 주관하기로 하였다。각 제향을 주관할 유사(有司)와 참예할 제관(祭官)들은 매년 춘추 두 번 열리는 회의에서 선출하여 향사를 진행한다。따라서 동계사제를 주관하는 유사들은 本門의 자손이 아닌 타성의 향유(鄕儒)가 되고 참예하는 제관들은 본문의 자손들을 포함하는 열두 가문의 유림들로 구성된다。



동계사 본전



아름다운 月出山을 배경으로 고죽기념관(먼 위치)과 동계사(가까운 위치)가 나란히 위치한다.



영암 동구림리 회사정(會社亭)의 간재공의 詩 서호십경(西湖十景)

孤竹 崔慶昌선생 시비와 洪娘歌碑를 세우다

고죽 최경창 홍랑가비

전국 국어국문학 가비건립동호회에서는 一九八一년 十一월 七일(토) 오후 二시에 경기도 파주군 교하면 파율리(청석)에 고죽(孤竹) 최경창(崔慶昌) 선생의 시비와 홍랑가비(洪娘歌碑)를 건립하여 제막식을 거행하였다.

전국 국어국문학 가비건립동호회 회장 김동욱(연세대교수) 박사가 중심이 되어 전국적으로 이에 호응하는 학자 동호인들이 호응하여 옛 시인의 덕을 기리고자 시비 건립을 한 것이다.

전면에는 고죽(孤竹) 최경창(崔慶昌)선생의 「번방곡(翻方曲)」이 친필 필체로 음각되었다。『折揚柳寄與千里人爲我試向庭前種須知一夜新生葉憔悴愁眉是妾身 孤竹』그리고 후면에는 홍랑(洪娘)이 고죽에게 보낸 옛시조가 새겨졌다。『묏버들 ᄀᆞᆯ히것거보내노라님의손ᄃᆡ자시ᄂᆞᆫ창밧긔심거두고보쇼셔밤비예새닙곳나거든나린가도너기쇼셔·홍낭』

이 시비를 건립하기 위하여 동호인으로 참여하신 분들은 다음과 같다。

김동욱(연세대교수)、이태극(시인、주무간사)、최태호(전춘천교대학장)、최기호(상명여대교수、총무)、이숭녕(전서울대교수)、최철(연세대교수)、전규태(연세대교수)、신대철(국민대교수)、정현기(연세대교수)、설성경(연세대교수)、최내옥(한양대교수)、윤철중(상명여대교수)、박정희(시인)、강계순(시인)、이승훈(한양대교수)、임동석(건국대교수)、박기동(소설가)、한광구(시인)、유홍종(소설가)、김용석(경상대교수)、마광수(연세대교수)、강창민(시인)、홍정운(평론가)、안정헌(부산대교수)、성낙수(동덕여대교수)、김윤학(인천교대교수)、김철(평론가)、이윤석(효성여대교수)、한길(강원대교수)、허경진(목원대교수)、정명기(원광대교수)、임철호(전주대교수)、강영주(상명여대교수)、정혜원(상명여대교수)、박근영(상명여대교수)、윤태수(상명여대교수)、강전섭(대전실전교수)、권두환(서울대교수)、최원보(종친)、최인섭(종친)、최재학(종친)。

시비 제막식에는 이태극 간사께서 인사말씀이 있었고 강계순 여류시인의 시 낭송이 있었으며 최태호 종친의 답례말씀이 있었다。이를 모두 주선한 총무 일은 최기호 종친이 맡았다。이날 동호인들과 군수 및 군 문화재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주민들이 함께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주었다。

洪娘墓庭碑文

홍랑 묘 정비 문

홍낭은 관북(關北)인으로 기적(妓籍)에 올라 행적을 밝혀 전하는 바 없으나 출중한 재화(才華)로써 선조 고죽 崔公 휘 慶昌의 풍류 반려(伴侶)로 기록되어 있고、그의 절창(絶唱)인 시조 한 수가 오직 청아(淸雅)와 정숙(貞淑)을 담아 주옥(珠玉)으로 전할 따름이라。공이 북평사(北評事)를 퇴임하실 제 娘이 석별하여 바친 글월을 한역(漢譯)하여 번방곡

(飜方曲)을 읊으니 격조 높은 쌍벽(雙壁)으로 세전(世傳)되어 홍낭의 문명시사(文名詩史)에 빛나리라。

◎홍낭 詩는 위 시비(詩碑)에 있으므로 생략

고죽공이 관북(關北)에 유(留)하실새 낭(娘)은 막하(幕下)에서 조석(朝夕)으로 모시었고 적경(適京) 三年 후 요환(療患)하신다는 전언을 듣고 범계(犯界)하여 불원천리 七日 만에 상경(上京) 시양(侍養)했다 하며、후일 공이 종성부사(鍾城府使) 재임 중 경성(鏡城) 객관(客館)에서 돌아가시매 영구(靈柩) 따라 上京하여 공근시묘(恭謹侍墓)하니 지순고절(至純高節) 또한 당세(當世)에 빛나니라。 몰후(歿後) 문중(門中)이 의합하여 공의 묘소 곁에 예(禮)로서 후장(厚葬)하였으니 娘의 인품을 가히 알리라。이제 파주군 월롱면(月籠面) 소재의 누대 선영(先塋)이 정부의 국토계획에 인하여 징발되매 공의 예손(裔孫) 원보(元溥) 병희(秉喜) 등의 주선 발의로 영역(塋域)을 동군(同郡) 교하면 다율리(多栗里)에 개정하고 고죽공(孤竹公) 천장(遷葬)에 따라 낭(娘)의 묘소도 복원토록 하니 교하영역(交河靈域)의 첨가(添佳)라 할지로다。심산(深山)의 한 떨기 유향(幽香)이 어찌 명문(名聞)에 한(限)하랴。낭의 고결한 심지가 공의 유덕(遺德)과 문중(門中) 가화(佳話)로만 그치리오。새로 비에 명(銘)하여 기록함은 홍랑시인(洪娘詩人)의 영세(永世)를 기(祈)함이오、숭문위덕(崇文爲德) 조훈(祖訓)에 봉답하여 낭(娘)의 문명(文名)을 다시 현창(顯彰)하느니라。

서기 1965年 乙巳(己卯) 6月 ○日

고죽공 15세손 台鎬 근찬

춘파(春波) 이상선(李相宣) 근서

이 시비(詩碑) 건립에 참여했던 분들은 이숭녕(李崇寧、전 서울대 교수)、최철(연세대 교수)와 종친 최기호(상명여대 교수)、최태호(전 춘천교대 학장) 등을 비롯한 34명의 저명 문인들이었다。

2000년 1월 20일자 KBS-TV「역사스페셜」에서 공의 시를 소개한 바 있는데 이 영상 테이프는 KBS영상사업단을 통하여 구입할 수 있다。



서울예술단 가무극 "홍랑-그 애달픈사랑" 제작발표회. 2003. 4. 11(금)~13(일)까지 서울 예술의 전당 토월극장에서 있었는데 공연에 앞서 파주의 홍랑묘전에서 초혼제를 올리는 모습

孤竹記念館

고죽기념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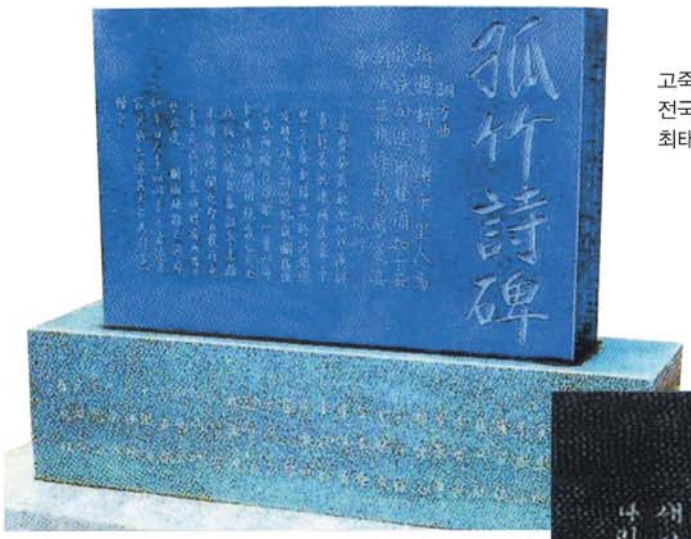
고죽공 후손(전한공파)의 집성촌인 전남 영암군 군서면 동구림리에는 후손들이 일찍부터 공의 사당(東溪祀 동계사)과 부속 재실(三樂齋 삼락재)、전사청(典祀廳) 그리고 시비

(詩碑) 등을 세워 지방 유림과 함께 공의 문학을 기려왔다.

그러던 중 2004년 4월에 지방정부와 종친 간의 후원을 받아 동계사 옆에 전통 건물 「고죽기념관」을 신축하여 공의 유작 유품과 사적을 전시하고 방문객과 선비들이 모여 옛 문학을 강론할 수 있는 장소가 마련되니 공의 명성이 더욱 빛나게 되었다.



고죽기념관 2004. 4. 개관



고죽시비(孤竹詩碑)
전국 국어국문학가 건립 시비. 이 시비는 이숭녕(李崇寧), 최철, 최기호, 최태호 교수 등 34명이 세웠다. (인물전 제5장 19世 慶昌 참조)



홍낭의 가비(고죽시비의 이면) 교하면 다율리

詩로 맺은 경창과 홍랑의 사랑
시

조선 시대 8문장 3당 시인
고죽 경창의 문명(文名)은 가문(家門)을 빛냈다.
우암 송시열은 훗날 고죽공을 추모하는 글에
〈이는 장차 사람으로서 詩를 덮으려 했는데
도리어 詩로서 사람을 덮음에 이르렀던가?〉
하며 공의 단명을 아쉬워했는데
공의 詩가 중국에서 발간되니
〈이는 詩가 사람을 덮을 수 있겠는가.
사람이 詩를 덮을 수 있겠는가.〉
반드시 그것을 가릴 사람이 있을 것이다.
하여 우리 가문의 才名을 추앙하였다.
더욱이 홍랑과의 아름다운 사랑은
영원한 로맨스로 만세에 전해지며
조선시대 여류 문인으로서
홍랑의 귀한 한글 시 한수는
국문학적 가치가 높이 평가되고 있다.
〈KBS 인물 특별 프로 방영〉

二十世 晩翠公 諱 潗
만취공 집

字는 심원(深源)、고죽공(孤竹公) 경창(慶昌)의 큰아들이다。선조 기묘년(1579) 식년시(式年試)의 생원시에 2등으로 합격하여 진보(眞寶、경북 청송)、연기(燕岐) 등 읍(邑)에서 관직을 역임하고 호조좌랑(戶曹佐郎、正六)에 이르고、후에 증손인 간재(艮齋) 규서(奎瑞)공이 귀하게 되니 증이조판서(贈吏曹判書)에 추증되었다。
공은 세상에 드물게 청렴하였고、능력은 있었으나 뜻하는 바가 있어 희망을 접고 대과(大科)에는 응하지 않았다。선조 25(1592) 36세에 임진왜란을 피해 영암 구적동(舊笛洞)의 외숙 댁에 가서 난리를 겪는데 왜적들이 영암의 조상을 모신 사당의 보물들을 빼앗아 가는 것을 보고 공이 울면서 간청하니 왜군들이 기물을 되돌려 주었다는 일화가 전한다。(수양세고、만취공연보)
배위는 전주이씨(全州李氏)로 증영의정(贈領議政) 극인(克仁)의 따님이다。소생으로는 두 아들 정해(挺海)、진해(振海)와 세 따님이 있다。

二十一世 順陵參奉公 諱 挺海
순능참봉공 정해

공의 字는 달보(達甫) 또는 여망(汝望、사마방목의 기록)이다。공은

만취공(晩翠公) 집(潗)의 큰아들로, 세종조에서 부제학과 강원감사를 지낸 만리(萬理)공의 8세손이며, 관은 순능참봉(順陵參奉)이었다.

부친 집(潗)이 기거하던 파주에서 작고(1614)하였는데 그에 관한 일화가 있다.

[일화] 공(부친 潗)은 일찍이 풍수(豊水、술사) 이의신(李懿信)과 친하게 지냈는데 그가 사형수(死刑囚)가 되어 죽임을 기다리고 있을 때에 공(潗)이 구원하는 글을 올려 사형을 면하게 되었다。그후 공(潗)이 별세했다는 부음을 듣고 이의신은 천리 길을 달려와서 묘 자리를 보는데 「人」자 형을 이룬 함영동(涵泳洞、파주) 해좌 언덕과 화장산(華藏山)을 두고 하는 말이 『화장산이 더 좋다。』고 했다。그런데 공(정해)의 형제들은 본래 풍수를 믿지 않는데다 함영동의 양대 선영이 집에서 가까운 탓으로 그곳에 장사를 지냈다。

그제야 이의신이 『풍수학으로 논하건대 참봉공 사손은 정체되고、진사공(櫟村公) 후손은 출장입상(出將入相)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이에 륵촌공(아우)이 대단히 심란하여 말하기를 『아버지로 볼 때에는 자손들이 고루 잘 되어야지 자손들 사이에 너와 내가 어디 있느냐。』하며 풍수의 말에 몹시 괴로워했다고 한다。(수양세고)

배위는 숙인 풍양趙氏로 승지(承旨) 증좌찬성(左贊成)을 지내신 희보(希輔)의 따님이다。슬하에 석후(碩後)、석연(碩衍)、석헌(碩獻) 등 세 아들을 두셨다。

묘는 파주 교하면 다율리 후원의 고(考)묘하 계좌에 합봉했다。

二十一世 櫟村公 諱 振海 륵촌공 진해

字는 여명(汝鳴)、부제학공(副提學) 만리(萬理)의 8세손、전한공(典翰) 연(堧)의 7세손이며 부친은 집(潗)이다。

기유년에 진사시(進士試)에 합격하고、진안(鎭安)에서 첫 벼슬을 시작하여 통정대부 안산군수(安山郡守)로 벼슬을 마쳤다。후에 증좌찬성 겸 판의금부사(贈左贊成、從一 兼判義禁府事、從一)에 제수되었다。

공은 성품이 소탈하여 옳은 일에는 곁을 보지 않고 그 일에 몰두하였다。궁하면서도 겸손하게 살았고、실정하는 광해군(光海君)에 대하여도 다른 선비들과 같이 항소하였으며、이이첨(李爾瞻)의 죄를 논하고、모두가 위태로워하는데도 홀로 흔들리지 않고 세태를 풍자하였다고 신독재(愼獨齋) 김공이 말하였다。그리고 인조반정(仁祖反正) 후에야 비로소 벼슬길에 나갔다。

공은 시문(詩文)과 초서(草書)、예서(隸書)에도 능하였으며 유고(遺稿)한 책이 있는데 고죽집(孤竹集)에 덧붙여 있으며 世人들이 일컫는 공의 행세(行世)에 대하여는 영상(領相)인 약천(藥泉) 남구만(南九萬)공이 글로 써 놓은 바 있다。

배위는 증정경부인(贈貞敬夫人) 의령남씨(南氏)이고、부친은 문과에 급제하여 호군(護軍)을 지내고 증 병조판서에 제수된 타(柁)이다。

묘는 불지촌 간좌(艮坐)에 쌍봉(男左女右)으로 위치한다。표석이 있으며 글씨는 영상(領相) 우암(尤庵) 송시열(宋時

烈)공이 썼다。

소생은 석징(碩徵)、석우(碩佑)、석유(碩儒)、석영(碩英)의 네 아들과 두 딸이 있는데、장남 석징(碩徵)은 고죽공의 처향(妻鄕)인 영암 구림에 落南하여 교거하였다。



륵촌공 묘 불지
어서각 후원에 위치하며 비문은 송시열(宋時烈)이 썼다.

櫟村集
륵촌집

륵촌공의 막내아들 석영(碩英)이 증조부인 고죽공(孤竹公)의 유고 《고죽집》을 간행할 때에 륵촌공의 시를 그 뒤에 붙이니 이것이 《륵촌집》이다。그중의 한 수를 소개하면 이렇다。

꿈인가 생시인가 (偶吟우음)

似夢還非夢
사몽환비몽
꿈과 같으나 다시 꿈이 아니어서

停杯且把杯1
정배차파배
잔을 멈추었다가 또 잔을 드네

誰知無限意
수지무한의
누가 알리오 한 없는 뜻이

得句自相開
득구자상개
싯구를 얻으면 스스로 열리는 줄을

약천(藥泉) 남구만(南九萬) 선생의 《륵촌 시집(詩集)》발(跋) (요약 발췌)

(전략) 륵촌 최공은 고죽공의 후손이다。고죽공은 시(詩)

에 대해 실로 정시(正始、바른 시초)의 음을 되돌려 놓았다。그리고 공이 민첩하고 통달한 재주가 있어 어려서부터 이미 시에 능하다는 명성이 있었다。(중략) 그 하나하나의 언어와 행동을 보니 뛰어난 기상이 날고 날아 시 아닌 것이 없었다。때로는 한두 수의 시를 보면 글이 완성하고 풍류가 사람을 엄습하니 천기의 움직임에 따라 문장이 이루어진 것이라 하겠다。공이 능히 시로 하여금 그렇게 한 것인가。시가 公으로 하여금 그렇게 한 것인가 알 수 없다。(중략) 사람으로서 시를 찾는 자가 그 사람에게서 찾지 않고 그 시에서 찾으니 그 성정의 진실함에서 어찌 떠나 멀지 않겠는가。비록 그러하나 사람의 수명은 유한하고、시가 후세에 전하는 바는 무궁하다。(중략) 성률(聲律)과 글귀의 묘함으로 문장의 나머지를 어찌 전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중략)

아、지금 볼 수 있는 것은 시요、볼 수 없는 것은 공이다。

그러나 내가 이미 사적으로 복이 있어 공을 보고 시가 그렇게 된 까닭을 알게 되었다。그리고 또 공의 시를 보는 자가 이로 인해서 공의 생애를 알지 못할까 두려웠다。이에 말하여 이 문집을 읽는 자에게 주노라。

숭정(崇禎) 후 계해(癸亥)년 九월 상한

자헌대부 병조판서 겸홍문관대제학 예문관대제학
지춘추관 성균관사 동지경연사(資憲大夫兵曹判書
兼弘文館大提學 禮文館大提學知春秋館
成均館事 同知經筵事)

남구만(南九萬) 쓰다。

二十一世 贈掌樂院正公 諱 自亮
증장악원정공 자양

자는 여향(汝鄕)、부친은 연학(蓮鶴)이며 성균진사(成均進士) 능(凌)의 현손으로 전한공 연(堧)의 7세손이다。

관은 증통훈대부 장악원정(掌樂院正、正三)이다。

배위(초취)는 증숙부인 강릉김씨로 一男 청원(淸元)을 낳았으며、배위(재취) 밀양박씨는 차남인 증 통정대부 호조참의(戶曹參議、正三) 명원(明元)을 낳았다。묘는 공주군 반포면(反浦面) 어득운동(魚得雲洞) 현 대덕군 탄동면 안산리、같은 언덕의 임좌(壬坐)에 있다。

二十二世 陽坡公 諱 碩徵
양파공 석징

字는 구경(久卿)、륵촌공(櫟村公) 진해(振海)의 큰아들로 본래 병약하여 벼슬길을 사양하고 오로지 수신제가(修身齊家)에 힘써 선조 대대로 인연이 깊은 구림(영암군 서면)에 낙향하여(僑居) 향풍 수립에 힘쓰셨으며 후에 증가선대부호조참판、겸동지의금부사、오위도총부부총관(贈嘉善大夫戶曹參判兼同知義禁府事五衛都摠府副總管、從二)에 제수되었다。

배위는 원주이씨(原州李氏)이고 승의랑(承議郎) 해(海)공

註：1。파배(把杯)：술잔을 듦。

의 따님이다。묘는 영암군 해암리(海岩里)에 쌍봉으로 모시고 비문은 조카인 영상(領相) 규서(奎瑞)공이 지으시고、서상국(徐相國) 명균(明均)공과 원교(圓嶠) 이광사(李匡師)가 글씨를 썼다。

소생으로는 운서(雲瑞)、구서(龜瑞)、린서(麟瑞)의 세 형제가 있다。

二十二世 進士公 諱 碩佑
진사공 석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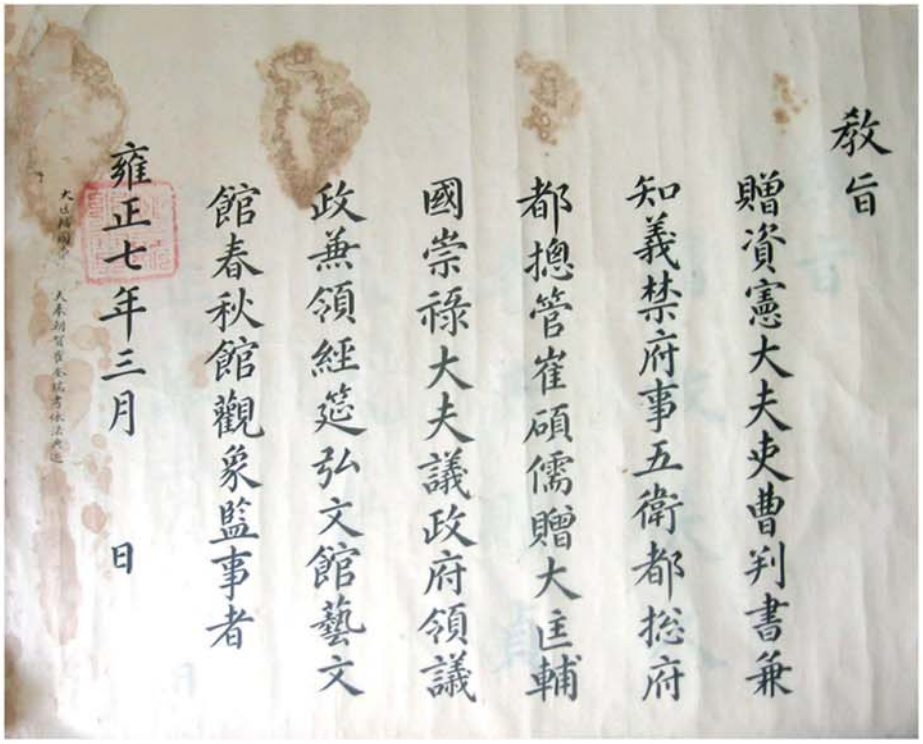
字는 중경(重卿)、륵촌공(櫟村公) 진해(振海)의 둘째 아들로 을해(乙亥) 진사에 합격하여 예빈시 별제(禮賓寺 別提)를 역임하였다。

배위는 숙인(淑人) 해주오씨(海州吳氏) 세헌(世獻)의 따님이다。묘는 불지 산정봉(山亭峰)하 계좌 합봉으로 있으며、후취로 언양김씨(彦陽金氏)이었는데 소생은 경산현령(慶山縣令) 두서(斗瑞)、진사 천서(天瑞)와 진사 응서(應瑞)의 세 아들과 세 딸을 두었다。

二十二世 砥平縣監公 諱 碩儒
지평현감공 석유

字는 도경(道卿)、륵촌공(櫟村公) 진해(振海)의 셋째 아들이고、공의 대를 이은 분이 간재(艮齋) 규서(奎瑞)공이다。공은 지평현감(砥平縣監)을 지내고 후에 증 의정부영의정(贈議政府領議政)에 제수되었다。

공은 일찍이 신독재(愼獨齋) 김선생(金集)의 門下에서 오랫동안 노서(魯西)에 있는 우재(尤齋)와 더불어 예학(禮學)을 배우고 여러 어른들과는 도의(道義)를 갖추어 교제하였다。


敎旨
贈資憲大夫吏曹判書兼
知義禁府事五衛都摠府
都摠管崔碩儒贈大匡輔
國崇祿大夫議政府領議
政兼領經筵弘文館藝文
館春秋館觀象監事者
雍正七年三月 日

지평공 최석유(崔碩儒) 교지

장서(藏書)로서는 예학(禮學)에 관한 책 《문변(問辨)》이 있다.

배위는 증정경부인 광주김씨이며, 묘는 안성 불지의 8대조인 부제학(副提學) 만리(萬理)공 묘하에 을좌로 합봉되었다. 비문은 아들인 간재공(艮齋)이 지었다.

二十二世 司藥寺正公 諱 碩英

사도시정공 석영

字는 거경(巨卿)、륵촌공(櫟村公)의 四子로 영상(領相) 규서(奎瑞)공의 생부이다。공은 연천(漣川)、문화(文化)、회양(淮陽)읍 등에서 관리를 지내고 사도시정(司藥寺正、正三)을 역임하였다。중형(仲兄)인 의정공(議政公) 석유(碩儒)공과 더불어 신독재(愼獨齋) 김선생 문하에 들어가 수학을 하는데 학행(學行)이 반듯하고、사우(師友) 간에 토론을 하는데 있어서도 논리 정연함이 돋보여 그 중추역할을 하였다。

배위는 숙인 광산김씨(光山金氏)로 묘는 8대조인 부제학 만리(萬理)공 묘하에 합봉 하였고 비문은 영상(領相) 남구만(南九萬)공이 짓고、아들 간재공(艮齋公)이 비문 내용을 기록해 놓았다。슬하에는 익서(翼瑞)、규서(奎瑞、중부출계)、성서(星瑞)와 딸 한 분이 있다。

二十三世 艮齋公 諱 奎瑞

간재공 규서

艮齋公 略譜

간재공 약보

1669 현종10년(20세) 진사시(進士試) 급제
1680 숙종6년(31세) 별시문과(別試文科) 급제
1681 숙종7년(32세) 권지승문원 부정、춘추기사관(權至承文院副正、春秋記事官)
1682 숙종8년 (33세) 승문원주서(承文院注書)
1685 숙종11년(36세) 양구현감(楊口縣監、從六)
1686 숙종12년(37세) 사간원헌납(司諫院獻納、正五)
1688 숙종14년(39세) 양주목사、성균관대사성(楊洲牧使、成均館大司成、正三)
1690 숙종16년(41세) 司諫院 大司憲(正三)、장희빈의 왕비책봉에 반대하다
1692 숙종18년(43세) 청주목사(淸州牧使、正三)
1694 숙종20년(45세) 전라감사、홍문관부제학、병조참의(全羅監司、弘文 館副提學、兵曹參議、正三)
1697 숙종23년(48세) 춘추관사、병조참판겸부총관(春秋館事、兵曹參判兼副摠管)
1698 숙종24년(49세) 형조참판、예조판서(刑曹參判、從二、禮曹判書、正二)

1700 숙종26년(51세) 이조판서、좌참찬(吏曹判書、左參贊、正二)
1701 숙종27년(52세) 형조판서(刑曹判書、大司憲、從二)
1702 숙종28년(53세) 한성판윤(漢城判尹、正二)
1706 숙종32년(57세) 형조판서겸수어사(刑曹判書兼守御使)
1709 숙종35년(60세) 개성유수(開城留守、從二)
1711 숙종37년(62세) 지중추부사(知中樞府事、正二)
1721 경종원년(72세) 의정부우의정、좌의정(議政府右議政、左議政、正一) 소론(少論)의 영수(領首)로서 숙종 승하 후 老論 대신들이 장희빈의 소생인 경종을 폐하고 世弟 영조를 옹립하여 대리 섭정하려는 모사를 철회시킴。이 일로 辛壬사화가 일어나 노론이 실각함。
1723 경종3년(74세) 영의정(領議政、正一)에 오름
1724 경종4년(75세) 치사봉조하(致仕奉朝賀) 후 기로소(耆老所)에 들다。
1728 영조4년(79세) 이인좌 등의 逆謀에 대한 급보를 영조에게 고변(告變)하므로 역란을 토평케하여 나라를 안정시킴。이 공로로 一絲 扶鼎이라는 영조의 친서(御書)를 받게 되며 공평무사하고 청렴 결백한 성품으로 조선 중기의 중흥시대를 일으킨 영조시대 정치에 큰 영향을 주었다。
1735 영조11(86세) 1월 1일 별세。영조묘정(英祖廟廷)에 배향 봉사。배위는 정경부인(貞敬夫人) 전주이씨로 첨추(僉樞) 증 이조판서 훤(藼)의 따님이다。묘는 안성 불지 백련봉(白蓮峰) 아래 축좌에 합봉하였고、신도비문은 성균관 좨주(祭酒) 심육(沈錥)이 찬하였다。공의 소생은 상진(尙震)、상복(尙復)、상정(尙鼎)、상겸(尙謙)、상관(尙觀)、상리(尙履) 등 여섯 아들과 두 따님이 있다。


간재공 영정 81세 당시 화가 심약섭(沈若涉)이 그린 화상(畵像)

불세출의 명신 艮齋公 奎瑞

간재공 규서

실사구시(實事求是)로 왕(王)을 가르치고、독려하여 조선 중흥(朝鮮 中興)의 대업을 도모하다。

붕당의 폐가 극심하던 난세를 지극한 절제와 예지로 한 점의 오점도 없이 치기(治己)하고 치세(治世) 하셨으며 실사구시(實事求是)의 근간를 영조에게 가르치고、독려하므로 조선의 중흥(中興)을 선도한 국사(國士)로서 탕평책을 구현시켜 나라를 안정시킨 공을 우리는 숭모하고 본받아야 할 것이다。

절검을 治道로 삼아 愛民한 궁행은 전라감사 시절 삼한(三閑)1이라는 송덕의 노래로 전했다。

올곧은 신념으로 역도의 무리를 누르고 국가의 안위를 지켰으니 〈일사부정(一絲扶鼎)〉내린 어필(御筆)과 정문(旌門) 또한 가문의 자랑이며 봉조하 내린 교서와 英廟에 배향은 영세불망의 光榮이다。

간재공은 가을 잎새 뿌리로 돌아감은 대자연의 순리라는 일념으로 남에게 욕되는 일이나 말은 입 밖에 낸 일이 없으며 욕심을 초개처럼 버리고 이름도 감추었으나 삼한의 노래는 碑文을 이기고도 남음이 있다。

註 : 1。전라감사로 재임 시에 청렴과 검약을 솔선하여 당시에는 부서한(簿書閑、관청 문서가 한가함)、공방한(工房閑、아전들이 한가함)、기악한(妓樂閑、기생、풍악이 한가함)을 삼한(三閑)이라 하였다 한다。

御書閣

어서각

어서각(御書閣)은 조선 중기에 충정(忠貞) 규서(奎瑞)공에게 내리신 영조(英祖)의 어서(御書)와 공의 영정(影幀)을 모신 정각(旌閣)이다。

英祖가 『일사부정(一絲扶鼎)』의 어서를 내리실 당시、공의 집은 협소한 와옥(瓦屋)이고 용인군 어비리(龍仁郡 魚肥里)의 시골집도 초가삼간인지라 막중한 御書를 봉안할 길이 없다 하여 사양하니、과연 청백한 충신이라 탄복하시며 공이 노구를 이끌고 용인에서 漢城까지 나라의 안위를 걱정하여 밤을 새워 상경하는 노고가 크다 하시며 앞으로는 서울에 기거하며 자주 만나 국사를 의논케 하라 하셨다。그리고 해당 부서에 명하여 가옥을 수축하고 그 옆에 어서각을 따로 지어 어서(御書)를 봉안케 하시고 자주 국사에 자문을 청하며 음식과 태의(太醫)를 보내셨다。그리고 영조4년 어서각이 준공되니 「어서각골」이라는 이름이 생겼다。공이 작고하던 1735년 새해 아침、다례(茶禮)를 마치고 자손에게 훈계도 하며 종일 즐기다가 저녁이 되매 北向四拜로 왕께 하직을 드리고

『나는 천수(天壽)를 다하고 이승을 하직할 것인즉 사후에 왕께서 국장(國葬)과 능묘(陵墓)를 봉하실 것을 명하시면 이를 고사하고 받지 말 것이며、검소하게 장례를 치르고 국비를 축내는 욕됨이 없도록 하라。』는 유언으로 임종소(臨終疏)를 구술(口述)하고 해시(亥時)에 서울 사제(私第)에서 생

을 마쳤다。사후에 과연 국장과 능묘(陵墓)로 봉하라는 명이 있었다。그러나 고인의 유언을 말씀드리고 고사하니 왕께서는『간재공(艮齋公)은 생시에나 사후에나 변함없는 청백리요、백세(百世)의 사장(師長)이라。』고 탄복하시며「충정(忠貞)」의 시호를 내리시고 종묘(宗廟)에 배향하시니 지금도 영조의 묘정(廟廷)에 배향되어 봉사(奉祀)하고 있다。

공의 사후、경기 여러 곳에서 서원의 건립을 주청하였으나 왕(王)께서는 당시 국고 절약책으로 서원건립이 금지되어 있을 뿐 아니라、국장도 고사하는 충신이어늘 어찌 최봉조하(崔奉朝賀)를 욕되게 하겠느냐고 윤허치 않으셨다。그리고 3년 후 윤4월에 貞洞에 소능사우(少陵祠宇、少陵은 공의 호)를 짓고 해당 부서로 하여금 제급제수(題給祭需)1케 하셨다。

어서각과 소능사우는 1895년(고종 을미) 외인(外人)이 강점하여 부득이 불지(佛智、안성땅)로 이축 봉안하게 되었으며、정동 유지에는 미국대사관이 들어서 있다。

이 어서각(御書閣)의 유지 보수는 쉬운 일이 아니었다。그러던 중 1986년 정부는 어서각에 대한 역사적 보존가치를 인식하고 안성시 향토유적지 제6호로 지정하였고、그 후 2001년에는 안성시에서 시비(市費) 8천만 원을 들여 낡은 어서각의 본 건물과 삼문(三門) 그리고 담장 등 전체를 해체하고 다시 복원(復元)하는 공사를 단행하였다。건축양식은 팔작(八作)지붕에다 한식 골기와를 얹은 목조건물이며 정면은 4。94m、측면(側面)은 3。7m의 규모이고、담장은 높이 약 1。5m 둘레 50m의 돌담으로 쌓았으며 맞배지붕의 삼문(三門)은 넓이 4m 높이 2m 크기이다。

새로 단청으로 단장한 어서각 내부에는 전각(篆刻)한 어서의 목판 편액(扁額)과 공 81세 당시 화가 심약섭(沈若涉)이 그린 영정(사진판)、그리고 공의 약보는 정면에 봉안(奉安)하였다。우측 벽에는 영조(英祖)께서 내리신 어서 하사에 대한『비망기(備忘記)』와 좌측 벽에는 도정공(都正公) 홍(璜、理燮 고조부)이 쓴『일사정중수기(一絲亭重修記)』를 전각한 목판 편액을 게시하였다。



영암 동구림리 회사정(會社亭)의 간재공의 詩 서호십경(西湖十景)

(어서각과 어서각 현판의 사진은 제6장 제2절에 별도 수록함)

공의 화상(畵像)은 79세 때에 사화사 진재해(使畵師 秦再奚)가 그린 것과 81세 때에 심약섭(沈若涉)이 그린 두 벌이 보존되어 있다.

문중(門中)에서는 장차 전시대(展示臺)를 마련하여 간재공(艮齋公)의 유품을 전시하고 또 유품 도록(遺品圖錄)도 제작할 계획이다. 어서와 영정의 원본은 종손이 따로 보관중이다.

註 : 1. 제급제수 : 제수를 책임지고 주관, 공급케 함.

一絲扶鼎의 故事와 어서각

일사부정 고사

艮齋公에 관한 이야기

간재공

고대(古代)의 큰 쇠솥은 부족 국가가 형성되는 청동기시대에 부족의 결속을 다지는 중요하고 귀한 기구로서 많은 백성을 먹여 살릴 수 있는 나라 또는 君主를 상징하는 뜻이 있었다. 한자의 「솥 정(鼎)자」는 삼발이라는 세 개의 다리가 있는 받침대 위에 그릇을 올려놓고 불을 피워서 사용하는 형상을 하고 있는 것이니 이는 삼정승이 王을 받들어 보좌하는 형태로서 군주시대의 통치기구가 由來된 것이다. 고서(古書)에 정신혁고(鼎新革故)라는 말은 王을 바꾸는 역성혁명(易姓革命)을 뜻하며 솥을 물려준다는 것은 통치권을 넘겨준다는 뜻이다.

이러한 古書를 바탕으로 한 일사부정(一絲扶鼎)이라는 영조의 어필(御筆)은 한 오리의 실로 무거운 솥을 붙잡는 것과 같은 감당하기 어려운 일을 해냈다는 것으로 이는 한 신하의 충정이 나라와 군주를 위기에서 구했다는 치하의 뜻을 담고 있는 것이니 군주로서 큰 공을 세운 충신에게 보내는 최선의 의례였다고 볼 수 있다.

조선 중기인 숙종(1675~1720) 때에는 사화가 빈발하여 많은 사람이 화를 입는 등 정정이 불안한 때에 숙종이 죽자(1720) 사사(賜死)된 희빈장씨의 소생인 경종의 왕위 승계 문제로 노론과 소론의 다툼인 신임사화(1721~1722)가 일어나 노론이 실각하고 경종이 집권 4년 만에 후손이 없이 죽고(경종4년 1724) 숙빈최씨의 소생인 영조가 왕위를 승계하게 되었으므로 초기에는 왕권이 불안정하였다. 이때에 불만을 품은 무리들이 영조4년(1724)에 이인좌 등이 주동이 되어 군을 추대한다는 명분을 세우고 역란(逆亂)을 일으켜 큰 기세로 한양을 향해 진군해 오고 있었다.

소론의 영수였던 公은 관직에서 물러나 있었으나 이에 대한 급박한 정보를 입수하고 파당을 초월하여 나라의 변란을 막고자 79세의 늙으신 몸을 무릅쓰고 용인에서 철야로 상경(上京)을하여 영조에게 고변하면서 이 일로 무고한 원옥이 없도록 신신 당부를 했다. 이에 영조는 병조판서 오명항을 도원수로 하는 관군을 보내어 안성에서 반란군을 토평하

게 하므로 나라와 조정을 안정시키는데 큰 공을 세웠다。

영조는 이 공로를 치하하여 상을 내리고자 부르셨으나 公은 사양하고 입궐하지 않았으며 특등공신 봉훈도 고사하여 영조가 친필로 일사부정(一絲扶鼎)이란 의미 깊은 文句의 어서(御書)를 하사하게 된 것이다。

영조의 친필 하사는 파당을 초월하여 공평무사하고 청렴결백하며 상훈에 초연한 公을 가까이 모시고자 하는 명분의 깊은 뜻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실제로 이후 국정의 중대사를 수시로 公과 의논하였다고 한다。

왕권을 확립한 영조는 탕평책을 써서 당파싸움을 억제하고 실사구시(實事求是)의 정신을 근본으로 실학을 일으켜 민생을 위한 정치에 최선을 다하므로 조선 중기의 중흥시대를 이룩하는 선정을 하였으며 당시 왕에게 하루 다섯 차례 올리던 수라상을 백성들과 똑같이 잡곡밥으로 세 번 올리도록 하고、후궁을 멀리하는 등 솔선하고 절제하는 생활로 82세까지 살면서 52년간 집정하여 조선조 최 장수(長壽)의 집권과 수명을 보존하는 기록을 남겼으니 이는 영조의 世弟 시절부터 직접 가르치셨고 또 은퇴 후에도 스승과 신하의 입장에서 사심 없이 영조에게 자문하였던 公의 영향이 컸을 것이다。

1735년 公이 86세에 운명하자 영조는 公의 시호를 충정(忠貞)이라고 내리고 불천지위(不遷之位)로 모시도록 명하였으며 종묘에 배향하는 특전을 베풀었다。

公은 운명하기 전에 가족들에게 나라의 재산을 축내는 국장(國葬)을 고사하고 가족장(家族葬)으로 지낼 것이며 묘전(墓前)에 석물 치례도 하지 말도록 유언하였으니 이 말을 들은 영조는 公의 충정에 다시 한 번 감탄하셨다고 한다。

그러나 너무 초라한 것은 정승에 대한 예가 아니라 하여 병풍석만 두르고 그 외의 치장은 하지 않게 되었다。이로 인해 지금까지 정승의 묘전답지 않게 간소하게 갖추어진 것이니 이는 후손들이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길이 본받을 일이라 하겠다。이 일은 훗날 역모에 관련되었던 후손들이 公에 대한 행적을 밀사하던 중 公의 묘소를 돌아본 후 公의 청렴한 公私의 분별에 감복하여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게 되므로 우리 후손들이 정쟁에 화를 당하는 일을 피하게 되었으니 수신제가(修身齊家)하신 선조의 명철함이 후대에 미친 덕분이라 할 것이다。

公은 생전에 무려 63건의 상소를 올려 조정의 시책을 바로 잡는데 진력을 다하였으며 저서에는 간재집(艮齋集)이 있다。그리고 전라감사로 재임 시에는 청렴과 검약을 솔선하여 당시에는 부서한(簿書閑、관청 문서가 한가함)、공방한(工房閑、아전들이 한가함)、기악한(妓樂閑、기생。풍악이 한가함)의 삼한(三閑)이라 하였다 한다。

종묘에 배향한다는 것은 역대 왕조의 제사를 올릴 때 당대에 큰 공신들에게도 제를 올려 함께 모시는 것이니 신하로서는 최상의 예우라 할 수 있다。

불천지위(不遷之位)란 이름 높은 분의 공을 기리기 위하여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 숭모의 제사를 모시도록 한다는 특별조치이다。

置祭田于坡州陽城先塋下
치제전우파주양성선영하
坡州紫谷陽城簉籌累代
파주자곡양성운당누대
先塋未有祭田至是乃皆置墓田
선영미유제전지시내개치묘전

공은 파주 자곡과 양성 운당의 여러 대의 선영에 위답이 없음을 늘 죄스럽고 안타깝게 생각하고 모든 선영에 위답을 장만하였으니 정사에 바쁜 가운데에도 조상을 모시는 효심이 컸음을 알 수 있다。

疏
소

辭持平疏 肅宗乙丑
사지평소

伏以臣稟性愚下本無一能而重以早罹疾病懶散自廢
嘗然無有知識雖幸會明時忝竊科第而投置閑散是臣
分之宜也不意茲者 聖恩誤加至處以臺憲之職臣承
命驚惑不知所措夫臺閣之職上拾君遺下糾官邪品秩雖卑其責任之重則與宰
相無異當今朝廷雖乏人亦何可使如臣等輩苟且冒充以淆官方乎使 聖上啓他日輕臺閣之心者未必不自臣身始臣用是爲懼若夫衆議之唯點一身之顚沛直是第二件事而辭疏未上 召牌先降分義至嚴不得不趨詣闕下而其不敢抗顔承當則固已決矣伏乞聖明爲朝廷名器之重亟許鐫改其職則臣亦遂其秋分而無僨敗之憂矣公私實爲幸甚臣無任悃蹙屛營之至

지평(持平)을 사양하는 상소 숙종을축년
신이 엎드려 아뢰옵건대、신은 성품이 우둔하여 본디 한 가지도 능(能)한 바가 없고 게다가 일찌기 병까지 들어 게으르게 스스로를 포기하였으며 어리숙하게 식견도 없사옵니다。비록 다행히 밝은 시대를 만나 과분하게도 과거에 급제하였으나、그냥 일없이 한가히 지냈는데、이것은 신(臣)의 분수에 마땅한 것이었습니다。그런데 이제 뜻하지도 않게 지극한 성은을 입어 대헌(臺憲：사헌부(司憲府))의 직책에 처하게 되었사옵니다。신(臣)은 어명을 받잡음에 놀랍고도 당혹스러워 몸둘 바를 모르겠사옵니다。대저 대각(臺閣)의 직책이란 위로는 군주의 실수를 보필하고 아래로는 관리의 비리를 바로 잡는 것으로、비록 품계는 낮지만 그 책임의 막중함은 재상과 다름이 없사옵니다。오늘날 조정에 비록 사람이 없다고는 하나 그렇다고 어찌 臣과 같은 무리들로 하여금 구차하게 인원수나 채움으로써 관계(官界)를 어지럽게 할 수가 있겠사옵니까？만약에 성상(聖上)께옵서 훗날 대각(臺閣)을 가벼이 여기는 마음을 갖게끔 하신다면、그것은 반드시 신 자신으로부터 비롯될 것이므로 신은 이

때문에 두렵사옵니다。대저 중의(衆議)의 비웃음과 일신(一身)의 엎어짐 같은 것은 단지 후차적인 일인지라 사직상소를 올리지 못하고 있었는데、조서가 먼저 내려오고 분부가 지엄하셔서 대궐에 바삐 나아가지 않을 수 없었사옵니다。하오나 무례하게 감당하는 것을 감히 할 수 없음은 진실로 이미 결정난 것이옵니다。엎드려 청하옵건대、성상께옵서 조정의 작위의 중함을 헤아리사 그 직책을 다시 임명하기를 빨리 윤허해주신다면、臣 또한 사사로운 분수를 지켜 일을 그르치는 근심이 없게 될 것이므로、공적으로나 사적으로나 실로 매우 다행한 일이 될 것입니다。신은 부끄럽고 방황하는 마음을 가눌 길이 없사옵니다。

註：1。사헌부(司憲府) 정오품(正五品) 벼슬

辭正言仍請西北人擇人通淸疏

사정언 잉청서북인택인통청소

伏以臣於再昨引避之啓伏承 聖批辭旨極嚴顯示訾訾之色臣不勝瞿然悚蹙而且聞筵中又有北路人備擬臺窠之敎此實臣等之言不足爲有無之致臣之本分固已不堪於言責之地而雖欲包羞在列勉其所不能今臣言議旣已無槪於 上心矣其何敢一日在職無補於 聖朝面有妨於賢路哉且臣素患痰火之症觸署重發雖不敢列錄証情猥屑於 黈纊之下而根委已痼眞元益脫委頓床席不能省事昨承 召牌未得祗赴臣罪至此尤合萬殞伏乞 聖慈亟許削臣職名仍治臣罪以爲違慢之戒不勝幸甚且臣今雖竢罪職名尚存當盡一日之責旣有所懷亦安得默然而退乎臺閣之職上拾君遺下糾官邪爲任至重任用之際惟當付之公議非人主所得私也向於除拜之時不問其才望之如何公議之許否一切以收用西北爲名終至於苟且備擬當初 聖旨縱出於立賢無方之意然其訶督銓官貯窠特叙者恐亦未免於偏係之歸也且夫言責之地固非慰悅遠人之資若欲甄拔收用則唯當擇其人望表著可能稱塞者然後乃可以鎭服人心而使遠外瞻聆有所聳動也今此新除之命旣非常格而所授之人又出於人望之外公議安得以不激名器安得以不淆也臣等再昨之避蓋出於無隱之義而 殿下逆以威怒相加塞其將言之口而輾轉激惱又擧頃日所未擧之事遂使臺閣言議之地爲捧承傳備擬之窠臣等之言雖無足可取其於言路何其於後弊何哉臣愚於此亦不能無惑焉西北之人 殿下未嘗一見其爲人未必知其有可用之實然且曲意愛護如恐或失而至於昔者所進亦豈無可用之人哉一言忤 旨輒加譴退無復有收用之望臣竊恐 殿下此擧只欲以慰悅

遠外之心而非爲官擇人之意不勝慨然也臣愚衷所激輒忘其違忤之誅譏裸之嫌乃復畢其說焉伏乞　聖明垂仁採納焉臣無任惶蹙屛營之至

정언(正言)을 사직하고 아울러 서북인(西北人)을 택인(擇人)할 때 통청(通淸)을 청하는 상소

엎드려 아뢰옵건대、臣이 이틀전에 하직하겠다고 아뢰었으나、성상(聖上)의 비답(批答)을 삼가 받자오니、말씀의 뜻이 지엄하고 마땅치 않게 여기는 기색을 드러내시는지라、臣은 두렵고 황송함을 이기지 못하겠사옵니다。한편 듣자오니、연중(筵中)1 서 또한 북로인(北路人)이 비의(備擬)2 되었다고 하는데、대각(臺閣)의 가르침은 실로 신등(臣等)의 말로써 결정하기에는 부족하옵니다。그래서 신의 본분으로는 진실로 이미 언책(言責)의 소임을 감당할 수 없는지라、비록 부끄러움을 숨긴 채 관리의 반렬(班列)에 서서 능치 못한 바를 애써 노력하고자 하나、이제 臣의 의론은 이미 주상의 마음에 들어 차지 않게 되었사옵니다。그러니 어찌 하루라도 관직에 있으면서、성조(聖朝)에 보탬이 되지 못하고 현로(賢路)를 막아서야 되겠사옵니까? 또한 臣은 평소에 담화증(痰火症)이 있어서 여름이 되면 심해지옵니다。비록 감히 병의 증세를 열거하여 어전을 어지럽히지는 못하오나、근력의 쇠잔함이 이미 고질이 되었으며 원기가 갈수록 빠져、침상에 드러눕는 지경이 되어、조정의 일을 돌볼 수가 없사옵니다。어제 조서를 받았으나 삼가 나아가지 못하여、臣의 죄가 여기에 이르렀으니、만번 죽어도 마땅하옵니다。엎드려 청하옵건대、성상께옵서 신의 관직을 삭탈하고 신의 죄를 다스림으로써 법을 어기고 오만함에 대한 경계로 삼은 것을 윤허해 주신다면、천만다행으로 여기겠습니다。또한 신은 지금 죄를 기다리고는 있으나 직명(職名)이 아직 남아 있으므로 하루의 책임일지라도 다해야 할 것이니、이미 마음에 품은 생각이 있는데도 어찌 묵묵히 그냥 물러가리이까? 대각(臺閣)의 직책이란 위로는 군주의 실수를 보필하고 아래로는 관리의 비리를 바로 잡는 것으로 그 책임이 막중하온지라、임용할 때에는 모름지기 공의(公議)에 따라야 하며 군주가 사사로이 할 수 있는 바가 아니옵니다。지난번 제수(임명)할 때에는 그 사람의 재주와 명망이 어떠한지 그리고 공의(公議)의 허락여부 일체를 묻지 않으시고 서북인(西北人)을 수용하여、결국 구차하게 비의(備擬)함에 이르렀사옵니다。당초에는 성지(聖旨)가 비록 현인을 기용할 때 출신을 가리지 않는다는 의도에서 나왔을 지라도、감독하는 전관(銓官)3이나 대궐에 있는 특권자가 또한 편파적인 데로 흐름을 면하지 못할까봐 걱정되옵니다。또한 대저 언책(言責)의 지위는 진실로 원인(遠人)을 위안하고 기쁘게 해주는 자격은 아니옵니다。만약에 발탁하여 임용하고자 한다면、모름지기 인망(人望)이 뛰어나고 직분에 들어 맞을 수 있는 자를 뽑은 연후라야 비로소 인심(人心)을 감복케 하고 원외인(遠外人)으로 하여금 따르게 하여、경외하는 마음을 갖게 할 수가 있는 것이옵니다。이번에 새로 제수하신 명

은 이미 격(格)에 합당하지 않으며、제수받은 사람 또한 인망(人望)에서 벗어난 데서 나왔으니、공의(公議)가 어찌 격렬하지 않으며 관직이 어찌 소란스럽지 않겠사옵니까? 신 등(臣等)이 이틀전에 사직한 것은 대개 모든 일을 숨김없이 하자는 뜻에서 나온 것이었으나、전하께오선 도리어 크게 진노하사 장차 말하려는 입을 막으시어 고민 속에 전전긍긍하게 하셨사옵니다。또한 지난날 거론하지 않았던 일을 거론하사、마침내 대각(臺閣)의 언의(言議)의 자리로 하여금 비의(備擬)하는 일을 받들어 전하게 하셨사옵니다。신등(臣等)의 말이 비록 가히 취하기에 부족하다 하더라도、언로(言路)는 어찌 하실 것이며 훗날의 폐단은 어찌 하시렵니까? 어리석은 臣은 이에 또한 의혹을 품지 않을 수가 없사옵니다。서북인(西北人)은 전하께서 일찌기 한 번도 그 사람됨을 보시지 않으셨으므로 그에게 가히 쓸만한 자질이 있는지를 반드시 알지는 못하시는데도、또한 왜곡되게 비호하사 마치 혹 잃지나 않을까 걱정하시는데、지난번에 천거한 자 중에 또한 어찌 가히 쓸만한 사람이 없겠습니까? 한 마디 말이 聖旨에 거슬린다 하여 문득 물리쳐 버리시고 더이상 수용하시려는 가망이 없으시니、어리석은 臣이 생각컨대 전하의 이번 거용은 단지 원외인(遠外人)을 위안하고 기쁘게 하시려는 마음에서 나온 것이지 관직에 맞는 사람을 선발하려는 의도는 아니온지라、유감스런 마음을 이길 길이 없사옵니다。어리석은 신이 거센 공론을 헤아려、성지(聖旨)에 거슬리는 죄와 간언(諫言)의 혐기(嫌忌)함도 잊은 채 다시 말씀을 드리옵니다。엎드려 청하옵건대、성명(聖明)께옵서 부디 어지신 마음으로 간압하여 주시옵소서。신은 황송하고 송구스런 마음을 가눌 길이 없사옵니다。

註：1。임금과 신하가 자문주의(咨問奏議)하는 자리。
2。관원(官員)을 임명할 때 리(吏)·병조(兵曹)에서 세 사람의 후보자를 추천하는 일。
3。문무관(文武官)을 전형하는 직위에 있는 이조(吏曹) 당상관(堂上官)과 병조판서(兵曹判書) 등을 일컬음。

以前任吏曹佐郎時事自引仍
辭獻納疏 丁卯
사헌납소

伏以臣本庸愚最出人下任職居官無一善狀而至於昨年被罪實坐慢忽記注之嚴秘而 聖德偏覆譴責甚輕感祝 恩私自甘永棄不意茲者遞加收叙畀之以言責之任臣誠驚惶愧蹙不知所措其在分義只當趨走承命之不暇第當初諸臣之被罪朝家之定律雖有五十步百步之別若論其所犯則一也目今同罪數人尚未離編配而臣獨揚揚入臺閣夫豈自安於心哉臣之情勢決不敢胃進又有大於此者臣於往歲忝叨銓郎也實發柳成運通清李東郁復擬臺望之議伊後臺章重加駁劾以詮官之不即自處爲有失於廉義臣雖先坐他罪已離其職論

其罪責實無所逃即今在銓諸臣相繼辭遞彈墨尚未乾矣同被一事之劾而彼退此進必無是理其何敢以職名之或殊而晏然榮次不顧羞恥哉古人以廉恥列之於四維之目而以其不張爲亡國之憂雖凡官庶僚或有冒昧於是者爲臺閣者唯當彈論之不置況身爲臺閣豈可親自犯之乎伏乞聖明亟許削臣職名俾得同罪以重廉防不勝幸甚

전에 이조좌랑직(吏曹佐郎職)을 맡았을 때 일을 스스로 사죄하며, 아울러 사직하면서 충언(忠言)을 올리는 상소 정묘년

엎드려 아뢰옵건대, 신은 본디 용렬하고 우둔하며 사람들 중에서 가장 하출(下出)이어서, 관직에 거하는 동안 훌륭한 행적이 하나도 없었사옵니다。작년에 죄를 지은 것은 실로 기주(記注)1의 엄중한 비밀을 소홀히 한 탓인데도, 성덕(聖德)이 두루 미쳐 견책이 심히 가벼운지라 성은에 감읍하면서 스스로 기꺼이 영원히 버림받을 각오를 하였사옵니다。그런데 뜻하지도 않게 오늘 문득 언책(言責)의 임무를 맡겨 거두어 주시니, 신은 진실로 황공하고 송구스러워 몸 둘 바를 모르겠사옵니다。도의상으로는 마땅히 지체없이 급히 달려가 어명을 받들어야 하옵니다만, 당초에 여러 신들이 지은 죄는 조정의 정해진 법률상 비록 오십 보 백 보의 차이는 있을 지언정, 만약에 법을 어긴 바를 논한다면 모두 한 가지 이옵니다。지금 함께 죄를 지은 몇몇 사람들은 아직 귀양자 명부에서 빠지지 않았는데, 신만이 홀로 대각(臺閣)에 들어간다면 대저 어찌 스스로 마음에 편안하겠사옵니까? 신의 처지로는 결코 감히 들어갈 수가 없사옵니다。또한 이보다 큰 일이 있사온데, 신이 지난 해에 전랑(銓郎)2직을 욕되게 한 것은 사실상 류성운(柳成運)을 통청(通淸)3하고 이동욱(李東郁)이 대각의 의론을 재론한데서 발단이 된 것으로써, 이후에 대장(臺章)4에 거듭 탄핵이 더하여 져서 전관(銓官)에 나아가지 않았으며 청렴한 도의에 잘못을 저질렀음을 자인하였사옵니다。신이 비록 먼저 다른 죄에 연루되어 이미 그 직책을 그만두었으나, 그 죄의 책임을 논한다면 실로 피할 수가 없사옵니다。지금 전형(銓衡)함에 있어 제신(諸臣)이 서로 연명한 탄핵문이 아직 마르지도 않았는데, 같은 일로 함께 탄핵을 받은 자 중에서 어떤 이는 물러나고 어떤 이는 나아간다면, 이런 이치는 전연 없는 법이옵니다。그러니 어찌 감히 직명(職名)이 혹 다르다고 해서 편안히 영전하여 수치스러움을 돌보지 않겠사옵니까? 옛사람은 염치(廉恥)를 사유(四維)5의 덕목에 나열하여 이것을 펼치지 못하는 것을 나라를 망하게 하는 근심으로 여겼사옵니다。비록 뭇 관료들 중에 혹 이러한 것을 모르고서 대각에 오른 자가 있더라도 마땅히 탄핵을 피하지 못하는 법인데, 하물며 대각에 오른 신분으로 어찌 스스로 이를 범할 수 있겠사옵니까? 엎드려 청하옵건대, 성명(聖明)께옵서 신의 직명(職名)을 삭탈하시어 함께 벌함으로써 염치와 예방(禮防)을 엄중하게 하도록 하신다면, 그 다행

스러움을 이기지 못할 것이옵니다。

註: 1。언어와 동작을 그대로 기록함。
2。이조(吏曹)의 정랑(正郎)
3。청관(淸官)이 될 자격을 얻는 일。
4。조정의 기강
5。나라를 유지함에 필요한 네가지 수칙(守則)。즉 례(禮)·의(義)·렴(廉)·치(恥)

伸救前縣監良佐等疏

신구전현감양좌등소

伏以臣以無似最承 恩造旬日之內再遷其職而父病沉重俱未得祗謝至於日昨違牌罪在不赦而譴責不加 溫批反降臣誠惶隕感激不知所措臣之父病尙在危篤之境盖緣眞元旣脫差道未易而臣亦憂惶焦煎之中身病重作頭痛如碎肢體軟麻熱上神暈飮啖全廢殆不省人事旬月之內決無更起之理臣於旣往累犯逋慢之科而今之疾病又如此雖 天地父母曲賜矜諒其在人臣分義亦何敢帶職養病自安於心乎伏乞 聖慈永削臣姓名於朝籍使得以仰救老父俯延殘喘不勝幸甚臣於病伏中得接數日邸報伏見朝著不靖國事可憂職在可言之列寧可無一言而退乎臣窃伏見故儒臣尹宣擧與奉朝賀臣宋時烈同時相友俱爲宗儒士林之所以尊仰景慕者夫豈有異同哉及至今日不幸是非之端出於兩家人心之訝惑衆趨之靡定誠亦無足恠者而朝廷不復叅究人情只以抑塞一邊爲鎭定之地至於語逼其父而反咎其子之私痛公議其師而欲禁門生之伸辨此常情之所甚疑惑而論議之日益磯激者也羅良佐之凌踏 三朝禮遇之元老誠不爲無罪然其本情亦出於各爲其師而言不知擇耳自朝家明其是非斥其狂妄則可矣何至於荒裔之竄配哉喉司之覆逆臺閣之陳啓盖出於此而 殿下不賜舒究遽加威怒遞罷譴黜一節加於一節終至於朝著一空補闕無人臣未知此何擧措此何景象臣竊觀此事雖曰士林之是非初亦何關於民生之休戚國計之得失哉而至于今日勝負相角之際國己先受其病大老疏中所謂逐鹿而不見泰山者誠是痛切語而今日之至於如此者亦豈所以安大老之心哉今者人無賢不肖不問玆事是非皆曰亡國之禍根必在於此臣誠不欲出而當職頹波助瀾以重其病國之罪而況臣向以柳成運通淸事得罪於時彈墨未乾成運卽爲尹拯陳疏見斥者也當此之時臣之徊徨却顧不敢冒進於榮次者亦由於此 殿下若或以臣言爲是而務爲鎭定調劑之道則國家之幸臣亦與焉如其不然則臣前日之罪亦

足歸黨比慢賢之科而不可使齒於仕籍況此薇垣淸顯之地哉伏願 聖明幷加財處焉臣無任惶蹙屛營之至

答曰省疏具悉疏辭無非伸救之意予實駭然也勿辭察職

전현감양좌(前縣監良佐)등을 구제해 주기를 청하는 상소

엎드려 아뢰옵건대、신은 불초한 몸으로 성은(聖恩)을 가장 많이 입어 십여일만에 다시 그 관직에 천임(遷任)되었으나、부친의 병이 위중하여 삼가 감사의 말씀을 갖추지도 못하였사옵니다。일전에 조서를 어긴 죄는 용서받지 못할 것이었는데도 견책을 가하지 않으시고 도리어 인자하신 비답(批答)을 내려주시니、신은 진실로 황공하고 감격하여 몸 둘 바를 모르겠사옵니다。신의 부친의 병은 아직 위독한 지경에 있사온대、대개 원기가 이미 빠져나가 차도가 쉽게 나지 않으며、신 또한 근심하며 마음 태우고 있던 중에 몸에 병이 재발하여 머리가 깨지는 듯이 아프고 사지가 휘청거리고 정신이 혼미하고 식음을 전폐하여 거의 인사(人事)를 불성(不省)할 지경에 있사온지라、열흘이나 달포 안에는 결코 다시 일어날리가 없을 것이옵니다。신은 기왕에 누차 법령을 어긴 죄를 범했으며 지금의 질병이 또한 이와 같으니、비록 천지(天地)의 부모(父母)께서 긍휼하신 아량을 곡진하게 내려 주신다 하더라도、남의 신하가 된 도리상 또한 어찌 감히 관직에 머물면서 병을 보양하는 것이 스스로 마음에 편안하겠사옵니까? 엎드려 청하옵건대、성자(聖慈)께옵서 조정의 관적(官籍)에서 신의 성명을 영원히 삭탈하시어、위로는 노부(老父)를 보살피고 아래로는 저의 남은 목숨을 이어 가도록 해주신다면、진정 다행이겠사옵니다。신이 병중에 몇일 동안 저보(邸報)를 접하고서 엎드려 보건대、조정이 화합하지 못하여 국사가 가히 근심스러우니、신의 직분이 간언을 하는 반열에 있는지라 어찌 한 마디 말씀도 올리지 않고 그냥 물러나리이까? 신이 삼가 엎드려 보건대、옛 유신(儒臣)인 윤선거(尹宣擧)와 봉조하신(奉朝賀臣)인 송시렬(宋時烈)은 같은 시대에 서로 우의를 나누며 모두 종유(宗儒)가 되었으므로 사림(士林)이 존경(尊敬)하고 앙모(仰慕)하는 까닭에 대저 어찌 이동(異同)이 있겠사옵니까? 그러나 금일(今日)에 이르러 불행히도 시비의 발단이 양가(兩家)에서 비롯되어、인심(人心)이 말다툼으로 미혹되고 사람들이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를 정하지 못하는 것도 진실로 또한 이상할 게 없사옵니다。그런데 조정에서는 더이상 인정을 살피지 아니하고서 다만 한 쪽만을 억눌러서 진정의 바탕을 삼았으므로、말로 그 아비를 핍박하면서 도리어 그 자식의 사적인 병폐를 허물하고 그 스승을 공논(公論)하면서 제자들이 변론을 펴는 것을 금하려고 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으니、이것은 인지상정(人之常情)에 심히 의혹되는 바로써 논의가 날로 거세어지고 있사옵니다。나양좌(羅良佐)가 삼조(三朝)에서 예우하는 원로(元老)를 능멸한 것은 진실로 죄가 없는 것은 아니나、그러나 그 본심은 또한 각각 자기 스승을 위하려는 마음에서 나온 것으로 말을 가려서

할 줄 몰랐을 뿐이옵니다。그러니 조정에서는 그 시비를 밝히어 그 망령됨을 벌하면 되었을 텐데 어찌하여 황량한 곳에 유배시키는 지경에 이르렀습니까? 후사(喉司)1가 삼가 대각에 올린 진계(陳啓)는 대개 이러한 뜻에서 나온 것인데、전하께서는 자세히 살펴보시지도 않으시고 갑자기 진노하시어、파직시켜 내쫓으심이 한 마디에 한 마디를 더하듯이 하시어、결국에는 조정이 텅비어 빈 자리를 채울 사람이 없을 정도에 이르르게 되었사오니 신은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그리고 이 일이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모르겠사옵니다。신이 삼가 이 일을 살펴보건대、비록「사림(士林)의 시비가 애당초 또한 어찌 민생(民生)의 안위(安危)와 국가 대계(大計)의 득실(得失)에 관계있겠는가」라고 말들하지만、금일(今日)에 이르러 승부를 가리느라 서로 다투는 사이에 나라가 이미 먼저 그 병폐를 받고 있으니、대노(大老)의 상소 중에 이른바「사슴을 쫓느라 태산(泰山)을 보지 못한다」는 말이 진실로 매우 적절한 말이옵니다。오늘날 일이 여기에 이른 것이 또한 어찌 대로(大老)의 마음을 편안케 하는 바이겠사옵니까? 금자(今者)에 사람 중에 어진 자나 불초한 자나 이 일의 시비를 묻지 않는 이가 없으며、모두들「나라를 망하게 하는 화근이 반드시 여기에 있다」고 말하옵니다。신은 진실로 조정에 나아가 직책을 맡으면서、무너지는 파도에 물결을 더하듯이 나라를 병들게 하는 죄를 가중시키고 싶지는 않사옵니다。하물며 신은 일찌기 유성운(柳成運)을 통청(通淸)한 일로 당시에 죄를 지어 탄핵문의 먹물이 아직 마르지도 않았사옵니다。성운(成運)은 바로 윤증(尹拯)을 위하여 상소를 올리다가 내쫓긴 자이옵니다。이 일을 당했을 때 신이 방황하고 머뭇거리면서 감히 영전(榮轉)됨에 나아가지 못한 것도 또한 이런 이유 때문이었사옵니다。전하께서 만약에 혹 신의 말이 옳다고 여기시어 조화롭게 진정시키는 방법에 힘쓰신다면 나라의 총신(寵臣)들도 또한 참여할 것이옵니다。그러나 만일에 그렇지 않으시다면、신의 전일(前日)의 죄도 또한 파당을 지어 현자(賢者)를 업신여긴 죄과에 속하게 되어 관적(官籍)에도 끼지 못하게 될 것이온대、하물며 중서성(中書省) 고관의 직위임에랴 말할게 있겠사옵니까? 엎드려 원하옵건대、성명(聖明)께옵서 아울러 살펴 처리해 주시옵소서。신은 황공하고 송구스런 마음을 가눌 길이 없사옵니다。

비답왈(批答曰)：상소를 살펴보고 잘 알았노라。상소의 말엔 그릇됨이 없으나、구제하기를 청하는 뜻에 대해서는 내가 실로 놀랍도다。사직하지 말고 직책을 지키라。

註：1。주로 왕명출납(王命出納)과 조정의 중대한 언론을 맡았던 벼슬아치。

辭副修撰疏
사부수찬소

伏以臣於春間忝在言地妄陳一疏上承 嚴旨於君父下見非斤於羣議而至於館學章甫之疏詆侮特深遂乃歸之於無狀小人之科臣於是不覺心骨俱悸唯有杜門循省絶意宦途小爲自靖之計矣 聖渥洪深復置仕籍

騎郎泮職之除連在於數月之內而職是閑漫不敢控辭
黽勉隨行中心慚懼不意館職之　命復下於此際而繼
又有　召旨臣誠惶竇惘蹙不知所以自措也臣性質愚
下見識蒙暗自揣本分固已不堪於論思之地曾前忝據
追思尚且愧悔况今滓穢之蹤尤何敢復厠於近密之班
抗顔於積謗之餘以自喪失其廉隅而重致物情之駭點
哉玆未免縮伏私室坐違　嚴命伏乞　聖慈亟許削臣
職名仍治臣逋慢之罪以爲後人之戒不勝幸甚臣無任
惶蹙屛營之至

答曰省疏具悉爾其勿辭從速察職

부수찬(副修撰)을 사직하는 상소

엎드려 아뢰옵건대、신은 봄(春)에 욕되이 언관의 지위에 있으면서 망령되게 상소문을 올려、위로는 군부(君父)에게서 엄한 뜻을 받들고 아래로는 군의(群議)로부터 비난을 당했사옵니다。그리고 성균관 유생에 관한 상소에 대해서는 비방과 꾸짖음이 특히 심하여、마침내 무례한 소인의 죄를 짓고 말았사옵니다。신은 이에 나도 모르게 마음과 몸이 모두 두려움에 떨며、오직 문을 걸어 잠근 채 반성하면서 벼슬길에 생각을 끊고 부족하나마 스스로를 다스리는 계획을 세웠사옵니다。그런데 성은이 넓고도 깊으시어 다시 관적(官籍)에 올려 주시고 기랑반(騎郎泮)의 직에 제수하여 주신지가 어느덧 몇 달이 되었사옵니다。직책이 한가하여 감히 사양하지 못하고 힘써 노력하여 수행하였으나 마음 속으로는 부끄럽고 두려웠는데、뜻하지도 않게 관직(館職)[1]의 명이 차제(此際)에 다시 내려오고 이어서 또한 조지(召旨)가 있고 보니、신은 진실로 황공하고 송구스러워 스스로 몸둘 바를 모르겠사옵니다。신은 성품이 우둔하고 식견도 몽매하여 자신이 진실로 논사(論思)의 지위를 감당할 수 없음을 스스로 헤아리고 있사옵니다。일찌기 전날의 망녕됨을 생각해 보면 아직도 부끄럽기 짝이 없는데、하물며 이제 더러워진 자취로써、어찌 감히 전하를 곁에서 모시는 반열에 서서、무성한 비난속에서 얼굴을 쳐들고 스스로 방정(方正)한 행실을 상실한 채로、세상 이치에 해가 되는 오점을 거듭 이르게 하겠사옵니까? 이에 물러나 사실(私室)에 엎드려 엄명을 어기나이다。엎드려 청하옵건대、성자(聖慈)께오서 신의 직명을 삭탈하시어 신의 무도(無道)함을 다스림으로써 후인들에 대한 경계로 삼기를 윤허해 주신다면、정말 다행이겠사옵니다。신은 황송하고 송구스러운 마음을 진정 가눌 길이 없사옵니다。

비답(批答) 왈：상소문을 살펴보고 잘 알았으니、그대는 사양하지 말고 속히 돌아가서 관직을 살피라。

註：1。홍문관(弘文館) 부제학(副提學) 이하 관원(官員)의 총칭。

辭大司成疏
사대사성소

伏以無似如臣猥被 殊私忝竊匪分玷汚名器者固已多矣居常憂懼若負重罪今於千萬夢寐之外又有 新命臣於是尤不勝駭惶震悸之地惟玆國子之長實爲一時重選自非宿德重望人所共信固無以表率多士而爲其矜式今臣空踈滅裂不合是職之狀非但通朝之所共知仰惟 聖上則哲之明必已下燭無餘矣若其稱塞之難固非如臣等輩所可疑議而只此師儒之稱亦已愧汗沾衣無以抗顔也歷數曾前居是職者率皆一代人望所屬未有如臣之不才蒙學而驟躐叨冒者況前任之人其年輩地望亦豈臣比而猶且屢辭而獲遞臣於此尤何可冒昧承命使物情駭點而多士笑侮哉蹙伏數日恭竢駁議而尚未有聞玆不得不仰籲 嚴廬之下伏乞 聖明察臣此言出於肝膈腸非如虛辭例讓之比亟許鐫改臣新授職名以重師儒之任以安愚臣之分公私實爲萬幸

대사성을 사직하는 상소

엎드려 아뢰옵건대, 신과 같이 무례한 자가 외람되이 남다른 은혜를 입어 분수를 모르고 주제넘게 직위를 더럽힌 것이 진실로 이미 여러 번이었사옵니다. 그래서 마치 중죄(重罪)를 지은 것처럼 늘 걱정하고 두려워 하면서 지냈는데, 지금 천만 뜻 밖에도 다시 새로운 어명이 있고 보니, 신은 이에 더욱 놀랍고 두려움에 떨리는 마음을 이기지 못하겠사옵니다。생각컨대 국자감(國子監)의 장(長)은 진실로 한 시대의 중요한 선임(選任)이므로, 스스로 훌륭한 덕망과 뛰어난 명망으로 사람들이 모두 믿는 바가 아니면, 진실로 여러 선비를 대표하여 모범이 될 수가 없사옵니다。지금 신은 결점이 많고 보잘 것이 없어서 이 직책에 합당하지 못한 상황은 다만 온 조정이 모두 알고 있는 바일 뿐만이 아니오니, 우러러보건대 성상께오서 명철함을 반드시 남김없이 비추셔야 할 것이옵니다。합당한 사람을 헤아려 임명하는 어려움은 진실로 신과 같은 무리들이 논의할 바가 아니오나, 다만 이 사유(師儒)라는 칭호에 대해서는 또한 이미 부끄러워 흘리는 땀이 옷을 적시어 얼굴을 들 수가 없사옵니다。역대로 일찌기 이 직책에 있었던 자는 모두 한 시대의 인망(人望)이 모였던 자들이었으며, 신처럼 재주없고 학식이 낮으면서 욕심 많게 갑자기 높은 자리에 오른 자는 없었사옵니다。하물며 전임자(前任者)는 그 연배(年輩)나 지위와 명망에 있어 또한 어찌 신에 비하겠사옵니까? 그런데도 오히려 누차 사양하여 다른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사옵니다。이에 신은 더욱 어찌 사리를 따지지 않고 어명을 받들므로써 인정(人情)을 소란스럽게 하여 여러 선비들의 비웃음과 모욕을 당하겠사옵니까? 몇일 동안 움츠린 채 엎드려서 삼가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아직 전하께서 듣지 못하시고 계시온지라 이에 부득이 무례하게 지엄하신 어전에

서 고개를 쳐들고 아뢰옵니다。엎드려 청하옵건대、성명(聖明)께오서 신의 이러한 말이 진심에서 나온 것이며 헛된 말로 예의상 사양하는 것이 아님을 헤아리사、신에게 새로 제수하신 직명을 거두시어 사유(師儒)의 임무를 중요하게 하심으로써 어리석은 신의 본분에 안주할 수 있도록 윤허해 주신다면、공적으로나 사적으로나 진실로 천만 다행이겠사옵니다。

以全羅監司因殿最後門備自引辭職疏

이전라감사인전최후문비자인사직소

伏以臣稟賦孱弱不比恒人而累經草土重罹奇疾輾轉沉痼幾三十年閑居無事尙且懍懍恒若不保朝夕況此制劇之任夫豈一日所可堪者哉當初拜命之時非不知量力揣分以懇辭得請爲期只以老母臨年餘日無多區區烏鳥之私誠有所急不暇於他顧者而 國恩之辜負軀命之損傷臣亦自知之矣今玆荏任已過半年而黜陟不得嚴風浴不得正民隱一無所恤邑弊一無所革戶素之誅固已難逭於公法之下雖以文簿末節言之殿最一事最爲嚴重而猶不免有落漏之失此事如此他事可知其何敢冒昧蹲仍徒竊廩粟而已哉加以數月以來舊疾增重日就難醫之域雖不敢列錄症情猥徹於聽 纊之聽而閉門委頓今已累日邑牒民訴並皆停滯雖欲強起應事精神昏錯氣息綿綴終無自力之望臣之生死固不足恤而本道多事之地緣臣癏曠至此此尤臣之罪也伏乞 天地父母俯察疾病之難強且念官事之隳廢亟許鐫削臣職名以便公私不勝幸甚

전라감사로서 전최(殿最)1한 후에 책임을 추궁하시니 스스로 사죄하며 사직하는 상소

엎드려 아뢰옵건대、신은 타고난 자질이 병약하여 보통 사람들과 같지 않아、여러 번 거상(居喪)하는 중에 거듭 이상한 질병에 걸려 점점 고질이 되어 거의 삼십년 동안 일없이 한가로이 거하였는데도、오히려 위태로와 늘 조석(朝夕)을 부지하지 못할 듯 하였사옵니다。하물며 이러한 관리를 단속하는 임무를 대저 어찌 하루라도 감당할 수 있겠사옵니까? 당초 임명되었을 때、역량과 분수를 헤아릴 줄 몰랐던 것은 아니지만、간절한 말로 기다려 주실 것을 청한 것은、다만 노모(老母)의 임종이 몇일 남지 않아서 까마귀 새끼가 제 어미에게 효도하는 그러한 구구한 사정(私情)에 너무 급급한 나머지 다른 것을 돌볼 겨를이 없었기 때문이었사옵니다。그러나 국은(國恩)에 죄를 짓고 신명(身命)을 손상시킨 것을 신은 또한 스스로 알고 있사옵니다。지금 임무를 맡은 지가 이미 반년이 넘었으나、출척(黜陟)2을 엄

하게 하지 못하고 풍속을 올바르게 하지 못하여, 어려움에 처한 백성 중 어느 누구 한 명 규휼해준 바가 없고 읍의 폐단 중 어느 것 하나 개혁한 바가 없사오니, 직무를 충실히 수행치 않고 녹만 받아 먹은 죄는 진실로 이미 국법을 피하기 어렵사옵니다。비록 조정에 아뢸 글월과 장부 따위를 가지고 말하더라도 전최(殿最)의 일이 가장 엄중한 것이나 오히려 누락하는 실수를 면하지 못하였사옵니다。이 일이 이러하니 그밖에 다른 일은 가히 알만 하옵니다。그러니 어찌 감히 사리를 헤아리지 않고 그냥 머물면서 헛되이 나라 곡식만 훔쳐 먹고 있겠사옵니까? 게다가 몇 달 동안 옛 병이 더욱 심해져 날로 치유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사옵니다。비록 감히 병의 증상을 열거하여 전하의 귀를 번거롭게 하지는 못하오나、문을 닫고 들어 누운 지가 지금 이미 여러 날이 되어 읍의 공문과 백성들의 소송이 아울러 모두 처리되지 않고 쌓여 있사옵니다。비록 억지로 일어나 일을 처리하려고는 하지만 정신이 혼미하고 숨이 금방이라도 끊어질 듯하여 끝내 스스로 일어날 가망이 없사옵니다。신의 생사는 진실로 긍휼히 여기기에는 부족하지만、본도(本道)는 일이 많은 곳인데 신의 병이 길어져 여기에 이르고 보니、이것은 더욱 신의 죄이옵니다。엎드려 청하옵건대、천지의 부모되시는 전하께오서 질병은 억지로 하기에 어렵다는 것을 깊이 헤아리시고 또한 관사(官事)가 황폐되는 것을 걱정하시어、신의 직명을 삭탈할 것을 윤허해 주심으로써 공사(公私)를 편안하게 하신다면 정말 다행이겠사옵니다。

註:1。감사(監司)가 관하(管下) 각 고을 수령(守令)의 치적(治績)을 심사하여 上을 최(最)、下를 전(殿)이라 하여、일년에 두 번씩 중앙에 보고함。
2。功이 없는 사람을 내어쫓고 功이 있는 사람을 올려 쓰는 일

辭副提學疏 乙亥
사부제학소

伏以臣於前月中在全羅道任所伏聞有玉署 新命環顧悶憂措身無地繼又得聞前叅議臣徐宗泰以不顧嫌避之失重遭駁議宗泰即臣之僚婿也臣之除拜亦在於宗泰叅政之日而所叨之職又非等閒淸望之比恭俟物議者已閱月矣而尙未聞有改正之事今旣交龜進發前路所受密符當爲還納而職名尙在不可冒入修門始敢於中道猥陳危悃冀垂 裁察焉臣之立朝供職首尾十有餘年其姿性之魯下文學之空踈聖明之所洞燭通朝之所共知則經幄論思之任夫豈有一分近似者哉曾前亦嘗屢叨館職終至冒昧隋行而至今追思愧汗沾衣況此一館之長比之諸僚地望自別歷數耳目所記曾未有如臣無似而冒居是職者也若其稱塞之難則固非如臣等輩所可擬議而只是國家名器之重不幸自臣身壞了其所以震懼徊徨而不敢進者奚但爲一身廉義而已哉伏乞 天地父母曲賜鑑諒亟許鐫削臣新授職名俾臣

得以進復　明命退處田廬上無濟官之失下遂守分之願公私不勝萬幸臣無任祈懇屛營之至

答曰省疏具悉爾其勿辭從速察職

부제학을 사직하는 상소 을해년

엎드려 아뢰옵건대、신은 지난 달에 전라도의 임지(任地)에서 홍문관(弘文館)에 새로 임명되었음을 삼가 듣자오니、무능한 자신을 돌아봄에 민망스러워 몸둘 바가 없사옵니다。이어서 또한 듣건대、전(前) 참의(叅議)인 신 서종태(徐宗泰)가 꺼리고 싫어함을 돌아보지 않은 잘못으로 거듭 반박을 당했다는데、종태는 바로 신의 동서이고、신의 배임(拜任) 또한 종태가 정사에 참여할 때 외람되이 거하던 직책이며、또한 청렴과 인망이 있는 사람을 등한히 해서는 안되는 지라、삼가 중인(衆人)의 평론을 기다린 지가 이미 한 달이 넘었는데도 아직 개정된 일이 없음을 듣지 못했사옵니다。지금 이미 교구(交龜)1가 진행되고 있으므로、전날에 받았던 밀부(密符)를 마땅히 반납해야 하오나、직명이 아직 남아 있어서 함부로 대궐에 들어갈 수가 없사옵니다。그래서 감히 중도에서 외람되게 진실한 마음을 아뢰옵나니、깊이 헤아려 주시기를 바라옵니다。신이 조정에 서서 직책을 받든 지가 전후로 십여년이 되었지만、그 자질이 노둔하고 학식이 보잘것 없는 것은 성명(聖明)께오서 잘 알고 계시는 바이며 온 조정이 모두 아는 바이오니、경연(經筵)에서 논사(論思)하는 임무에 대저 어찌 조금이라도 근사(近似)함이 있겠사옵니까? 전날에 또한 일찌기 누차 관직(館職)2을 욕되게 하여、결국에는 사리를 따지지 않고 무분별하게 수행하였는지라、지금에 돌이켜 생각해봄에 부끄러워 흐르는 땀이 옷을 적시옵니다。그런데 하물며 이 일관(一館)의 장(長)은 여러 신료(臣僚)에 비하여 지위와 명망이 스스로 뛰어나므로、여러 사람이 기록한 바를 차례로 세어봄에 일찌기 신처럼 무례함을 무릅쓰고 이 직책에 거한 자가 없었사옵니다。직분에 들어 맞는 자를 임명하는 어려움 같은 것은 진실로 신 등의 무리가 논의할 바가 아니오나、다만 이것은 국가의 관직 중에서 중요한 것인데 불행히도 신으로부터 무너지게 되었사오니、두려움에 떨고 방황하여 감히 나아가지 못하는 까닭이 어찌 다만 일신(一身)의 청렴한 도의만을 위해서 이겠사옵니까? 엎드려 청하옵건대、천지의 부모되시는 전하께오서 밝으신 아량을 곡진하게 내리시어 신에게 새로 제수하신 직명을 삭탈하심으로써、신으로 하여금 나아가 영명하신 어명을 받들고서 시골집에 물러나 거하면서、위로는 관계(官界)를 어지럽게 하는 과오를 없게 하고 아래로는 분수를 지키려는 소망을 이루게 하도록 윤허해 주신다면 공적으로나 사적으로나 천만 다행이겠사옵니다。신은 간구(懇求)하고 방황하는 마음을 가눌 길이 없사옵니다。

비답(批答)왈：상소문을 살펴보고 잘 알았으니、그대는 사직하지 말고 분부대로 속히 관직을 수행하라。

註：1。감사(監司)·병사(兵使)·수사(水使) 등이 바뀔 때 부신(符信)을 넘겨주고 받는 일

2。홍문관(弘文館) 부제학(副提學) 이하 관원(官員)의 총칭

辭吏曹叅議疏
사 이조참의소

伏以臣千萬夢寐之外又聞有天官佑貳之 命臣之無似最居人下無一善可記無一職是當而朝除暮遷歷遍華要至于今日而極矣臣於是誠駭惶悶蹙不知所以措躬也臣之從前叨冒固已辱名器之重招滿溢之譏而若言其害則猶是一職之失一身之灾而已至若銓衡之司實管用舍之柄而長官有故則次僚開政與他司佐貳事體不同苟或於此有失則是將擧一國之官方而盡壞之矣其爲害亦奚止於一身之憂而已哉臣才識昏蔽短於鑑別而性又踈懶杜門養拙人才之長短公議之是非無以見聞而周知曾忝銓郎坐是取敗况此所叨之職比郎屬自別難愼之責在今時尤重者哉其不敢抗顔承當固已決矣伏乞天地父母曲賜體諒將臣新授職名亟許鐫改以便公私不勝幸甚

答曰省疏具悉爾其勿辭從速察職

이조참의를 사직하는 상소

엎드려 아뢰옵건대、천만 뜻밖에도 다시 천관(天官)1의 좌이(佐貳)2에 임명되었음을 들었사온데、신의 무능함은 사람들중에서 최하로서 가히 기록할 만한 선행(善行)이 한 가지도 없으며 어느 한 관직에도 합당함이 없사옵니다。그런데도 아침에 제수(除授) 받고 저녁에 천임(遷任)하여 영화로운 요직을 두루 역임하였사온데、오늘에 이르러 극에 달했사옵니다。신은 이에 진실로 놀라움에 당황하고 송구스러워 몸 둘 바를 모르겠사옵니다。신은 전날에 욕심이 많아 진실로 이미 중요한 관직을 욕되게 하여 차고 넘치는 무성한 비난을 초래하였사오니、그 폐해를 말하자면 일직(一職)의 실패와 일신(一身)의 재앙일 뿐이옵니다。그러나 관리를 전형(銓衡)하는 벼슬은 사실상 등용과 파면의 권한을 갖고 있으며 장관이 유고(有故)시에는 차관이 정무를 맡으므로、다른 부처의 좌이(佐貳)들과는 일 자체가 다르옵니다。만일에 혹 이러한 직책에서 과실이 있게되면、그것은 온 나라의 관계(官界)를 죄다 망쳐 놓게 될 것이니、그 폐해가 또한 어찌 한 몸의 근심에서만 그칠 뿐이겠사옵니까? 신은 재주나 식견이 어둡고 모자라 인물을 감별(鑑別)하는 안목이 짧으며、성품이 또한 경솔하고 게을러 문을 걸어 잠그고 졸렬함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인재의 장단과 공의(公議)의 시비에 대하여 보고 들은 바가 없사옵니다。잘 아시다시피 일찌기 전랑(銓郎)으로 있을 때 이러한 이유 때문에 실패를 가져왔는데、하물며 이런 분에 넘치는 직책은 낭속(郎屬)에 비하여 스스로 구별되는 어렵고도 신중해야 하는 책무로써 지금에 있어서는 더욱 막중함에랴? 그러므로 감히 무례하게 받들어 행할 수 없음은 진실로 이미 결정된 것이옵니다。엎드려 청하옵건대、천지의 부모되시는 전하께오서 곡진하

게 깊이 헤아리사 신에게 새로 제수하신 직명을 거두시어 공사(公私)를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윤허해 주신다면 정말 다행이겠사옵니다。

비답(批答)왈：상소문을 살펴보고 잘 알았으니、그대는 사직하지 말고 속히 분부대로 관직을 수행하라。

註：1。吏曹의 異名
2。六曹의 參判·參議 등의 총칭。보좌관

辭承文院副提調疏

사 승문원부제조소

伏以臣才分魯下百無一能而早嬰奇疾半生沉痼拋棄文字餘數十年中間叨竊科第亦是萬一之僥倖至如文詞之任豈臣夢寐之所曾到者哉不意今者以臣差下承文院副提調使之察任臣於是誠駭惑罔措不覺驛發面而汗沾背也夫槐院爲司所管者文字之用副提調爲任所選者一代之望歷數耳目所記豈有不才如臣而冒居是任者哉臣蒙被殊私致身淸要撫躬反顧無以堪此每當　恩除怵然有循墻走避之念而分義是懼因仍蹲冒有若可以承當者臣心愧恧己不可言而物議之嗤點固己多矣今豈可加之以極選之地重之以不稱之任使朝家之名器益輕臣身之灾咎益重而莫之恤哉今臣此言非出餘讓伏乞　聖慈曲賜體諒將臣兼帶承文副提調之任亟許遞免使上無虛授之刺下遂守分之願不勝幸甚

승문원 부제조를 사직하는 상소

엎드려 아뢰옵건대、신은 재능이 노둔하여 한 가지도 능한 것이 없으며、어려서부터 이상한 병에 걸려 반평생을 고질로 지내면서 글을 포기한 지가 수십년이 되었사온데、그 사이에 외람되게도 과거에 급제하였으니 이는 역시 만분지일의 요행이옵니다。그러니 문사(文詞)와 같은 임무를 맡는 것이 어찌 신이 꿈속에서나마 일찌기 도달할 수 있는 바이겠사옵니까? 그런데 뜻하지도 않게 오늘 신을 승문원(承文院) 부제조(副提調)에 임명하사 임무를 수행케하시니 신은 이에 진실로 놀랍고도 당황하여 몸 둘 바를 모르겠사오며、저도 모르는 사이에 얼굴이 붉어지며 땀이 등을 적시옵니다。대저 괴원(槐院)1의 관리가 관할하는 것은 문서의 쓰임이며 부제조(副提調)의 임무에 선발된 자는 일대(一代)의 명망이 있어야 하는데、여러 사람이 기록한 바를 하나하나 살펴봄에 어찌 신처럼 재주없는 몸으로 외람되게 이 직위에 거한 자가 있겠사옵니까? 신은 남다른 은총을 입어 몸이 중요한 지위에 이르게 되었사오나、자신을 살펴 돌이켜 생각해보니 이를 감당할 수가 없사옵니다。매번 은혜로운 제수(除授)를 받을 때마다 두려운 마음에 담장을 넘어 도망가려는 생각이 있었사오나、도의상 두려움에 방황하면서도

그대로 눌러 앉아 외람되게도 마치 감당할 수 있는 것처럼 하였사옵니다。부끄럽기 짝이 없는 신의 마음을 말로 할 수는 없지만、비웃고 뒷 손가락질 하는 공의(公義)는 진실로 이미 무성하옵니다。그러니 지금 지극히 높은 지위에 올라 감당하지 못하는 임무를 떠맡아、조정의 요직(要職)을 더욱 가볍게 하고 신 자신의 허물을 더욱 무겁게 하니、어찌 근심스럽지 않겠사옵니까? 지금 신의 이러한 말은 겉치레로 사양함에서 나온 것이 아니옵니다。엎드려 청하옵건대、성자(聖慈)께오서 곡진하게 깊이 헤아리시고 아울러 승문원(承文院) 부제조(副提調)의 임무를 면직하시어、위로는 헛되게 임명했다는 비난이 없게 하고 아래로는 분수를 지키려는 소망을 이룰 수 있도록 윤허해 주신다면 천만 다행이겠사옵니다。

註：1。承文院의 별칭

辭備邊司副提調疏

사비변사부제조소

伏以臣於疾伏中得伏見備局啓辭以臣差下本司副提調使之仍察有司之任 聖鑑未察例賜依允臣之叨竊榮寵玷汚官方固已多矣然亦何意此任之遞到臣身哉 承 命驚惑誠莫知所以自措也惟玆備局爲司專管國家機務實廊廟訏謨之地若唐之中書省宋之樞密院是

己自古必抄揀一時之英賢以處之至於通政之班則雖有才智特達之稱亦罕有冒居者盖所以重其任而尊其體也况今灾荒溢目國勢危綴之日政宜益重玆選而乃以知識昏昧名論素經如臣等輩厠於其間以致無益於實用而傳笑於四方誠所謂時事可知也臣之立朝供職十有餘年而歷試

內外本末俱露無一善可記無一職是稱而朝除暮遷遍極華要撫躬自顧無以堪此每當 恩除怵然有循墻走避之念而分義是懼因仍蹲冒居常愧恥若隕淵谷今豈可加之以極選之地重之以不稱之任使朝家之名器益輕臣身之灾咎益重而莫之恤哉其不敢抗顔承當固已決矣玆不得不冒死呼德籲於 靜攝之中伏乞 聖慈曲加體諒將臣兼帶籌司副提調之任亟賜鐫改以便公私不勝萬幸臣無任祈懇屛營之至

答曰省疏具悉爾其勿辭從速察職

비변사 부제조를 사직하는 상소

엎드려 아뢰옵건대、신이 병들어 누워있던 중에 신을 비변사 부제조에 임명하여 맡은 바 임무를 수행케 한다는 비국(備局)1의 계사(啓辭)를 삼가 들었사옵니다。전하께오서 사리를 분별하심에 상례(常例)에 따라 마땅하게 분부하지

않으시어 신이 영광스러운 은총을 분에 넘치게 받아 관계(官界)에 누를 끼친 것이 진실로 이미 많았사옵니다。그러나 또한 이러한 임무에 처하는 것이 신의 몸에 이르게 될 줄을 어찌 생각이나 했겠사옵니까? 이에 어명을 받잡고서 놀랍고도 당황하여 진실로 어떻게 스스로 처신해야 할지를 모르겠사옵니다。생각컨대 비국(備局)의 소임은 오로지 국가의 중요한 업무를 관할하는 것으로 사실상 조정의 대계(大計)를 논의하는 지위로서、당(唐)나라의 중서성(中書省)과 송(宋)나라의 추밀원(樞密院)과 같사옵니다。이것은 이미 자고로 반드시 한 시대의 영현(英賢)을 뽑아 처하게 하였는데、통정(通政)의 반열에 대해서는 비록 재주와 지략이 특별히 뛰어나다는 칭송이 있더라도 또한 함부로 거한 자가 드물었으니、그것은 대개 그 임무를 중히 여기고 그 인물을 존대하였기 때문이옵니다。하물며 지금은 재난과 기근이 눈에 가득하여 국세(國勢)가 위급한 때이므로 정사에 있어서 이 직책의 선임을 더욱 중시해야 마땅하옵니다。그런데 지혜와 식견이 몽매하고 명분에 맞는 논변을 평소 소홀히 하는 신 등과 같은 무리들이 그 사이에 있게되면、실질적인 쓰임에 무익하여 오로지 사방에서 비웃음만 당할 것이니、진실로 이른바 시사(時事)를 가히 알만 할 것이옵니다。신이 조정에 서서 직책을 수행한 지 십여년 동안 내외직을 차례로 시험해 본 결과 그 본말(本末)이 모두 드러나 기록할 만한 선행이 한 가지도 없고 합당한 직책이 하나도 없는데도、아침에 제수(除授)받고 저녁에 천임(遷任)되어 영화로운 요직을 두루 역임하였사오나、자신을 살펴 돌이켜 생각해보니 이를 감당할 수가 없사옵니다。매번 은혜로운 제수(除授)를 받을 때마다 두려운 마음에 담장을 넘어 도망가려는 생각이 있었사오나、도의상 두려움에 방황하면서도 그대로 외람되게 거하면서 항상 부끄러운 마음이 마치 깊은 계곡에 떨어진 것 같사옵니다。그러니 지금 지극히 높은 지위에 올라 감당하지 못하는 임무를 떠맡아、조정의 요직을 더욱 가볍게 하고 신 자신의 허물을 더욱 무겁게 하니、어찌 근심스럽지 않겠사옵니까? 그러므로 감히 무례하게 얼굴을 쳐들고서 어명을 받들어 행할 수 없음은 이미 결정된 것이옵니다。이에 부득이 죽음을 무릅쓰고 엄숙한 어전에서 시끄럽게 떠드옵니다。엎드려 청하옵건대、성자(聖慈)께오서 곡진하게 깊이 헤아리시고 아울러 신에게 내리신 주사(籌司)[2]부제조의 임명을 거두시어 공사(公私)를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윤허해 주신다면 진실로 천만 다행이겠사옵니다。신은 간구하고 방황하는 지극한 마음을 가눌 길이 없사옵니다。

비답(批答)왈:상소문을 살펴보고 잘 알았으니、그대는 사직하지 말고 속히 분부대로 직책을 수행하라。

註:1。備邊司의 별칭
2。備邊司의 별칭

辭陞拜江華留守疏

사승배강화유수소

伏以臣之無似最出人下而蒙被 殊私最居人先朝除暮遷 寵命頻繁今玆陞擢之 恩又出於千萬夢寐之

外驚悚震惕情爽懵怳撫躬環顧不知所以自處也念玆所叨班秩乃是朝廷命德之器梁鵜不稱之譏固有不暇言者而至於江都爲府實國家保障之地況自兼管鎭撫之後職務尤重苟非位望俱隆才略兼備之人豈宜冒居也哉臣之立朝供職首尾十有餘年入遍華要旣蔑絲毫之補出試外蕃亦乏可紀之效本末俱露更無餘地而猶復誤辱恩命終

乃躋之於貳卿之列任之以居留之重臣誠驚惑莫知所由朝家任人之道必須量能授官才器相稱然後上無虛授之刺下免債事之罪今臣才分决知其不能勝任其何敢徒戀榮寵冒昧承受也哉玆慕血懇仰籲於 天地父母之前伏乞 聖慈俯察微忱將臣所叨職名及新授資級一并改正以重名器以安私分不勝幸甚臣無任祈懇屛營之至

答曰省疏具悉卿其勿辭從速察職

강화유수에 승진됨을 사직하는 상소

엎드려 아뢰옵건대, 신의 무능함은 사람들 중 최하이오나 남다른 은총을 입음은 사람들의 맨 처음에 거하면서, 아침에 제수받고 저녁에 천임(遷任)되어 총애하시는 배명(拜命)이 빈번하였사옵니다。오늘 이러한 승직(陞職)을 하여 발탁하신 은총은 또한 천만 뜻밖에서 나온 것으로, 놀랍고도 황송하여 두려움에 떨며 마음 가득히 당황하고 있사옵니다。이에 자신을 살펴보고 돌이켜 생각해보니, 스스로 어떻게 처신해야 할 지를 모르겠사옵니다。생각컨대 이러한 분에 넘치는 반열(班列)은 바로 훌륭한 덕을 지닌 조정의 큰 그릇이므로 보잘 것 없는 사람에겐 합당하지 않다는 비난에 대해서는 진실로 더 말할 겨를이 없으나, 강도(江都)의 관청은 실로 국가를 보호하고 막아주는 곳인데, 하물며 진무(鎭撫)의 임무를 아울러 관할하게 된 후부터는 직무가 더욱 중요하니, 만일에 지위와 명망이 모두 융성하고 재주와 지략을 겸비한 사람이 아니면 어찌 마땅히 함부로 거할 수 있겠사옵니까? 신이 조정에 서서 직책을 수행하면서 전후 십여년 동안 영광스런 요직을 두루 역임하였으나 이미 터럭만큼의 보탬도 없었으며, 외지에 나가 일할 때에도 가히 기록할 만한 본보기가 없어서, 본말(本末)이 더이상 남김없이 모두 드러나고 말았사옵니다。그래서 오히려 은명(恩命)을 다시 그르치고 욕되게 하였는데도 결국에는 여전히 이경(貳卿)의 반열에 올라 유수(留守)에 거하는 중요한 임무를 맡고 보니, 신은 진실로 놀랍고도 당혹하여 어찌할 바를 모르겠사옵니다。조정에서 사람을 임명하는 올바른 길은 반드시 능력을 헤아려 관직을 수여하고 재주와 기량이 서로 합당해야 하는데, 그런 연후에야 위로는 헛되게 제수했다는 비난이 없게 되고 아래로는 일을 그르치는 죄를 면하게 되옵니다。지금 신의 재능으로는 그 임무를 당해낼 수 없음을 확실하게 알고 있사오니, 어찌 감히 영화로운 은총만 오로

지 연모하여 몽매함을 무릅쓰고 어명을 받들 수 있겠사옵니까? 이에 천지의 부모되시는 전하의 어전에서 문득 간절히 호소하옵니다。엎드려 청하옵건대、성자(聖慈)께오서 보잘 것 없는 신의 정성을 굽어 살피시어、신의 분수에 넘치는 직명과 새로 제수하신 관급(官級)을 아울러 개정하심으로써 관작(官爵)을 중하게 하여 신의 사사로운 본분에 편안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면 정말 천만 다행이겠사옵니다。신은 간구하고 방황하는 지극한 마음을 가눌 길이 없사옵니다。

비답(批答)왈：상소문을 살펴보고 잘 알았으니、경은 사직하지 말고 속히 분부대로 직책을 수행하라。

辭吏曹叅判疏

사이조참판소

伏以臣以孤蹤冷族素無樹立之可稱而濫通淸路驟躋宰班物議之嗤點固不可言而臣亦環顧內外不省所以致此之由中夜思惟未嘗不辟發面而汗流背也今玆來守陪都未浹半年而　寵命之及前後頻繁天官亞席之除尤出於千萬夢寐之外臣益復駭惑罔知置身之所也謂朝廷不知臣昏愚而姑爲試可之地則臣嘗自郎署至通政凡四八銓地而累遭顚沛無一稱塞謂朝廷乏人而姑且循次充擬云爾則臣叨冒亞卿之列屬耳而地望之當先於臣者不爲無人臣安得以己試蔑效之身猥居衆人之先而敢當於不敢當之地哉官方之無漸名器之日紊爲識者之憂久矣雖凡官末職尙宜愼簡以矯此弊而今乃以無似如臣置之匪據使銓部用舍之地先受驟濫之譏臣窃寒心不但爲一身之私義而已也今臣此言非出餘讓伏乞　聖慈曲察微忱將臣新授職名亟賜遞改使上無淆官之失下遂守分之願公私不勝萬幸臣無任祈懇屛營之至

이조참판을 사직하는 상소

엎드려 아뢰옵건대、신은 외롭고 한미(寒微)한 일족으로 평소에 일컬을 만한 공을 세운 것이 없는데도、통청(通淸)[1]의 길을 뛰어 넘어 갑자기 대신(大臣)의 반열에 올랐으므로、공의(公議)의 비난에 대하여서는 진실로 말씀드릴게 없사옵니다。신도 역시 안과 밖을 돌아봄에 이러한 지위에 이르게 된 연유를 알지 못하여、한밤 중에 생각하면서 일찌기 얼굴이 붉어지고 땀이 등을 적시지 않음이 없사옵니다。지금 배도(陪都)[2]를 지킨지가 아직 반년도 안되었는데、남달리 총애하시는 어명이 전후로 빈번이 내려왔사옵니다。그러나 천관(天官)[3]의 버금자리에 제수하심은 천만 뜻밖의 일이옵니다。이에 신은 더욱 놀랍고도 당혹하여 몸 둘 바를 모르겠사옵니다。생각컨대、조정에서 신의 혼미함과 우둔함을 잘 몰라서 잠시 그 능함을 시험해 보는 자리로 삼

으신다면、신은 일찌기 낭서(郎署)4에서 통정(通政)5에 이르기까지 무릇 서른세 번이나 선임(選任)되었으나、누차 일을 그르쳐서 한 가지도 기대에 부응함이 없었사옵니다。달리 생각컨대、조정에 사람이 없어서 잠시 순서에 따라 선발에 충당했다고 한다면、신은 분에 넘치게 외람되이 아경(亞卿)의 서열에 속하게 된 것으로 지위와 인망이 마땅히 신보다 앞서는 자가 없지 않을 터이니、신이 어찌 이미 공이 없음을 드러낸 처지에 중인(衆人)의 앞에 외람되게 거하면서 감당할 수 없는 지위를 감당할 수 있겠사옵니까? 관계(官界)에 순서가 없어서 관작(官爵)이 날로 문란해짐은 식자의 근심이 된지가 오래되었사옵니다。비록 일반 말단관직도 오히려 마땅히 신중하게 간택하여 이러한 폐단을 바로 잡아야 하는데、지금 신과 같이 무능한 자를 특별한 비호 아래 두시어 전부(銓部)6의 인재취사(人才取捨)의 지위를 맡기시면、우선 당장 차서(次序)를 무시하고 갑자기 승진했다는 비난을 받을 것이옵니다。신이 남몰래 두려운 마음을 갖는 것은 다만 한 몸의 사사로운 도의를 위하기 때문만이 아니옵니다。지금 신의 이러한 말씀은 겉치레로 예의상 사양하는 것이 아니옵니다。엎드려 청하옵건대、성자(聖慈)께오서 보잘것 없는 신의 충정을 곡진하게 살피시어 신에게 새로 내리신 직명을 속히 거두심으로써、위로는 관계를 소란스럽게 하는 과실이 없게 하고 아래로는 분수를 지키려는 소망을 이룰 수 있도록 해주신다면 공사(公私)가 천만 다행이겠사옵니다。신은 간구하고 방황하는 지극한 마음을 가눌 길이 없사옵니다。

註：1。청관(淸官)이 될 자격을 얻는 일
2。국도(國都)이외에 둔 서울。강화도를 말함
3。이조(吏曹)의 별칭
4。상서랑(尙書郎)이 일을 보던 관청
5。정삼품(正三品) 당상관(堂上官)의 품계(品階)
6。吏部의 별칭

因儒臣疏自引申懇疏 丁丑

인 유신 소 자 인 신 간 소

伏以臣以無似之身抱難強之疾不宜久蹲匪據以招譏議而只緣出疆有日不敢言病黽勉隨行日夕惶懼卽伏見校理趙泰采疏本則其論列李坦事不啻縷縷而非斥銓曹語意緊切臣不勝矍然之至夫臺官之彈劾宰臣雖或爽實此豈爲可廢之事而李坦之當初擧措殊爲無據未見有可奬之實淸路注擬不知其一日爲急方將採訪物情與同僚相議更通矣不意儒臣之言先發而 聖批以實涉太過爲敎臣何敢自謂無失而晏然於職次乎且念 太廟親杞卜在來初本曹諸官之塡差執事載在五禮判書上來遲速難料臣亦未前辭陛而受戒之期當在此月念後必須預先變通可無臨時苟簡之患伏乞聖明俯察情勢事勢亟許鐫削臣職以便公私不勝幸甚

答曰省疏具悉卿其勿辭從速察職

유신의 상소에 대하여 스스로 사죄하며 간청하는 상소 정축년

엎드려 아뢰옵건대, 신은 무능한 몸으로 치유하기 어려운 질병을 지닌 채 오랫동안 특별한 비호를 받음으로써 비난을 초래하는 것은 마땅치 못한 일이옵니다。그러나 어명을 받고 외국에 사신으로 갈 때까지는 시일이 남아 있어서, 감히 병을 아뢰지 못하고 힘써 노력하여 수행하면서 밤낮으로 두려워 하였사옵니다。그러던 중 교리(校理)인 조태채(趙泰采)의 상소를 삼가 보니, 그것은 본래 이원(李坦)의 일을 나열하여 논한 것으로 조목조목 자세하게 전조(銓曹)1를 비평했을 뿐만 아니라 어의(語意)가 긴요하고 절실하여, 신은 지극히 두려운 마음을 이기지 못하였사옵니다。대저 대관(臺官)2이 재상(宰相)을 탄핵함이 비록 혹 지나칠지 모르나 이것이 어찌 폐할 만한 일이겠사옵니까? 이원(李坦)에서 당초에 조치한 것은 거의 근거가 없는 것으로 가히 장려할 만한 실상을 아직 보지 못하였으며, 청로(淸路)에서 논의할 때도 하루가 급하다는 것을 알지 못하여 바야흐로 장차 일의 상황을 탐문하고 동료들과 상의하여 다시 심의하려고 했었사옵니다。그런데 뜻밖에 유신(儒臣)의 상소가 먼저 나오고 전하의 비답(批答)에 진실로 간섭이 너무 지나치다고 훈계하시오니, 신이 어찌 감히 스스로 과실이 없다고 여기고 편안히 직책에 머물러 있을 수 있겠사옵니까? 또한 생각컨대, 태묘(太廟)에 친사(親祀)할 때에는 종래로 애당초 본조(本曹)의 제관(諸官)이 집사(執事)에 임명되는 것은 오례(五禮)에 명시되어 있사오나, 판서(判書)가 상경하는 시기를 헤아리기가 어렵고 신 또한 아직 사폐(辭陛)3하기 전이어서, 수계(受戒)하는 기일은 마땅히 이달에 있어야 하옵니다。생각컨대, 차후에는 반드시 미리 변통해 놓아야만 가히 임시로 구차하게 선발하는 근심이 없게될 것이옵니다。엎드려 청하옵건대, 성명(聖明)께오서 일의 정황을 굽어 살피시어 신의 직책을 삭탈하심으로써 공사(公私)를 편안케 하도록 윤허해 주신다면 정말 다행이겠사옵니다。

비답(批答)왈 : 상소문을 살펴보고 잘 알았으니, 경은 사직하지 말고 속히 분부대로 직책을 수행하라。

註 : 1。이조(吏曹)와 병조(兵曹)의 총칭
2。사헌부(司憲府)의 대사헌(大司憲) 이하 지평(持平)까지의 벼슬아치
3。사신으로 떠나는 신하가 임금께 하직인사를 드리는 일

辭陛拜刑曹判書疏 戊寅

사승 배형조판서소

伏以臣家世單寒才識魯莽環顧內外無一可取而徒以蒙被 洪私猥玷通顯節次推排以至宰班公議之嗤點固不可言而臣亦中夜思惟不省所以致此之由每當恩除未嘗不辟發面而汗流背也今玆意外又有 新命乃以上卿峻秩司冠重任猝然加之於眇末無似之身而陞擢注擬之 命實出於睿簡云臣始用驚惑終焉惶惕誠不知措身之所也臣之立朝供職首尾十有餘年八遍

華要旣蔑絲毫之補出試外服亦乏可紀之效本未畢露更無餘地不知 聖明何所取於微臣而 恩數之非常至於此哉朝家任人自有其道苟非才望超等有以厭服於人心則必須積勞循次猶爲不駭於衆聽今臣旣無可用之實而忝叨亞卿之列纔數年耳於斯二者俱無一可今日朝廷雖云乏人然其地望踐歷之當先於臣者不爲無人臣安得以己試蔑效之身猥居於衆人之先而敢當於不敢當之地哉秋曹訟獄之繁最號難理固非昏劣如臣所可堪任而臣之所大憂而寒心者在於國家官方之日壞名器之日紊至若稱塞之難償敗之憂猶是第二件事臣不暇言也竊想言議之地必有駁正之論恭竢數日尚未有聞而劇地曠官已多日月不可引日遲待以妨事務玆敢冒死自陳於 天地父母之前伏乞 聖明俯賜鑑燭將臣新授資級及所叨職名亟許改正使上無淆官之失下遂守分之願公私不勝萬幸答曰省疏具悉卿懇簡自予心公議亦同安心勿辭從速行公

형조판서에 승진됨을 사직하는 상소 무인년

엎드려 아뢰옵건대, 신은 가세(家世)가 한미(寒微)하고 재주와 식견이 노둔하여 안밖을 돌아봄에 한 가지도 취할 만한 것이 없는데도, 한갓 넓으신 은총을 입고 외람되이 이름이 알려져 차서(次序)를 밀쳐내고 재상의 반열에 이르고 보니, 비난하고 뒷 손가락질하는 공의(公議)에 대해서 진실로 더 말할 게 없으며, 신 또한 한밤중에 생각해보아도 여기에 이르게 된 연유를 찾을 수가 없사옵니다。매번 은혜로운 제수를 받을 때마다 일찌기 얼굴이 붉어지고 땀이 등을 적시지 않은 적이 없었사옵니다。그런데 오늘 뜻밖에도 다시 새로운 어명이 있어, 상경(上卿)의 높은 벼슬과 우두머리 관직의 중임(重任)을 갑자기 보잘것 없고 무능한 몸에 더하시니, 승진하여 발탁하라고 조치하신 명령은 사실상 정실에 따른 간택에서 나온 것이옵니다。신은 이에 놀랍고도 당황하며 결국에는 두려움에 떨면서 진실로 몸 둘 바를 모르겠사옵니다。신이 조정에 서서 직책을 수행한지 전후 십여 년 동안 영화로운 요직을 두루 역임하였사오나, 이미 실오라기 만큼의 보탬도 없었으며 외지에 나가 복무하면서도 역시 기록할 만한 공이 없어서, 그 본말이 더이상 남김없이 모두 드러났사옵니다。성명(聖明)께오서。보잘것 없는 신의 어떤 점을 보시고 특별한 은총을 여기에 내리셨는지 모르겠사옵니다。조정에서 사람을 임명함에는 자고로 그 올바른 길이 있사오니, 만일에 재주와 인망이 특별히 뛰어나 인심(人心)에 흡족한 사람이 아니어든 반드시 공을 쌓고 차서에 따라야만이 모든 사람들에게 놀랍지 않게 될 것이옵니다。그러나 신은 이미 가히 쓸만한 실상이 없는 체로 분에 넘치게 아경(亞卿)의 서열에 선 지가 겨우 몇 년밖에 되질 않으니, 이 두 가지 경우에 있어서 한 가지도 해당이 되지 않사옵니다。금일에 조정에 비록 사람이 없다고 하나 그 지

위와 명망의 경력이 마땅히 신보다 앞서는 자가 없지 않을 것이니、신이 어찌 이미 공이 없음이 드러난 처지에 외람되이 중인(衆人)의 앞에 거하면서 감당하지 못하는 지위를 감히 감당할 수 있겠사옵니까? 추조(秋曹)1의 번잡한 송사(訟事)는 가장 다스리기가 어려우니、진실로 신처럼 몽매하고 졸렬한 자가 가히 감당할 바가 아니옵니다。신이 크게 근심하고 두려워 하는 것은 국가의 관계(官界)가 날로 무너지고 관작(官爵)이 날로 문란해지는데 있으며、임무에 부응하는 어려움과 일을 그르치는 근심 같은 것은 오히려 제이(第二)의 부차적인 일이므로 신은 더이상 말할 겨를이 없사옵니다。가만히 생각컨대、언의(言議)하는 자리에는 반드시 논박하여 바로 잡는 논변이 있기 마련이므로 몇일 동안 삼가 물러나 있었으나 아직도 들은 바가 없사옵니다。그러나 중요한 직위에서 관직을 태만히 하는 날이 많아져 더이상 시간을 지체함으로써 사무를 방해해서는 안되겠기에 이에 감히 죽음을 무릅쓰고 천지의 부모되시는 전하의 어전에서 스스로 아뢰옵니다。엎드려 청하옵건대、성명(聖明)께오서 자세히 굽어 살피시어 신에게 새로 내리신 관급(官級)과 분에 넘치게 차지하고 있는 직명을 개정하심으로써、위로는 관계를 어지럽히는 과실이 없게 하고 아래로는 분수를 지키려는 신의 소망을 이룰 수 있도록 윤허해 주신다면 공사(公私)가 천만 다행이겠사옵니다。

비답(批答)왈：상소문을 살펴보고 잘 알았는데、경을 진심으로 간택한 것은 나의 마음과 공론(公論)이 또한 같으니、안심하여 사직하지 말고 속히 분부대로 공무를 집행하라。

註：1。형조(刑曹)의 별칭

辭藝文提學疏
사예문제학소

伏以臣於萬萬夢寐之外伏聞有藝館　新命臣之蒙被洪私叨竊非分固已多矣然亦何意此任之遽到臣身哉惟茲館閣之職乃是詞垣極選自古及今未有不解文字而居是任者如臣不學無文之狀非但通朝之所共知仰惟　聖明亦必俯悉無餘其不合於是職何待臣自爲覼縷也今者不計人望之如何不問文藻之有無只以從前踐歷之華顯又欲強而推排於不相稱之地朝家任用之道寧可若是之苟簡也臣心尚此愧澁莫知置身之地中外聽聞其當以爲如何哉此則不但臣一身之私義其上累官方非細故也及此除命之未播亟速收回毋貽四方之駭笑不勝幸甚構疏未上而　召牌再降迫於分義不得不來詣闕外而其不敢抗顔冒受則固已決矣當此國有大禮之時不得進而承　命臣罪尤萬萬矣臣無任惶蹙祈懇之至

答曰省疏具悉卿勿過辭從速行公

예문관 제학을 사직하는 상소

엎드려 아뢰옵건대、신은 천만 뜻밖에도 예관(藝館)에 새로 임명되었음을 삼가 들었사옵니다。신이 넓으신 은총을 입고 분수에 넘치는 높은 자리에 오른 것이 진실로 이미 많았사오나、이러한 임무에 처하게 됨이 신의 몸에 이르게 될 줄을 또한 어찌 생각이나 했겠사옵니까? 생각컨대 이러한 관각(館閣)1의 직책은 바로 사원(詞垣)의 가장 높은 선임으로、옛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문장에 통달하지 못하면서 이러한 임무에 거한 자는 아직 없었사옵니다。학식도 없고 문장도 보잘 것 없는 신의 처지는 비단 온 조정이 다 알고 있는 바일 뿐만 아니라、위로는 성명(聖明)께서도 또한 틀림없이 남김없이 잘 알고 계실 것이오니、이 직책에 합당하지 못하다는 것을 어찌 신이 일부러 자세히 밝힐 필요가 있겠사옵니까? 지금에 인망의 여하를 헤아리지 않고 문장의 재능이 있는지 없는지를 묻지도 않은채、다만 지난날 경력의 화려하고 현달함만을 좇아 억지로 합당하지도 않은 지위에 밀어 넣으니、조정에서 관리를 임용하는 도리상 어찌 이렇게 구차한 선발이 있겠사옵니까? 신은 마음속으로도 오히려 이것을 매우 부끄러워 하여 몸둘 곳을 모르겠사오니、조정의 안밖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마땅히 어떻게 하면 좋겠사옵니까? 이것은 다만 신 한 몸의 사사로운 도의일 뿐만 아니라 위로 관계(官界)에 누를 끼침이 적지 않기 때문이옵니다。이번 제수(除受)의 명이 아직 알려지기 전에 빨리 거두시어 사방에서 놀라거나 비웃지 않도록 하신다면 정말 다행이겠사옵니다。상소를 작성하여 아직 올리기 전에 조서가 다시 내려옴에 도의에 좇기어 부득이 궐밖으로 나아가기는 하였사오나、감히 무례하게 얼굴을 쳐들고 어명을 받을 수 없음은 진실로 이미 결정된 일이옵니다。이 일에 당했을 때는 나라에 대례(大禮)가 있었을 때이어서 나아가 어명을 받들지 못하였사오니、신의 죄가 더욱 크옵니다。신은 두려움에 떨며 간구하는 지극한 마음을 가눌 길이 없사옵니다。

비답(批答)왈:상소문을 살펴보고 잘 알았으니、경은 지나치게 사양하지 말고 속히 분부대로 공무를 수행하라。

註:1。예문관(藝文館)의 별칭

因儒臣臺臣疏自引辭禮曹判書知義禁疏

인유신 대신 소자인 사예조판서지의금소

伏以臣伏見校理李喜茂疏本歷陳近日潛商之弊而以首譯之罪止編配爲獄事朦朧至擧綱紀法律爲言臣不勝瞿然之至其勘獄顚末金吾長僚之疏旣已備陳臣不敢費辭架疊以煩　聖聰而當其議讞之時臣亦同叅有所可否則今於非斥之來臣何敢晏然而已乎且於日昨持平李彦經以謁聖主掌官摘發論罪事及於疏末有令該曹處之之　命臣於是尤用惶蹙無所措身臣曹旣主掌科塲事臣亦嘗以品好之紙違格施行之意有所陳達

而及其身爲考試之官則乃不得據式拔去若論其罪有浮於主掌官臣當屛伏俟過之不暇其何敢查處他人乎以此以彼俱不可一日冒居職次伏乞　聖明俯加鑑燭將臣本兼諸任特賜鐫遞以便公私不勝幸甚

유신·대신의 상소에 대하여 스스로 사죄하며、예조판서와 지의금을 사직하는 상소

엎드려 아뢰옵건대、신이 교리(校理) 이희무(李喜茂)의 상소를 삼가 보니、본래 요즈음 불법 상인의 폐단을 자세히 진술한 것인데、수석역관(首席譯官)의 죄를 귀양보내는 데에 그침으로써 옥사(獄事)를 불분명하게 하여 그 해가 법률 기강에까지 미치게 되었다고 말함에 신은 극히 두려운 마음을 이길 수가 없사옵니다。죄에 따라 처분한 일의 전말은 금오(金吾)1의 대신이 올린 상소에 이미 갖추어 진술되어 있사오니、신은 감히 쓸데없는 말을 거듭 늘어놓아 성상의 귀를 번거롭게 하지는 않겠사옵니다。죄를 논할 때 신도 또한 그 가부를 결정하는 데에 동참했으므로、지금 비난이 제기됨에 신이 어찌 감히 마음 편할 수가 있겠사옵니까? 또한 몇일 전에 지평(持平) 이언경(李彦經)이 성상을 배알하고 주장관(主掌官)2을 적발하여 논죄한 일이 있었으며、상소의 끝부분에 해당 조(曹)로 하여금 처리케 하라는 어명이 계셔서、신은 이에 더욱 두려움에 떨며 몸둘 바를 몰랐사옵니다。신의 관청에서 이미 과장(科場)의 일을 주관하였는데、신 또한 일찌기 품질이 좋은 종이로 격식을 어기고 시행하려는 뜻에 대하여 진언할 바가 있었사오나、신 자신이 고시관(考試官)이 되고 보니 여전히 격식에 근거하여 뿌리 뽑지 못하였사오니、만일 그 죄를 논한다면 주장관보다 지나침이 있을 것이옵니다。신은 삼가 엎드려 죄를 기다리느라 겨를이 없사온데、어찌 감히 다른 사람을 조사하여 처리하리이까? 이것으로 보나 저것으로 보나 모두 하루라도 더이상 외람되이 직책에 거할 수가 없사옵니다。엎드려 청하옵건대、성명(聖明)께오서 자세히 굽어 살피시어 신의 본직(本職)과 아울러 여러 겸임을 특별히 거두어 주심으로써 공사(公私)를 편하게 해 주신다면 정말 다행이겠사옵니다。

註：1。의금부(義禁府)의 별칭
2。과거를 주관하는 관리

因臺言自引辭都監堂上疏

인대언자인사도감당상소

伏以臣得見持平李晩成疏本以今番監造官之得叅率多提調之戚屬爲言而末乃以公道掃地私意橫流結之臣於是不勝慚惶震悚之至向於監造官差出之時臣之外兄適有家貧親老而職在閑署者臣果提及於大臣遂至啓下矣敦匠末任不謂其必擇公望之所屬而衙門權設自無相避之規曾前堂上戚屬之得差者固非一二臣誠昏蔽且爲舊例所誤自不覺其終爲世道之蔽至於如

此臣雖重被誅罰何以謝人言之來哉玆敢冒死首實以竢處分伏乞 聖明亟遞臣都監堂上之任以伸公議以安私分不勝幸甚

대언에 대하여 스스로 사죄하며、도감 당상을 사직하는 상소

엎드려 아뢰옵건대、신이 지평(持平) 이만성(李晩成)의 상소를 보았는데、본래 금번 관리인사에 들어있는 자가 대부분 제조(提調)의 친척이 많다는 말이었으며、끝에는 공정한 도리로써 멋대로 자행하는 사의(私意)를 쓸어버려야 한다고 맺고 있사옵니다。신은 이에 부끄러움과 두려움에 떠는 지극한 마음을 이기지 못하겠사옵니다。지난번 관원을 선발하여 임명하는 것을 감독할 때、신의 고종형 중에 마침 집이 가난하고 부모가 늙었는데도 직책이 일없이 한가로운 관청에 있는 자가 있어서、신이 대신에 천거하여 마침내 전하의 재가를 받기에 이르렀사옵니다。큰 재목을 말직(末職)에 임명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공론에 합당한 자를 택하지 않아도 되며、관청에서 임시로 베푸는 직책에는 자고로 상피(相避)[1]의 규칙이 없사옵니다。일찌기 전부터 당상관의 친척이 관원에 임명된 일이 진실로 한 둘이 아니었사옵니다。신은 진실로 몽매하고 또한 옛 사례의 잘못된 바를 따르다 보니、모르는 사이에 결국 세상의 도의에 폐를 끼침이 이와 같은 지경에까지 이르고 말았사옵니다。신은 비록 거듭 주벌(誅罰)을 당한다 하더라도 세인의 여론에 무슨 변명을 할 수 있겠사옵니까? 이에 감히 죽음을 무릅쓰고 사실을 고하고서 처분을 기다리겠사옵니다。엎드려 청하옵건대、성명(聖明)께오서 신의 도감당상의 임무를 빨리 경질하심으로써 여론을 진정시키고 신의 사사로운 분수에 편안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면 정말 다행이겠사옵니다。

註：1。친족 또는 그밖의 관계로 같은 곳에서 일하는 일

請暇下鄕後辭大司憲及兼帶諸任疏 己卯

청가하향후사대사헌급겸대제임소

伏以臣伏奉今月十八日成貼承政院書狀有旨以臣爲司憲府大司憲使之從速上來者而臣於本月二十六日在陽城縣旅舍始得祗受矣盖臣受由登程之後別症橫生勢在必死不得前進溫泉尙滯圻縣地界而恩諭遠辱迓回累日臣於是伏不勝震恐竢罪之至仍念臣春間所苦之疾實非偶然感傷之比根委沉痼餘症尙存而中緣瘡疾之作苦不勝一時之痛痒率意妄作遂有浴溫之計數日行路撼頓增傷猝然牙顧梗閉食飮全不入口四末不仁寸地未能自運眞元凜凜殆無餘地僵臥旅次不生不死者殆將一朔雖欲還歸京輦尋醫問藥而亦無自致之路不意此除 新命下降臣誠惶悶不知所措臣性質懦弱見識昏蔽自顧本分元不近似於是職而況今疾病

如此鬼事將迫風憲重地豈容一日虛帶致有曠職之弊
哉玆敢力疾陳情付上縣道伏乞聖明俯加矜憐將臣本
職及兼帶諸任幷許鐫遞俾臣安意調息以記　天地生
成之澤不勝萬幸臣無任懇迫祈祝之至
答曰省疏具悉卿其勿辭調理上來行公

휴가를 청하여 고향에 내려온 후에 대사헌과
겸직한 여러 임무를 사직하는 상소 을묘년

엎드려 아뢰옵건대、이달 십팔일에 도장을 찍은 승정원(承政院)의 서장(書狀)을 삼가 받았사온데、신을 사헌부(司憲府) 대사헌(大司憲)으로 삼았으니 속히 상경하게 하라는 어지가 계셨사옵니다。그러나 신은 이달 이십육일에 양성현(陽城縣) 객사에서 비로소 삼가 받았사옵니다。대개 신이 말미를 얻어 여정에 오른 후에、다른 병이 자꾸 생겨나 형세가 꼭 죽을 것만 같아서 더이상 전진하지 못하고 양성현의 경계에 있는 온천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성은이 담긴 분부가 욕되게도 몇일을 멀리 우회하였사옵니다。신은 이에 엎드려 두려움에 떨며 죄를 기다리는 마음을 이기지 못하겠사옵니다。또한 생각컨대、신이 봄에 고생한 질병은 사실상 우연히 감상에 젖는 그런 류가 아니었으며、근골이 쇠약하여 고질이 된 것으로 다른 증상이 여전히 남아 있었사옵니다。그러던 중에 창질(瘡疾)이 생겨 정말 한시도 아픔과 가려움을 견딜 수가 없어서、멋대로 망령을 부려 마침내 온천에 목욕하려는 계획을 세우고서 몇일을 지내던 중에、갑자기 증상이 심해져서 순식간에 어금니가 달라붙어 음식을 전혀 입에 넣을 수 없었사옵니다。그리하여 사말(四末)이 멀지 않아 한 촌의 거리도 능히 스스로 움직일 수가 없었으며 원기가 거의 남김없이 빠져 나갔사옵니다。객사에 드러 누운채 생사를 헤맨 것이 거의 한 나절 동안이었사옵니다。비록 서울로 돌아가 의사를 찾아 약을 구하고 싶었으나 또한 그렇게 할 길이 없었사옵니다。그런데 뜻밖에도 이런 지경에서 새로운 어명이 내려오니、신은 진실로 두렵고도 민망하여 어찌할 바를 모르겠사옵니다。신은 본래 자질이 나약하고 식견이 어둡고 가리워져 있어서、스스로 본분을 돌아봄에 이러한 직책에 진정 조금도 어울리지가 않사옵니다。하물며 지금 질병이 이와 같아서 저승사자가 장차 재촉할 것이니、풍교(風敎)의 헌장을 맡아 다스리는 중요한 자리를 어찌 하루라도 비워둠으로써 직무를 태만히 하는 폐단을 이르게 할 수가 있겠사옵니까? 이에 힘써 병을 참고 사정을 진언하여 현감에게 부치옵니다。엎드려 청하옵건대、성명(聖明)께오서 딱한 사정을 긍휼히 굽어 살피시어 신의 본직(本職)과 겸직한 여러 임무를 아울러 경질하심으로써、신으로 하여금 편안한 마음으로 치병케 하시어 성상께서 내려주신 은택을 다 누릴 수 있도록 윤허해 주신다면 천만 다행이겠사옵니다。신은 절박하게 간구하고 기도하는 지극한 마음을 가눌 길이 없사옵니다。

비답(批答)왈：상소문을 살펴보고 잘 알았으니、경은 사양하지 말고 몸조리를 잘하여 상경하여 공무를 수행하라。

註 : 1。사람이 면하지 못할 네 가지 종말로, 사(死)·심판(審判)·천당(天堂) 지옥(地獄)을 말함

辭大提學疏
사대제학소

伏以臣一病沉綿與鬼爲鄰久逋 朝命罪當萬殞不意聖慈寬暇譴罰不行文衡新命又出於萬萬夢寐之所不到此實臣死期將至有以益其疾而重其變也臣誠憂惶隕越無地措身臣竊念生也之職爲任甚重凡文風之隆替士趨之淑慝辭命之得失皆具責也苟非才學兼優望實全備者莫宜居之故前後膺是選者必皆當世之望自古及今豈有魯莽如臣而居是任者哉臣性本昏情不比恒人而早嬰哥疾不能讀一字書至於塲屋程式之文亦且窘陋生澁不成貌樣中年叨竊科第實出於萬一之僥倖而蒙被 洪私猥加拂拭凡係文華之選無不歷至於前年提學之除而極矣臣心之愧恧中外之駭笑尚今未已而乃又加之以萬不近似之任使之提衡藝苑主盟詞壇臣未知此是何樣擧措環顧內外莫省其所以然之故繼而得聞則當初薦望時首薦之人自是宿德輿望之所屬且主文之薦從前事體極重繼膺其任必在於首薦之人而臣以點數之稍多越序進擬云彼會圈諸臣皆臣儕流也亦豈不知臣之空疎不可以當是任也只以文衡緊任曠闕已久而臣於前後榮選率皆冒受而不辭故姑且以爲備員充位之地耳朝家事不宜若是之苟簡而臣之貪榮冒進亦可爲循省改悔之一端也臣疾病已痼死亡無日旣無陳力就列之望則至於違例之嫌過福之灾固不須言而只是朝家用舍之乖舛名器之淆紊足以取羞於當世而貽譏於來後則又安得不爲之憂歎也泯默數旬以竢公議之擧正而尚未有聞不得不冒死自列伏乞 聖明俯加鑑燭函命改正臣新授大提學之任毋令爲文苑笑資不勝幸甚仍念臣忝叨憲職已閱三朔卽今病勢萬無指日登程之理而當此國事艱危灾荒溢目之辰言地久曠誠非細故亦乞速賜有處分以幸公私焉臣無任悶蹙祈懇之至

答曰者疏具悉卿懇文衡之任實循公議卿其安心勿辭從速上來行公

대제학을 사직하는 상소

엎드려 아뢰옵건대, 신은 한 번 병듦에 고질이 되어 귀신과 이웃하면서 오랫동안 조정의 명령을 어겼사오니, 그 죄는 만 번 죽어 마땅하옵니다。그런데 뜻밖에도 성자(聖慈)

께오서 관용을 베푸시어 책벌(責罰)하지 않으시고 문형(文衡)1에 새로 임명하시니, 이것은 또한 천만 몽매지간(夢寐之間)에도 이를 수 없는 바이옵니다。사실상 신은 죽을 날이 가까워 옴에 그 질병이 더욱 심해져서 그 과실을 무겁게 하고 있으므로, 신은 진실로 근심과 두려움 속에 굴러 떨어져 몸둘 곳을 모르겠사옵니다。신이 가만히 생각해보니, 주문(主文)2의 직책은 그 임무가 매우 중요한 것으로, 문풍(文風)의 성쇄와 사풍(士風)의 청탁(淸濁)과 사명(辭命)의 득실에 모두 책임을 져야 하옵니다。만일에 재주와 학식이 아울러 뛰어나고 인망과 실상을 모두 갖춘 자가 아니면 마땅히 이 자리에 거하여서는 아니되옵니다。그러므로 전후로 이 직책을 수행한 자는 반드시 모두 당세(當世)의 명망이 높은 자들이었사오니, 옛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어찌 신과 같이 노둔한 몸으로 이 임무를 맡은 자가 있겠사옵니까? 신은 성품이 본래 우둔하고 게을러 보통사람만도 못하며 일찌기 어려서부터 이상한 질병에 걸려 한 권의 서책도 능히 읽을 수 없었사옵니다。과장(科場)의 격식에 맞는 문장에 있어서도 또한 비루하고 난삽하여 보잘 것이 없었는데도, 중년에 분에 넘치게 과거에 급제하였사오니, 이것은 사실상 만분의 일의 요행에서 나온 것이옵니다。그리하여 넓으신 은총을 입고 외람되게 총애를 받으면서 무릇 영화로운 직책 중 두루 역임하지 않은 것이 없었사온데, 작년에 제학(提學)에 제수됨에 이르러서 극에 달했사옵니다。부끄러운 신의 마음과 조정 안밖의 놀라움과 비웃음이 지금까지도 아직 없어지지 않았는데, 다시 조금도 합당치 않은 임무를 내리시어 예원(藝苑)을 이끌어 살피게 하고 문단을 주도하게 하시니, 신은 이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를 모르겠사오며, 안밖을 돌아보며 곰곰히 생각해봐도 그렇게 하신 까닭을 찾지 못하겠사옵니다。이어서 듣건대, 당초 천망(薦望)3할 때에 첫째로 천거된 사람은 훌륭한 덕망과 여망을 갖춘 자이며, 또한 주문(主文)에 천거하는 일은 종전의 체제를 이어 받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므로, 그 임무는 반드시 첫째로 천거된 사람이 맡아야 하는 것인데, 신이 점수가 약간 많아서 차례를 뛰어넘어 임명되었다고 하옵니다。회권(會圈)4한 여러 신하들은 모두 신의 동료들이었으니, 또한 어찌 신이 공소(空疎)하여 이 임무에 합당하지 않다는 것을 몰랐겠습니까? 다만 긴요한 문형(文衡)의 직책을 비워둔 지가 이미 오래되었고, 신이 종전에 선임될 때마다 모두 외람되게 받아 사양하지 않았기 때문에 잠시 이로써 관원을 갖추어 직위를 채우는 자리로 삼았을 따름이옵니다。조정의 일은 이처럼 구차하게 간택해서는 아니되오니, 신이 영화를 탐하여 외람되게 나아가는 것 또한 가히 돌이켜 반성하고 잘못을 뉘우쳐 고치는 하나의 실마리가 될 것이옵니다。신은 질병이 이미 고질이 되어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므로, 힘을 다해 신하의 반열에 나아가려는 소망은 이미 없어졌으니, 상례(常例)를 어겼다는 비난과 과분한 복으로 인한 재앙에 대해서는 진실로 언급할 게 없사옵니다。다만 조정의 임면(任免)의 어긋남과 관작(官爵)의 문란함은 당세(當世)에 수치가 되고 훗날에 비난을 받기에 족하므로, 또한 어찌 이를 근심하고 한탄하지 않을 수 있겠사옵니까? 수

십일 동안 묵묵히 지내면서 올바름을 제기해 주는 공론(公論)을 기다렸으나, 아직까지 듣지 못하여 부득이 죽음을 무릅쓰고 스스로 아뢰옵니다。엎드려 청하옵건대, 성명(聖明)께오서 자세하게 굽어 살피시어 신에게 새로 제수하신 대제학의 임무를 경질할 것을 빨리 명하심으로써, 문원(文苑)의 웃음거리가 되지 않게 해주신다면 정말 다행이겠사옵니다。또한 생각컨대, 신이 외람되게 헌직(憲職)을 욕되게 한 지가 이미 석달이 지났사오나, 지금 병세로 보아 다른 날에라도 직무를 수행할 가망이 전혀 없사오니, 이에 임하여 국사가 위난(危難)하고 재난과 기근이 눈에 가득 넘치는 때에 언지(言地)5를 오랫동안 비워둔다는 것은 진실로 작은 일이 아니옵니다。이에 또한 속히 처분을 내리시어 공사(公私)를 편안케 해주실 것을 청하옵니다。신은 송구스럽고 간구하는 지극한 마음을 가눌 길이 없사옵니다。

비답(批答)왈 : 상소문을 살펴보고 잘 알았는데, 경에게 문형(文衡)의 직무를 내린 것은 사실상 공의(公義)를 따른 것이니, 경은 안심하여 사양하지 말고 속히 분부대로 상경하여 공무를 수행하라。

註 : 1。대제학(大提學)의 별칭
2。과거(科擧)。시험관(試驗官)의 우두머리
3。관리를 윗자리에 천거함
4。새로 대제학(大提學)·직각(直閣)·대교(待敎)·한림(翰林) 등의 적임자를 뽑을 때, 전임자들이 모여 피선될 사람의 성명 위에 권점(圈點)을 찍는 일
5。간관(諫官)의 지위

申辭大提學兼辭大司憲及
신사대제학겸대사헌급
經筵惠局等諸兼任疏
경연혜국등제겸임소

伏以臣濫叨匪分猥上辭章雖文辭拙陋未能盡暴情實仰冀天鑑孔昭或賜垂諒矣及承 聖批非唯未蒙準許奬勵之 敎有若加之於可堪之人臣誠憂惶愧悚不得不叟申前說臣稟賦素薄生而羸脆自年十六七歲時己嬰痰火之疾根委沉痼屢濱於死不能開卷讀書今至三十餘年尋常數行書札亦且艱澁久而乃就若其詞章翰墨之工自視歉然絶意不爲此實通朝之所共知也其不知臣者則直笑其空踈雖其知臣者亦不過憐其疾痼終於懦廢而已何嘗以此等職任期臣哉臣前疏所謂文風之隆替士趨之淑慝則固非如臣等輩所可擬議至於辭命則朝家凡有大小述作皆爲主文者所主管不可他諉而臣之本末旣已畢陳矣其將以何文詞而可以當是任哉三百年來詞垣重選至于臣身墮却無餘鄭縡所謂時事可知者不幸近之矣昔洪貴達爲大提學金時習以詩嘲之曰人間可笑事貴達爲文章夫貴達詞華之富贍固非後人所可望然一爲具眼者所笑至今數百載之後

其詩尙存傳以爲笑談今日笑臣者則不但具眼者而已中外之婦孺輿儓皆是也臣誠杜門羞縮不敢擧顔向人而朝家則方且責其行公迄無鐫改不虞其上累名器臣竊憫焉况臣疾病危篤之狀乃在臣下鄕之後則又非朝廷之所得詳也平居精神昏瞀若墮烟霧視聽不明言語顚錯己若喪失心性之人而如或少加勞動微有思索則痰火輒升暈絶移日急灌藥物而後始乃得甦設令臣粗有欽槩之技到今誠無可爲况其原無所有哉久縻華啣虛盜榮名不敢頃刻自安而臣老母一自冒暑下來之後氣力日就澌鑠奄奄若難保臣亦憂心內焦疾勢增劇不能自力於構疏曠日稽遲今始上陳臣罪尤萬萬矣伏乞聖明俯賜鑑諒將臣新授文衡之任函許改正而臣之卽今事勢實無趑趄起動之望臣所叨憲職及兼帶若經筵備局惠廳堂上等任俱係緊重不可一日曠曠幷乞速賜鐫遞以便公私不勝幸甚臣無任憫蹙祈懇之至

答曰省疏具悉卿辭至此本職今姑勉副須勿過辭從速上來行公

대제학을 사직하고 겸하여 대사헌 및 경연혜국 등의 여러 겸직을 사직할 것을 청하는 상소

엎드려 아뢰옵건대, 신은 함부로 분수를 넘어 외람되게 상소의 글을 올렸사온데, 비록 문사(文辭)가 졸렬하고 비루하여 진정한 실정을 다 드러내지는 못하였사오나, 우러러 바라옵건대 전하께오서 매우 밝으신 판단으로 살피시어 넓으신 아량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전하의 비답(批答)을 받았사오나, 윤허하심을 얻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장려하신 교서에는 가히 감당할 수 있는 사람에게 벼슬을 내리신 것처럼 되어 있어서, 신은 진실로 근심에 당황하고 부끄러움을 느껴 부득이 전에 말씀드린 바를 다시 아뢰옵니다. 신은 타고난 자질이 보잘 것 없으며 태어날 때부터 병약하여, 나이 십칠·팔세 때부터 이미 담화병(痰火病)에 걸려 근골(根骨)이 쇠약하고 고질이 되어 누차 거의 죽을 뻔하여 서책을 펼쳐 독서할 수 없었사옵니다. 지금 삼십여년이 지나도록 몇 줄 안되는 짧은 서찰도 또한 난삽한 지가 오래 되었사오니, 사장(詞章)과 한묵(翰墨)의 공교(工巧)로움 같은 것에 대해서는 스스로 보기에도 뜻에 차지 않아 실망하여 짓지 아니하였사온바, 이것은 온 조정이 모두 알고 있는 바이옵니다. 신을 알지 못하는 자는 곧장 그 공소(空踈)함을 비웃으며 비록 신을 알고 있는 자도 또한 그 고질적인 질병을 불쌍히 여기는데에 불과하여, 결국에는 나약하고 쓸모없을 뿐이니, 어찌 일찌기 이러한 직무가 신에 적합하겠사옵니까? 신이 전에 올린 상소에서 말씀드린 문풍(文風)의 성

쇠와 사풍(士風)의 청탁(淸濁)은 진실로 신 등의 무리가 가히 논의할 바가 아니오나, 사명(辭命)에 대해서는 조정에 있는 무릇 크고 작은 저술은 모두 주문(主文)된 자가 주관하는 것으로 다른 사람에게 위탁할 수가 없으며 신의 본말(本末)은 이미 다 진언하였사오니, 장차 어떤 문사(文詞)를 가지고 이 직무에 감당할 수 있겠사옵니까?

삼백년 동안 내려온 문단의 중요한 선임이 신의 몸에 이르러 남김없이 무너져내려, 정계(鄭棨)가 말한 시사(時事)를 가히 알 수 있다는 말이 불행히도 가까워지고 있사옵니다。옛날에 홍귀달(洪貴達)이 대제학(大提學)이 되자 김시습(金時習)이 시로 그를 조롱하여 이르길, 「세간(世間)의 가소로운 일은 귀달이 문장을 짓는 것이다」라고 했다。대저 귀달의 부섬(富贍)한 시문은 진실로 후인들이 가히 바랄 바가 아니지만, 그러나 한결같이 식견을 지닌 자에게 비웃음을 당하는 바이옵니다。수백년이 지난 지금에까지 그 시가 아직 남아 있어서 재미있는 이야기거리로 전해지고 있사옵니다。금일에 신을 비웃는 자들은 식견을 지닌 자일 뿐만이 아니라 내외의 부녀자와 하인들도 모두 이러하옵니다。이에 신은 진실로 두문불출하고 부끄러움에 움츠러들면서 감히 얼굴을 쳐들고 사람을 향하지 못하고 있사옵니다。그런데 조정에서는 바야흐로 공무를 수행하라고 재촉만 하고 결국 경질해 주시지 않아, 윗 사람을 불편하게 하고 관작에 누를 끼치게 되어 신은 마음속으로 민망하기 짝이 없사옵니다。하물며 신이 하향(下鄕)한 후에 일어난 신의 질병의 위독한 상태는 또한 조정에서 상세히 알고 있는 바가 아니옵니다。평소 기거함에 있어 정신의 혼미함은 마치 안개속에 빠져 있는 듯 하고, 보고 듣는 것이 분명치 못하고 언어가 뒤섞여 혼란스러운 것은 이미 마치 심성(心性)을 상실한 사람과 같사옵니다。혹 조금이라도 일을 하고 잠시라도 사색을 할라치면, 곧 담화(痰火)가 치밀어 올라 몇일을 나곤 하옵니다。설령 신이 다소나마 글을 엮는 재주가 있다 하더라도 지금에는 진실로 할 수가 없사온데, 하물며 원래 그런 재주가 없는 바임에랴! 오랫동안 화려한 직함을 지니고서 헛되이 영화로운 명성을 차지하고 있었으므로 감히 한 시각도 스스로 편안히 지내지 못하였사옵니다。그런데 신의 노모가 스스로 더위를 무릅쓰고 내려온 후로, 기력이 날로 쇠잔해져서 금방이라도 숨이 끊어질 듯하여 목숨을 부지하기가 어려웠사오며, 신도 또한 근심스러운 마음에 속이 타서 병세가 갑자기 악화되어 스스로 상소문을 작성하는데 힘을 쓸 수가 없었으므로, 여러 날을 미뤄오다가 지금에야 비로소 상진(上陳)하오니, 신의 죄가 더더욱 크옵니다。엎드려 청하옵건대, 성명(聖明)께오서 자세히 굽어 살피시어 신에게 새로 제수하신 문형(文衡)의 임무를 빨리 경질하도록 윤허해 주시옵소서。신의 지금의 형편으로 보아서는 진실로 속히 일어나 기동할 가망이 없사옵니다。신이 분에 넘치게 차지하고 있는 헌직(憲職)과 겸직하고 있는 경연관(經筵官)·비국(備局)1·혜청(惠聽)2 당상(堂上) 등의 소임은 모두 긴요하고 중요하므로 하루라도 직무를 소홀히 할 수가 없사오니 이에 아울러 청하옵건대 속히 경질하시어 공사(公私)를 편안케 해주신다면, 진정 다행이겠사옵니다。신은 송구스

럽고 간구하는 지극한 마음을 가눌 길이 없사옵니다。

비답(批答)왈：상소문을 살펴보고 잘 알았는데、경의 사기절하여 급히 약물을 흘러 넣은 후에야 비로소 다시 살아야함이 여기에 이르니 본직(本職)의 해임을 잠시 허락하노니、모름지기 지나치게 사양하지 말고 속히 분부대로 상경하여 공무를 수행하라。

註：1。비변사(備邊司)의 별칭
2。선혜청(宣惠廳)의 약칭

承嚴敎後進到水原府界三辭大提學
승엄교후진도수원부계삼사대제학
兼以兼管司圃署進苫不謹引罪疏
겸이겸관사포서진고불근인죄소

伏以臣於日昨邸報中得伏見　聖敎責臣以分義事體至嚴至截臣誠惶怖震慄求死不得繼而伏奉辭疏之批非惟誅罰不及乃蒙許解臣所帶憲職臣又感極生悲不覺涕淚之交墜也臣以至庸極陋無所比數而蒙被聖朝罔極之恩致身至此榮耀已極且非有難進之義不安之嫌則無故而僥訣明時此豈臣心之所敢出而家素貧窶饘粥難繼老母菽水之供一家百口之養專仰於廩祿則舍此而枯槁窮山亦豈常情之所宜有者哉只緣灾生於福過鬼責於人非一病經時沉淹旅舍旣不得趁急趨班竭其死力少報　鴻恩之萬一又令八十老母過於憂慮顚頓下來臣實爲臣而不忠爲子而不孝有生如此不如死之久矣至於文衡之任則臣之前後辭章自謂底蘊已竭而尙未蒙　恩許肝膈之辭僥同於餘讓膏盲之疾終歸於托病此實臣誠意淺薄不能感動天聽伏地惶悚無所言昔司馬光以不解四六力辭掌制夫光之文學百世所師只以一藝之不工遜避而不居古之人不強於其所不能而辭受之不苟有如此者臣於前後榮選強顔於其所不當受者凡幾度矣病裏無寐靜省尤辟顔汗背無以自容及此言善之日又安可復循塗轍不知改悔終其身於從他笑罵之地而已乎齊景公招虞人以旌虞人至死不往君招而不往固有犯分之罪矣　聖人之所以取之者取非其招不往也今朝廷之所以命臣者非其任也則臣雖重被誅死又何敢輒進承命終爲虞人之罪人也哉且臣竊有一段危苦之情有未盡暴於　天日之下君臣猶父子也安敢有隱乎臣之頃年燕行也臣雖以國事之重不敢言私臣老母思念臣身積憂成疾至今根蒂尙存有感輒發今夏之不量氣力率爾下來者亦出於情弱之致而炎路之所撼傷眞元已損却十之七八矣窮閭僦屋百事荒凉居處飮食之失其適藥餌救護之乖

其方輾轉沉頓臥不能起臣於前日雖承將母之 敎到今形勢實難轉動一步地凡其憂愁困削以至於此者皆以臣之故也臣若於此時迫於 嚴命棄而遠去又使重其憂而益其疾萬一或有無窮之悔則臣何以自立於天地之間而其在 聖明孝理之下豈不深有所惻傷乎倘蒙 天地父母俯賜矜憐改正臣文衡不似之任且將兼帶一二緊務幷賜遞免俾臣得以子母相守徐加調救若使賴天之幸得有一分之減則雖臣之私計亦不堪久居此矣筋力趨走不無其日其或不然隕首結草之報亦不以生死有間也嚴敎之下不敢偃然退伏且伏聞眞西菰不謹封進有司圄官員罷職之 命臣方待罪提調而身在遠外不能檢管曠職之罪亦不可追切欲進伏城外以請鈇鉞之誅而形羸氣弱不任鞍轡發行二日始到水原府界喘息奄奄決無前進之勢而且聞老母臂痛猝劇之報玆又封疏縣道舁歸私次自念臣罪已積不可每蒙寬宥瞻望 宸極涕泣竢罪而己臣無任震怖懇迫之至

答曰省疏具悉卿其安心勿辭宜速上來行公

엄한 교지를 받고난 후 나아가 수원부계에 이르러 대제학을 세번 째 사직하며, 아울러 관할 사포서에서 수박을 진상할 때 신중하지 못함을 스스로 사죄하는 상소

엎드려 아뢰옵건대, 몇일 전에 저보(邸報)1에서 신을 질책하신 성교(聖敎)를 삼가 보았사온데, 도리상 일의 형편이 지극히 엄하고 지극히 단호하여 신은 진실로 두려움에 떨면서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라 생각하였사옵니다。그런데 이어서 상소문에 대한 비답(批答)을 삼가 받아 보았더니, 주벌(誅罰)이 이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신이 지니고 있는 헌직(憲職)을 해임하도록 윤허해 주시니, 신은 또한 지극히 감격한 나머지 슬픔이 생겨나 신도 모르는 사이에 눈물이 주루룩 떨어지옵니다。신은 지극히 용렬하고 비루함을 비할 데가 없사온데도, 성조(聖朝)의 망극한 은총을 입어 몸이 여기에 이르렀사오니, 그 영화로움이 극에 달했사옵니다。또한 관직에 나아가기 어려운 명분이나 마음에 편치 못한 비난이 있는 것도 아닌데 별다른 이유 없이 곧바로 밝은 시대를 떠나는 것이 어찌 신의 마음에서 감히 나올 바이겠사옵니까? 그리고 집안이 본디 빈곤하여 죽으로도 끼니를 잇기가 어려우므로, 노모에게 드리는 변변치 못한 음식봉양이나 온 집안의 여러 식구를 먹여 살리는 것은 오로지 신의 봉록에 의지하고 있으니, 이를 버려두고서 고목이 가득한 궁벽한 산처럼 되게 한다면, 또한 어찌 인지상정(人之常情)상 마땅한 바이겠사옵니까? 다만 재난은 복이 지나

친 데서 생겨나고 사람이 쇠약해져 있을 때 귀신이 집적거리는 법이므로, 한 차례 병마가 지나갈 때 객사에 드러누워 있었는지라 이미 급히 관리의 반열에 달려가 죽을 힘을 다하여 넓으신 은총의 만분지일(萬分之一)도 갚지 못하였사오며, 또한 팔십 노모로 하여금 지나치게 근심걱정하게 하여 황급히 내려오게 하였으니, 신은 진실로 신하로서는 충성을 다하지 못하고 자식으로서는 효도를 다하지 못하였사옵니다。사는 것이 이와 같으니 죽는 것만 못한 지가 오래되었사옵니다。문형(文衡)의 임명에 대해서는 신이 전후로 올린 상소문에서 스스로 깊은 속마음을 남김없이 아뢰었사오나 아직 해임에 대한 전하의 윤허가 없사오니, 진심에서 나온 상소는 다시 겉치레의 사양과 같아지고 난치의 병은 결국 탁병(托病)한 것으로 돌아가고 말았사옵니다。이것은 진실로 신의 정성스런 뜻이 천박하여 천청(天聽)을 감동시킬 수 없음이오니, 땅에 엎드려 두려움과 부끄러움을 느끼며 더이상 말할 것이 없사옵니다。옛날에 사마광(司馬光)은 사육문(四六文)을 잘 모른다고 장제(掌制)를 극구 사양하였사온데, 대저 사마광의 문학은 백세(百世)의 스승이 되는 바이나 다만 한 가지 재주가 뛰어나지 못하다고 해서 사양하고 물러나 거하지 않았으니, 옛 사람들이 자기가 능치 못한 바를 억지로 하지 않고 사양하고 받아들이는 데에 구차하지 않음이 이와 같았사옵니다。신은 전후로 영광스런 선임(選任)에 있어서 그 마땅히 받아서는 안될 자리에 서서 부끄러움을 몰랐던 것이 무릇 여러 번이었사옵니다。병중에 잠들지 않고 조용히 허물을 살펴보니, 더욱 얼굴이 붉어지고 등에 땀이 흘러 스스로 들 낯이 없사옵니다。이러한 선례(善例)를 말하는 때에, 또한 어찌 다시 도리만을 좇아 잘못을 뉘우치고 고칠 줄을 모르면서 남에게 비웃음 당하고 욕먹는 자리에서 몸을 마치겠사옵니까? 제(齊)나라 경공(景公)이 우인(虞人)을 장목기(旌)의 예(禮)로 불렀으나 우인이 죽더라도 나아가지 않았으니, 임금이 불렀으되 나아가지 않은 것은 진실로 본분에 어긋나는 죄를 지은 것이지만, 성인(聖人)이 여기에서 취한 바는 합당한 예(禮)로 부르는 것이 아니면 나아가지 않는다는 뜻을 취한 것이옵니다。지금 조정에서 신에게 명한 바는 합당한 임명이 아니오니, 신이 비록 주살당할 죄를 거듭 짓는다 하더라도 또한 어찌 감히 문득 나아가 명령을 받들음으로써 결국 우인(虞人)의 죄인이 되겠사옵니까? 또한 신은 홀로 일단의 위급하고 어려운 사정을 지니고 있으면서 아직 하늘의 태양 아래에 다 드러내지 못하고 있사오나, 군신(君臣)은 부자(父子)와 같으니 어찌 감히 숨기는 것이 있겠사옵니까? 신이 근년에 연행(燕行)2하였사온데, 신은 비록 국사가 중요하므로 감히 사사로운 사정을 아뢰지는 못하오나, 신의 노모가 신의 몸을 걱정하다가 근심이 쌓여 병이 되었사옵니다。지금에 이르러 근골이 아직 남았는지라 느낀 바 있어 문득 떠남에, 올 여름에 기력을 헤아리지 않고 갑작스럽게 내려온 것은 또한 정에 약한 소치에서 나온 것으로, 더운 여정에서 몸을 상하여 원기가 이미 쇠잔해진 것이 십분의 칠·팔이 되옵니다。궁벽한 마을의 빌린 집은 온갖 일이 황폐하고 처량하여, 거처하고 식사함에 있어 그 적절함을 잃어버렸고 보약과 좋은 음

식으로 간호함에 있어 그 방법에 어긋나고 말았으니, 점점 병이 깊어져 드러누워 일어날 수가 없게 되었사옵니다。그러므로 신이 일전에 비록 장차 사직하지 말라는 교서를 받기는 했사옵니다만, 지금의 형편으로 봐서는 사실상 한 걸음도 움직이기가 어렵사옵니다。무릇 그 근심스러움과 곤궁함이 여기에 이르게 된 것은 모두 신 때문이옵니다。신이 만약 이러한 때에 지엄하신 어명에 쫓기어 노모를 버려두고서 멀리 떠나간다면, 또한 그 근심을 가중시키고 그 병세를 악화시킬 것이옵니다。만에 하나 혹시라도 끝없는 후회를 할 일이 생기게 된다면, 신은 어떻게 천지간에 스스로 설 수가 있겠사오며, 성명(聖明)의 효성스러운 이치에 있어 어찌 깊이 측은하게 여겨 마음 아파하는 바가 있지 않겠사옵니까? 천지의 부모되시는 전하께오서 굽어 살피시고 긍휼히 여기시어 무능한 신의 문형(文衡)의 임무를 경질하시고, 또한 겸직하고 있는 한 두 가지의 긴요한 직무를 아울러 빨리 면직하시어, 신으로 하여금 모자(母子)가 서로를 지켜주면서 서서히 병을 구완케 하도록 해주시옵소서。만약에 하늘의 도우심을 받아 조금이라도 차도가 있게 된다면, 비록 신의 사사로운 계획일지라도 또한 오랫동안 여기에 머물러 있지만은 않을 것이오니, 기력을 차려 빨리 달려가게 될 날이 없지 않을 것이옵니다。혹시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목숨을 내놓고 결초보은(結草報恩)할 것이오니, 또한 살고 죽음에 차이가 없을 것이옵니다。지엄하신 교서를 받잡고서 감히 편안하게 물러나 거하지 못하던 중에, 수박을 신중하게 받들어 진상하지 못한 일로 사포서(司圃署)3의 관원을 파직하라는 어명이 있었음을 삼가 들었사옵니다。신은 바야흐로 제조(提調)를 논죄해야 하오나 몸이 멀리 밖에 있어서 단속할 수가 없사오니, 직무를 태만하게 한 죄는 또한 피할 수가 없사옵니다。성밖에 나아가 엎드려 중형(重刑)의 처벌을 청하고자 함이 간절하오나, 몸이 파리하고 기력이 쇠약하여 고삐를 잡고 말에 오를 수가 없사옵니다。출발한 지 이틀만에 비로소 수원부(水原府)의 경계에 이르렀사오나, 천식으로 죽을 것만 같아서 앞으로 나아갈 형편이 전연 아니었사오며, 게다가 또한 노모의 아픈 팔이 갑자기 심해졌다는 전갈을 받고나니, 이에 다시 현감에게 상소문을 부치고 급히 사저로 돌아가옵니다。스스로 생각컨대, 신의 죄는 이미 쌓여서 더이상 매번 관대한 용서를 받을 수 없사오니, 신극(宸極)4을 앙망(仰望)하며 눈물을 흘리면서 죄를 기다릴 뿐이옵니다。신은 두려움에 떨며 간절히 원하는 지극한 마음을 가눌 길이 없사옵니다。

비답(批答)왈 : 상소문을 살펴보고 잘 알았으니, 경은 안심하여 사직하지 말고 마땅히 속히 상경하여 공무를 수행하라。

註 : 1。관보(官報)의 일종으로 저초(邸鈔)、각초(閣鈔)라고도 함
2。중국에 사신으로 가는 일
3。궁중의 원포(園圃) : 채소 등에 관한 일을 맡아보던 관청
4。임금의 처소。또는 임금을 말함

辭大司憲疏
사대사헌소

伏以臣於月初伏奉 回諭使之勿辭上來方切悶慶之除又於日昨邸報伏見 聖敎至以君臣分義責諭備至臣誠惶怖震慄置身無地臣之跧伏鄕村累月違 命者切出於臣狗馬之疾不能勤作而復緣臣老母念臣之深不量氣力而顚頓下來仍致病勢沉淹日益危篤臣旣無將母上去之勢則人子之情又無離側從仕之望凡其事勢之不獲已者只是如斯非敢希慕於恬退之名爲因此休官之計而大臣不察遂乃混達於收召之中臣於此深恧其非倫之儗而仍竊自傷誠意淺薄不足以見信於 君父前後屢疏尙未蒙 矜諒以至于今也昔溫嶠當晉室搶攘之際舍其母而赴建康夫嶠之才智明達深能有功於當時而絶裾之事後人尙且病之今日艱虞雖或孔棘而猶不至於有兵革之警臣之才力萬分無補於時而目見病母奄奄於床席之間乃忍棄置於窮谷決然爲舍去之計則非但臣之情理萬萬煎迫其在 聖朝亦安用如此之人爲哉臣母今年七十六歲若過旬日則爲七十七歲而重以疾病餘日無幾倘或少寬須臾之暇以全母子之恩則 聖明孝理之政足以光于四方而他日朝廷之上亦必有移孝爲忠之人不止臣隕結之報而已也方今國勢杭樫變異層疊未知何樣禍機伏於冥冥此正君臣上下動色相戒以求轉移之日而臺閣言議之地緣臣久曠至於如此此雖臣之罪亦可見朝家悠泛之一端也伏乞 聖明先斥臣身以肅朝綱仍 命擇授可堪之人以廣忠諫之路國事幸甚臣無任危怖煎灼之至

答曰省疏具悉卿辭至此本職今姑勉副焉卿其安心上來

대사헌을 사직하는 상소

엎드려 아뢰옵건대, 신은 이달 초에 사양하지 말고 올라오라 하신 전하의 회답을 삼가 받잡고서 바야흐로 진정 송구스럽고 두려워하고 있었는데, 다시 몇일 전에 저보(邸報)에서 군신의 도의로써 질책하신 유지(諭旨)가 담겨있는 성교(聖敎)를 삼가 보고나서, 신은 진실로 당황하고 두려움에 떨며 몸둘 데가 없었사옵니다。신이 향촌에 삼가 거하면서 몇 달 동안 어명을 어긴 것은, 처음에는 못난 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움직일 수 없었기 때문이었으며, 다시 신의 노모 때문이기도 하였사옵니다。노모가 신을 깊이 걱정한 나머지 기력을 헤아리지 않고 황급히 내려옴에 병세가 심해져 날로 더욱 위독해졌으므로, 신은 이미 노모를 올려보낼 형편이 못되었으니 자식된 도리상 또한 곁을 떠나 벼슬을 좇을 가망도 없었사옵니다。무릇 일의 형편의 부득이했음이

이와 같을 뿐이오며、감히 염퇴(恬退)1의 명성을 흠모하여 이것으로 벼슬을 그만두려는 계획을 삼은 것이 아니었사오나、대신들의 불찰이 마침내 불러들이는 조서 중에 뒤섞여 이르니、신은 이에 서열이 아닌데도 임명된 참람됨을 깊이 부끄러워하면서、성의(誠意)가 천박하여 군부(君父)에게 믿음을 받기에 부족함을 가만히 스스로 마음 아파하고 있사옵니다。전후로 누차에 걸쳐 올린 상소에 대하여 아직 전하의 긍휼히 여기심을 받지 못하고 지금에까지 이르렀사옵니다。옛날에 온교(溫嶠)는 진(晋)의 종실이 혼란에 빠졌을 때 그의 모친을 버려두고 건강(建康)2으로 달려갔사옵니다。대저 온교의 재지(才智)는 사리에 밝게 통달하고 능력이 뛰어나 당시에 공을 세우긴 했으나、모친을 버려둔 일은 후인들이 아직도 비판하고 있사옵니다。금일의 염려스러운 난국이 비록 혹 매우 시급한 일이긴 하지만 전쟁에 대한 경계에까지는 이르지 않았사옵니다。신의 재주와 능력으로는 조금도 이 시대에 보탬이 되지 못하며、병든 노모가 침상에서 죽어가는 것을 눈으로 보니、이에 궁벽한 골짜기에 차마 버려두고서 결연히 떠나가려는 계획을 세운다면、비단 신의 마음이 몹시도 다급해질 뿐만이 아니며、성조(聖朝)에 있어서도 또한 어찌 이와 같은 사람을 쓰겠사옵니까? 신의 노모는 금년에 칠십육세인데 약 열흘만 지나면 칠십칠세가 되옵니다。그런데 질병이 위중하여 살아 있을 날이 얼마 되지 않사오니、만일에 혹 잠깐 동안의 말미를 너그럽게 내리시어 모자간의 은정(恩情)을 온전히 할 수 있게 된다면、효도로 다스리는 성명(聖明)의 정치가 족히 사방에 빛나게 되어、훗날 조정에 또한 반드시 효성을 바탕으로 충성을 다하는 사람이 있게 될 것이오니、신 홀로 목숨을 내놓고 결초보은할 뿐만이 아닐 것이옵니다。바야흐로 지금 국세가 불안하고 변고가 중첩하여 어떠한 화(禍)의 기미가 드러나지 않고 숨어 있는지를 알지 못하오니、지금은 바로 군신상하(君臣上下)가 얼굴색을 고치고 서로 경계하여 화가 옮겨가는 것을 막아야 할 때이오나、대각(臺閣)의 언의(言議)의 자리를 신이 오랫동안 비워둔 때문에 이와 같은 지경에 이르렀사옵니다。이것은 비록 신의 죄이지만 또한 조정에서 일을 다잡아 하지 않는 일단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옵니다。엎드려 청하옵건대、성명(聖明)께오서 먼저 신 자신을 질책하심으로써 조정의 기강을 엄하게 하시고、이어서 명을 내리시어 가히 감당할 만한 사람을 택하여 제수하심으로써 충간의 길을 넓히신다면、나라의 일이 진정 잘 될 것이옵니다。신은 두려움에 떨며 조급함에 애타는 마음을 가눌 길이 없사옵니다。

비답(批答)왈 : 상소문을 살펴보고 잘 알았노라。경의 사양함이 여기에 이르렀으니 본직을 이제 잠시 해임할 것을 허락하노니、경은 안심하고 올라오라。

註 : 1。명예나 利權에 뜻이 없어서 벼슬을 사직함
2。남경(南京)의 옛 이름。건축(建築)·건업(建鄴)이라고도 함

辭吏曹判書兼申辭惠局兼任疏　庚辰
사이조판서겸신사혜국겸임소

伏以臣於今月初七日伏奉本月初四日成貼承政院書狀有旨以臣爲吏曹判書使之斯速乘馹上來者臣以至庸極陋蒙被　聖朝罔極之恩叨竊榮寵固已多矣然亦何意天官冢宰之職遽至於臣身也哉朝廷以用舍人物之柄畀之銓曹而乃以無似如臣置諸長席是則官方之淆濫實自銓曹始其他尚又何說焉此識者之所以竊歎於今日之事而臣之凜然寒心者亦豈在於過福之私憂而已哉然此則在廷之臣想或有擧正者不待臣自爲覶縷而臣之萬萬煎迫情理誠有不暇於緩聲者玆敢冒死哀籲以冀　聖明之垂憐焉臣老母年垂八耋痼疾經年之狀旣已屢陳於前後疏辭而一自前秋感寒之後到今己至五六箇月而纔輕旋重尙未有和解之勢一番添感則眞元又減下一層卽今叟無一分餘地而春來寒暖不適調攝失宜自去月念後猝又添劇全廢糜粥已有日矣喘息奄奄若將頃刻難保老人氣力異於少壯以此病情寧復有蘇完之望哉臣於前冬暫時上洛終至踰越分義蒼黃徑歸而至今心神未定恒若喪性乍出外舍或聞疾聲急步則魂驚體顫良久而後始止以此情狀雖母病稍得回頭亦難於離側遠去況今方在十分之地者乎都目之過時今已累月若又緣臣遷就則臣心之惶懼固不敢言而其在朝家事體豈不大有傷損乎伏乞　聖明俯賜諒察卽速收回臣新授職名使名器無污職事無闕而區區母子之恩亦得以獲全於　孝理之下豈勝萬幸且念惠廳堂上實管一國貢賦其爲任極重且緊而臣在外虛帶今已經年臣於前後屢嘗控辭而未蒙準許矣今臣情理旣無上去供職之望則豈可一任癏曠而莫之恤乎亦乞速賜變通以幸公私焉臣無任煎迫涕泣之至

答曰省疏具悉卿之不仕實涉無名旣無難強之疾病且無難安之情勢而初因浴溫之行便作恬退之士前後除拜一切不起是何昧於君臣之大義至此乎殊未可曉也卿其勿辭從速上來行公

이조판서를 사직하며、아울러 혜국 겸직의 사직을 청하는 상소 경진년

엎드려 아뢰옵건대、신은 이달 초 칠일에 이달 초 사일로 날인된 승정원(承政院)의 서장(書狀)을 삼가 받았사온데、신을 이조판서에 임명했으니 이에 속히 역마를 타고 올라오라는 교지(敎旨)가 있었사옵니다。신은 지극히 용렬하고 비루한 몸으로 성조(聖朝)의 망극하신 은총을 입고 분에 넘치는 영광스런 총애를 차지한 것이 진실로 이미 많았사옵니다。그

러나 또한 천관(天官)1의 총재(冢宰)2의 직책이 갑자기 신의 몸에 이르게 될 줄을 어찌 생각이나 했겠사옵니까? 조정에서 인물의 임면(任免)에 대한 권한을 전조(銓曹)3에 부여하고 이에 신처럼 무능한 자를 제일 높은 자리에 앉히니, 이것은 바로 관계(官界)의 문란함이 사실상 전조(銓曹)로부터 시작되는 셈이니, 그 밖의 것은 또한 무슨 말을 하겠사옵니까? 이것이 식자들이 금일의 일에 대하여 마음으로 탄식하는 까닭이니, 신이 몹시 두려워 몸을 떠는 이유가 또한 어찌 과분한 복으로 인한 사사로운 근심에만 있겠사옵니까? 그러한즉 조정에 있는 신하가 생각하기에 혹 행동거지가 올바른 자가 있으면, 신을 기다리지 말고 스스로 자세하고 조리있게 추천하면 될 것이며, 신은 온갖 일의 형편에 쫓기어 다급하므로 진실로 천천히 살펴볼 겨를이 없사옵니다. 이에 감히 죽음을 무릅쓰고 호소하여 성명(聖明)께오서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바라옵니다. 신의 노모는 나이가 팔십이 다 되어 가는데, 몇년 동안 깊이 병들어 있는 상태는 이미 누차 전후로 올린 상소문에 진술하였사옵니다. 지난 가을에 한번 감기가 든 후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이미 오·륙 개월이 지났지만, 조금 나았다가 다시 심해지곤 하여 아직껏 누그러질 기세가 보이질 않사옵니다. 한 번 감기가 덮치고 나니 원기가 또한 심하게 줄어들어 지금에는 더이상 남아 있는 것이 없사오며, 봄이 됨에 한온(寒溫)이 적당치 않아 몸조리 하는데 마땅함을 잃어 버렸고, 지난 달에 걱정한 후로부터 갑자기 다시 병세가 심해져 미음까지도 전폐한지가 이미 몇일이 되옵니다. 천식으로 숨이 끊어질 듯하여 장차 한 순간도 부지하기가 어려울 것 같으며, 노인의 기력은 젊은 사람과 다르므로 이러한 병세로 보아 어찌 다시 완치될 가망이 있겠사옵니까? 신이 지난 겨울에 잠시 상경하였으나 결국 신하로서의 도리를 뛰어넘어 황급히 곧장 돌아왔으며, 지금까지도 정신이 안정되지 않아 항상 실성한 듯이 지내고 있사옵니다. 잠시 집밖에 나갔다가 혹 급한 전갈이라도 받을라치면 정신이 아득하고 몸이 떨려 한참 후에야 비로소 진정하곤 하니, 이러한 정황으로 보아 비록 노모의 병이 조금 회복되었다 하더라도 역시 곁을 떠나 멀리 가기가 어렵사온데, 하물며 지금은 바야흐로 위독한 지경에 있음에랴! 나라의 중요한 일이 기일을 넘긴지가 지금 이미 몇달이나 되는데, 만약에 다시 신이 관직을 옮겨 간다면, 두려움에 떠는 신의 마음은 진실로 감히 말할 수 없지만, 조정의 중대한 일에 있어서 어찌 크게 손상됨이 있지 않겠사옵니까? 엎드려 청하옵건대, 성명(聖明)께오서 자세하게 굽어 살피시어 신에게 새로 제수하신 직명을 속히 거두어 들임으로써, 관작에 오점이 없게 하고 직무에 결손이 없게 하시며, 구구한 모자간의 은정으로 하여금 또한 전하의 효성스러우신 다스림 아래에서 온전함을 얻게 하신다면, 그 지극한 고마움을 어찌 이길 수 있겠사옵니까? 또한 생각컨대, 혜청(惠聽)4의 당상(堂上)은 사실상 한 나라의 공부(貢賦)를 관할하는 것으로 그 임무가 매우 중요하고도 긴요하온데, 신이 조정 밖에서 헛되이 직명만 지니고 있은 지가 지금 이미 해를 넘겼사옵니다. 이에 신이 계속해서 누차 일찌기 상소문을 올렸으나 아직 윤허를 받지 못했사옵니다.

지금 신의 형편으로는 이미 상경하여 직무를 수행할 가망이 없사오니, 어찌 가히 한 가지 소임이라도 오랫동안 태만히 하여 돌보지 않게 할 수 있겠사옵니까? 그러니 전하께오서 속히 변통하시어 공사(公私)를 편안하게 해주실 것을 이에 또한 청하옵니다. 신은 눈물 흘리며 우는 절박한 심정을 가눌 길이 없사옵니다.

비답(批答)왈 : 상소문을 살펴보고 잘 알았노라. 경이 벼슬하지 않는 것은 사실상 명분이 없노라. 이미 치유하기 어려운 질병이 없어졌고 또한 안정되기 어려운 정세도 없어졌는데, 처음에는 온천에 목욕하러 간다고 했다가 곧 염퇴(恬退)의 선비가 되어 계속해서 내린 관직에 일체 나아가지 않으니, 이 어찌 군신의 대의(大義)에 어두움이 여기에까지 이르렀는지 알 수 없는 일이로다. 경은 사양하지 말고 속히 분부대로 올라와 공무를 수행하라.

註 : 1。이조(吏曹)의 별칭
2。이조판서의 별칭
3。문무관(文武官)의 임명권을 갖고 있는 이조(吏曹)와 병조(兵曹)에 대한 통칭
4。선혜청(宣惠廳)의 별칭

承嚴敎後進詣金吾門外待罪疏
승엄교후진예금오문외대죄소

伏以臣得伏聞日昨筵席　下敎臣之罪戾當在於誅殛之科而特未有成命耳臣於此不敢叵顧私情乃以就伏邦刑之計進詣金吾門外不料聖慈寬恩嚴誅不加而

召牌之降又出於千萬意慮之外是則　聖明猶以職務責臣也臣尤不勝駭惶欲死夫人無誠信不能以一日自立朋儕尚然況於君臣之際乎伊日　聖敎所以明臣之罪者實皆疑臣之詐謾惡臣之不直而　辭旨之間多有臣子所不敢聞者此實臣誠信不足以感動　君父之致叵將何顔以立於聖明之朝而　聖明亦何所取於臣仍置天官極選之地哉臣旣忍絶母子之恩而不敢以情理仰暴又復恬然於　嚴旨之下而不得以廉義自居冒昧趨　命只爲大政之了當則其苟且洪泯足以有駭於聽聞而上累於朝廷豈但臣私心之怵迫而已哉玆於再召之下終不得祗赴本罪之外又添違慢之科雖萬被誅伐何足以贖臣之過哉顧臣情跡不宜仍留輦下退伏城外以竢處分伏乞亟下明旨勘臣罪狀使公法得伸私分少安不勝幸甚臣無任惶怖震悸席藁竢命之至

答曰省疏具悉卿其須勿撕捱速出行公

지엄하신 교서를 받고난 후 금오의 문밖에 나아가 죄를 기다리는 상소

엎드려 아뢰옵건대, 몇일 전 경연(經筵) 석상에서 하교(下敎)하시어 신의 죄는 마땅히 주벌해야 하는 것이로되 다만 아직 명령을 내리지 않았을 뿐이라고 하셨다는 것을 삼가

들었사옵니다。신은 이에 감히 더이상 사사로운 정을 돌보지 않고、곧장 국법을 달게 받을 각오로 금오(金吾)1의 문밖에 나아갔사오나、뜻밖에도 성자(聖慈)께오서 너그러운 은총을 베푸시어 엄벌을 내리지 않으시고 도리어 초징(招徵)하는 교지(敎旨)를 내리신 것은 또한 천만 뜻밖에서 나온 것이옵니다。이것은 성명(聖明)께오서 오히려 직무로써 신을 책하신 것이오니、신은 더욱 놀랍고 당혹스러워 죽고 싶은 마음을 이기지 못하겠사옵니다。대저 사람이 진실과 믿음이 없으면 하루도 스스로 설 수가 없는 법으로、친구들 사이에서도 오히려 그러하온데 하물며 임금과 신하 사이에서 임에랴! 몇일 전 전하의 교지에서 신의 죄를 밝힌 것은 사실상 모두 신이 속였다고 의심하여 신의 정직치 못함을 미워하신 것으로、교지의 말씀 가운데 신이 감히 듣지 못했던 바가 많이 있었사옵니다。이것은 진실로 신의 진실과 믿음이 군부(君父)를 감동시키기에는 부족했던 탓이니、장차 다시 무슨 낯으로 성명(聖明)의 조정에 서겠사옵니까? 그런데도 성명(聖明)께서는 또한 신에게서 무슨 취할 것이 있어서 다시 천관(天官)2의 제일 높은 자리에 놓으셨사옵니까? 신은 이미 모자간의 은정을 잔인하게 끊어 버렸으나 인정의 도리상 감히 부모에게 심하게 해서는 안되며、또한 다시 엄한 교지 아래서 편안히 지내지만 청렴한 도리를 지녔다고 자처하면서 사리를 따지지 않고 명령을 쫓을 수는 없사옵니다。다만 나라의 대정(大政)은 명료하고 마땅해야 한 즉 그 구차하고 깨끗치 못한 것은 족히 들음에 놀라움이 있고 위로는 조정에 누를 끼치게 되니、어찌 다만 신의 사사로운 마음만이 두려워 할 뿐이겠사옵니까? 이에 다시 초징하였으나 결국 삼가 나아가지 못함으로써、본죄(本罪) 외에 다시 어명을 어기고 태만히 한 죄과가 첨가되었사오니、비록 만번 주벌을 당하더라도 어찌 신의 과오를 속죄할 수 있겠사옵니까? 신의 정황을 돌아봄에 마땅히 어전에 머물러 있어서는 아니되므로 물러나 성밖에 엎드려 처분을 기다리옵니다。엎드려 청하옵건대、명철하신 교지를 급히 내리시어 신의 죄상을 다스림으로써、공법(公法)을 펼칠 수 있게 하고 사사로운 분수에 다소 편안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면 정말 다행이겠사옵니다。신은 당황하고 두려움에 떨면서 거적을 깔고 엎드려 어명을 기다리옵니다。

비답(批答)왈 : 상소문을 살펴보고 잘 알았으니、경은 모름지기 고집부리지 말고 속히 나와 공무를 수행하라。

註 : 1。의금부(義禁府)의 별칭
2。이조(吏曹)의 별칭

行大政後將還鄉申辭吏曹判書及兼
行大司憲後將還鄉申辭吏曹參判兼
帶諸任疏
대제임소

伏以臣於赴洛之日母病尙在危急之境而迫於 嚴旨
遂母子泣訣而來矣相離已迫一旬不但臣心肝焦盡無
餘抑臣母望子之心亦切矣況自近日以來粥飮全不入

口眞元日益陷下氣息如線不能接續而昏昏不省之中猶且頻問臣來否云臣旣聞此言方寸如截其何忍一刻遲留以致他日無窮之悔哉玆不得不蒼黃歸去以爲及時相見之地大政後呈告請遞自是恒規而臣之事勢亦難遲待一兩日之間行色迫急又靡瑕於呈疏承 批臣於前後屢積犯分之誅尙未一勘而今又不免於徑情直行罪尤萬死伏乞 聖明憐臣情理察臣形勢先削臣本兼詩任俾臣得以安意救護不勝幸甚仍念臣之上來在於久離京闕之餘而適値引對停輟未得一登前席以瞻淸光歸伏田廬死有遺恨回望 宸極有淚盈襟而已

答曰疏具悉卿其勿辭救護母病

대정을 행한 후에 장차 고향으로 돌아가 이조판서 및 겸직한 여러 임무에 대한 사직을 청하는 상소

엎드려 아뢰옵건대、신이 상경할 때 노모의 병이 아직 위급한 지경에 있었으나、엄한 어지(御旨)에 쫓기어 마침내 모자가 울면서 이별하고 올라왔는데、서로 떨어진 지가 이미 십일이 다 되어감에 다만 신의 마음이 남김없이 다 타버렸을 뿐만 아니라、신의 노모가 자식을 바라는 마음 또한 간절하옵니다。하물며 근래에는 미음조차도 전연 입에 넣지 못하여 원기가 날마다 더욱 없어져 가고、실처럼 가늘어진 숨소리가 이어지지 못하여、인사불성이 된 혼미함 속에서도 오히려 신이 왔는지의 여부를 자주 묻는다고 하옵니다。신은 이미 이 말을 듣고 바야흐로 가슴을 도려내는 듯하니、어찌 차마 한 순간이라도 더 머물러 지체하면서 훗날에 끝없는 후회를 하겠사옵니까? 이에 부득이 황급히 돌아감으로써 제때에 맞춰 상견하는 자리를 만들지 않을 수 없사옵니다。대정(大政)1을 행한 후에 상고(上告)하여 경질을 청하는 것이 자고로 상규(常規)이오나、신의 사정이 또한 하루이틀 조차도 기다리기가 어렵고 행색이 급박하여 또한 상소를 올리고 비답을 받을 겨를이 없사옵니다。계속 누적되어 온 본분을 어긴 신의 죄에 대하여 아직 한 가지도 처분 받지 못하였사오나、지금 또한 고집대로 곧장 행함을 면치 못하게 되었사오니、그 죄 만 번 죽어 마땅하옵니다。엎드려 청하옵건대、성명(聖明)께오서 신의 인정상 도리를 가엽게 여기고 신의 형편을 살피시어 먼저 신의 본직과 겸임을 삭탈하심으로써、신으로 하여금 편안한 마음으로 노모를 구호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면 진정 다행이겠사옵니다。또한 생각건대、신이 상경한 것은 오랫동안 대궐을 떠나 있었기 때문이었으나、마침 전하의 인견(引見)이 끝나 버려 한 번도 앞자리에 나아가 전하의 청광(淸光)하심을 바라보지 못하였사오니、시골집으로 돌아가 거함에 죽더라도 여한이 있을 것이옵니다。신극(宸極)2을 우러러보며 흘리는 눈물이 옷깃을 적실뿐이옵니다。

비답 왈：상소문을 살펴보고 잘 알았으니、경은 사직하지 말고 노모의 병을 구호하라。

註 : 1。一、二月의 도목정사(都目政事) 또는 서임(敍任)의 수효가 많은 정사(政事)
2。임금의 거소(居所) 또는 황제(皇帝)의 位

三疏
삼소

伏以臣以母病陳情歲己周矣章疏亦且十數上矣誠意淡薄未蒙垂察嚴旨荐疊無所容身而日昨辭疏之 批又以從速上來爲敎臣誠無辭叟暴於天日之下而惟理迫至不容遂己玆敢冒萬死更畢其說焉臣以無似本無需世之資惟其應擧覓官只欲得升斗之祿以酬烏鳥之私而已非意寵榮位至列卿廉俸優厚榮養己極矣到今枯槁空山常患菽水之難繼而違逋 朝命自陷於孤恩負義之罪者此豈臣之所樂爲者哉臣於頃年奉使赴燕臣老母積月憂念仍致感傷而成疾目今諸病之源悉崇於此臣於前夏辭免文衡之疏既己略陳仰惟 聖明或能俯記自是以後臣母病益深而心益弱唯恐臣之暫時不在其側盖亦傷虎於曩日之事其欲日夜相守無失昫昫之樂者不獨臣意爲然也既縻官位有難長在親側朝出而暮還己貽病母之憂又不敢每以病母爲言而全拋職事此臣所以自甘窮廢寧闕口體之養而無失救護之節雖獲違慢之罪而不忍頃刻之離者也臣母今年七十七歲而顧念疾病如此餘日無多凡此只欲少報西山之短景而自盡於日後難悔之地其勢誠可謂憫迫其情誠可謂哀憐矣臣固軟默既無得罪於上下之事前日 聖批亦燭其無難安情勢矣自非然者尊官厚祿衆情之所艷臣獨何苦而至於假托無病之母自速慢君之誅哉臣自承頃日 嚴旨以來心神爽越直欲掘地以入而嚴誅不加威命甚迫事窮勢極終至冒出至今中外之笑臣者幷與朝廷之處分而譏議之臣誠愧懼欲死無地令臣螻蟻之忱既未蒙諒察於 君父其在事理豈敢更擧顔面出入於用舍人物之地而所帶之職尙不賜遞改有若以臣爲督責如前可備驅使者然是則 聖明以牛馬畜臣只欲加以蓁養之恩鞭策之威而已不復責之以儉理廉義非但臣之情地萬萬有不忍者亦豈 聖朝所以使臣以禮之道哉伏乞 聖明俯加諒察如或猶以臣爲托辭欺君不念分義則臣之緩死固己久矣
誠願亟加大戮以警朝紳如其不然則亦望解臣職名許臣終養使臣得全母子之私恩而無所遺恨於他日不勝幸甚且聞 太廟親享在於來初銓官之塡差執事載在五禮而臣之情勢如右所陳尤不可不早有變通伏乞幷

留　睿恩焉臣無任涕泣懇祝之至

세 번째 상소

엎드려 아뢰옵건대、신이 모친의 병으로 진정(陳情)한 지가 이미 일 년이 넘었으며 상소 또한 십여 번이나 올렸사오나 성의(誠意)가 천박하여 아직 전하의 헤아리심을 받지 못하고 엄한 교지만 거듭 쌓이니 몸 둘 바가 없사옵니다。며칠 전에 올린 상소에 대한 비답에서 또한 속히 분부대로 올라오라는 교지가 계셔서 신은 진실로 밝은 태양아래에 더 이상 드러낼 말이 없사오나 사정이 매우 절박하여 일을 수행할 수가 없사옵니다。이에 감히 만 번의 죽음을 무릅쓰고 다시 말씀을 드리옵니다。신은 무능하여 본래 세상에 등용될 만한 자질이 없사오나 과거에 응하여 관리에 충원된 것은 다만 얼마 안 되는 봉록을 받아 자식으로서 부모에게 보답하고자 했을 따름이었사옵니다。

그런데 뜻밖에 총애를 받아 지위가 열경(列卿)에 까지 이르고 봉록이 매우 넉넉해져 영화로운 봉양이 이미 극에 달했었사옵니다。그러나 지금에 이르러 고고(枯槁)한 공산(空山)과 같이 되어 항상 가난한 중에 부모를 섬기는 어려움을 걱정하고 있으며、계속해서 조정의 명을 어김으로써 스스로 은의(恩義)를 저버린 죄에 빠졌사오니、이것이 어찌 신이 즐거이 행한 바이겠사옵니까? 신이 근년(近年)에 삼가 사신으로 중국에 갔었사온데、신의 노모가 몇 달을 근심 걱정 하다가 마침내 몸을 상하여 병이 들고 말았사오니 지금 여러 병의 근원은 바로 모두 여기에서 비롯된 것이옵니다。신이 지난 여름에 문형(文衡)을 사직하는 상소에서 이미 대강을 진술하였사오니、우러러 생각건대 성명(聖明)께오서 혹 능히 기억하실런지 모르겠사옵니다。그 이후로 부터 신의 모친의 병이 더욱 심해지고 마음이 더욱 약해져서 신이 잠시라도 그 옆에 있지 않을까봐 오직 걱정하니、이것은 대개 또한 지난날의 일에 몹시 놀랬기 때문이옵니다。그러니 밤낮으로 서로 지키면서 구구한 즐거움을 잃지 않게 하고픈 것이 다만 신의 생각만 그러하겠사옵니까? 이미 관직에 매어 있어서 오랫동안 직접 옆에 있기가 어려우며、아침에 나갔다가 저녁에 돌아옴에도 이미 병든 어머니에게 근심을 끼쳤사옵니다。그렇다고 또한 감히 매번 병든 어머니의 얘기를 하면서 직무를 완전히 버려 둘 수도 없사옵니다。이것이 바로 신이 스스로 기꺼이 궁핍하게 되어 설령 구체(口體)의 봉양은 결핍되더라도 구호(救護)하는 도리는 잃지 않으며、비록 어명을 어기고 태만한 죄를 짓더라도 차마 한 순간도 떠나지 못하는 까닭이옵니다。신의 모친은 지금 칠십 칠세인데 질병이 이와 같음을 돌아봄에 남은 날이 많지 않사옵니다。이 때문에 서산(西山)의 단경(短景)에 다소마나 보답하여 훗날 후회하기 어려운 지경에서 스스로를 다하고자 하오니 그 형편은 진실로 딱하고도 절박하다 할 만하고 그 사정은 진실로 슬프고도 가엾다 할 만 하옵니다。신이 진실로 신중했더라면 이미 위、아래에 죄를 짓는 일이 없었을 것이며、전일의 전하의 비답에서 또한 안정되기 어려운 정세가 없다고 밝히셨사옵니다。그러나 스스로 인정하지 못하는 것이 있사오니、높은 관직과 후한 봉록은 모든

사람들이 바라는 바이온데、신 만이 홀로 무엇 때문에 수고롭게 무병(無病)한 노모에게 기탁하여 스스로 군왕을 업신여기는 죄를 재촉하겠사옵니까? 신은 근자에 엄한 교지를 받고 난 이래로 정신이 나간 듯하여 곧장 땅을 파고 들어가고 싶었사옵니다。그러나 엄벌은 내리지 않으셨지만 위명(威命)이 심히 급하고 일의 정황이 한계에 다다랐으므로、마침내 외람되게 나와 조정의 안팎에서 신을 비웃는 자로 하여금 조정의 처분에 참여하여 비난하게끔 하였으니、신은 진실로 부끄럽고도 두려워 죽고 싶은 생각이 간절하옵니다。지금 신의 보잘 것 없는 정성이 이미 군부(君父)의 헤아림을 받지 못하였사오니、일의 도리상 어찌 감히 얼굴을 다시 들고서 인물을 취사(取捨)하는 자리를 출입하겠사옵니까? 신이 갖고 있는 직책을 아직도 경질해 주지 않으시니、만약에 신을 재촉하고 꾸짖어 전에 부리던 자와 같아지라고 하신다면、그것은 성명(聖明)께오서 소나 말을 기르듯이 신을 기르면서、다만 먹여주는 은혜에다 채찍질하는 위엄을 가하고자 하시는 것이 될 뿐이옵니다。더 이상 윤리와 염의(廉義)로써 질책하지 않으신다면 비단 신의 마음에 결코 차마 할 수 없는 것이 생길 뿐만 아니라 또한 그것이 어찌 성명(聖明)께오서 예(禮)로써 신하를 부리는 도리가 되겠사옵니까? 엎드려 청하옵건대、성명께오서 자세하게 굽어 살피시어 만일에 혹 신이 거짓말을 꾸며 임금을 속이고 도의(道義)를 생각지 않는다고 생각하신다면 신은 죽음을 늦춘 지가 진실로 이미 오래되었으니 진실로 원하옵건대 빨리 큰 형벌을 내리시어 조정의 관리들을 경계하시옵소서。그러나 만일에 그렇지 않다면、또한 바라옵건대 신의 직명을 해임하시고 신이 노모의 봉양을 끝마치도록 허락하시어 신으로 하여금 모자간의 사사로운 은정을 온전히 하여 훗날에 여한을 남기는 일이 없게 해주신다면 진정 다행이겠사옵니다。또한 듣자오니、태묘(太廟)에 친향(親享)1할 때에는 본래 전관(銓官)2을 집사(執事)에 임명하는 것이 오례(五禮)에 명시되어 있다 하는데 신의 정황이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으므로 더욱이 일찍이 변통하지 않을 수 없사오니 엎드려 청하옵건대 아울러 현명하신 은총을 내려주시옵소서。신은 눈물 흘리고 울면서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을 가눌 길이 없사옵니다。

註 : 1。임금이 직접 제사지냄
2。문무관(文武官)을 전형하는 지위에 있던 이조(吏曹) 당상관(堂上官)과 병조판서(兵曹判書) 등을 일컬음

因大臣筵奏問備後自引申辭吏曹判書及經筵惠局兼帶諸任疏

인대신연주문비후자인신사이조판서 급경연혜국겸대제임소

伏以臣於頃日封疏縣道之後得奉有旨以經筵官之幷皆在外令臣斯速上來者臣於疏中旣已備陳情勢本兼諸任幷在乞解之中日望 恩遞庶幾寬臣之罪戾矣及承 聖批非惟未蒙準許將母上來之 敎又出於千萬意慮之外此實 聖明曲軫下情知臣不可離親遠任故

也無狀如臣何以獲此於君父感極悲至涕淚交零第念臣老母疾病沉痼朝夕凜凜之狀前後累疏旣已縷悉仰惟 聖明必已下燭而特以前疏爲暴逋 命曲折未暇更列病狀故有此 下敎耳八十老人篤疾經年眞元已脫更無餘地床席之間亦不能自運將此事勢豈有撼頓於數日之程得達於京邸之望哉若欲強而登途則必至益其已痼之疾而促其垂盡之命其在人子情理誠有所不可忍爲者而亦豈所以仰承 聖上體下之至意哉且臣本分之不合銓衡臣固自知已審而一番叅政釁尤疊出頃日大臣以守令之不爲擇差有所陳達雖未詳其所指者何人而臣於大政差出守令不止一二人則固已有不安於心者又於日昨筵中以李肇之備擬玉堂至有問備之 命臣於此尤不勝惶愧之至肇卽臣妻兄之子而都堂圈錄之時旣不爲公議所棄玉堂差出之際又有相避并擬之請故循例備望無復顧慮之意矣今者 聖敎至於如此臣之冒廉擧擬其失尤大雖使臣身在京輦亦當引罪退歸之不暇矣至於經筵之任則臣自前夏下鄕以後辭疏中或混稱本兼或別爲提擧以祈遞免非止一再而只緣誠意淺薄未蒙 恩許以至于今此實臣之罪也儒臣規切之言深得事理之正而臣旣無趍速上去之望則其何敢一向虛帶使請筵作輟臣罪益重也哉卽者又伏聞 坤聖違豫症候不輕至有內局入直廷臣問安之擧區區下情誠不勝遠外之慮而臣之廉義旣不可冒進朝端臣之情理又不忍暫離親側玆未得趨造起居之班以伸大馬之誠臣子分義掃地盡矣雖萬被誅戮何足以贖臣之罪哉伏乞 聖明俯加鑑燭先削臣所帶本兼諸任仍命攸司勘臣罪狀以正公法以安私分不勝萬幸仍念惠廳爲任實管財穀之府而臣在外曠職今至經歲求諸事體己不勝其未安而卽今本廳主管堂上無見存行公之員管攝無人事多虛辣伏乞 分付廟堂遞臣惠廳之任速出其代以爲酬應凡務之地焉臣無任煎迫祈祝之至

答曰省疏具悉卿勿過辭從速上來行公

대신이 연주(筵奏)1함에 책임을 추궁하시니 스스로 사죄하며 이조판서 및 경연과 혜국 등 겸임한 여러 직책에 대한 사직을 청하는 상소

엎드려 아뢰옵건대, 신이 근자에 현감에게 상소문을 부친 후, 경연관(經筵官)이 모두 밖에 나가 있으므로 신에게 속히 올라오라고 하신 교지(敎旨)를 삼가 받아 보았사옵니다.

신은 상소문 중에서 이미 사정을 갖추어 진언하고、본직과 겸직의 여러 임무에 대한 해임을 청하는 가운데 날마다 성은이 담긴 경질을 기대하면서 신의 죄를 너그럽게 봐줄 것을 바라고 있었사옵니다。그런데 전하의 비답을 받고 보니、윤허하심을 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어머니를 모시고 올라오라는 교지는 또한 천만 뜻밖에서 나온 것이었사옵니다。이것은 사실상 성명(聖明)께오서 아랫사람의 사정을 굽어 살피시어、신이 부모를 떠나 멀리서 벼슬할 수 없음을 아셨기 때문이오니、신처럼 무능한 자가 어떻게 군부(君父)의 사랑을 받게 되었는지 정말 감격함에 슬픔이 이르러 눈물이 흘러내리옵니다。

다만 생각건대、신의 노모가 질병이 심하여 아침저녁으로 파리한 상태는 계속해서 누차 상소를 오려 이미 자세하게 말씀드렸사오니、우러러 성명(聖明)께오서 반드시 이미 잘 알고 계실 것이옵니다。다만 전의 상소를 어명을 크게 어긴 것으로 여기였사오나、다시 곡절하게 병의 증상을 나열할 겨를이 없었기 때문에 이러한 하교(下敎)가 계신 것이옵니다。팔십 노인이 일 년 넘도록 위독하여 원기가 이미 더 이상 남김없이 다 빠졌으며 침상에서도 혼자 움직일 수 없으니、이러한 형편으로 어찌 며칠이나 되는 여정을 무리하게 감행하여 서울 집에 도달할 가망이 있겠사옵니까? 만약에 억지로 귀경 길에 오른다면、반드시 이미 심해진 병을 더욱 악화시켜 다해가는 목숨을 재촉하게 될 것이오니、자식 된 도리상 진실로 차마할 수 없는 바가 있사오며、이것이 또한 어찌 성상(聖上)께서 아랫사람을 긍휼히 여기시는 지극한 뜻을 우러러 받드는 바이겠사옵니까? 또한 신의 본분이 전형(銓衡)에 합당치 않다는 것은 신이 진실로 스스로 이미 잘 알고 있사오나、한 번 정사에 참여할 적마다 잘못이 더욱 거듭되옵니다。근자에 대신들이 수령(守令)을 잘 간택하여 임명하지 않았다고 진언한 바가 있었사온데、비록 지목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는 자세히 알지 못하지만 신이 대정(大政)에 임하여 수령으로 임명한 사람이 한 두 명이 아니오니、진실로 이미 마음에 불안함이 있사옵니다。또한 며칠 전 경연(經筵)중에 이조(李肇)를 옥당(玉堂)2에 비의(備擬)하였으나 책임을 추궁하는 명이 있어서、신은 이에 더욱 당황하고 부끄러운 지극한 마음을 이기지 못하겠사옵니다。이조(李肇)는 바로 신의 처형(妻兄)의 아들로서 도당(都堂)3에서 권점(圈點)할 때에 이미 공론(公論)에 버림당하지 않았으며、옥당에 임명될 때에도 또한 상피(相避)4를 아울러 고려해 달라는 청이 있었기 때문에 관례에 따라 명망을 갖출 것을 더 이상 고려하려는 뜻이 없었사옵니다。그런데 지금 성교(聖敎)가 이와 같음에 이르고 보니 신이 염치없음을 무릅쓰고 천거함에 그 과실이 더욱 커온지라 비록 신의 몸이 서울의 어전에 있다 하더라도 또한 마땅히 죄를 자인하고 물러나 돌아가는데 겨를이 없었을 것이옵니다。경연(經筵)의 임무에 대해서는 신이 지난 여름에 하향(下鄕)한 이후로 상소문 안에 본직과 겸직을 함께 칭하거나 또는 따로 거론하여 경질과 해임을 바란 것이 한 두 번이 아니었사옵니다。그러나 다만 성의(誠意)가 천박하여 전하의 윤허하심을 얻지 못하고서 오늘에까지 이르렀사오니 이것은 사실상

신의 죄이옵니다。유신(儒臣)을 경계하여 바로 잡는 말은 사리의 올바름을 깊이 체득한 것이며 신은 이미 속히 올라갈 가망이 없사오니、그 어찌 감히 줄곧 헛되이 직함만 지니고서 강연(講筵)을 멈추게 하여 신의 죄를 더욱 가중시키겠사옵니까? 근자에 곧 삼가 듣자오니 황후께오서 편찮으심에 증후(症候)가 가볍지 않아 내국(內局)5이 숙직을 하고 조정의 신하들이 문안을 드린다고 하오니、아랫사람의 구구한 사정은 진실로 원외(遠外)의 근심이옵니다。신의 염치상 이미 조정의 고관(高官)에 외람되게 나아갈 수가 없으며、신의 정리(情理)상 또한 차마 잠시라도 부모 곁을 떠나지 못하옵니다。이에 전하를 옆에서 모시는 반열에 급히 나아가 견마(犬馬)와 같은 충성을 펼침으로써 신하의 도의를 다할 수가 없사오니、비록 만 번 주벌을 당하더라도 어찌 족히 신의 죄를 대속할 수 있겠사옵니까?

엎드려 청하옵건대、성명(聖明)께오서 명철하게 굽어 살피시어 먼저 신이 지니고 있는 본직과 겸직의 여러 임무를 해임하시고 해당 관청에 명하시어 신의 죄상을 취조하여 처분케 하심으로써、공법(公法)을 올바르게 하고 사사로운 분수에 편안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면 천만다행이겠사옵니다。또한 생각건대、혜청(惠廳)6의 소임은 사실상 재화와 곡물을 관리하는 부(府)이온데、신이 밖에 있으면서 직무를 태만히 한 지가 지금 이미 일 년이 넘었으므로 일의 형편을 살펴봄에 이미 그 불안함을 이기지 못하며、지금 본청(本廳)을 주관하는 당상(堂上) 중에는 공무를 집행하는 관원이 보이지 않고 겸하여 관할하는 사람도 없어서 일에 허술함이 많사옵니다。

엎드려 청하옵건대、묘당(廟堂)7에 분부하시어 신의 혜청의 임무를 경질하고 속히 그 대임(代任)을 선정하여 모든 직무에 응할 수 있는 바탕으로 삼으시옵소서。

신은 다급하고 기도하는 지극한 마음을 가눌 길이 없사옵니다。

비답 왈:상소문을 살펴보고 잘 알았으니、경은 지나치게 사양하지 말고 분부대로 속히 올라와 공무를 수행하라。

註:1。임금의 면전에서 아뢰는 일
2。홍문관(弘文館)의 부제학(副提學) 이하 교리(校理)、부교리(副校理)、수찬(修撰)、부수찬(副修撰) 등 홍문관의 실무에 해당하는관리
3。의정부(議政府)의 별칭
4。친족 또는 그 밖의 관계로 같은 관청에서 벼슬하는 것을 말함
5。내의원(內醫院)의 별칭
6。선혜청(宣惠廳)의 약칭
7。의정부(議政府)의 별칭

辭大司憲疏 辛巳

사대사헌소

伏以臣於今月十三日伏受本月十一日成貼承政院書狀有旨以臣爲司憲府大司憲使之斯速乘馹上來者臣罪積逋慢理宜誅殛而尙齒仕籍每煩 除命臣仰戴洪恩俯迫私情泣涕徊徨不知置身之所也臣之懇迫情實前後累疏旣已悉暴伏惟 聖明亦垂俯燭矣只緣螻蟻誠微未蒙上格惟玆三數年間 召命不置別諭溫批

前後相續而間亦屢承臣子所不敢聞之 嚴敎臣之迷蠢縱或有昧於君臣之義揆以常情亦豈無懷恩畏罪之心哉然而終不得爲進承 明命之計者可見其情理之出於萬萬悶迫而事勢之出於萬萬不得已也臣母今年七十八歲疾病之沉痼亦且五年所矣自外感傷之候則或不無時有輕重而老人之病異於少壯眞元一鑠更無復蘇之理當初下鄕時猶能寸寸作行於百里之外而今則己不能自運於床席之間只有一縷喘息綿綿僅存人子罔極之情其煎迫之形難強之勢亦豈與自己之疾病一時之情跡比哉伏聞日昨大臣有以臣事陳達而遣辭之際比儗非倫謄諸邸報播之八方非但中外聽聞所共駭笑觀其指意似若以臣形勢猶可起勤而故爲達慢必待朝家非常之事而後始乃膺 命者然誠如是也則乃要君固寵之計臣何敢爲是哉臣於前後亦 嘗屢承將母之 敎此實出於體下之聖念稀異之盛數臣若有一分建功之望則不於此時祗承而叟待何時乎臣於大臣生同一巷結髮追遊至今四十餘年之久而情志之不孚乃至於此臣更將何面目可以自立於世乎臣母春間大疾久臻遑急此則縉紳之間亦頗有知之者伊後復値三夏炎潦添以暍泄諸症多方醫治未見其效即今事勢尤無一刻捨去之望而所叨之職乃是風憲重地豈容臣一日虛帶致有瘝曠之弊哉臣罪負旣極不敢叟乞孝理之恩只願速就 嚴誅俾朝家威命不辱綱紀無損而已伏惟 聖上天地父母俯加哀憐亟賜處分則隕首結草之報庶幾無間於生死臣無任煎灼震恐之至

答曰省疏具悉卿其念君臣之大義叟勿撕捱俟母病間上來行公

대사헌을 사직하는 상소 신사년

엎드려 아뢰옵건대、이달 십일일의 날인이 찍힌 승정원(承政院)의 서장(書狀)을 이달 십삼일에 삼가 받았사온데、신을 사헌부(司憲府)의 대사헌(大司憲)에 임명했으니 이에 속히 역마를 타고 올라오게 하라는 유지(諭旨)가 계셨사옵니다。신은 어명을 어기고 태만히 한 죄가 쌓여 이치상 주벌을 당해야 마땅하온데、아직 관적(官籍)에 들어 있으면서 매번 제수(除授)의 명을 번거롭게 하였사옵니다。신은 위로는 홍은(洪恩)을 받고 있지만 아래로는 개인적인 사정이 다급하여、눈물 흘리면서 방황함에 몸 둘 바를 모르겠사옵니다。신의 절박한 사정은 계속해서 누차 올린 상소에서 이미 소상하게 아뢰었으므로 성명(聖明)께오서도 잘 알고 계실 것으로 사료되옵니다만、다만 보잘 것 없는 정성이 미미하여 아직 윤허를 얻지 못하였사옵니다。근 삼여 년 간 소명(召命)이 그치지 않고 특별하신 유지(諭旨)와 온정어린 비

답(批答)이 계속해서 서로 이어졌으나 사이사이에 신이 감히 받들 수 없는 엄교(嚴敎)를 자주 받았사옵니다。신이 혼미하여 설혹 군신의 도의에 어둡다 하더라도、인지상정으로 헤아려 봄에 또한 어찌 은혜를 마음에 간직하고 죄를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겠사옵니까? 그러나 끝내 나아가 명철하신 어명을 받들지 못한 것은 그 사정이 정말로 딱하고 절박함에서 나왔으며 그 형편이 정말로 부득이함에서 나왔기 때문이옵니다。

신의 모친은 금년에 칠십 팔세이며 질병이 고질이 된 지가 또한 오년이나 되옵니다。외적인 병세로 보면 혹 때때로 차도가 있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노인의 병은 젊은이들과는 달라서 원기가 한번 빠져나가면 다시 회복할 가망이 없사옵니다。당초 고향에 내려왔을 때는 그래도 백리 밖까지 자박걸음으로 걸어 다닐 수 있었으나 지금은 이미 침상에서조차 스스로 움직일 수가 없으며 오직 한 가닥 헐떡거리는 호흡이 겨우 이어지고 있을 뿐이오니 자식의 망극한 정에 있어서 그 절박하고 치유되기 어려운 형세를 또한 어찌 자신의 질병의 한때 정황에 비교할 수 있겠사옵니까? 삼가 듣자오니 며칠 전에 어떤 대신(大臣)이 신의 일에 관해서 진언하면서 신이 관직을 사양할 때에 해아림이 도의에 맞지 않으며 저보(邸報)1를 베껴서 팔방에 퍼뜨리니 조정 안팎의 여러 사람들이 모두 놀라고 비웃는 바 일 뿐만이 아니라고 하옵니다。그러한 진언의 뜻을 살펴보니 마치 신의 형세가 오히려 기동(起動)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부러 명을 어기고서 반드시 조정의 중요한 일이 있기를 기다린 후에야 비로소 어명에 응하려 하는 것이라고 여기는 듯하옵니다。그러나 진실로 이와 같다면 이것은 바로 군왕에게 강요하여 총애를 공고하게 하려는 계책이오니 신이 어찌 감히 이런 일을 하겠사옵니까? 신은 계속해서 또한 모친을 데리고 올라오라는 교서를 일찍이 여러 번 받았사온데、이것은 진실로 아랫사람을 보살펴 주시는 성스러운 염려와 드물고도 이례적인 융성한 대접에서 나온 것이니、신이 만약에 조금이라도 공을 세우고자 하는 소망이 있다면 바로 이때에 삼가 받들지 않고서 다시 어느 때를 기다리겠사옵니까? 신과 대신은 같은 고장에서 태어나 젊어서부터 함께 좇아 다니며 노닌 지가 지금에 이르러 사십여 년이나 되었는데 그 마음과 뜻이 믿음을 얻지 못하여 이러한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사오니、신은 다시 장차 무슨 면목으로 세상에 스스로 설 수 있겠사옵니까? 신의 어머니는 봄에 큰 병이 오래도록 이르러 황급함이 이와 같사오니、신하들 중에도 또한 자못 이러한 사정을 아는 자가 있사옵니다。그 후에 다시 여름 석 달 동안 더위와 장마로 인하여 더위먹고 설사하는 여러 증상이 나타나 다방면으로 치료를 하였으나 그 효험을 보지 못하였사오니、지금의 형편으로 보아서는 더욱 한 순간도 버려두고 떠날 수 있는 가망이 없사옵니다。그런데 신이 외람되이 차지하고 있는 직책은 바로 풍기(風氣)를 바로 잡는 중요한 자리이니、어찌 신이 하루라도 헛되이 머물면서 직무를 태만히 하는 폐단에 이르게 할 수 있겠사옵니까? 신이 어긴 죄가 이미 극에 달했는지라 감히 더 이상 전하께 효성스런 은혜를 청하지 못하

겠사옵니다。다만 속히 엄벌을 받아 조정의 위명(威命)을 욕되게 하지 않고 기강을 실추케 하지 않기를 바랄 뿐이옵니다。엎드려 생각건대、천지의 부모 되시는 성상(聖上)께오서 부디 애처롭고 가엾게 여기시어 속히 처분을 내려 주신다면 죽어서라도 결초보은 하겠사오니 거의 살고 죽는 것에 차이가 없사옵니다。신은 다급하고 두려움에 떠는 지극한 마음을 가눌 길이 없사옵니다。

비답 왈 : 상소문을 살펴보고 잘 알았으니、경은 군신의 대의를 생각하여 더 이상 고집 부리지 말고 어머니의 병에 차도가 있기를 기다렸다가 올라와서 공무를 수행하라。

註 : 1。관보(官報)의 일종으로 저초(邸鈔)、각초(閣鈔)라고도 함

因臺言自引申辭大司憲兼
인대언자인신사대사헌겸
辭大行王妃諡册文製述之命疏
사대행왕비시책문제술지명소

伏以臣母老病沉淹萬無頃刻暫雜之勢而頃者國有禍故 聖母禮陟當此時有不敢顧私情矣玆不得不奔赴於闕門之外及其展哀受裹而臣母病情日聞添重之報則又不得不蒼黃徑歸有失於臣子分義而亦不暇顧也臣非不知罪誅之必至而譬如狂易之人心性已失蹈水入火而不知畏避臣之情狀其亦慨矣席藁私次日竢嚴命伏見日昨臺啓雖不斥擧臣名其指意可見矣今日屛居鄕庄之人可指而數臣安敢以不擧臣名爲諉而晏然而已乎此乃事體所關而不明言直斥以正公法乃以侮弄之言非斥之意只爲行說去而終無勘罪之擧者臣誠不識其果何謂也無乃以臣方帶臺職之故在臺諸臣之意尙以同臺相處而不忍爲迫切之事耶然國法不可終屈職事不可久曠伏乞 聖明亟降明旨削臣職名正臣罪狀以幸公私不勝至願且臣伏聞自都監以臣啓下諡册文製述官臣尤不勝惶駭罔措之至臣以不學無文之狀力辭文任至於屢被撕捱必遞而後敢已矣今此揄揚 聖烈何等文字而臣敢冒當哉況臣私情不可暫離一日廉義不可冒進一步告不早爲變通致有臨時窘急之患則臣身誅死固不足恤其於大事顚倒有不可言者伏乞並留 聖意亟賜處分焉臣無任震怖竢罪之至

答曰省疏具悉卿懇卿勿過謙安心上來行公

대언에 대하여 스스로 사죄하며、대사헌을 사직하고 아울러 왕비의 시책문제술을 시행하라는 명을 사양하는 상소

엎드려 아뢰옵건대、신의 노모의 병이 위중하여 한순간이라도 잠시 떠날 형편이 전연 되지 못하온데、근자에 나라에

큰 화가 있어 성모(聖母)께서 승하(昇遐)하시니 이러한 때에 당하여 감히 사사로운 사정을 돌아 볼 수가 없사옵니다. 이에 부득이 대궐의 문밖에 급히 나아가 애도하면서 상(喪)을 치를 즈음에 신의 노모의 병세가 위독하다는 전갈을 날마다 받고 보니 또한 부득이 황급하게 곧장 돌아가지 않을 수 없사오니 신하된 도리를 잃는 것도 또한 돌아볼 겨를이 없사옵니다。신은 주벌(誅罰)이 반드시 이를 것이라는 것은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비유하자면 미친 사람이 정신이 나가 물에 빠지고 불에 뛰어들면서도 두려워하거나 피할 줄 모르는 것과 같이 신의 정신상태도 또한 걱정스럽사옵니다。거적을 깔고 사저에서 날마다 엄명을 기다리던 중에 며칠 전 대계(臺啓)1를 삼가 보았는데 비록 신의 이름을 들어 비난하지는 않았지만 그 가리키는 뜻은 가히 알 수 있었사옵니다。금일 향리에 물러나 거하는 사람이란 신을 지목하여 말하는 것이니 어찌 감히 신의 이름이 거론되지 않았음을 핑계 삼아 편안히 지낼 수 있겠사옵니까? 이것은 바로 사태의 추이에 대하여 명확한 말과 직접적인 비평으로 공법(公法)을 바로잡지는 않고 조롱하는 말과 비난하는 뜻을 가지고서 다만 얘기만 할 뿐 끝내 죄를 논함을 거론하지 않는 것이니 신은 진실로 그것이 과연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를 알지 못하겠사옵니다。아니면 신이 현재 대각의 직책에 있기 때문에 대각에 있는 여러 신하들의 생각으로 같은 대각에서 함께 거처하는 처지인지라 차마 박절한 일을 하지 못한 것인지도 모르겠사옵니다。그러나 국법은 끝내 굽힐 수가 없으며 직무는 오랫동안 비워 둘 수가 없사오니 엎드려 청하옵건대 성명(聖明)께오서 명철하신 유지(諭旨)를 속히 내리시어 신의 직명을 삭탈하고 신의 죄상을 바로잡으심으로써 공사(公私)를 편안케 해주신다면 더 이상 바랄게 없사옵니다。또한 신이 삼가 듣건대、도강(都監)2에서 전하의 재가를 받아 신을 시책문(諡册文)3을 제술(製述)하는 관리로 임명하였다 하오니 신은 더욱 놀랍고도 당황하여 몸 둘 바를 모르겠사옵니다。신은 학식이 부족하여 문제(文才)가 없는 실상 때문에 문임(文任)4을 극구 사양하였으며 누차 강권(強勸)을 받음에 이르러 반드시 경질된 이후에 그만 두었사오니 성모(聖母)의 공열(功烈)을 칭양(稱揚)하는 어떠한 문장을 신이 감히 외람되게 감당할 수 있겠사옵니까? 하물며 신은 개인적인 사정상 하루도 잠시 떠날 수 없으며 신하된 도의상 한 걸음도 외람되이 나아갈 수가 없사오니 만약에 일찍이 조치해 놓지 않았다가 때에 닥쳐서 궁색하고 급한 근심이 생기게 된다면 신은 주벌을 받아 죽더라도 진실로 긍휼히 여김을 받기에 부족할 것이옵니다。나라의 큰일에 차질을 빚게 되어 진실로 할 말이 없사옵니다。엎드려 청하옵건대、아울러 성의(聖意)를 기울이시어 속히 처분을 내려주시옵소서。신은 두려움에 떨면서 죄를 기다리는 마음을 가눌 길이 없사옵니다。

비답 왈 : 상소문을 살펴보고 경의 간절한 마음을 잘 알았으니、경은 지나치게 겸손해 하지 말고 안심하고 올라와 공무를 수행하라。

註 : 1。사헌부(司憲府)·사간원(司諫院)의 계사(啓辭)
2。국장(國葬)、국혼(國婚) 그 밖의 큰 국사(國事)가 있을 때에 임시로 베

풀던 관청
3。王이나 왕비(王妃)의 시호를 올릴 때 생전의 공적을 칭송하기 위하여 지은 글
4。홍문관(弘文館)·예문관(藝文館)의 제학(提學)

辭刑曹判書及守禦使等諸兼任疏 丙戌
사형조판서급수어사등제겸임소

伏以臣於日昨病伏中伏聞有守禦使之 命繼又伏聞有弘文提學歸厚提調之 命一日之內再承朝命聞輒駭怖求死無地臣之情實雖已略陳於前後控辭之時而語之煩猥亦有不敢盡載於章疏者竊惟罪戾旣深終必一勘於司寇庶幾登諸爰辭以達 宸聰矣不意今者 聖眷愈隆旣無擬罪之擧反紆非分之 恩臣之情狀亦終無可暴之時自廢明時枯槁窮山己爲衆情之所疑怪而昨年儒臣之疏又復比儗非倫昧臣本情臣若不一陳暴盡先朝露則 天日之明亦何由下燭幽隱哉臣請冒死先暴臣屛退本末而後及其難冒之狀以翼 聖明之垂憐焉臣於頃年燕行也臣母時年七十四歲早失長子以臣爲命而臣有此萬里之行雖以國事之重不敢言私當其分離之際情理之慘殆無異於絶裾及以使事淹滯歸日愆期涕泣廢食幾至月餘歸來省面無復舊日顔貌臣亦久在異域心肝俱焦及其還到鳳城一行諸人俱得家信而臣家消息適未及到伊時蒼黃崩塞之狀寤寐思之猶且魂悸而翌年戊寅又復擬臣於節使幸以首擬有人 天點不加而若或終又不免則臣安敢食焉而避事哉臣母傷虎之心聞輒驚憂亟欲臣謝官歸田以遂呴呴之樂而眷戀榮寵未即求退仍又官位益高職務益重而疾病日以沉痼神識日以凋喪弱力負重非所堪勝實恐陷於罪辜又貽親憂悶蹙徊徨茫苒歲時及至臣受由下鄉病滯中途臣母不顧鄉居貧迫之勢而決然爲下來之計者其志有素而其情良亦悲矣區區人子之心亦豈能無終養之願哉此實臣當初屛退之由及其微忱未格 召命不置別諭溫批前後相續問亦屢承臣子所不敢聞之 嚴敎臣於此豈無懷恩畏罪之心哉然而臣母年紀益高疾病益深旣不得以將往又不可以離側則顧其勢不得不出於達慢而竊觀自古人臣雖不無屛居鄉曲者若或屢被徵召則必時赴恩命以存分義臣雖迷蠢亦非全昧此義第於私心竊有所不能自忍者臣於辛酉冬奉 命湖西往來不過六七日間而道遭父喪奔還至今負罪天地餘痛在心臣今暫時赴朝旣無益於公私而一日離側恐有終身之悔此實臣前後逋命之由到此地頭不得不盡暴肝膈之私而語極猥雜死罪死罪仍念臣

昏庸懦弱百無一能久塵任使想在　聖鑑之所洞燭況今尸居餘氣奄奄床簀而戎務詞垣左右推排國事寒心己不可言而四方瞻聆獨不爲之駭笑耶臣於將任其不可承當實無異於旌弁之易招虞人一死固己自斷於心而至於館職臣於　莊陵議謚之日適膺藝文之　命冒昧一出實緣於迫不得已而至今追思愧汗浹背臣今身方在外有可以自遂循墻之志向於文衡之　命亦屢被撕捉必遞而後敢己及至今日亦豈有冒受之理哉且伏聞大臣於頃日筵中提臣將母之事而援引近古所罕之恩例有所陳達云臣於此竊不勝駭歎之至臣母若有一分起動之望而臣亦有一分供任之勢則臣雖窮居豈不能以私力運致一老母而累度將母之　教一不膺　命必待今日非常之　恩數耶曾在辛巳大臣亦嘗以此陳達臣於疏中略暴歉愧之意而今又更煩陳奏噫文臣終亦以臣爲要君固寵之人其待之不亦太薄乎且聞伊日奏達之辭多非實狀筵席語秘未得其詳不敢以遠外傳聞之說輒登章牘而私心尤有所不安傳曰不信乎朋友不獲乎上矣今臣誠意旣不能交孚於五十年久要則螻蟻之忱尚何望上格穹蒼哉此實臣罪更誰怨尤哉仍竊伏念臣於庚辰秋伏蒙削黜之譴曾未數月直加收叙旋即牽復昨年　嚴旨之下人莫不爲臣代怖而未及半載又有此委寄之重臣雖至愚至迷亦豈不知　天心之眷遇微臣而臣達離闕庭八年于今自庚辰以後則又不得一謝　恩命以近　耿光顧念臣子之義反不如犬馬之戀其主臣實自絶于天以胎伊戚居常悽悒但有涕淚然惟臣母今年八十三歲而疾病沉淹氣具綿綴臣之情事實有不能預期於朝暮者倘或少賜寬假以終餘年則隕首結草豈無其報伏惟天地公母哀臣情理察臣至懇將臣所叨諸任一併鐫遞以盡孝理之恩而亦令攸司明臣罪狀正臣負犯以勵臣隣不勝幸甚亟宜進伏城外以竢嚴命而臣於夏初重罹危疾迄今四朔轉益難醫自量氣力決難自致於四舍之地茲不得不席藁私次封疏縣道而神思昏瞀語無倫次罪尤萬死封疏將上之際又伏聞有秋曹之　命臣之情勢已盡於原疏茲不復贅而訟獄重地不宜久曠伏乞并留　睿思焉臣無任涕泣祈懇之至

答曰省疏具悉今茲收召意非偶然卿其勿辭將母上來行公

형조판서 및 수어사 등 여러 겸직을 사직하는 상소 병술년

엎드려 아뢰옵건대, 며칠 전 병중에서 수어사(守禦使)1에 임명되었음을 삼가 듣고 다시 홍문관(弘文館) 제학(提學)과 귀후서(歸厚署)2 제조(提調)에 임명되었음을 삼가 들었사온데, 하루 동안에 조정의 소명(召命)을 두 번이나 받고 보니 듣자마자 문득 놀랍고도 두려워 죽고만 싶사옵니다。신의 사정은 비록 이미 계속해서 상소를 올릴 때 대략 진언하였사오나 말이 번잡하고 외람되어 또한 감히 상소문에 다 싣지 못한 것이 있었사옵니다。가만히 생각건대, 죄가 이미 깊어져서 결국에 틀림없이 사구(司寇)에서 한번쯤 죄상을 조사하여 아마도 판결문을 올릴 때 전하의 귀에까지 전달되었을 것이오나 뜻밖에도 오늘에 전하의 보살핌이 더욱 융성하시어 이미 논죄(論罪)함이 거론되지 않고 오히려 분에 넘치는 은혜를 받았사옵니다。신의 사정은 또한 결국 가히 드러낼 만한 때가 없었으므로 스스로 태평한 시대를 떠나 고고(枯槁)한 궁벽한 산에 거하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였사오며, 작년 유신(儒臣)의 상소문도 또한 사정을 헤아림이 도리에 맞지 않고 신의 본심을 몰랐사오니 신이 만약에 소상히 진언하지 않고 갑자기 먼저 죽는다면 태양의 밝음인들 또한 어떻게 그 깊이 숨어있는 것을 밝히겠사옵니까? 신은 죽음을 무릅쓰고라도 먼저 신이 물러나 거하는 본말을 아뢰기를 청한 후에 그 어렵고도 외람된 상황에 대하여 성명(聖明)께오서 가엾게 여겨 주시기를 바라옵니다。신이 근년(近年)에 연행(燕行)3할 적에 신의 어머니는 당시 나이가 칠십 사세였으며 일찍이 장자(長子)를 잃어버리고서 신에게 목숨을 걸고 있었사온데, 신이 그러한 만 리의 길을 떠나게 되자 비록 국사가 중요하여 감히 개인적인 사정을 말씀드리지 못하였사오나, 그 헤어지기 어려운 때에 마음속의 참담함은 어머니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옷소매를 뿌리치고 벼슬길에 오른 온교(溫嶠)와 거의 다름이 없었사옵니다。사신의 일이 지체되어 돌아갈 기일이 연기되자 어머니는 울면서 식음을 전폐한 것이 거의 한 달이나 되었으므로 돌아와서 어머니를 찾아 만나보니 더 이상 옛날의 얼굴 모습이 없었사옵니다。신도 또한 오랫동안 이역(異域)에 거하면서 마음속으로 애를 태웠으며 돌아오는 길에 봉성(鳳城)에 이르렀을 때 많은 일행들이 모두 집에서 보낸 편지를 받았으나 신의 집에서 보낸 소식은 마침 아직 이르지 않았었사옵니다。그 때의 황망하고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상황을 자나 깨나 생각하면 지금까지도 오히려 정신이 아찔하옵니다。그런데 그 다음 해 무인년(戊寅年)에 또한 신을 절사(節使)에 다시 비의(備擬)4하였는데, 다행히 수석으로 비의된 자가 있어서 전하의 승인이 신에게 이르지 않았사옵니다。만약에 혹 끝내 이를 면하지 못했었다면 신은 어찌 감히 녹을 먹으면서 일을 피할 수 있었겠사옵니까? 신의 어머니는 근심스런 마음에 이를 듣자마자 곧 놀라고 걱정하여 속히 신으로 하여금 관직을 그만두고 시골로 돌아가 모자간의 구구한 즐거움을 이룰 수 있도록 하고 싶었으나 영광스런 은총을 몹시 사모하여 벼슬에서 물러나기를

청하기 전에 또한 직위가 더욱 높아지고 직무가 더욱 무거워졌으며 질병이 날로 심해지고 정신과 식견이 날로 사그러들어 나약한 힘으로 막중한 책임을 맡기에는 진실로 감당해 낼 수가 없었사오니 진실로 죄와 허물에 빠지고 또한 부모에게 근심을 끼치게 될까봐 적정하여 두려움에 가슴 졸이고 방황하면서 한 해 두 해 세월을 보냈사옵니다。신이 말미를 얻어 하향(下鄕)하다가 도중에 병이 심해졌는데 신의 노모가 시골에 거하는 빈궁한 형편을 돌아보지 않고 결연히 내려오려는 계획을 세운 것은 그 뜻이 소박하고 그 마음 또한 진실로 슬픔에 찬 것이었으니 자식된 구구한 마음에 또한 어찌 끝까지 봉양하고자 하려는 바람이 없을 수 있겠사옵니까? 이것이 바로 진정 신이 당초에 물러나 거하려했던 이유이옵니다。그러나 보잘 것 없는 정성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채 소명(召命)이 끊이지 않고 특별하신 유지(諭旨)와 인자하신 비답(批答)이 계속해서 서로 이어졌으며 사이사이에 또한 신이 감히 받들 수 없는 엄교(嚴敎)를 여러 번 받았사오니 신은 이에 대하여 어찌 성은을 간직하고 죄를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겠사옵니까? 그러나 신의 노모는 나이가 더욱 많아지고 질병이 더욱 심해져서 이미 모시고 갈 수가 없으며 또한 곁을 떠나가기가 어렵사온지라、그 형세를 돌아봄에 부득이 어명을 어기고 태만히 하게 되었사옵니다。가만히 생각건대、자고로 신하 중에 비록 향곡(鄕曲)에 물러나 거한 자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만약에 혹 누차 초징(招徵)을 받으면 반드시 때에 맞춰 은혜로운 어명을 받듦으로써 신하된 도리를 지켰사오니 신이 비록 혼미하고 우둔하다 하더라도 또한 이러한 도의를 완전히 모르지는 않지만 다만 사사로운 마음에 남몰래 차마 할 수 없는 바가 있사옵니다。신이 신유년(辛酉年) 겨울에 어명을 받들어 호서(湖西) 지방을 왕래한 것이 六、七일에 불과했사온데、도중에 부친상을 당하여 황급히 돌아갔으며 지금까지 천지에 죄를 짓고 남아 있는 통한(痛恨)이 마음에 서려 있사옵니다。신이 지금 잠시 조정에 나아갔사오나 이미 공사(公私)에 보탬이 없으며 하루도 노모의 곁을 떠나기가 어려우므로 종신토록 후회할 일이 생기게 될까봐 걱정이옵니다。이것이 바로 진정 신이 계속해서 어명을 어기게 된 이유이옵니다。

이러한 지경에 이르러 마음속의 진실한 사정을 죄다 아뢰지 않을 수 없사오나 말이 매우 외람되고 번거로워 죽을 죄를 짓고 말았사옵니다。또한 생각건대、신은 용렬하고 나약하여 백 가지 중에서 한 가지도 능한 것이 없는데도 관리에 임명되어 오랫동안 누를 끼쳤사오니 전하께오서 살펴보시고 잘 알고 계실 것이라 생각하옵니다。하물며 지금 직책을 다하지 않고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데도 기력이 쇠잔하여 침상에 의지하고 있음에랴! 병사(兵事)와 사원(詞垣)은 좌우에서 국사를 추진시키는 것이므로 두려운 마음은 이미 더 이상 말할 게 없으며 사방에서 보고 듣기에도 또한 놀라고 비웃지 않겠사옵니까? 신이 장차 임명되는 것을 받들어 감당할 수 없는 것은 진실로 제(齊) 경공(景公)이 장목기(旌)와 고깔(弁)을 바꿔서 초징함에 우인(虞人)[5]이 한사코 죽음을 무릅쓰고 고사(固辭)하여 스스로 마음

에 결단을 내렸던 것과 다름이 없사옵니다。관직(館職)6에 이르러 장릉(莊陵)의 시호를 의정(議定)하는 날에 신이 마침 예문관(藝文館)의 임명에 응하여 사리를 따지지 않고 외람되게 한번 나섰던 것은 사실상 상황이 다급하여 부득이 했던 것으로 지금까지도 돌이켜 생각하면 부끄러움에 흐르는 땀이 등을 적시옵니다。신은 지금 몸이 바야흐로 외지에 있으므로 스스로 담장을 뛰어넘어 도망가려는 뜻을 따를 수 있게 되었사옵니다。지난번 문형(文衡)7에 임명되었을 때에도 또한 누차 강권(強勸)을 받았사오나 결국 반드시 경질된 이후에 감히 그만 두었사오니 오늘에 이르러 또한 어찌 외람되게 받을 리가 있겠사옵니까? 또한 삼가 듣건대、대신(大臣)이 근자에 연중(筵中)8에서 신이 어머니를 모시고 오는 일에 대하여 언급하면서 근고(近古)에 드문 성은의 예(例)라고 증거하며 진언한 바가 있었다고 하니 신은 이에 남몰래 놀랍고도 한탄스러운 마음을 이기지 못하겠사옵니다。신의 어머니가 만약에 조금이라도 기동할 가망이 있고 신 또한 조금이라도 벼슬을 수행할 힘이 있다면 신이 비록 곤궁하게 산다고는 하나 어찌 사력(私力)으로나마 노모를 옮길 수 없었겠사오며 누차 노모를 데리고 오라는 교지(敎旨)를 받고도 한결같이 어명에 응하지 못한 것이 어찌 반드시 오늘의 특별한 은총을 기대했었기 때문이겠사옵니까? 일찍이 신사년(辛巳年)에 대신(大臣)이 또한 이러한 일로 진언을 했을 때、신이 상소문에 죄송하고 부끄러운 뜻을 대강 피력하였사온데 지금 또한 다시 번거롭게 진언하여 시끄럽게 함으로써 신 또한 결국 자신이 임금을 강요하여 총애를 공고히 하는 사람으로 만들고 말았사오니 사람을 대우함이 또한 너무 야박한 것이 아니겠사옵니까? 또한 듣건대、그날에 주달(奏達)한 말 중에 사실이 아닌 것이 많았다 하오나、연석(筵席)에서 나누는 말은 비밀스러워 아직 상세한 것을 알지 못하므로 감히 멀리 밖에서 전해들은 이야기를 곧 소장(疏章)에 올릴 수 없사오니 사사로운 마음에 더욱 편안치 못한 바가 있사옵니다。전(傳)에 이르길、「붕우(朋友)에게 믿음을 얻지 못하면 임금에게도 인정을 받지 못한다」고 하니、지금 신의 성의(誠意)가 이미 오십년 동안이나 오래 사귀어 온 벗에게 믿음을 얻지 못한 즉 보잘 것 없는 정성인들 어찌 가히 하늘같은 전하의 살피심을 받겠사옵니까? 이것은 진실로 신의 죄이오니 다시 누구를 원망하고 탓하겠사옵니까? 또한 남몰래 엎드려 생각건대、신은 경진년(庚辰年) 가을에 삭탈관직 하는 견책을 삼가 받았사오나 몇 달 지나지 않아서 곧 거두어 들여 임명하였사오며、또한 작년에 엄지(嚴旨)를 내리심에 사람들이 신을 위하여 걱정해 주지 않음이 없었으나 반년이 채 못되어 다시 이러한 중요한 임무를 맡기시니 신이 비록 지극히 우둔하고 지극히 혼미하다고는 하나 또한 어찌 천심(天心)께오서 특별한 예우로 신을 부르신 것을 모르겠사옵니까? 그러나 신이 어려움을 피하여 대궐을 비워 둔지가 지금 팔년이나 되오며 경진년(庚辰年) 이후부터는 또한 한 번도 은명(恩命)에 감사하고 전하의 밝은 빛을 가까이 할 수가 없었사옵니다。신하된 도의를 돌이켜 생각해보면 도리어 견마(犬馬)가 자기 주인을 연모하는 것만도 못하옵니다。신은 진

실로 하늘을 스스로 외면하여 이러한 근심을 끼치게 되었으므로 기거함에 항상 슬퍼하면서 눈물만 흘릴 뿐이옵니다。그러나 신의 어머니는 금년에 팔십 삼세이며 질병이 고질이 되어 목숨이 당장이라도 끊어질 듯 하오니、신의 정황에는 진실로 아침과 저녁을 예측할 수 없음이 있사옵니다。만약에 혹 말미를 잠시만 더 주시어 남은 해를 마칠 수 있도록 해 주신다면、어찌 목숨을 내놓고 결초보은하지 않겠사옵니까? 엎드려 생각건대 、천지의 공모(公母)되시는 전하께오서 신의 사정을 가엾게 여기시고 신의 지극한 정성을 살피시어 신이 외람되이 차지하고 있는 여러 임무를 아울러 모두 경질하심으로써 효성스러우신 은혜를 다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또한 해당 관청에 명하시어 신의 죄상을 밝히고 신이 범한 죄를 바로 잡음으로써 신의 이웃 동료들을 면려(勉勵)케 하신다면 정말 다행이겠사옵니다。속히 나아가 성 밖에 엎드려 엄명을 기다리는 것이 마땅하오나 신이 초여름에 다시 중병에 걸려 지금까지 넉 달이 되었는데도 도리어 더욱 치료하기가 어려워 스스로 기력을 헤아려 봄에 사사(四舍)의 자리에 스스로 이르는 것이 정말 어려울 것 같사옵니다。이에 부득이 사저에서 거적을 깔고 엎드려 현감에게 상소를 부치옵니다만 정신이 혼미하여 말에 차서(次序)가 없사오니 그 죄는 더욱 죽어 마땅하옵니다。상소를 봉하여 장차 올리려 할 때에 다시 추조(秋曹)9에 임명하신 명을 삼가 들었사온데 신의 정황은 이미 원래 상소에서 다 말씀드렸으므로 이에 더 이상 덧붙이지 않겠사오나、송사와 옥사를 다스리는 중요한 자리는 마땅히 오랫동안 비워 두어서는 안 되오니 엎드려 청하옵건대、아울러 통찰하여 주시옵소서。신은 눈물 흘리면서 간절히 비는 마음을 가눌 길이 없사옵니다。

비답 왈: 상소문을 살펴보고 잘 알았는데 금자(今玆)에 거두어 부른 뜻은 우연이 아니니、경은 사양하지 말고 어머니를 모시고 올라와 공무를 수행하라。

註: 1。남한산성(南漢山城)을 수호하기 위하여 둔 수어청(守禦廳)의 으뜸 벼슬
2。관곽(棺槨)을 만들고 장례에 관한 사무를 보던 관청
3。중국에 사신으로 가는 일
4。관원(官員)을 임명할 때 이(吏)·병조(兵曹)에서 세 사람의 후보자를 추천하던 일
5。고대(古代) 중국(中國)에서 산림(山林)、소택(沼澤) 등의 관리를 맡던 벼슬
6。홍문관(弘文館) 부제학(副提學) 이하 관원(官員)의 총칭
7。대제학(大提學)의 별칭
8。임금과 신하가 자문주의(諮問奏議)하는 자리
9。형조(刑曹)의 별칭

再疏
재소

伏以臣於日昨辭疏中仰暴私懇語極煩猥席藁私次祗伏竣罪不意嚴誅不加溫批反下意非偶然之 敎有非負罪賤臣所敢承當而至於令臣將母上來實是 體下之仁曲察微情憐臣不可離親遠仕之勢耳臣是何人得此於 君父感極生悲不覺前襟之盡濕也臣若遵奉聖旨可以俱全恩義豈非臣子之至願而臣母望九之年

疾病久痼平時氣力已不能自運於床席之間而復傷於今年無前潦暑漸綴益甚無復餘地家居調息尚且難保於朝暮撼頓登程豈能倖冀其無事臣實惘然不知所以仰答 恩遇臣之情理其亦憾矣仍伏念臣於將任實萬萬不似國人所知 聖鑑所燭離使臣在洛供職亦當聞命遜避抵死爲期况今事勢如右實無赴召之望戎政國之大事豈可令在外之人曠日虛帶久廢職務哉臣於此雖被重辟固不敢當而其在朝家擧措斷不容如是伏乞亟降明命移授可堪之人焉且秋曹劇務既有前頭積滯之憂館職兼銜又無當初變通之意併宜速 賜鐫遞以幸公私臣於此又竊有自悲者臣之私情雖蒙 聖聰鑑納臣實以私廢公有虧臣子之義國有大事一未進詣旣是罔赦之罪而至於 明陵議藥之時未造問安之列尤爲臣不瞑之恨到今歲月逾邁萬事無及臣更無可以追補前愆少伸微悃者則只有杜門省罪終身自廢庶幾少安於私心臣自五六年來凡於處己接物之際未嘗敢以恒人自居搢紳之間亦有知臣如此者今於一朝冒竊榮寵不念罪過之難容不顧情理之益急而翱翔非分晏然無羞愧之心則非但爲人唾罵狗彘亦不食臣餘矣伏乞 聖明俯察危苦之情明臣罪狀削臣仕籍使之沒齒溝壑不復檢擧則公法私分兩得其宜臣不勝大願臣無任惶怖祈懇之至

答曰省疏具悉庚辰議藥首尾二載之間豈無母病稍間之時而問安之列一不進叅今乃以不瞑之恨爲言果有不瞑之恨則伊時何不一番入叅少伸分義耶卿之此言殊非嚴畏之心也勿辭上來

다시 올리는 상소(再疏)

엎드려 아뢰옵건대、며칠 전 상소문에 우러러 사모하면서 사사로이 간청하였사오나 말이 극히 번거롭고 외람되어 사저에서 거적을 깔고 삼가 엎드려 죄를 기다렸사옵니다。그런데 뜻밖에 엄한 주벌을 가하지 않고 오히려 인자하신 비답을 내리셨는데 우연한 뜻이 아니셨다는 교지는 죄를 지은 천한 신이 감히 받들어 감당할 수 있는 바가 아니옵니다。또한 신에게 어머니를 모시고 올라오라 하신 것은 진실로 전하께오서 몸소 인자하고 곡진하게 살피시어 신이 부모를 떠나 멀리서 벼슬할 수 없는 사정을 애처롭게 여겨 주신 것이옵니다。신이 어떤 사람이길래 군부(君父)께 이러한 사랑을 받는지를 생각하니 감격 끝에 눈물이 나와 신도 모르는 사이에 앞 옷깃이 다 젖어버렸사옵니다。신이 만약에 성지(聖旨)를 따라 받들어 은의(恩義)를 온전히 할 수만 있다면 그것이 어찌 신이 간절히 원하는 바가 아니겠사옵니까? 그러나 신의 어머니는 구십을 바라보는 나이에

질병이 오랫동안 고질이 되어, 평상시 기력으로는 침석에서 스스로 움직일 수가 없사옵니다。게다가 전에 없는 금년의 장마철 더위에 몸을 상하여 기력이 더욱 쇠잔해져서 남은 것이 없으며, 집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는데 오히려 아침과 저녁을 부지하기가 어렵사옵니다。그러니 무리하게 억지로 길을 떠난다면 어찌 다행히 아무 일 없기를 바랄 수 있겠사옵니까? 신은 진실로 망연하여 어떻게 은혜로운 대접에 우러러 보답해야 하는지를 모르겠사옵니다。이에 신의 마음 또한 근심에 젖사옵니다。또한 엎드려 생각건대, 신이 장차 임명됨에 있어서 진실로 무능하기 짝이 없음은 온 백성들이 아는 바이며 전하께오서도 잘 알고 계신 바이오니, 비록 설사 신이 서울에서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하더라도 또한 마땅히 그러한 명을 받음에 죽음을 무릅쓰고 사양해야 할 터인데 하물며 지금 일의 형세가 이와 같으니 진실로 소명(召命)에 나아갈 가망이 없사옵니다。병무(兵務)에 관한 정사는 나라의 대사(大事)이니 어찌 외지에 있는 사람이 날을 지체하여 헛되이 직명만 지니고서 오랫동안 직무를 폐할 수가 있겠사옵니까? 신은 이에 비록 거듭 부름을 받았지만 진실로 감당할 수가 없사오며 조정에서의 행동거지가 결코 용납될 수 없음이 이와 같으니 엎드려 청하옵건대 속히 명철하신 명을 내리시어 가히 감당할 수 있는 사람에게 다시 제수해 주시옵소서。또한 추조(秋曹)1의 바쁜 직무에 대하여 이미 앞으로 닥칠 업무가 적체되는 근심이 있사온데 관직(館職)2을 겸임한다는 것은 또한 당초 일을 변통한 의도가 아니오니, 아울러 마땅히 속히 경질하시어 공사(公私)를 편안케 해주시옵소서。신은 이에 또한 남몰래 스스로 비애에 잠기옵니다。신의 사사로운 마음이 비록 성총(聖聰)의 가납하심을 받는다 하더라도 신은 진실로 사사(私事)로 공사(公事)를 폐하게 되어 신하로서의 도의에 누를 끼치는 것이 되옵니다。나라에 대사가 있었으나 한 번도 나아가 배알하지 못하여 이미 용서받지 못할 죄를 저질렀으며, 명릉(明陵)께 약을 올릴 때에도 문안의 대열에 나아가지 못하여 더욱 죽어도 눈을 감지 못할 신의 한이 되고 말았사옵니다。지금에 이르러 세월이 빠르게 흘러가버려 모든 일이 시기를 놓쳐 버렸으므로 신은 더욱 지난날의 허물을 쫓아가 고침으로써 조금이나마 보잘 것 없는 정성을 펼칠 수도 없게 되었사옵니다。다만 두문불출한 채로 죄를 반성하면서 종신토록 스스로를 포기함으로써 사사로운 마음에 조금이나마 편안해지기를 바랄 뿐이옵니다。신은 오, 육년 동안 무릇 스스로를 처신하고 상대방을 만날 때 일찍이 감히 보통사람이라고 스스로 자처하지 않았사오니 사대부들 사이에서 또한 신의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는 자가 있사옵니다。그런데 오늘 하루아침에 영광스런 은총을 외람되게 받고서 용서받기 어려운 죄과를 생각지 않고 사정이 더욱 급함도 돌아보지 않은 채 분에 넘치는 높은 자리에 올라 부끄러운 마음 없이 편안히 지낸다면 비단 사람들이 침뱉고 욕할 뿐만 아니라 개나 돼지도 신이 먹다 남긴 것은 먹지 않을 것이옵니다。엎드려 청하옵건대, 성명(聖明)께오서 급하고 딱한 사정을 굽어 살피시어 신의 죄상을 밝히고 신의 사적(仕籍)을 박탈하심으로써 산골짜기에서 생을 마치

게 되더라도 다시는 거두어들이지 않으신다면 공변된 법과 사사로운 분수가 둘 다 그 마땅함을 얻게 될 것이옵니다。신은 두려움에 떨며 간절히 청하는 마음을 가눌 길이 없사옵니다。

비답 왈：상소문을 살펴보고 잘 알았노라。경진년(庚辰年)에 약을 올린 것이 전후로 이년간이었는데 그 사이에 어찌 어머니의 병이 조금 차도가 있던 때가 없었겠는가? 그리고 문안의 대열에 한 번도 나아가 참석치 못하여 지금 죽어도 눈을 감지 못할 한이 되었다고 하니 만약에 과연 죽어도 눈을 감지 못할 한이 있었다면 그때에 어찌하여 한 번 들어와 참석하여 신하된 도의를 잠시 펼치지 못하였는가? 경의 이러한 말은 거의 경외하는 마음이 없는 것이로다。사양하지 말고 올라오라。

註：1。형조(刑曹)의 별칭
2。홍문관(弘文館) 부제학(副提學) 이하 관원의 총칭

承嚴批後進詣果川縣獄待罪疏

승 엄비후진예과천현옥대죄소

伏以臣伏承日昨辭疏之 批聖旨嚴峻有非臣子所敢聞者臣不勝惶怖震慄不計生死聞即起程以爲就命司敗之地行到果川縣伏聞臣所帶職名尙今仍存玆不敢冒入修門進伏縣獄之外以竢 嚴命而軍門重任刑獄劇務實非一日可曠之地朝著之上未有陳達變通之擧者似或容臣自言公務之緣臣瘝廢非但又添罪戾負罪之身虛帶職名尤有一刻不敢安者玆敢冒死陳籲仰冀速蒙 處分事極猥越罪尤萬死臣無任惶恐竢罪之至

答曰省疏具悉卿其勿辭亦勿待罪

지엄하신 비답을 받잡고 난 후에 과천현의 감옥에 나아가 죄를 기다리는 상소

엎드려 아뢰옵건대、일전에 올린 상소에 대한 비답을 삼가 받았사온데 성지(聖旨)가 준엄하시어 신이 감히 듣지 못할 바이온지라、신은 당황하고 두려움에 떨리는 마음을 이기지 못하여 생사를 염두에 두지 않고 어명을 들은 즉시 길을 떠나 사패(司敗)1의 명을 따르려 하였사옵니다。그리하여 과천현(果川縣)에 다다라서 삼가 듣자오니 신이 갖고 있는 직명이 아직도 그대로 남아 있다고 하는지라、이에 감히 외람되게 궐문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나아가 현의 감옥밖에 엎드려 엄명을 기다리옵니다。

군문(軍門)의 막중한 임무와 형옥(刑獄)의 바쁜 직무는 진실로 하루도 지체할 수 없는 자리이온데、조정에서 아직 변통하여 거용할 것을 진언하지 않은 것은 아마도 신이 스스로 공무에 대하여 언급한 것을 용인한 때문인 듯하옵니다。신이 직무를 태만히 하여 버려둔 것은 또한 죄과를 더하는 것일 뿐만이 아니며 죄를 지은 몸으로 헛되이 직명만 지니고 있음에 더욱 한 순간도 감히 편안하게 지내지 못하겠사옵니다。

이에 감히 죽음을 무릅쓰고 호소하면서 우러러 속히 처분을 내려주실 것을 바라옵니다만, 일이 극히 분에 넘치게 외람되어 그 죄 만 번 죽어 마땅하옵니다。 신은 두려움에 떨면서 죄를 기다리는 마음을 가눌 길이 없사옵니다。

비답 왈 : 상소문을 살펴보고 잘 알았으니, 경은 사양하지 말 것이며 또한 죄를 기다리지도 말라。

註 : 1。옛날 진(陳)·초(楚)에서 형벌을 맡았던 관리

免喪後辭知中樞疏 己丑

면상후사지중추소

伏以臣不孝無狀奄失所恃三年隙駟喪制南訖而中樞新命旋即下降寵榮如昨而人事異昔臣仰戴 洪恩之罔極以私心之摧咽泣涕汪汪移旬易月而猶不能自抑也仍念臣雖蒙聖朝孝理之恩得以保守親側終其天年而若論負犯萬死尚有餘辜揆以邦憲豈可終於倖免而偃息於田廬之間哉終喪之後即擬就伏司敗以竢執法之一勘而多年宿 疾復傷於草土之餘目今氣血耗盡轉動須人僵臥床席直一未冷之屍雖欲起身萬萬無自力之勢而匪意 恩除又及於此際冥頑不滅縷息 猶存未贖旣往之愆叠添罔赦之罪臣誠無地措身惟願速就溘然而已臣之情理其亦悲矣玆不得不席藁私次封疏縣道而精神迷瞀不能構數行文字聞命己久今始自列其罪尤大惶懼罙深伏乞 聖朝將臣罪狀亟付攸司俾得勘定於臣身未斃之前則庶幾國綱稍振私分少安臣不勝大願臣無任瞻天望雲涕泣竢罪之至

答曰卿其安心勿辭從速上來行公

상을 마친 후에 지중추를 사직하는 상소 을축년

엎드려 아뢰옵건대, 불효(不孝)하고 불선(不善)하다가 문득 의지하던 바를 잃어버리고 삼년이란 세월이 말 달리듯이 지나가 상제(喪制)가 이제 끝났사온데, 중추원(中樞院)에 새로 제수하신 어명을 곧장 내려 주시니 영광스런 은총은 예전과 같사오나 사람의 일은 옛날과 다르옵니다。 신은 우러러 망극한 홍은(洪恩)을 받고 보니 사사로운 마음을 억눌렀으나 눈물이 마구 쏟아져 열흘이 지나고 달이 바뀌도록 스스로를 억제할 수가 없사옵니다。 또한 생각건대 신이 비록 성조(聖朝)의 효성스런 은혜를 입어 부모 곁에서 간호하면서 그 천수(天壽)를 끝마치게 할 수 있었사오나 만약에 그 저지른 죄를 논한다면 만 번 죽더라도 남은 허물이 있을 것이니 국법으로 다스림에 어찌 가히 끝까지 요행으로 면하고서 시골집에서 편히 쉴 수 있겠사옵니까? 상을 마친 후에 즉시 나아가 사패(司敗)1에게 엎드려 법령의 집행을 달게 받으려 했었사옵니다만, 다년간의 숙환(宿患)이 상을 치르는 동안 다시 더쳐서 지금은 기력이 죄다 소모되

어 몸을 움직이는 데에도 사람이 필요할 정도이니 그야말로 아직 식지 않은 하나의 시체에 불과하옵니다。그러니 비록 기동하고자 한다 해도 전혀 스스로의 힘으로 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옵니다。그런데 뜻밖에 은혜로운 제수(除授)가 다시 이러한 때에 내려오고 보니、사리에 어두운 완고한 성질은 없어지지 않고 실낱같은 목숨만 붙어 있으면서 기왕의 허물을 아직 속죄하지도 않은 터에 다시 용서받지 못할 죄를 더하게 되어 신은 진실로 몸 둘 곳이 없사옵니다。오직 속히 빨리 죽기만을 바랄 뿐이옵니다。신의 마음도 또한 서글프기 한량없사옵니다。이에 부득이 사저에서 거적을 깔고 엎드려 상소를 봉하여 현도(縣道)에 부치옵는데 정신이 혼미하여 몇 줄 안 되는 문장도 엮을 수가 없어서 어명을 받잡은 지가 이미 오래되었지만 이제야 비로소 그 죄를 열거하오니 더욱 크게 당황하고 두려움이 심하옵니다。엎드려 청하옵건대、성명(聖明)께오서 신의 죄상을 속히 해당관청에 회부하시어 신의 몸이 아직 죽기 전에 다스리게 하신다면 아마도 나라의 기강이 조금이나마 진작될 것이며 사사로운 본분도 잠시나마 편안해질 것이오니 신은 진실로 이것을 원하고 있사옵니다。신은 천운(天雲)을 우러러 바라보며 울면서 죄를 기다리는 마음을 가눌 길이 없사옵니다。

비답 왈:경은 안심하고 사양하지 말고 분부대로 속히 올라와 공무를 수행하라。

註:1。형벌을 맡은 관리

辭開城留守疏
사개성유수소

伏以臣於夏初猥上辭本伏承 聖批諭臣上來繼又伏聞有備局提調之 命而累疏陳乞亦甚猥越迄玆數月泯嘿以過事雖出於危蹙跡反涉於偃蹇日夜憂慄寤寐亦惕不意故都居留之命又下於此際臣於是感泣徊徨益不知措身之所也伏念臣十年在外罪戾層積其虧分闕義不但違逋 明命而已國有常刑罪在不赦而孝理之政輒復寬恩俾臣得遂終養之願叟無遺憾君臣大義固已無所逃於天地而況此 聖德至渥豈臣糜粉所能仰酬其萬一哉臣於免喪之初即蒙西樞之命趁此身在散班之日進伏京輩以請積年未勘之罪若蒙 聖朝終始寬貸則亦欲一從特進之列得近 清光歸死溝壑亦無所恨區區此志未嘗敢懈而首尾四朔終未能自力以至今日職名又易臣實惋恨不覺悲淨之自零也臣之賦質虛脆未老先衰之狀自在朝時已然想蒙 聖明之所鑑燭伊後距今倏迫一紀犬馬之齒恰已六十而草土三年氣血耗盡視聽俱廢起居須人父母丘墓近在數十里之地而經年不得一省樓息雖存無復生人之理事勢如此旣不能自致於京城數日之程況比松都過京城又是

數日程者哉分司雖云養閒之地其所保釐之責亦非輕
歇臣之致身之難又旣如右則尙可議其荏任而治事哉
伏聞前任之人以譴遞職而臣又遠在四舍之外陳疏控
免亦致引日職守久橫尤極惶悶伏乞速 賜處分以幸
公私今臣慢命之罪又非前日之比換以王法斷無可逭
之理只得席藁私次以竢誅殛而已臣無任惶怖震越泣
潘祈懇之至
答曰省疏具悉卿其勿辭從速行公

개성유수를 사직하는 상소

엎드려 아뢰옵건대, 신이 초여름에 외람되이 상소를 올렸사오나 신에게 올라오라하신 전하의 비답을 삼가 받았사오며 계속해서 비국(備局)1의 제조(提調)에 제수하신 명을 또한 삼가 받았사오나 누차 상소를 올려 해임해 주실 것을 청함에 있어 또한 심히 외람되었사옵니다。지금에 이르기까지 수개월 동안 침묵하고 지내온 것은 일이 비록 다급하고 두려웠기 때문이었으나 도리어 교만하다고 인식되어 밤낮으로 근심에 떨며 자나 깨나 또한 두려웠사옵니다。그런데 뜻밖에도 고도(故都)2를 지키라는 어명이 이러한 때에 다시 내려오니 신은 이에 감읍(感泣)하고 당황하여 더욱 몸 둘 바를 모르겠사옵니다。엎드려 생각건대, 신은 십년 동안 외지에 있으면서 저지른 죄가 누적되어 그 본분에 어긋나고 도의를 저버림으로써 다만 명철하신 어명을 어겼을 뿐만이 아니오며 나라에는 국법이 있으므로 그 죄는 용서받지 못할 것이었사옵니다。그런데 효성스런 정사를 베푸시는 전하께오서 문득 다시 관대하신 은혜를 내리시어 신으로 하여금 끝까지 봉양할 수 있는 소망을 이루게 하셨으므로 더 이상 유감이 없사오며 군신간의 대의에 있어서도 진실로 이미 세상에서 도망갈 곳이 없게 되었사옵니다。하물며 이렇게 극진한 성덕(聖德)에 대하여 어찌 신이 분골쇄신한다 해도 그 만분의 일이나 우러러 보답할 수 있겠사옵니까? 신이 상을 마치고 난 후에 곧장 중추원(中樞院)에 제수하신 명을 받았사온데, 신의 몸이 산관(散官)으로 있을 때를 틈타 어전에 나아가 엎드리고서 수년 동안 처분 받지 못한 죄를 청하여 만약에 성조(聖朝)에서 시종 신을 관대하게 대해 준다면 또한 한번 특진(特進)의 반열을 좇아 전하의 청광(淸光)을 가까이서 뵈옵다가 돌아가 골짜기에서 죽더라도 또한 여한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사옵니다。신의 구구한 이러한 뜻을 일찍이 감히 열어 보이지 못한 채로 계속 넉 달을 지냈지만 결국 스스로의 힘으로 이를 수가 없었사온데 금일에 직명이 다시 바뀌고 나니 신은 진실로 슬프고 한탄스러워 눈물이 저절로 흘러내리는 것도 깨닫지 못하겠사옵니다。신은 타고난 자질이 나약하여 늙기도 전에 먼저 쇠잔해진 실상은 조정에 있을 때부터 이미 그러하였으므로 성명(聖明)께오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하옵니다。그 후로 지금에 이르기까지 어느덧 십 이년이란 세월이 훌쩍 지나가 하찮은 신의 나이도 이미 육십이 되었사옵니다。게다가 삼년 동안 상을 치르고 나니 기력이 모두 쇠약해져서 눈과 귀가 모두 망가졌으며 기거하는데도 사람의 도움이 필요

할 정도가 되었으므로 부모의 산소가 수십 리 안에 가까이 있지만 일 년이 넘도록 한 번도 찾아가 보지 못하였으며 실낱같은 목숨이 비록 붙어 있긴 하지만 더 이상 성한 사람이 될 가망이 없사옵니다。형세가 이와 같으므로 이미 며칠 밖에 안 되는 경성(京城)까지의 여정에도 스스로 이를 수가 없사온데 하물며 송도(松都)는 경성을 지나 다시 며칠을 가야 하는 여정임에랴! 분사(分司)는 비록 한가하게 수양할 수 있는 자리라고는 하지만 그 다스려야 할 책임은 또한 가벼이 여길 수만은 없사옵니다。그런데 신의 몸을 움직이기가 어려움이 또한 이미 이와 같사오니 어찌 가히 임무를 맡아 일을 처리함을 논할 수 있겠사옵니까? 엎드려 듣자오니 전임자는 견책을 받아 직무를 옮겨갔다 하오며、신 또한 멀리 사사(四舍)의 밖에 있으면서 상소를 올려 면직을 청함으로써 또한 시일을 지체하여 직무수행을 오랫동안 비워 두고 있으니 더욱 지극히 당혹스럽고 민망하옵니다。엎드려 청하옵건대 속히 처분을 내리시어 공사(公私)를 편안케 해주시옵소서。지금 신이 어명을 태만히 한 죄는 또한 전일에 비하지도 못하므로 왕법(王法)으로 다스림에 결단코 용서받을 가망이 없사오니 다만 사저에서 거적을 깔고 엎드려 주벌을 기다리옵니다。신은 두려움에 떨며 울면서 간절히 바라는 마음을 가눌 길이 없사옵니다。

비답 왈:상소문을 살펴보고 잘 알았으니 경은 사양하지 말고 속히 분부대로 공무를 수행하라。

註:1。비변사(備邊司)의 별칭
2。개성(開城)을 말함

乞使啣變通疏
걸사함변통소

伏以臣草土餘喘委在床褥松都三日之程尚無往赴之勢懇辭思命至于再疏想惟在廷諸臣亦必得見其疏本而今者銓曹以臣備擬節使至受 天點是則以臣前疏縷縷皆歸之欺罔 君父罪固不容於戮死如以爲一分近似則其斃道路無疑而同朝相識之人無一毫顧藉之意如此雖 天仁父慈欲垂憐恤亦何由而 下燭情實哉臣於是無可叟暴之路只有伏地嗚咽而已仍念臣十數年前曾作此行伊時家有望八病母情理之慘無異絶裾而臣未嘗一言辭避伏想 聖明或賜記存今豈敢爲一身私計遽懷自便之圖哉且臣十年屛居辜負 國恩今若赴此遠役雖使終作道途之羈鬼猶是死於國事於臣爲華萬一生還則乞身退歸亦庶幾安於私義誠不當復有此瀆擾而第念臣衰疾之狀實有如前疏所陳者將此事勢豈有運得一步之望乎萬里之行不翅三月聚糧而已使臣之所以前期差出蓋爲此也而今臣一息如縷朝暮竢罪豈有餘念暇及行事如此蹉過期日忽迫則後雖有變通之事亦必終於狼狽而已伏望 聖慈俯詢於在朝諸臣如以臣爲托辭圖免則國有常刑臣不可倖免

而至於使事則亟宜早有處分俾無顚倒窘速之弊千萬幸甚臣無任惶怖竢罪之至

答曰省疏具悉卿其勿辭調理牲來

절사(節使) 임명에 대하여 변통해 주실 것을 청하는 상소

엎드려 아뢰옵건대、상을 치르고 난 후에 얻은 천식으로 침석에 누워 있으므로 삼일이나 되는 송도(松都)1까지의 여정은 아무래도 나아갈 수 있는 형세가 아니온지라 은혜로운 어명을 간곡히 사양하여 다시 상소를 올리게 되었사옵니다。생각건대 조정에 있는 여러 신하들도 또한 반드시 신의 상소문을 보았을 터인데도、지금 전조(銓曹)2에서 신을 절사(節使)에 비의(備擬)하여 천점(天點)3을 받기에 이르렀사오니 이것은 바로 신이 전에 올린 상세한 상소를 모두 군부(君父)를 기만한 것으로 올리는 것이므로 그 죄는 진실로 죽음을 당하더라도 용납되지 못할 것이옵니다。만일에 조금이라도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면 도로에서 죽게 되더라도 주저하지 않을 것이지만 같은 조정에서 서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이처럼 조금도 고려하려는 뜻이 없으니 비록 인자하신 천부(天父)께오서 애처롭게 여겨 긍휼함을 드리우고자 하시더라도 또한 어떻게 실정(實情)을 아실 수 있겠사옵니까?

신은 이에 더 이상 아뢰올 길이 없으므로 다만 땅에 엎드려 오열할 뿐이옵니다。또한 생각건대、신이 십 수 년 전에 일찍이 이렇게 임지(任地)로 떠난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집에 팔십을 바라보는 병든 노모가 있어서 마음속의 참담함이 절거(絶据)4함과 다름이 없었사오나、신은 일찍이 사양하는 말 한 마디를 하지 않았으니 삼가 생각건대 성명(聖明)께오서도 혹 기억하고 계실 것이옵니다。그러니 지금 어찌 감히 일신(一身)의 사사로운 계책을 마음에 품고서 스스로 편안함을 도모하겠사옵니까? 또한 신은 십년 동안 물러나 거하면서 국은(國恩)에 죄를 지은 처지이므로 지금 만약 이렇게 먼 벼슬길을 떠나게 된다면 비록 설령 마침내 길거리의 객귀(客鬼)가 된다 하더라도 오히려 국사를 수행하다 죽은 것이니 신에게는 영광스런 일생이 될 것이옵니다。그렇지 않다면 벼슬에서 물러나 돌아갈 것을 청하는 것도 또한 사사로운 도의에 편안할 것 같사옵니다。진실로 마땅히 더 이상 이러한 욕되고 소란스러운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사옵니다。다만 생각건대、신의 애처롭고 병든 상황은 진실로 전에 올린 상소문에서 진언한 바와 같사오니 이러한 형편으로 보아 어찌 한 걸음이라도 옮길 수 있는 가망이 있겠사옵니까? 만리의 원행(遠行)은 다만 삼 개월 동안만 식량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니 사신을 전반기에 차출하는 것은 대개 이러한 이유 때문이옵니다。그런데 지금 신은 실낱같은 호흡을 몰아쉬면서 아침저녁으로 죄를 기다리고 있사오니 어찌 틈을 내어 행사에 미칠 여념이 있겠사옵니까? 이처럼 기일을 크게 넘어 촉박하게 되면 뒤에 비록 변통하는 일이 있다하더라도 또한 반드시 결국 낭패하고 말 것이옵니다。엎드려 바라옵건대、성자(聖慈)께오서 조정에 있는 여러 신하들에게 물어보시고서 만약에 신이 핑계를 꾸며 면하기를 도모했다고 여기

신다면 나라에는 국법이 있으므로 신은 요행으로 면할 수는 없을 것이오며 사신으로 파견하는 일에 대해서도 마땅히 속히 처분을 내리시어 일을 그르치고 곤궁에 처하게 하는 폐단이 없도록 해주신다면 천만 다행이겠사옵니다。신은 두려움에 떨며 죄를 기다리는 마음을 가눌 길이 없사옵니다。

비답 왈:상소문을 살펴보고 잘 알았으니 경은 사양하지 말고 몸조리를 잘하여 다녀오도록 하라。

註:1。개성(開城)
2。문무관(文武官)을 전형하는 이조(吏曹)와 병조(兵曹)의 총칭
3。임금이 추천된 인물에 대하여 권점(圈點)을 찍는 일。
4。옛날 중국의 온교(溫嶠)가 어머니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소매를 뿌리치고 벼슬길에 올랐다는 고사가 있음

辭陞拜判義禁疏 辛卯

사승배 판의금소

伏以臣病伏窮峽朝暮竢死伏聞向來 王候久在將攝至今猶有未盡 復常而無計進近京輦以承 起居之節見帶西樞亦已經歲而力不能 構數行文字陳章控免迄玆未就一息猶存無復人理不意金吾 寵擢 之命又下於此際臣於是驚惶震越莫知所措顧臣已試無用不可濫授 之狀伏想司直之論必有刺擧不容臣自爲覥縷且臣罪戾深重不可冒 進之勢前後累疏業蒙 睿覽臣今神思昏瞀不能叅暴只此目前難動 之形誠有不暇於緩聲盖臣年衰疾痼又經草土精神氣力未有一分餘 地雖非呻痛之時固萬萬無陳力之望而眞元內虛外感易乘自上年冬初重得寒疾輾轉添加今已五朔飮啖全廢喘息如縷而又自十餘日來 猝有項背牽引不能屈伸之症呼吸不得順通坐臥亦難惟意砭藥無效 只有叫苦求死而已將此事狀豈有運得一步之望乎臣以草芥微品重 被 聖朝拔擢之思致身八座榮寵無比而中緣情理之迫至繼以疾病 之難強凡玆十數年間所以自處其身者無非犯分越義之事有時反省心骨俱悸而 聖度包容眷渥愈深及至今日又有此非分之 恩命隆 天厚地靡有涯量臣非木石豈不知感而只是埴壑不遠報答無階將不 免爲忘君負國之鬼瞻望 宸極但有涕淚伏乞聖慈察臣懇辭哀臣苦 情亟許還收資級仍又勘臣罪狀則垂盡之喘庶得瞑目生成之澤不忘 結草臣無任瞻天望雲泣涕祈懇之至

答曰省疏具悉今玆陞擢實循公議卿其勿復撕捱從速上來行公

판의금에 승진됨을 사양하는 상소 신묘년

엎드려 아뢰옵건대、신은 병들어 험한 산골에 살면서 아침 저녁으로 죽음을 기다리고 있사옵니다。삼가 듣자오니、

전날에 전하의 안후(安候)가 편찮으셔서 오랫동안 섭생(攝生)하셨으나 지금까지도 아직 예전처럼 완전히 회복되지 않으셨다는 데도 어전에 가까이 나아가 전하의 기거하시는 예절을 받들 생각을 못하였사옵니다。중추원(中樞院)에 임명받은 지도 이미 한 해가 지났지만 몇 줄 안 되는 문장도 엮을 힘이 없어서 상소를 올려 면직을 청하는 것을 지금에 이르기까지도 못하고 있사옵니다。한 가닥 목숨이 아직 붙어 있기는 하지만 더 이상 성한 사람이 될 가망이 없사옵니다。그런데 뜻밖에도 금오(金吾)1에 발탁하신 은총어린 어명이 또한 이러한 때에 내려오니 신은 이에 두려움에 떨며 몸 둘 바를 모르겠사옵니다。신을 돌아봄에 쓸모가 없으므로 함부로 임명할 수 없는 실상이 이미 증명되었사옵니다。엎드려 생각건대 사직(司直)2이 논의할 때는 반드시 악을 벌하고 선을 기리기 마련이므로 신이 용납되지 못하는 것은 스스로 상세하게 말씀드렸사옵니다。또한 신의 죄가 깊고도 무거워 외람되이 관직에 나아갈 수 없는 형세는 계속해서 누차 올린 상소에서 아뢰었으므로 전하께오서도 잘 보셨을 것이옵니다。신은 지금 정신이 혼미하여 다시 아뢰올 수가 없사오나、다만 움직이기 어려운 목전의 이러한 형세는 진실로 더 이상 늦게 아뢰올 겨를이 없사옵니다。대개 신은 나이 들어 몸이 쇠약하고 질병이 심하여 또한 상을 치르는 동안 정신과 기력이 조금도 남아 있지 않아 비록 신음하며 앓는 때는 아니라 하더라도 진실로 힘을 쓸 가망이 전혀 없사옵니다。그리고 안으로 원기가 허하여 밖으로부터 질병이 쉽게 닥쳐 작년 초겨울 부터는 다시 감기에 걸려 점점 더 병세가 심해졌으므로、지금 이미 다섯 달이 지나도록 식음을 전폐한 채 계속해서 기침을 하고 있사옵니다。또한 십여 일 전부터 갑자기 목덜미와 등이 오그라들어 펼 수가 없는 증상이 나타났으며 호흡이 순조롭게 통하지 못하여 앉거나 눕는 것조차도 어렵사옵니다。오직 뜸뜨고 침을 맞지만 효험이 없어서 다만 고통으로 소리치며 죽기를 원할 따름이옵니다。이러한 일의 상황으로 보아 어찌 한 걸음이라도 옮길 가망이 있겠사옵니까? 신은 하찮고 미천한 자질을 지녔음에도 불구하고 성조(聖朝)에 발탁되는 은혜를 거듭 입어 몸이 팔좌(八座)에 이르렀으며 영광스런 은총은 비할 데가 없었사옵니다。그러나 도중에 절박한 정리(情理)와 계속해서 치료하기 어려운 질병으로 말미암아 무릇 십 수 년간 스스로 처신한 것이 본분에 어긋나고 도의를 저버린 일이 아닌 것이 없어서 때때로 반성함에 마음과 몸이 모두 두려움에 떨리옵니다。그런데도 전하께오서 이를 헤아리사 포용해 주시고 돌보아 주시는 은혜가 더욱 깊어졌사오며 금일에 이르러 또한 분수에 넘치는 이러한 은혜로운 명을 내리시니 높은 하늘과 두터운 땅만큼이나 한량이 없사옵니다。신이 목석(木石)이 아닌 이상 어찌 감격할 줄을 모르겠사옵니까만、다만 죽을 날이 멀지 않아 보답할 길이 없사오니 장차 임금을 저버리고 나라를 등지는 귀신이 됨을 면치 못할 것이옵니다。이에 신극(宸極)3을 우러러 바라보며 다만 눈물만 흘릴 뿐이옵니다。엎드려 청하옵건대、성자(聖慈)께오서 신의 간절한 말을 살펴보시고 신의 괴로운 사정을 애처롭게 여기시어 속히 신의 관급

(官級)을 거두어들일 것을 윤허하시고 아울러 또한 신의 죄상을 심문케 하신다면 다 꺼져가는 목숨이지만 아마도 눈을 감고 편히 죽을 수 있는 은택을 얻게 될 것이니 결초보은함을 잊지 않을 것이옵니다。신은 천운(天雲)을 우러러 바라보며 울면서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을 가눌 길이 없사옵니다。

비답 왈:상소문을 살펴보고 잘 알았노라。이번에 승진하여 발탁한 것은 사실상 公議(공의)를 따른 것이니、경은 더 이상 고집부리지 말고 속히 분부대로 올라와 공무를 수행하라

註:1。의금부(義禁府)의 별칭
2。재판관
3。임금이 거처하는 곳

承隆批後進到楮湖申懇三疏

승융비후진도저호신간삼소

伏以臣再疏陳病敢乞須臾之命而 聖批不許辭旨益隆在家累素旣 涉偃蹇而又惟金吾滯囚重勤聖念臣以必不可冒進之人縣道封章勤 費累日不敢自計性命切欲稍近京輦以爲瞻望象魏兼暴微悃之計而 疾情沉篤不任鞍轡由船作行今已數日春寒尙峭江風甚厲舊感添加 新症交發萬無前進之路不得已卸下江岸以爲調治之計而以此病狀 必無叟起爲人之望若或溘然於路中則臣之情狀終無以自白於 鼇纊之下玆敢不避煩猥悉布肝膈以冀 聖明之垂察焉臣伏覩日昨 別論以不必每以此爲嫌爲敎臣於前後累承嚴旨俱出於責誨微臣 必欲其仕之至意則雖其惶隕悶蹙有不可言而感激 恩遇之意亦未 嘗不銘在心腑豈敢以是而自阻於 仁覆之下哉曾在丙戌伏承守禦 之 命仰暴事狀遽遭 嚴旨今又提起極涉惶恐而難進之義旣在於 是又不得不略陳 顚末焉臣辛巳議藥之際未伸臣子之義痛恨之極 無所容於天地由是以復遂決自廢之計當其奔哭之時不得入謝憲職蓋由於此伊後 春宮遭罔極之變諸臣俱進保護之說而臣不敢爲一 言乙酉 殿下有非常之擧坊民厭役亦知遑遑叫閽而臣不得進詣洛 下凡此數件罪皆難容誅然而儕友之間不以此棄絶朝廷之上尙不替 任籍者只以其自廢節耳若使國有大事則偃然在家如不動念身縻好爵則欣然樂赴猶恐不及則雖 殿下聖度亦安得容忍此等人物而臣 之守此一着今已十年一朝舍此其將何所執而自列於人數耶松都之際近於左遷出疆之 命係是往役而俱不得趨承及至今日遽膺新擢 則辭卑居尊旣有關於廉隅至於昨年

聖候違豫上下憂遑之時臣不　得入叅候班大爲衆論所非而今乃以　眷遇之隆始欲爲承　命之計　則要君固寵之疑臣亦何以自解於人乎士夫進退關係風俗而於其義　不當受則虞人之不赴君招聖人取之然則臣之不可拜受　新命於義　灼然其何敢以　眷渥之深摯分義之不安而爲冒進之計乎抑臣之所　自悲者犬馬微物亦知戀主而臣之違離禁闥已至十三年之久自絶于　天以貽伊戚昨奉　聖敎尤不勝感泣之至或冀　俯允所請以西極舊　階仰瞻天光而微誠未格又犯違慢之罪自知死有餘戮無復雯近　威顔之望是庸耿結惟有涕淚而已臣無任席藁竢　命之至

答曰省疏具悉旣往之事不必追嫌卿其宜遵前旨安心上來行行公

융성하신 비답을 받고 난후 나아가 저호에 이르러 간청하는 세 번째 상소

엎드려 아뢰옵건대、신이 두 번째 상소에서 병세를 아뢰면서 감히 잠시만 기다려 주실 것을 청하였사오나 전하의 비답이 허락지 않으시고 사지(辭旨)가 더욱 융성하시온지라 집에서 누차 상소를 올림에 이미 교만한 죄를 짓고 말았사옵니다。또한 금오(金吾)1에 죄가 계류되어 있어 전하의 생각을 거듭 수고롭게 하고 있사옵니다。신이 결코 외람되이 나아갈 수 없는 사람이라는 상주문(上奏文)을 현도(縣道)편으로 봉인하여 올리려 했으나 움직이는 데만도 며칠이 걸리므로 감히 스스로 꾀하지 못하였사옵니다。그러나 목숨이 끊어질 듯하여 잠시나마 서울에 가까이 가서 궐문을 우러러 바라보면서 아울러 미미한 정성이나마 아뢰올 작정이었사옵니다만 병세가 위독하여 말을 타고 갈 수가 없어서 배를 이용하여 떠난 지 지금 이미 며칠이 되옵니다。그러나 봄추위가 아직 매섭고 강바람이 몹시 거세어 전에 있었던 감기가 더욱 심해지고 새로운 증상이 새로 생겨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길이 전연 없었사옵니다。이에 부득이 강 언덕에 정박하여 병을 치료할 계획을 세웠사옵니다。이러한 병의 증상으로 보아 틀림없이 다시 일어나 성한 사람이 될 가망이 없을 것이오니 만약에 혹 갑자기 도중에서 죽는다면 신의 사정을 끝내 전하 앞에서 스스로 아뢰지 못하게 될 것이옵니다。이에 감히 번거롭고 외람됨을 피하지 않고 마음속의 진정을 다 드러냄으로써 성명(聖明)께 오서 굽어 살펴주시기를 바라옵니다。신은 며칠 전에 내리신 특별하신 유지(諭旨)를 삼가 받았사온데 반드시 매번 이러한 일로 자신을 탓할 필요는 없다고 하셨사옵니다。신이 계속해서 여러 번 받은 엄지(嚴旨)는 모두 미천한 신을 책하여 가르침으로써 반드시 그 관직에 이르게 하시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이었사옵니다。그러니 비록 그 황공하고 송구스러움은 말할 수도 없거니와 은혜롭게 대우해 주시는 감격스러운 뜻 또한 일찍이 가슴에 새겨 놓지 않은 적이 없

었사오니 어찌 감히 이것으로 인해 어진 세상에서 스스로를 격리시키겠사옵니까? 일찍이 병술년(丙戌年)에 수어사(守禦使)에 제수하신 명을 삼가 받고 일의 상황을 아뢰었다가 곧장 엄한 교지를 받았사온데 지금 다시 제기함에 지극히 황공하오나 나아가기 어려운 뜻이 이미 여기에 있사오니 또한 부득이 대강 그 전말을 아뢰옵나이다。신이 신사년(辛巳年)에 약을 올릴 적에 미쳐 신하된 도의를 펼치지 못한 것은 극히 통한스러운 일로 천지간에서 용서받지 못할 바이었사옵니다。그 후로부터는 마침내 스스로를 유폐하기로 결심하였사오니 급히 나아가 곡할 때에 당해서도 조정에 들어가 헌직(憲職)을 사양치 못한 것은 대개 이러한 이유 때문이었사옵니다。그 후 춘궁(春宮)2에 망극한 변고가 생겼을 때 여러 신하들이 모두 보호하는 말을 아뢰었으나 신은 감히 한마디 말도 하지 못했사옵니다。또한 을유년(乙酉年)에 전하께 심상치 않은 일이 생겼을 때 일반 백성이나 하인들도 모두 허둥대며 걱정의 소리를 해댔으나 신은 서울에 나아가 배알할 수 없었사옵니다。무릇 이러한 몇 건의 죄는 모두 주벌을 용서받기에 어려운 것이었으나 그러나 동료들 사이에서 이러한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정에서 내팽개치지 않고 또한 사적(仕籍)을 바꾸지 않은 것은 다만 스스로를 유폐시켰다는 그 한 가지 절목 때문이었사옵니다。만약에 나라에 큰 일이 있는데도 편안히 집에만 있으면서 동요하지 않는 듯하다가 몸이 훌륭한 관작에 있게 되자 흔연히 기쁜 마음으로 나아가 미치지 못할까봐 걱정한다면 비록 전하께오서 너그럽게 헤아려 주신다 하더라도 또한 어찌 이러한 인물을 용인할 수 있겠사옵니까? 신이 이것 하나만을 고수한지가 지금 이미 십년이나 되온데 하루아침에 이것을 버린다면 장차 무엇을 지니고서 스스로 사람들의 사이에 설 수 있겠사옵니까? 송도(松都)에 임명되었을 적에 좌천에 가까운 중국에 사신으로 가라는 명은 가서 시행했어야 할 것이로되 모두 뛰어가 받들 수 없었사온데 금일에 이르러 갑자기 새로운 발탁에 응한다면 이것은 낮은 지위는 사양하고 높은 지위에 처하는 것으로 이미 염의(廉義)에 어긋남이 있사옵니다。작년에 전하의 안후(安候)가 편찮으시어 위아래 신료들이 근심으로 당황할 때에도 신은 문안드리는 대열에 들어가 참석치 못하여 중론(衆論)에 크게 비난 받았사온데 지금 융숭한 대우를 받고서야 비로소 명을 받들려고 한다면 임금을 강요하여 총애를 공고히 한다는 의심을 신이 또한 어떻게 사람들에게 스스로 해명하겠사옵니까? 선비의 진퇴는 풍속에 관계되는 것이므로 그 도의에 있어 마땅히 받아서는 안 된다면 우인(虞人)이 임금의 부름에 나아가지 않은 것도 성인(聖人)은 그 뜻을 취하셨사옵니다。그러한 즉 신이 새로 내리신 명을 삼가 받을 수 없음은 그 도의에 있어 훤히 알 수 있는 것이오니 그 어찌 감히 보살펴 주시는 은총이 깊다고 해서 분수와 도의에 편안치 않는데도 외람되이 나아갈 생각을 하겠사옵니까? 도리어 신이 스스로 슬퍼하고 있는 것은 개와 말 같은 미물도 또한 주인을 사모할 줄을 아는데 신은 대궐을 등지고 떠난 지가 이미 십 삼년이나 되어 스스로 하늘을 외면함으로써 이러한 근심을 끼치게 되었다는 것이옵

니다。어제 성교(聖敎)를 받들고서는 더욱 감읍(感泣)하는 마음을 이기지 못하였사옵니다。혹시나 청한 바를 살펴보고 윤허하시어 중추원(中樞院)의 옛 직위로서 천광(天光)을 우러러 바라볼 수 있기를 기대했었사옵니다만 미미한 정성이 이르지 못하여 또한 어명을 어기고 태만히 한 죄를 범하고 말았사오니 죽더라도 남은 죄가 있어 더 이상 다시는 위엄 있으신 용안을 가까이 할 가망이 없음을 스스로 알고 있사옵니다。이에 슬퍼하며 오직 눈물만 흘릴 뿐이옵니다。신은 거적을 깔고 엎드려 명을 기다리는 지극한 마음을 가눌 길이 없사옵니다。

비답 왈：상소문을 살펴보고 잘 알았노라。지나간 일일랑 더듬어 탓할 필요가 없으니 경은 마땅히 전의 교지(敎旨)를 따라 안심하고 올라와 공무를 수행하라。

註：1。의금부(義禁府)의 별칭
2。태자(太子)의 宮

辭左議政疏　景宗辛丑

사좌의정소

伏以臣於今月二十二日伏蒙史官來傳　聖旨以臣拜議政府左議政　使之乘馹上來者臣承　命驚惶精爽飛越手足失措不知　恩遇之爲　感爵祿之爲榮只竢公議之地有所駁正而仄聽累日尙未有聞重任久　曠尤增臣罪玆不得不冒昧自列焉臣立朝二十年歷試內外本末畢露　臣之不合於是職人孰不知之且今屛跡田間二十三歲年旣望八疾病　奄奄其不堪復入朝端人亦孰不知之而臣則私竊獨念身有忘君負國之罪不容自立於人世者欲暴情實感淚先零臣以至愚極陋蒙被　先　大五罔極之恩湔拂陶甄致身華膴至於八座榮擢特出　睿簡渥恩之　隆夐絶常倫而臣自顧才識淺短無以仰報特達之知遂至逃遁荒野自　絶于天論以常憲豈容得保其性命而　聖慈天覆猶復眷眷不舍別　諭溫批前後相續間或伏承不敢聞之　嚴敎而此亦出於必欲其仕之　至意臣實感泣　恩私有非他人所能識也及夫辛卯擢授金吾之職仍　複　親降玉音以卿之去國今已十三年矣予亦有欲見之意卿獨無是心乎爲諭爲人臣子寧有不感勤於斯敎者哉臣非敢有所執守而區區　一端廉義實有不容於弁髦者茲再十年之間終不得一覲　淸光而奄　遭　崩天之痛追思　恩敎心肝俱裂宜卽以身自殉下蓐螻蟻而尙今　冥然不滅寄喘於世人之頑忍果至此哉果至此哉臣若自幸今日之　恩　數不思曩昔之負犯偃然出脚翱翔自如則是以　先王在天之靈不復臨汝而然也臣豈忍於爲是哉才望之不稱辭遜之常言疾病之難強悶　迫之眞

情年至之謝事仕宦之大防而臣略不一擧直以理義之萬萬不 可冒進垂涕而陳之庶幾以一言得蒙 鑑納使名器不至於久假賤分 得免於撕捱伏乞 聖上天地父母細加諒察亟許改正臣新授職秩仍 命攸日勘臣前後不忠無狀之罪俾臣僚知警朝綱振肅亦當爲新化之 一助臣不勝大望臣無任瞻天仰聖涕泣祈懇之至

答曰省疏具悉卿懇卿之才德允合輔弼予志已定公議僉同何用控辭 以孤至意乎卿其安心勿辭幡然登途以副朝野之望 史官張斗周來宣

좌의정을 사직하는 상소 경종 신축년

엎드려 아뢰옵건대、이 달 이십이일에 사관(史官)이 와서 전하는 성지(聖旨)를 삼가 받았사온데 신을 의정부(議政府) 좌의정(左議政)에 임명하였으니 역마를 타고 올라오게 하라는 것이었사옵니다。신은 어명을 받고 놀랍고도 당황하여 정신이 아찔하고 손발을 제대로 두지 못하였사옵니다。감격스러운 은우(恩遇)와 영광스러운 작록에 어찌할 바를 모른 채로 다만 공론(公論)에 비판하는 말이 있지 않나 기다리면서 며칠 동안 귀를 기울였으나 아직까지 듣지 못하였사옵니다。그러나 중요한 직책을 오랫동안 비워둔다면 신의 죄를 더욱 가중시키게 될 것이므로 이에 부득이 사리를 따지지 않고 외람되게 스스로 아뢰옵나이다。신은 이십 년간 조정에 서서 내직과 외직을 두루 역임하는 동안에 그 본말이 모두 드러났으니 신이 이 직책에 합당하지 않다는 것을 사람이라면 그 누가 모르겠사옵니까? 또한 지금 시골에 물러나 거한 지가 이십 삼년이나 되어 나이는 이미 팔십을 바라보고 질병은 더욱 심해졌으니 조정에 다시 들어감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은 사람이라면 그 누가 모르겠사옵니까? 신이 남몰래 가만히 혼자 생각해보니 임금을 져버리고 나라를 등진 죄를 몸에 지니고 있으므로 인간 세상에 스스로 서는 것을 용납하지 못하오니 일의 진상을 아뢰려고 함에 느꺼워 흐르는 눈물이 먼저 떨어지옵니다。신은 지극히 우둔하고 비루함에도 불구하고 선대왕(先大王)의 망극하신 은혜를 입고 성스러운 교화를 가득히 받아 몸이 영화롭게 되고 팔좌(八座)에 까지 이르렀사오니 영광스런 발탁이 특별하고 가려 뽑아주신 두터운 은혜의 융숭함은 상륜(常倫)에서 크게 벗어난 것이었사옵니다。그러나 신은 스스로 돌아봄에 재주와 식견이 천박하고 짧아 특별히 뛰어나다고 인정해주심에 우러러 보답하지 못하고 마침내 거친 들녘으로 도망가 숨음으로써 스스로 하늘을 외면하였사오니 상법(常法)으로 논한다면 어찌 그 성명(性命)을 보전할 수 있겠사옵니까? 그런데도 선왕의 하늘과 같은 자비로우심으로 오히려 다시 따뜻하게 보살펴 버려두지 않으셨으며 특별하신 유지(諭旨)와 따뜻하신 비답(批答)이 계속해서 서로 이어졌사옵니다。간혹 감히 듣지 못할 엄하신 교지가 있기도 했사옵니다만 이것은 또한 반드시 관직에 나아가게

하려는 지극하신 뜻에서 나온 것이었사오니 신은 진실로 성은에 감읍함에 있어 다른 사람들이 능히 알지 못할 것이 있사옵니다。 금오(金吾)1의 직책에 높이 발탁하여 제수하실 적에、「경이 나라를 떠난 지가 지금 이미 십 삼년이나 되므로 나도 또한 경을 만나보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 경만 홀로 이러한 마음이 없겠는가」라는 옥음(玉音)2을 아울러 다시 친히 내리셨사오니 신하된 자로서 어찌 이러한 교지에 감동치 않았겠사옵니까? 신은 감히 고집스럽게 지키는 바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사오나 구구한 일단의 염의(廉義)에 진실로 쓸데없지 만은 않은 것이 있었사옵니다。 그러나 십년이란 세월이 흐르는 동안 결국 한 번도 선왕의 청광(淸光)을 뵙지 못한 채 갑자기 붕어(崩御)하신 비통함을 당하였사오니 은혜로우신 교지를 돌이켜 생각해봄에 마음과 간장이 모두 찢어지는 듯 하였사옵니다。 마땅히 그 즉시 스스로 목숨을 끊어 미미한 충정이나마 바쳤어야 했으나、아직 지금까지도 가물가물 꺼지지 않은 채로 세상에서 목숨을 부지하고 있사오니、사람의 완고하고 모진 것이 과연 여기까지 이를 수 있겠사옵니까? 어찌 과연 여기까지 이를 수 있겠사옵니까? 신이 만약에 오늘의 은총에 스스로 행복해 하면서 옛날에 저지른 죄과를 생각지 않고 태연하게 나아가 득의만만해 한다면 이것은 하늘에 계시는 선왕의 영혼을 더 이상 돌아보지 않는 처사이니 신이 어찌 차마 이러한 것을 행할 수 있겠사옵니까? 재주와 명망의 어울리지 않음과 사양과 겸손의 겉치레 말과 질병의 치료하기 어려움과 딱하고 절박한 진실된 사정과 해마다 있어온 사직함과 관리로서의 큰 법도 등에 대하여 신이 하나하나 거론하지 않더라도 다만 도의상 결코 외람되게 나아갈 수가 없사옵니다。

이에 눈물을 흘리며 아뢰옵나니 한 마디의 말이라도 전하의 가납하심을 받아 조정의 대직(大職)이 오랫동안 비어있지 않게 되고 미천한 신이 고집부리는 것을 면하게 되기를 바라옵니다。 엎드려 청하옵건대、천지의 부모되시는 성상(聖上)께오서 자세하게 굽어 살피시어 신에게 새로 제수하신 직책을 속히 경질하도록 윤허해 주시고 아울러 해당 관청에 명하시어 신이 계속해서 저지른 불충과 무능의 죄를 처리하여 신료들로 하여금 경계할 줄을 알게 하고 조정의 기강이 엄숙함을 떨칠 수 있게 하는 것도 또한 마땅히 새로운 교화에 하나의 보탬이 될 것이오니 신은 그렇게만 된다면 더 이상 바랄 게 없겠사옵니다。

신은 천운(天雲)을 우러러 바라보며 울면서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을 가눌 길이 없사옵니다。

비답 왈:상소문을 살펴보고 경의 간절함을 잘 알았노라。 경의 재주와 덕망이 진실로 보필하기에 합당하다는 것에 나의 뜻은 이미 결정되었고 공의(公議)도 일치되었으니 사직함으로써 지극한 뜻을 저버릴 필요가 있겠는가? 경은 안심하여 사양하지 말고 급히 길에 올라 조야(朝野)의 여망에 부응하라。 사관(史官) 장두주(張斗周)가 와서 고하다。

註:1。의금부(義禁府)의 별칭
2。임금의 서신(書信)

以未赴 陵幸輦路引罪仍申懇三疏 壬寅
이미부 능행련로인죄잉신간삼소

伏以臣伏聞我 聖上祇謁 園陵 王世弟邸下陪駕而行瞻聆所及 悲喜并至而伏惟 兩宮孝思履玆雨露哀慕如新伏不勝區區戀結之 至臣於此時不得進伏路左以承屬車之後塵者蓋綠職名縻身實有必 不可進之義而自朝家言之則身帶職名而息偃於 君上動駕之日此 爲必不可赦之罪惟竢執法之臣有所勘正而已仍伏念臣之情實已悉 於前後疏啓席藁竢命今已易月而尚未有處分目今朝著草刱不成 貌樣而政府論道之地乃爲一虛窠又聞 春宮會講之禮以臣在外至 有頓稟之擧云此雖非臣自作之罪惶懼危蹙直欲無生臣之不可冒出 之勢誠難摟指而數只以其體言之不伏於 先朝而仕於今日一不可 屛退於服政之歲而復進於年至之後二不可前以金吾之陞秩而嫌而 不居竟孤 恩旨後以大匡之極品而偃然自當致汚新化三不可苟或 於此三不可而有一段可解之說則微臣執迷之性當伏違 命之誅如其不然則其在 聖上體下之仁朝家勵廉之道亦宜不枉其性傳得以 自守其一節如此撕捱以閱時日使 威命損辱而重傷於國體重任久 曠而致誤於庶事則雖萬戮臣身亦何所益哉伏乞 聖明俯賜該察亟 許改正臣職秩以幸公私不勝大望臣於垂死之年荐罹慘憾疾病奄奄命迫朝暮自惟此生將無以仰答 恩遇則惟有結草於他辰以爲報效 之圖而已言之至此不覺感淚之盈襟也臣無任瞻望雲天橫手祈祝之至

答曰省疏具悉卿懇前後之批已悉予意叟何多誥卿其須體前後之旨 安心勿辭幡然就途用副予思想之心

史官李泰元來宣

능행하시는 길에 나아가지 못한 것을 스스로 사죄하며 아울러 간청하는 세 번째 상소 임인년

엎드려 아뢰옵건대, 신이 삼가 듣자오니 우리 성상(聖上)께오서 원릉(園陵)에 배알하실 적에 왕세자 저하(邸下)께서도 함께 배행(陪行)하셨다 하오니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음에 슬픔과 기쁨이 함께 찾아옵니다.

엎드려 생각건대, 전하와 저하께오서 효성스런 마음으로 이러한 우로(雨露)를 무릅쓰고 행차하시어 마치 갓 상을 당한 것처럼 애도하시오니 그 진실로 연모하는 지극한 마음을 삼가 가눌 길이 없사옵니다. 신이 이러한 때에 행차하시는 길옆에 나아가 엎드려 속거(屬車)1의 뒤를 따르지 못하였던 것은 대개 신에게 내리신 직명에 진실로 반드시 나

아갈 수 없는 뜻이 있었기 때문이었사오나 조정의 입장에서 말한다면 직책에 몸담고 있으면서 군상(君上)께서 행차하시는 날에 편안히 쉬고만 있은 것이 되므로 이것은 결코 용서받지 못할 죄가 되옵니다。이에 오직 법을 집행하는 신하가 그 죄를 취조하여 바로 잡아 줄 것을 기다리고 있을 뿐이옵니다。또한 엎드려 생각건대 신의 사정은 이미 계속해서 올린 상소문에서 자세히 아뢰었으므로 거적을 깔고 엎드려 어명을 기다렸사오나 지금 이미 달이 바뀌었는데도 아직 처분 받지 못하였으며 지금 조정이 새로 시작되어 제대로 모양을 갖추지도 않았는데 정부의 도(道)를 논하는 자리가 여전히 줄곧 비어 있사옵니다。또한 듣건대 춘궁(春宮)에서 회강(會講)2하는 예에 있어 신이 외지에 있으면서 책임을 면했다는 논의가 있었다고 하는데 이것은 비록 신이 스스로 저지른 죄는 아니오나 당황과 두려움에 위축되어 다만 살고 싶지 않을 뿐이옵니다。신이 외람되게 나설 수 없는 형세는 진실로 손가락을 꼽아 헤아리기가 어려울 정도이나 다만 그 대강을 들어 말씀드리고자 하옵니다。선조(先朝)에서는 벼슬하지 않다가 금일에 벼슬한다는 것이 그 첫째 불가함이오며、정사에 복무했어야 할 때에는 물러가 거하였다가 세월이 흐른 뒤에 다시 나아간다는 것이 그 둘째 불가함이오며、전에 금오(金吾)에 승진되었을 때는 사양하고 처하지 않음으로써 은지(恩旨)를 결국 저버렸었는데 나중에 이제와서 대광(大匡)3의 지극한 품계라고 해서 편안히 스스로 감당함으로써 새로운 교화에 누를 끼친다는 것이 그 셋째 불가함이옵니다。만일에 혹 이 세 가지 불가함에 대하여 한 가지만이라도 가히 해명할 수 있는 말이 있다면 미천한 신의 완고한 성질일지라도 어명을 어긴 것에 대한 주벌을 마땅히 기꺼이 받을 것이옵니다。그러나 만일에 그렇지 않다면、아랫사람을 긍휼히 여기시는 성상(聖上)의 어지심과 염의(廉義)를 장려하는 조정의 도리에 있어서 또한 마땅히 그 품성을 굽혀서는 안 되며 스스로 하나의 절조를 지킬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하옵니다。이렇게 고집을 부림으로써 시일을 보내면서 위명(威命)을 실추시키고 국체(國體)를 거듭 손상시키며 중요한 임무를 오랫동안 태만히 하여 모든 일이 그르치게 된다면 비록 신의 몸을 만 번 죽인다 한들 무슨 보탬이 되겠사옵니까? 엎드려 청하옵건대、성명(聖明)께오서 굽어 살피시어 신의 직책을 경질하도록 속히 윤허해 주심으로써 공사(公私)를 편안케 하신다면 더 이상 바랄 게 없겠사옵니다。신은 죽을 날이 가까워진 나이에 참담한 근심에 젖어 있으며 질병이 위중하여 아침저녁으로 명을 재촉하고 있사옵니다。이에 스스로 생각함에 이승에서는 장차 은우(恩遇)에 우러러 보답하지 못할 것 같아서 오직 저승에서 결초(結草)하여 보답하려고 생각하고 있을 뿐이옵니다。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나니 나도 모르게 느꺼워 흐르는 눈물이 옷깃을 적시옵니다。신은 천운(天雲)을 우러러 바라보며 손 모아 기도드리는 마음을 가눌 길이 없사옵니다。

비답 왈：상소문을 살펴보고 경의 간절함을 잘 알았노라。계속해서 내린 비답에서 이미 나의 생각을 다 말하였으니 다시 무슨 말을 더하겠는가? 경은 모름지기 전후

의 뜻을 잘 이해하고 안심하여 사양하지 말고 급히 길에 올라 내가 보고 싶어 하는 마음에 부응하도록 하라。[사관 이태원(李泰元)이 와서 고하다。]

註 : 1。임금이 행차할 때 뒤따르면서 시종하는 수레、부차(副車)라고도함
2。한 달에 두 차례씩 왕세자(王世子)가 사부(師傅) 이하의 여러 관리를 모으고 경사(經史)와 그 밖의 모든 진강(進講)에 대하여 복습하던 일
3。정일품(正一品)의 종친(宗親)、의빈(儀賓)、문무관(文武官)의벼슬

進到振威縣以未赴

진도 진위현이미부

國祥引罪仍申懇五疏 未承批

국양인죄잉신간오소

伏以日月流邁奄息之頃我 先大王祥制已畢伏惟殿下孝思廓然 追慕罔極伏不勝區區戀結之至仍伏念臣曾在 先朝未赴 恩召數 十餘年乃於今日以議政官銜偃然冒赴於陪祭之班萬萬非私義之所 敢出而區區犬馬之心猶欲稍近京輦以伸終天之慟兼暴傾陽之忱而老疾奄奄力不從心發行之日纔到數十餘里之地喘息垂絶決無前進之望僅僅拽至振威邑底釋襄於客舘之外從今以後顧念臣子之義無 可雯伸之地非但臣瞻望號慟朮死不得論其罪戾萬戮尚有餘辜國家 三尺之律亦豈得以終舍臣哉伏乞 聖上天地父母察臣事狀哀臣情 理特賜鐫削臣所被資級則雖執法之臣以鈇鉞議其後臣固甘心受罪 無復遺憾臣無任哀隕宸慄席藁竢罪之至

나아가 진위현에 이르러 나라의 대상(大祥)에 나아가지 못한 것을 스스로 사죄하며 아울러 간청하는 다섯 번째 상소。비답을 받지 못함

엎드려 아뢰옵건대、세월이 빨리 흘러가 순식간에 우리 선대왕의 상제(祥制)1가 이미 끝났사옵니다。전하의 넓으신 효성과 끝없는 추모의 정을 엎드려 생각해보니 구구한 연모의 지극한 마음을 삼가 이기지 못하겠사옵니다。또한 엎드려 생각건대、신이 일찍이 선조(先朝)에 있을 때 은총어린 소명(召命)에 나아가지 못한 지가 수십여 년이나 되었는데 금일에 이르러 의정(議政)의 직함을 지니고 태연하게 제사를 수행하는 대열에 외람되게 나아간다는 것은 개인적인 도의상 결단코 감히 행할 수 없는 바이옵니다。그러나 견마(犬馬)와 같은 신의 구구한 마음에 오히려 잠시나마 대궐에 가까이 가서 끝없는 극심한 통한을 펴고 아울러 미미한 충정이나마 아뢰려고 했었사옵니다만 오랜 질병이 위중하여 힘이 마음을 따르지 못함으로 인해 겨우 수십여 리쯤 가자 기침으로 숨이 끊어질 듯하여 결코 더 이상 전진할 가망이 없었사옵니다。겨우 몸을 이끌고 진위읍(振威邑)에 이르러 객사 밖에 여장을 풀었사옵니다。지금 이후의 일을 생각해

보니 신하의 도의를 다시 펼칠 여지가 없을 것 같사옵니다。신이 우러러 바라보며 통곡하더라도 죽음을 면치 못할 뿐만 아니라 그 죄과를 논함에 만 번 죽더라도 여전히 남은 허물이 있을 것이옵니다。또한 나라의 법률도 어찌 끝내 신을 놓아주겠사옵니까? 엎드려 청하옵건대 천지의 부모되시는 성상(聖上)께오서 신의 사정을 살피시고 신의 마음 씀을 딱하게 여기시어 신이 받은 관급(官級)을 특별히 삭탈해 주신다면 비록 법을 집행하는 신하가 엄한 형벌로 그 뒷일을 논의한다 하더라도 신은 진실로 기꺼운 마음으로 죄를 받고 더 이상 유감이 없을 것이옵니다。신은 슬픔과 두려움에 떨며 거적을 깔고 엎드려 죄를 기다리는 마음을 가눌 길이 없사옵니다。

註：1。장례 치른 뒤 두 돌 만에 드리는 제사

以未赴 國禫引罪仍申懇七疏

이미부 국담인죄잉신간칠소

伏以臣不忠無狀 先大王禫事旣終祔禮順成而俱不得一進京輦以 伸餘哀兼致慶忭之誠臣之罪負 先朝到此而叟無餘地至於近日逆獄自有天地君臣以來所未有之凶變而臣初旣不得奔問終又未叅賀 班歷覽前古爲人臣子未有如此分義道理雖緣職名在身不敢冒進之 致而論以邦憲豈可使之偃息田間晏然自如哉伏乞 聖明亟付攸司 明其罪狀以勵他人焉臣旣竢罪則不宜叟有控免而伏見日昨 恩批 乃以幡然造朝用副企望爲敎臣之情狀似若未蒙 鑑獨玆敢冒死而 畢暴焉臣之不可冒進前後三疏旣已槩陳則今不敢叟煩縷絮以涵萬 幾之聽惟願 聖明下詢朝廷使之就臣疏辭評其情法若以爲可仕不 仕自作違慢之罪則臣當就伏金吾以竢顯戮如以爲有一分可恕之端則亦宜從其所願俾得自全其微志撕捱已閱年時相職久作虛窠其在朝家事體亦不宜如是因循也仍伏念臣年已望八疾病危痼而慘慽相 仍生意日蹙追念先朝曾以國有天事一不上來明臣之罪仍有枚卜寒心之 敎今臣負犯終始又復如右而死亡之勢其期已迫若或未及 遞解而一息奄忽則其何敢以議政官銜歸拜於 先王陟降之庭哉怵 然驚懼情日益急玆敢忘其猥越言不知裁如此罪尤萬死臣無任瞻天 仰聖涕泣懇禱之至

答曰省疏具悉卿懇卿之遜讓之章今已累度矣誠意未孚缺然思想須 體予意勿以情勢爲辭須速登途以副虛仰之望 史官權熲來宣

나라의 담제(禫祭)에 나아가지 못한 것을 스스로 사죄하며 아울러 간청하는 일곱 번째 상소

엎드려 아뢰옵건대, 신은 불충하고 무능하여 선대왕의 담제(禫祭)1가 이미 끝나고 부제(祔祭)2도 순조롭게 이루어졌는데도 한 번도 대궐에 나아가 남은 슬픔을 드리고 아울러 즐겁고 기뻐하는 정성을 바치지 못하였사옵니다。신이 선조(先朝)에 저지른 죄가 여기에 이르러 더 이상 남은 것이 없게 되었사옵니다。근자에 송사를 역행하는 것은 천지에 임금과 신하가 생겨난 이래로 일찍이 없었던 예외이옵니다。신은 처음에 이미 급히 나아가 문안드리지 못하였고 나중에도 하례 드리는 대열에 참석치 못하였사오니 전고(前古)를 차례로 살펴봄에 신하된 자로서 일찍이 이와 같음은 없었사옵니다。분수와 도리에 있어 비록 감히 외람되이 나아갈 수 없는 직명이 몸에 있었기 때문이었사오나 국법으로 논한다면 어찌 시골에 누워 쉬면서 편안히 태연해 할 수 있겠사옵니까? 엎드려 청하옵건대 성명(聖明)께오서 속히 해당관청에 명하시어 그 죄상을 밝히심으로써 다른 사람을 면려케 해주시옵소서。신은 이미 죄를 기다리고 있는 처지이므로 더 이상 면직을 청하는 것이 마땅치 않사오나 급히 조정에 나아와서 여망에 부응하라는 교지가 담긴 은혜로운 비답을 며칠 전에 받아보니 신의 사정이 아마도 전하의 통촉을 아직 받지 못한 것 같으므로 이에 감히 죽음을 무릅쓰고 모든 것을 아뢰옵나이다。신이 외람되이 나아갈 수 없는 정황은 전후 세 번의 상소문에서 이미 그 대강을 개진하였으므로 지금 감히 다시 번거롭게 자세히 아룀으로써 천하의 대정(大政)을 들으시는 전하의 귀를 어지럽게 하지 못하겠사옵니다。오직 원하옵건대 성명(聖明)께오서 조정에 자문하시어 신의 상소문에 대하여 그 진정 여부를 평가하게 하신 후에 만약에 벼슬할 수 있는데도 벼슬하지 않음으로써 스스로 어명을 어기는 죄를 저질렀다고 여기신다면 신은 마땅히 금오(金吾)3에 나아가 엎드려 죽음을 기다릴 것이오나 만일에 조금이라도 가히 용서할 만한 실마리가 있다고 여기신다면 또한 마땅히 신이 원하는 바에 따라 스스로 그 미천한 뜻이나마 온전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고집스런 주장을 내세워 이미 시일이 많이 흐르도록 재상의 직책이 오랫동안 비어 있사오니 조정의 일처리가 이와 같이 인습적이어서는 마땅치가 않사옵니다。또한 엎드려 생각건대, 신의 나이는 이미 팔십을 바라보고 질병이 위중하여 슬픔과 근심이 여전하고 생각이 날로 위축되고 있사옵니다。선조(先祖)를 돌이켜 생각해보니 일찍이 나라에 대사(大事)가 있었는데도 한 번도 올라가지 못하여 신의 죄를 밝힘에 있어 질책하고 두려움에 떨게 하는 교지가 있었사옵니다。지금 신이 저지른 죄과의 본 말이 또한 위와 같고 병들어 죽게 될 형편에 그 기일이 이미 촉박하니 만약에 혹 신의 직책이 경질되거나 해임되기 전에 한 순간에 갑자기 죽기라도 한다면 어찌 감히 의정(議政)의 직함을 지닌 채 선왕께서 오르내리시는 뜨락으로 함께 돌아갈 수 있겠사옵니까? 놀라움과 두려움에 마음이 날로 더

욱 다급해지옵니다。이에 감히 외람되고 번잡함을 잊은 채 절제치 못하고 아뢴 말이 이와 같으니 그 죄 더욱 만 번 죽어 마땅하옵니다。신은 하늘을 바라보고 성상을 우러르며 눈물 흘리면서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을 가눌 길이 없사옵니다。

비답 왈：상소문을 살펴보고 경의 간절함을 잘 알았노라。경의 겸손하고 사양하는 소장(疏章)이 지금까지 이미 여러 번 있었는데 나의 진정이 미덥지 못하여 서운한 생각이 들도다。모름지기 나의 뜻을 이해하여 사정을 이유로 사양하지 말고 모름지기 속히 길에 올라 오랫동안 기다리는 여망에 부응하라。(사관이 와서 권경이 고하다)

註：1。대상(大祥)을 지낸 두 달 뒤에 지내는 제사
2。삼년상(三年喪)을 마친 뒤에 그 신주(神主)를 조상(祖上)의 신주 곁에 모실 때 지내는 제사
3。의금부(義禁府)

辭薦人之命仍申懇九疏　癸卯

사천인지명잉신간구소

伏以歲籥載變三陽回泰仰惟我　聖上履茲新正丕膺天休德業日新　福祿川至凡在含生孰不抃躍況又伏覩歲初備忘十行絲綸無非奮發　振勵之　旨雖田野間老癃跛蹩皆願少須曳無死以見德化之盛若能　擴充此心加之以不息之功庶幾做成可久可大之業太平萬世之會實　在於此賤臣區區之誠伏不勝瞻望攢祝之至仍伏念臣冒塵非分歲已　三易自逢新年益覺心驚而骨悸不知措身之所前冬一疏未得承　批　連章瀆擾雖涉惶恐重任久曠爲罪日深茲不得不復此哀籲臣不仕之　義前後累疏肝血已罄仰惟　聖明亦已下燭今不敢叟爲疊床之說而　猶有一段未暴之情茲敢忘其猥越乃復畢其說焉念昔臣庚辰下鄉之　初仰陳一疏只是循例辭職而伏奉　先大王批旨乃以因一浴温之行俾作恬退之士爲教當時此教雖非出於嘉奬而二字命名寔非偶然似　己　俯燭臣所操之本未從後十數年之間則亦不復以要官劇地處臣　只以散局兼銜俾得優避於田里　天地生成之澤非臣糜粉所能仰酬　只得奉此　恩批終身誦之以無負當日則哲之明而己用是枯槁窮山　數十餘年而無悔至于今日適值世運之一大變目見滔天之禍起於患　失之輩而忍復歆動於勢利之榮進居於匪據之地盡棄平昔之所操判作前後之二人則未知　聖朝將焉用此等人物而臣亦何所執守可以　自立於世而有辭於後哉飛潛動植各一其性而咸囿於化育之中不相　大閼此天道之所以爲大伏惟　聖上以天爲則無物不遂目令朝著之　上

羣彦彙集皆思自勵以補治化有欲猷爲固將惟 殿下之所使豈惜舍此無用之一物使得自保其終始而必令強策垂死之喘歸之於喪性 失所之地哉艱虞溢目事變多端而廟堂訏謨之地久作虛窠 春宮會 講之禮軍門殿最之坐亦皆緣臣而經年未擧國體苟艱寧有是耶 殿 下則方且以禮優容威命不加大臣則亦復拘於小嫌莫有陳白遂令宰 輔重任三年曠職若使每事如此則臣恐 殿下國事日趨於委靡叢脞終無以獲遂向日求治之盛意臣竊憫焉臣老病奄奄雖不敢自期於朝 暮若或一息未泯冀延一兩年得見 聖化旁達朝野平寧則臣當長爲 華封祝聖之人萬一邊隅不靖國有緩急則臣亦不當作全軀保妻子之 臣而至於官職自分虞人之死斷無冒受之理伏乞 聖明深加諒察治臣違忤 君命之罪將臣本兼三任并賜改正而仍復改卜賢德使盡彌 綸輔相之責則非但私分得安國事寔爲萬幸封疏將上之際伏聞朝家 有薦人之令臣以無似亦與薦主之選而顧其名在三公之列有不敢偃 然承當者且臣藻鑑本不足以知人而數十年蟄伏窮谷不與人接聞見 之所及不出於庭戶之間其何能博訪周知可以裨 聖朝之所需哉臣 身承 兩朝恩造而旣不得陳力就列以效綠毫之補今當急才之辰又 不能擧爾所知得備管蘭之用環顧前後死有餘責臣無任惶蹙祈懇之至

答曰省疏具悉卿懇卿之恬退倏已歲累易矣缺然思想恒切于中矣巽 讓之章老而罙篤誠意之未孚胡至此極須念國事安心就途用副如渴之望

承旨李眞儒來宣

사람을 천거하랍시는 어명을 사양하며 아울러 간청하는 아홉 번째 상소 계묘년

엎드려 아뢰옵건대, 세월이 말없이 변하여 세 번의 해가 바뀌었사옵니다。우러러 생각해 보건대, 우리 성상(聖上)께오서 이러한 새롭고 올바른 정사를 행하시고 하늘의 이치를 크게 본받으시어 덕업(德業)이 날로 새로워지고 복록(福祿)이 냇물처럼 흐르니 무릇 생명을 간직한 것 중에 그 무엇인들 손뼉치고 뛰면서 기뻐하지 않겠사옵니까? 하물며 또한 연초(年初)의 비망(備忘)을 삼가 보았사온데 열 줄의 전하의 말씀이 백성들을 분발케 하고 진작케 하는 뜻이이 아닌 것이 없사온지라 비록 시골의 늙은이나 불구자라 할지라도 모두 죽지 않고 조금이나마 더 오래 살아 덕화(德化)의 융성함을 보고자 원하고 있사오니 만약에 능히 이러한 마음을 확충하고 쉬지 않는 노력을 더한다면 아마도 가히 오래가고도 위대한 공업을 이룰 수 있을 것이옵니다。만

세토록 태평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진실로 여기에 있사옵니다。이에 미천한 신의 구구한 정성에 우러러 바라보며 손모아 기도하는 마음을 삼가 가눌 길이 없사옵니다。또한 엎드려 생각건대、신이 외람되이 분수를 모르고 지낸지 세월이 이미 세 번이나 바뀌었사온데 스스로 새로운 시대를 만나고 보니 더욱 마음이 놀래고 몸이 떨려 삼가 몸 둘 바를 모르겠사옵니다。지난 겨울에 올린 하나의 상소에 대하여 아직 비답을 받지 못하였사오며 계속 올린 소장(疏章)이 전하를 번거롭게 하여 비록 황공하기 짝이 없사오나 막중한 임무를 오랫동안 비워두어 그 죄가 날로 심해지고 있사옵니다。이에 부득이 다시 이러한 호소를 하옵니다。신이 벼슬할 수 없는 뜻을 전후에 누차 개진하면서 진정을 이미 다 털어 놓았으므로、우러러 생각건대 성명(聖明)께서도 이미 잘 알고 계실 것이온지라 이제 감히 다시 중복된 말씀을 드리지는 못하겠사오나 아직 아뢰지 못한 일단의 사정이 있는지라 이에 감히 외람되고 번거로움을 잊은 채 다시 그 말씀을 끝내려고 하옵니다。생각건대 옛날 신이 경진년(庚辰年)에 하향한 초기에 우러러 진언한 하나의 상소는 단지 상례(常例)에 따라 사직한 것이었사온데 한 번 온천에 목욕하러 간다 해놓고 곧장 한가로이 은거하는 선비(恬退之士)가 되었다는 내용의 선대왕(先大王)의 비지(批旨)를 받았사옵니다。당시의 이러한 교지는 비록 가상히 여겨 장려하신 것은 아니었사오나 염퇴(恬退)라고 명명하신 두 글자는 진실로 우연이 아니었사오니 아마도 신이 지키고 있던 바의 본말을 이미 굽어 살펴 알고 계셨던 것 같사옵니다。그 후로 십 수 년 동안은 또한 더 이상 중요한 관직과 직위에 신을 임명하지 않으시고 다만 산국(散局)의 겸직만을 지닌 채 시골마을에서 편하게 노닐 수 있게 해주셨사오니、천지간에서 나고 자라게 하신 은택은 신의 몸이 가루가 된다 하더라도 우러러 갚을 수가 없었사온지라 다만 이러한 은혜로운 비답을 받들고서 종신토록 암송하면서 당시에 누를 끼침이 없고자 하였사오니 명철하신 처사이었사옵니다。그래서 수십여 년 동안 고고(枯槁)한 산골짜기에 살면서도 후회함이 없었사옵니다。금일에 이르러 세운(世運)이 일대 변화하는 때를 만나 하늘을 뒤덮을 만한 커다란 재화(災禍)가 관직을 잃는 것을 걱정하는 무리에게서 비롯되는 것을 눈으로 보고 나니 다시 권세와 이록의 영화로움을 부러워하여 크게 비호 받는 자리에 나아가 거하면서 지난 날 평소에 지키던 바를 모두 버리고 앞뒤로 판이하게 다른 두 사람이 되어 버린다면 성조(聖朝)에서 장차 이러한 인물을 어디에다 쓸 것이며 그리고 신 또한 어떠한 절조(節操)를 지니고 스스로 세상에 서서 후세에 말을 남기게 될는지 모르겠사옵니다。날짐승과 물고기 그리고 동식물은 제각기 자기의 품성을 지닌 채 모두 자연의 화육(化育)을 받으면서 서로 크게 방해가 되지 않는 법이 오니 이것이 바로 천도(天道)가 위대하다는 이유이옵니다。엎드려 생각건대 성상(聖上)께오서 하늘을 법칙으로 삼으시니 따르지 않는 만물이 없을 것이옵니다。지금 조정에 여러 선비들이 모여들어 모두 스스로 힘써 정치교화를 보필하고 큰일을 도모하려고 생각하고 있사오니 진실로 장차 전하께오서 부리시는 사람

중에서 어찌 신처럼 무능한 한 인물을 내버려 두어 스스로 그 본말을 지키게 하는 것에 인색하시고 죽을 날이 멀지 않은 목숨에 기필코 억지로 채찍질하게 하여 본성과 제자리를 잃어버리는 지경에 이르게 하실 필요가 있겠사옵니까? 근심과 걱정이 눈에 가득하고 일의 변고가 여러 가지이온데도 묘당(廟堂)이 큰 계책을 세우는 자리가 오랫동안 비어 있사오며, 춘궁(春宮)의 회강(會講)하는 예(禮)와 군문(軍門)의 전최(殿最)하는 자리도 또한 모두 신 때문에 해가 지나도록 거용하지 못하고 있사오니 나라의 형편이 구차하고 어려움이 어찌 이와 같을 수 있겠사옵니까? 그런데도 전하께오서는 바야흐로 또한 예(禮)로써 크게 포용하시고 엄한 명을 내리지 않으시니 대신들도 또한 다시 사소한 혐의에 구속되어 진언하지 않음으로써 마침내 재보(宰輔)의 중임을 삼년씩이나 비워 두게 되었사옵니다。만약에 매사가 이와 같다면 신은 전하의 국사가 날로 쇠미해지고 보잘 것 없게 되어 결국에는 선치(善治)를 구하시던 전날의 큰 뜻을 이루지 못하실까봐 걱정이옵니다。이에 신은 마음속으로 송구스럽기 짝이 없사옵니다。신은 늙고 병들어 쇠약해져서 비록 감히 스스로 아침과 저녁을 기약하지는 못하오나、만약에 혹 목숨이 끊어지지 않고 다시 일 이년을 더 살게 되어 성화(聖化)가 널리 펴져 조야(朝野)가 평강해지는 것을 볼 수 있다면 신은 마땅히 길이 성은으로 사면을 받은 사람이 될 것이옵니다。그러나 만에 하나 변경이 평안하지 못하여 나라에 위급함이 있게 된다면 신은 또한 마땅히 자기 몸만 온전히 하여 처자를 보호하는 신하가 되어서는 아니 될 것이옵니다。이에 관직에 대하여 스스로 제(齊)나라 우인(虞人)의 죽음을 헤아려 보니 외람되이 받아들일 이치가 전연 없사옵니다。엎드려 청하옵건대、성명(聖明)께오서 깊이 굽어 살피시어 신이 군명(君命)을 어긴 죄를 다스리시고 신의 본직과 세 개의 겸직을 아울러 경질하시고 또한 현덕(賢德)한 자를 다시 선발하여 재상의 책무를 완전히 이어가도록 하신다면 다만 사사로운 분수가 편안함을 얻을 뿐만 아니라 국사 또한 진실로 천만다행이 될 것이옵니다。상소문을 봉하여 장차 올리려 할 때에 사람을 천거하는 직책에 임명하였다는 조정의 명을 삼가 들었사온데 신은 무능한 몸으로 또 한 천주(薦主)의 선발에 끼게 되었사오니 그 직명을 돌아봄에 삼공(三公)의 반열에 있는지라 감히 편안한 마음으로 받들어 감당할 수가 없사옵니다。또한 신의 감식력은 본래 사람을 아는데 부족하오며 수십 년 동안 궁벽한 골짜기에 칩거하면서 사람들과 접촉하지 못하였으므로 보고 들은 바의 범위가 집안에서 벗어나지 못하였사오니 그 어찌 능히 널리 묻고 두루 알아 성조(聖朝)의 필요한 바에 기여할 수 있겠사옵니까? 신의 몸은 두 조정의 은총을 받았사오나 이미 힘을 다하여 관리의 대열에 나아가 터럭만큼의 보탬도 드리지 못하였사오며 지금 인재가 급한 때를 당해서도 또한 신이 알고 있는 바를 천거하여 조금이나마 필요에 부응하지도 못하였사오니 전후를 돌아봄에 죽더라도 남은 질책이 있을 것이옵니다。신은 두려움에 떨며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을 가눌 길이 없사옵니다。

비답 왈: 상소문을 살펴보고 경의 간절함을 잘 알았노

라。경이 물러나 은거하면서 수양한 지가 이미 몇 해가 바뀌었는지라 서운해 하면서 보고 싶은 마음이 항상 마음속에 절실하였노라。사양하고 겸퇴하는 소장(疏章)이 갈수록 정도가 심해지니 나의 진정한 뜻이 미덥지 못함이 어찌 여기에까지 이를 수 있겠는가? 모름지기 국사를 생각하여 안심하고 길에 올라 목마르듯이 기다리는 여망에 부응하라。[승지(承旨) 이진유(李眞儒)가 와서 고하다。]

以 北陵有災不得奔慰引罪仍申懇十疏

이 북릉유재부득분위인죄잉신간십소

伏以伏聞北路 先陵有災擧國震驚而自 上有素服避殿之擧其在 臣子分義宜即趨走以伸問慰之誠而臣以職秩之尙在不敢爲離身一 步計虧闕情禮惶恐竢罪仍伏念臣之違傲明命寔緣屛退於 先朝不 忍冒進於今日則求諸事理無以易此其不爲虛辭飾讓之狀仰惟 聖 明必爲下燭而臣於日昨疏啓又以虞人之死待戮金吾等語仰達則匹夫難奪之志亦且得徹於葬纊之下矣仄聽逾旬尙此未蒙處分臣自先朝至今日負罪違慢至於二十五年則緩死亦已久矣豈敢望復蒙寬 典如前日之爲哉臣一番違 命罪戾輒加一層而朝家威命亦隨而損 却一層是豈臣一死所可能贖臣

旣累疏煩瀆意已窮矣辭已竭矣卽今 道理惟有囚服就途進伏 嚴誅或循墻而走自竄荒裔兩件事而臣於四五年間連失兩子四孫叫號求死作一喪性之人廢寢與食惟俟溘然 之期仍以眞元耗盡四肢委綴叟無作氣運動之勢只得席藁私室以俟 嚴命伏乞 聖明俯加矜憐付之攸司速賜勘處則死日生年豈勝幸甚 臣無任危慮震恐之至

答曰省疏具悉卿懇卿以世祿之臣連聯 免若是其太過乎須體如渴 之意安心勿待罪幡然造朝臥閤論道用副日夕思想之心 史官張斗周來宣

북릉에 재화가 있었는데도 급히 나아가 위로하지 못한 것을 스스로 사죄하며 아울러 간청하는 열 번째 상소

엎드려 아뢰옵건대、삼가 듣자오니 북로(北路)의 선릉(先陵)에 재난이 있어 온 나라가 놀라움에 떨며 주상께오서 소복을 입고 대전을 피하셨다고 하니 신하된 도의에 있어 마땅히 곧장 급히 달려가 문안과 위로의 정성을 드렸어야 하오나 신은 직명이 아직도 그대로 있기 때문에 감히 한 걸음이라도 몸을 움직일 생각을 못함으로써 도리와 예의에 크게 어긋났사오니 두려움에 떨며 죄를 기다리고 있사옵니다。또한 엎드려 생각건대、신이 전하의 명명(明命)을 어

긴 것은 진실로 선조(先朝)에서는 물러나 거하였다가 지금에 와서 외람되이 나아간다는 것은 차마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오니 일의 이치를 따져 본다 하더라도 이것을 바꾸지는 못할 것이옵니다。또한 겉치레 말로 사양하는 것이 아닌 실상을 성명(聖明)께오서 틀림없이 잘 알고 계시리라 사료되옵니다。신은 며칠 전에 올린 상소문에서 또한 우인(虞人)처럼 죽을 각오로 금오(金吾)에서 주벌을 기다린다는 등의 말씀을 우러러 아뢰었사오니 필부(匹夫)의 빼앗기 어려운 뜻이 또한 어전에서 관찰될 수 있기를 십여 일 동안 귀 기울이고 기다렸사오나 아직까지 삼가 처분을 받지 못하였사옵니다。신이 선조(先朝)로 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어명을 어겨 죄를 저지른 지가 이십오 년이나 되오니 죽음을 늦춘 지가 또한 이미 오래되었사옵니다。그러니 어찌 감히 지난날과 같은 너그러운 은전(恩典)을 다시 받기를 바라겠사옵니까? 신이 한 번 명을 어길 때마다 그 죄가 곧한 층씩 더해 가는데 반해 조정의 위명(威命)은 이에 따라 한 층씩 물러나니 이 어찌 신이 한 번 죽음으로써 능히 속죄할 수 있는 바 이겠사옵니까? 신은 이미 번거롭게 누차 상소를 올림에 뜻이 이미 바닥이 났고 말이 이미 고갈되었사옵니다。금일의 도리 상으로는 오직 죄수로서 길에 올라 나아가 엄벌을 받던지 아니면 담장을 뛰어 넘어 도망가 스스로 황량한 골짜기에 숨던지 이 두 가지의 일밖에는 다른 길이 없사옵니다。신은 사오 년 새에 두 아들과 네 명의 손자를 거듭 잃음에 울부짖으며 죽기를 청하면서 실성한 사람처럼 되어 침식을 전폐하고 있사오니 오직 죽을 날만을 기다릴 뿐이옵니다。또한 원기가 탈진하고 사지가 쇠약해져서 더 이상 기운을 내어 움직일 형세가 못되온지라 다만 사저에서 거적을 깔고 엎드려 엄명을 기다릴 뿐이옵니다。엎드려 청하옵건대 성명(聖明)께오서 긍휼히 굽어 살피시어 해당 관청에 신을 회부하여 속히 처분을 내려주신다면 사는 날이나 죽는 날이나 정말 다행스러움이 될 것이옵니다。신은 근심하며 두려움에 떠는 지극한 마음을 가눌 길이 없사옵니다。

비답 왈 : 상소문을 살펴보고 경의 간절함을 잘 알았노라。경은 대대로 녹을 먹는 신하로서 계속해서 면직을 청함이 이와 같으니 너무 지나치구나! 모름지기 목 타게 기다리는 나의 뜻을 이해하여 안심하고 죄를 기다릴 필요도 없이 곧장 급히 조정에 나아와 합실(閤室)에 누워도를 논함으로써 밤낮으로 보고 싶어 하는 나의 마음에 부응하도록 하라。[사관 장두주(張斗周)가 와서 고하다。]

辭領議政仍以未赴 上候平復賀班引罪疏

사영의정잉이미부 상후평복하반인죄소

伏以臣不忠無狀言不見信於君父終至偃臥田廬賭取上相之榮臣誠駴惶震悚罔知置身之所使臣敢萌一毫冒進之意則 先朝二十年屛 逋近來十六疏撕捱都是成就得索價要恩四字苟有一分人心則其不 敢強顔於此決矣 日月之明亦必下燭而不賜矜諒至此

臣安得無憾　於　天地之大也臣疾病昏沉不得爲枝辭蔓語以存辭遜之例而事勢　至此其在朝家事體亦不容但已若其叅商情窠以禮進退臣不敢復望　於聖明矣惟願殿下分付攸司勘臣前後違拒　君命之罪以最王法　則庶幾中外人情知所震勵臣以一死可以下伸私義上肅頹綱豈不爲　公私千萬之幸伏聞　聖候快臻康復之慶呼嵩之禮涓日已迫而臣不　得進詣舞蹈之列以伸犬馬之誠乃以煩猥之辭強聒於　宸嚴之下其　罪萬死而其情亦可憾矣臣無瞻天結戀伏地俟罪之至

答曰省疏具悉卿懇前後巽牘已竭予意則卿胡邁邁棄予若是乎須體至意即爲就途安心論政以濟時艱

史官李匡德來宣

영의정을 사직하며 아울러 전하의 안후가 회복되심을 하례드리는 대열에 나아가지 못한 것을 스스로 사죄하는 상소

엎드려 아뢰옵건대、신은 불충하고 무능하여 말씀을 드림에 군부(君父)께 믿음을 받지 못하여 결국에는 시골에 편안히 누워서 상상(上相)1의 영화로움을 차지하기에 이르고 말았사오니 신은 진실로 두려움과 부끄러움에 떨면서 몸 둘 바를 모르겠사옵니다。만약에 신이 감히 터럭만큼이라도 외람되이 나아가려는 생각을 가졌었다면、선조(先朝)에서 이십 년 동안 명을 어긴 것과 근대에 열여섯 번의 상소에서 주장한 것은 모두 색가요은(索價要恩)2의 이 넉자를 성취하고자 한 것이 되므로 진실로 조금이라도 사람의 마음을 지니고 있다면 감히 무례하게 얼굴을 쳐들 수 없음이 여기에서 결정 난 것이오니、일월과 같은 전하의 명철하심으로 또한 틀림없이 잘 알고 계실 것이옵니다。그런데도 굽어 살피지 않으심이 여기까지 이르렀사오니 신이 어찌 천지의 대화(大化)에 유감스러움이 없을 수 있겠사옵니까? 신은 질병이 위중하여 지리하고 번잡한 언사로 사양하고 겸퇴하는 예에 해당되지는 않사오나 일의 형세가 여기에 이르고 보니 조정에서 일 처리함에 있어 또한 용납 할 수 없사옵니다。정실(情實)을 참고하고 헤아려 예(禮)로써 나아가고 물러나는 것과 같은 것을 신은 성명(聖明)께 감히 다시 바라지 못하겠사옵니다。오직 원하옵건대、전하께오서 해당 관청에 분부하시어 신이 계속해서 군명(君命)을 어긴 죄를 엄한 왕법(王法)으로 다스리신다면 아마도 조정 안팎의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매진해야 할 바를 알게 될 것이옵니다。신이 한 번 죽음으로써 아래로는 사사로운 의리를 펼치고 위로는 무너진 기강을 엄하게 할 수 있다면 이 어찌 공사(公私)의 천만다행한 일이 아니겠사옵니까? 엎드려 듣자오니 성상의 안후가 빨리 쾌차하신 경사를 만나 경하드리는 예(禮)를 위하여 택한 길일이 이미 임박했다는데도 신은 기뻐하며 춤추는 대열에 나아가 견마(犬馬)와 같은 충정을 펼치

지는 못할망정、번거롭고 외람된 말로 전하의 엄숙한 자리를 무례하게 소란스럽게 하였으니、그 죄 만 번 죽어 마땅하오며 그 마음 또한 근심스럽기 한량없사옵니다。

신은 하늘을 바라보며 사모하면서 땅에 엎드려 죄를 기다리는 마음을 가눌 길이 없사옵니다。

비답 왈：상소문을 살펴보고 경의 간절함을 잘 알았노라。전후의 사양하는 상소에 대하여 이미 나의 뜻을 다 전했는데도 경은 어찌하여 매정하게 나를 버림이 이와 같은가？ 모름지기 나의 지극한 뜻을 이해하고 즉시 길에 올라 안심하고 정사를 논함으로써 지금의 어려움을 구제하도록 하라。[사관 이광덕(李匡德)이 와서 고하다。]

註：1。領議政의 별칭
2。자기를 인정해 줄 것을 구하고 은혜를 요구함

申懇仍乞致仕四疏

신 간 잉 걸 치 사 사 소

伏以臣於日昨伏承 聖批許解臣禁衛都提調之任仰惟 聖明俯察 事勢之有碍戎務之久曠變通之權特出於人望久鬱之餘羣情皆悅豈 獨臣私幸而已因此而臣願竊有請也相臣之職百責所萃而首揆之任 比他尤重其曠務之慮奚止於一本兵當遞之宜豈後於一提擧哉且軍 門事體至嚴且重緩急所係在於呼吸此豈野外白徒所可遙領也哉伏 乞 聖明參量彼此較其輕重先賜鐫削臣本職及兩軍門提擧扈衛大 將之任以幸國事焉仍念臣年過七十已踰四年而不敢爲休致之請者 臣旣自作屛逋與在朝告老之人有異且以身負重戾惶恐不敢言矣今 者到此地頭萬無容身之地若蒙 聖明矜憐借臣致仕二字之名使臣 得納還告身以終 先朝屛退之義仍得以慶節令辰量臣氣力時奉朝 賀以謝 聖朝罔極之恩兼伸臣子戀君之誠則 聖上之所以畜幸微 臣微臣之所以不負 先朝仲答 恩遇舍此而無他道理故乃敢遂言 之伏乞 聖明下臣此章於朝廷使之參商情理有所處置不勝幸甚聞 今朝著之間亦有告老之人云而彼則在進而求退也臣則在退而求進 也其在朝家似無取舍之嫌矣臣今疾病沉篤命迫朝暮而伏念違拒 君命過數旬將迫四載骨悸神懼寢驚夢愕若不能須臾偸或遂此至願而死則入地之魂亦不忘結草之報矣臣無任涕泣懇禱之至

答曰省疏具悉卿懇卿之屛退于今卄載矣缺然思想久而益篤矧今朝著草刱機務多滯辛苦之責匪卿伊誰亟遵前旨安心勿辭須速登途用 副如渴之望 史官趙館來宣

간청하며 아울러 벼슬을 그만 둘 것을 청하는 네 번째 상소

엎드려 아뢰옵건대, 신이 며칠 전에 금위도(禁衛都)1 제조(提調)의 임무를 해임할 것을 허락하신다는 전하의 비답을 삼가 받았사옵니다。우러러 생각건대 성명(聖明)께오서 일의 형세에 장애가 있으며 병사(兵事)가 오랫동안 비어 있음을 굽어 살피시어 특별히 변통하신 것은 인망(人望)이 오랫동안 막혀 있던 끝에 나온 것으로 여러 사람들이 모두 기뻐하오니 어찌 신만의 개인적인 바람일 뿐이겠사옵니까? 이로 인하여 가만히 청하기를 원하옵니다。상신(相臣)2의 직책이란 모든 책임이 모여 있는 바이며 수규(首揆)3의 임무는 다른 것보다 더욱 막중하므로 그 직무를 태만히 한 근심이 어찌 한 본병(本兵)4에 그치겠사옵니까? 그러하오니 마땅히 경질해야 함이 어찌 일개 제조(提調)의 뒤가 되겠사옵니까? 또한 군문(軍門)의 일이란 지극히 엄하고도 중요한 것으로 절박하고 위급함이 순간순간에 달렸사오니 이 또한 어찌 외지에 있는 훈련받지 못한 병정인 신이 멀리서 다스릴 수 있는 바이겠사옵니까? 엎드려 청하옵건대, 성명(聖明)께오서 피차(彼此)를 헤아려 참작하시고 그 경중(輕重)을 비교하시어 먼저 신의 본직 및 두 군문(軍門)의 제조(提調)와 호위대장(扈衛大將)5의 직책을 삭탈하심으로써 국사를 편안하게 해주시옵소서。또한 생각건대 신의 나이가 이미 칠십하고도 사년을 지났음에도 감히 퇴직을 청하지 못하는 것은 신이 이미 스스로 물러나 명을 어겼으므로 조정에서 나이가 많아 퇴직하는 사람들과는 다르오며, 또한 거듭 죄를 지은 처지이므로 황공하여 감히 아뢰지 못하기 때문이옵니다。지금 이러한 지경에 이르러 몸을 용납 받을 만한 여지가 전연 없사오나 만약에 성명(聖明)께오서 긍휼히 여기시어 신에게 치사(致仕)6 두 글자를 내리심으로써 신으로 하여금 직첩(職牒)을 반납하고 선조(先朝)에서 물러나 은퇴한 뜻을 마칠 수 있게 하시고 아울러 경축일 등 좋은 때에 신의 기력을 봐서 때때로 조정에 들어가 하례드림으로써 성조(聖朝)의 망극하신 은혜에 감사드리고 임금을 연모하는 신하의 충정을 펼칠 수 있게 하신다면 성상께오서 미천한 신을 용납해 주시는 것과 미천한 신이 선조(先朝)를 저버리지 않고 은우(恩遇)에 우러러 보답하는 것은 이것을 제외하고는 다른 도리가 없사옵니다。그러므로 이에 감히 마침내 말씀을 드리는 것이옵니다。엎드려 청하옵건대, 성명(聖明)께오서 신의 이러한 소장(疏章)을 조정에 내리시어 그 정리(情理)를 헤아려 참작케 하여 처리해 주신다면 정말 다행이겠사옵니다。또한 듣자오니 지금 조정에 또한 나이가 많아서 벼슬을 그만 둔 사람이 있다 하던데 그 사람은 나아갔다가 물러나기를 구하는 입장이고 신은 물러났다가 나아가기를 구하는 입장이고 신은 물러났다가 나아가기를 구하는 입장이 되므로 아마도 조정에서 인물을 취사(取捨)하는 도리가 없다는 비난이 있을 것이옵니다。신은 지금 질병이 위중하여 목숨이 조석(朝夕)에 달렸으며 엎드려 생각해보니 군명(君命)을 어긴 지가 몇 순(旬)을 지나 장차 사년에 임박하고 있는 지라 몸이 떨리고 마음이 두려우며 자다가도 꿈속에서 깜작 놀라곤 하여 얼마 못 가서

죽을 것 같사옵니다。만일에 혹 이러한 지극한 소원을 이루고 죽게 된다면 땅에 묻힌 혼령일지라도 또한 결초보은할 것을 잊지 않을 것이옵니다。신은 눈물 흘리면서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을 가눌 길이 없사옵니다。

비답 왈：상소문을 살펴보고 경의 간절함을 잘 알았노라。경이 물러나 은거한 지가 지금 이십년이나 되니 허전하여 보고 싶은 생각이 오래될수록 더욱 간절하도다。하물며 지금의 조정은 새로 시작되어 중요한 업무가 많이 적체되어 있으니 그 어렵고 수고로운 직책을 신이 아니면 누가 알겠는가? 속히 전의 교지를 따라 안심하고 사양하지 말 것이며 모름지기 속히 길에 올라 목마르는 여망에 부응하라。사관 조관(趙館)이 와서 고하다。】

註：1。삼군문(三軍門)의 하나로 서울을 지킴
2。영의정(領議政)、좌의정(左議政)、우의정(右議政)의 총칭
3。영의정(領議政)
4。병조판서(兵曹判書)의 별칭
5。궁성을 호위하는 대장
6。관직을 내놓고물러남

五疏 甲辰
오소

伏以臣老病不死又逢新年職名尚在求死不得玆敢忍死疾冒死罪以 祈王法之一死焉臣本不肖凡於進退雖不得以義自居當初屏退本非 全無所據而臣旣不得以情窠仰暴於 先朝凡於二十餘年之間未嘗敢以私身處義自明於人是以前日疑臣之出處者擧國皆然至于今日 間有疑臣之復出而請召者朝家之尚此撕捉亦安知其不由於此也臣 今臨死誠願一陳本末使前後之疑臣者有以諒臣之心跡而亦欲望容 光所照無復留難於處置之際耳言雖猥雜而有不暇顧昔 皇明儒臣 薛瑄見曹石勢盛謝病而歸瑄旣退之後石果作逆曹則至於稱兵犯闕 君父之危懍如一髮而考之於史瑄略無一言動靜處林下八年而終臣 之無似雖不敢追擬於古人而所遭之時適與六相符妄謂進退語默之 間自當有一定之則臣於辛巳丁酉之際不得以一言輔佑 聖躬及至 辛丑冬禍機已迫在於呼吸而不得動身於田廬似此事狀果可以復出 世路乎臣以黯昧去國負 先朝又以不赴國難負 殿下然人之所以 比列於人數者以其有自廢一節今朝廷乃欲并奪臣自廢之志則臣將 何所執而可以自立於覆載之間哉臣於今日只當潛心伏隩滅影鎖聲 以畢其垂盡之喘向者休致之請臣亦自知其猥越而猶復爲是者窠出於迫不得已之勢世之觀臣者亦或有諒臣之事而憐臣之志者矣臣之 疾病此後叟無構成文字之望而心腹

之蘊畢陳於今日之辭疏將止於　是矣此後則就加從容陳白改卜賢德使位序有定人心自服又得新相　與同推車之勢共贊治平之業者惟在於廟堂其或拘嫌畏謗默坐傍觀不置首相之位以待臣身就斃之期至於四年五年而無變使國事日趨　於叢脞者亦惟在於廟堂此則非臣之所敢知也惟願　聖明俯加睿覽　而速賜處分於縷命未絶之前不勝幸甚臣無任席藁俟罪之至

答曰省疏具悉卿懇卿之屏退于今幾載矣年齡雖暮精力尚旺終始邁　邁則疇與爲國須念悃意安心勿辭從速上來用慰思想之心 史官林光弼來宣

다섯 번째 상소 갑진년

엎드려 아뢰옵건대、신은 늙고 병들었는데도 죽지 않고 다시 새해를 만났으나 직명이 아직 남아 있어서 죽고자해도 그럴 수가 없사옵니다。이에 감히 죽을병을 참고 죽을죄를 무릅쓰고서 왕법(王法)으로 죽음을 내려주시길 기도드리옵니다。신은 본래 불초하여 무릇 진퇴(進退)1에 있어 비록 도의로써 스스로 처하지는 못하였사오나、당초에 물러나 은거한 것에 본래 근거한 바가 전연 없었던 것은 아니었사옵니다。그러나 신은 이미 진실한 마음을 선조(先朝)에서 우러러 아뢰지 못하여、무릇 이십여 년 간 일찍이 감히 사사로운 몸으로 의리를 실행하지 못한 것으로 사람들에게 저절로 알려지고 말았사옵니다。이 때문에 전날에 신의 출처(出處)2를 의심하던 것은 온 나라가 모두 그러했사옵니다。지금에 이르러서도 간혹 신이 다시 세상에 나와 소명(召命)을 청하지나 않을까 하고 의심하는 자가 있사오니、조정에서 아직도 이처럼 신에게 벼슬하라고 강권(強勸)하는 것이 여기에서 비롯되지 않았다는 것을 또한 어찌 확신 하겠사옵니까? 신은 지금 죽음에 임하여 한번 그 본말을 진언하여 전후로 신을 의심하는 자들로 하여금 신의 진실을 헤아려 보게 하기를 진정으로 원하오며、또한 전하의 용광(容光)이 비추는 곳에는 일 처리함에 있어 더 이상 어려움이 남지 않기를 바라고자 하옵니다。말이 비록 외람되고 번잡하여 옛날을 돌아볼 겨를이 없사옵니다만、명(明)나라 때 유신(儒臣) 설선(薛瑄)이 조석(曺石)의 세력이 강성함을 보고 병을 이유로 사직하고 돌아갔는데、설선이 이미 퇴직한 후에 조석이 과연 역모를 꾀하여 병사를 일으켜 궁궐을 침범함에 이르러서는 군부(君父)의 위급함이 한 가닥의 머리카락과 같았으나、사서(史書)에서 고찰해보면 설선은 거의 한 마디의 말이나 움직임도 없이 산 속에서 팔 년 동안 거하다가 죽었다 하옵니다。신은 무능하여 비록 감히 옛 사람에게 비견될 수는 없사오나、처한 바의 시대가 마침 그것과 더불어 서로 부합되는지라、진퇴출처(進退出處)하는 사이에 스스로 마땅히 일정한 법칙이 있다고 망령되이 생각하였사옵니다。신은 신사년(辛巳年)과 정유년(丁酉年)때 전하를 보우할 한 마디 말씀도 할 수 없었고、신축년(辛丑年) 겨울에 이르러 재화(災禍)의 기미가 이미 임박하여 경각에 달렸

는데도 시골집에서 몸을 옮기지 못하였사오니、아마도 이러한 일의 실상으로 보아 과연 다시 세상의 길에 나설 수 있겠사옵니까? 신은 몽매하여 나라를 버리고 선조(先朝)를 저버렸으며 또한 나라의 어려움에 나아가지 못하여 전하를 저버렸는데도 사람들이 신을 사람의 축에 끼어준 까닭은 스스로를 유폐시킨 그 한 가지 절목(節目)이 있었기 때문이옵니다。그런데 지금 조정에서 신이 스스로를 유폐시킨 뜻마저 아울러 빼앗으려고 한다면、신은 장차 무엇을 지탱하여 스스로 천지간에 설 수 있겠사옵니까? 신은 금일에 있어 다만 마음을 가라앉히고 외진 곳에 엎드려 모습을 감추고 소리를 죽이고 지내면서 다해가는 목숨을 끝마치는 것이 마땅하옵니다。지난번에 퇴직을 청하였는데 신 또한 그것이 외람되고 주제넘은 줄을 스스로 알면서도 다시 그렇게 한 것은 사실상 절박하여 부득이 한 상황에서 비롯된 것이었사오니、세상에서 신을 살펴보는 자 중에는 또한 혹 신의 일을 이해하고 신의 뜻을 딱하게 여기는 자가 있을 것이옵니다。신의 질병으로 보아 이후에는 더 이상 문장을 구성할 가망이 없사오니 마음속에 들어 있는 진실을 금일의 상소에서 다 아룀으로써 장차 여기에서 그치려 하옵니다。다음으로 덧붙여 조용히 아뢰옵건대、현덕(賢德)한 인재를 다시 뽑아 위계질서에 일정함이 있게 하면 사람들의 마음이 저절로 복종할 것이옵니다。또한 새로운 재상을 얻어 더불어 수레를 미는 힘을 같이하고 함께 태평치세(太平治世)의 공업(功業)을 칭송하는 것도 오직 묘당(廟堂)에 달렸사오며、혹 비난에 구속받고 비방을 두려워하여 침묵하고 앉아 방관하면서 영의정의 지위를 비워 둔 채로 신이 죽게 될 기일을 기다리느라 사 년 오 년이 되도록 변함이 없음으로써 국사를 날로 쇠잔함에 몰아넣게 하는 것도 또한 오직 묘당에 달렸사오니、이것은 신이 감히 알 수 있는 바가 아니옵니다。오직 원하옵건대、성명(聖明)께오서 명철하게 굽어 살피시어 실낱같은 목숨이 아직 끊어지기 전에 속히 처분을 내려주신다면 정말 다행이겠사옵니다。신은 거적을 깔고 엎드려 죄를 기다리는 마음을 가눌 길이 없사옵니다。

비답 왈:상소문을 살펴보고 경의 간절함을 잘 알았노라。경이 물러나 은거한 지가 지금 수년이 흘렀는데 나이는 비록 늙었지만 정력은 아직도 왕성한데도 시종 관심을 보이지 않으니 누구와 더불어 나라를 다스린단 말인가? 모름지기 나의 진정한 뜻을 생각하여 안심하고 사양하지 말 것이며 속히 분부대로 올라와 보고 싶은 마음을 위로하도록 하라。[사관 임광필(林光弼)이 와서 고하다。]

註:1。벼슬에 나아가고 물러남
2。세상에 나아가 벼슬하고 물러난거함

辭藥院史局兼任仍申懇七疏 未承批

사약원사국겸임잉신간칠소

伏以臣於四年之間據案陳情 帝累十疏而旣未蒙聖慈矜憐今於數月之內廢禮忘義不帝一兩事而又不被執法糾正職任之重尙在身上而新秋忽屆此歲又過

半矣心驚骨悸亟欲無生不意此際伏蒙　聖明俯念微品追記日久之疏　下降恩批而辭意隆重有非負罪賤臣所敢當者奉讀未半感淚自零仍伏念臣之廢仕今近三十年而自庚子以後則尤有不忍於冒進者此則想蒙　聖明鑑燭臣不必叟爲覶縷而至　於精力尚旺之　敎近來相臣去就朝臣不敢言有同禁防以此無人導　達於上雖天日至明其何能遍照於窮村篛屋之下哉臣少而多病老益癃廢已不比於恒人而不幸四五年間禍殃偏酷連失兩壯子與一壯孫　其餘殤慘亦且五六此豈人理所可堪哉精神氣力旣已銷盡無餘而今　年死病之中又經兩子疾厄形骸益復換脫凡然是一觸髏人之見之者　不忍與之對面設使臣初無難進之義此豈可堪入洛從仕以仰答　聖　上所須之意哉故相臣崔錫恒知臣最深前夏筵中備陳臣情狀請從其所願得蒙　聖明頷可雖被宰臣沮撓終於中止而伊時奏達之辭伏想　聖明記有之矣今右議政臣李光佐以同席之故愼於拘嫌雖不敢有所　陳達而其日昨箚中久在荒野入朝不可望云者固亦斷置臣去就於一　邊可謂辭約而意盡矣伏乞　聖明察此兩大臣之言叟回前夏已成之　命使臣得遂其所願則非但臣死無所恨其於國事豈不千萬幸甚哉自　古相職之久曠上下數千載之間晋有蔡謨宋有崔與之謨則除司徒三　年不就至於臨軒送使而又不就則公卿乃奏請送廷尉殷浩欲加謨大　辟會因荀羨之言乃止免謨爲庶人與之則除叅政控辭十三疏不許仍　拜右丞相又辭不至帝每虛席待之而與之未嘗造朝致仕逾年而卒云　以年月計之與之在相位不過數年已許其致仕謨則僅及三年而免爲　庶人豈若臣尚帝相職晏然無事至於四年之久哉朝廷之所以處臣者　固不出於此兩道而與之名臣且無負罪先朝之事非臣所可擬議而至　於蔡謨之爲大辟爲庶人惟在朝家處分之如何伏望　分付有司趁即　勘律俾威命不至於日損重仕得免於久曠焉臣無任危怖抑塞涕泣祈祝之至

약원과 사국의 겸직을 사양하며 아울러 간청하는 일곱 번째 상소 비답을 아직 받지 못함

엎드려 아뢰옵건대, 신이 4년 사이에 사실에 근거하여 진실을 아뢴 상소가 수십 번만이 아니었사오나 아직 성자(聖慈)의 긍휼히 여기심을 받지 못하였사오며, 요즈음 몇 달 동안 예의(禮義)를 무시하고 망각한 것이 한두 가지의 일뿐만이 아닌데도 또한 법을 집행하여 신을 바르게 다스리

지 않았사옵니다。직책의 무거움이 아직도 몸 위에 얹혀 있는데 새로운 가을이 문득 찾아오니 이 해도 또한 반을 지났는지라 마음이 놀래고 몸이 떨려 더 이상 살 수 없을 것만 같사옵니다。이러한 때에 뜻밖에도 성명(聖明)께오서 미천한 신을 굽어 생각하시어 시일이 오래 지난 상소를 기억하시고 내려주신 은혜로운 비답을 삼가 받았사온데、사의(辭意)가 융숭하시어 죄를 지은 미천한 신이 감히 감당하지 못할 바인지라 받들어 반도 채 못 읽어서 감격의 눈물이 저절로 흐르옵니다。또한 엎드려 생각건대、신이 벼슬을 그만둔 지가 이제 근 삼십년이 되오며 경자년(庚子年) 이후에는 더욱 차마 외람되이 나아갈 수 없는 지경이오니、이러한 사정을 성명(聖明)께오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 사료되온지라 신은 더 이상 자세하게 아뢰올 필요가 없사옵니다。그러나 신의 정력이 아직도 왕성하다는 교지와 근래 상신(相臣)1의 조정에서의 거취(去就)에 대해서는 신이 감히 말씀드리지는 못하오나、같은 관청에서 이러한 이야기를 전하께 고한 사람이 없었다면 비록 지극히 밝은 하늘의 태양인들 어찌 능히 궁벽한 마을의 오막살이까지 두루 비출 수 있겠사옵니까? 신은 어려서부터 질병이 많았고 늙을수록 더욱 고질이 되어 이미 보통사람과 비할 수가 없사오며、불행히도 사오년 동안 재앙이 혹심하게 닥쳐 장성한 두 아들과 장성한 손자 하나를 연이어 잃었으며 그 나머지 참담한 일이 또한 대여섯 가지나 되오니、이러한 일을 어찌 사람의 이치상 가히 감당할 수 있겠사옵니까? 정신과 기력이 이미 남김없이 탈진되었는데 금년에 죽을병으로 고생하던 중에 다시 두 아들의 병이 위독한 것을 겪고 나니、몸에 뼈가 더욱 앙상하게 드러나 마치 하나의 해골과 같은지라 신의 이러한 몰골을 본 사람들은 차마 같이 대면하지를 못했사오니、설사 신이 애초부터 나아가기 어려운 도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지경에 어찌 가히 서울에 가서 벼슬에 종사함으로써 성상께오서 필요로 하시는 뜻에 우러러 보답할 수 있겠사옵니까? 옛 상신(相臣)이었던 최석항(崔錫恒)은 신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자로서 지난여름에 연중(筵中)2에서 신의 정상(情狀)을 갖추어 진언하면서 신이 원하는 바에 따를 것을 청하여 성명(聖明)의 윤허를 얻었는데、비록 재신(宰臣)의 저지를 받아 결국 중도에서 그만 두긴 하였사옵니다만、그 때에 주달(奏達)한 말씀을 성명께오서도 기억하고 계실 것으로 삼가 사료되옵니다。지금 우의정(右議政)인 신 이광좌(李光佐)는 동석(同席)한 연유로 신중을 기하여 꺼렸기 때문에 비록 감히 전하께 아뢰지는 못하였사오나、며칠 전 차자(箚子)3에서 신이 오랫동안 산골에 있어서 조정에 들어오는 것은 바랄 수 없다고 한 것은 또한 한편으로 신의 거취를 결단하여 처리한 것으로 가히 말은 간략하나 뜻은 다 피력했다고 이를 만 하옵니다。엎드려 청하옵건대、성명께오서 이 두 대신(大臣)의 말씀을 굽어 살피시고 지난여름에 이미 이루어진 명을 다시 돌이키시어 신으로 하여금 그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게 하신다면、비단 신이 죽더라도 여한이 없을 뿐만 아니라 국사에 있어서도 어찌 진정 천만다행한 일이 아니겠사옵니까? 자고로 재상의 직책이 오랫동안 비어 있었던 것은 여태껏 수천 년 동안 진(晉)의 채모(蔡謀)의 경우와 송(宋)

의 최여지(崔與之)의 경우가 있사옵니다。채모는 사도(司徒)에 제수되었으나 삼년 동안 나아가지 않았으며 수레를 대놓고 사신을 보냈는데도 또한 나아가지 않자、공경(公卿)들이 이에 주청(奏請)하여 정위(廷尉) 은호(殷浩)를 보내 채모를 사형에 처하려고 했는데 마침 순선(荀羨)의 말에 따라 이에 그만 두고 채모를 면직하여 서인(庶人)이 되게 했사옵니다。최여지는 참정(叅政)에 제수되자 열세 번이나 사임을 청하는 상소를 올렸으나 허락받지 못하였으며 다시 우승상(右丞相)에 임명하였으나 또한 사양하고 나아가지 않았는데、황제는 늘 자리를 비워 두고서 그를 기다렸으나 최여지는 일찍이 조정에 나아간 적이 없었으며 벼슬을 그만 둔 그 다음해에 죽었다고 하옵니다。그 연수(年數)를 헤아려 보면 최여지는 재상의 지위에 있은 지 불과 몇 년 만에 이미 퇴직을 허락받았으며、채모는 겨우 삼년 만에 면직 받아 서인(庶人)이 되었사오니、어찌 신이 아직도 재상직에 머물면서 편안하게 일없이 사년 동안이나 오래 지내는 것과 같겠사옵니까? 조정에서 신을 처리하는 방법은 진실로 이 두 가지 길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이옵니다。최여지처럼 신하로서 선조(先朝)에 죄를 지은 일이 없는지는 신이 논의할 수 있는 바가 아니오며、채모처럼 사형을 받느냐 서인이 되느냐 하는 것은 오직 조정의 처분여하에 달렸사옵니다。엎드려 바라옵건대 해당 관청에 분부하시어 속히 법률에 따라 처리케 하심으로써 위명(威命)이 날로 실추되는데 이르지 않게 하시고 막중한 임무가 오랫동안 비어 있지 않게 하시옵소서。신은 두려움에 짓눌리고 울면서 기도하는 지극한 마음을 가눌 길이 없사옵니다。

註 : 1。영의정(領議政)、좌의정(左議政)、우의정(右議政)의 통칭
2。임금과 신하가 자문주의(諮問奏議)하는 자리
3。간단한 서식(書式)으로 하는 상소문(上疏文)

乞致仕仍辭大行大王誌文

걸치사잉사대행대왕지문

製述之命疏 英宗朝

제술지명소

伏以日月不居轉瞬之頃公除已畢伏惟我 聖上追慕罔極何以堪處 臣不勝哀隕戀結之至臣於向日書啓以當待疏章出納一陳微忱仰對 區區下情今可以仰慕矣臣伏承伊日 聖教其中一段有臣子所不敢聞者臣令欲形諸文字則心驚骨悸不省所以爲辭只有伏地求死而已 而人君一言播諸八方傳之史册不可不愼伏乞 聖明加省焉其他縷縷 聖教皆非糞土陋臣所可承當者臣不敢以此爲榮而只是卿之不欲造朝盖以不曾一赴 兩朝之召耳此意予豈不知爲教臣聞來廓然 若披雲霧覩青天 聖恩之浹骨正在於此君臣之間貴相知心 聖明 旣已下燭臣心事則臣於此外叟有何望而 辭旨之過中 恩數之屑 越竊恐貽譏

於來後亦乞　聖明留意焉君臣大義無所逃於天地之間　臣雖無狀亦豈全昧此義哉　肅崩朝辛卯召命適在陞擢之日旣退之　身不敢因此而冒進遲徊荏苒遂成無窮之悔及至大行朝則旣未能致　身於　先朝自不得異同於前後況其所陞擢又非前日之比者哉然大馬戀主微物尚然臣亦豈無象魏之戀哉曾於　先大王入臨耆社之日臣陳書自請願解職名隨耆老諸臣之後一瞻清光而未得恩許且於大　行朝又請借得致仕二字之名得以時奉朝請而又未蒙恩許縷息尚廷　追思痛裂而今日恩召又至於此臣不得不復申前說以翼省察焉夫致　仕乃仕宦者之至榮而臣以負罪之身猥有陳請者寔有其由蓋臣所被　資級至今四年懇乞收還而或慮叨冒旣久得請未易且雖遞本職例歸　西樞偃然是原任大臣臣之不可冒進與本職何以異哉故臣願得致仕　二字以終　先朝廢仕之義以奉朝賀三字得開今日自進之路臣寔費　盡千思萬計惟有此一事可以無負於　先朝而有答於　恩遇茲敢以　是仰徹於大行朝而日昨書啓亦陳其梗槩者也倘蒙　聖明垂憐俾　遂所願則臣之處義前後無碍而進退綽然如履坦途朝廷離不命臣臣　謹當時造京輦以伸臣子之義何至於上勞　聖念別爲非常之擧以駭　羣聽而損國體哉朝著之間惜無以此導達者而大臣則深夜　嚴廬請對非時　殿下則命遣承宣至於留門有若以臣爲難致之人朝家擧措　至於如此臣反躬自省愧死無地臣又伏聞　聖明屢以　大行朝所命　予不敢遽爲勉副爲教臣於此得以仰測　孝思之一端不勝悲泣豈敢　以私心之躁躁萌一毫悶鬱之意哉縮伏恭俟已累日矣今則晦朔旣變　制限又過遞易除拜無不擧行若　賜許副此正其時且右相之即令勞　瘁　聖明之所洞燭若使一朝生病則國事將何所恃宜速變通削臣姓　名於仕籍并與左相有闕之代而同時枚卜使三公協贊右揆分勞寔是　弘濟艱虞之一大事豈不爲國家之幸且伏念臣早罹奇疾放廢書册曾　於國家吉凶之禮屢被撰述之　命每以無文陳辭見遞及至　大行大　王聽政之日承　惠陵謚册文製述之　令臣如前固辭且以老病昏耗　之狀縷縷仰達伏蒙　矜憐而許遞不意慈者因都監傳關伏聞以臣塡　差誌文製述官臣竊惟念今此所　命比之當時其文之大小事之輕重爲如何哉而臣之老病昏耗月加日甚今至七年所矣況即今病狀身入　都下萬目所視臣豈容欺慢哉都監之循例啓下寔

爲文具而若有撕捱 之端則莫重大事易失時日伏乞趁速移畀可堪之人使無臨時窘急之 患焉臣無任惶猥震越涕泣懇禱之至

答曰省疏具悉卿懇日月不留奄及今日追慕莫逮哀痛益切噫孤以否 德所恃者惟元老而誠淺意薄不能感回卿心恒切愧悉繼以自歎卿之 苦心予豈不知而至再至三不自止者體 兩朝恩顧之重深歎卿高蹈 之志矣今觀疏辭怳若見卿卿之所執旣如是懇切則予豈不體諒而一 見卿面後當從卿願噫予雖識淺今日所望於羣下者以誠意之相孚則 而況先欺於大臣乎布衣入對旣以爲難相職肅謝亦如是固辭則疏中 軍銜寀是職名旣有軍職則帽帶何妨玆遣喉舌之臣諭予心腹卿其念 小子倚毗之誠即日偕入以副至望誌文製述事體至重都監塡差亦非 偶然而 幽宮之文捨卿爲誰卿須安心撰進焉 承旨李眞淳來宣

벼슬을 그만둘 것을 청하며 아울러 대행대왕의 지문을 제술하랍시는 명을 사양하는 상소
영종조

엎드려 아뢰옵건대、세월은 멈추지 않아 눈 깜짝할 사이에 공제(公除)1가 이미 끝났사옵니다。우리 성상께오서 망극하신 추모의 정을 어떻게 감당하실 지를 삼가 생각해보니、신은 비통하면서도 사모하는 지극한 마음을 가눌 길이 없사옵니다。신은 지난 날 서계(書啓)2에서 마땅히 소장(疏章)의 출납을 기다리셔야 한다는 보잘 것 없는 충정을 한번 아뢰었사온데、아랫사람의 구구한 사정에 답해주시니 지금 우러러 흠모할 수 있게 되었사옵니다。신은 그 때의 성교(聖敎)를 삼가 받았사온데 그 중의 일단에 신이 감히 받들지 못할 바가 있었사온지라、신이 지금 문장을 엮으려고 하나 마음이 놀라고 몸이 떨려 무슨 말씀을 드려야 할지를 헤아리지 못하고 다만 땅에 엎드려 죽음을 청할 따름이옵니다。임금의 한 마디 말씀은 팔방에 퍼지고 사책(史冊)에 실려 전하므로 삼가 하지 않을 수 없사오니、엎드려 청하옵건대 성명(聖明)께오서 이를 헤아려 주시옵소서。그 밖의 자세하신 성교(聖敎)는 모두 졸렬하고 비루한 신이 받들어 감당할 수 있는 바가 아니온지라 신은 감히 이것을 영광으로 여기지 못하겠사옵니다。다만「경이 조정에 나오려고 하지 않는 것은 대개 두 조정의 부름에 일찍이 한 번도 나아가지 않았기 때문이니 이러한 뜻을 내가 어찌 모르겠는가?」라고 하신 교지에 대해서 신은 듣고 나자 확연히 마치 운무(雲霧)를 헤치고 청천(靑天)을 보는 듯하였사오니 성은의 두루 미침이 바로 여기에 있사옵니다。임금과 신하 사이에서는 서로의 마음을 아는 것을 귀히 여기는데、성명(聖明)께오서 이미 신의 심사(心事)를 잘 알고 계시오니 신은 이것 외에 다시 무엇을 바라겠사옵니까? 그러나 말씀하신 뜻이 중도(中道)를 지나치고 내리신 은총이 분에 넘쳐 나중에 비

난을 일으킬까봐 남몰래 걱정이 되므로 또한 성명께오서 이를 유념해 주시기를 청하옵니다。군신간의 대의(大義)는 천지간에서 회피할 곳이 없사오니 신이 비록 무능하다고는 하나 또한 어찌 이러한 도의를 전연 모르겠사옵니까? 숙종조(肅宗朝) 신묘년(辛卯年)에 승진 발탁된 소명(召命)을 받았을 때、신은 이미 물러난 처지였으므로 감히 이로 말미암아 외람되이 나아가지 못한 채 머뭇거리며 세월을 보내다가 마침내 끝없이 후회할 일을 저지르고 말았사옵니다。대행(大行)3의 조정에 있어 이미 선조(先朝)에 신명(身命)을 바치지 못하여 스스로 전후에 달라진 게 없었사온데、하물며 그 승진발탁된 것이 또한 전날에 비할 정도가 아님에랴! 그러나 개와 말이 주인을 그리워하듯이 미물도 오히려 그러한데、신이 또한 어찌 대궐을 연모하는 마음이 없겠사옵니까? 일찍이 선대왕(先大王)께오서 기사(耆社)4에 들어가실 적에 신이 서(書)를 올려 스스로 청하면서、직명을 사임하고 기로(耆老)의 여러 신하들의 뒤를 따라 대왕의 청광(淸光)을 한 번 바라보기를 원하였사오나 은혜로운 허락을 받지 못하였사옵니다。또한 대행(大行)5의 조정에 있어 다시 치사(致仕)6라는 두 글자를 얻어 잠시 봉조청(奉朝請)7이 되기를 청하였사오나 또한 은혜로운 허락을 받지 못하였사옵니다。실 같은 목숨이 아직까지 붙어 있어 옛일을 돌이켜 봄에 아픔으로 가슴이 찢어질 듯 하온데、금일에 은혜로운 소명(召命)이 다시 이르렀으므로 이에 신이 부득이 다시 전날의 일을 말씀드려 전하의 성찰을 바란 것이옵니다。대저 치사(致仕)라는 것은 바로 벼슬하는 자의 지극한 영광이온데、신이 죄를 지은 몸으로 외람되이 주청하는 것에는 진실로 그 이유가 있사옵니다。대개 신이 받은 관급(官級)이 지금 四년이나 되므로 그것을 거두어 주실 것을 간절히 청하였사오나、혹 분에 넘치는 자리를 차지한 지가 이미 오래되어서 청하더라도 쉽지 않을까봐 걱정하였사옵니다。또한 비록 본직을 경질하여 서추(西樞)로 옮겨 주셨사오나 엄연히 이것은 원래 대신(大臣)의 소임이온지라 신이 함부로 나아갈 수 없사오니 본직과 무슨 차이가 있겠사옵니까? 그러므로 신은 치사(致仕) 두 글자를 얻어 선조(先朝)에서 벼슬을 폐한 도의를 끝마치고、봉조하(奉朝賀)8의 석자 직함으로 오늘 스스로 조정에 나아가는 길을 열기를 원하옵니다。신은 진실로 천 번 생각하고 만 번 궁리하였사오나 오직 이 한 가지 일로서만이 선조(先朝)를 저버리지 않고 전하의 은우(恩遇)에 보답할 수 있사온지라 이에 감히 대행(大行)의 조정에 이 일을 우러러 고하옵니다。일전에 올린 서계(書啓)에서도 또한 그 대강을 아뢰었사옵니다。만약에 성명(聖明)의 긍휼히 여기심을 받아 원하는 바를 이룰 수만 있다면、신이 도의를 지키는데 전후로 막힘이 없게 되고 나아가고 물러남이 평탄한 길을 밟는 것처럼 수월하게 될 것이므로 조정에서 비록 신에게 명하지 않더라도 신은 상가 때에 당하여 서울에 나아가 신하의 도리를 펼칠 것이온데、어찌하여 성념(聖念)을 수고롭게 하시어 따로 특별한 거용으로 여러 사람을 놀라게 하시고 나라의 체모를 손상시키시옵니까? 조정에서는 안타깝게도 이러한 주청을 하는 자가 없어、대신들이 깊은 밤에 지엄한 거처에서 청대(請對)9

함이 때에 맞지 않으며、전하께오서는 승선(承宣)10에 명을 내려 한밤중에도 대궐문을 열어 두도록 하시어、마치 신이 곤란함을 일으키는 사람이라도 되는 것처럼 되고 말았사옵니다。조정에서 일처리 하는 것이 이와 같은 지경에 이르고 보니、신은 몸을 돌이켜 스스로 반성함에 죽도록 부끄러워 몸 둘 곳이 없사옵니다。신은 또한 엎드려 듣자오니、성명(聖明)께오서 누차 「대행(大行)11의 조정에서 명하신 바를 내가 감히 갑자기 면부(勉副)12할 수 없다」는 교지를 내리셨다 하옵에 신은 이에 전하의 효심의 일단을 우러러 헤아려 보고 슬픔에 잠겨 울지 않을 수 없었사오니、어찌 감히 사사로운 조급한 마음에 조금이라도 답답해하는 뜻이 싹틀 수 있겠사옵니까? 삼가 엎드려 공손히 기다린 지 이미 며칠이 흘러 지금은 초하루와 그믐이 이미 바뀌었고 기한도 또한 지났으며 관직을 경질하여 제수하신 것도 시행하지 않음이 없사오니、만약에 해임을 허락하시려면 지금이 바로 그 때이옵니다。또한 우상(右相)이 지금 노고에 지쳐있음을 성명(聖明)께오서 잘 알고 계시온데、만약에 하루아침에 병이라도 난다면 국사를 장차 어디에 의지하겠사옵니까? 그러니 마땅히 속히 변통하시어 신의 성명을 사적(仕籍)에서 삭탈하시고、아울러 비어 있는 좌상(左相)의 대임(代任)을 정하심과 동시에 자세히 살펴보시고서、삼공(三公)으로 하여금 힘을 모아 협조하여 서로의 생각을 돕고 수고를 나누게 하시옵소서。진실로 이것은 어려움을 널리 구제하는 하나의 큰 일이오니 어찌 나라의 다행한 일이 되지 않겠사옵니까? 또한 엎드려 생각건대 신은 어려서 심한 병에 걸려서 책을 폐하였으므로、일찍이 나라의 길흉대사의 예(禮)에 있어 여러번 찬술(撰述)하라는 명을 받을 때마다 매번 글재주가 없다는 이유로 사양의 뜻을 아뢰어 경질되곤 하였사옵니다。대행대왕(大行大王)13께오서 정사를 돌보실 때 혜릉(惠陵)의 시책문(諡册文)을 제술(製述)하라는 명을 받았사오나 신은 예전처럼 극구 사양하였으며、또한 늙고 병들어 혼미한 상황을 자세히 우러러 아뢰어 대왕의 긍휼히 여기심을 받아 경질이 허락되었사옵니다。그런데 뜻하지 않게 지금 도감(都監)14에서 전달한 공문을 보고 신을 지문(誌文)15의 제술관(製述官)에 임명하였다는 것을 삼가 알았사온데、신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 지금 이렇게 명하신 바가 그 문장의 대소로 보나 일의 경중으로 보나 그때 당시와 어떻게 비할 수 있겠사옵니까? 또한 신은 늙고 병들어 혼미함이 날마다 달마다 심해진 지가 지금 칠 년이나 되옵니다。하물며 지금의 병세로 보아 이러한 몸을 이끌고 도성에 들어간다면、온 사람들이 다 볼 터이니 신이 어찌 그들을 속일 수 있겠사옵니까? 도감에서의 관례를 따르도록 재가하시는 것이 진실로 법도가 되옵니다。만약에 계속해서 권하는 실마리라도 있게 된다면 막중한 대사가 그 시일을 놓치기가 쉬울 것이옵니다。엎드려 청하옵건대 속히 가히 감당할 만한 사람에게 다시 맡기시어 때에 당하여 궁색하고 다급한 근심이 없도록 하시옵소서。신은 당황하고 외람됨에 떨며 울면서 간절히 기도하는 지극한 마음을 가눌 길이 없사옵니다。

비답 왈:상소문을 살펴보고 경의 간절함을 잘 알았소。세월은 머물지 않아 어느덧 오늘에 이르고 보니 추모해

도 미치지 못하여 애통함이 더욱 간절하오。아! 내가 부덕하여 믿고 있는 바의 원로(元老)들이 성의가 부족하여 경의 마음을 감동시켜 올려놓지 못하였소。그래서 늘 정말 부끄럽고 또한 스스로 탄식하고 있소。경의 괴로운 마음을 내가 어찌 모르리오만은 재삼 부탁하여 그만 두지 않는 것은 두 조정에서 경을 극진히 은혜롭게 돌봐 준 것을 생각하고 경의 고고한 뜻에 깊이 감탄했기 때문이오。지금 소장(疏章)을 봄에 마치 경을 만나본 듯하오。경이 지키는 바가 이처럼 간절하니 내가 어찌 헤아리지 않으리오。일단 한번 경의 얼굴이라도 본 후에 마땅히 경이 원하는 바에 따르겠소。아! 내가 비록 식견이 얕긴 하지만 지금 여러 아랫사람들에게서 바라는 바가 성의(誠意)로써 서로 믿는 것인데 하물며 먼저 대신을 속이겠는가? 포의(布衣)로 입궐하는 것은 이미 어려운 일이며 재상의 직책으로 예우하는 것도 또한 이처럼 극구 사양하니、소장에서 말한 군함(軍銜)16도 사실상 직명이므로 이미 군직(軍職)이 있다면 의관을 갖추는데 무슨 방해가 되리오? 이에 후설지신(喉舌之臣)17을 파견하여 나의 진심을 전할 것이니、경은 어린 아들이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과 같은 정성을 헤아려 오늘 당장 함께 들어와 지극한 바람에 부응하도록 하시오。지문(誌文)의 제술은 일이 막중하므로 도감에 임명된 것도 또한 우연이 아니니、유궁(幽宮)18에 관한 문장을 경이 아니면 누가 짓겠는가? 경은 모름지기 안심하고 찬술하여 올리시오。【승지 이진순(李眞淳)이 서고하다。와】

註：1。왕이나 왕비가 죽은 뒤 일반 공무를 중지하고 삼십육일 동안 조의를 표하여 지내던 일
2。봉명관(奉命官)의 복명서(復命書)
3。임금이 돌아가신 후 시호(諡號)를 올리기 전의 존칭。여기서는 숙종(肅宗)을 말함
4。춘추(春秋)가 높은 임금이나 七十세가 넘은 문관(文官)의 정이품(正二品) 이상 되는 노인이 들어가서 대우받던 곳。기로소(耆老所)
5。여기서는 경종(景宗)을 말함
6。관직을 내놓고 물러남
7。정삼품(正三品)의 관리가 치사(致仕)한 뒤에 임명되는 벼슬。임금께 문안드리는 일을 맡음
8。종이품(從二品)의 벼슬아치가 치사(致仕)한 뒤에 임명되는 벼슬。의식(儀式)에만 출사(出仕)하며 종신토록 녹봉을 받음。삼자함(三字銜)이라고도 함
9。급한 일로 임금께 면회(面會)를 청하는 일
10。궁내부(宮內部)에 속하는 벼슬로 정치적 권한은 없음
11。임금이나 후비(后妃)가 돌아가신 뒤 아직 시호(諡號)를 올리기 전의 존칭
12。의정(議政)의 해임(解任)을 허락함
13。경종(景宗)을 말함
14。국장(國葬)、국혼(國婚) 그 밖의 큰 국사(國事)가 있을 때에 임시로 베풀던 관청
15。죽은 사람의 생년(生年)、사망일시(死亡日時)、행적、무덤의 소재 등을 적는 글
16。오위(五衛)에 속한 상호군(上護軍)·대호군(大護軍)·호군(護軍)·사직(司直)·사과(司果)·사정(司正)·사맹(司猛)·사용(司勇) 등 西班 벼슬의 총칭。군직(軍職)
17。주로 왕명출납(王命出納)과 정부의 중대한 언론을 맡았던 벼슬아치
18。저승세계

詣闕外請以副司直肅 命疏
예궐외청이부사직숙 명소

伏以臣爲肅軍銜晨詣闕下而伏聞司直以下則無肅謝

之節云臣不可無端徑入　君門使事體不嚴臣願得以副司直臣崔某在外入來書諸　單子入哭于　嬪殿仍以祇肅於　大殿使臣不受資級之義仰慕於　大行王在天之靈且使初見　君父之禮得免簡慢之歸臣仰恃　聖明　推心置腹之仁猥此陳懇伏乞　聖明垂憐采納焉臣無任惶猥屛營之至

答曰省疏具悉卿懇今聞卿進詣闕外奚但慰予哀疚之心　先朝陟降　之靈想必忻慰矣觀卿疏辭卿之苦心亦切歎賞何不允從以安卿心焉　卿其即速入來用副予如渴之望承旨柳綏來宣

대궐 밖에 나아가 부사직으로 나아갈 명을 청하는 상소

엎드려 아뢰옵건대, 신은 군함(軍銜)에 나아가기 위하여 새벽에 대궐아래에 나아갔는데, 사직(司直) 이하의 벼슬에 대해서는 삼가 사례 드리는 예법이 없다는 것을 삼가 들었사옵니다。그러니 신은 아무런 이유 없이 곧장 궐문으로 들어가 일의 형세를 엄숙하지 않게 할 수는 없으므로, 신은 원컨대 부사직(副司直)으로 금위에 있으면서 밖에서 들어가 단자(單子)1에 기록하고, 빈전(殯殿)에 들어가 곡하며 아울러 대전(大殿)에 삼가 나아감으로써, 신이 관급(官級)을 받지 못했던 뜻을 하늘에 계시는 대행대왕(大行大王)의 혼령께 우러러 아뢰고 또한 군부(君父)를 처음 뵈옵는 예(禮)에 있어 소홀히 하는 과오를 면하게 했으면 하옵니다。신은 남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진심을 보여 주시는 성명(聖明)의 어지심을 우러러 믿고서 외람되이 이러한 간청을 하오니, 엎드려 청하옵건대 성명께오서 부디 긍휼히 여기시어 가납하여 주시옵소서。신은 황공스럽고 송구스런 마음을 가눌 길이 없사옵니다。

비답 왈：상소문을 살펴보고 경의 간절함을 잘 알았소。지금 경이 궐 밖에 나아왔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어찌 다만 나의 애통해하는 마음만 위로가 되겠소? 하늘과 땅을 오르내리시는 선조(先朝)의 영령께서도 틀림없이 기뻐 위안이 되실 것이라 생각하오。경의 소장(疏章)을 봄에 경의 괴로워하는 마음이 또한 몹시 감탄할만하니, 어찌 그 뜻에 따라 경의 마음을 편안케 하지 않으리오? 경은 속히 들어와 나의 목 타게 기다리는 여망에 부응하시오。【승지 유수(柳綏)가 와서 고하다。】

註：1。부조하는 물건의 수량이나 물건을 적은 종이

因言官論斥喉院引咎仍辭致仕後
인언관론척후원인구잉사치사후

周急疏　二十七日
주급소

臣於日昨入覲也事失常格節拍到處難便而臣意旣無

肅謝之節則初 見 君父只以曲拜爲禮極涉簡慢不得已有疏仰慕而 聖明許之矣 乃於今者臺閣之臣出而非之盖臣則守匹夫之微志臺臣則據朝廷之 體例其言宜不相合也然以臣之故承宣之臣替受論責臣誠瞿然而旣 在仕籍之外乃爲文具之語仰溷嚴廬之聽寔甚惶恐疏不果上矣不意 昨者戶曹郎官以啓下節目示臣臣看來惶懼罔知所措旣不可冒受則 玆未免陳疏瀆擾矣夫朝家之惠養老臣以其積勞王室老而告休故也 今臣廿餘年屛逋一以慢 命爲事有何可記之勞而膺此寵錫也哉大體旣如是而且見當初酌定之時乃以大臣周急爲言臣欲免大臣之稱 至犯日昨誤國體之罪今何敢辭其名而受其寔以取人駭笑哉大典所 載常祿臣不敢辭此足爲鼴鼠之滿腹今若加之以別樣名目則其於周 急不繼富之義何如也況今灾荒溢目國貧民飢之日雖升斗之穀亦宜 愛惜而常祿與周急合而計之則一年所捧乃是近百之穀也臣於日昨 入侍時略以新創之弊陳達今何可首先冒受自取其罪也哉鍾鼓之饗 雖榮鷄鶂之所不願物性然也 聖明旣洞察臣心事則必不待叡瀆而 快收 成命矣臣不勝大願臣無任誠心懇禱之至

答曰省疏具悉卿懇頃日許以軍職肅謝者不拘格例但循卿志則諫臣 所論未詳其由之致於卿何嫌養老之典尤不宜過辭卿其安心勿辭領受焉 史官李宗白來宣

언관이 후원을 비난한 것에 대하여 스스로 사죄하며 아울러 벼슬을 그만 둔 후의 구호를 사양하는 상소 이십칠일

엎드려 아뢰옵건대、신이 며칠 전에 입조(入朝)하여 알현했사오나 그 일이 상법(常法)에 어긋나 도처에서 편안치 못한 일이 일어나고 있사옵니다。신은 생각건대 이미 삼가 사례 드리는 예법이 없다고 하는지라、군부(君父)를 처음 뵈올 적에 다만 곡배(曲拜)1로써 예(禮)를 드린다면 극히 태만히 하는 죄를 짓게 되므로 부득이 소장(疏章)을 올려 우러러 아룀에 성명(聖明)께오서 허락하셨사옵니다。그런데 지금 대각(臺閣)의 신하들이 나서서 이를 비난하니、대개 신은 필부(匹夫)의 미천한 뜻을 지킨 것이고 대신(臺臣)들은 조정의 체례(体例)에 근거한 것이므로、그 말이 서로 부합되지 못하는 것이 마땅하옵니다。그러나 신의 옛 승선(承宣)의 신하가 대신 그 논책(論責)을 받음에 신은 진실로 놀라웠사오나、이미 사적(仕籍)의 밖에 있으므로 이에 형식만을 갖춘 말로 지엄하신 전하의 귀를 삼가 어지럽혔사오니 진실로 매우 황공하여 상소를 능히 올릴 수가 없었사옵니다。그런데 뜻밖에도 어제 호조(戶曹)의 낭관(郎官)이 전하의 재가가 난 조목을 신에게 보여주었는데、신은 그것을 받아 보

고서 당황하고 두려워 몸 둘 바를 몰랐사옵니다。이미 함부로 받을 수 없으므로 이에 상소를 올려 아룀으로써 번거롭게 함을 면치 못하게 되었사옵니다。대저 조정에서 노신들을 은혜를 베풀어 봉양하는 것은 그들이 왕실에 많은 공로를 한 뒤 늙어서 휴직을 고하기 때문이옵니다。그런데 지금 신은 이십여 년 동안 물러나 지내면서 오로지 어명을 태만히 하는 것을 일삼았는데、무슨 기록할 만한 공로가 있다고 이러한 은총어린 하사를 받겠사옵니까? 대강 이미 이와 같으며、또한 당초 약정할 때 대신(大臣)으로 구호해 주시겠다는 말씀을 듣고서 신은 대신이란 칭호를 면하고 싶었으나、며칠 전에 나라의 체모를 그르치는 죄를 범하였으니 지금 어찌 감히 그 이름은 사양하고 실속을 받음으로써 사람들의 놀라움과 비웃음을 받겠사옵니까? 대전(大典)에 기록되어 있는 일상의 녹봉은 신이 감히 사양하지 못하오니、이것만으로도 족히 두더지만한 배가 가득찰 것이옵니다。그런데 만약에 지금 특별한 명목을 더하신다면、「주급불계부(周急不繼富)2」라는 도의를 어찌하시렵니까? 하물며 지금은 재황(災荒)이 눈에 가득 차 나라가 빈곤하고 백성이 굶주리는 때이오니、비록 한 되 한 알의 곡식이라도 또한 마땅히 아껴야 하는데 일상의 봉록에다 주급(周急)을 합하여 계산하면 일년의 봉록이 근 백 섬의 곡식이나 되옵니다。신이 일전에 입조하여 전하를 뫼실 때에 대략 신창(新創)의 폐단을 아뢰었사온데、지금 어찌 맨 먼저 함부로 받음으로써 스스로 그 죄를 저지르겠사옵니까?

성대한 사람의 음식이 비록 영광스럽기는 하지만 바닷새가 원하는 바가 아니니 대저 만물의 속성이 그러하옵니다。성명(聖明)께오서 이미 신의 심사(心事)를 통찰하셨다면、반드시 더 이상 번거롭게 되기를 기다리지 마시고 속히 내리신 명을 거두셔야 하옵니다。그렇게만 된다면 신은 더 이상 바랄게 없겠사옵니다。신은 진심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을 가눌 길이 없사옵니다。

비답 왈:상소문을 살펴보고 경의 간절함을 잘 알았소。며칠 전에 군직(軍職)으로서 삼가 사례하도록 허락한 것은 격식에 구애받지 않고 다만 경의 뜻에 따른 것인데、간신(諫臣)이 논한 바는 그렇게 된 유래를 아직 잘 몰랐던 탓이니、경에 대해 노신으로 봉양하는 은전을 어찌 꺼리겠는가? 지나치게 사양하는 것은 더욱 마땅치 않으니、경은 안심하고 사양하지 말고 받으시오。【사관 이종백(李宗白)이 와서 고하다。】

註:1。임금은 남쪽을 향하여 앉고 곡배하는 사람은 동쪽이나 서쪽으로 향하여 절하는 예절

2。곤궁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은 부자에게 보태주는 것이 아니다

還鄕時以徑還引罪疏 十一月九日

환향시이경환인죄소

伏以臣之蹤跡不宜久留輦下而伏蒙 聖敎每以大行大王遺意勉留 再三仍令姑俟 因山之期臣誠感泣恩論不敢爲徑情退歸之計不 意日昨有人投疏誣辱

先朝臣誠心寒瞻豎繼以涕泗噫以向來逆獄 謂有宗社之計則其將置 大行朝於何地乎辛丑之際 殿下之累疏 涕泣可質神明國恤之初滿庭臣僚仰瞻 殿下哭泣之哀人無不爲之 流涕 殿下誠孝之能感動人如此而當此 梓宮在殯之日乃有如許 之疏甚矣人心之難化也臣久滯都下忍聞此不忍聞之說只當掩耳而 走滅影鎖聲與世不相于而已且臣自遭慘慽以來精力筋骸無復生人 貌樣又自數日有感冒之病似有彌留之勢若或日漸加重則將無以歸 盡鄉廬旣退之身死於輦下宜是人間羞恥事亦非臣之素心玆不得已 逝此縷命未絶之前不計疾勢之添重舁載未冷之屍以爲寸寸前進之 計臣伏蒙 天地罔極之恩恩數之隆自有君臣以來所未有者臣曾未 效一言之報而留洛三朔哭班入叅筵席進登只三數次臣之病狀雖 聖明所洞燭而亦安敢恃此而自安於心哉臣宜負罪三朝萬戮猶輕 只俟執法之臣一一勘斷瞻望 宸極有淚盈襟而已臣無任惶隕屛營之至

答曰省疏具悉卿懇纔遣承宣諭予至意卿其安心勿辭仍留寓舍從容 善攝以副至望 承旨柳綏追到龍仁懸弁別諭傳宣

고향으로 돌아올 때 곧장 돌아온 것을 스스로 사죄하는 상소 십일월 구일

엎드려 아뢰옵건대, 신의 자취가 전하 곁에 오래 머물러서는 마땅치가 않사옵니다。대행대왕의 남기신 뜻을 받들어 재삼 신을 머무르게 권하시고 아울러 인산(因山)의 기일까지 잠시 기다리라 하시는 성교(聖敎)를 여러 차례 삼가 받고서, 신은 진실로 은혜로운 유지(諭旨)에 감읍하여 감히 곧장 물러나 돌아갈 생각을 하지 못하였사옵니다。그런데 뜻밖에도 일전에 어떤 사람이 상소를 올려 선조(先朝)를 무고하고 욕되게 함에, 신은 진실로 마음이 떨리고 몹시 놀라웠으며 또한 눈물까지 흘렸사옵니다。

지난 날 역모의 옥사를 두고 종묘와 사직의 계책이 있었다고 한다면, 대행의 조정을 장차 어느 곳에 두어야 한단 말이옵니까? 신축년(辛丑年)에 전하께오서 누차 울면서 상소를 올리신 것은 천지신명에게 믿음을 줄만 하였사오며, 국상(國喪)의 처음에 온 조정의 신료들이 전하께서 슬프게 곡읍(哭泣)하시는 것을 우러러 바라보고서 눈물을 흘리지 않은 사람이 없었사오니, 전하의 진실한 효성이 사람들을 감동시킴이 이와 같았사옵니다。그런데 재궁(梓宮)이 빈전(殯殿)에 계시는 이러한 때에 그와 같은 상소를 올리다니, 심한 것은 감화시키기 어려운 사람의 마음이옵니다。신은 도성에 오래 머물면서 이러한 차마 듣지 못할 이야기를 참고 들었사온데 이젠 다만 마땅히 귀를 막고 도망가 몸을 숨기고 소리를 죽인 채 세상과 서로 관여하지 않을 따름이

옵니다。또한 신은 참담한 일을 당한 이래로 정신과 근골이 더 이상 산 사람의 모습이 아니오며、게다가 며칠 전부터 감기 증상이 생겨 아마도 위독한 지경에 이를 것 같사온지라、만약에 혹 날마다 점점 가중된다면 장차 고향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될 것이옵니다。이미 은퇴한 몸으로 대궐에서 죽는 것은 진실로 세상에서 수치스러운 일이며 또한 신의 평소의 마음도 아니옵니다。이에 부득이 이 실낱같은 목숨이 아직 끊어지기 전을 틈타 병세의 위중함에도 불구하고 아직 식지 않은 시체를 수레에 실어 천천히 나아가려는 계획을 세웠사옵니다。신은 천지의 망극하신 은총을 삼가 받았사온데、은총의 융숭함은 군신(君臣)이 생겨난 이래로 일찍이 없었던 바이옵니다。그러나 신은 일찍이 한 마디의 보답도 드리지 못하였사오며、서울에서 석 달을 지내는 동안 곡하는 대열에 들어가 참석하고 연석(筵席)에 나아간 적이 서너 차례뿐 이었사옵니다。신의 병세는 비록 성명께오서 잘 알고 계시는 바이지만、또한 어찌 감히 이것을 믿고 스스로 편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겠사옵니까? 신은 진실로 세 조정에 죄를 지어 만 번 죽더라도 오히려 그 벌이 가벼울 것이오니、다만 법을 집행하는 신하가 하나하나 조사하여 판결하기를 기다릴 뿐이옵니다。전하의 거처를 우러러 바라봄에 흐르는 눈물이 옷깃을 적실 따름이옵니다。신은 황공하고 송구스러운 마음을 가눌 길이 없사옵니다。

비답 왈:: 상소문을 살펴보고 경의 간절함을 잘 알았소。이제 막 승선(承宣)을 보내 나의 지극한 뜻을 알리노니、경은 안심하고 사양하지 말 것이며 아울러 숙소에 머물면서 느긋하게 몸조리를 잘하여 지극한 바램에 부응하도록 하시오。[승선 유수(柳綏)가 용인현(龍仁縣)까지 뒤쫓아 왔으며、아울러 특별 유지(諭旨)를 전하여 고하다。]

註:: 1。임금의 棺

以未赴因山引罪仍辭月廩月致疏

이미부인산인죄잉사월름월치소

伏以日月不居 大行大王因山之制已完伏惟 聖上孝思追慕何以 堪居而積月 哀疚之餘聖體不瑕有損伏不勝懸心結戀之至從今以 後臣子罔極之痛無可叟伸之地而臣終不得奔赴於 山陵陪哭之班 只得強舁枯骨出伏原野北望喬山哭不成聲仍伏念臣之向日徑歸也 雖犯欺君負國之罪而猶有所自寬於心者臣疾病必不挨過於一半月 之間若使塡壑之報上達 宸聽則想必俯察臣心事而有所矜惻矣不 幸縷命尚此未絶今以後臣窀欺 聖上也負 先朝也何敢復以一病 字措於其間而爲自解之計哉揆以王法自有常律伏乞 聖明亟命有 司一一勘斷以振朝綱不勝幸甚且臣於意外伏蒙自縣邑來傳月廩及 月致之命臣尤不勝惶恐罔措臣以如此 負犯膺如此寵錫雖萬萬 無恥豈敢生意於冒受哉事在月初當趁即乞還

而當此上下悲遑之日 不敢別爲辭疏縷溷於 嚴廬之聽玆姑遲待并陳於自列之章亦乞卽 許收還以重 恩例焉臣無位席藁俟罪之至

答曰省疏具悉卿懇日月易邁因山奄過哀隕罔極何以堪言令觀卿疏卿之所患尚今未瘳益用慮念有疾未叅何必引咎不腆薄廩尤不宜過辭卿其安心勿辭亦勿待罪從容善攝俟得少間幡然登途毋孤至望 史官權贊來宣

인산에 나아가지 못한 것을 스스로 사죄하며 아울러 월급미(月給米)가 달마다 오는 것을 사양하는 상소

엎드려 아뢰옵건대, 세월은 머물지 않아 대행대왕(大行大王)의 인산(因山) 의식도 이미 끝났사옵니다。성상의 효성으로 추모하시는 마음을 어떻게 견디어 내시는지 그리고 몇 달을 애통하신 나머지 성체(聖体)에 조금이라도 손상이 있지 않나를 엎드려 생각함에, 걱정되고 사모하는 마음을 삼가 이기지 못하겠사옵니다。지금 이후로는 신하로서의 망극한 통한을 더 이상 펼 곳이 없게 되었사오며, 신은 끝내 능묘에 따라가 곡하는 대열에 뛰어 나아가지 못한 채, 다만 억지로 뼈만 남은 몸을 이끌고 들판에 나아가 엎드려 북쪽의 높은 산을 바라보면서 목이 메어 곡을 하지도 못하였사옵니다。또한 엎드려 생각건대, 신이 지난 날 곧장 돌아온 것은 비록 임금을 속이고 나라를 저버린 죄를 범하긴 하였지만 그래도 마음에 스스로 위로함이 있었사옵니다。신의 병세로 보아 반드시 달포의 기일을 넘기지 못했을 것이므로 만약에 시골로 내려간다는 소식이 전하의 귀에까지 전해졌었다면, 틀림없이 신의 심사를 굽어 살피시어 긍휼히 여기시고 측은해 하셨을 것으로 사료되옵니다。그러나 불행히도 실낱같은 목숨이 아직도 끊어지지 않아 지금이후로 신은 진실로 성상을 기만하고 선조(先朝)를 저버리게 되었사오니, 어찌 감히 다시 오로지 병들었다는 것을 이유로 이러한 지경에 처하여 스스로 변명할 생각을 하겠사옵니까? 왕법(王法)으로 헤아려 봄에 자고로 일정한 규율이 있는지라, 성명께 엎드려 청하옵건대 속히 해당 관청에 명하시어 하나하나 조사하여 판결케 하심으로써 조정의 기강을 진작시키신다면 정말 다행이겠사옵니다。또한 신은 뜻밖에도 월봉(月俸)으로 주는 미곡을 달마다 지급하라는 명을 현읍(懸邑)으로부터 삼가 전해 받고서 신은 더욱 황공하여 몸 둘 바를 모르겠사옵니다。신은 이와 같이 죄를 지었는데도 이와 같은 은총어린 하사를 받고 보니, 비록 전혀 염치없는 사람이긴 하지만 어찌 감히 외람되이 받을 생각이 들겠사옵니까? 이 일은 월초(月初)에 마땅히 즉시 반납할 것을 청했어야 하오나, 위아래로 모두 애도하는 이러한 때를 당하여 감히 따로 상소를 올려 지엄하신 전하의 귀를 누차 어지럽게 할 수가 없어서 이에 잠시 지체하고 기다리면서 아울러 스스로의 마음을 나타내는 글을 아뢰옵나니 또한 청하옵건대 즉시 환수할 것을 허락하시어 은례(恩例)를 중히 여기시옵소서。신은 거적을 깔고 엎드려 죄를 기다리는

마음을 가눌 길이 없사옵니다。

비답 왈∶상소문을 살펴보고 경의 간절함을 잘 알았소。세월이 수이 흘러가 인산일이 어느덧 지났으니 망극한 애통함을 어떻게 말로 할 수 있겠소。지금 경의 소장(疏章)을 봄에 경이 근심하는 바가 지금까지도 아직 해소되지 않아 이로써 병이라도 생길까봐 더욱 염려되니、인산에 참석하지 못한 것을 어찌 반드시 스스로의 탓으로 올리려 하오?많지 않은 보잘 것 없는 월급미(月給米)를 지나치게 사양하는 것은 더욱 마땅하지 않소。경은 안심하고 사양하지 말 것이며 또한 죄를 기다리지도 마시오。느긋하게 몸조리를 잘 하여 조금 나아지기를 기다렸다가 속히 길에 올라 나의 지극한 바람을 저버리지 마시오。[사관 권지(權贄)가 와서 고하다。]

謝遣醫視疾賜物及酪粥仍申懇疏

사 견의시질사물급락죽잉신간소

伏以臣以負罪之身伏蒙　天地父母哀憐愍惻旣寬其死又欲其生近　侍宣　批太醫看病而又於日昨　特遣掖隷問疾珍劑甘酪鎭日繼至　使奄奄垂盡之喘得廷時日之命臣感泣　恩私無以爲報只有攢手雲　天仰祝岡陵之壽仍伏念月廩一欵前以待罪之故不敢悉慕情懇今始　冒瀆肝血以祈　矜許焉自古休致之臣受一半常祿兼致酒肉此我　祖宗朝惠養老臣之美意而先輩名臣受而不辭然臣之處義則與此萬　萬有不相侔者臣以科第出身立朝數十年未有涓涘之報又於未暮之　年仍作負國之逋臣中間犯分越義之事如向來之欺罔　君父近日之　未赴因山等事不可一二數計此在朝家有萬分必誅之罪無一毫可酬　之勞豈可與先輩名臣之終身盡瘁老而告休者同受其　寵錫哉臣亦　自知罪深以終身窮約爲自晴之地臣於　先朝有疏曰潛深伏隩滅影銷聲又曰枯槁窮山守死無變云而又於向日疏啓亦嘗仰慕　宸聽盖臣之處義必如此而後可安於私心而人之所以比列於人數者亦以此耳向因　天崩之慟進赴關下伏蒙　聖上隆恩異數千古無比由是感激思欲一近　日月之光以伸臣子之義遂至猥有匪分之請得以遂其至願臣雖退而即塡溝壑萬萬無憾豈復有他望哉只以新謝　恩命身在京中不敢猥辭常祿數月之俸黽勉冒受矣今於下鄕之後又令縣邑有廩庖之繼噫此豈所以施於臣者哉臣之避榮辭祿今近三十年矣一朝因奔哭之行反爲媒榮冒祿之身偃臥田間無事而受卿相之祿兼以酒肉逸樂富厚以終其身反顧初心寧不赧然臣之初入都也　別諭之降筵席

之對每蒙 聖上縷縷以漢之嚴光敎臣此雖 聖明奬許之過失於匪倫之儗臣心則不敢以無似自棄其身自承 聖敎以來如奉挨璧惟恐失墜今此所陳寔欲得免於後黷之譏以成 則哲之明 殿下若俯垂諒察則亦必憐臣之志矣況聞此等穀物出於元會耗朝家會減之用其路甚廣今又加之以不緊之事歲費三十餘石穀不及數年必耗盡無餘若當凶歲則此爲賑民之資其在節省之道亦豈可不念哉伏願 聖明令該曹仍係臣祿科於京倉臣若復起爲人而因事入都則受食於京倉如不入都則姑爲置之如此則在朝家可以不墜舊典無廢後規臣亦受與不受俱安於義豈不公私兩順哉伏乞 聖明俯諒情願特許依施則臣之受賜豈萬鐘祿所可比哉臣無任懇泣屛營之至

答曰省疏具悉卿懇卿之回鄕今已兩朔思想之心奚嘗少弛向見書啓所患非細深用慮念神明所扶勿藥乃瘳還竊幸慰所辭月廩國雖匱乏豈無一元老周急之物乎卿其安心勿辭領受俟得少間幡然就途毋孤至意

史官金汴光來宣

의원을 보내 병을 진찰케 하시고 약물과 타락죽을 하사해 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아울러 간청하는 상소

엎드려 아뢰옵건대, 신은 죄를 지은 몸으로 천지의 부모되시는 전하의 애처롭고 측은하게 여기심을 삼가 받아 이미 그 죽음을 늦추게 되었고 또한 살고 싶은 마음이 들게 되었사옵니다。태의(太醫)1에게 병을 살피게 하신 비지(批旨)를 가까이 접하였사온데, 또한 일전에는 액례(掖隷)2를 특별히 보내시어 문병하시고 진귀한 약과 맛있는 타락죽을 평상시에도 계속 보내주시어 가물가물 거의 다해가는 목숨으로 하여금 그 기일을 연장할 수 있게 하시니, 신은 그 은총에 감읍하오나 보답할 길이 없사오며, 다만 운천(雲天)에 손을 모두어 산처럼 만수(萬壽)를 누리시길 우러러 축원하옵니다。또한 엎드려 생각건대, 월름(月廩)3에 대하여 전에는 죄를 기다리는 처지였기 때문에 감히 간절한 마음을 다하지 못하였으므로, 지금에야 비로소 외람되이 진정을 다털어 놓음으로써 긍휼하신 허락을 바라옵니다。자고로 벼슬을 그만 둔 신하는 일상 봉록의 반과 아울러 주육(酒肉)을 받는데, 이것은 우리 역대 조정에서 노신을 은혜롭게 봉양하는 훌륭한 뜻으로 선배 명신(名臣)들은 이를 받고 사양하지 않았사옵니다。그러나 신이 처한 경우는 이와는 전혀 서로 같지가 않사옵니다。신은 과거에 합격하여 처음 관직에 올라 조정에 선지 수십 년 동안 보잘 것 없는 일을 했을 뿐이며, 또한 늘그막에는 나라를 저버리는 죄를 저질렀

사옵니다。또한 그 중간에 분수를 넘어서고 도의를 어긴 일이 한 두 가지가 아니오니、지난날 군부(君父)를 속인 것과 근래에 인산에 나아가지 못한 등등의 일이 그것이옵니다。이것은 조정에 있어 천만 번 반드시 주벌당해야 할 죄이며 이것을 갚을 만한 공로는 터럭만큼도 없는데、어찌 가히 종신토록 수고를 다하고 늙어서 퇴직한 선배 명신들과 더불어 그 은총어린 하사를 똑같이 받을 수 있겠사옵니까? 신은 또한 죄가 깊다는 것을 스스로 알고서 종신토록 곤궁하게 지냄으로써 스스로 속죄하는 바탕으로 삼고 있사옵니다。그래서 신은 선조(先朝)에 상소를 올려 「깊은 벽지에 잠적하여 자취를 없애고 소리를 내지 않고자 한다。」고 했으며 또한 「고고(枯槁)한 산골짜기에 숨어 죽음으로써 지켜 변함이 없고자 한다。」고 하였사옵니다。그리고 지난 번 소장(疏章)에서도 또한 일찍이 전하께 우러러 아뢰었사옵니다。대개 신이 도의를 실천하는 것이 반드시 이와 같은 연후에야 가히 사사로운 마음에 편안할 수 있었사오며、사람들이 신을 사람의 축에 끼어 준 것도 또한 이것 때문이었사옵니다。지난 날 하늘이 무너지는 통곡으로 말미암아 대궐 아래에 나아가 성상의 융숭하신 은혜를 삼가 받았사온데、그 특별하심이 천고(千古)에 비할 데가 없었사옵니다。이로 말미암아 감격하여 한 번만이라도 일월과 같은 전하의 청광(淸光)을 가까이 하여 신하된 도의를 펼치고 싶었으므로、마침내 외람되이 분수에 넘는 청을 하여 그 지극한 소원을 이루었사옵니다。이제 신은 비록 물러나 산골짜기에 있지만 조금도 유감이 없사오니 어찌 더 이상 다른 바람이 있겠사옵니까? 다만 은혜로운 어명에 새로 감사드릴 뿐이옵니다。몸이 서울에 있을 때 신은 감히 외람되이 사양하지 못하고 몇 달 분의 일상 봉록을 하는 수 없이 삼가 받았사온데、지금 고향에 내려온 후에 다시 현읍으로 하여금 미곡과 고기를 계속 내리게 하시니 이것이 어찌 신에게 베풀어질 바이겠사옵니까? 신이 영화를 피하고 봉록을 사양한 지가 지금 근 삼십 년이나 되온데、하루아침에 국상에 곡하러 나아갔다가 도리어 영화를 바라고 봉록을 탐하는 신하가 되어 시골에 편안히 누워하는 일 없이 경상(卿相)의 봉록을 받고 아울러 주육으로 안일하게 부유함을 즐기면서 그 몸을 끝마친다면、처음의 마음을 돌이켜 생각해봄에 어찌 부끄럽지 않겠사옵니까? 신이 처음 도성에 들어갔을 때 특별하신 유지(諭旨)가 내려오고 연석(筵席)에서 응대함에 있어、성상께오서 누누이 한(漢)의 엄광(嚴光)4에 다 신을 비유하셨사온데、이것은 비록 성명께오서 신을 장려하신 것이오나 신에게는 차서(次序)에 어긋나는 참월된 것이옵니다。신은 마음으로 감히 무능하다고 자신의 몸을 스스로 포기하지 않고서、성교(聖敎)를 받들은 이후부터는 어린 바람을 굽어 헤아리사 특별히 그렇게 시행하도록 허락해 주신다면、신이 하사를 받음이 어찌 만종(萬鍾)5을 두 손으로 받드는 것처럼 오직 그 실추(失墜)를 걱정할 따름이옵니다。지금 여기에 아뢰는 바는 진실로 뒷날의 허물에 대한 비방을 면하여 명철함을 이루시게 하고자 함이오니、전하께오서 만약에 부디 굽어 살펴 주신다면 또한 반드시 신의 뜻을 가엽게 여겨 주시옵소서。듣자오니 이러한 곡물은 원회(元會)6에서 세입과 세출

을 계산하고 남은 것을 쓰는 데서 나오는 것으로 그 사용되는 길이 매우 넓다 하온데, 지금 또한 긴요하지 않은 일까지 더하여 해마다 삼십여 석을 지출하므로 몇 년 못가서 곡물이 틀림없이 모두 소모되어 남는 게 없을 것이옵니다。만약에 흉년을 당하면 이것은 백성들을 구제하는 바탕이 되오니, 그 절약하는 도리를 또한 어찌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있겠사옵니까? 엎드려 원하옵건대, 성명께오서 해당 관청으로 하여금 신의 봉록을 경창(京倉)에 저장케 하시어, 신이 만약에 다시 일어나 성한 사람이 되어 일로 인하여 도성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경창에서 곡식을 받고 만일에 도성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을 때는 그대로 놓아두도록 해주시옵소서。이와 같이 한다면 조정에서는 예전(禮典)을 실추시키지 않고 후규(後規)를 폐하지 않아도 되며, 신 또한 받고 받지 않는 것이 모두 의(義)에 편안하게 될 것이오니 어찌 공사(公私)가 둘 다 순조롭게 되지 않겠사옵니까? 엎드려 청하옵건대, 성명께오서(진심은 육석사두(六石四斗)임)의 봉록에 비하겠사옵니까? 신은 간절히 울면서 송구스런 마음을 가눌 길이 없사옵니다。

비답 왈: 상소문을 살펴보고 경의 간절함을 잘 알았소。경이 고향으로 돌아간 지 지금 이미 두 달이 되었는데, 경을 생각하는 마음을 어찌 일찍이 조금이나마 늦추었겠소? 지난 번 서계(書啓)를 보고 경의 병환이 작지 않아 심히 염려하였는데, 천지신명이 도우사 약을 먹지 않고도 완쾌된다면 도리어 적이 다행스럽고 위안이 되겠소。사양한 월급미는 나라가 비록 궁핍하다고는 하나 어찌 원로한 명을 구호할 재물이 없겠소? 경은 안심하고서 사양하지 말고 받으시오。잠시 병이 낫기를 기다렸다가 속히 길에 올라 나의 지극한 뜻을 저버리지 마시오。[사관 김변광(金汴光)이 와서고 하다。]

註: 1。궁중(宮中)의 의원 벼슬
2。액정서(掖庭署)에 속한 관리
3。월봉(月俸)으로 받는 미곡(米穀)
4。동한(東漢) 광무제(光武帝)때의 은자。무제(武帝)와 동문유학(同門遊學)하였으나 무제가 제위에 오르자 부춘산(富春山)에 은거하면서 일체 벼슬길에 나아가지 않음
5。일종(一鍾) 벽옥
6。설날 아침 조정에서 열리는 조회

以未赴王世子册禮賀班引罪仍辭
이미부왕세자책례하반인죄잉사

月稟月致及周急疏 乙巳
월름월치급주급소

伏以國有 元良册禮已過此誠宗社無疆之休臣民莫大之慶几在含生孰不汴躍臣自前冬還歸之後仍委寢席日益漸綴即今無一分生人之理不得趍造呼嵩之列以伸延頸之願有生如此不如死之久矣臣負 罪 兩朝二十六年幸蒙 聖上天地罔極之恩洗滌前愆俾遂平日之 至願臣之所以報答聖賜只在朝賀一節而今此朝家莫重慶禮又未免 廢闕情禮則其罪比前尤萬

萬矣伏乞　聖明分付有司亟賜勘處不勝　幸甚且臣於向日有欺慢　君父之罪揆以邦憲萬戮猶輕而得蒙　聖上寬宥不替恩數令所居縣邑有月廩及月致之　命伊後又有歲時周　急之命而以賤臣廉義旣已再煩近侍臨諭臣寔震怖不敢叟爲陳疏之計而其抵死不敢冒受之意已悉於前日之疏矣今又以戶曹關文自巡　營有春等周急之令床簀危喘以是益切憫蹙若將促其將盡之命伏乞　聖明俯察衷曲哀之憐之并前後月廩月致周急等典俱許還收則臣可　得安意而入地其爲光寵豈比今日惠養之　恩而已哉瞻望　宸極攢　手祈祝封疏將上之際掖隷臨門俯問死生臣於前月旣蒙恩賜路粥　今此貂皮之錫又是千萬意慮之外　聖意之終始眷念至於如此而死　亡無日何階仰答結草之報　惟當自期於泉下而已臣無任瞻天結戀伏地俟罪之至

答曰省疏具悉卿懇旣定元良付托有人欣喜曷諭卿之所患予己知之　未叅賀班有何所傷不腆月廩與周急之物尤不宜過辭卿其安心領受　亦勿過自引咎春日

漸暖俟間上來母孤予思想之心 史官任輸來宣

왕세자의 책례를 하례드리는 반열에 나아가지 못한 것을 스스로 사죄하며 아울러 월급미가 매달 이르는 것과 주급(곤궁함을 도와줌)을 사양하는 상소 을사년

엎드려 아뢰옵건대, 나라에 원량(元良)1의 책례(冊禮)2가 이미 끝났사온데, 이것은 진실로 종사(宗社)의 무한한 기쁨이며 신하와 백성들의 더없는 경사이니, 무릇 생명이 있는 것이라면 무엇인들 기쁨에 손벽치며 뛰지 않겠사옵니까? 신은 지난겨울에 귀향한 후로 여전히 자리에 드러누워 날로 더욱 병이 깊어져, 지금에 와서는 성한 사람으로 살아갈 가망이 조금도 없는지라 송축하고 하례 드리는 반열에 급히 나아가 목을 내밀고 기다리던 바람을 펼 수 없었사오니,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죽는 것만 못한 지가 오래되었사옵니다。신이 두 조정에 죄를 지은 지가 이십육 년이나 되는데, 다행히 천지의 부모되시는 성상의 망극하신 은혜를 입어 전날의 허물을 다 씻어내고 평소의 지극한 바람을 이루었사옵니다。신이 성상의 은사(恩賜)에 보답하는 길은 다만 조정에 들어가 하례 드리는 이 한 가지 절목 뿐이온데도, 지금 조정의 이러한 막중한 경사스러운 예식에 있어 또한 정리(情理)와 예의를 폐함을 면치 못하였사오니, 그 죄는 전에 비하여 더욱 극심하옵니다。엎드려 청하옵건대 성명께오서 해당 관리에게 분부하시어 속히 조사하여 처분케 하시면 정말 다행이겠사옵니다。또한 신은 지난날에 군부(君父)를 기만한 죄를 지어 국법으로 헤아려봄에 만 번 죽더

라도 오히려 그 벌이 가벼운데도、성상의 너그러우신 용서를 받아 은총이 바뀌지 않았사오며、살고 있는 현읍으로 하여금 월급미(月給米)를 달마다 지급하라는 명을 내리시고 그 후에 다시 세시(歲時)에 주급(周急)하라는 명이 있었사옵니다。미천한 신의 염의(廉義)가 이미 다시 번거롭게 되었는지라 유지(諭旨)를 가까이 접하고서도 신은 진실로 두려움에 떨면서 감히 더 이상 상소를 올릴 생각을 하지 못하였사오나、그 죽음을 무릅쓰고서라도 감히 함부로 받을 수 없는 뜻은 이미 전날의 상소에서 다 아뢰었사옵니다。그런데 지금 또한 호조(戶曹)에서 공문을 보내 감영(監營)으로부터 춘등(春等)3을 구제하라는 명이 책상에 급히 날아드니、이 때문에 더욱 민망하고 근심스러워 거의 다해가는 목숨을 재촉하는 것 같사옵니다。엎드려 청하옵건대 성명께오서 신의 충심을 굽어 살피시어 딱하고 가엽게 여기시고、아울러 계속 달마다 지급하는 월급미와 주급(周急) 등의 은전(恩典)을 모두 환수하도록 허락하여 주신다면、신은 가히 편안한 마음으로 땅에 들어 갈 수 있을 것이오니、그 영광된 은총을 어찌 오늘날 은혜롭게 길러 주시는 은혜에 비할 뿐이겠사옵니까? 신극(宸極)4을 우러러 바라보고 두 손 모아 기도드리면서 상소를 봉하여 장차 올리려 할 때에 액례(掖隷)가 문에 당도하여 신의 생사여부를 살펴 물었사옵니다。신은 전 달에 이미 은혜롭게 하사하신 타락죽을 받았사온데、지금 이러한 단비 가죽을 하사하신 것은 또한 천만 뜻밖의 일이옵니다。

끝까지 돌보아 염려해 주시는 성상의 뜻이 이와 같은 정도에 이르렀사오나 사망의 날이 멀지 않으니 어떻게 우러러 보답하리오까? 결초보은함은 오직 마땅히 황천에서 나스스로 기약할 따름이옵니다。신은 하늘을 우러러 사모하면서 땅에 엎드려 죄를 기다리는 지극한 마음을 가눌 길이 없사옵니다。

비답 왈: 상소문을 살펴보고 경의 간절함을 잘 알았소。원량(元良)을 맡길 사람이 이미 결정하였으니 그 기쁨을 어찌 알리지 않겠소? 경의 병환을 내가 이미 알고 있으니 하례의 반열에 참석하지 못한 것을 어찌 상심하시오? 그러니 많지도 않은 월급미와 구호하는 물건을 지나치게 사양하는 것은 더욱 마땅하지 않소。경은 안심하고 받을 것이며 또한 지나치게 스스로를 책하지 마시오。봄날이 점점 따뜻해지니 병이 낫기를 기다렸다가 올라와 경을 생각하는 나의 마음을 저버리지 마시오。[사관 임철(任轍)이 와서 고하다。]

註: 1。왕세자(王世子)
2。책씻이 의식
3。세금을 봄과 가을의 두 번으로 나눈 봄철의 세금
4。임금의 거처

以王世子冠嘉雨禮時不得進叅
이 왕세자관가양례시부득진참
引罪仍申懇疏 丁未
인죄잉신간소
伏以臣屛伏窮山遠想今日令辰是我 春宮邸下成德

之日也伏惟我　聖上止慈之念慶喜何極凡茲一國含生莫不翹首廷頸懽欣抃躍而臣　以　三朝舊物疾滯周南不得趨赴京輦以伸舞蹈之儀瞻望　宸極不　勝耿結之至仍念臣以月廩事日昨承宣之回略及叟爲陳乞之意矣盖　月廩是朝家優待大臣之近例周急是向來尊禮儒贊之　特恩而當初　節目啓下之時該曹不察乃至混并加之於不肖之身臣於在京之時國　典所載一半常祿及月致酒肉則未免受食以承　聖朝惠養老臣之盛意至於周急則臣不宜冒受故疏陳筵對縷縷懇辭伏蒙　聖明叅酌題　給而臣於伊時方在旅邸恩恤之典似或有名故臣不得叟辭矣及至　下鄉之後該曹稟啓月廩周急自縣邑并爲輸致其數猥多比行公大臣　之祿不啻倍加此是萬萬無理想是當時告老之臣有不受常祿者故以周急改作名目而周急之事乃是　特恩其分給三等有若俸祿者已是　可疑況與月廩而并受則朝家賜與之典必不如是似是該曹失於照管　而然故臣於前日書啓中陳朝家考例之未詳俟後欲一陳白而適有臺　言不敢矣此則不可不使該曹叟爲考據以爲後式而至於臣則兩欵恩　賜俱有不可受之義下鄉之後朝家頒祿不宜及於在外之臣若用近來月廩之例則此是待大臣之事臣旣不敢以相職自居入朝之日曾以司　直肅謝父母推　恩亦不敢陳乞今於寵錫之下獨何可偃然自處以　大臣而冒受也哉至於周急臣旣不足以當朝家待儒臣之禮而鄉居食　土不至於飢餓不能出門戶之境其云周急果有何名耶臣自下鄉以來　即爲懇辭以至經年幸得姑待下敎之　命臣誠感祝　天恩不知死所　其不敢承受自是臣本情非以臺言之故而筵臣未詳曲折乃至誤達　天聽遂至叟有輸送之擧臣於是驚惶抑塞罔知所措也臣又有一端羞　愧之心不能自隱於　天日之下當初入都是臣子所不可已之事而向時臺臣已疑其出處休致之請盖出於一瞻　天顏之計而節次推轉以　至於冒受廩祿臣以三十年避榮辭祿之身因此一行遂爲媒榮冒祿之人此乃自求而得之者回顧初心寧不赧然伏惟　聖上每以漢之嚴光　諭臣而往年臺臣之　批又以一絲褒臣此雖出於　恩遇之隆有此匪　倫之儗而臣則不敢以臣之無似而自棄其身以傷　則哲之明嚴光之　放還也只是使光依舊羊裘釣澤而已豈有身在野外坐享富厚之樂至　於如此哉臣於甲辰以一言而得蒙　聖鑑俯燭即卸議政官銜今於辭　祿之請閱四年而尚此

撕捱豈 聖上體下之仁有異於前後必以臣戀 祿之心猶有所未祛者耳臣尤慚悚措身無地玆敢忘其煩猥畢陳微衷 如此伏乞 聖明俯加哀憐而還收成命不勝幸甚臣無任惶恐屛營之至

答曰省疏具悉卿懇頃於批旨悉諭予意何過讓之至此哉甲辰冬見卿之後倏已四載恩卿之心于今益切矣卿亦豈不恕諒哉此不過因小子 誠淺之致只自愧焉至於月廩尤何過讓卿其須體至意安心勿辭領受 幡然上來 史官尹光運來宣

왕세자의 관례와 가례의 두 예식에 나아가 참석하지 못한 것을 스스로 사죄하며 아울러 간청하는 상소 정미년

엎드려 아뢰옵건대、신이 궁벽한 산골짜기에 엎드려 가만히 생각해 보니、오늘이 바로 우리 춘궁(春宮)1 저하(邸下)께오서 성덕(成德)하시는 좋은 날이 온지라、우리 성상의 자애로우신 마음에 그 기뻐하심이 얼마나 크실까 삼가 생각해 보았사옵니다。무릇 온 나라의 살아 있는 모든 것이 목을 길게 빼고 기다리면서 기쁨에 넘쳐 손뼉치고 뛰지 않음이 없사온데、신은 세 조정의 퇴물로 시골에 병들어 누워 있기에 서울에 급히 나아가 무도(舞蹈)의 의식을 펼치지 못하였사오니、전하의 거처를 우러러 바라봄에 사모하는 지극한 마음을 가눌 길이 없사옵니다。또한 생각해 보니、신이 월름(月廩)2의 일에 대하여 며칠 전 승선(承宣)이 돌아갈 때 간청하는 뜻을 대략 다시 아뢰었사옵니다。대개 월름(月廩)은 조정에서 대신을 우대하는 근래의 예(例)이며、주급(周急)은 지난날에 유현(儒賢)을 예우하던 특별한 은전(恩典)이옵니다。그런데 당초에 조목을 아뢸 때에 해당 관청에서 잘 살피지 않아、결국 불초한 신에게 이 둘을 한꺼번에 내리게 된 것이옵니다。신은 서울에 있을 때 나라의 법전에 기록된 일상 봉록의 반과 달마다 지급되는 주육에 대해서는 받아먹음을 사양하지 않고 성조(聖朝)에서 노신을 은혜롭게 봉양하는 훌륭한 뜻을 받들었사옵니다。그러나 주급에 대해서는 신은 마땅히 함부로 받아서는 안 되기 때문에 상소와 연석(筵席)의 응대에서 누누이 간절하게 사양하였사옵니다。성명께오서 참작하여 결정하신 제급(題給)3을 삼가 받았으나、신은 그때 바야흐로 여저(旅邸)에 있었는지라 은혜롭게 돌봐주시는 은전에 혹 명분이 있는듯하여 신은 더 이상 사양할 수가 없었사옵니다。그런데 하향한 후에 해당 관청에서 품신(稟申)하여 월름과 주급이 현읍으로부터 한꺼번에 송달되었는데、그 수량이 외람되게도 많아 공무를 수행하는 대신의 봉록에 비하여 배가 넘으니、이것은 전연 이치에 닿지 않는 일이옵니다。생각건대 당시에 퇴직하는 신하 중에 일상 봉록을 받지 않은 자가 있었기 때문에 주급으로 그 명목을 개칭했던 것인데、주급이란 것은 바로 특별한 은전으로 그것을 삼등급으로 나눔에 있어 마치 봉록과 같은 요소가 있으므로 이미 이것은 의심할 만하옵니

다。하물며 월름과 더불어 주급을 한꺼번에 받는 것은 조정에서 하사하는 은전에 반드시 이와 같은 법이 없사오니、아마도 해당 관청에서 관리함에 실수하여 그렇게 된 것 같사옵니다。그러므로 신은 전날의 서계(書啓)에서 조정에서 예(例)를 고찰함이 상세하지 못했다고 아뢰었사오며、나중에 한 번 직접 아뢰기를 기다렸사오나 마침 대언(臺言)이 있었는지라 그만 못하고 말았사옵니다。이것은 해당 관청으로 하여금 다시 근거를 고찰하여 뒷날의 법식으로 삼게 하지 않으면 안 되옵니다。그리고 신에 있어서는 두 가지의 은사(恩賜)에 모두 받을 수 없는 뜻이 있사오니、하향한 후에는 조정에서 베푸는 봉록이 마땅히 외지에 있는 신하에게 지급되어서는 아니 되옵니다。만약에 근래의 월름의 예를 적용한다 하더라도 이것은 대신을 대우하는 일이므로、신은 이미 감히 재상의 직책에 스스로 거하지 아니하였으며 조정에 들어갔을 때에도 일찍이 사직(司直)으로서 나아가 사례 드렸고 부모에 대한 추은(推恩)4도 또한 감히 주청한 것이 아니었는데、이제 와서 총사(寵賜)5가 내렸다고 어찌 태연히 대신으로 자처하고서 함부로 받겠사옵니까? 주급에 대해서도 신은 이미 유신(儒臣)을 대우하는 조정의 예(禮)에 해당되기에 부족하오며 시골 거처의 농토가 있어 굶주려 문을 나설 수 없는 지경에까지는 이르지 않사오니、그 주급을 운운함에 과연 무슨 명분이 있겠사옵니까? 신이 하향한 이래로 즉시 간절하게 사양한지 해를 넘기고 나서 다행히 잠시 하교(下敎)를 기다리라는 명을 받고 보니 신은 진실로 천은(天恩)에 감읍하여 죽을 곳을 모르겠사옵니다。감히 받을 수 없는 것은 본래 신의 본심에서 나온 것이며 대언(臺言) 때문이 아니옵니다。연석(筵席)의 신하가 자세한 내용을 모른 탓에 마침내 전하께 잘못 전달되어 다시 송달하라는 조치가 내려졌사오니、신은 이에 놀라움과 당황함에 짓눌려 몸 둘 바를 모르겠사옵니다。신은 또한 일단의 부끄러운 마음이 있어 하늘의 태양 아래에 스스로 숨어 있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당초에 도성에 들어간 것은 신하로서 그만 둘 수 없는 일이 있사옵니다。그런데 지난 번 대신(臺臣)이 그 진퇴(進退)에 있어 늙어서 벼슬을 그만 두겠다는 신의 주청을 이미 의심했던 것은 대개 한 번이라도 전하의 용안을 바라보려 했던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었사온데、절차가 바뀌는 바람에 결국 외람되게도 봉록을 받는 지경에까지 이르고 말았사옵니다。신은 삼십년 동안 영화를 피하고 봉록을 사양해온 몸인데、이 한 번의 행실로 말미암아 마침내 영화를 구하고 봉록을 탐하는 사람이 되고 말았사옵니다。이것은 바로 스스로 구하여 불러들인 것으로、처음에 먹었던 마음을 회고해 봄에 어찌 부끄럽지 않겠사옵니까? 엎드려 생각건대、성상께서는 매번 한(漢)나라의 엄광(嚴光)에다 신을 비유하셨으며 지난 날 대신(臺臣)의 상소에 대한 비답에서도 또한 한결같이 신을 칭찬하였사온데、이것은 비록 융숭하신 은우(恩遇)에서 나온 것이었지만 여기에는 차서(次序)를 무시한 참월됨도 있었사옵니다。그러나 신은 감히 신의 무능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자신을 포기하지 않음으로써 전하의 명철하심을 손상시키고 말았사옵니다。한나라 광무제(光武帝)가 엄광이 돌아가도록 놓아둔

것은 다만、엄광으로 하여금 예전 그대로 양갓 옷을 입고 옷에서 낚시질하도록 했을 뿐이었지、어찌 신과 같이 몸이 들녘에 있으면서 앉아서 부유함을 향유하는 즐거움이 이와 같은 지경에 이르게 했었겠사옵니까? 신은 갑진년(甲辰年)에 한 마디 말씀을 드림으로써 성감(聖鑑)의 굽어 살피심을 받아 곧장 의정(議政)의 관직을 면직 받았사온데、지금 봉록을 사양하는 주청을 한지 이미 四년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이렇게 계속 권하시니、어찌하여 성상께오서 아랫사람을 돌봐 주시는 어지심에 앞뒤로 다름이 있사옵니까? 이것은 틀림없이 봉록을 연연하는 마음을 신이 아직도 떨쳐버리지 못한 탓일 것이온지라、신은 더욱 부끄럽고 송구스러워 몸 둘 곳이 없사옵니다。이에 감히 그 번거롭고 외람됨을 망각한 채 이와 같은 미미한 충심을 다 아뢰었사오니、엎드려 청하옵건대 성명께오서 딱하고 가엽게 여기시어 이미 내리신 명을 도로 거두어 주신다면 정말 다행이겠사옵니다。신은 황공하고 송구스런 마음을 가눌 길이 없사옵니다。

비답 왈:상소문을 살펴보고 경의 간절함을 잘 알았소。지난 번 비지(批旨)에서 나의 뜻을 모두 알렸는데、어찌하여 지나치게 사양함이 이와 같은 지경에 이르렀소?갑진년(甲辰年) 겨울에 경이 귀향한 후로 어느덧 이미 四년이 흘러 경을 생각하는 마음이 지금 더욱 간절한데、경은 어찌하여 양해해 주지 못하는 것이오? 이것은 모름지기 소자(小子)의 정성이 부족한 소치인지라 다만 스스로 부끄러울 뿐이오。월름에 대해서는 또한 어찌하여 더욱 지나치게 사양하시오?경은 모름지기 나의 지극한 뜻을 이해하여 안심하고 사양치 말고 받을 것이며 속히 올라오시오。【사관 윤광운(尹光運)이 와서 고하다。】

註:1。태자(太子)의 궁(宮)、동궁(東宮)
2。월봉(月俸)으로 받는 미곡(米穀)
3。제사(題辭)에 결정을 내리는 일
4。시종(侍從)、병사(兵使)、수사(水使) 등의 아버지로서 나이가 칠십이 넘은 사람에게 정삼품(正三品) 통정대부(通政大夫) 이상의 품계를 올리던 일
5。사랑하여 물품을 하사하는 일 또는 그 물품

辭周急疏 戊申
사주급소

伏以臣伏蒙 聖朝罔極之恩得遂休致之願臣之即今奉職只在朝賀 一事而疾逐年加氣隨日減餘喘凜凜無復人理凡於朝家獻賀之禮一 未進叅呼崇之班而神識迷昧力不能構數行短疏以伸區區扑祝之忱 屛伏窮山日夕俟罪不意 聖眷愈渥又有春等周急之命臣誠驚惶 憫蹙罔知所以措身也臣之力辭月廩周急已及五載前後疏啓不啻累 矣且昨年九月所上疏本備陳臣不敢冒受之實情兼擧該曹考例之謬 誤而未蒙 聖明察納臣不敢叟爲蔓辭以重瀆擾之誅而今吏曹判書 臣李台佐臣之久要詳知臣苦心眞情深加愍惻乃至仰達於黈纊之聽 云臣之非虛辭飾讓之狀

天日之明亦必下燭之矣不受　君賜爲無　禮冒承非分爲無義臣於二者不省所處一心愕愕寢食俱廢詩云母也　天只不諒人只豈以　聖上眷遇微臣夐絶千古而獨此一事未蒙　體　諒至於如此耶玆又冒死陳懇伏乞　聖明憐臣所守之志哀臣將死之　言亟收成命以安微分則臣生當祝華死當結草臣無任誠心懇禱之至

答曰省疏具悉卿懇卿之去國今已五載思卿之心豈嘗日夕少間哉噫　甲辰冬卿之去鄉于今追思益切怪焉然予於卿雖誠淺若此以卿平日　體國之誠豈不欲雯一見予乎頃聞吏判陳達欲爲別諭而未果矣卿疏　先上此亦小子之誠淺矣不腆周急不宜過辭而卿意若此予若一見卿面則雯何持難乎特遣承宣罄悉心腹卿其體小子之至意因此春和幡然上來用副小子之誠　承旨權益

淳來宣三月十二日夜聞賊變即發十三日暮抵城外翌朝承批

주급을 사양하는 상소　무신년

엎드려 아뢰옵건대、신은 성조(聖朝)의 망극한 은총을 받아 마침내 벼슬을 그만두는 바람을 이루었사옵니다。신이 지금 받들어 행할 수 있는 직무는 다만 조정에 들어가 하례 드리는 한 가지 일뿐 이온데、병이 해마다 깊어지고 기력이 따라서 날로 감소하여 남아있는 목숨이 금방이라도 끊어질 듯하기 때문에 무릇 조정에서 하례 드리는 예(禮)에 있어 송축하는 반열에 나아가 참석한 적이 한 번도 없었사오며、정신이 혼미하여 몇 줄 안 되는 짧은 소장(疏章)을 엮어 손뼉 치며 축하드리는 구구한 정성을 펼칠 힘이 없었사옵니다。궁벽한 산골짜기에 엎드려 밤낮으로 죄를 기다리던 중에、뜻밖에도 전하의 돌봐주심이 더욱 두터워져서 춘등(春等)의 주급의 명이 계시온지라、신은 진실로 놀라움과 당황함으로 민망하여 몸 둘 바를 모르겠사옵니다。신이 월름과 주급을 힘써 사양한 지가 이미 五년이나 되어、계속해서 상소를 올려 아뢴 것이 한두 번 뿐만이 아니었사옵니다。또한 작년 九월에 올린 상소에서는 신이 감히 함부로 받을 수 없는 실정을 갖추어 아뢰었사오며、아울러 해당 관청에서 예(例)를 고찰한 것에 오류가 있었음을 거론하였사오나、성명의 가납하심을 받지 못하였사옵니다。신은 감히 더 이상 번거로운 소장을 지어 성상을 모독하고 어지럽게 하는 죄를 가중시킬 수가 없었사온데、신의 오랜 동료인 지금의 이조판서(吏曹判書) 신 이대좌(李台佐)가 신의 고충을 잘 알고 있어서 진정으로 깊이 측은하게 여겨 마침내 지엄하신 전하께 우러러 아뢰었다 하옵니다。헛된 말로 겉치레의 사양을 하는 것이 아닌 신의 실상을 하늘의 태양과 같은 전하의 밝으심으로 또한 반드시 잘 알고 계실 것이옵니다。임금의 하사하심을 받지 않는 것은 예(禮)가 없는 일이며 분수가 아닌데도 함부로 받는 것은 의(義)가 없는 일 이온지라、신은 두 가지 경우에 있어 어디에 처해야 할지를 몰라 마음 가득히

걱정이 되어 침식을 전폐하였사옵니다。『시경(詩經)』에 이르길、「母也天只、不諒人只(모야천지 불량인지)1」라고 하였사옵니다。어찌하여 성상께오서 미천한 신을 보살펴 주심이 천고(千古)에 현격하시면서도、오직 이 한 가지 일에 대해서만은 깊이 헤아려주지 않으심이 이와 같은 지경에 이르렀사옵니까? 이에 다시 죽음을 무릅쓰고 간절함을 아뢰옵니다。엎드려 청하옵건대 성명께오서 신이 지키는 바의 뜻을 가엽게 여기시고 장차 죽음에 임박한 신의 말을 불쌍히 여기시어、속히 이미 내리신 명을 거두심으로써 미천한 분수를 편안케 해주신다면、신은 살아서는 마땅히 전하의 영화를 축원할 것이며 죽어서는 마땅히 결초보은할 것이옵니다。신은 성심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을 가눌 길이 없사옵니다。

비답 왈:: 상소문을 살펴보고 경의 간절함을 잘 알았소。경이 나라를 떠난 지 지금 이미 다섯 해가 지났으나、경을 생각하는 마음을 어찌 일찍이 밤낮으로 조금이라도 늦추었겠소? 아! 갑진년 겨울에 경이 고향으로 떠났으나、지금에 와서 지난 일이 더욱 간절하게 떠오르니 이상한 일이오。그러나 내가 경에 대하여 비록 정성이 부족함이 이와 같으나、평소에 나라를 염려하는 경의 성심으로 보아 어찌 다시 한 번 나를 보고 싶지가 않겠소? 지난번에 이조판서의 주청을 듣고 별유(別諭)를 내리려고 했으나 행하지 못하였는데、경의 상소가 먼저 올라 왔으니 이것 또한 소자(小子)의 정성이 부족한 탓이오。많지도 않은 주급을 지나치게 사양하는 것이 마땅하지는 않으나 경의 뜻이 이와 같으니、내가 만약에 경의 얼굴을 한 번 본다면 더 이상 어찌 일을 미루기만 하겠소? 특별히 승선(承宣)을 보내 나의 진심을 다 전하노니 경은 소자의 지극한 뜻을 헤아려 주시오。요즈음 봄날이 따뜻하니 속히 올라와 소자의 정성에 부응하도록 하시오。【승지 권익순(權益淳)이 와서 고하다。三월十二일 밤에 적당(賊黨)의 변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즉시 떠나 十三일 저녁에 도성 밖에 도착했다가 다음 날 아침에 비지(批旨)를 받음。】

註:: 1。어머님은 하늘이시니、어이 남의 마음을 모르시나이까

勘勳時違召命進伏金吾
감훈시위소명진복금오

門外待罪疏 四月二十日
문외대죄소

伏以臣於意外伏承 召命未知緣何故而 召臣蒼黃來伏闕外始聞以勘勳事 命召臣以三十年屛居之蹤七十九垂死之身得蒙 聖恩休致已久凡於朝政無所預聞今於勘勳一事尤何可有所叅涉玆敢退伏於金吾之外以俟慢命之誅臣罪萬死萬死

答曰省疏具悉卿懇今番招原任大臣也卿在城內故因政院稟達使之一體命招矣今觀卿疏何過讓之至此哉然卿辭如此卽令政院勿爲命招卿其安心勿待命焉

史官李裕身來宣

공훈을 책정할 때 소명을 어겼으므로 금오(의금부)의 문 밖에 나아가 엎드려 죄를 기다리는 상소 四월二十일

엎드려 아뢰옵건대, 신은 뜻밖에 소명(召命)을 삼가 받잡고서 무슨 이유 때문에 부르신 것인지를 알고자, 신은 황급히 나아가 궐밖에 엎드리고서야 비로소 공훈을 책정하는 일로 소명을 내리셨다는 것을 알았사옵니다。신은 삼십 년 동안 자취를 숨기고 거하여 일흔 아홉의 죽음에 임박한 몸으로 성은(聖恩)을 입어 벼슬을 그만 둔지가 이미 오래되었는지라, 무릇 조정에 있어 관여한 바가 없었으므로, 지금 공훈을 책정하는 한 가지 일에 대해서 더욱 어찌 참여하여 간섭할 바가 있겠사옵니까? 이에 감히 물러나 금오(金吾)의 밖에 엎드려 어명을 어긴 죄를 기다리오니, 신의 죄는 만 번 죽어 또 만 번 죽어 마땅하옵니다。

비답 왈 : 상소문을 살펴보고 경의 간절함을 잘 알았소。이번에 부른 것은 원래 대신의 임무인데, 경이 도성 안에 있기 때문에 정원(政院 : 승정원(承政院)의 약칭)에서 품계(稟啓)하였으므로 함께 부르라고 명한 것이었소。지금 경의 상소를 보니 어찌하여 지나치게 사양함이 여기에 이르렀는가? 그러나 경의 사양함이 이와 같으니 즉시 승정원에 명하여 소명을 거두라 하겠소。경은 안심하고 명을 기다리지 마시오。【사관 이유신(李裕身)이 와서 고하다。】

謝書下四字御筆又
사서하사자어필우

降備忘褒諭疏 二十三日禮官李濰來宣御筆卽日呈疏
강비망포유소

伏以臣於朝者伏承禮官下傳 御筆四字繼而伏見十行綸綍臣手 奉感泣一身無措昔燕昭王築金臺以奉郭隗隗未必賢也而能致樂劇 之繼至今臣所蒙雖甚曠絶豈爲一人之私榮寀聳千萬世之觀瞻臣非 敢自以爲可堪而第當沒身瞻仰銘心刻勵以無負我 聖上知遇之恩 焉禮當進詣闕庭以謝 恩造而昨日罷班之後卽登筵席歸家昏倒氣 息奄奄萬無動身之望徐當俟得淸燕之暇一近 天陛以伸區區之忧 焉臣無任惶恐俟罪之至

答曰省疏具悉卿懇今慈手書四字與特諭乃昨일筵席下敎之意卿何 謝焉卿其安心善養竢間出入用副至意

넉 자의 어필을 써주신 것과 비망을 내려 칭찬해주신 것에 감사드리는 상소 二十三일 예관이 유가 와서 어필을 전함에 그날로 즉시 상소를 올림。

엎드려 아뢰옵건대, 신은 아침에 예관(禮官)이 전한 넉

자의 어필(御筆)을 삼가 받았사오며 이어서 열 줄의 윤발(綸綍)1를 삼가 보고서, 신은 손으로 받든 채 감읍하여 몸 둘 바를 몰랐사옵니다。옛날에 연(燕)나라 소왕(昭王)이 금대(金臺)를 지어 곽외(廓隗)를 받들었는데, 곽외는 반드시 뛰어나지는 못하였으나 능히 악의(樂毅)와 극신(劇辛)같은 현자를 계속 불러 올 수 있었사옵니다。

지금 신이 받은 바는 비록 그것과 큰 차이가 있지만 어찌 한 사람만의 사사로운 영광이겠사옵니까? 진실로 천만 세토록 우뚝 솟아 바라보이는 것이므로, 신은 감히 스스로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지는 않사오나, 다만 마땅히 종신토록 우러러 바라보고 가슴에 새겨 힘써 노력함으로써, 우리 성상께오서 신을 인정하고 대우해 주시는 은혜를 저버리지 않으려 하옵니다。예의상 마땅히 대궐에 나아가 성은에 감사드려야 하오나, 며칠 전 조회를 끝낸 후에 곧장 연석(筵席)에 참석하였다가 집에 돌아와 혼절하여 호흡이 끊어질 듯 하였사온 바 전연 몸을 움직일 가망이 없었사옵니다。그래서 한적하고 편안한 틈을 천천히 기다렸다가 어전에 한번 가까이 나아가 구구한 정성을 펼치려 하옵니다。신은 황공스럽고 죄를 기다리는 마음을 가눌 길이 없사옵니다。

비답 왈 : 상소문을 살펴보고 경의 간절함을 잘 알았소。이번에 손수 네 글자와 특유(特諭)를 쓴 것은 바로 며칠 전 연석(筵席)에서 하교한 뜻이었는데, 경은 무슨 감사를 한 단 말이오? 경은 안심하고 몸을 잘 보양하였다가, 낫기를 기다려 대궐을 출입하면서 나의 지극한 뜻에 부응하도록 하시오。

註 : 1。임금의 말씀 륜지(綸旨)

救民策會議時達 召引罪疏
구민책회의시달 소인죄소

伏以大難纔平餘虞尙多善後之策莫大於保民之政臣於朝者伏見 聖敎慈詳惻怛之心愍急焦躁之慮溢於言辭之表 殿下於此知所先 務凡在瞻聆孰不感泣臣於此際亦被命召之旨雖昏無知識豈不欲趨 走承命以答求助之盛意而自日昨詣闕之時猝得腰痛之証跬步不 能自運未免坐違嚴召老臣事君之體自別而臣首犯逋慢之誅爲後輩 口實罪尤萬死仍念今日救民寔無其策欲作新法制則變亂之餘易致 騷擾欲蠲減租賦則非但無儲惠亦不長惟有愼擇守令最爲切要若守 令得其人則於見今法度之中可以隨事方便害不及民雖知人爲難八 道三百餘郡邑難以盡擇然審愼差除責銓曹嚴明黜陟責道臣 殿下亦宜考察治否論其賞罰君臣上下一以此爲務則雖不中不遠矣此西漢所以得小康之治者也若小小變通或不無新奇可喜之說恐不足以 行之於久長也臣之此言雖是陳談惟在力行之如何耳伏願 聖明留 神焉臣無任惶恐俟

罪之至
答曰省疏具悉卿懇疏中所陳誠甚切宋深用感歎有疾未赴其何傷焉安心勿辭從容善攝焉

구민책을 회의할 때 소명을 어긴 것을 스스로 사죄하는 상소

엎드려 아뢰옵건대, 큰 변난이 겨우 진정되었으나 남은 근심이 아직도 많사오니, 뒷일을 잘 수습하는 정책은 백성을 보호하는 정치보다 큰 것이 없사옵니다。 신은 아침에 성교(聖敎)를 삼가 받았사온데, 자상하고 측은해 하시는 마음과 다급하고 초조해 하시는 염려가 말씀 가운데 흘러 넘쳐 오는지라, 전하께오서는 이러한 상황에 있어 가장 먼저 힘써야 할 바를 알고 계시오니, 무릇 눈과 귀가 달린 것이라면 무엇인들 감읍하지 않겠사옵니까? 신은 이러한 때에 또한 소명(召命)이 담긴 교지를 받았사오니, 비록 사리에 어두워 식견이 없긴 하지만 어찌 급히 달려가 명을 받들어 백성을 구제하시려는 훌륭한 뜻에 보답하고 싶지가 않겠사옵니까? 그러나 며칠 전에 대궐에 나아갔을 때, 갑자기 허리가 아픈 증상이 일어나 촌보(寸步)도 스스로 움직일 수가 없어서 앉은 채로 지엄하신 소명을 어김을 면치 못하게 되었사옵니다。 노신이 임금을 섬기는 일은 스스로 각별해야 하온데, 신은 맨 먼저 어명을 태만히 여긴 죄를 범하여 후배들의 비난을 받게 되었으니 그 죄는 더욱 만 번 죽어 마땅하옵니다。 또한 생각건대 오늘날 백성을 구제함에 있어 진실로 그 묘책이 없사오니 새로운 법률을 만들려고 한다면 변란의 여파로 인하여 소요를 불러들이기 십상이오며, 조세를 탕감하려 한다면 혜택을 크게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또한 오래 가지도 못할 것이옵니다。 오직 수령(守令)을 신중하게 뽑는 것만이 가장 절실하고 긴요하옵니다。 만약에 수령으로서의 적임자를 얻게 된다면, 지금의 법도 안에서 보더라도 일에 따른 방편에 있어 그 해가 백성들에게 미치지 않을 것이옵니다。 비록 사람을 감식하는 일이 어렵고 팔도의 삼백여 군읍을 모두 다 가려 뽑기가 어렵긴 하지만, 신중하게 살펴 임명하는 일은 전조(銓曹)1에 책임지우고 엄격하게 밝혀 출척(黜陟)2하는 일은 도신(道臣)3에게 책임지우며, 전하께오서도 또한 잘 다스리는지의 여부를 살피시어 그 상벌을 논함으로써 군신상하가 한결같이 여기에 힘을 쓴다면, 비록 딱 들어맞지는 않는다 해도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이옵니다。 이것이 바로 서한(西漢)이 난리 후에 태평을 찾았던 다스림이었사옵니다。 진실로 사소한 임시변통에도 간혹 새롭고 기뻐할 만한 주장이 없는 것은 아니오나, 아마도 오랫동안 시행하기에는 부족할 것이옵니다。 신의 이러한 주장이 비록 말로 진술한 것이긴 하지만, 그 성공은 힘써 행하는 여부에 달렸사오니, 엎드려 원하옵건대 성명께오서 유념해 주시옵소서。 신은 황공스럽고 죄를 기다리는 마음을 가눌 길이 없사옵니다。

비답 왈: 상소문을 살펴보고 경의 간절함을 잘 알았소。 상소 중에 아뢴 바가 진실로 매우 절실한 것이어서 깊이 감탄하였소。 병이 들어 나아오지 못하였으니 심히 마음이

아프오。안심하고 사양하지 말 것이며 느긋하게 몸조리를 잘 하시오。

註: 1。문무관(文武官)을 전형하는 이조(吏曹)와 병조(兵曹)의 통칭
2。공이 없는 사람을 내어 쫓고 공이 있는 사람을 올려 쓰는일
3。관찰사(觀察使)의 별칭

告歸疏 六月二十九日 御筆奉安後即呈
고귀소

伏以臣幸及皈依於 君父之側得免蹂躪於兵塵之間此莫非 王靈 攸暨而不意千古之曠典乃有四字之旌褒臣始焉感涕終而愧汗不 知所以自措也兵戈旣定之後宜即返身畎畝以無負 聖上知遇之恩 而御筆刊奉之前臣不宜離次一入城哀奄及四朔心燥氣鬱百病交 生若不能須臾盖緣三十年在外習性變易譬如山禽野獸志在林藪樊 籠之養不能以爲樂而適足以傷生今也事役旣畢不耐久留玆敢以短 疏告皈而前日帳殿入侍伏蒙聖慈愍臣之觸冒暑熱勉留勤摯矣今雖 老炎未退若得出居郊外數旬舒暢稍待凉生始乃作行則庶不至仰貽 聖慮伏乞 聖明許臣退皈俾不至有狂易喪性之憂則臣生當祝華死 當結草臣無任涕泣懇禱之至

答曰頃者入侍時豈不云歟方尋鄉路則豈不見小子而行乎宋非所望 於平日者也今觀史官書啓前日曲盡待鄉之意徒皈不相孚矣今猶如 此他日頻頻上來其可望乎卿其須體至意聽予面諭作行 同日承旨趙命來宣

돌아갈 것을 고하는 상소 六월二十九일에 어필을 봉안한 후 즉시 올림

엎드려 아뢰옵건대、신은 다행히 군부(君父)의 옆에 귀의하여 병난(兵難) 중에서 유린당함을 면할 수 있었사오니、이것은 임금의 영험함이 미치지 않는 바가 없기 때문이옵니다。그런데 뜻밖에 천고의 넓으신 은전으로 넉 자의 정포(旌褒)1를 내리시니、신은 처음에는 감격하여 눈물을 흘렸으나 나중에는 부끄러움에 땀이 흘러 스스로 몸 둘 바를 몰랐사옵니다。병난이 이미 평정된 후에 마땅히 즉시 시골로 돌아가 신을 인정하여 대우해 주시는 성상의 은혜를 저버리지 말았어야 했사오나、어필을 봉안하기 전에는 신이 마땅히 거처를 떠나서는 안 되었사옵니다。한 번 도성에 들어왔다가 어느덧 넉 달이나 되었사온데、마음이 조급해지고 기분이 울적해져서 온갖 병이 번갈아 생겨 마치 목숨이 잠시를 넘길 수 없을 것 같았사옵니다。이것은 대개 삼십 년 동안이나 시골에 있어서 습성이 바뀌었기 때문이오니、비유하자면 산이나 들녘의 금수는 숲 풀에 뜻을 두고 있으므로 울타리 안에서 길러지는 것이 즐거울 수가 없어서 목숨을 해치기가 십상인 것과 같사옵니다。지금 해야 할 일도 이

미 끝났고 오랫동안 참고 머무를 수도 없는지라, 이에 감히 짤막한 상소를 올려 돌아 갈 것을 고하옵니다。지난 번 장전(帳殿)2에 들어가 뵈올 적에、인자하신 성상께오서 신이 더위를 무릅쓸 것을 걱정하시어 머물러 있으라고 권하심이 매우 도탑고 진지했사옵니다。지금 비록 늦더위가 아직 물러가지는 않았사오나、만약에 교외에 나가 거하면서 몇 순(旬)을 마음 편하게 보낸 후 서늘해지기를 잠시 기다렸다가 비로소 이에 떠난다면、아마도 우러러 성상께 심려를 끼치지는 않을 것이옵니다。엎드려 청하옵건대 성명께오서 신이 물러나 돌아가도록 허락하심으로써 미쳐서 본성을 잃어버리는 근심에 이르지 않게 해주신다면、신은 살아서는 마땅히 전하의 영화를 축원할 것이오며 죽어서는 마땅히 결초보은할 것이옵니다。신은 눈물을 흘리며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을 가눌 길이 없사옵니다。

비답 왈：지난 번 들어와 만났을 때 어찌 말하지 않았소？바야흐로 고향 길을 찾아 나서면서 어찌 소자를 만나지도 않고 떠나려 하오？진실로 평소에 바라던 바가 아니오。지금 사관의 서계(書啓)를 살펴보니 전날에도 귀향하겠다는 뜻을 곡진하게 아뢰 놓고는 홀쩍 돌아가 버려 서로 믿지를 못했었는데、지금 오히려 이와 같으니 훗날에 자주 올라오리란 것을 어찌 바랄 수 있겠소？경은 모름지기 지극한 뜻을 헤아려 내가 만나서 전하는 말을 듣고 떠나도록 하시오。【[같은 날에 승지 조명(趙命)이 와서 전하다。]】

註：1。선행이나 공적을 칭송함。정상(旌賞)
2。임시로 마련한 어좌(御座)

謝 降御札賜御膳及柴炭疏 七月 三十日

사 강어찰사어선급시탄소

御札疎凉城外豈若京邸十束竈木雨馱完炭先遣京邸體此至意入處　調養仍賜追鰒湯問卿安否伏以臣於日昨伏蒙　聖慈愍念微臣　手　書問疾掖隷臨門且命輸送柴炭以禦疎冷又　賜珍鰒以調病口此　是前古所罕有之　恩例臣百拜祗受不覺感淚盈襟莫知死所然而顧　念臣向日書啓中陳懇則缺望亦甚矣自恨微誠未格徊徨踖蹜不知所　以自措也臣於前後　諭旨俱承入京調養之敎而臣本家近來屢經喪　故又於今夏臣出嫁曾孫女來留未久死於拘忌之疾靳葬屬耳在京家　屬亦皆出避不得還入臣室無聊賴之地不得承　命出於事勢之不得　已而且臣每於退皈之時必以旣退之身不可死於輦下陳達今當臨死　之時豈可遽忘前言哉臣習靜多年不耐城市之煩鬧數旬留滯百病添　加而目今寒節已屆臣之氣力又不堪再擧登程姑欲就一區靜僻處賃　室移居以爲過冬之計近則江上遠不過江外一城內外一江南北在朝　家顧恤之意無甚關緊而在臣病謂養之道則逈然不同伏惟　聖慈察　此情理特許任便居住無復拘檢則臣當安意入地

以圖結草之報矣經 營屢日始構短疏而神思迷惘語無倫次臣尤悚仄臣無任瞻望象魏泣 涕懇禱之至

答曰省疏具悉卿懇聞卿來到城外心甚欣慰而齟齬城外不若京邸故 有所書諭矣旣聞事勢今觀卿疏叟何強哉卿其安心善養待氣力之稍 懃之至

어찰을 내려 주시고 어선과 땔나무·숯을 하사하심에 사례 드리는 상소 七월十일

어찰(御札):「쌀쌀한 성 밖이 어찌 경저(京邸)만 하겠소。열 묶음의 땔나무와 두 수레의 숯을 먼저 경저에 보내니、이러한 지극한 뜻을 헤아리고 들어와 거하면서 몸조리를 하시오。아울러 전복탕을 내리어 보내면서 경의 안부를 묻는 바이오。」

엎드려 아뢰옵건대、신은 며칠 전에 인자하신 성상께오서 미천한 신을 염려하심을 삼가 받았사온데、병세를 물으신 어찰을 받들고 액례(掖隷)가 문에 당도하였사오며、또한 땔나무와 숯을 송달하여 쌀쌀한 냉기를 막도록 명하시고 다시 진귀한 전복을 하사하시어 병든 입을 구완케 하시니、이것은 전고(前古)에 있기 드문 은전의 예(例)이옵니다。이에 신은 백 번 절하고 삼가 받았사온데、신도 모르게 감격의 눈물이 옷깃을 적시어 죽을 곳을 알지 못하였사옵니다。그러나 돌이켜 생각해 보니、신이 지난번에 올린 서계(書啓)에서 간절함을 아뢰었사오나 소망에 어긋남이 또한 심한지라、미천한 정성이 전하께 이르지 못했음을 스스로 한탄하여 배회하고 서성이면서 스스로 몸 둘 바를 몰랐사옵니다。신은 전후의 유지(諭旨)에 대하여 서울에 들어와 몸을 보양하라는 하교를 모두 받들었사옵니다。그런데 신의 본가(本家)에서 근래에 상사(喪事)를 여러 번 겪었사온데、다시 금년 여름에 신의 출가한 증손녀가 와서 머무른지 얼마 되지 않아 꺼려하는 병에 걸려 죽었사옵니다。장례를 치러야 하는데 서울에 있는 가속(家屬)이 또한 모두 병을 피하여 나갔다가 미처 돌아오지 못하였으므로 신은 진실로 안심하고 의지할 곳이 없었사오니、신이 명을 받들지 못한 것은 일의 형편이 부득이 했던 탓이옵니다。또한 신은 매번 물러나 돌아갈 때마다 반드시 「이미 퇴직한 몸이므로 대궐에서 죽을 수는 없다。」는 주청을 하였사오니、지금 죽음에 임박한 때를 당하여 어찌 전에 한 말을 문득 잊을 수 있겠사옵니까? 신은 다년간 조용함에 익숙해져 있었던 터라 성시(城市)의 시끌벅적함을 참아내지 못하여 몇 순(旬)을 머무르는 동안 온갖 병이 겹쳤사오며、지금 추운 계절이 이미 닥침에 신의 기력으로는 다시 여정에 오르는 것을 감당할 수가 없사오므로、잠시 조용하고 외진 곳으로 가서 집을 빌려 이사하여 겨울을 지낼 생각을 하였사옵니다。가까이는 강가이고 멀어도 강 밖을 벗어나지 않으며、온 도성의 안팎으로 하나의 강이 남북으로 흐르옵니다。불쌍히 여겨 돌봐주시는 조정의 뜻에는 그다지 관계가 없사오나、신의 병에 있어 몸을 보양하는 방법은 현격히 다르옵니다。엎드려 생각건대、자애로우신 성상께오서 이러한 사정을 살피시어 편한 대로 거

주하도록 특별히 허락하시고 더 이상의 구속이 없다면, 신은 마땅히 편안한 마음으로 땅에 들어가 결초보은을 도모할 것이옵니다.

며칠 동안 계획대로 일을 시행하다가 비로소 짧은 상소를 엮었사오나, 정신과 생각이 혼미하여 말에 차서가 없사오니 신은 더욱 송구스럽사옵니다. 신은 궐문을 우러러 바라보면서 눈물 흘리며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을 가눌 길이 없사옵니다.

비답 왈 : 상소문을 살펴보고 경의 간절함을 잘 알았소. 경이 와서 성 밖에 이르렀다는 소식을 듣고 마음이 매우 기쁘고 위안이 되었으나, 불편한 성 밖이 경저만 못하므로 이에 서찰을 써서 일렀던 것이오. 그러나 이미 일의 형편을 듣고 지금 경의 상소를 보니 다시 어찌 무리하게 권하리오? 경은 안심하고 몸조리를 잘하여 기력이 조금 나아지기를 기다렸다가, 들어와 나를 만나 은근한 마음에 부응하도록 하시오.

以未得應 旨撰進冊子引罪仍陳戒疏

이미득응 지찬진책자인죄잉진계소

伏以臣伏蒙 聖上愍覆之恩一息尚今支延諸般痛苦之勢雖似稍減而只是爲年歲所壓四肢不屬自己喘急日以益甚凜凜如下山之日終無復回之理臣之所自悲者十載 殊遇千古無兩而來住近京之地將不得一瞻威顔而死瞻望象魏日夕涕泣不意 聖明因廷臣疏辭令諸大臣以常日心上之經綸卽今民間之疾苦作爲冊子書進一通而病臣亦與於其中臣於是誠感激 聖明奮發求治之至意而臣稟性昏愚 本無才識中罹奇疾以忘之一字爲治病之藥石凡於一切世務未嘗經 心此意曾於甲辰初見 君父之日旣已悉陳矣今去甲辰已十年知覺 亦已耗盡私家凡百亦不了了而加以今年疾疹綿廷至於今日者乎雖 欲杜撰勞蒐仰塞明旨茫然不知所以爲辭臣之負國至此而益甚矣不勝俟罪萬萬然有一說焉典誥謨訓載於經治亂興亡著於史從古求治 之道舍此二者而奚以哉十年筵席 殿下之講經史者旣已遍矣而凡 於政令施措之間未聞有一分寔效此則 殿下體行之有未至矣臣於 前後或以除去文具以寔心行寔事或以治不在多言顧力行如何爲言 者良以此也惟願聖明更加留意焉今此冊子書進之 命雖新於耳目 殿下於經史旣不能得力如此則今於諸臣所進恐難以有補於治化若 然則此事亦爲文具之皈臣竊悶焉臣無任惶恐俟罪之至

答曰省疏具悉卿懇今觀卿疏往者所患已爲勿藥心甚欣喜而咫尺江 郊尚未一見缺然曷諭疏中所陳辭雖

簡而勉戒切寔深用感歎而不覺 歉然可不惕然而服膺焉卿須益加安心善養副予至意 史官曺允濟來宣

책자를 찬하여 올리라는 교지에 응하지 못한 것을 스스로 사죄하며 아울러 경계함을 아뢰는 상소

엎드려 아뢰옵건대, 신은 불쌍히 여겨주시는 전하의 은혜를 삼가 입고 한 가닥 목숨이 지금까지 연장되어 제반의 고통스런 형세가 비록 조금 덜어진 것 같지만, 다만 나이에 짓눌리어 사지가 자신에게 붙어있지 않는 듯 하고 호흡의 가파짐이 날로 더욱 심해져서, 그 두터움이 산을 내려오는 때와 같은지라 결국 회복할 가망이 없을 것이옵니다。신이 스스로 슬퍼하는 바는 십 년 동안 남다른 은우(恩遇)를 받음이 천고에 둘도 없을 정도인데 서울에 가까운 곳에 거주하면서도 장차 위엄스런 용안을 한 번 바라보지 못한 채로 죽는 것이오니, 궐문을 우러러 바라보며 밤낮으로 울고 있사옵니다。그런데 뜻밖에도 성명께오서 조정 신하의 상소로 말미암아 대신들에게 명하시어 평소에 마음먹고 있던 경륜을 바탕으로 오늘날 민간의 질고(疾苦)를 책자로 만들어 한 통씩 서면으로 올리라 했사온데, 병든 신이 또한 그 가운데에 들어 있어서 신은 진실로 분발하여 구제하시려는 성명의 지극하신 뜻에 감격하였사옵니다。신은 품성이 사리에 어둡고 우둔하여 본래 재주와 식견이 없었으며, 중간에 심한 병까지 들어 「망(忘)」이라는 이 한 글자를 가지고 병을 치료하는 약과 침으로 삼아 무릇 일체의 세상일에 일찍이 마음쓰지 않았사옵니다。이러한 뜻은 일찍이 갑진년(甲辰年)에 군부(君父)를 처음 뵈올 적에 이미 자세히 말씀드렸사옵니다。지금 갑진년에서 멀어진지 이미 십 년이나 되어 지식이 또한 이미 다 바닥났고 사가(私家)의 모든 일도 또한 분명치가 않으며, 게다가 금년에는 질병이 끊이질 않고 이어져 오늘에까지 이르고 보니, 비록 민간의 일을 책으로 엮어 명철하신 뜻에 우러러 답하고는 싶지만 아득하여 무슨 말씀을 드려야 하올지 모르겠사옵니다。신이 나라를 저버림이 여기에 이르러서 더욱 심하오니 죄를 기다리는 마음을 전연 이기지 못하겠사옵니다。그러나 한 가지 말씀이 있사옵니다。고대 제왕이 만든 법규는 경서에 실려 있고 치란(治亂)과 흥망은 사서(史書)에 기록되어 있사오니, 옛 부터 다스림을 구하는 길은 이 두 가지를 버리고서 무엇으로 할 수 있겠사옵니까? 십 년 동안 연석(筵席)에서 전하께오서 경사(經史)를 강독하심이 이미 두루 미쳤사오나, 무릇 정치 명령을 베풀어 시행하는 사이에 아직 조금도 실효를 거두지 못하였사오니, 이것은 전하께오서 몸소 실천하심에 미진함이 있기 때문이옵니다。신이 전후로 어떤 때는 형식을 제거하시고 진정한 마음으로 실질적인 일을 행하시라고 말씀드리기도 하고, 어떤 때는 다스림이란 많은 말에 있지 않으니 어떻게 힘써 행할 수 있는지를 돌아보시라고 말씀드리기도 한 것은 진실로 이것 때문이었사옵니다。오직 원하옵건대 성명께오서는 이점을 더욱 유념해 주시옵소서。지금 책자를 지어 올리라는 이러한 명이 비록 이목(耳目)에 참신

하긴 하지만 전하께오서 경사(經史)에 대하여 깊이 깨달아 힘을 얻지 못하심이 이미 이와 같사오니, 지금 여러 신하들이 올리는 바로서는 아마도 정치교화에 보탬이 있기 어려울 것이옵니다。만약에 그러하다면 이러한 일이 또한 형식에 그치고 말 것 이온지라 신은 마음속으로 민망하옵니다。신은 황공스럽고 죄를 기다리는 마음을 가눌 길이 없사옵니다。

비답 왈：상소문을 살펴보고 경의 간절함을 잘 알았소。지금 경의 상소를 보니 지난날의 병환에 대해서는 이미 약을 먹지 않는다고 하니 마음이 매우 기쁘오。

그러나 한강 교외의 지척에 있는데도 아직 한 번 만나보지 못하니 그 허전함을 어찌 말하지 않으리오。상소 중에 아뢴 것은 말은 비록 간략하지만 경계하라고 권한 것은 절실하여 이로써 심히 감탄하였소。나도 모르게 부족함을 느끼었으니 두려워하면서 가슴속에 새겨두지 않아도 되오。경은 모름지기 더욱 마음을 편하게 먹고 몸조리를 잘하여 나의 지극한 뜻에 부응하도록 하시오。【사관 조윤제(曺允濟)가 와서 전하다。】

辭周急疏
사주급소

伏以臣於日昨伏見戶曹關文不意周急之　命復加於微臣此是曾前　定式之事該曹想必有擧行文書而今乃如此臣誠愕貽不得不略陳顚　末焉臣以負國逋臣獲罪　先朝朝廷雖不加罪臣之處義豈敢自同無　辜比列恒人枯槁窮山乃分之宜非敢有毫分戀祿之意而甲辰赴京之　日猥蒙　聖上罔極之恩待遇之隆夐絶千古至有儗服入朝之　命臣　不勝感激欲開自進之路猥有休致之請而　聖明快賜允許臣旣自請　且又肅　命則國典所載一半常祿似無可辭之義故受食而不辭至於　周急臣之疏陳筵對畢暴不可受之意得蒙　聖明俯燭問于大臣而有　叅酌除給之命臣瀆擾爲懼不敢褻辭此盖當初辭受曲折也及其下鄕　之後月廩周急之　命交下於縣邑而臣一切不敢祗受五載撕捱以至　戊申己酉春初臣入對前席又暴懇迫之情而未蒙允許則臣不得已乃　以就常祿中稍減其數名以月廩而題給則臣當承　命之意仰達而退　矣其年夏間自　上詢問于今判府事臣李台佐不復周急而以四品之祿定爲月廩之數行之已及五載矣今以近京之故復有周急之　命臣　之廉義豈有冒受之理而　聖上當初體下之仁亦豈不皈於虛套哉臣　之離次盖欲皈死於親屬所會之處而至今不生不死進退無據蹤跡狼狽而所幸者上則依仰　君父頻承起居下則父子兄弟叔侄孫曾相守度日此爲三十餘年所未得之事而寓室亦

復涔寂宜於調病前頭若無 難俛事勢則亦欲仍留此地以終危喘矣今此近京之後乃有此等節拍 旣罷之典還又復舊臣之此來適足爲終南捷徑之皈逃遁不得欲死無 地伏乞 聖明察臣哀懇卽賜還收以慰垂死之身臣無任攢手祈祝之至

答曰省疏具悉卿懇卿辭若此已有前許豈不安于卿心其令該曹依李 判府事所達擧行卿須安心焉

史官成範錫來宣

주급을 사양하는 상소

엎드려 아뢰옵건대、신이 며칠 전에 호조(戶曹)의 공문을 삼가 보았사온데、뜻밖에도 주급의 명이 다시 미천한 신에게 내려졌사옵니다。이것은 일찍이 이미 정해진 법식이 있는 일로써 해당 관청에 틀림없이 거행한 문서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옵니다만 지금 여전히 이와 같으니、신은 진실로 놀라움을 금치 못하여 그 전말을 대강 아뢰지 않을 수가 없사옵니다。신은 나라를 저버리고 도망간 신하로서 선조(先朝)에 죄를 지었사온지라、조정에서 비록 벌을 내리지는 않았지만 신이 도의를 실천함에 있어 어찌 감히 스스로 죄가 없다고 여기고서 일반사람들과 나란히 설 수 있겠사옵니까? 메마르고 궁벽한 산골짜기에 거하는 것이 바로 분수에 마땅하다고 여겨 감히 조금이라도 봉록을 연연하는 뜻을 갖지 않았사옵니다。그런데 갑진년(甲辰年)에 서울에 나아갔을 때 외람되게도 성상의 망극하신 은혜를 입고 천고에 둘도 없는 융숭한 대우를 받아 평복(平服)으로 조정에 들어오라는 명이 계셨사옵니다。이에 신은 감격함을 이기지 못하여 스스로 벼슬에 나아가는 길을 열려고 했었사옵니다만、외람되게도 관직에서 물러나겠다는 주청을 드려 성명께오서 속히 윤허를 내려주셨사옵니다。신은 이미 자청하였고 또한 명을 받들었으므로、나라의 법전에 실려있는 상록(常祿)의 절반에 대해서는 사양할 만한 명분이 없는 듯하여 받아먹고 사양하지 않았사옵니다。그러나 주급에 대해서는 신이 소장으로 아뢰고 연석(筵席)에서 응대하면서 그 받을 수 없는 뜻을 모두 말씀드림으로써、성명의 굽어 살피심을 받아 대신들에게 자문하시어 일부를 감하고 지급할 것을 참작하라는 명이 계셨사온지라、신은 더 이상 소란스럽게 하는 것이 두려워 감히 다시 사양하지 못했사옵니다。이것이 대개 당초에 사양하고 받은 것의 자세한 사정이옵니다。하향한 후에 미쳐 월름과 주급의 명이 번갈아 현읍에 내려졌사오나、신은 모든 것을 감히 삼가 받지 않고 五년동안 계속 고집을 부려 무신년(戊申年)에 이르렀었사옵니다。기유년(己酉年) 초봄에 신이 입궐하여 배알하는 자리에서 다시 간절하고 절박한 심정을 아뢰었사오나 윤허를 받지 못하여、신은 부득이 상록(常祿) 중에서 그 수량을 다소 감하여 월름이라는 이름으로 지급하는 것에 따랐사오니、신은 명을 받들은 뜻을 우러러 아뢰고 물러났사옵니다。그 해 여름에 성상께오서 지금 판부사(判府事)인 신 이대좌(李台佐)에게 자문하시어 더 이상 주급을 내리지 않으시고、사품(四品)

의 봉록으로 월름의 수량을 정하여 시행한지 이미 五년이 되었사옵니다。지금 서울에 가까이 있다는 이유로 다시 주급의 명을 내리셨으나、신의 염의(廉義)에 있어 어찌 함부로 받을 이치가 있겠사옵니까? 성상께오서 당초에 아랫사람을 보살펴 주시던 어지심이 또 어찌 겉치레로 돌아가지 않겠사옵니까? 신이 거처를 옮긴 것은 대개 친족들이 모여 있는 곳으로 돌아가 죽고 싶어서였으나、지금은 살지도 죽지도 못하고 나아가고 물러남에 기댈 곳이 없으며 일이 뜻대로 되질 않사옵니다。그러나 다행스러운 것은 위로는 우러러 군부(君父)께 의지하여 빈번히 받들어 뵈오며 아래로는 부자·형제와 숙질·손자·증손들의 간호를 받으며 날을 보내오니、이것은 삼십여 년 동안 일찍이 얻지 못했던 일이옵니다。그리고 거처하는 집이 또한 깨끗하고 고요하여 병을 조리하는데 마땅하므로 앞으로 만약에 불편한 일만 없다면、또한 그대로 이곳에 머물다가 다해가는 목숨을 끝마칠까 하옵니다。지금 이곳 서울 근교에 온 후로 이미 다 끊어졌던 이러한 은전이 다시 옛 날처럼 되살아났사오니、신이 여기에 온 것이 쉽게 벼슬길에라도 오르려고 한 것처럼 되어버렸으므로、도망가 숨으려 해도 할 수 없고 죽으려 해도 죽을 곳이 없사옵니다。엎드려 청하옵건대、성명께오서 신의 애절한 간청을 살피시어 속히 도로 거두어 주심으로써 죽어가는 몸을 위안케 해주시옵소서。신은 손 모아 기도하는 마음을 가눌 길이 없사옵니다。

비답 왈:상소문을 살펴보고 경의 간절함을 잘 알았소。경의 사양함이 이와 같으나 그것은 이미 전에 허락한 바이니 어찌 경의 마음이 편안치 못 하리오? 해당 관청으로 하여금 판부사 이대좌의 주청에 따라 거행하도록 하였으니 경은 모름지기 안심하시오。[사관 성범석(成範錫)이 와서 전하다。]

辭周急疏 甲寅
사주급소

伏以臣年已九耋病在萬分而凜凜危喘尙今支延者莫非 聖上顧恤 之恩欲報之德昊天罔極第於日昨伏聞又下周急之 命臣誠愕胎當 初此事變通之時大臣陳白宲出於愛人以德 聖上處分有光於體下 之仁而及至昨年又蒙 恩典因臣懇辭更令考據終亦以此施行則其 所勘當非一再而已今者儒臣又此提起引儗非倫想是未及詳思之致 臣竊爲之慨然也此事顚末 聖上旣已洞燭臣何敢更作枝蔓伏乞 亟回成命使臣得以瞑目入地不勝幸甚且念休致諸臣因臣此事乃有 不安之意臣竊瞿然深悔近京之失者玆事泛看則有所異同似有難俾 之端而究諸事理則宲無義意今夫上自大臣下至庶官莫不有同僚而 人各有情勢同僚中一人或以其情勢之難安而辭其俸祿則一司無故 諸員豈以一同僚之故而一併辭應受之俸哉向

日諸大臣之疏 聖批 似欠此分析伏乞 聖明覽臣此疏若不以爲非則望以此意曉諭諸臣 焉病思昏瞽語無倫脊臣尤死罪臣無任攢手祈祝之至

答曰省疏具悉卿懇卿之老病若此深用念焉今者不腆之物意在養老 卿何過讓卿其勿辭安心領受其須益加善養李奉朝賀所辭亦由於卿 故未能敦迫矣所陳若此伊後當勉諭焉 史官南鶴宗來宣

주급을 사양하는 상소 갑인년

엎드려 아뢰옵건대、신은 나이가 이미 아흔 살이 되었고 병이 위중함에 있는데도 다 죽어가는 위태로운 목숨이 지금까지 아직 붙어 있는 것은、불쌍히 여겨 돌봐주시는 성상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사온지라 보답해야할 성덕이 하늘처럼 끝이 없사옵니다만、다만 며칠 전에 다시 내리신 주급의 명을 삼가 듣고서 신은 진실로 놀라움을 금치 못했사옵니다。당초 이 일을 변통할 때에 대신이 진언했던 것은 사실상 덕(德)으로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온 것이었사오며、성상의 처분에는 아랫사람을 보살펴 주시는 어지심의 빛이 있었사옵니다。그런데 작년에 이르러 다시 은전(恩典)을 받았을 때、신이 간절하게 사양함으로 인하여 다시 고려하라고 하셨사오나 결국에는 역시 그대로 시행되었으니、그 감당해내야 할 바가 한 두 가지 뿐만이 아니었사옵니다。지금 유신(儒臣)이 또한 이것을 제기하여 참월되고 차서에 어긋난다고 하니、이는 자세히 생각해보지 않은 소치라고 사료되오며、신은 가만히 이를 탄식하옵니다。이 일의 전말에 대해서는 성상께오서도 이미 잘 알고 계시오니 신이 어찌 감히 더 이상 말을 늘어놓겠사옵니까? 엎드려 청하옵건대、이미 내리신 명을 속히 거두시어 신으로 하여금 눈을 감고 땅에 들어갈 수 있게 하신다면 정말 다행이겠사옵니다。또한 생각건대、나이가 많아 벼슬을 그만 둔 여러 신하들이 신의 이러한 일로 인하여 편안치 못한 뜻이 있사온지라、신은 적이 두려워하면서 서울 근교에 거함으로 해서 생긴 실수를 깊이 후회하고 있사옵니다。이 일을 두루 살펴보면 서로 다른 바가 있어 마치 편안치 못한 실마리가 있는 듯하지만、일의 이치를 궁구해 보면 진실로 의의(義意)가 없사옵니다。지금 대저 위로는 대신으로부터 아래로는 일반 관원에 이르기까지 동료가 있지 않음이 없사온데、사람에게는 각각 일의 형편이 있기 마련이므로 동료중의 한 사람이 혹 그 일의 형편상 편안치 못하여 자기 봉록을 사양한다고 해서、한 관청의 아무 이유 없는 여러 관원들이 어찌 한 동료 때문에 마땅히 받아야 할 봉록을 다 같이 사양할 수 있겠사옵니까? 지난 번 여러 대신들의 상소에 대한 성상의 비지(批旨)는 아마도 이러한 점을 헤아리시지 못한 듯하옵니다。엎드려 청하옵건대 성명께오서 신의 이러한 상소를 살펴보시고 만약에 그릇되었다고 여기지 않으신다면、이러한 뜻을 여러 신하들에게 잘 알려주시기를 바라옵니다。병으로 생각이 혼미하여 말에 차서가 없사오니 신은 더욱 죽을죄를 지었사옵니다。신은 손을 모아 기도드리는 마음을 가눌

길이 없사옵니다。

비답 왈：상소문을 살펴보고 경의 간절함을 잘 알았소。 경의 늙고 병듦이 이와 같은지라 심히 염려되오。이번에 많지도 않은 물건을 보낸 뜻은 노신을 봉양하는데 있으니 경은 어찌하여 지나치게 사양하시오。경은 사양하지 말고 안심하고 받으시오。그리고 모름지기 더욱 몸조리를 잘 하시오。이(李) 봉조하(奉朝賀)가 아뢴 것도 또한 경 때문에 비롯된 것이므로 계속 재촉할 수가 없소。진언한 바가 이와 같으니 이후에는 마땅히 경의 뜻을 알리는데 힘쓰겠소。【사관 남학종(南鶴宗)이 와서 전하다。】

辭子尙鼎守令除授之命疏

사자상정수령제수지명소

伏以臣於日昨邸報中伏見有臣子前府使尙鼎俾近邑除授之 敎臣 感激 天恩而第其條件雜出於戊申酬勞之中心不能無訝使兒孫輩 訪問於入待諸臣家則六日以後始聞銓長提起戊申事而 上敎發落 則終不得聞知臣誠鬱歎曾前今奉朝賀臣李光佐有臣子尙鼎論功之 請幸被 聖敎嚴截何意今日又有此言也此無他必以此事爲優待臣 身之地而豈不與臣心大相遼絶哉臣之受知於 聖上固已夐絶千古 而其在下者則知臣心而愛人以德者只有今判府事臣李台佐一人而已悠悠人世叟無有擧顔處豈不悲哉至於官職除拜若有拘於朝制請 叙用請蕩滌者外未嘗有稟定擬授之事尙鼎歷試諸邑幸而不罰於官故其履歷則自牧使至縣監無不可者銓曹若以爲可用而憐其有老則 隨闕擧擬何所不可而政席有避之時預先區區陳請如此乎且自 上下敎或出於俯循銓臣之議而姑且以是勘定則無乃近於欲其入而閱 其門耶雖得口體之養臣心之所不願也臣每入京衷必聞此不欲聞之言誤爲離次噬臍無及顧今臣之病勢家力萬萬無移動之望逃遁不得 懷不能自抑乃以猥雜之言一暴於君父之前伏乞 聖明察臣心事 另加矜恕千萬幸甚臣無任惶恐屛營之至

答曰省疏具悉卿懇予之諒卿心久矣豈於卿子循例字牧之任不諒哉 頃者吏判所達盖提起戊申事予之錄用之命專爲以養者舊於卿有何不安之端乎卿須心

馮 史官
黃玩來宣

아들 상정을 수령에 제수하신 명을 사양 하는 상소

엎드려 아뢰옵건대、신은 며칠 전에 저보(邸報)에서 전(前) 부사(府使)였던 신의 아들 상정(尙鼎)을 곧장 가까운

읍의 수령에 제수하라는 하교가 있는 것을 삼가 보고서 신은 천은(天恩)에 감격하였사오나, 다만 그 조목이 무신년(戊申年)의 공로에 대하여 보답하는 대목 중에서 섞여 나오는지라 마음속으로 의아해 함이 없을 수 없었사옵니다。그래서 자식들에게 입궐하여 여러 신하들을 만나 물어보게 하였는데, 신은 집에서 엿새 이후에야 비로소 전장(銓長)1이 무신년의 일을 제기했었다는 것을 알았사옵니다。그러나 성상께오서 하교하신 결정에 대해서는 끝내 듣고 알 수가 없었는지라 신은 진실로 답답함에 탄식하였사옵니다。일찍이 전에 지금 봉조하(奉朝賀)인 신 이광좌(李光佐)가 신의 아들 상정에 대하여 공을 논하는 주청을 하였을 때 다행히 성교(聖敎)의 엄하신 거절을 받았사오니, 지금에 와서 다시 이러한 말이 있게 될 줄을 어찌 생각이나 했겠사옵니까?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틀림없이 이 일을 가지고 신을 우대하는 바탕으로 삼으려 한 것이오니, 어찌 신의 마음과 서로 현격하게 큰 차이가 있지 않겠사옵니까? 신이 성상께 인정을 받은 것이 진실로 이미 천고에 둘도 없을 정도이지만, 신하 중에 신의 마음을 알아주고 덕으로 사람을 사랑하는 자는 다만 지금 판부사(判府事)인 신 이대좌(李台佐) 한 사람 뿐이옵니다。이제 유유한 인간 세상에 더 이상 얼굴을 들 곳이 없게 되었으니 어찌 슬프지 않겠사옵니까? 관직을 제수함에 있어 만약에 조정의 법제에 따라 본다면, 서용(敍用)2을 청하거나 탕척(蕩滌)3을 청하는 자 외에는 일찍이 품정(稟定)4하여 제수하는 일이 없었사옵니다。상정이 여러 읍을 차례로 거쳤으나 다행히 관직에 저촉되는 일을 하지 않았으며 그 이력은 목사(牧使)로부터 현감(縣監)에 이르기까지 불가함이 없었으니, 전조(銓曹)에서 만약에 가히 쓸 만하다고 여기고 그에게 노친이 있음을 불쌍히 여겼다면 그 임용 결정을 따르는 것이 어찌 불가하겠사옵니까? 하오나 정석(政席)에 피함이 있는 때에 미리 먼저 이처럼 구구하게 주청해서야 되겠사옵니까?

또한 성상의 하교하심이 혹 전관(銓官)의 논의를 따라 구차하게 이로써 결정하신 것이라면, 이것은 들어오게 하고는 싶은데 문을 닫아 버리는 경우와 가깝지 않겠사옵니까? 자식의 벼슬로 비록 몸의 봉양을 받는다 하더라도 신의 마음에는 원하지 않는 바이옵니다。

신이 입경할 때마다 반드시 이러한 듣고 싶지 않은 말을 들었기 때문에, 거처를 잘못 옮겼사오니 이제는 후회해도 소용이 없사옵니다。지금 신의 병세를 돌아보니 집안 형편으로는 옮겨갈 가망이 전연 없으므로 도망가 숨을 수도 없사온지라, 마음을 스스로 억제할 수 없어 이에 외람되고 번잡한 말로 군부(君父)의 앞에서 한 번 아뢰는 것이옵니다。엎드려 청하옵건대, 성명께오서 신의 심사를 헤아리사 특별히 긍휼히 여겨 용서해 주신다면 천만 다행이겠사옵니다。신은 황공하고 송구스런 마음을 가눌 길이 없사옵니다。

비답 왈: 상소문을 살펴보고 경의 간절함을 잘 알았소。내가 경의 마음을 헤아린 지가 오래 되었는데, 어찌 경의 아들을 예(例)에 따라 자목관(字牧官)5에 임명함에 있어 양찰하지 않았으리오? 지난번에 이조판서가 아뢴 것은 대개 무신년의 일을 거론한 것이었는데, 내가 임용을 명

한 것은 오로지 노친을 봉양케 하기 위함이었으니, 경에게 무슨 편안치 못한 이유가 있겠소? 경은 모름지기 안심하시오。[사관 황윤(黃琉)이 와서 전하다。]

註 : 1。전관(銓官)의 우두머리
2。죄가 있어 면직 당하였던 사람을 다시 임용하는 것
3。죄명을 씻고 다시 벼슬에 올려 씀
4。윗사람에게 여쭈어 의논하여 결정함
5。수령(守令)을 일컬음。자목지임(字牧之任)。자목지관(字牧之官)

臨終疏 乙卯正月一日口呼
임종소

伏以臣不肖無狀福過災生當初出海本爲密邇 君父下與子孫兄弟 叔侄相依以畢餘生矣不意來泊江郊未及半年奇疾纏身竟至於此自 六月初吉以後至于今日症情百出奇奇怪怪不可摟指入冬以後刺痛之症大勢雖退數三餘症肆力益毒皆人所罕見之症今臣小築纔成卽 得必死之疾誠所謂春蠶到死絲方盡者臣之謂也近京以來終不得一瞻 天顔厥後朝賀之禮亦不計其數而虛受朝家待朝賀之禮臣心毁 蹙若負荊棘今玆正朝乃是三陽回泰爲一年之始 聖主親臨受賀百 僚駿奔事尤異於他日而萬無轉身赴闕之道顧念朝賀非可奪之職願 依宋明諸朝勤停月俸及月致之例使臣心得以安於入地則寔 聖主 體下之仁臣不勝大願御醫守在江村爲日已多臣心不安尤莫知所喩 臣肖翹之命大限有定非腐草陳根所能回生徒以不安臣心而已伏乞 聖上特命召還以安臣心則皈死而不忘結草之報臣無任屛營祈懇之至

答曰省疏具悉卿懇頃聞承宣所達深用念焉觀書啓之所達神明所相 勿藥有瘳欣慰曷諭以疾未叅其何所傷御醫卿恙快愈自當復命卿其安心其須善養二日曉史官宣讀于牖下

임종소 을묘년 정월일일에 구두로 아룀

엎드려 아뢰옵건대、신은 불초하고 무능한 몸으로 복이 지나쳐 재앙이 생겼사옵니다。당초에 강가로 거처를 옮겼던 것은 본래 군부(君父)를 가까이 하고 아래로는 형제、자손、숙질들과 서로 의지하면서 여생을 마치기 위함이었사옵니다。그런데 뜻밖에도 강가 교외에서 머문 지 반 년이 채 못되어 기이한 병이 온 몸을 감싸 결국 여기까지 이르고 말았사옵니다。유월 초 이후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온갖 병증(病症)이 생겼는데、그 기이하고 괴이함은 손으로 꼽을 수가 없사옵니다。또한 겨울에 접어든 이후에는 찌르는 듯한 통증이 있사옵니다。큰 고비는 비록 물러갔사옵니다만、서너 가지 남은 증상은 강력하고 더욱 지독하여 모두 사람들이

보기 드문 증상이옵니다。지금 신의 작은 거처가 겨우 이루어졌는데 곧장 반드시 죽게 될 병을 얻었으니、진실로 이른바 「봄 누에가 죽음에 이르자 실이 바야흐로 다해 간다」는 것은 신을 두고 하는 말이옵니다。서울 근교에 머문 이래로 결국 한 번도 전하의 용안을 우러러 뵙지 못하였사오며、그 후로 입조하여 하례 드리는 예(禮)가 또한 그 수를 헤아리지 못할 정도이었사오나、입조하여 하례 드리는 예를 조정에서 시행한다는 소식만 하릴없이 전해 듣고서、신의 마음은 심히 걱정하여 마치 가시덤불을 지고 있는 듯하였사옵니다。이번의 정월 초하루는 바로 삼양(三陽)1이 회태(回泰)하는 일 년의 시작으로、성주(聖主)께오서 친히 임하셔서 하례를 받으시고 온 신료(臣僚)들이 분주하여 그 일이 다른 날보다 더욱 다르오나、신은 몸을 움직여 대궐에 나아갈 길이 전혀 없사옵니다。돌아보아 생각건대 입조하여 하례 드리는 일은 빼앗을 수 없는 직무이오니、원하옵건대 송(宋)과 명(明)의 조정에서 월봉(月俸)을 매달 지급하는 것을 멈추었던 예(例)에 따라 신이 편안한 마음으로 땅에 묻힐 수 있도록 해주신다면、그것은 진실로 아랫사람을 돌봐 주시는 전하의 어지심이오니 신은 더 이상 바랄 게 없겠사옵니다。어의(御醫)가 강촌을 지킨 지도 시일이 이미 많이 흘렀으므로、신은 마음이 불안하여 더욱 고할 바를 모르겠사옵니다。신의 보잘 것 없는 목숨에 그 수명이 정해져 있는지라、썩은 풀과 묵은 뿌리처럼 회생할 수가 없으므로 다만 신의 마음을 불안하게 할 뿐이옵니다。

엎드려 청하옵건대 성상께오서 특별히 명하시어 어의를 소환하심으로써 신의 마음을 편안케 해주신다면、죽어서라도 결초보은할 것을 잊지 않을 것이옵니다。신은 송구스럽고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을 가눌 길이 없사옵니다。

비답 왈:상소문을 살펴보고 경의 간절함을 잘 알았소。지난번에 승선(承宣)이 아뢴 바를 듣고 심히 염려하였으나、서계(書啓)에서 진언한 바를 보니 천지신명의 도움으로 약을 먹지 않고도 나았다고 하니 기쁘고 위안이 됨을 어찌 알리지 않으리오? 병 때문에 참석하지 못하였는데 어찌하여 상심하시오? 어의가 기다리고 있다가 경의 병환이 쾌유되면 스스로 마땅히 복명(復命)2하러 떠날 것이니、경은 안심하고 모름지기 몸을 잘 보양하시오。[그 일에 사관이 창 아래에서 전하여 읽다。]

註:1。易의 卦의 세 陽爻
2。명령을 받고 일을 처리한 사람이 그 결과를 보고함

奉朝賀艮齋公神道碑文

붕조하간재공신도비문

惟我 肅宗大王在位四十六年久道化成名碩登進並以事功忠蓋經 術儒雅各有展布以鳴 國家之盛而至若急流中勇退如錢淡成者獨 有艮齋崔公而已當公之退處林下與山澤槁枯無異殆若忘世及夫國有大逆凜凜有危迫之憂則奮身自力疾馳告急便 宗社獲安人心 帖息斯豈非君子之大勇歟功高一代而公

不自居　聖主深知公而不　枉其志煌煌四大字可與穹壤同弊則山河帶礪有不足論嗚呼公之晚年一着尤可以見其平日所存而進退隱現惟義與比者也公諱奎瑞字　文叔海州崔氏以文憲公冲爲始祖奕世嬋嫣名德相承至　本朝集賢　殿副提學萬理爲　英陵朝名臣孤竹公慶昌以文武全材称又再傳諱振海安山都守贈左贊成爲公大父考諱碩儒砥平縣監　贈領議政妣光州金氏公以司藁寺正諱碩英之子而爲叔父後所生妣光州金氏　公幼而聰穎特達五歲出後有長者使之寫其情事應聲曰人皆有一天　我獨有二天見者異之己酉中司馬庚申除永禧殿叅奉擢別試文科自　承文院副正字以至于大拜内外踐歷已具幽堂之誌而其在憲府以持　平論江華留守尹皆營私病民又嘗坐府杖治宦堅之恣横者在諫院以　大司諫論中批擢三臣有失僉擧之義在　經筵以副提學陳折受之弊　曰凡言守令之譖必曰民不見吏堂堂　聖朝分遣虎而冠者奪取窮民口吻中物使邑吏不得寧其在事體何如也己巳元子定號上盛氣以　待諸臣曰不從吾言者納官退去公進曰　聖上春秋方盛　王子之生　纔數月　正宮終無螽斯之慶則國本不期定而自定矣今以官爵脅持不但待羣下大薄　殿下於此失言大矣己卯以禮曹判書乞暇沐温泉　遂歸龍仁之魚肥谷時公年五十歲矣眷注方隆名位方盛上下之交非　有鑿枘難合者决意長往不竢終日雖愛公者固不能無惑不愛公者隨　以甚間而　朝旨敦迫譴責切峻介石之志終無所撓及甲辰辭疏畢陳　自廢之義而始知公之前日告退意有在也今　上初即位公力辭首輔　乃許以軍御入侍　上曰若有勉戒者願聞一二焉公辭謝因曰夫孝者　百行之源伏聞　殿下哭泣顔色人無不感激竊願以孝經帝王之孝自　勉又曰論語曰君子不重則不威學則不固臣敢以重之一字爲　殿下献時有李義淵者托以儒疏上誣　景廟公留疏即歸　上連降別諭備　言三不可去之義公附奏臣在　大行朝進一疏曰朝廷置身於數外槁枯窮山守死不變則其於勵廉之道未必不爲燕臺之郭隗不猶愈於身　在都下無所裨補者乎戊申之事上欲以元勳歸公既而終不可強則　手書一絲扶鼎以旌之是歲寓江都癸丑九月移龍山搆小窩扁曰蠶窩且書狐死首邱葉落歸根八字於壁上以見志焉甲寅臘月晦日命家人　掃室正席浴体易服至翌朝口占遺疏屛婦女翛然而逝春秋八十六前一旬有大星隕於家園

未就襲異香經日不散呼亦異矣傳　批史官回　陳公己逝　上降備忘數百言俾更申諭曰替余躬往又　教曰黃耆其　逝予將何依士於知友猶宜成其美予於元老許以知心則徒思寵耀不　念成美之道乎勿用大臣例以奉朝賀祿俸限三年繼給令太常不待狀　贈諡幷贈東國秘器以其三月歸葬于陽城篔簹谷丑坐之原上嘗與　諸臣論及公曰雖以古之名臣論之首尾進退之完全未有如崔奉朝賀　者嗚呼此可以見君臣之際也公之得於天者清明高朗而濟之以己分　上用力密切嘗曰不忮不求不踰閒是吾七字符以是槩公平生則可知　己公於少月遇人如方外者流目公以爲無傷人害物之意蓋其祥和之氣發於外望見而知之也立朝未幾已有不樂仕宦之情名途進取視之　如遽蘆若其不求而至者則有之而初無求而後得之者固已無愧於不忮不求之訓矣錥亦承教於公曰人之病須知內外陰陽之辨事在公衆　則坦然做去不然而他人所不知處則却不欲其知之吾於此每有發省　者公之省身克己之功可謂眞切其所以不踰閑者又不可只從外面粗　淺處求之而已公之前後　筵對勉戒之語多在誠之一字最後以陰陽　交戰痛加科檄一轉語仰勉者讀之不覺其竦動有開發人處引　君當　道之義痛切懇至己今炯炯猶若可識也夫人全州李氏僉知中樞府事贈吏曹判書大提學憲之女安貧崇儉克配公德其德行備公所撰行錄　擧六男二女男長尚震縣監次尚復僉正次尚鼎叅議次尚謙別檢次尚觀郡守次尚履文科持平女適郡守沈宗賢士人元命鬲尚震男郡守駿興正郎運興女沈東鎭林象九注書李顯祚尚復男敎官普興範興尚鼎無子子運興尚謙昉喆興正郎景興寅興女校理李彝章尚觀無子子範　興尚履男洗馬載興女文學具允明縣監朴善源沈宗賢男司評鏞女敎官李命德元命鬲男僉正景濂女李匡顯內外曾孫不盡記嗚呼公之名　德出處國史書之學士大夫誦之何待區區淺陋之發輝而墓道文字猥　承見屬旣辭之不獲則不敢爲一毫溢辭者竊恐有負公雅志而亦非所以平日誦慕之實心也

崇禎後一百二十二年己巳　月　日立

嘉善大夫司憲府大司憲兼

世子侍講院贊善成均館祭酒　沈　錥　撰

嘉善大夫司憲府大司憲　曺命敎　書

봉조하 간재공 신도비문

숙종대왕 재위 四十六년동안 덕화(德化)가 이루어져 명공·석학들이 등용되었다。아울러 사공(事功)·충성 경술(經術)·유아(儒雅)로써 각기 자기의 재능을 발휘하여、나라가 한창 번성하였다。이에 이르러 급류 가운데 마치 전담성(錢淡成)같이 용감히 물러난 자는 오직 간재(艮齋) 최공 뿐이다。공이 조정을 물러나 임하(林下)와 산택(山澤)에 고고하게 살면서 마치 세상을 잊은 것처럼 하였지만、나라에 대역(大逆)이 일어나자 위험하고 급박하다고 걱정하여 몸을 떨쳐 힘껏 달려와 급변을 아뢰었다。

그래서 종묘사직을 안정케 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편안케 하였으니、이 어찌 군자의 커다란 용기가 아니겠는가?공의 공훈이 일대에 높았지만 공은 스스로 교만하지 않았다。성상께서도 공을 깊이 아시고「그 뜻을 굽히지 않았다(不枉其志)」는 네 개의 커다란 글자를 써 주셨으니 하늘과 땅이 다 닳아 없어지며 태산이 숫돌처럼 얇아지고 황하가 띠처럼 가늘어질 때까지도 그 공훈을 논하기에는 모자란다。아아、공의 만년에 가서 그 평일에 지냈던 마음과 진퇴(進退)、은현(隱現)이 오로지 의(義)에서 나왔음을 알 수 있게 되었다。

공의 휘는 규서(奎瑞)이고 자는 문숙(文叔)이다。해주최씨는 문헌공 충(冲)이 시조인데、대대로 훌륭한 명사와 덕행들이 서로 이어 나왔다。본조에 들어와 집현전 부제학 만리(萬理)가 세종조의 명신이었으며、고죽공(孤竹公) 경창(慶昌)은 문·무를 아울러 갖춘 인물로 칭찬받았다。

그 손자의 휘는 진해(振海)인데 안산군수를 거쳐 좌찬성(左贊成)에 추증되었으니、공에게는 조부가 된다。

부친의 휘는 석유(碩儒)이니 지평(砥平)현감을 지내고 영의정에 추증되었으며、모친은 광주김씨이다。공은 사도시(司導寺)정(正) 휘 석영(碩英)의 아들인데 숙부의 뒤를 이었으며、공을 낳아준 모친도 광주김씨이다。

공은 어려서부터 총명하고 남달랐으며、五세에 숙부댁에 양자로 나갔다。어떤 어른이 그에게 속마음이 어떠냐고 물어보자 곧、

「남들은 모두 하늘(아버지)이 하나이지만、나만은 하늘(아버지)이 둘이다」

라고 대답하니、보는 사람들이 모두 놀랐다。

기유년(一六六九) 사마시(司馬試)에 급제하고 경신년(一六八〇)에 영희전(永禧殿)참봉(종九품)이 되었다。문과 별시(別試)에 급제하여 승문원 부정자(副正字:종九품)부터 내외 요직을 두루 거쳤으니、그 자세한 관직은 묘지(墓誌)에 모두 기록하였다。

공이 사헌부에 지평(持平:정五품)으로 있으면서 강화유수 윤계(尹堦)가 사사로운 일을 시키느라고 백성들을 병들게 한 처사에 대하여 탄핵하였고、또 한 번은 사헌부에 앉아서 못된 짓을 제멋대로 저지르는 환관(宦官)을 곤장으로 다스리기도 하였다。

사간원(司諫院)에 대사간(大司諫:정三품)으로 있을 때에는 전형을 거치지 않고 임금의 특지(特旨)로 관원에 임명된 세 신하가 모두 관원 뽑는 올바른 도리를 잃은 경우라

고 논박하였다。[숙종十五년(一六八九) 一월一일에 정언 김덕기가 「예조판서 김덕원、호조참판 남익호、우윤 이항 세 신하를 전형도 거치지 않고 임금의 특지(特旨)로 임명한 것은 도리에 어긋났다」고 논하였다。최규서는 그 이튿날인 二일에 사간원의 책임자인 대사간으로 임명되었는데、三일에 다시 앞서의 주장을 그대로 논하였다。]

경연(經筵)에 부제학(副提學 : 정三품)으로 있을 때에는 지방 수령들이 자기 몫의 조세를 떼어먹는 폐단을 아뢰었다。

「수령의 선정(善政)을 말할 때에는 반드시 『백성들이 관리를 보지 못한다』고 했습니다。그런데 조정에서 『관 쓴 호랑이 [虎而冠者]』를 고을마다 나누어 보내서 가난한 백성들의 입속에 든 것까지 빼앗게 하여 읍리(邑吏)들로 하여금 제 일을 못하게 하니、사체(事體)가 어찌 되겠습니까?」

기사년(一六八九)에 원자(元子)를 정호(定號)할 때에 임금께서 화내시며 여러 신하들에게

「내 말을 따르지 않을 자들은 벼슬을 내어 놓고 물러가라」

고 말씀하셨다。그러자 공이 나아와서 말하기를

「성상께서 춘추가 아직 젊으시고 왕자도 이제 태어난 지 겨우 몇 달 밖에 안 되었습니다。정궁(正宮)1께서 끝내 왕자를 낳지 못하신다면、나라의 근본을 따로 정하지 않더라도 저절로 정해질 것입니다。그런데 지금 성상께서 신하들에게 벼슬을 가지고 협박하시니、여러 신하를 대하는 태도가 크게 박해졌을 뿐만 아니라 전하께서 크게 실언(失言)하신 것입니다」[숙종十四년(一六八八)에 후궁인 소의(昭儀) 장씨가 왕자(뒷날의 경종)을 낳았다。장씨의 유혹에 빠진 숙종이 이 왕자를 세자로 세우려고、十五년 一월一일에 원임(原任)·시임(時任)대신들과 六조 판서、판윤、삼사(三司) 장관들을 불러들여 의견을 들었다。이때 많은 신하들은 반대의 표시로 오지 않았다。숙종은 신하들에게 이렇게 말했다。「나라의 근본이 아직 정해지지 않아서、백성들의 마음이 안정되지 않는다。오늘의 계획은 다른 데에 있지 않다。만약 멀리서 빙빙 돌며 관망하거나、감히 이의가 있는 자는 벼슬을 내어 놓고 물러가라」왕비 인현왕후가 아직 젊어 왕자를 탄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여러 신하들이 어찌 대답해야 할지 모를 때에、최규서가 나서서 숙종께 바른 말을 한 것이다。그 달에 소의 장씨는 희빈(禧嬪)이 되고、원자(元子)는 그 이듬해인 一六九〇년 六월에 왕세자로 책봉되었다]

기묘년(一六九九)에 예조판서(정二품)로 있으면서 휴가를 빌어 온천에 가서 목욕하고는、용인(龍仁)에 있는 어비곡(魚肥谷)으로 돌아가 살았다。그때 공의 나이 쉰 살이었다。임금의 사랑이 한창 높았고 공의 명성과 지위도 바야흐로 높아졌으며、위아래의 벼슬아치들 가운데 공과 의견이 안 맞거나 어울릴 수 없는 자는 아무도 없었다。그런데도 시골로 돌아가 살겠다고 결심한 뒤엔 하루도 기다리지 않고 돌아갔다。비록 공을 사랑하는 자라도 당혹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공을 사랑하지 않는 자까지도 따라서 걱정하였다。빨리 돌아오라고 준절하게 꾸짖는 임금의 교지가 내려 졌지만、돌같이 꼿꼿한 공의 뜻은 끝내 흔들리지 않았다。갑진

년(一七二四)에 사소(辭疏)를 올리면서 스스로 물러난 뜻을 밝히자, 그제야 공이 전날에 물러난 뜻이 어디에 있는지 비로소 알게 되었다.

금상(今上 : 영조)께서 처음 즉위하셨을 때에 공이 힘써 재상직을 사양하자, 임금께서 허락하시고 군함(軍啣)으로 들어와 뵙게 하고는

「짐이 힘써 지킬 것이 있다면, 한두 가지를 듣고 싶다」

고 말하였다. 공이 사양하면서

「무릇 효(孝)란 온갖 행실의 근원입니다. 엎드려 듣건대 전하께서 곡읍(哭泣) 함에 그 안색에 감격하지 않는 사람이 없다고 하오니, 전하께서는 〈효경(孝經)〉으로써 제왕(帝王)의 효에 스스로 힘쓰소서」

라고 말하였다. 또한

「〈논어〉에 『군자가 자중하지 않으면 위엄이 없고, 학문도 견고해지지 않는다[君子不重則不威、學則不固]』라고 하였습니다. 신은 감히 『중(重)』이라는 한 글자를 전하를 위해 바칩니다」

라고 말하였다.

그때 유학(幼學) 이의연(李義淵)이란 자가 유소(儒疏)를 올려 경종(景宗)을 모함하였다. [이의연이 신축지사(辛丑之事)2를 들춰내면서 경종과 영조와의 관계 및 정부의 고관들을 규탄하였다. 이의연은 며칠 뒤에 우의정 조태억의 청에 의하여 외딴 섬으로 귀양 갔다] 공이 마침 서울에 올라왔다가 소(疏)를 올리고는 즉시 용인으로 돌아갔다. 임금께서 잇달아 별유(別諭)를 내리면서 〈삼불가거지의(三不可去之義)3〉를 갖추어 말하자 공이 다시 글을 올려 아뢰었다.

「신이 대행왕(大行王 : 경종)의 조정에 있을 때에 한번 소를 올렸었는데, 〈조정에서 신의 몸을 궁벽한 산속으로 내쳐서 말라 죽게 하더라도 신은 죽음으로써 절조를 지키고 변치 않겠습니다.〉라고 했었습니다. 그것은 힘써 섬기는 도리에 있어서 반드시 연대(燕臺)의 곽외(郭隗)4가 자신의 몸이 서울에 있으면서도 아무런 도움이 못 되는 것보다는 낫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무신년(一七二八) 사건[신임사화 이후 실각 당했던 소론 일파에서 이인좌·정희량 등을 중심으로 밀풍군 탄(坦)을 추대하고 반란을 일으켰다. 먼저 이인좌가 청주를 습격하여 병사 이봉상을 죽이고 스스로 대원수가 되어, 「영조는 숙종의 왕자가 아니니 억울하게 죽은 경종의 원수를 갚자」고 군사들을 선동하였다. 이때 용인에 은퇴해 있던 소론의 원로대신 최규서가 이 소식을 듣고 깜짝 놀라 조정에 고변(告變)하였다. 병조판서 오명항에 의해 반군은 진압되고, 그 뒤로 소론은 완전히 실각하고 노론 일파에서 정권을 잡았다]때에 임금께서 원훈(元勳)의 공을 공에게 돌리려 하였지만 끝내 강력히 사양하였다. 그래서 임금께서 손수 「일사부정(一絲扶鼎)5」이라는 글씨를 써 주시어 그 공을 기렸다. 이 해에 강화도에 우거하였다.

계축년(一七三三) 九월에 용산으로 옮겨서 작은 집을 짓고, 〈잠와(蠶窩)6〉이라 현판을 달았다. 그리고는 벽 위에다 〈여우는 죽을 때에 언덕으로 머리를 돌리고, 나뭇잎은 떨어질 때에 뿌리로 돌아간다(호사수구(狐死首邱)、엽락귀근(葉

落歸根)〉라고 여덟 자를 써 붙여 자기의 뜻을 보였다.

갑인년(一七三四) 선달 그믐에 집안사람들에게 방을 치우게 하고는, 자리를 똑바로 깔고 목욕한 뒤에 옷까지 갈아입었다. 그 이튿날 아침에 입으로 유소(遺疏)를 불러주고는 부녀자들을 물리친 뒤에 자연스럽게 세상을 떠났다. 춘추가 여든 여섯이었다. 열흘 전에 커다란 별이 집안 정원에 떨어지고, 이상한 향내가 하루가 지나도록 흩어지지 않았다. 아아, 이것도 또한 기이한 일이다. 사관이 돌아와서 〈공이 이미 죽었다〉고 아뢰자, 임금께서 비망기(備忘記) 수백 언을 내리시고 다시 거듭 말씀하시면서

「내 대신 직접 가보라」

하시고는 또 유지를 내리셨다.

「늙은 재상이 이제 가버렸으니, 내 장차 누구를 의지할 건가. 선비는 자길 알아주는 벗에게서 그 아름다움을 이루고, 나는 원로에게서 그 마음 알아주길 허락했었다. 그는 한낱 은총만 생각하면서 자기의 아름다움을 이루려고 하지는 않았다. 그의 장례를 대신(大臣)의 예에 따르지 말고, 봉조하(奉朝賀)의 녹봉을 三년 기한으로 계속 지급하라」

또한 태상(太常)에게 명하여, 공의 집안에서 시장(諡狀)이 올라오길 기다리지 말고 시호를 내리게 하셨으며, 아울러 동국비기(東國秘器)를 내리게 하셨다. 그해 三월 양성(陽城)으로 돌아가서, 남남서(南南西)쪽을 바라보는 언덕에 장사지냈다.

임금께서 일찍이 여러 신하들과 더불어 논하다가, 이야기가 공에게 미치자,

「비록 옛날에 이름난 신하라 하더라도 처음과 끝 벼슬에 나아옴과 물러남이 완전한 신하를 논한다면, 봉조하 최규서와 같은 자가 아직껏 없었다.」

아아, 이야말로 군신의 사이를 볼 만한 말이다. 공은 하늘로부터 청명고랑(淸明高朗)한 성품을 타고나 힘써 일을 이루었다. 공이 일찍이

「〈질투하지 않고, 구하지 않고, 법도에 어긋나지 않는다(不忮不求不踰閒)〉는 이 일곱 글자가 나의 부적이다」

하였으니, 이를 보아서도 공의 평생을 알 수가 있다.

공이 젊었을 때에 방외자(方外者)류의 사람을 만난 적이 있는데 그가 공을 보고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물을 해칠 뜻이 없다」고 하였다. 그 상화(祥和)의 기운이 밖으로 나타나서 바라보기만 해도 알 수 있었던 것이다.

공은 조정에 선 지 얼마되지 않아서부터 이미 벼슬을 즐기지 않는 마음이 생겼다.

명도(名途)에 나아가 얻는 것을 마치 여관집처럼 여겼으며, 만약 구하지 않았는데도 이른다면 받아들였지만, 처음부터 구함이 없었는데도 나중에 얻게 된 것은 굳이 마다하였다. 「질투하지 않고, 구하지 않는다」는 교훈에 부끄러움이 없었다.

육(錡)도 또한 공에게서 가르침을 받았는데,

「사람의 병은 모름지기 〈내외음양지변(內外陰陽之辨)〉을 알아야 한다. 일이 공중에 있으면 마음이 가라앉고 걱정이 없지만, 그렇지 않고 남들이 모르는 곳이라면 그것을 알게 하려고 하지 말아야 한다. 나는 이점에 있어서 늘 나 자신

을 살핀다。」

라고 말하였다。공이 자신의 몸을 살피고 자기를 극복한 공은 〈참으로 절실하다〉고 말할 만하다。공이 말한바 〈법도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말도 또한 단지 외면상으로만 대충 구해서 되는 것은 아니다。

공이 전·후 경연(經筵)에서 임금을 대하여 힘써 경계하라는 말을 많이 했는데、〈성(誠)〉이라는 한 글자로 요약할 수 있다。최후에 음양이 서로 다투어 괴로움이 더해가는 가운데서도 우러러 힘쓰기를 경계한 말은 읽으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송구스러워져、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게 한다。임금을 올바른 도의(道義)로 이끌어 들이는 말은 참으로 간절해서、지금까지도 형형하게 알아볼 만하다。

부인 전주이씨는 첨지중추부사를 지내고 이조판서、대제학에 추증된 헌(憲)의 딸이다。가난을 편안하게 여기고 검소한 생활을 숭상했으며、공의 덕에 짝할 만했다。

부인의 덕행은 공이 지은 〈행록(行錄)〉에 실려 있다。모두 六남二녀를 낳았다。

장남 상진(尙震)은 현감이고、차남 상복(尙復)은 첨정(僉正)이며、三남 상정(尙鼎)은 참의(叅議)이고 四남 상겸(尙謙)은 별검(別檢)이다。五남 상관(尙觀)은 군수이고、六남 상리(尙履)는 문과에 급제하여 지평(持平)이다。딸은 군수 심종현(沈宗賢)과 선비 원명설(元命卨)에게 시집갔다。

상진의 아들은 군수 준흥(駿興)과 정랑 운흥(運興)이고、딸은 심동진(沈東鎭)과 임상구(林象九)、주서(注書) 이현조(李顯祚)에게 시집갔다。

상복의 아들은 교관(敎官) 보흥(普興)과 범흥(範典)이며、상정은 아들이 없어 문흥을 양자로 들였다。

상겸의 아들은 철흥(喆興)과 정랑 경흥(景興)、인흥(寅興)이며、딸은 교리(校理) 이이장(李彛章)에게 시집갔다。상관도 아들이 없어 범흥을 양자로 들였다。상리의 아들은 세마(洗馬) 재흥(載興)이고、딸은 문학(文學) 구윤명(具允明)과 현감 박선원(朴善源)에게 시집갔다。사위 심종현의 아들은 사평(司評) 용(鏞)이고、딸은 교관 이명덕(李命德)에게 시집갔다。사위 원명설의 아들은 첨정(僉正) 경렴(景濂)이고 딸은 이광현(李匡顯)에게 시집갔다。내외 증손은 다 기록할 수가 없다。

아아、공의 명성과 덕망은 국사(國史)에 쓰여지고 학사대부들이 외우건만、어찌 보잘 것 없는 글 솜씨를 기다렸다가 비문을 외람되게도 나에게 맡겼던가?

이미 사양했건만 어쩔 수 없어 감히 분에 넘치는 글을 지었다。아마도 공의 바른 뜻을 저버렸거나、평일에 송모(誦慕)하던 참마음을 다 쓰지 못했을까 두렵다。

숭정후(崇禎後) 一二二년(一七四九) 기사 월 일에 세우다。

가선대부(嘉善大夫) 사헌부대사헌 겸
세자시강원(世子侍講院) 찬선(贊善)
성균관좨주(祭酒) 심육(沈錥) 짓다

가선대부 사헌부대사헌 조명교(曺命敎) 쓰다。

註:1。인현왕후 민씨
2。一七二一년에 숙종이 죽고 경종이 즉위하면서 영조를 왕세제로 책봉하

고 잠시 대리청정케 했던 일
3。세 가지 돌아갈 수 없는 의리
4。전국시대 연나라의 현인。소왕이 현인을 불러 모아 연나라를 부강하게 하려고 하자、五백금을 주고 천리마의 죽은 뼈를 사들여 결국 산 천리마를 얻은 고사를 말하면서、자기부터 스승으로 섬기게 하였다。소왕이 곽외를 위하여 새로 궁실을 짓고 스승으로 섬기자、악의·추연·극신 같은 현인들이 그 소문을 듣고 연나라로 몰려들어 연나라는 곧 부강해졌다
5。실 한 오리가 솥을 지탱하였다。여기서 솥은 조정을 뜻한다
6。누에집

二十三世 忠淸道兵馬使公 諱 雲瑞
충청도병마사공 운서

자(字)는 원백(遠伯)、증호조참판(贈戶曹參判) 석징(碩徵)의 장남으로 효종3년(1652)에 무과에 급제하여 충청도병마절도사(忠淸道兵馬節度使、從二)에 오르고、증 병조참판(贈兵曹參判、從二)에 제수되었다。

배위는 정부인 광주정씨(鄭氏)로 묘는 안성 불지에 있으며 쌍봉으로 표석이 있다。슬하에 8남 5녀가 있으며、경종 때 영의정을 지낸 간재공(艮齋公)과는 종형제 간으로 두 분 사이의 우애가 돈독하기로 이름이 났었는데 간재공의 다음 두 글에서 엿볼 수 있다。

送從兄兵使公赴任谷山
송종형병사공부임곡산

未佩將軍印 還乘太守車 秋生關路樹
미패장군인 환승태수차 추생관노수
春滿峽人居 骨肉三分遠 雲山萬疊餘
춘만협인거 골육삼분원 운산만첩여
東西無鴈使 消息月臨虛
동서무안사 소식월림허

종형 병사공을 곡산 임지로 전송하며

장군에 임명된 표장도 아직 차지 못하시고、오히려 태수의 수레에 오르셨네。가을은 관문 길가 나무에서 시작되고、봄은 산골자기 마을에도 가득하구나。

부모형제들은 여기저기 멀리 흩어져 살고、구름에 걸친 산은 만 겹도 넘네。

동서로 편지 전해 줄 방법 없으니、둥근 달이 초생 달이 될 때까지 소식이 묘연하네。(수양춘추 267쪽)

兵使公致祭日有感
병사공치제일유감

冊載君臣際 餘恩更及泉 絲綸宣敎語
책재군신제 여은갱급천 사륜선교어
芬苾雜爐烟 厚地遺魂泣 窮閭感事傳
분필잡노연 후지유혼읍 궁염감사전
周南嗟病滯 北望意茫然
주남차병체 북망의망연

병사공(종형)의 제일을 맞아

삼십년 군신 간의 의리로、돌아가신 뒤에도 성은이 황천

까지 이르렀구나。왕의 명을 받들어 덕화를 베푸시어、그 향기로움이 향로의 연기와 함께 피어 오르네。친밀하게 지내시던 곳엔 끼치신 정신에 감읍하고、곤궁하게 살던 마을에는 감사했던 일들이 전해져 내려오네。남쪽 지방 한 바퀴 돌다 슬프게도 병에 걸려 참사치 못하고、멍하니 북쪽을 바라다보니 마음이 착잡할 뿐이네。(수양춘추 268쪽)



비문 머리에 '충청도병마절도사'라는 전각(篆刻)이 뚜렷하다. 원곡면 지문리

二十三世 仁川府使公 諱 天瑞

인천부사공 천서

자는 자휴(子休)、호는 잠천(蠶川)이고 부친은 예빈시 별제(禮賓寺別提、從六)를 지낸 석우(碩佑)이고、륵촌공(櫟村公) 진해(振海)의 손자이다。

숙종10(1684) 甲子 식년시 진사(進士) 3등에 오르고 행예빈시 별제(行禮賓寺別提、從六)。통훈대부 인천부사(仁川府使)를 지냈다。

묘는 안성시 원곡면 지문리 언덕의 자좌에 있다。

배위는 숙인(淑人) 거창신씨(居昌愼氏)、父는 찰방(察訪) 인립(仁立)이며、슬하에는 1남 상원(尙遠)과 따님 한 분인데 황구하(黃龜河)에게 출가하였다。(경오보61 739。사마방목)

二十三世 敦寧府都正公 諱 星瑞

돈영부도정공 성서

자는 경보(景甫)、부친은 사도시정(司導寺正、正三) 석영(碩英)이며 간재공(艮齋) 규서(奎瑞)의 생가 아우이다。

관직은 통정대부 돈녕부도정(敦寧府都正、正三)을 지냈다。

경종21(1721) 8월 21일、『강도(江都、강화)의 장녕전(長寧殿) 공사를 감독한 사람들에게 상전을 행하였는데、유수(留守) 홍계적과 경력(經歷) 최성서(崔星瑞) 등에게 자급을 올려 주었다。』는 기록이 실록 41집 169면에 있다。

묘는 이천시 신곡면 지석촌(新谷面 支石村) 후에 위치하며, 배위는 숙부인 은진송씨(恩津宋氏)이며 父는 기태(基泰)이다。슬하에 1남 공조좌랑(工曹佐郎) 상호(尙顥)와 두 따님이 있다。

二十三世 龍驤衛副護軍 諱 裕義
용양위부호군 유의

공은 전한공 연(堧)의 9세손이며 부친은 통덕랑(通德郎) 득길(得吉)이다。

관직은 기해무과(武科)를 거쳐 절충장군(折衝將軍) 행용양위부호군(行龍驤衛副護軍、五衛의 從四)을 지냈다。

묘는 음성(陰城) 구룡지(九龍池) 병좌에 있다。

배위는 숙인(淑人) 파평윤씨(坡平尹氏)이며 父는 지영(芝永)이다。소생으로는 보천(普天) 한 분이 있다。

二十三世 贈吏曹參判公 諱 泰起
증이조참판공 태기

자는 군일(君一)、부친은 명원(明元)、조부는 장악원정(掌樂院正) 자양(自亮)이며 전한공 연(堧)의 9세손이다。

관직으로는 증가선대부、이조참판、겸동지의금부사、오위도총부부총관(贈嘉善大夫吏曹參判 兼同知義禁府事五衛都摠府副摠管、從二)을 받았다。

묘는 공주군 반포면 수남동에 간좌로 위치하였으나 후에 부인 풍천임씨 묘로 이장 했다。

배위는 증정부인 풍천임씨이며 묘는 반포면 신소동 계룡산 증봉(甑峰) 아래 정좌에 합봉으로 위치한다。슬하에 세 아들을 두었다。

후취배는 증정부인 밀양박씨로 두 아들을 낳았다。

二十四世 燕岐郡守公 諱 尙震
연기군수공 상진

초휘는 상강(尙綱)、字는 자장(子章)이다。영상(領相) 간재공의 큰아들이다。관직은 통훈대부 연기현감을 지냈다。

배위는 숙인 한산이씨(韓山李氏)로 부친은 감사(監司) 홍적(弘迪)이다。

묘는 안성시 원곡면 지문리 백련봉(白蓮峰) 선영하에 합봉하였는데 비문은 대사성(大司成) 조명교(曺命敎)공이 찬하였다。

소생으로는 괴산군수를 지낸 준흥(駿興)과 운흥(運興、仲父 출계)의 두 아들과 세 따님이 있다。

二十四世 贈吏曹參判公 諱 尙復
증이조참판공 상복

공의 초휘는 상용(尙龍)、字는 중심(仲心)이고 간재공의 둘째 아들이다。과천(果川)、진천、홍천 등지에서 사도시(司導寺、궁중의 양곡을 맡아보던 곳) 첨정(僉正、從四)을 역임하고 후에 증가

선대부이조참판 겸동지의금부 춘추관사 오위도총부부총관(贈吏曹參判兼同知義禁府春秋館事五衛都摠府副摠管、從二)에 제수되었다.

배위는 증정부인 경주김씨(贈貞夫人)와 증정부인 광주정씨이며, 묘는 충남 홍성군 광천읍 가시곡(佳柿谷) 안산 간좌에 위치한다.

후손으로는 보흥(普興)、범흥(範興)、무흥(茂興)、홍흥(洪興)、송흥(松興)、윤흥(潤興) 등 6남과 5녀를 두었다. 둘째 아들 範興공은 숙부 상관(尙觀)공으로 출계하였다.

二十四世 知中樞府事公 諱 尙鼎

지중추부사공 상정

字는 군수(君受)이다. 간재공(艮齋) 규서(奎瑞)의 셋째 아들로 사마시(司馬試)를 거쳐 삼척도호부사(三陟都護府使、正三)와 여러 목관(牧官)을 역임하고 內職으로 통정대부 호조참의(通政大夫戶曹參議、正三)。자헌대부 지돈영부사 지중추부사 겸오위도총관(資憲大夫知敦寧府事、知中樞府事兼五衛都摠管、각 正二)에 이르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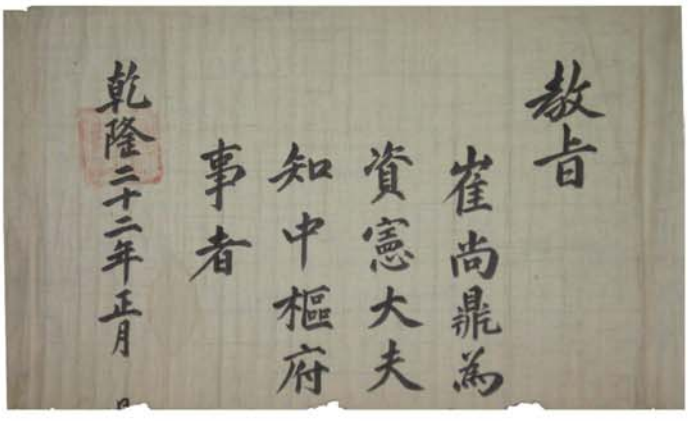
삼척 무릉계곡에는 유림들이 세운 송덕비(頌德碑)가 있으며 계곡 옆 큰 바위에는 공의 휘자가 크게 새겨져 있다.

배위는 정부인 덕수이씨(德水李氏)、父는 판서 선보(判書善溥)이며, 묘는 당초 용인시 이동면 어비리 방목동(魚肥里放木洞) 집뒤 丙坐에 위치하였으나 2001년 4월 5일 용인시 남사면 원암리 선산 납골묘(納骨墓)에 합봉으로 면례하였다.

후사는 系子(생부、尙震)인 형조정랑(刑曹正郎) 윤흥(運興)과 우흥(遇興) 그리고 딸 한 분이 있다.

교지

최상정위
자헌대부
지중추부
사 자
건륭이십이년 정월
교지(사령장) 자헌대부(正二品) 지중추부사 건륭22년(영조33년 1757) 1월



二十四世 東氷庫別檢公 諱 尙謙

동빙고별검공 상겸

공의 자는 사익(士益)、영상(領相) 간재공(艮齋公)의 넷째 아들이다。관직은 동빙고(東氷庫) 별검(別檢)을 역임하였다。

배위는 청송심씨이고 후손으로는 철흥(喆興)、경흥(景興)、인흥(寅興) 등 세 형제와 딸 하나를 두었다。

묘는 안성시 원곡면 지문리 백련봉 아래 합봉하였다。

二十四世 榮川郡守公 諱 尙觀

영천군수공 상관

공의 字는 자중(子仲)이며 간재공(艮齋) 규서(奎瑞)의 5남이다。공은 돈영부참봉(敦寧府參奉)、광여창봉사(廣與倉奉事)、장악원(掌樂院) 주부、의금부도사(義禁府都事)、장예원사평 등 내직을 거쳐 양천현령(陽川縣令)、익위사사어(翊衛司司禦)와 영천군수(榮川郡守)를 지내면서 임지인 영천(榮川、현 榮州)에서 향년 59세로 생을 마쳤다。(묘지(墓誌)

배위는 숙인 전주이씨(全州李氏)、父는 참판(參判) 대성(大成)이다。슬하에 외아들 범흥(範興)공이 있다。묘는 안성 불지 선고묘(先考墓)의 우측 백호록(白虎麓)에 합봉으로 축좌이다。

공의 묘에서 6·25 동란 당시로 추정될 무렵 묘지(墓誌)가 도굴되어 日人 고미술품전시상(商、시마쓰 노리끼) 氏의 수중에 들어갔으나 후에 공의 9세손인 봉섭(鳳燮)을 찾아와서 돌려주었다는 것이다。이로 인하여 공에 관한 사적이 더욱 확실하게 되었다。(墓誌 본문 및 번역문은 뒤따른다。)

※묘지의 사연은 수양 열전의 고려묘지명(高麗墓誌銘)란 참조

-通訓大夫行榮川郡守崔公墓誌-

통훈대부행영천군수최공묘지

(원문과 번역문)

(墓誌 第一卷)

朝鮮之陽城縣白蓮洞海州崔氏世山而其右麓丑坐之原卽先考榮川郡守諱尙觀字子中衣冠之藏也洞有集賢殿副提學諱萬理贈贊成行郡守諱振海贈領議政行縣監諱碩儒寺正諱碩英領議政奉朝賀謚忠貞公諱奎瑞墓於府君爲十世祖及曾祖祖考考三世而寺正公卽忠貞公本生考也遠祖高麗侍中文憲公諱冲妣貞敬夫人全州李氏文科僉樞諱蕙之女校理諱尙質之孫大提學趙公諱錫胤之外孫也府君以肅廟乙丑二月二十五日生以 -



소재(素材)는 청와백자(靑瓦白磁)이며, 크기는 세로 20cm, 가로 15cm 두께는 2cm이며 한 장의 큰 석판(石板)으로 된 고려의 묘지와 달리 이 묘지는 규모가 작은 다섯 쪽으로 되어 있다.

(註譯) 조선의 양성현(陽城縣) 백련동(白蓮洞)은 해주최씨 세장지산(世葬之山)이다。그 우측 산기슭 축좌의 언덕은 곧 선고이신 榮川(현 榮州) 군수 휘 상관(尙觀) 字는 자중(子仲)의 의관(衣冠、肉身)을 묻어 모신 곳이다。이 고을엔 집현전 부제학 휘 만리님、증찬성 行郡守 휘 진해(振海)님과 영의정증직에 현감을 지내신 휘 석유(碩儒)님 시정(寺正)을 지내신 휘 석영(碩英)님과 영의정을 지내시고 봉조하(奉朝賀)로 시호(諡號)가 충정공(忠貞公)이신 휘 규서(奎瑞)님의 묘가 계신데 부군에게는 十世祖 및 증조와 조고(祖考) 그리고 考의 三世가 모셔져 있는데 시정공(寺正公)은 忠貞公의 생부이시다。원조(遠祖)로는 고려조의 시중(領相) 文憲公 휘 冲님이 계시다。비(妣)는 정경부인 全州李氏로 문과 첨주(僉樞)인 휘 훤(藼)님의 따님이시며 교리를 지내신 휘尙質님의 손녀이시고 대제학 조석윤(趙錫胤)님의 외손이시다。부군께서는 肅宗十一年乙丑(1685) 二月二十五日에 出生하였다。

(墓誌 第二卷)

癸亥五月十五日棄不肖於榮川任所歸葬以是年八月享年五十九而敦寧府參奉廣興倉奉事掌樂院主簿義禁府都事掌隷院司評陽川縣令翊衛司司禦榮川郡守其內外所歷官也嗚呼以府君純篤之行宏厚之器不得於命九屈公車晩從蔭途官止四品此固一時士友之所

共惜不肖於此何敢私疑於天也府君誠孝出天事父母殆五十年愛敬如一日服勞左右老而不衰終食之頃念未嘗不在於親見者皆爲之感動李夫人年至七十六遘癘危革將屬纊府君血腕而進得以回陽加享九齡以大耋終

(註譯) 英祖十九年癸亥(1743)五月十五日에 別世하셨고 不肖가 영천(榮川) 任所에서 이해 八月에 귀장(歸葬)하니 향년(享年)이 五十九歲이시다。그리고 돈영부 참봉 광여 창봉사 장악원주부 의금부도사、장예원사평、양천현영、익위사사어、영천군수 등의 내외관직을 역임하셨다。오호라 부군의 순독(純篤)한 행의(行誼)와 굉후한 기량으로 천운을 얻지 못하시여 여러번 공거(벼슬 추천)에 굴하다가 늦게 음덕을 입었으나 관계가 四品에 그치니 이것이 진실로 당시 사우들의 하나같이 애석해 하던 일이나 불초가 여기에 어찌 감히 사사로히 하늘에 의심할 수 있겠는가。府君께서는 참으로 出天한 효자로 어버이를 섬긴 지 거의 五十年이고 존경하기를 하루같이 곁에서 힘을 다하여 모시고 늙으셔서도 조금도 쇠약하지 않으시도록 하였으며 식사하시는 짧은 시간에도 생각이 일찍이 어버이 곁을 떠나신 적이 없으니 이런 것을 본 사람들은 모두 감동하여 마지않았다。어머니 李氏부인이 七十六의 연세에 유행병으로 임종하실 지경에 이르렀을 때 부군 손목의 피를 수혈받아 건강을 회복하여 九年이나 수를 연장하시니 八十여 세의 수를 하시게 되었다。

(墓誌 第三卷)

平日孝思之孚格神明者吁亦至矣年近五旬荐丁內外艱素抱奇疾而不有其身六年啜粥哀毁過制病仅沈纏終捐性命府君之喪雖在服闋後七年實無異於不勝喪也府君有六昆季二姊妹而困心友子至意融洽十年之內五哭同氣哀慽輒過至兄弟家大小務皆身自幹之比自己家殆過教導其諸孤兒如己子至有成就諸侄皆事之如父其盡誠於喪祭之節者與範興無間焉前後居官皆以日月計而其荏榮獨五年矣恬簡爲治汹然無運用跡吏民安之無以名其政比其喪遑運焉如失父母四隣遠近

(註譯) 이는 平日 부모님을 생각하는 효성이 신명(神明)을 감동케 함이니、아! 역시 지극한 효심의 발로라 하겠다。五十이 가까운 연세에 연이어 부모상을 당하시어 평소 기이한 지병이 있는데도 몸을 돌보지 않고 六年 동안 죽을 드시며 슬퍼하시고 예제를 지나치게 하여 지병이 그로 인하여 재발해 끝내는 목숨을 잃으시니 부군의 상은 비록 부친 탈상 후 七年이 경과한 뒤의 일이나 실로 집상(執喪)을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쇠약해져 일어난 것이나 다름없다(부군상을 당한 것이)。부군께서는 육형제와 두 자매가 계셨는데 형제 간의 우애에 마음을 몹시 써서 지극하고 흡족하게

화목하였으나 十年 동안에 다섯 번이나 동기의 상에 곡하며 서러워함이 번번히 과분하셨고 형제 간의 대소사는 다 자신이 주간하여 自家에 비해 자못 과하게 하고 모든 조카들을 자기 자식과 다름없이 교도하여 성취시키니 제질(諸侄)들이 친아버지같이 받들어 초상과 제례에 정성을 다하는 모습이 아들인 나 범흥(생부는 尙復)과 다름이 없었다。관직에 계신 곳마다 時日로 헤아릴 정도이었으나 유독 榮川에 부임하셔서는 五年을 계셨는데 조용하고 대범하며 소탈하게 다스리니 그 治政이 깊고 넓어 운용하는 자취는 나타나지 않아도 아전과 百姓들은 평안하게 살았으며 치정에 명성은 없었으나 그 상을 당하여 허둥지둥 움직임이 저희들의 父母를 여읜 것같이 하고 사린원근(四隣遠近)이 ㅣ

(墓誌 第四卷)

亦皆風聞而至士治其喪而盡其禮民願擔輦而求遠赴或致輓操文送靳至數舍地或聚野相弔瞻望呼號者殆傾數郡嗚呼此豈可以聲音笑貌爲哉府君於立心行己待人接物之際一出誠懿無少勉强故事多有相感之應積誠於家而獲佑於天少試於郡而取懷於遠世之孝親忠國者何限而其得孚感之深如府君者殆振古而所未聞也府君德可以儀世材可以需國而旣不得展布其萬一則其實德至行之著於家者亦何忍泯泯無傳耶求言於當世君子以畧表揚固人子之所不可已而府君常謙恭自ㅣ

(註譯) 또한 풍문을 듣고 달려와서 선비들은 치상(治喪)에 그 예를 다하고 백성들은 상여메기를 원하고 멀리 訃音을 전하고 만장(輓章)을 보내오며 혹은 들판에 모여 서로 조문하며 우러러 사모하면서 울부짖는 자로 수군(數郡)이 한쪽으로 쏠린 것 같으니 오호라、이러한 것이 어찌 외양으로만 될 수 있는 일인가。부군께서 입심처신(立心處身)하고 대인접물(待人接物)하는 사이에 성의가 한결같이 밖으로 표출하여 조금도 달리 힘씀이 없이도 자연히 그렇게 되는고로 일마다 서로 감응하는 바가 많았고 적성지가(積誠之家)로 하늘의 보살핌을 얻어 한 군(郡)에 조금 시험된 것이 멀리까지 사모함이 행하여진 것이니 세상에 효친하고 충국하는 자 한없이 있으나 그 깊은 감동을 얻음에는 府君만한 분들을 옛부터 들어보지 못하였다。부군의 덕은 可히 세상의 모범이며 재질은 可히 나라에서 일해야 할 분인데 그 만분의 일도 전로(展布)하지 못하였으니 그 실덕(實德)과 지행(至行)이 가문에 나타난 것만이라도 빠지고 없어져서 無傳되는 것을 어찌 참을수 있단 말인가。當世君子에게 求言하여 표양(表揚)하고자 하는 것은 진실로 人子之道로 그만둘수 없는 바이나 府君께서는 항상 겸공(謙恭)으로 ㅣ

(墓誌 第五卷)

牧過於韜晦每敎不肖曰觀人於墓道則孰不可爲程朱韓富紀愈多而愈不信於後世失之不嚴大矣吾死後汝若蹈襲謬俗非所以事我者也範興重違遺意不敢煩人而私誌其槩于幽堂配淑人全州李氏參判諱大成之女也不肖嗣範興娶參奉朴最秀女生二男二女女適士人金載彧郡守光遂子男粹剛娶參奉尹光緝女餘尙幼後之護玆岡未知至於幾許世而千百代之下得此誌者不以吾文之拙而揜其表異之行是範興之望也不肖子範興扶血謹誌 ㅣ ㅣ 崇禎 三丙子 五月 日

(註譯) 자목(自牧)하여 묘(韜晦、어둠침침함)들을 지날 때 늘 불초에게 교육하신 말씀이 사람들의 묘도(墓道)를 살펴보면 어느 누가 可히 정자(程子)와 주자(朱子)、한기(韓琦)와 부필(富弼)이 아니리오。기록이 많을수록 후세에 불신을 더욱 남길 것이니 잃고 엄정하지 못한 바가 크도다。내가 죽은 뒤에 너희가 만약 그릇된 풍속을 답습하면 나를 섬기는 것이 아니니라 하셨으니、範興은 거듭 유의(遺意)를 어기고 감히 남에게 폐를 끼치는 일이 없이 사사로이 그 대략을 유당(幽堂)(묘)에 誌한다。배위는 숙인 전주이씨로 참판을 지내신 휘 大成님의 따님이다。불초사자(不肖嗣子) 範興은 참봉 박최수(朴最秀)님의 따님에게 장가들어 二男 二女를 두었는데 딸은 士人 김재욱(金載彧)에게 출가하였으며 군수를 지낸 관수(光遂)님의 아들이다。아들 수강(粹剛、養)은 참봉 윤광집(尹光緝)님의 따님에게 장가들었고 나머지는 아직 어리다。훗날 이 묘역의 보호가 몇 世代나 이를지는 알 수 없으나 千百代之下에 이르러 이 묘지(墓誌)를 득한 자는 나의 글은 졸작이나마 그 표의(表意)의 행의(行誼)를 계승함이 이 範興이 바라는 바이다。불초자 範興은 피눈물을 씻으면서 삼가 지(誌)하노라。

英祖三十二年(崇禎 三丙子) 五月 ○日
資料提供 九世孫 鳳燮、西紀1994年 7月 3日
註譯 成均館進士 道植 西紀2003年 1月 ○日

二十四世 司憲府持平公 諱 尙履

사헌부지평공 상리

자는 계수(季綏)、호는 해은(諧隱)이다。간재공 규서(奎瑞)의 막내아들인 6남으로 경기도 양성에서 자라났다。

숙종36년(1710) 경인 사마시(司馬試)와 숙종39년 증광문과(增廣文科)에 급제한 후 한림피영선관(翰林被瀛選官)을 거쳐 사헌부 지평지제교(司憲府持平、正五 知製敎、正三~從六)를 역임하였다。

공은 재능과 문장이 일찍 세상에 들어나 원대한 포부를 기약했으나 불행히도 일찍 세상을 뜨니 간재공(부친)은 먼저 간 아들을 위하여 「망아지평행장(亡兒持平行狀)」을 쓰고 슬퍼하였다。(간재집 12권) 공의 유집(遺集)은 다섯 권이 있다。

공은 숙종42년 뽑은 홍문록(弘文錄)에 숙종43년에 어사(御史)로 뽑혀 각 道로 파출되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배위는 숙인 용인이씨로 이조참판 이세최(李世最)의 딸이다. 묘는 안성 양성면 야곡 子坐에 합봉하였으며, 대제학(大提學) 이덕수(李德壽)가 비문을 썼다. 슬하에는 아들로 사헌부 지평(司憲府持平) 재흥(載興)과 따님 두 분이 있다.

二十四世 同知中樞府事公 諱 東逸

동지중추부사공 동일

자는 정창(正昌)、부친은 참판공(贈吏曹參判) 태기(泰起)이고、전한공 연(堧)의 10세손이다.

관직은 가선대부 동지중추부사(嘉善大夫同知中樞府事、從二)이다.

배위는 정부인 완산이씨(完山、全州)로 묘는 대덕군 탄동면 안산리 임좌에 있으며、소생은 종해(宗海)、계해(繼海、계배부) 두 아들이 있다. 그리고 재취 정부인 전주이씨가 있고、재취 정부인 예안김씨는 붕해(鳳海)、붕해(鵬海)의 두 아들을 낳았다.

二十四世 中樞院議官公 諱 仁弼

중추원의관공 인필

공의 부친은 위(違)공이며、전한공 연(堧)의 10세손이다.

관직은 통정대부 첨지중추원의관(僉知中樞院議官)을 지냈다.

배위는 숙부인 나주김씨(羅州金氏)이며 묘는 홍동면(洪東面) 대영리 산8번지의 고묘 下 임좌에 위치한다.

아들은 중추원의관(中樞院議官) 도정(道正)이다.

二十五世 槐山郡守公 諱 駿興

괴산군수공 준흥

자는 대이(大而)、영상(領相) 간재공의 장손으로 연기현감(燕岐縣監) 상진(尙震)의 큰아들이며 경기도 양성에서 자랐다.

숙종37년(1711) 신묘(辛卯司馬)에 진사 3등으로 26세에 입격하고 통훈대부 괴산군수(槐山郡守)를 지냈다. 묘는 안성군 양성면 상장서리(上長西里) 마을 뒤 경좌(庚坐)에 있었으나、2001년 불지 백련봉 선영하에 면례하였다.

배위는 숙인 문화유씨 호조참판(戶曹參判) 중무(重茂)의 따님이다. 묘는 합봉이며、슬하에는 외아들인 제능참봉(齊陵參奉) 수전(粹全)과 다섯 따님이 있다.(사마방록、경오보)

二十五世 壺隱公 諱 範興
호 은공 범흥

공의 字는 치해(穉楷)、호는 호은(壺隱)、휘 상관(尙觀)의 아드님이요、생부는 상복(尙復)이다。

서사(筮仕、첫 관직)로 현감을 지내시고 후에 증사복시정(贈司僕寺正)에 제수되었다。

공은 조부인 간재공(艮齋公)께 가서 성리학(性理學)을 수학하였으나 명예를 구하지는 않았다。가정에서는 효심이 지극했고、형제 간에는 우애가 돈독하였다。배위는 숙인 고령박씨이며、묘는 연산(連山) 척면(尺面) 봉황촌(鳳凰村)에 유좌로 합봉하였다。슬하에 아들로는 수양(粹養)과 수형(粹炯、종숙출계) 그리고 두 따님이 있다。

二十五世 工曹參議公 諱 潤興
공조참의공 윤흥

자는 순연(順演)이며、부친은 상필(尙弼)、고죽공 경창(慶昌)의 7세손이다。

관직은 통훈대부 공조참의(通訓大夫工曹參議)를 지냈다。

묘는 파주시 광탄면 검전리 산수곡 임좌에 위치한다。

배위는 숙부인 창원황씨이며、묘는 합봉이며、소생으로는 수선(粹善)、수형(粹亨)의 두 아들이 있다。

二十五世 贈左承旨公 命興
증좌승지공 명흥

자는 중수(重受)、호는 조은(釣隱)이다。부친은 증사복시정(贈司僕寺正) 상주(尙周)이며、전한공(墳)의 후손인 륵촌공(櫟村公) 진해(振海)의 현손이다。

관직은 증통정대부 승정원좌승지 겸경연참찬관(贈通政大夫承政院左承旨兼經筵參贊官)을 지냈다。사고(私稿)로는 행우세(行于世) 한 권이 있다。

묘는 영암군 학산면 금계리(구 계천리) 뒷 기슭 자좌에 위치한다。

배위는 증숙부인 파평윤씨、父는 순민(舜民)이다。

소생은 증호조참판 수덕(粹德)이다。

二十五世 協辨公 諱 載興
협판공 재흥

자는 경백(敬伯)、호는 동천(洞泉)이다。영상(領相)을 지낸 간재공의 막내아들인 사헌부 지평을 지낸 상리(尙履)의 외아들이다。

공은 영조(英祖)조에 左相 김약노(金若魯)와 右相 정우량(鄭羽良)의 천거로 인사자문회(諮議)를 거쳐 영조27년부터 사헌부 지평(持平、正五)에 세 차례 오르고 그후 시강원 서연관(侍講院書筵官)으로 제수되었으며 한때는 老母의 환우로 태인현감(泰仁縣監)으로 제수되었다。

이때 公 등을 모함하는 붕당이 있어 심질(心疾)이 있느니 이학(理學)에 깊이 빠지고 학식이 낮고 무능하다、주색에 빠져 음탕하다는 등의 음해를 받아 초선(抄選、의정대신 등이 모여 관원을 선임함)의 명적(名籍)에서 삭제되기도 하였다。이때 누차의 상주가 있었으나 영조는『자기와 다른 사람은 배척하고 자신을 따르는 자는 나오게 하니、이는 이미 공평한 마음이 아니다。』라 말하고 듣지 않았으나 영조30년 8월에 드디어 태인 현감 자리에서 파직되기에 이르렀다。

영조가 승하하고 정조(正祖)가 즉위하자 그해 4월 1일 공을 비롯한 이덕사、박상노 등이 편당을 지어 흉악한 사론(邪論)을 주장해 사람들을 현혹케 하고、향유(鄕儒)들을 사주하여 임오년(사도세자 아사사건 등) 일을 말한 상소 등 선대왕을 모함했다는 반역죄로 복주(伏誅、형벌을 순수히 받아 죽음)하였다。그리고 같은 해 5월 1일 그의 자식들도 분산되어 귀양길에 올랐다。

고종이 즉위하자 원년(1864)에 전교하기를『죄인 최재흥 등 11명을 모두 죄명을 삭제하고 관직을 회복하라。』명했다。또 고종37년(1900)에는 고 찬선(贊善、시강원 正三) 최재흥에게 종2품 상당직을 내리고 예관을 보내어 제사를 지내주라는 조령(朝令)을 내렸다。또 같은 해 8월에 최재흥 등 12명은 종2품 가선대부 내부협판(內部協辦、각부의 차관)을 추증받았다。묘는 고묘 우측 기슭 술좌에 합봉하였다。

배위는 숙인 경주이씨 목사(牧使) 석희(錫禧)의 따님이며、슬하에는 참봉 수신(粹臣)、수홍(粹弘)、수빈(粹賓)의 세 아들과 두 따님이 있다。

二十六世 入鄕祖 諱 粹良 입향조 수양

공의 字는 성온(聖溫)、익흥(翼興)의 외아들로 참봉 정해(挺海)의 6세손、전한공 연(堧)의 12세손이다。

공은 생활의 터전을 마련하느라 처음에는 고양군 송포면 가좌리(현 일산시)와 파주군 교하면 문발리 등에서 몇 해 살아보았으나 두 곳 모두 뒤 언덕이 낮고 협소한 농지에 후손들의 교육환경마저 마음에 들지 않아 또 다시 옮겨 심학산(尋鶴山、높이 194m、궁궐에서 잃었던 학을 찾았다는 전설) 아래 지금의 집성촌인 교하면 서패리(西牌里) 돌곶이 마을에 터전을 잡으니 후손들이 이곳에 화목하게 살아온 지 200여 년이 되었다。

공은 통덕랑(通德郞)으로 학덕(學德)이 널리 알려져 많은 후학들을 양성하고、향풍(鄕風)을 바로 세워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았다。

배위는 전의이씨(全義李氏) 복명(復明)의 따님(소생 없음)과 전주이씨 하평(夏坪)의 따님으로 파주 갈마동 술좌에 있다。소생은 진헌(晋憲)、국헌(國憲)、경헌(景憲)의 세 아들과 두 따님이 있다。

심학산 돌곶이 꽃마을



서패리 돌곶이 마을의 꽃과 심학산(向南 사진)

돌곶이 마을은 서해(西海)와 한강(漢江)、임진강(臨津江)의 물이 合水하는 소위 삼덕풍(三德豊)이라 이르는 광활한 지역과 아름다운 심학산의 기슭에 자리하고、마을 앞으로는 자유로(自由路)가 남북으로 통하고 출판단지와 인접해 있는데、마을과 주변의 농토를 온통 꽃밭으로 바꾸어 놓아 그 향기는 천지를 진동하고 가물가물 아지랑이와 같이 어우러진 꽃들이 동화 속의 신선마을을 방불케 한다。

이 꽃 단지 조성사업의 추진을 맡아온 은호(殷鎬)、재후(在厚)、춘호(春鎬) 종친 등 마을 주민들이 앞장서고、파주시에서 자금을 지원하여 유명 전문가(학자)들이 직접 관여하여 꽃과 향기를 심어 놓으니 첫해부터 상춘객이 쇄도했다。

二十六世 都摠公 諱 粹和

도총공 수화

공의 字는 화보(和甫)、부친은 익흥(益興)이며、륵촌공(櫟村) 진해(振海)의 6세손이며 고죽공(孤竹) 경창(慶昌)의 8세손이다。영조 戊申 무과를 거쳐 도총(都摠)을 역임하였다。

묘는 안성시 원곡면 방삼리(方三里) 마을 뒤편에 子坐에 있다。

배위는 숙부인 봉화정씨(奉化鄭氏)로 父는 상교(相僑)이며、묘는 공의 묘소에 쌍봉으로 위치한다。

슬하에 태헌(泰憲)、중헌(重憲)、경헌(景憲)의 세 아들을 두었는데、중헌(重憲)의 7세손 재익(在益)은 보은군、제천

군、단양군、청원군수를 역임한 후 忠北道의 내무국장과 도지사(직무대행)를 지냈다。

二十六世 進士公 諱 粹翁
진사공 수옹

字는 인노(仁老)、부제학공(副提學公) 만리(萬理)의 13세손、전한공(典翰公) 연(堧)의 12세손이며、부친은 조영(祚永)이다。

영조47(1771) 신묘 식년시(式年試) 進士 3등에 급제하고、정조2년(1778) 무술 정시(庭試) 甲科 1위(장원)에 급제하였다。

관은 무술 전책문장관(殿策文壯官) 형조좌랑(刑曹佐郎)등을 역임하였다。(國朝文科榜目)

공은 효심이 지극하여 부모님을 섬기는데 성의를 다하였고、박학하고 문장에 능함이 극에 달하여 다음과 같은 많은 저서를 남겼다。

《서서목(西序書目) 1권》、《개유와서목(皆有窩書目) 1권、송사전(宋史筌) 3권》、《국조보감별고(國朝寶鑑別攷) 28권》、《여지지관실고(輿地誌官室攷) 2권》、《어제흠휼보편지석(御製欽恤寶編誌釋) 32권》、《어집교정(御集校正) 3권》、《검색류집(檢索類集) 6권》、《조야집요정정(朝野輯要訂正) 20권》、삼봉집(三峰集) 14권》、《간고급세원록순비(刊考及洗寃錄旬枇) 4권》、《평원록(平寃錄) 2권》、《기상(己上) 116권》、《개봉교제진저내각술언(皆奉敎製進貯內閣述言) 148권》、《상례집설(喪禮輯說) 2권》、《이성심법(二聖心法) 1권》、《세덕록(世德錄) 8권》、《진매호집(陳梅湖集) 2권》、《총고(總考) 1권》등의 저서가 있다。

영읍(嶺邑)에 양사재(養士齋、선비를 가르치는 집)를 지어 일과 후에는 위의 장서를 통하여 가르쳤으며、흉년이 크게 든 해에는 굶주린 많은 백성들을 구제하였다。이에 감동한 백성과 선비들이 비(碑)를 세워 이 사실을 추모하였다。

배위는 초취로 숙인 한산이씨인데 一女가 있었고、하동정씨(河東鄭氏)가 있었으나 후사가 없어 종질(從姪) 석헌(錫憲)으로 뒤를 잇게 하였다。



진사 수옹(粹翁)의 묘
안성 원곡면 지문리(圓峰 병사공 묘 후원)

二十六世 贈吏曹參判公 諱 粹養
증이조참판공 수양

字는 순부(純夫)、간재공(艮齋公)의 증손으로 통덕랑(通德郎)에 이어 증이조참의(贈吏曹參議)에 제수되었다。

영조51(1775) 6월 4일、나이 65세가 되는 사람들이나 기해(1779)년에 70이 되는 노인들을 기당(耆堂)에 자손이 모시고 들어갈 때 전언에 이르기를

최수양의 증조(艮齋公)께서는 나라의 큰 공을 세우시고도 조정에서 내리는 훈명(勳名)을 극구 고사(固辭)하시어 은전을 베풀지 못하였는데、항차 기해년에 내가 조정의 은전을 입고 감히 기당(耆堂、기로소)에 들 수 있겠는가? 하고 그 특전을 사양하신 바 있었고 특히 강조하여 이르기를『짐승과 같이 사리의 판단력이 없는 보통사람이라 할지라도 어찌 전조(銓曹、吏曹의 높은 사람들)에서 내리는 벼슬을 받을 수 있겠는가? 이러한 조정의 모든 은전을 사양하겠다는 것이 나의 뜻이다。』라는 점을 명백히 하고 있다。

공은 병신년에 수의 참봉(首擬 - 수장 參奉)으로 있었고 다른 특전은 받지 않았다。또 다른 전언에 이르되 유학 최수양은 최봉조하(崔奉朝賀、간재공을 이름)의 증손이다。슬프도다、최봉조하는 가히 그 공이 百世에 빛이 남을 만 했는데 그 자손들이 비록 형제들 간에 차례로 조정의 벼슬길에 올랐다 하지만、최봉조하 훈작의 후광으로 오른 것은 아니었고 각자의 노력으로 올랐던 것이다。그후에도 후손들은 차례로 조정에 등용되어 公私를 분명히 하고、품위 있는 가풍을 지켜 나갔다。

배위는 증숙부인 파평윤씨(坡平尹氏)이고、또 한 분의 배위는 증숙부인 진주강씨(晉州姜氏)이시며 묘는 공과 합봉으로 파주 양구(楊口)공 묘하 경좌에 위치한다。배 파평윤씨 묘는 논산군 부적면 봉황리 시부모 묘하에 있다。슬하에 증이조참판(贈吏曹參判) 응헌(膺憲)과 따님 하나를 두었다。

二十六世 成均進士公 諱 粹灝
성균진사공 수호

자는 중즙(仲楫)、호는 연헌(蓮軒)이며 아버지는 흡흥(翕興)、사재감령 몽은(夢隱) 철견(鐵堅)의 6세손이다。전한공연(堉)의 12세손으로 경기도 죽산(竹山)에 살았다。

공은 正祖22년(1798) 무오 식년시(式年試) 진사 삼등(三等)에 유종주(柳宗周)의 방(榜) 아래 제32인으로 뽑히고、문명이 알려졌다。

배위는 김해김씨로 정혁(鼎爀)의 따님이다。묘는 안성 삼죽면 청계촌(淸溪村) 뒤 손좌(巽坐)에 공과 함께 쌍봉으로 있다。

소생은 병헌(柄憲)과 대헌(大憲) 그리고 구득원(具得源)에게 출가한 따님이 있다。

二十七世 金城監役公 諱 膺憲

금성감역공 응헌

공의 자는 백수(伯受)、통덕랑 수양(粹養)의 아들이며、간재 규서(艮齋 奎瑞)공의 현손이다。

공은 금성(金城、철원군 금화) 땅의 감역(監役)으로 서사(筮仕、첫 벼슬)하여 나이가 많아지면서 통정대부 돈영부도정(通政大夫 敦寧府都正、正三)에 이르렀다。후에 증가선대부 이조참판(贈嘉善大夫 吏曹參判)에 제수되었다。

묘는 용인(현 안성) 고삼면 신창리(新倉里) 서편 기슭 유좌에 있었는데 1993년 불지 영천공(榮川公) 묘하로 면례하였다。

배위는 증정부인 부평이씨(贈貞夫人 富平李氏)로 서윤(庶尹) 명운(鳴運)의 따님이다。묘는 파주(坡州) 선영의 오른쪽 기슭 신좌(辛坐)에 있다。

슬하에 장남 통정대부 이조참판 진(璡)、차남으로 준(玉俊) 그리고 따님 세 분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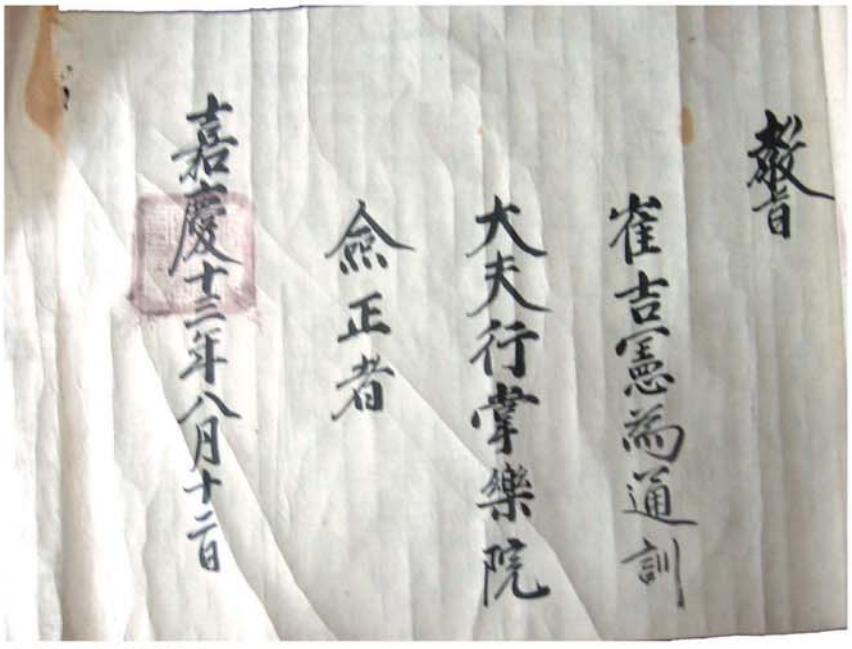
二十七世 金堤郡守公 諱 吉憲

김제군수공 길헌

자는 성계(聖繼) 또는 사빈(士斌)이며(초휘 술헌(述憲)이다。공은 간재(艮齋) 규서(奎瑞)공의 현손으로 생부는 수일(粹一)이며、재종숙 수전(粹全)의 뒤를 이었다。

관은 장수현감(長水縣監)을 서사(筮仕、첫벼슬)로 하여 통훈대부 김제군수(金堤郡守)、전주진영김제병마동첨절제사(全州鎭營金堤兵馬同僉節制使)、나주진영영암병마절제사(羅州鎭營靈巖兵馬節制使)、통훈대부 장악원첨정(掌樂院僉正、從四) 등을 역임하였다。

배위는 숙부인(淑夫人) 양주조씨(楊州趙氏)이며 부친은 영소(榮素)이다。묘는 원곡면 지문리 산정봉(山亭峰) 아래 축좌에 합봉으로 장사 지냈다。슬하에는 구암(苟庵) 황(璜)、원(瑗) 그리고 선(瑄)의 세 아들을 두었다。


敎旨
崔吉憲爲通訓
大夫行掌樂院
僉正者
嘉慶十二年八月十二日

최길헌 교지 장악원첨정

二十八世 司諫公 諱 珙
사간공 전

字는 기보(丌寶)、병조참판(兵曹參判) 치헌(致憲)의 3남이요、록촌공(櫟村公) 진해(振海)의 8세손이다。

신묘 명경문과(明經文科)에 오르고 사간원(司諫院)의 사간(司諫、從三)을 지냈다。丁巳年에 임소(任所)인 개성(開城)에서 생을 마치고 묘는 영암 미암면(美岩面) 채지리(採芝里) 안산(案山) 곤좌에 위치한다。

배위는 숙인 창녕조씨(昌寧曺氏)이며 욱승(旭承)님의 따님이다。슬하에 아들 항석(恒錫)과 딸 하나를 두었다。

(왕조실록48집 595 참조)

二十八世 都正公 諱 璜
도정공 황

공의 字는 국보(國輔)、호는 구암(苟庵)으로 길헌(吉憲)의 큰아들이며 간재공(艮齋) 규서(奎瑞)의 곤손(昆孫、6세손)으로 사손(嗣孫)이다。

20세에 반시(泮試)에 합격하여 순조23(1823) 재능참봉(齋陵參奉)에 처음 임명되고 그후 1834년 사옹원 봉사(司饔院奉事、임금의 탁담당 從八식)를 거쳐 익위사 시직(翊衛司侍直、왕세자 호위)를 거쳐 일직(日直) 때에는 헌종이 세손으로 책봉되어 개설한 서연(書筵)에서 입시하여 시강(侍講)하였다。

헌종1년(1835)에 산청현감에 임명되고、그후 면천(당진)군수가 되었으나 사직하고 고향에 돌아갔다가 1844년에 다시 거창부사(正三) 등을 거쳐 돈녕부도정(敦寧府都正、正三)이 되었다。

공은 어려서부터 재주가 비상하며 성품이 결백하고 지조가 강건하였다。그리고 해박한 지식으로 경사(經史)에 통달하고 시문에도 조예가 깊었다。친구를 사귐에는 평범하고 의리가 있었으며 자기가 한 일에는 진퇴가 분명하여 남들이 존중하며 중하게 여겼다。

친구 상공(相公、재상) 정원용(鄭元容)이 『나의 친구 아무개(璜)는 도덕군자와 같은 사람이다。』라고 칭찬하면서 용모는 맑고 강건하며 활달한 성품에 문장은 고결 정연하여 주위 사람들에게 옛적에 절개를 잘 지킨 이름난 열사와 같았다고 하였다。

또 상공(相公) 박영원(朴永元)공은 공이 별세할 때에 울면서 공에게 『금 같은 정조와 옥 같은 순결이 바로 공의 자질이니라。그리고 외로운 老松、무성한 잣나무 같은 지모를 지녔고 다른 한편으로는 바람 불고 서리가 내려 얼음이 얼고、바윗돌같이 차고 단단하며 당찬 것이 공의 지조이다。또한 행실이 높고 출중함은 밝게 깨달은 지식의 통달에서 우러나온 것이다。공의 생애를 더 논할 바가 있겠는가?』라고 말하였다。

상국(相國) 권돈인(權敦仁)이 일찍이 말하기를 공은 지닌 음조(蔭調、품은 성품과 행실 등 모든 것)를 모두 도출하여 펴내지 못하였으니 안타깝지 않은가。』라 하였다。(인명대사전, 경오보6권 1087)

대개 공의 여러 동료들이 보는 견해가 이러하였다.

저서로는《구암부묵(苟庵副墨) 16권》、《제자초략(諸子抄略) 12권》、《시총(詩叢) 6권》、《역예초록(易禮抄錄)》、《간재연보(艮齋年譜)》등이 있다.

배위는 숙부인 동래정씨와 숙부인 청송심씨인데 묘는 안성시 양성면 장서리(長西里)에 삼합봉(三合封)이다.

소생은 판관(廣州府 判官) 영석(永錫)과 통덕랑 장석(長錫)、증광문과(增廣文科) 주서(注書) 정석(定錫) 그리고 두 따님이다.

(왕조실록48집 532, 한국학중앙연구원, 경오보)

二十九世 注書公 諱 定錫

주서공 정석

字는 경보(景保)、간재공의 7세손이며 進士 원(瑗)의 계자(系子)이며 생부는 돈녕부(敦寧府) 도정(都正)을 지낸 황(璜)이다.(경오보 6-1092)

고종11(1874) 5월 27일에 증광문과(增廣文科)에 급제하여 고종12년에 승정원 주서(注書、正七)가 되었고 고종34년(1897) 9월에는 내부국장(內部局長)이었고 그때 폐하께 타당한 여론에 따라 황제의 칭호를 올릴 것을 청하는 치사(致仕) 봉조하(奉朝賀) 김재현 등의 상소를 올렸는데 상소의 요지는 아래와 같다.

고종34년(1897) 광무1년 9월 4일

『(전략) 우리 폐하는 성덕이 날로 새로워지고 文敎가 멀리 퍼져서 외국과 교제함에 있어서 만국(萬國)과 같은 등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오히려 옛날 호칭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은 실로 天心을 대양(對揚)하고 백성의 표준이 되는 도리가 아닙니다. 삼가 살펴보건대、구미(歐美) 여러 나라는 모두가 대등하게 왕래하여 우열을 나눌 수 없는데 아시아의 풍속은 그렇지 아니하여、그 위호(位號)가 우연이라도 같지 않을 경우에는 교제에 지장이 없지 않으니、이것은 참으로 충신(忠臣)이나 의사(義士)가 밤낮으로 개탄하는 점입니다。지금 만약 서둘러 황제의 칭호를 올려서 국민에 밝힌다면 시기하고 의심하는 마음은 날로 사그라지고 우의는 더욱 돈독하게 될 것이니、장차 천하만세(天下萬世)에 할 말이 있을 것입니다。우리나라의 강토는 한(漢)나라와 당(唐)나라의 옛 땅이어서 의관과 문물이 모두 宋나라와 明나라의 제도를 따르고 있는 만큼 그 계통을 접하고 그 호칭을 답습하더라도 안 될 것은 없으니、마치 독일과 오스트리아가 똑같이 로마의 계통을 이은 것과 같습니다。독립과 자주는 이미 만국의 공인을 거쳤으니 황제의 자리에 오르는 것은 진실로 응당 해야 할 성대한 의식인데 폐하께서는 무엇을 꺼려서 하지 않는 것입니까?

신들이 공법서(公法書)를 가져다 보니 (생략) 우리가 우리 일을 행하고 우리가 우리 예(禮)를 쓰는 것은 모두 자유로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승인하는 것(다른 나라들)이 늦고 빠른 것에 대하여서는 일에 앞서서 미리 헤아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였습니다。(중략) 삼가 바라건대、폐하께서는 여론을 따라 큰 칭호를 받아서 명성을 만천하에 알려서 天下와 더불어 다시 시작하소서。그렇게 하신다면 종묘사직에는 매우 다행이고、신하들과 (2000만)백성들에게도 매우 다행한 일이 되겠습니다。』하였다。

받든 칙지(勅旨)에

『상서를 보고 잘 알았다。이처럼 어려운 때에 짐에게 권면할 바가 어찌 한정이 있겠는가。그런데 이렇게 너무도 부당한 칭호를 가지고 말을 하니 실로 경들에게 바라는 바가 아니다。시국을 바로 잡을 계책을 궁구하고 다시는 이런 문제로 번거롭게 아뢰지 말라。』하였다。(승정원일기)

배위는 전주이씨로 진사 이용하(李容夏)의 따님이다。묘는 양성면의 고묘하(考墓下)에 합봉하였으며 슬하에 아들 창보(昌溥)를 두었다。

三十世 三司承旨公 諱 昌溥

삼사승지공 창보

字는 성언(聖言)、승정원 주서(注書)를 지낸 정석(定錫)의 계자(系子)이며 생부는 경석(敬錫)으로 간재공의 3남 상정(尙鼎)의 7세손이다。

고종25년(1888)에 별시문과(別試文科)에 급제하여 삼사승지(三司承旨)를 지냈다。고종25년(1888) 9월 4일、가주서에 임명되고、고종37년、분비서원승(正三)에 올랐다。(승정원일기)

배위는 경주이씨로 참봉 이계선(李啓善)의 따님이다。묘는 양성면 장서리 고묘하에 합봉하였으며 소생은 병만(秉萬、종숙 明溥승계)、병억(秉億)、병천(秉千、종숙 暘溥승계)의 세 아들과 세 따님이 있다。(경오보6-1092)

三十一世 同知中樞府事公 諱 秉孝

동지중추부사공 병효

자는 죽원(竹源)이요、아버지는 형보(亨溥)、조부는 태석(泰錫)이며 입향조 수양(粹良)의 6세손、고죽공 경창(慶昌)의 13세 종손으로 선산을 모시고 교하에서 자랐다。

고종8년 27세에 가설1 동지중추부사(同知中樞府事)를 지내고(승정원일기 고종8년 1월 3일)、고향의 집성촌인 파주 땅 서패리에 서당을 세우고 후학을 양성하니 인근에서 덕망으로 이름이 났다。그의 고장에 전하는 말에 따르면 파주 군수가 부임하면 공에게 먼저 와서 부임인사를 했고、사후 장례 시에는 인근 3개 면(삼남면、교하면、문발면)에서 문상객이 몰려와 월롱산(先山)으로 향하는 상여길이 십리를 이었다고 한다。초장 묘는 월롱산 고죽공의 묘하에 있었으나、1964년 미군(美軍)부대의 진주로 고죽공의 묘는 파주 청석으로、공의 묘는 파주 백석리 갈마동 선영에 이장했다가 다시 후손 승일(勝一)의 가족납골묘(시흥시 월곶동 산89-1)로 이장했다。

배위는 단양우씨(丹陽禹氏) 정하(定河)의 따님으로, 묘는 합봉이다。소생은 만섭(萬燮)、응섭(應燮、계秉喆)、광섭(光燮)의 삼형제와 다섯 따님이 있다。

註 : 1。가설 : 조선조에서 중추원(中樞院)에 지사(知事)、동지사(同知事)、첨지사(僉知事) 등에 정원 이외로 임시 가설한 직석인데 임기는 1개월이다。

三十一世 松南公 諱 秉巽

송남공 병손

공의 字는 子元이요、호는 송남(松南) 또는 만운(晩雲)이다。부친은 창순(昌淳)으로 전한공 연(堧)의 17세손이요、륵촌공(櫟村公)의 13세손이다。

공은 천성이 명랑하고 민첩한 지조와 고결한 몸가짐으로 行世하였다。父母에 효도하고 형제간에 우애를 근본으로 삼고 충실하고 동정심을 위주로 효우를 천륜의 뿌리로 삼았고、덕과 재능이 일찍 성취되어 후학 교도(敎導)에 모범을 보였다。

영재(寧齋) 이건창(李建昌)과의 친교가 독실하였으며 유고(遺稿) 한 권이 있다。

門人、우주인(紆州人) 황선택(黃善澤)이 찬한 공의 비문을 살펴보면

『(전략) 선생은 희대(稀代)의 선풍(仙風)이었고 해박(該博)한 漢學者이며 기술(記述)의 창달(暢達)과 정화(精華)는 一世의 선망(羨望)이었나니 지금의 방명(芳名)을 석학고유(碩學高儒)와의 사사(師事) 또는 사숙(私淑)이였고 한묵(翰墨)의 중진(重鎭)과 유위(有爲)의 인물이 그 門下에서 배출되었다。만년에는 행운유수(行雲流水)의 아취(雅趣) 속에 유유자적(悠悠自適)하는 은자(隱者)생활이었으나 그 명성을 흠모하여 운집하는 學徒 있어 유수(幽邃)한 문산재(文山齋)1 경내(境內)에 민민(珉珉)한 독서성(讀書聲)의 향도(嚮導) 있던 성세(盛勢)가 회상된다。(후략)』이라 하였으니 일생의 행적이 전래의 기강(紀綱)을 다지고 향풍(鄕風)을 순화하며 후진의 계도에 힘썼음을 알 수 있다。

공의 묘는 학산면 신덕리 해암(海岩)의 선영하에 있으며、배위는 죽산 安氏이며 父는 규영(圭瑛)이다。슬하에는 정섭(丁燮)、명섭(鳴燮) 두 형제와 딸로 해남인 윤응하(尹應夏)를 두었다。(경오보 권6 - 1002)

註 : 1。문산재 : 1683년에 옮겨 세웠던 서재(書齋)로 구림대동계(鳩林大洞契)에서 운영했던 것。

三十一世 世界的舞踊家 諱 承喜

세계적무용가 승희

여사는 조선 경종(景宗)조의 영의정(領議政) 간재(艮齋) 규서(奎瑞)공의 둘째 아들 참판공(參判公) 상복(尙復)의 8세손이며 부친은 진사(進士) 영보(映溥)이다。(가계도 참조)

세계를 풍미한 천부의 예능

女史는 어려서부터 천부적 춤 솜씨를 타고나 가끔 고향 마을(홍천 남면 제곡리)의 옻나무재 우물가에서 물동이를 이고 뱅글뱅글 춤을 추어 마을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곤 하였다고 한다。 5~6세 때에 아버지를 따라 서울(京城)로 이사 가서 숙명보통학교를 거쳐 숙명여자고등보통학교(淑明女子高等普通學校)를 졸업하였다。

1926년(16세)에 도쿄(東京)의 「이시이 바구 무용연구소(石井漠舞踊研究所)」에 유학하고、이듬해 1927년과 1928년에 연이어 이시이바구무용단의 경성작품발표회(京城作品發表會)에 나가 완숙한 춤 솜씨로 관중을 매료하여 유명해졌다。

1929년、서울에 「최승희무용연구소」를 차려 한국전통무용에 신무용을 접목하여 아름다운 춤을 고안하여 세계로 나가는 발판을 만들었다。 그리고 해외공연 시에는 한국의 무희(Korean dancer)임을 표방하여 당시 식민통치하에서 의욕을 잃고 있던 동포들의 환호를 받았다。

1934년、일본청년회관에서 승무(僧舞)、칼춤、부채춤、가면춤 등 신작(新作) 발표회를 열어 고전무용을 현대화하는데 성공하여 격찬을 받았고、1937년에는 영국、독일、이탈리아(후에 러시아) 등 유럽 여러 나라를 순회 공연하여 「동양의 무희」라는 찬사를 받았으며、1940년에는 미국을 비롯한 남미까지 진출하여 서구의 많은 예술가들이 「최승희의 춤」에 흠뻑 빠지게 하였다。



▲베를린올림픽 마라톤에서 우승한 손기정 선수 환영축하연에서 만난 여사(1936)

▶1930년대 대만에서 '조선 붐'을 일으킨 女史 (가운데 작은 사진은 당시의 대만신문. 중앙일보 2007. 6. 23)



18 2007년 6월 23일 토요일 문화

"1930년대 대만에 최승희 열풍" … 한류 원조

대만 교수, 당시 대만 신문·잡지 분석

대만 공연 때 "직장여성·기생·여학생 길 메워"

손기정, 소설가 장혁주 등과 '조선 붐' 주역

南島に踊りぬく

문화 단신

三十二世 獨立運動家 諱 昌燮

독립운동가 창섭

전한공 연(堧)의 18世孫으로 부친은 병제(秉悌、生父는 秉賢)이다。공은 경기도 파주군 탄현면 법흥리에서 자라나 1919년 3월 1일 독립운동 직후 전협(全協)、최익환(崔益煥) 등의 주도로 결성된 대동단(大同團)에 가입하여 항일(抗日)활동을 폈다。

대동단은 한민족의 역량을 결집하여 민족운동의 구심점이 되어 다양한 계층의 인사들을 규합하고 각종 인쇄물을 배포하며 독립사상을 고취하고、군자금 모집활동을 전개한 단체이었다。

1920년 1월 末頃 공은 대한민국임시정부(大韓民國臨時政府)에서 파견되어 조직 활동과 군자금모집을 담당했던 허영(許瑛)을 만나 임시정부의 활동자금 조달에 어려움이 있음을 호소하고 조선청년 모두가 조직을 확대하고 이에 협조해야 한다는 주장에 공명하여 모금활동을 펴기로 결심하고 허영의 지시를 받고 동향(同鄕)의 최경노(崔敬老)、황인수(黃麟秀) 등과 함께 경기도 일대에서 군자금 모금에 나섰다。

공은 「독립신문(獨立新聞)、경고문、대한독립군자금 기부청구서 등을 소지하고 제1차로 2만 원을、그후 제2차로 몇천원의 군자금을 모금하여 임시정부로 송달하며 활동을 계속하던 중 마침내 日本 경찰(警察)에 체포되어 1921년 5월 31일 경성지방법원(京城地方法院)에서 소위 제령(制令) 제7호 위반으로 징역 10년형을 언도받고 그 옥고(獄苦)를 치렀다。

※참고자료 및 조회처「경성지방법원 판결문(1921。5。31)、동아일보 기사(1921。6。2)、국가보훈처 독립운동사 자료집 9권 1049~1053」

三十三世 獨立運動家 諱 敬老

독립운동가 경노

一名 재덕(在德、경성지방법원 문서)으로 기록되어 있으며、전한공 연(堧)의 19世孫으로 부친은 응섭(應燮)、생부는 萬燮이다。출생지는 파주군 청석면 서패리이고 재종숙(再從叔)인 창섭(昌燮)의 권유로 독립운동에 뜻을 같이하고 활동하다가 1921년 5월 31일 역시 일경에 체포되어 경성지방법원에서 제령(制令) 제7호 위반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1924년 감형으로 1925년 3월 출옥함으로써 옥고 3년 10개월을 치렀다。

- 공적내용과 근거「국가보훈처 독립운동사자료집 제9집 1049-1053」
- 판결 主文「폭발물취체벌칙위반、정치범죄처벌령위반、징역 5년(경성지방법원 1921。5。31)」

三十四世 教育家 諱 台鎬
교육가 태호

공은 고죽(孤竹) 경창(慶昌)의 16세손, 충청도병마절도사 운서(雲瑞)의 12세손이며 부친 재선(在璇)의 장남으로 태어나 어려서부터 총명하여 글재주가 많았다. 경성사범(京城師範, 서울大學校 사범大學 전신)에서 수학하여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하다가 일제로부터 해방된 혼란기에 문교부 편수관(編修官)으로 발탁되어 우리나라 교육과정을 연구 개발하고, 초등학교 교과서를 편찬하는 등 나라의 신 교육체제를 바로잡는데 초석을 마련하는 기념비적 업적을 세웠다.

한편 공은 동요(童謠)·동시(童詩) 작가로서 文人으로 등단하여 주옥같은 문예작품을 많이 남겼고, 그 작품들은 교과서에 지도 자료로 채택되었다. 그후 중등, 고등교육(대학교육 등) 발전연구에도 힘써 춘천교육대학장, 경기상업고등학교장 등을 역임하면서 교단교사와 교육행정실무 분야에 있어서도 大敎育家로서의 큰 업적도 남겼다.

공은 또 고죽공의 후예로서 현 대종회 창립의 주역이었으며, 종지 편찬위원장으로 큰 업적을 세우는 등 위선사(爲先事)에도 이바지한 바가 크다. 국문학 전공 교수 30여 명과 함께 「고죽 홍랑시연구회(孤竹 洪娘詩硏究會)」를 조직 운영하여 홍랑(官妓 洪娘)의 시가(詩歌) 연구에 힘썼으며 「시인 홍낭 시가비(詩歌碑)」를 홍랑 묘역에 함께 세우고 직접 비문도 찬(撰)하였다. (인물전 5장 경 창 고죽공 참조)

배위는 용인이씨(龍仁李氏) 효숙(孝淑) 여사이며 父는 익한(翼漢)이다. 묘는 안성시 고삼면 신창리 호동(虎洞) 선영하에 있으며 후손으로는 태영(泰英), 태선(泰宣) 등 2남 4녀를 두었다.

縣監公(萬琁)派
현감공(만현)파

十四世 縣監公 諱 萬琁
현감공 만현

대령부원군(大寧府院君) 충헌공(忠憲公) 유엄(有渰)의 6세손 예빈시소윤(禮賓寺少尹) 하(荷)의 둘째 아들이며 세종조(世宗朝) 부제학(副提學) 만리(萬理)공의 아우이다. 공은 현감(縣監)을 지냈다.

아들로는 진사(進士) 구(垢)와 석(垢)이 있다.

領議政公派
영의정공파

十七世 諱 億之
억지

內需司
내수사

節

判下內 贈領議政崔墓山 從主山與左右龍虎山脉
爲定界禁伐 而若有冒禁者 隨卽報司懲處事 自
司啓下 分付本宮爲良如敎等乙用良 以此

雍正十二年 四月十三日 典需臣 池

雍正十二年 四月十三日 啓 依允

내수사(內需司)의 절문(節文)

판하1(判下)한 안에 증영의정(贈領議政) 최○○의 묘산(墓山)은 주산(主山)을 좇아 좌우청룡의 산협(山脉)을 경계로 정하여 벌목을 금하였다。만약 금벌(禁伐)함을 어기는 자가 있으면 따라가서 즉시 해사(該司)에 보고하여 징계할 것이다。자사(自司)에 계하2(啓下)한 것을 본궁(本宮)에 분부(分付)하라 하셨으므로、이로써 알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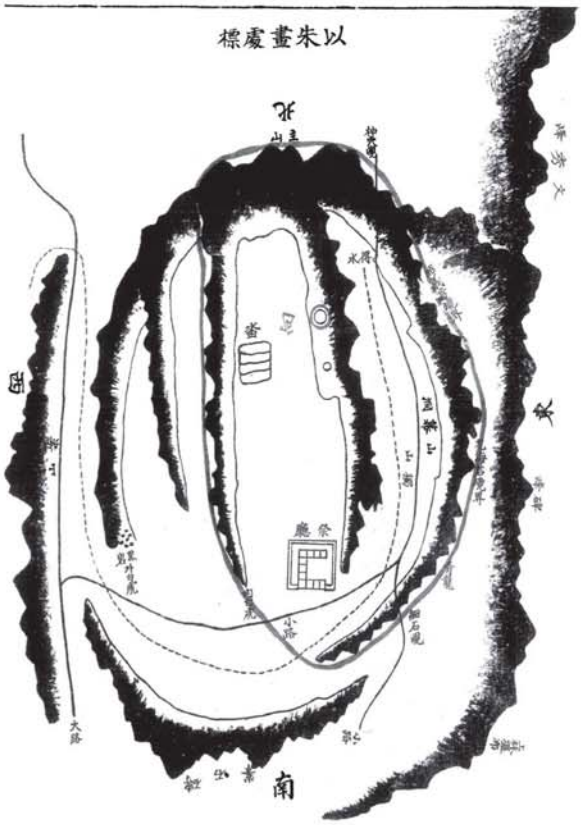
옹정(雍正) 12년(1734。영조 10) 4월 13일。

전수(典需) 신 지(池) 수결(手決)

옹정(雍正) 12년(1734。영조 10) 4월 13일에 계주(啓奏)하니、상께서 진계(陳啓)한대로 윤허하시었다。

註：1。판하(判下)：상주(上奏)한 형사 사건에 대한 임금의 재가(裁可) 사항。
2。계하(啓下)：임금의 재가를 받음。

贈領議政公墓所賜牌地界圖



御製 毓祥宮行錄
어제 육상궁행록

嬪崔氏系出首陽曾大父諱末貞官至通政大夫諱泰逸學生父諱孝元行忠武衛副司果母洪氏外祖通政繼南顯宗十年庚戌十一月初六日生十六年丙辰選入大內肅宗卽位之十九年癸酉始封淑媛甲戌封淑儀乙亥又封貴人己卯十月陞封淑嬪女官極品是歲實 上之二十五年嬪凡生三王子伯季生卽夭仲己卯初封延礽君辛丑陞儲位甲辰承大統嬪天性沉重簡默喜怒不形二十六年侍奉 兩聖莊敬戒愼夙夜不怠雖祁寒盛暑未嘗少弛凡於諸嬪暨于 宮人小心自遜和顔相接上心重之而 兩坤殿亦殊遇之尤自謙把故宮中老幼無不贊焉平生不喜言人長短而所御者雖或有言輒皆坈責故自封爵逮于疾革而一宮之內始終無間嬪性如是故同氣之隨行軍門者自嬪封爵後卽解其任不赴焉此可見嬪性之謹愼而然矣辛卯年自 上以節儉之意梨峴之宮屬之內司是乃嬪之宮也以仰贊盛意欣忭聖德此亦益可見 平日嬪心矣自丙申至于戊戌積疾三年間有因 上命歸第調治而久闕承問心嘗不安若得少愈輒卽詣闕症勢越添醫藥罔效同年三月初九日卒于彰義洞宮享年四十九是 上之四十四年也 三殿遣中官吊祭而賻贈特厚同年五月十二日禮葬于楊州高嶺洞瓮場里卯向原內庭之事外人不能知之今此碑文撰述之日不得不略叙梗槩以付於卿而古人贊辭夸張之說予不取焉亦非私親平日小心謹愼之意也茲故只摭其所詳知者而言之卿其念哉仍付管城烏玉以爲製作之少助焉孫男孫女俱在譜略

어제(御製) 육상궁행록(毓祥宮行錄)

빈(嬪)、최씨(崔氏)는 계보가 수양(首陽)에서 나왔다。증대부(曾大父)의 휘(諱)는 말정(末貞)이니、관직이 통정(通政)에 이르렀고、대부(大父) 휘(諱) 태일(泰逸)은 학생(學生)이며、부(父)의 휘는 효원(孝元)이니 충무위부사과(忠武衛副司果)를 역임하였고、모(母)는 홍씨(洪氏)이며、외조(外祖)는 통정대부로 계남(繼南)이다。

현종 10년(1669) 경술 11월 초6일에 출생하고、16년 병진(1676。숙종 2)에 대내(大內。궁궐)에 뽑혔다。숙종 19년 계유(1693)에 비로소 숙원(淑媛)에 봉하였고、갑술(1694)에 숙의(淑儀)에 봉해졌으며、을해(1695)에 또 귀인(貴人)에 봉해지고、기묘(1699) 10월에 숙빈(淑嬪)에 올랐으니、여관(女官)으로는 극품(極品)이다。

이해는 실제로 성상이 등극한 25년이다。빈(嬪)이 세

왕자를 낳았는데、백(伯)과 계(季)는 출생한 즉시 요사하였고、중(仲)은 기묘(己卯。1699)에 처음으로 연잉군(延礽君)에 봉해지고、신축년(1721)에 저위(儲位。동궁)에 올랐으며、갑진년(1724)에 대통(大統)을 이어받았다。

빈(嬪)은 천성이 침중(沈重)하고 간묵(簡默)하였으며、기쁨과 화남을 드러내지 않았고、26년에 걸쳐 두 임금을 시봉(侍奉)하였다。그리고 장경[1](莊敬) 하고 계신(戒愼)함을 아침저녁으로 게으르게 하지 않았으며、비록 극한(極寒)과 성한 더위라도 조금도 풀어지지 않았다。무릇 제빈(諸嬪)에서부터 궁인에 미치기까지 작은 마음을 가지고 스스로 겸손하였고 화순하게 서로 접대하였다。

그러므로 성상께서 마음속으로 그를 중히 여겼고、그리고 두 곤전(坤殿)에서도 또한 특별하게 그를 대우하였다。그럴수록 더욱 겸읍[2](謙挹) 하였으므로、궁중(宮中)의 노유(老幼)가 칭찬하지 않는 이가 없었다。

평생을 남의 장단(長短)을 말하지 않았고、모시는 자가 비록 혹 말함이 있더라도 모두 간절하게 타일렀다。그러므로 봉작(封爵)한 때로부터 질혁[3](疾革) 함에 미치기까지 한 궁의 안이 시종 이간함이 없었다。

빈(嬪)의 성품이 이와 같았기 때문에 동기간 중 군문(軍門)에 수행하는 자가 빈(嬪)이 봉군(封君)을 받은 뒤로부터 곧 그 직책을 해직하고 부임하지 않았으니、이는 가히 빈(嬪)의 성품이 근신(謹愼)하는 것을 보고 그렇게 한 것이다。

신묘년(1711、숙종 37)에 상께서 절검(節儉)하는 뜻으로 이현(梨峴)의 궁을 내사(內司)에 붙였으니、이는 바로 빈(嬪)의 궁이었다。그러나 성의(盛意)를 우러러 찬양하고 성덕(聖德)을 흠모하고 좋아하였으니、여기에서도 또한 더욱 평일의 빈(嬪)의 마음을 볼 수가 있다。병신년(1716。숙종 42)에서 무술년(1718。숙종 44)에 이르기까지 적질[4](積疾)에 걸린 3년간은 성상의 명으로 사제(私第)에 돌아가 병을 조섭하였다。그러나 오랫동안 문후를 받들지 못하였으므로 마음은 늘 불안해 하였으며、만약 조금이라도 병세가 나으면 곧바로 대궐로 나아갔다。

병의 증세는 더하고 의약(醫藥)은 효험이 없어 같은 해 3월 초9일에 창의동의 궁에서 졸서(卒逝) 하였다。향년 49세인 상의 44(숙종)년이었다。

삼전(三殿)에서 중관(中官。내시)을 보내어 조제(弔祭)하였고、그리고 부증[5](賻贈)이 특별히 후하였다。이해 5월 12일에 양주(楊州) 고령동(高嶺洞) 옹장리(瓮場里) 묘향(卯向)의 언덕에 예장(禮葬)하였다。

내정(內庭)의 일은 외인(外人)이 알 수가 없는 것이니、오늘 이 비문을 찬술(撰述)한 날에、부득불 간략하게 진술하지 않을 수가 없다。대체로 상께서 말씀하시길、『경에게 붙이고、그리고 고인(古人)들처럼 찬사(讚辭)와 과장(誇張)하는 말도 나는 취하지 않는다。이는 또한 사친(私親)께서 평일에 소심하고 근신한 뜻이 아니다。이렇기 때문에 다만 소상히 아는 바를 모아서 말한 것이니、경은 그것을 생각할 것인져!』라 하였다。이에 관성(管城)의 오옥(烏玉)에 붙여서 제작하는 것을 조금 돕도록 하였다。손남(孫男)과 손녀(孫女)는 모두 족보에 있으니 생략한다。

註 : 1。장경(莊 敬) : 장엄하고 공경하는 자세。
2。겸읍(謙 挹) : 겸손하고 사양함。
3。질혁(疾 革) : 병정(病情)이 위급함。
4。적질(積 疾) : 오랫동안 병석에 있음。
5。부증(賻 贈) : 상장(喪葬)을 돕는 물건을 보냄。

有明朝鮮國後宮淑嬪首陽崔氏之墓

유명조선국후궁숙빈수양최씨지묘

嬪姓崔氏其先海州人顯義光倫睿聖英烈　主上殿下後宮也癸酉始封淑媛歷淑儀貴人己卯陞淑嬪女官極品也嬪凡生三王子伯季生卽夭仲名昤封延礽君主管宗親府兼司饔院宗簿寺都提調又兼五衛都摠府都摠管娶郡守徐宗悌女嬪在宮中疾甚　上命出壯洞私第調治醫藥無效年四十九以戊戌三月初九日卒實　上之四十四年也五月十二日禮葬于楊州高嶺洞瓮塲里卯向原

皇明崇禎紀元戊辰後九十一年我　主上殿下卽阼之四十四年戊戌九月　日立

유명조선국후궁숙빈수양최씨지묘(有明朝鮮國後宮淑嬪首陽崔氏之墓)

빈(嬪)의 성은 최씨(崔氏)니、그 선조는 해주인(海州人)이고、현의광륜예성영렬주상전하(顯義光倫睿聖英烈主上殿下)의 후궁이다。

계유년(1693。숙종 19)에 처음으로 숙원(淑媛)에 봉해졌고、숙의(淑儀)와 귀인(貴人)을 거쳐 기묘년(1699。숙종 25)에 숙빈(淑嬪)에 올랐으니、여관(女官)으로 극품(極品)이다。

빈(嬪)은 모두 3명의 왕자를 생산하였는데、백(伯)과 계(季)는 출생하면서 즉시 요사(夭死)하였다。중(仲)의 이름은 금(昤)이니 연잉군(延礽君)에 봉함을 받아 종친부(宗親府)를 주관하였고、사옹원(司饔院)과 종부시(宗簿寺)의 도제조(都提調)를 겸임하였으며、또한 오위도총부도총관(五衛都摠府都摠管)을 겸직하였다。군수(郡守) 서종제(徐宗悌)의 여식에게 장가를 들었다。

빈(嬪)이 궁중에 있으면서 병세가 심하였으므로、상께서 장동(壯洞)의 사제(私第)로 나갈 것을 명하였다。의약(醫藥)으로 조섭하고 치료하였지만 효험이 없어서 나이 49세인 무술년(1718。숙종 44) 3월 초9일에 졸서(卒逝)하였으니、실상 상의 통치 44년의 해이다。

5월 12일에 양주(楊州) 고령동(高嶺洞) 옹장리(瓮塲里) 묘향(卯向)의 언덕에 예장(禮葬)하였다。황명숭정기원무진(皇明崇禎紀元戊辰) 후 91년 우리 주상전하께서 즉위(卽位)한 44년 무술(戊戌) 9월 ○일에 세웠다。

淑嬪海州崔氏昭寧墓

숙빈해주최씨소령묘

私親本首陽我 聖考肅宗大王後宮也庚戌十一月初六日生于餘慶坊私第考 贈議政府領議政孝元妣 贈貞敬夫人洪氏祖考 贈議政府左贊成泰逸祖妣 贈貞敬夫人張氏曾祖考 贈吏曹判書末貞曾祖妣 贈貞敬夫人張氏外祖通政繼南外祖妣金氏 嬪七歲入宮初封淑媛又封淑儀貴人又進封 淑嬪是內命婦正一品也 嬪誕三王子予其仲也卽祚元年建廟於順化坊都城北麓下十年甲寅春二月始追贈嬪考妣二十年甲子春正月又追贈 嬪考妣曾祖考妣越三月定 廟號曰毓祥墓號曰昭寧奉 祀之人遵 大院君奉祀孫之例四代後以敦寧正世襲事定規而置典監而守 墓以尊體貌嗚呼從今以岦 私親昔日賢哲之德可以揄揚小子尊奉報本之道可以少伸予有二男十女孝章世子是靖嬪誕生賢嬪趙氏卽豐陵府院君文命之女也世子是暎嬪誕生乙卯初封元子丙辰冊封甲子行嘉禮嬪洪氏卽洗馬鳳漢之女也第二女和順翁主下嫁月城尉金漢蓋第三女和平翁主下嫁錦城尉朴明源第七女和協翁主下嫁永城尉申光綏第九女和緩翁主第十女翁主尙幼矣今因碣文之撰遺於 墓表碑文者其悉錄焉噫于今竪石乃所以表定號而垂後世也若有一毫誇大之意則是豈體昔日謹飭之道乎 寫前後面大字陰記及上面蒙字 墓表墓碑墓碣竪立處碣石竪立月日令西平君橈繕寫籠石以爲後考之資同年秋八月溳吉竪立于 墓所左傍嗚呼二十五年劬勞之恩庶可以報萬一而今者此文捨文任之臣略略自述者亦小子體 私親之小心意也把筆臨寫涕泗被面追惟昔年感懷一倍矣皇明崇禎紀元後百十七年甲子秋七月十五日謹書

皇明紀元後百十七年我 至行純德英謨毅烈 主上殿下卽祚二十年甲子八月二十八日立于內青龍內午向 表石立於墓前卯向神道碑立於外白虎之內乙向誌石一本安於遊石下一本安於三階下

顯祿大夫西平君臣橈奉敎書

숙빈해주최씨소령묘(淑嬪海州崔氏昭寧墓)

사친(私親)의 본은 해주(海州)이니, 나의 성고(聖考) 숙종대왕(肅宗大王)의 후궁이다.

경술년(1670. 현종 11) 11월 초6일에 여경방(餘慶坊)의 사제(私第)에서 출생하였고, 고(考)는 증의정부영

의정(贈議政府領議政) 효원(孝元)이고、비(妣)는 증정경부인(贈貞敬夫人) 홍씨(洪氏)이며、조고(祖考)는 증의정부좌찬성(贈議政府左贊成) 태일(泰逸)이고 조비(祖妣)는 증정경부인(贈貞敬夫人) 장씨(張氏)이며、증조고(曾祖考)는 증이조판서(贈吏曹判書) 말정(末貞)이고、증조비(曾祖妣)는 증정경부인(贈貞敬夫人) 장씨(張氏)이다。외조(外祖)는 통정(通政)인 계남(繼南)이고 외조비(外祖妣)는 김씨(金氏)이다。

빈(嬪)은 7세에 입궁하여 처음에는 숙원(淑媛)에 봉해졌고、또 숙의(淑儀) 귀인(貴人)에 봉해졌으며、또 숙빈(淑嬪)에 진봉(進封)되었으니、이는 내명부(內命婦)의 정 一품이다。

빈(嬪)은 3명의 왕자를 출생하였는데、나는 그 가운데이다。왕에 오른 원년에 묘(廟)를 순화방(順化坊)、도성 북쪽에 있는 산 아래에 세웠다。

10년 갑인(1734。영조 10)년 봄 2월에 빈(嬪)의 고비(考妣)를 추증(追贈)하였고、20년 갑자(1744。) 봄 정월에 또 빈(嬪)의 고비(考妣)와 증조고비(曾祖考妣)를 추증(追贈)하였으며、3월을 넘기고 묘호(廟號)를 정하였으니、『육상(毓祥)』이라 하였고 묘호(墓號)는 『소령(昭寧)』이라 하였다。봉사(奉祀)하는 사람은 대원군에 대한 봉사손(奉祀孫)하는 예를 좇아 4대 후에는 돈녕(敦寧)으로 정히 세습할 일로 규정을 정하였고、그리고 전감(典監)을 두어 묘를 지키게 하여 체모(體貌)를 높였다。

아! 이제부터 이후로는 사친(私親)께서 옛적에 현철(賢哲)한 덕으로 이끌어주셨으므로 소자는 높이 받들어 보본(報本)하는 도리를 조금이나마 펴려고 합니다。

저는 2남 10녀를 두었는데、효장세자(孝章世子)는 정빈(靖嬪)의 탄생(誕生)이고、현빈(賢嬪) 조씨(趙氏)는 곧 풍릉부원군(豊陵府院君) 문명(文命)의 여식이며、세자(世子)는 영빈(暎嬪)의 탄생입니다。을묘년(1735。영조 11)에 처음으로 원자(元子)에 봉하고、갑자년(1744。영조 20)에 가례를 행하였으니、빈(嬪) 홍씨(洪氏)는 곧 세마(洗馬) 봉한(鳳漢)의 여식입니다。제2녀 화순옹주(和順翁主)는 월성위(月城尉) 김한신(金漢藎)에게 하가(下嫁)하였고、제3녀 화평옹주(和平翁主)는 금성위(錦城尉) 박명원(朴明源)에게 하가(下嫁)하였으며、제7녀 화협옹주(和協翁主)는 영성위(永城尉) 신광수(申光綏)에게 하가(下嫁)하였고、제9녀 화완옹주(和緩翁主)·제10녀 옹주(翁主)는 아직 어립니다。

이제 갈문(碣文)을 찬술하여 묘표(墓表)와 비문(碑文)에 남기는 것은 다 기록했습니다。아! 오늘에 비를 세우는 것은 바로 정한 이름을 표해서 후세에 드리우려함입니다。만약 털끝만큼이라도 과장하려는 뜻이 있다면 이는 어찌 옛적에 사친(私親)께서 근칙(謹飭)하는 도에 합체가 되겠습니까! 전후면의 대자(大字) 음기(陰記)와 및 상면에 전자(篆字)를 썼고、묘표(墓表)와 묘비(墓碑)와 묘갈(墓碣)을 세운 곳에 갈석(碣石)을 세웠으며、모월 모일에 서평군(西平君) 요(橈)에게 농석(籠石)을 선사(繕寫)1하게 해서 후세에 상고할 자료로 삼게 하고、그리고 동년 8월에 길일을 택하여 묘소의 좌방에 세웠습니다。

아! 25년을 구로(劬勞)한 은혜를 만분의 일이라도 갚으려 하는데, 오늘의 이 글은 문원을 맡은 신하를 놓아두고 간략하게 자술한 자도 또한 소자(小子)이니, 사친(私親)의 소심(小心)한 뜻을 본받으려한 것입니다。 붓을 잡고 글씨를 쓰려고 하니 눈물이 얼굴을 가리고 미쳐 생각하니 옛날의 감회가 한 배나 더합니다。

황명숭정기원후(皇明崇禎紀元後) 117년 갑자 추(秋) 7월 15일에 삼가 썼습니다。

황명기원후(皇明紀元後) 117년, 우리 지행순덕영모의열주상전하(至行純德英謨毅烈主上殿下)께서 즉위한 20년 갑자 8월 28일에 내청룡(內靑龍) 안 오향(午向)에 세웠고, 표석(表石)은 묘앞 묘향(卯向)에 세웠으며, 신도비(神道碑)는 외백호(外白虎)의 안 을향(乙向)에 세웠고, 지석(誌石)은 한 본은 유석(遊石)의 아래에 안치하였으며, 한 본은 세 번째 계단 아래에 안치하였습니다。

현록대부(顯祿大夫) 서평군(西平君) 신(臣) 요(橈)가 명을 받들어 썼습니다。

註 : 1。 선사(繕寫) : 잘못을 바로잡아 다시 베낌。

朝鮮國
조선국

和敬淑嬪昭寧園
화경숙빈소령원

皇明崇禎戊辰紀元后百二十六年卽祚二十九年癸酉
六月庚戌日上 謚封 園嗚呼是年卽
私親封爵回甲也前後面皆飮泣自寫

조선국화경숙빈소령원(朝鮮國和敬淑嬪昭寧園)

황명숭정무진(皇明崇禎戊辰)은 기원후(紀元後) 126년이고, 즉조(卽祚)한 29년 계유 6월 경술일(庚戌日)에 시호(諡號)를 올려 원(園)을 봉하였습니다。 아! 이해는 곧 사친(私親)께서 처음으로 작위에 봉해진 지 회갑(回甲)이 되는 날입니다。

전후면(前後面)을 다 눈물을 흘리면서 제가 스스로 썼습니다。

淑嬪崔氏神道碑銘
숙빈최씨신도비명

有明朝鮮國淑嬪崔氏神道碑銘幷序
綏祿大夫錦平尉兼五衛都摠府都摠管臣朴弼成奉

教撰
顯祿大夫礪山君兼五衛都摠府都摠管臣枋奉　教書
綏德大夫西平君兼五衛都摠府都摠管臣橈奉　教蒙
我殿下受命踐祚之元年乃　先淑嬪崔氏旣卒之八年也因有司考例陳請　命樹麗牲之石其文則不以　命詞臣而以　命臣弼成旣又　教曰誇張之辭予所不取亦非　先嬪平日小心謹愼之意其念哉臣弼成承　命悸恐屢辭終不獲　命則謹稽行錄崔氏系出首陽曾祖諱末貞階通政祖諱泰逸學生考諱孝元行忠武衛副司果妣洪氏通政繼南女也以　顯廟庚戌十一月己未生嬪丙辰選入宮甫七歲　肅宗大王十九年癸酉始拜淑媛甲辰進淑儀乙亥陞貴人越四年己卯封　淑嬪女官極品也　嬪天姿沈凝簡默喜怒不形於色奉侍兩殿夙夜靡懈莊敬戒愼戰兢自飭其接諸嬪暨宮人旣遜旣和俱得其懽心　上心重之奧我　仁顯王后暨我　惠順慈敬大妣亦殊遇之　嬪益自謙畏尤不喜言人短長侍御者或有言輒加誨責一宮之內翕然稱美焉　嬪同氣之籍軍門者自　嬪封爵辭遞其任　嬪謹愼之心實使之然也　上初以梨峴宮爲　嬪私第辛卯　命屬之內司　嬪知　聖意出於節儉克贊不色吝自丙申遘疾三載沈淹間有因　上命出第調治以久闕承　候常懷未安或少間輒卽詣闕雖在疾病而其誠敬之不替如此戊戌三月九日戊午卒于彰義洞私第春秋四十九　肅宗四十四年也　三殿遣中官吊祭贈賜特厚哀榮備至以是年五月庚申禮葬于楊州高嶺洞瓮場里枕酉之原　嬪生三男維我主上殿下序居第二伯季生卽天我　殿下初封延礽君辛丑冊　王世弟甲辰誕承大統　中宮殿下徐氏　贈領議政達城府院君宗悌女也　王世子邸下貞嬪李氏所誕初封敬義君乙巳進冊　儲副　王女和順翁主幼未下嫁臣竊伏念　嬪柔嘉其性淑愼其儀敦重靚穆溫恭和順承　寧考恩遇垂三十載而勤儉自持卑巽以牧岡敢榮貴少移所守肆惟壺闈之間德意之融洽誠信之篤至於休無間可以輝暎彤營儷靈徃牒則其迓迎天休篤生聖人承　列聖難大之投綿宗祏千億之祚者其必有由然矣臣於摭實之文寧質無華庶有以仰體　聖意而仍又繼之銘曰　天鍾異姿旣淑且靈塞淵其德繁自穉齡夙被睿眷承以巽順誠心內蘊孚洽宮壺卜協大橫

天祐吾東丕承丕顯祚命靈長善慶之徵厥理式章鬱彼
崇岡有碑斯豐稽首綴銘用詔無窮
皇明崇禎紀元後九十八年乙巳月日建

숙빈최씨신도비명(淑嬪崔氏神道碑銘)

유명조선국숙빈최씨신도비명병서(有明朝鮮國淑嬪崔氏神道碑銘幷序)

수록대부금평위겸오위도총부도총관(綏祿大夫錦平尉兼五衛都摠府都摠管)인 신(臣) 박필성(朴弼成)은 명을 받들어 찬술(撰述)하였다.

현록대부여산군겸오위도총부도총관(顯祿大夫礪山君兼五衛都摠府都摠管)인 신(臣) 방(枋)은 명을 받들어 썼다.

수덕대부서평군겸오위도총부도총관(綏德大夫西平君兼五衛都摠府都摠管)인 신(臣) 요(橈)는 명을 받들어 두전(頭篆)을 썼다.

우리 전하께서 즉위한 원년은 바로 숙빈(淑嬪) 최씨가 이미 졸(卒)한 지 8년이 되는 날이다。유사(有司)가 전례(前例)를 상고하여 여생지석1(麗牲之石)을 세울 것을 진청(陳請)하였으니、그 글은 사신(詞臣)에게 명하지를 않고 신(臣) 필성(弼成)에게 명하였다。전에 이미 또 하교하시기를、『과장된 말을 나는 취하지 않는 바이다』고 하시었고、또『선빈(先嬪)께서 평소에 소심하고 근신한 뜻도 아니니、그것을 생각하라』고 하시었다。신(臣) 필성(弼成)은 명을 받고 황공하여 여러 번 사양했으나 마침내 승낙을 받지 못하였다。상께서 명한 것은 곧 행록을 삼가 상고하는 것이니、최씨는 계보가 수양(首陽)에서 나왔다。증조의 휘(諱)는 말정(末貞)이니 품계가 통정이고、조(祖)의 휘는 태일(泰逸)이니 학생(學生)이며、고(考)의 휘는 효원(孝元)이니、행직(行職)이 충무위부사과(忠武衛副司果)이고、비(妣)는 홍씨(洪氏)니、계남(繼南)의 여식이다。

현종 10년(1669) 경술 11월 기미(己未)에 빈(嬪)을 출생하고、병진(1676。숙종 2)에 입궁(入宮)에 뽑혔으니、겨우 7세의 나이였다。

숙종대왕 19년 계유(1693)에 비로소 숙원(淑媛)에 제배(除拜)되었고、갑술(1694)에 숙의(淑儀)에 봉해졌으며、을해(1695)에 또 귀인(貴人)에 봉해지고、4년을 뛰어넘은 기묘(1699)에 숙빈(淑嬪)에 봉함을 받았으니、여관(女官)으로는 극품(極品)이다。

빈(嬪)은 천성이 침중(沈重)하고 간묵(簡默)하였으며、희노(喜怒)를 빛으로 드러내지 않았고、양전(兩殿)을 시봉(侍奉)하면서 아침저녁으로 게으르게 하지 않았고、장경2(莊敬) 하고 계신(戒愼)하며 조바심을 내어 자신을 신칙하였고、접대함에는 제빈(諸嬪)에서부터 궁인에 미치기까지 겸손하고 화순하게 하여 모두 그들의 환심을 얻었으므로 성상께서 마음으로 중하게 여겼고、우리 인현왕후(仁顯王后)와 및 혜순 자경 왕대비(惠順自敬王大妃)도 또한 다르게 그를 대우하였다。고럴수록 빈(嬪)은 더욱 겸손하였고 더욱 남의 장단을 말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다。시어(侍御)하는

자가 말이 있으면 문득 회책3(誨責)을 가하였으니、궁궐의 안이 흡연(翕然)하여 아름답게 여겼다。빈(嬪)의 동기(同氣) 중에 군문(軍門)에 적을 둔 자가 빈(嬪)이 봉작(封爵)이 되자 그 임무를 사체4(辭遞) 하게 하였으니、빈(嬪)의 근신(謹愼)하는 마음은 실제로 그를 그렇게 하려는 것이었다。

상께서 처음에 이현궁(梨峴宮)으로 빈의 사제(私第)를 삼았다가 신묘(辛卯。1711。숙종 37)에 내사(內司)에 소속시켰으나、빈께서 성상의 뜻이 절검(節儉)함에 있음을 알고 능히 인색하다는 빛을 드러내지 않았다。병신년(1716。숙종 42)에 병을 만나 3년을 침엄(沈淹)하였다。그 사이에 또 상의 명령에 의해 사제(私第)에 나가 조섭하고 치료하였고、그리고 오랫동안 성상의 안후를 받들지 못함을 항상 마음으로 미안하게 생각하였으며、혹 갑자기 궁궐에 나가게 되면 비록 병중에 있더라도 그는 성경(誠敬)함을 바꾸지 않음이 이와 같았다。

무술년(1718。숙종 44) 3월 9일 오시에 창의동(彰義洞) 사제(私第)에서 졸(卒)하였다。춘추가 49세니、이는 숙종 44년이다。

삼전(三殿)에서 중관(中官。내시)을 보내어 조제(弔祭)하였고、그리고 증사(贈賜)함이 특별히 후하였으며、생전엔 영광이요 사후엔 애모(哀慕)함의 정이 지극하였다。이해 5월 12일 경신(庚申)에 양주(楊州) 고령동(高嶺洞) 옹장리(瓮場里) 유좌(酉坐) 묘향(卯向)의 언덕에 예장(禮葬)하였다。

빈(嬪)께서는 삼남(三男)을 낳았으니、우리 주상전하는 둘째 아들이다。그리고 백(伯)과 계(季)는 출생한 즉시 요사하였다。우리전하께서는 처음에는 연잉군(延礽君)에 봉하였고、신축년(1721。경종 원년)에 왕세제(王世弟)에 책봉되었으며、갑진년(1724)에 대통(大統)을 받았다。중궁전하 서씨(徐氏)는 증영의정달성부원군(贈領議政達成府院君) 종제(宗悌)의 여식이다。왕세자저하(王世子邸下)는 정빈(貞嬪) 이씨(李氏)에게서 탄생하여 처음으로 경의군(敬義君)에 봉해지고、을사년(1725。영조 원년)에 저궁(儲宮)으로 부왕(副王)에 진책5(進冊) 되었다。딸 화순옹주(和順翁主)는 어려서 하가(下嫁) 하지 않았다。

신(臣)이 절념(竊念)건대、빈께서는 성품은 유가6(柔嘉)하였고 거동은 숙신7(淑愼) 하였으며 돈중8(敦重) 하고 정목(靚穆)하며 온공(溫恭)하고 화순(和順)하였다。영고(寧考)를 받든 은우(恩遇) 30년을 근검함을 스스로 지녔고 낮추고 겸손함으로 수양하였으며、감히 영귀(榮貴)할 수가 없다고 생각했지만、조금은 자신을 지키는 데에 옮겼다。그러므로 곤위(壺闈)의 사이에서 덕의(德意)는 융흡(融洽)하고 성신(誠信)은 두텁고 지극함이 간극이 없어서 가히 동영9(彤瑩)에 비춰 왕첩10(往牒)에 짝하였으니、곧 천휴11(天休)를 맞아 성인(聖人)을 탄생한 것이다。열성(列聖)을 잇는、이보다 더 클 수 없는 것을 던져 종사(宗社)를 면면(綿綿)하게 이은 것은 천억(千億)의 복이니、그것은 반드시 연유가 있는 것이다。신은 사실적인 글만을 채록(採錄)하였으니、차라리 질박할지언정 화려함이 없게 한 것은、거의 성상의 뜻을 받든 것이다。곧바로 또한 이어서 명(銘)을 한다。

天鍾異姿 하늘에서 나에게 부여한 특이한 자질은
旣淑且靈 이미 정숙하고 또한 영수(靈秀)하였다네
塞淵其德 독후(篤厚)하고 성실한 그 덕은
繫自稱齡 어린 나이에서부터 매어 있었네
夙被睿眷 일찍이 성상의 권고(眷顧)함을 입었고
承以巽順 손순(巽順)한 마음으로 받들었다네
誠心內蘊 성심(誠心)을 안으로 쌓아
孚合宮壺 믿음으로 궁곤(宮壺)에 부합했네
卜協大橫 점쾌는 대횡12(大橫)으로 협력하고
天佑吾東 하늘은 우리 동방을 도왔다네
丕承丕顯 크게 계승하고 크게 나타남이여
祚命靈長 하늘은 복을 주고 신령은 길러주었네
善慶之徵 착한 경사의 징조가 있는 것은
厥理式章 그 이치가 법이 되어 나타났네
鬱彼崇岡 울창한 저 높은 산에는
有碑斯豐 비(碑)가 있어서 풍족하다네
稽首綴銘 머리를 조아려 명(銘)을 지으니
用詔無窮 후세에 알림이 무궁하리.

황명숭정기원후(皇明崇禎紀元後)
98년 을사년(乙巳。1725。영조 원년)
○월 ○일 건립하였다。

註:1。여생지석(麗牲之石):사당이나 묘 앞에 세우는 비를 말함。
2。장경(莊敬):장엄하고 공경하는 자세。
3。회책(誨責):훈계하여 꾸짖음。
4。사체(辭遞):벼슬을 내놓고 물러감。
5。진책(進冊):책보(冊寶)를 올리는 것。
6。유가(柔嘉):유화하고 미선(美善)한 것。
7。숙신(淑愼):현량(賢良)하고 근신(謹愼)하는 것。
8。돈중(敦重):돈후(敦厚)하고 장중(莊重)함。
9。동영(彤瑩):자전(字典)에 전거(典據)할 수 없다。단 문맥으로 보면 붉게 칠한 궁궐을 말하는 듯하다。
10。왕첩(往牒):옛날의 전적(典籍)을 말함。
11。천휴(天休):하늘이 준 아름다움、
12。대횡(大橫):거북의 등으로 점을 치면 등의 무늬가 횡으로 터짐을 말함。

毓祥宮誕生室懸板四座
육상궁 탄생실 현판 사좌

御製餘慶坊記懷
嗚呼今逢初度月只誦蓼莪微忱采坊同朔之內昨今兩
日瞻養正齋臨餘慶坊嗚呼於予初度月連瞻
聖后
先妣誕室復何餘憾且其愈奇者兩處予已留筆而令世
孫繼書兩室
陟降與
宴宴想必欣喜昨已拜故於今日今侍人奏瞻餘慶坊欲
於風月軒東階望瞻而來適有爲予備饌其雖一嚌餠有
與湯而昨日只以酒果脯醢行禮今日食此豈曰予道二
嚴旣下之後卽詣設饌奠酌而面自此以後於集慶堂庶

可弛心而食乘輦呼寫令我世孫代予書而揭于西楣焉
歲庚寅卽予初度月二十六日飮涕而記
噫此坊卽西學洞也於來此也每見學儒祗迎今日亦
然回後欲召隆武堂賜饌兼賜紙筆以示予意呼寫已
畢夏思頃臨司宰藍卽因其契而然也況此學在於此
坊咫尺乎何待隆堂因詣本學見諸生賜紙筆而回矣

육상궁탄생실현판사좌(毓祥宮誕生室懸板四座)

상(上)이 여경방(餘慶坊)에서의 기회1(記懷)를 제술하다。
아! 오늘 초도(初度。생일)한 달을 만나서、다만 시경 요아2(蓼莪) 편을 읽으니 미침3(微忱)이 간절하다。같은 달、어제와 오늘 양일에 양정재(養正齋)를 보고 여경방(餘慶坊)에 왔으니 아! 나의 초도(初度)한 달에는 연이어 성후(聖后。숙빈)를 보았네。
선비(先妣)의 탄실(誕室)에서 다시 무슨 남은 감정이 있겠는가! 또한 그곳에 더욱 기이한 것은 두 곳에 이미 나의 머물었던 글씨가 있고、그리고 이어서 세손(世孫)에게 양실(兩室)에 대하여 쓰게 하였다。
명명(冥冥)한 하늘에 척강(陟降)하실 것이니、생각하면 반드시 기쁘니다。지난날 이미 배례(拜禮)를 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시인(侍人。내시)에게 여경방(餘慶坊)을 돌아보게 하였고 풍월헌(風月軒) 동쪽 뜰에서 바라보려고 내려오니、마침 나를 위해 음식이 준비되어 있었다。그것은 비록 한 그릇의 떡과 안주와 및 탕(湯)이었으니、어제는 단지 주과(酒果)와 포혜(脯醯)로 예를 행했는데、오늘은 이를 먹었다。어찌 이것이 나의 도라 말하겠는가!
이엄4(二嚴)이 이미 내린 뒤에 곧바로 나가 찬(饌)을 설시(設施)하고 술을 올리고 돌아왔다。이런 뒤에야 집경당(集慶堂)에서 마음을 풀고 식사를 하고 연(輦)에 올랐다。그리고 나의 세손(世孫)에게 명하여 나를 대신하여 쓰게 해서 서미(西楣。서쪽의 추녀 아래)에 걸었다。
경인년 곧 내가 초도(初度。생일)한 달 26일에 눈물을 흘리며 기록한다。
아! 이 동네는 곧 서학(西學)이 있는 골이다。이곳에 와서는 매양 학유(學儒)들이 지영5(祗迎) 함을 보았는데、오늘도 또한 그러하니、돌아간 뒤에는 융무당(隆武堂)에 불러 음식을 하사하고 겸하여 종이와 붓을 하사하여 나의 마음을 보여주고자 한다。이를 다 쓰게 한 뒤에 다시 생각하니、지난날에는 사재감(司宰監)에 임하여 그들의 계(契)에 대해서도 그렇게 하였는데、더구나 이 서학(西學)이 이 동네의 지척에 있음이랴! 어찌 융무당(隆武堂)에서만 대접하랴!。이를 인연해서 본학(本學)에 나가서 모든 학생들을 보고 종이와 붓을 하사하고 돌아왔다。

註：1。기회(紀懷)：회포를 기술하다。
2。요아지시(蓼莪之詩)：효자가 부모의 봉양을 뜻대로 하지 못하는 것을 슬퍼하여 읊은 시경에 나오는 시。
3。미침(微忱)：작고 엷은 마음。
4。이엄(二嚴)：불교어(佛敎語)。지혜장엄(智慧莊嚴)과 복덕장엄(福德莊嚴)

을 말함.
5。지영(祗迎)：백관(百官)이 임금의 환행(還行)을 공경하여 맞음。

自製自筆
자제자필

此(차)
日(일)
八(팔)
瞻(첨)
近(근)
八(팔)
今(금)
初(초)
庚寅至月六日飮涕以書(경인지월육일음체이서)

자제자필(自製自筆)

스스로 짓고 스스로 썼다。
이날에 들어가 우러러보았으니、근래 들어간 것은 오늘이 처음이다。
경인년(１７７０。영조 ４６) １１월 ６일에 눈물을 흘리며 썼다。

御筆
어필

西部餘慶坊西學洞此舍卽　贈領相崔以子贈承旨戛
名庚戌五月初二日買得而同年十一月初六日
先妣誕生丙辰冬十月十六轉賣于金兌鼎于今九十二
年求得來見豈夢想攸料自此以後庶無餘憾
歲辛巳卽祚三十七年八月五日飮涕以識

어필(御筆)

서부(西部) 여경방(餘慶坊) 서학동(西學洞)에 있는 이 집은 곧 증영상(贈領相) 최모(崔某)가 아들 증승지(贈承旨) 후(垕)의 이름으로 경술년(１６７０。영종 １１) ５월 초２일에 매득(買得)해서 동년 １１월 초６일에 선비(先妣)가 탄생하였다。병진년(１６７６。숙종 ２) 겨울 １０월 １６일에 김태정(金兌鼎)에게 전매(轉賣)하였다가 오늘 ９３년에 구득(求得)하고 와서 봤으니 이 어찌 꿈속에서도 바라던 바가 아니리요！ 이후로는 거의 남아있는 섭섭함이 없어졌다。
신사년(１７６１)은 즉위한 ３７년 ８월 ５일에 눈물을 머금고 기록하였다。

御筆
어필

嗚呼此室卽
先妣誕生後六年丙辰轉賣者溫堄二間廳一間卽舊舍
也噫予年六十八來而奉審今年七十二復來奉審此誠
千千萬萬料表追記其槩扶涕以書
歲乙酉仲秋六日
同爲鐫揭于房內卽予卽祚四十一年也噫予初度月在
來月而奉審于此復何餘憾遙望昭寧只自嗚咽矣

어필(御筆)

아! 이 집은 곧 선비(先妣)가 탄생한 뒤 6년 병진(1676)에 전매(轉賣)하였다.

온돌 2간, 대청 1간은 곧 옛집이다. 아! 내 나이 68세에 와서 봉심1(奉審)하였고, 금년 72세에 다시 와서 봉심(奉審)하니, 이는 진실로 천천만만(千千萬萬)의 뜻밖이다. 그래서 그 대략을 추기(追記)하고 눈물을 닦으며 쓴다.

을유년(1765. 영조 41) 8월 6일.

함께 방 안에 새겨 걸었으니, 내가 즉위한 41년이다.

아! 나의 초도(初度. 생일)한 달은 내월(來月)이나 그러나 여기에 와서 봉심(奉審)하였으니, 다시 무슨 여한(餘恨)이 있으랴. 멀리 소령(昭寧)을 바라보며 다만 스스로 오열(嗚咽)할 뿐이다.

註: 1。奉審(봉심): 왕명을 받들어 陵所(능소)와 廟宇(묘우)를 보살핌。

十八世 贈資憲大夫吏曹判書 諱 末貞
증자헌대부이조판서 말정

墓碣銘
묘갈명

贈貞夫人平康張氏兩位之墓
公本海州以 至行純德英謨毅烈主上殿下 私親曾
祖考妣 卽祚二十年甲子春正月二十日 特命 贈
職墓在楊州神穴面佛光里午向原有一男卽贊成公也
其子孫詳載 贈贊成墓表與 贈領議政墓表故只記
其槩焉
顯祿大夫西平君兼五衛都摠府都摠管臣橈奉 敎
書
歲 皇明崇禎紀元後百十七年甲子四月二十四日立
御 癸酉上 謚封 園後判書加贈左 贊成
筆 壬午閏五月追記令鐫于表石左傍仍命摠戎使表
祀

묘갈명

공의 본관은 해주(海州)니, 지행순덕영모의열주상전하(至行純德英謨毅烈主上殿下)께서 사친(私親) 증조고(曾祖考)와 증조비(曾祖妣)에게 즉위한 20년 갑자년 봄 정월 20일에 특명(特命)으로 증직(贈職)하였다.



영의정공파 선산 전경
서울시 은평구 진관외동 산101-1)

묘는 양주(楊州) 신혈면(神穴面) 불광리(佛光里) 오향(午向)의 원(原)에 있다. 1남이 있으니 곧 찬성공(贊成公)이다. 그 자손은 증찬성묘표(贈贊成墓表)와 및 증영의정묘표(贈領議政墓表)에 상세히 기재되어 있으므로, 단지 그 대략만 기록하였다.

현록대부서평군겸오위도총부도총관(顯祿大夫西平君兼五衛都摠府都摠管)인 신(臣) 요(橈)가 명을 받들어 썼다.

계유년에 시호를 올려 원(園)을 봉하였고, 뒤에 판서에서 좌찬성에 증직함을 더하였다.

임오년 윤 5월에 추기(追記)하고 표석(表石)의 좌측에 새기라 명하고, 곧 총융사(總戎使)에 명하여 제사를 받들라 하였다.

十九世 贈崇政大夫議政府左贊成 諱 泰逸

증숭정대부의정부좌찬성 태일

墓碣銘

묘갈명

公本首陽以 至行純德英謨毅烈主上殿下 私親祖考妣 卽祚二十年甲子春正月二十日 特命 贈職墓在楊州神穴面佛光里午向原乃 贈吏曹判書同原

也公有男三伯通政成立仲通政忠立季卽 贈領議政諱孝元也 贈領議政子孫詳載 贈領議政墓表而通政成立孫是壽基乃奉祀也通政忠立孫是壽巖也

顯祿大夫西平君兼五衛都摠府都摠管臣橈奉 敎書

歲 皇明崇禎紀元後百十七年甲子四月二十四日立

御 癸酉上 謚封 園後左贊成加贈右議政

筆 壬午閏五月追記令鐫于表石右傍仍命摠戎使奉祀

묘갈명

공의 본관은 수양(首陽)이니, 지행순덕영모의열주상전하(至行純德英謨毅烈主上殿下)께서 사친(私親) 조고(祖考)와 조비(祖妣)를, 즉위한 20년, 갑자년 봄 정월 20일에 특명(特命)으로 증직(贈職)하였다.

묘는 양주(楊州) 신혈면(神穴面) 불광리(佛光里) 오향(午向)의 원(原)에 있으니, 바로 증이조판서(贈吏曹判書)와 같은 산이다.

공은 아들 3을 두었으니, 백(伯)은 통정대부인 성립(成立)이고, 중(仲)은 통정대부인 충립(忠立)이며, 계(季)는 곧 증영의정(贈領議政) 휘 효원(孝元)이다. 증영의정(贈領議政)의 자손은 증영의정묘표(贈領議政墓表)에 자세히 기재되어 있고, 통정(通政)인 성립(成立)의 손자인 수기(壽基)가 제사를 받들고 있으며, 통정(通政) 충립(忠立)의 소자는 수암(壽巖)이다.

현록대부서평군겸오위도총부도총관(顯祿大夫西平君兼五衛都摠府都摠管)인 신(臣) 요(橈)가 명을 받들어 썼다.

계유년에 시호를 올려 원(園)을 봉하였고, 뒤에 판서를 좌찬성에 증직함을 더하였다.



우묘18세 말정, 좌묘 19세 태일

임오년 윤 5월에 추기(追記)하고 표석(表石)의 좌측에 새기라 명하고, 곧 총융사(總戎使)에 명하여 제사를 받들라 하였다.

二十世 贈大匡輔國崇祿大夫
증대광보국숭록대부
議政府領議政 諱 孝元
의정부영의정 효원

墓碑銘
묘비명

贈貞敬夫人南陽洪氏祔

公諱孝元系出海州初以宣略將軍行忠武衛副司果甲寅二月十八日遵文事 贈大匡輔國崇祿大夫議政府領議政兼領經筵弘文館藝文館春秋舘觀象監事考學生泰逸妣平康張氏祖通政末貞曾祖億之議政公配貞敬夫人南陽洪氏通政繼南女公生於 崇禎戊寅二月二十三日卒于壬子八月十五日享年三十五夫人生於 崇禎己卯十月十七日卒于癸丑十二月十八日享年三十五同窆于楊州神穴里坤向之原有一男二女男萬戶垕娶順興安氏父通政俊榮女長府使徐專次 先淑嬪垕生一男一女男壽崗武科萬戶娶武兼金熙潤女生二男長鎭海登武科娶金斗杓女次鎭衡娶安瑞莢女女適趙泰恒武科萬戶生一男三女男慶祥武科折衝女長適李世寬次適權繼重次適金胤宗專生一女適李馨年 贈職竪碑乃是古例而體 私親小心之意恤有司經費之竭今本官竪立世系及內外子孫自內書下命宗臣西平君橈繕寫上石墓表雖小垂後則大

皆崇禎紀元後再甲寅春三月日立

묘비명
증정경부인남양홍씨(贈貞敬夫人南陽洪氏)를 부장(祔葬)하였다.

공의 휘(諱)는 효원(孝元)이니, 계보는 해주(海州)에서 나왔다. 처음에는 선략장군(宣略將軍)으로 충무위부사과(忠武衛副司果)였는데, 갑인년(1734. 영조 10) 2월 18일에 고사(故事)를 좇아 증대광보국숭록대부의정부영의정겸영경연홍문관예문관춘추관관상감사(贈大匡輔國崇祿大夫議政府領議政兼領經筵弘文館藝文館春秋館觀象監事)에 추증되었다. 고(考)는 학생 태일(泰逸)이고 비(妣)는 평강장씨(平康張氏)이며, 조(祖)는 통정(通政)인 말정(末貞)이고 증조(曾祖)는 억지(億之)이다. 의정공의 배(配)는 정경부인남양홍씨(貞敬夫人南陽洪氏)니 통정(通政) 계남(繼南)의 여식이다.

공은 무인년 2월 23일에 출생하였고, 임자년(1638)

8월 15일에 졸(卒)하였으니, 향년이 35세였고, 부인은 숭정(崇禎) 기묘(己卯。1639。인조 17) 10월 17일에 출생하였고 계축년(1673。현종 14) 12월 18일에 졸(卒)하였으니 향년이 35년이었다。양주(楊州) 신혈리(神穴里) 곤향(坤向)의 원(原)에 합폄하였다。

자식은 1남 2녀를 두었다。남(男)은 만호(萬戶)인 후(垕)로 순흥안씨에 장가들었고, 부(장인)는 통정(通政)인 준영(俊榮)이다。큰딸은 부사(府使) 서전(徐專)이고, 작은딸은 숙빈(淑嬪)이다。후(垕)는 1남 1녀를 낳았다。남(男) 수강(壽崗)은 무과에 급제하여 만호(萬戶)를 역임하였고, 무겸(武兼) 김희윤(金熙潤)의 딸에게 장가들었다。2남을 낳았으니, 큰아들은 진해(鎭海)로, 무과에 올랐으며 김두표(金斗杓)의 여식을 취(娶)하였고, 작은아들은 진형(鎭衡)으로 안서협(安瑞英)의 여식을 취(娶)하였으며, 딸은 조태항(趙泰恒)에게 시집을 갔으니, 무과에 올랐다。만호는 1남 3녀를 낳았으니, 아들 경상(慶祥)은 무과에 올라 절충(折衝)이고, 큰딸은 이세관(李世寬)에게 출가하였으며, 작은 딸은 권계중(權繼重)에게 출가하였고, 또 작은딸은 이형년(李馨年)에게 출가하였다。

증직(贈職)하고 비를 세우는 일은 고례(古例)를 따르고 사친(私親)의 소심한 뜻을 본받았으며, 유사(有司)의 경비가 고갈되는 것을 걱정하여 본궁(本宮)에게 명하여 비를 세웠다。세계(世系)와 및 내외의 자손은 내서(內書)에서 종신(宗臣) 서평군(西平君) 요(橈)에게 명하여 상석에 보충하여 쓰라 하였다。묘표는 비록 작으나, 뒤에 세운 것은 크다。

숭정기원후(崇禎紀元後) 재갑(再甲) 갑인년 봄。3월 일에 세웠다。



영의정공파20세 효원 묘

二十一世 贈通政大夫
증통정대부
經筵參贊官 諱 昱
경연참찬관 후

墓碣銘
묘갈명

贈淑夫人順興安氏祔左

維楊州神穴里艮坐之原有崔公諱昱墓者公卽我 和敬淑嬪之兄也一日公之冢孫左尹鎭海袖家狀來謂余曰吾祖之墓久未有銘以此屬之於子子其圖之余辭以不文其請愈久而愈勤豈謂余終有不敢辭之義而然歟余於是不可不銘公矣謹按公海州人我朝士夫以門地相尙彷彿乎江左規模以巨室名者非一二而海州之崔卽其一也公之世雖中微不振其源流之遠且大可知也考 贈領議政諱孝元祖 贈右議政諱泰逸妣貞敬夫人南陽洪氏 贈左贊成繼南女配淑夫人順興安氏通政俊榮女以 孝宗丁酉生以 富宁辛亥卒又乙亥贈通政大夫承政院左承旨用左尹貴也盖公姿性溫良以謙謹自持嘗因軍門勞 除萬戶及其歸遂杜門不與人接比隣亦不知其爲誰氏家實蹟之見於狀者雖止於此亦可以想公之風矣嗚呼自古貴近之家初未嘗不奕爲光大而驕逸奢汰多不能保其子孫而惟積善者乃有後焉天道然矣若公以宮掖至親小心謹畏一切勢利泊然不留意在家七十年以一靺韋終其身不悔非賢能如是乎其隱德潛光必有可傳者多而獨無赫赫之位不得表章於世是可慨耳雖然神明所勞休祿滋臻及其孫被上簡拔致位卿列爲世所艷身後之福將無窮而爲善之報有不可誣者豈非天歟嗚呼休矣有一男一女 贈叅判壽崗娶宣傳官金熙潤女女適萬戶趙泰恒壽崗生二男長鎭海卽左尹兼摠戎使娶及第金斗杓女次鎭衡兵馬節度使娶萬戶朴萬始女趙泰恒生一男三女男慶祥營將女適直長李世寬萬戶權繼重幼學金胤宗鎭海生二男一女長宗岳軍資判官早歿娶學生南宮鐔女次東岳宣傳官娶幼學李遠鎭女女適進士李亮國庶子弼岳鎭衡生三男一女長朝岳宣傳官娶幼學閔宗聖女次景岳挺岳女幼子孫之衆自此而將不可勝書矣銘曰

本質之美蘊以謹厚維其有之克昌厥後我詞非諛昭示永久

通訓大夫行弘文館校理知製敎兼 經筵侍讀官

春秋館記注官西學教授 世孫侍講院文學洪樂仁
撰
嘉善大夫禮曹叅判兼同知春秋館事金時默書
崇禎紀元後三癸未四月 日立
竪碑後三年乙酉十一月十五日
上特命加 贈嘉善大夫兵曹叅判兼同知義禁府事訓
鍊院都正
淑夫人安氏加 贈貞夫人

묘갈명

증숙부인순흥안씨부좌

생각건대 양주(楊州) 신혈리(神穴里) 간좌(艮坐)의 원(原)은 최공 휘(諱) 후(垕)의 묘가 있으니, 공은 곧 우리 화경숙빈(和敬淑嬪)의 오빠이다。 하루는 공의 총손(冢孫、적장손(嫡長孫))인 좌윤(左尹) 진해(鎭海)가 가장(家狀)을 가지고 와서 말하길、『우리 조부(祖父)의 묘에 오랫동안 비명(碑銘)이 없었으므로、이것을 그대에게 붙이니 그대는 비명을 찬(撰)하라』고 하였다。 나는、『작문을 잘 하지 못하므로 사양한다』고 하니、그의 청은 더욱 오랫동안 더욱 부지런히 하였으므로、무엇이라 말하리오! 나는 마침내 감히 사양하지 못하고 공의 비명(碑銘)을 쓰게 되었다。

삼가 상고하건대、공은 해주(海州) 사람이니、우리 조정의 사대부에서 문지(門地。가문)로 보면 상호간에 추숭(推崇)하는 관계로 강좌(江左)에 방불하고 규모(規模)가 거실1(巨室)로 이름이 있는 자 한 둘이 아니나、해주최씨는 바로 그 하나이다。 공의 세계(世系)가 비록 중도에 세미(細微)하여 부진(不振)했으나、그 원류는 멀고 또한 큼을 알 수가 있다。

고(考)는 증영의정(贈領議政) 휘(諱) 효원(孝元)이고、조(祖)는 증우의정(贈右議政) 휘 태일(泰逸)이다。 비(妣)는 정경부인(貞敬夫人) 남양홍씨(南陽洪氏)니、증좌찬성(贈左贊成) 계남(繼南)의 여식이고、배(配)는 숙부인(淑夫人) 순흥안씨(順興安氏) 통정(通政) 준영(俊榮)의 딸이다。

효종 연간의 정유년(1657。효종 8)에 출생하였고、금상(今上) 신해년에 졸하였다。 또한 을해년에 통정대부승정원좌승지(通政大夫承政院左承旨)에 증직되었으니、좌윤(左尹)의 공으로 귀하게 된 것이다。

대개 공은 성품이 온량(溫良)하고 겸손하고 근신하였으며、일찍이 군문(軍門)에서 근무하여 만호(萬戶)에 제수되었고、그리고 귀향함에 미쳐서는 드디어 문을 닫고 남과 접하지 않아 이웃에서도 그가 어느 누구네 집인지를 알지 못하였다。 실제의 행적이 문서에 보인 것이 아마 여기에 그쳤으니、이는 공의 풍도(風度)를 상상할 수가 있다。

아! 예로부터 귀근2(貴近) 한 집은 일찍이 크게 광대하고도 교만하고 사치하지 않음이 없으면 능히 그 자손을 보전하지 못하는 것이고、오직 착함을 쌓는 자야만 뒤가 있는 것이니、천도(天道)라는 것은 그런 것이다。

만일 공이 궁액(宮掖)의 지친(至親)으로、소심하고 삼가고 두려워해서 일체의 세리(勢利)에 박연3(泊然)히 뜻을 집

에 두지 않았고、70년을 군복(鞦韉)을 입었고 그 일생을 마치도록 후회하지 않았다고 하니 현능(賢能)한 사람이 아니면 이와 같이 하겠는가! 그 은덕의 빛은 물에 잠겨있으나、반드시 전할 수 있는 것이 많을 것이다。홀로 혁혁(赫赫)함이 없는 지위로 세상에 표장(表章)되지 않았으니、이것을 개탄하는 것이고、비록 그러나 신명(神明)의 위로하는 바가 되어 아름다운 녹(祿)이 넘치게 이르렀으며、그 손자에 미쳐서는 성상의 간발(簡拔)함을 입어 벼슬이 경(卿)의 반열에 이르러 세상의 부러워하는 바가 되었으니、신후(身後)의 복이 무궁하여 착한 사람에게는 반드시 보답이 있다는 말이 거짓말이 아니었으니、어찌 하늘의 한 일이 아니겠는가! 아! 아름다운 것이다。

1남 1녀를 두었으니、증참판(贈參判) 수강(壽崗)은 선전관(宣傳官) 김희윤(金熙潤)의 여식을 취(娶)하였고、딸은 만호(萬戶) 조태항(趙泰恒)을 맞이하였다。수강(壽崗)은 2남을 낳았으니、장남 진해(鎭海)는 곧 좌윤겸총융사(左尹兼總戎使)로 급제한 김두표(金斗杓)의 여식을 취(娶)하였고、차남 진형(鎭衡)은 병마절도사로 만호(萬戶) 박만시(朴萬始)의 딸에게 장가를 들었다。조태항(趙泰恒)은 1남 3녀를 두었으니、아들 경상(慶祥)은 영장(營將)이고、딸은 직장(直長) 이세관(李世寬)·만호(萬戶) 권계중(權繼重)·유학(幼學) 김윤종(金胤宗)에게 시집을 갔으며、진해(鎭海)는 2남 1녀를 두었으니、장남 종악(宗岳)은 군자판관(軍資判官)으로 일찍 죽었는데、학생(學生) 남궁심(南宮鐔)의 여식을 취(娶)하였고、차남 동악(東岳)은 선전관으로 유학(幼學) 이원진(李遠鎭)의 딸을 취(娶)하였다。딸은 진사 이양국(李亮國)을 맞았고、서자(庶子) 필악(弼岳)이 있다。

진형(鎭衡)은 3남 1녀를 두었으니、장남 조악(朝岳)은 선전관으로、유학 민종성(閔宗聖)의 딸을 취(娶)하였고、둘째 경악(景岳)과 정악(挺岳)과 딸은 어리다。이로부터 손자들은 많아 다 기록하지는 못한다。그러므로 명(銘)을 한다。

本質之美 본질의 아름다움이여
蘊以謹厚 근신하고 돈후함을 온축했네
維其有之 생각하면 그는 그것이 있으니
克昌厥後 능히 그 후대가 창성했다네
我詞非諛 내 말은 아첨의 말이 아니요
昭示永久 긴 후세에 밝게 보일 것이네。

통훈대부행홍문관교리지제교겸경연시독관춘추관기주관서학교수세손시강원문학(通訓大夫行弘文館校理知製敎兼經筵侍讀官春秋館記注官西學敎授世孫侍講院文學) 홍낙인(洪樂仁)은 찬(撰)하였다。

가선대부예조참판겸동지춘추관사(嘉善大夫禮曹參判兼同知春秋館事) 김시묵(金時默)은 글씨를 썼다。

숭정기원후삼계미(崇禎紀元後三癸未。1823。순조23) 4월 ○일에 건립하였다。

비를 세운 뒤 3년 을유 11월 15일에 상의 특명으로 가선대부병조참판겸동지의금부사훈련원도정(嘉善大夫兵曹參判兼同知義禁府事訓練院都正)을 가증(加贈)하

였고、숙부인(淑夫人) 안씨(安氏)에게는 정부인(貞夫人)을 가증(加贈)하였다。

註:1。거실(巨室):세가(世家)와 대족(大族)을 말함。
2。귀근(貴近):높은 지위에 있어 임금을 가까이 모시는 신하
3。박연(泊然):마음이 조용하고 욕심이 없는 모양。

二十二世 贈嘉善大夫兵曹叅判 諱 壽崗

증가선대부병조참판 수강

墓碣銘

묘갈명

贈貞夫人金海金氏祔左

天祐善人至理存焉當厚可好而未足以祐善人功名可樂而亦未足以祐善人彼當厚與功名非不照耀人耳目而苟止於一身而已則其所祐者無以至百年之久必錫之以子姓愈蕃而愈昌然則人之欲有其福者捨善而奚求哉經云自天祐之吉無不利余於公驗之矣公姓崔諱壽崗字仁瞻海州人東方遠族也 贈右議政諱泰逸其曾祖也 贈領議政諱孝元卽 和敬淑嬪考其祖考也贈左承旨諱垕其考也淑夫人順興安氏通政俊榮女其妣也貞夫人金海金氏武兼熙潤女其配也漢城左尹鎭海其長男也慶尙兵使鎭衡其次男也嘉善李喆大其庶婿也軍資判官宗岳宣傳官東岳進士李亮國鎭海男與婿而弼岳庶男宣傳官朝岳士人景岳捷岳鎭衡男李師昱兪鍵李喆大男與婿其內外孫也 肅宗癸亥 當宁丁卯其生卒歲也癸巳登虎榜調軍門由軍門除萬戶又除僉使由僉使除軍器判官由判官除孟山縣監其科宦履歷也嘉善大夫兵曹叅判兼同知義禁府事訓鍊院都正用左尹貴其 贈秋也楊州神穴里丑坐之原其葬地也性姿豪爽膂力踰倫學武藝盡其妙家素貧喜施與每佳辰令節輒與故舊引琴歌以自娛天眞爛熳無一毫矜飾意此則其行蹟大略也嗚呼承旨公以地近 宮掖謙約韜晦閉門謝客世不知有崔氏家此承旨公之平日所守而公亦折節謹愼未嘗蘄知於人以此潦倒下位而不恤自西邑歸托疾不出積仁於不睹累行於不知施及後承餘慶日至次第登顯冠劒蜚聯蔚然開大門戶其將傳之百年而無窮矣視彼一身之富厚功名果何如也余旣銘承旨公之墓又銘公之墓何敢謂不朽公兩世而後之過此而覽余文者其庶幾徵公之爲善而知天之有祐也夫銘曰善積于身慶發其嗣如種而穫厥源有自凡百子孫岡敢或墮

通訓大夫行弘文館校理知 製敎謙 經筵侍讀官

春秋館記注官西學校授 世孫侍講院文學洪樂仁

撰

嘉善大夫京畿觀察使兼兵馬水軍節度使開城府留守江華府留守巡察使洪樂性書

崇禎紀元後三癸未八月 日立

묘갈명

증정부인김해김씨부좌

하늘이 착한 사람을 돕는 것은 지극한 천리(天理)가 존재한다。

부후(富厚)함은 가히 좋아하되 족히 선인을 돕지 않고、공명(功名)함은 가히 즐거워하되 또한 족히 선인을 돕지 않는다면、저의 부후(富厚)함과 및 공명(功名)함은 사람들의 귀와 눈에 비치기는 하나、진실로 일신(一身)에 그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이다。그렇다면 그 돕는 것이 백 년의 오랜 세월에 이르러서도 반드시 자손이 더욱 번창하고 더욱 창대함을 주지 못할 것이니、그러므로 사람이 그 복을 받고자 한다면 선(善)을 놓고 무엇을 구하겠는가！그러므로 [서경(書經)]에서 이르기를、『하늘에서 돕는다면 길하여 이롭지 않을 수 없다』라 하였으니、내가 이를 공에게서 경험하였다。

공의 성은 최(崔)요、휘(諱)는 수강(壽崗)이며、자(字)는 인첨(仁瞻)이니 해주인으로、동방의 원족1(遠族) 이다。

증우의정(贈右議政) 휘 태일(泰逸)은 증조이고、증영의정(贈領議政) 휘(諱) 효원(孝元)은 곧 화경숙빈(和敬淑嬪)의 아버지로、공의 조고(祖考)이며、증좌승지(贈左承旨) 휘 후(垕)는 선고(先考)이다。숙부인(淑夫人) 순흥안씨(順興安氏)는 통정(通政) 준영(俊榮)의 여식이니、그의 선비(先妣)이고、정부인 김해김씨(貞夫人金海金氏)는 무겸(武兼) 희윤(熙潤)의 여식이니、그의 배필이다。한성좌윤(漢城左尹) 진해(鎭海)는 그의 장남이고、경상병사(慶尙兵使) 진형(鎭衡)은 그의 차남이며、가선(嘉善) 이철대(李喆大)는 그의 서서(庶婿)이다。군자판관(軍資判官) 종악(宗岳)、선전관(宣傳官) 동악(東岳)、진사(進士) 이양국(李亮國)은 진해(鎭海)의 아들과 사위이고、그리고 필악(弼岳)은 서자이다。선전관(宣傳官) 조악(朝岳)、사인(士人) 경악(景岳)과 정악(挺岳)은 진형(鎭衡)의 아들들이고、이사욱(李師昱)·유건(兪鍵)은 이철대(李喆大)의 아들과 및 사위들이니、그의 내외손(內外孫)들이다。

숙종 계해년(1683。숙종 9)과 금상(今上) 정묘년(1747。영조 23)은 그가 생졸(生卒)한 해이다。

계사(1713。숙종 39)에 호방(虎榜)에 올라 군문(軍門)에서 발탁되어 만호(萬戶)에 제수되었고、또 첨사(僉使)에 제수되었으며、첨사에서 군기판관(軍器判官)에 제수되었고 군기판관(軍器判官)을 거쳐서 맹산현감(孟山縣監)에 제수되었으니、이는 그의 등과(登科)와 역관(歷官)의 이력이다。가선대부병조참판겸동지의금부사훈련원도정(嘉善大夫兵曹參判兼同知義禁府事訓練院都正)은 좌윤(左尹)이 귀하게 됨으로써 증직된 관작이고、양주(楊州) 신혈리(神穴里) 계축(癸丑)의 원(原)은 그의 장지(葬地)이다。

성품과 자태는 호쾌하고 여력(膂力)은 무리를 뛰어넘었으며, 무예를 배워 그 신묘함을 다하였고, 집은 가난하였으나 베풀기를 좋아하여 매양 가절(佳節)에는 친구와 같이 금(琴)을 타고 노래를 부르며 자오(自娛)하였고, 천진난만하여 일호(一毫)라도 치장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으니 이것이 그의 행적의 대략이다。

아! 승지공은 궁액(宮掖)과 가까웠으나, 겸약(謙約)하고 도회2(韜晦) 했으며, 문을 닫고 손님을 사양해서 세상에 최씨의 가문이 있음을 알지 못했으니, 이는 승지공이 평일에 지키는 바 이었고, 공도 또한 절절(折節, 몸을 낮춤)하고 근신하였으며 일찍이 남들에게 알리지 않았고 하위(下位)에 요도(潦倒。영락함)되어서도 구제되기를 구하지 않았다。서읍(西邑)으로 돌아가서부터는 병을 핑계로 나오지 않았고 남이 보지 않는 곳에서 인(仁)을 쌓고 알지 못하는 곳에서 덕을 쌓았으며, 시혜함을 후손들이 받아서 남은 경사가 날로 이르러 차례로 현달함에 오르고 벼슬아치가 연면(連綿)히 끊어지지 않아 울연(蔚然)히 큰 문호를 열고 그것을 전한 것이 백년이나 되었으니, 아마도 무궁할 것이다。저 일신(一身)의 부후(富厚)와 공명(功名)을 보니 과연 어떠한 것인가! 나는 이미 승지공 묘의 비명(碑銘)을 하였고, 또 공의 묘에 비명(碑銘)을 하였으니, 무엇을 감히 공 양세(兩世)를 불후(不朽)하게 한다。이르겠는가!

뒤에 이곳을 지나면서 나의 글을 본 자는 거의 공이 착한 일을 하였고, 그리고 하늘의 도움이 있었다는 것을 증거할 것이다。그러므로 명을 하노니、

積善于身 몸소 적선(積善)을 하여
慶發其嗣 그 사손(嗣孫)에 경사가 발했네
如種而穫 만일 씨를 심어서 거두었다면
厥源有自 그 연원은 유래함이 있었네
凡百子孫 모든 일 백 자손들은
罔敢或墜 혹시 추락함이 없을 것이네。



통훈대부행홍문관교리지제교겸경연시독관춘추관기주관서학교수세손시강원문학(通訓大夫行弘文館校理知製敎兼經筵侍讀官春秋館記注官西學敎授世孫侍講院文學) 홍낙인(洪樂仁)은 찬(撰)하였다.
가선대부경기관찰사겸병마수군절도사개성유수강화부유수순찰사(嘉善大夫京畿觀察使兼兵馬水軍節度使開城留守江華府留守巡察使) 홍낙성(洪樂性)은 썼다.
숭정기원후삼계미(崇禎紀元後三癸未。1823。순조23) 8월 ○일에 건립하였다.

註: 1。원족(遠族): 혈통이 소원(疏遠)한 친족(親族)。
2。도회(韜晦): 재지(才智)나 학식을 감추는 것。

二十三世 贈資憲大夫兵曹判書 諱 鎭海

증자헌대부병조판서 진해

墓碣銘

묘갈명

貞夫人海豐金氏祔左

公諱鎭海字君深姓崔氏海州人系出文憲公諱冲之後贈資憲大夫兵曹判書兼知義禁府事五衛都摠府都摠管行嘉義大夫漢城府左尹兼五衛都摠府副摠管訓鍊院都正考 贈嘉善大夫兵曹參判兼同知義禁府事訓鍊院都正行通訓大夫孟山縣監成川鎭管兵馬節制都尉諱壽崗妣 贈貞夫人金海金氏祖考 贈嘉善大夫兵曹參判兼同知義禁府事訓鍊院都正行禦侮將軍黃州鎭管所已兵馬萬戶諱垕曾祖 贈大匡輔國崇祿大夫議政府領議政兼領 經筵弘文館藝文館春秋館觀象監事諱孝元外祖禦侮將軍武臣宣傳官金熙潤公生于丁亥四月十八日辰時終于癸未六月二十三日享年五十七貞夫人海豐金氏及第斗杓之女生于己丑四月二十三日時終于丁卯五月二十九日享年三十九葬于先塋子坐午向之原夫人墓祔左有二男一女長奉列大夫行軍資判官宗岳娶咸悅人學生南宮鐔之女早卒次正憲大夫行知中樞府事五衛都摠府都摠管東岳娶德水人嘉善大夫僉知中樞府事李觀鎭女女適星州人司諫李著之子進士亮國側室子行順天郡守成岳娶全義人學生李德善之女次明岳早卒側室女適平山人故水使申思儼之子幼學馥公長子宗岳无后次東岳有二女長適牛溪人學生李性訥之子幼學惟梅次適平山人學生申復之子幼學命顯有側室五子三女長及第久擎娶林川人趙德一之女次幼學久謹次久赫娶昌寧人迎日縣監成道明之女次久貞次童蒙長女適林川人故叅判

趙德成之子幼學學徽早卒次適文化人學生 柳之子幼學炫次幼李亮國有一子一女子幼學運泰出繼女適礪山人幼學宋持宇成岳有一男幼學久執娶驪興人李壽俊之女側出一男二女男童蒙二女幼申穳有二女長適驪興人閔敬顯之子致晩次幼明岳无后李惟梅有一子童蒙申命顯有二子童蒙李運泰有二子長幼學相玉次童蒙久擎有一子幼

묘갈명

정부인해풍김씨부좌

공(公)의 휘(諱)는 진해(鎭海)이고, 자(字)는 군심(君深)이며, 성은 최씨(崔氏)니 해주인(海州人)이다。계보가 문헌공(文憲公) 휘 충(冲)에게서 나온 뒤에, 증자헌대부병조판서겸지의금부사오위도총부도총관행가선대부한성부좌윤겸오위도총부부총관훈련원도정(贈資憲大夫兵曹判書兼知義禁府事五衛都摠府都摠管行嘉善大夫漢城府左尹兼五衛都摠府副摠管訓練院都正)이다。선고(先考)는 증가선대부병조참판겸훈련원도정행통훈대부맹산현감성천진관병마절제도위(贈嘉善大夫兵曹參判兼訓練院都正行通訓大夫孟山縣監成川鎭管兵馬節制都尉)인 휘는 수강(壽崗)이고 선비(先妣)는 증정부인김해김씨(贈貞夫人金海金氏)이며, 조고(祖考)는 증가선대부병조참판겸동지의금부사훈련원도정행어모장군황주진관소이병마만호(贈嘉善大夫兵曹參判兼同知義禁府事訓練院都正行禦侮將軍黃州鎭管所己兵馬萬戶)인 휘 후(垕)이고, 증조(曾祖)는 증대광보국숭록대부의정부영의정겸영경연홍문관예문관춘추관관상감사(贈大匡輔國崇祿大夫議政府領議政兼領經筵弘文館藝文館春秋館觀象監事)인 휘 효원(孝元)이며, 외조(外祖)는 어모장군무신선전관(禦侮將軍武臣宣傳官)인 김희윤(金熙潤)이다。

공은 정해년 4월 18일 진시(辰時)에 출생하였고, 계미년 6월 23일에 졸(卒)하였으니, 향년이 57년이었고, 정부인해풍김씨(貞夫人海豊金氏)는 급제(及第)한 두표(斗杓)의 여식으로, 기축년 4월 23일에 출생하였고, 정묘년 5월 29일에 졸(卒)하였으니, 향년이 39년이었다。

선영(先塋)의 자좌오향(子坐午向)의 원(原)에 장례하고 부인의 묘는 부좌(祔左)하였다。

2남 1녀를 두었으니, 장남은 봉렬대부행군자판관(奉列大夫行軍資判官)인 종악(宗岳)이니 함열인(咸悅人) 학생(學生) 남궁심(南宮鐔)의 여식을 취(娶)하였는데, 일찍 죽었고, 차남은 정헌대부행지중추부사오위도총부도총관(正憲大夫行知中樞府使五衛都摠府都摠管)인 동악(東岳)이니, 덕수인(德水人)으로 가선대부첨지중추부사(嘉善大夫僉知中樞府事)인 이관진(李觀鎭)의 여식을 취(娶)하였다。딸은 성주인(星州人)으로 사간(司諫) 이저(李著)의 아들 진사 양국(亮國)에게 출가하였으며, 측실(側室)의 자식, 순천군수(順天郡守)를 역임한 성악(成岳)은 전의인(全義人)으로 학생(學生)인 이덕선(李德善)의 여식을 취(娶)하였고, 다음 명악(明岳)은 일찍 죽었다。측실의 딸은 평산인(平山人)으로 옛적 수사(水使)인 신사엄(申思儼)의 아들 유학(幼學) 빈(穳)에게 출가하였다。

공의 장자 종악(宗岳)은 후계가 없고、차남 동악(東岳)은 2녀가 있으니、장녀는 우계인(牛溪人)으로、학생(學生)인 이성눌(李性訥)의 자식 유학 유매(惟梅)에게 출가하였고、다음은 평산인(平山人)、신복(申復)의 아들 유학(幼學) 명현(命顯)에게 출가하였으며、측실에 5남과 3녀가 있으니、장(長)은 급제한 윤경(允擎)으로、임천인(林川人) 조덕일(趙德一)의 여식을 취(娶)하였으며、다음은 유학(幼學) 윤근(允謹)이고、다음은 윤혁(允赫)이니、창녕인(昌寧人) 영일현감(迎日縣監) 성도명(成道明)의 여식을 취(娶)하였으며、다음은 윤정(允貞)이고、다음은 동몽(童蒙)이다。장녀는 임천인(林川人) 고(故) 조덕성(趙德成)의 아들 유학 학휘(學徽)에게 출가하였으나、일찍 죽었다。다음은 문화인(文化人)으로、학생(學生) 유모(柳某)의 아들인 유학(幼學) 학현(學炫)에게 출가하였고、다음은 어리다。

이양국(李亮國)은 1남 1녀를 두었으니、아들 유학(幼學) 운태(運泰)는 출계(出繼)하였고、딸은 여산인(礪山人) 유학(幼學) 송지우(宋持宇)에게 출가하였다。성악(成岳)은 1남을 두었으니、유학(幼學) 윤집(允執)은 여흥인(驪興人) 이수준(李壽俊)의 여식을 취(娶)하였고、측실에서 1남 2녀를 두었는데、아들은 어리고、2녀도 어리다。신빈(申贇)은 2녀를 두었으니、장녀는 여흥인(驪興人) 민경현(閔敬顯)의 아들 치만(致晩)에게 출가하였고、다음은 어리며、명악(明岳)은 후사가 없고、이유매(李惟梅)는 1남을 두었는데、동몽(童蒙)이며、신명현(申命顯)은 2남을 두었으니、모두 동몽(童蒙)이고、이운태(李運泰)는 2남을 두었으니、장자는 유학(幼學) 상옥(相玉)이고、다음은 동몽(童蒙)이며、윤경(允擎)은 1남을 두었는데、어리다。

二十四世 贈嘉善大夫戶曹參判 諱 宗岳
증가선대부호조참판 종악

墓碣銘
묘갈명

公諱宗岳字文伯 贈領相公孝元之玄孫 贈承旨垕之曾孫 贈叅判壽崗之孫左尹鎭海之長子妣貞夫人海豐金氏武科斗杓之女公姿性淳慤沉密自幼至長但持天眞未嘗有一毫外餘喜怒不形言笑不頻待人勤厚捿下恩愛人有大事則視若己當極力救濟盡心周旋有約必踐一不違信堅守恭儉唾人豪奢一見之人無不許心而愛恭皆以善人稱之公之大人連任外閫公亦以仕宦不離京第雖或得由往觀不得殫誠長養每以是爲恨矣公十五丁母夫人喪與一妹一弟依恃於王夫人而友愛出常視同氣如其身一家之人無不稱之常願謝京還鄕逍遙於山水之間而以其老親之靡係官職不得捨親獨歸云矣公沒之後知公之人相會說公也無不懷其而嗟嘆則公之平日待人檢身之事於斯可知矣卒無血

嗣而天焉仁壽善慶之語獨不符於公也丙子春以蔭除徽陵叅奉丁丑陞拜司僕寺主簿戊寅移拜監察未幾移拜軍資判官忽纏奇疾卒于京第公生於甲寅三月初二日卒於己卯五月二十一日得年二十六是年七月日葬于楊州神穴里先塋下子坐之原娶成悅南宮氏學生鐔之女也

左尹公判官公兩世墓所迄今未能樹碑而今於修譜時考閱各家文蹟則於廣州元載家故紙中有兩世行錄所記者而雖未知誰氏之著述此乃當時備置者則不敢泯滅故付之篇首以俟後日立石之資焉

左尹公五世孫學載謹識

묘갈명

공(公)의 휘는 종악(宗岳)이고, 자(字)는 문백(文伯)이니, 증영상공(贈領相公) 효원(孝元)의 현손(玄孫)이고, 증승지(贈承旨) 후(垕)의 증손(曾孫)이며, 증참판(贈參判) 수강(壽崗)의 손자이고, 좌윤(左尹) 진해(鎭海)의 장자이다. 선비(先妣)는 정부인해풍김씨(貞夫人海豊金氏)니 급제(及第) 한두표(斗杓)의 여식이다.

성품은 순각1(淳慤)하고 침밀2(沈密)하며 어려서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단지 천진함을 견지하였고, 일찍이 일호(一毫)라도 외형을 꾸미지 않았으며, 희로(喜怒)를 드러내지 않았고 언소(言笑)에 찡그리지 않았으며, 남을 접대함에는 근후(勤厚)하였고, 아래를 접함에는 은애(恩愛)로써 했으며, 남의 큰 일이 있으면 내가 당한 것처럼 구제하고 진심으로 주선하였으며 약속을 하였으면 반드시 실천하고 한 번도 믿음을 어기지 않았으며, 굳게 공검(恭儉)함을 지키고 남의 사치함을 꾸짖었으며 한 번 본 사람이면 마음을 허여해서 애모(愛慕)하였으므로, 모두 선인(善人)이라 칭하였다.

공의 대인(大人)께서 연이어 외곤(外閫, 지방)에 근무하게 되었는데, 공은 서울의 집을 떠나지 않았고, 비록 혹 찾아 뵐 일이 생기면 정성을 다하여 장양(長養)지 못함을 한으로 여겼다.

공 15세에 모부인(母夫人)의 상(喪)을 만났으므로, 한명의 누이와 한 명의 동생으로 더불어 왕부인(王夫人, 할머니)을 의지하고 살았으며, 그리고 우애(友愛)함은 평상을 넘었으며 동기간 보기를 자기의 몸 같이 하여 한 집의 사람들이 칭찬하지 않음이 없었다.

항상 서울을 떠나 고향으로 돌아가서 산수(山水)의 사이에서 소요하기를 원했으나, 그의 노친(老親)이 관직에 매어 있어서 어버이를 남겨두고 혼자 돌아가지를 못하였다.

공이 몰(沒)한 뒤에 공을 아는 사람들이 서로 만나 공을 말할 때면 공을 생각하면서 공이 죽은 것을 탄식하지 않는 이가 없었으니, 대개 공이 평일에 남을 대하면서 자신을 검속하였음을 여기에서 볼 수가 있다. 마침내 후사(後嗣)가 없이 요사(夭死)했으니, 어진 사람이 장수하고 착한 사람이 복을 받는다는 말이 유독 공에게는 부합하지 않았다.

병자년 봄에 음직으로 휘릉참봉(徽陵參奉)에 제수되었고, 정축년에 사복시주부(司僕寺主簿)에 올랐으며, 무인년에 감

찰(監察)에 이배(移拜)되었다가 얼마 안 되어 군자판관(軍資判官)에 이배(移拜)되었는데, 갑자기 기괴한 병에 걸려 서울의 집에서 졸(卒)하였다.

공은 갑인년 3월 초2일에 출생하였고, 기묘년 5월 21일에 졸하였으니, 생년이 26년이었다. 이해 7월에 양주(楊州) 신혈리(神穴里) 선영의 아래 자좌(子坐)의 원(原)에 장례를 하였다. 함열(咸悅)의 남궁씨(南宮氏) 학생(學生) 심(鐔)의 여식을 취(娶)하였다.

좌윤공(左尹公)과 판관공(判官公) 양세(兩世)의 묘소에는 오늘현재 비(碑)를 세우지 못하였는데, 요즘 수보(修譜)할 때에 각 문중의 문적(文蹟)을 열람해보니 광주(廣州) 원재(元載)의 집 고지(故紙) 가운데에 양세(兩世)의 행록(行錄)이 기록된 것이 있었으나, 누가 기록하였는지는 알 수가 없었다. 이는 바로 당시에 비치(備置)하여 둔 자가 감히 민멸(泯滅)할 수가 없었던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므로 이를 편수(篇首)에 붙였고, 그리고 후일의 입석(立石)의 자료를 기다린다.

좌윤공(左尹公)의 5세손 학재(學載)는 삼가 기록하였다.

註 : 1。순각(淳慤) : 돈후(敦厚)하고 성실(誠實)함.
2。침밀(沈密) : 깊이 침착하고 근신하여 말이 적음.

海州崔氏 公園墓園 (碑文)

해주최씨 공원묘원

조선조(朝鮮朝)에서 화경숙빈(和敬淑嬪) 최씨(崔氏)를 배출한 해주최문(海州崔門)의 상계(上系)를 보면 고려목종조(高麗穆宗朝)에 갑과(甲科)에 첫째로 뽑히고 벼슬이 개부의동삼사수태사겸문하시중상주국내사령(開府儀同三司守太師兼門下侍中上柱國內史令)에 이르렀으며 시호(諡號)가 문헌(文憲)인 휘(諱) 충공(沖公)이 있으니 이분은 고려조(高麗朝)에서 구재학당(九齋學堂)을 설치하고 후진(後進)을 부지런히 교육하여 많은 인재를 배출(輩出)하였으므로 세상에서는 해동공자(海東孔子)라 일컬었고 당시 국가를 보필(輔弼)한 공로(功勞)가 제일(第一)로 인정되어 정종묘정(靖宗廟庭)에 배향(配享)되었다. 그리고 아들 유선(惟善)은 현종조(顯宗朝)에 을과(乙科)에 첫째로 뽑히고 관작(官爵)이 중서령(中書令)에 이르렀으며 대(代)를 이은 당대의 유종(儒宗)으로서 이대(二代)의 임금을 보필(輔弼)하였으니 시호(諡號)는 문화(文化)이고 문종묘정(文宗廟庭)에 배향(配享)되었다. 부자(父子)가 양대(兩大)에 거쳐 국가(國家)의 묘정(廟庭)에 배향되었으니 이러한 영광(榮光)은 어느 가문(家門)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일이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해주최문(海州崔門)을 소중하게 여긴다. 왕이 나라의 원로들을 위해 잔치할 때에 유선(惟善)과 유길(惟吉)이 부친(父親)인 충(沖)을 부축하여 들어가니 당시의 사람들이 모두 성대한 일이라 하였으며 평장사(平章事) 김행경(金行瓊)이 시를 지어 축하(祝賀)하기를 『상서령(尙書令)이 중서령(中書令)을 모시고 을장원(乙壯元)이 갑장원(甲狀元)을 부축하였네。상서령옹중서령(尙書令擁中書令) 을장원부갑장원(乙壯元扶甲狀元)』라 하기도 하였다.

후손(後孫) 억지(億之)에 이르러 면천(沔川)에 세거(世居)하던 후손(後孫)들이 타처(他處)로 유리(流離)하게 되었는데 도중(途中)에 보첩(譜牒)과 가승(家乘)이 유실되어 상대(上代)의 세계(世系)와 행적(行蹟)을 고거(考據)할 수가 없게 되었다。 그러므로 영조조(英祖朝)에 어제(御製)한 증령의정(贈領議政) 효원묘비문(孝元墓碑文)에 있는 세계(世系)에 준(準)하여 억지(億之)를 일세조(一世祖)로 삼아 족보(族譜)를 편찬(編纂)하여 세계(世系)를 기록(記錄)할 뿐이니 애석(哀惜)한 일이다。 그러나 선대(先代)의 맹산현감(孟山縣監) 수강(壽崗)이 당시에 해주최씨종중(海州崔氏宗中)으로부터 수차에 걸쳐 대족보(大族譜)에 들어오라는 권유를 받았지만 수강(壽崗)은 말하기를『우리 조상(祖上)은 모두 성상(聖上)께서 조성(造成)한 것이 있는데 하필 대종(大宗)에 부탁하여 후손에게 부끄러움을 주리요。 나의 자손들은 대족보(大族譜)에 들어가지 말라』고 하였으므로 후손들이 이를 따르고 있다。 그리고 외손(外孫)으로 영조대왕(英祖大王)을 배출하고 증령의정(贈領議政)인 휘(諱) 효원(孝元) 이후로 잠영(簪纓)이 속출(續出)하였으니 명문(名門)의 반열(班列)에 들어 세상(世上)에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오늘날은 조선시대(朝鮮時代)의 가문중심시대(家門中心時代)가 아닌 컴퓨터와 인터넷이 생활화되고 화상(畵像)속에 가상(假像)의 세계(世界)가 무한(無限)하게 펼쳐지는 초고속시대(超高速時代)에 이르렀다。 사람들은 바쁜 일과(日課)속에서 대가족(大家族)은 소가족(小家族)으로 변화(變化)하여 한가하게 조상(祖上)의 묘소(墓所)를 성소(省掃)하고 참배(參拜)하기가 매우 어려운 시대가 되었다。 이를 먼저 깨닫고 자손들이 조상의 묘소에 참배하기가 쉬워야 조상의 묘지도 유실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최종완(崔鍾完) 종회장과 최영수(崔永洙) 총무 외 여러 종인(宗人)들이 합심협력(合心協力)하여 공원묘원을 조성하고 그 안에 납골당(納骨堂)을 설치하여 해주최문 영의정공파(領議政公派)의 선조(先祖) 수강공(壽崗公) 내외 이하 73기를 봉안하게 되었다。 때에 맞춰 번역본 족보를 발간하면서 번역에 참여한 나에게 공원묘원의 비문을 부탁하므로 여러가지 인연에 사양하지 못하고 승낙하였다。 공원묘지에 봉안된 선조의 상세한 기록은 좌측의 석비에 기록하기로 하였다。

서력기원 2007년 4월 15일 옥천인(沃川人) 전규호(全圭鎬)는 찬술(撰述)하였다。

判司僕寺公派
판사복시공파

十三世 判司僕寺公 諱 溶
판사복시공 용

대령부원군(大寧府院君) 충헌공(忠憲公) 유엄(有渰)의 증손(曾孫)인 한성윤(漢城尹) 안해(安海)의 차자(次子)이며 부제학 만리(萬理)공의 숙부(叔父)이다。 관직은 판사복시(判司僕寺、正三)에 이르렀다。

배위는 안동김씨(安東金氏)이며, 소생은 낭천현감(狼川縣監) 득하(得河)이다.

承旨公派
승지공파

十五世 贈左承旨公 諱 尹範
증좌승지공 윤범



화순 다지리(茶智里) 선영
위로부터 영랑장 안택(安澤, 영단), 둘째 단은 13世 기(淇), 홍(洪), 윤(淪), 셋째 단은 14世 혼(渾), 아랫단의 左에는 파조 윤범(尹範), 右에는 파조 윤망(尹望)

공의 자는 공도(公度), 충헌공(忠憲公) 유엄(有淹)의 7세손이며, 12세 영랑장(令郎將)공 안택(安澤)의 증손이다。부친은 충좌위사직(忠佐衛司直) 혼(渾)이다。충의공 경회(慶會)장군은 공의 손자이다。연산조7년(1501) 신유 식년시(式年試) 進士에 올랐다。

증직은 좌승지(左承旨)이다。

배위는 증숙부인고령신씨(贈淑夫人高靈申氏)이며, 소생은 천수(天秀)、천두(天斗)、천부(天符)、천필(天弼)、천기(天紀)、천경(天慶)、천주(天柱) 등 7형제와 전수인(錢守仁)、송처종(宋處宗)、김수(金洙) 등 세 따님을 두었다。

묘는 선고와 함께 나주(羅州) 북쪽 지달치(智達峙)의 돈목동에 있었으나, 1985년 화순읍 다지리 강남골 고묘하에 이장 합봉하였다。

十六世 議政公 諱 天符
의정공 천부

議政公事實
의정공사실

公諱天符字應運號瑞陽居士領郎將公玄孫弘治壬戌生自靈光始居 于和順縣三川里公以經學文行重負儒望不求進取嘗被薦將仕郎訓導即辭不就因成遺逸常思古人修德於身責報於天之意以孝悌忠信 禮

義廉恥八字平生服膺爲傳家之寶藏以經書爲貽厥之田地導迪家 塾以致成就子弟門生登科者十餘人嘉靖壬子卒以季子貴 贈大匡輔國崇祿大夫議政府領議政兼領經筵觀象監事世子師

의정공사실

공의 휘(諱)는 천부(天符)요, 자는 응운(應運)이요, 호는 서양거사(瑞陽居士)이니 영랑장공(領郎將公)의 현손(玄孫)이다。홍치(弘治) 임술년(서기 一五〇二년)에 태어났다。

전라도 영광(靈光)에서 화순현(和順縣) 삼천리(三川里)로 이주한 뒤로 공은 경학(經學)과 문장、행실로 인하여 유생들의 남다른 존경을 받았다。

공은 조정에 나아가 벼슬하기를 꾀하지 아니하였다。

일찍이 장사랑(將仕郎)、훈도(訓導)에 천거되었으나 그 즉시 사양하여 부임하지 않고 유일(遺逸)의 선비가 되었다。

공은 항상 자신의 덕을 닦고、하늘(군주)의 덕에 보답한다는 옛사람의 뜻을 되새기었고、효제충신(孝悌忠信) 예의염치(禮儀廉恥) 여덟 자로서 평생토록 가슴에 새겨 대대로 물려줄 가보로 삼았고、경서(經書)를 장서로 후세에 물려주었다。

그리고 전지(田地)에는 가숙(家塾)을 열어 자제들을 교육하는 곳으로 삼아 자제와 문생 중 과거에 급제한 자가 十여 인이 되었다。

가정(嘉靖) 임자년(서기 一五五二년)에 돌아가셨다。

막내아들이 귀하게 된 연유로 대광보국숭록대부(大匡輔國崇祿大夫) 의정부 영의정(議政府領議政) 겸영경연(兼領經筵) 관상감사(觀象監事) 세자사(世子師)에 추증(追贈)되었다。

議政公墓碣文

의정공 묘 갈 문

公姓崔諱天符字應運海州人高麗太師文憲公諱冲後高祖領郎將諱 安澤麗季政衰晦迹南鄉曾祖諱淇祖諱渾司直贈左通禮考諱尹範進 士贈左承旨妣 贈淑夫人高靈申氏和淑女公生於弘治壬戌自靈光 移居和順博通經學重負儒望士禍之後絶意世事不求仕進 朝家拔 其行誼除將仕郎訓導不就潛光山野經籍自娛敎導家庭成就後學子 弟門生登科者十餘人嘉靖壬子卒以季子貴 贈領議政配淳昌林氏進士鐵恭女 弘治甲子生萬曆庚寅卒男長慶雲進士丁酉爲敵兵 所俘大罵不屈而死次慶長文掌樂院正癸巳爲繼義兵將 贈吏曹判 書季慶會文正郎壬辰墨縗擧義因拜晋州兵使城陷殉節 贈左贊成 諡忠毅慶雲男長弘載正言次弘受慶長男長弘宇洗馬次弘有通德郎 次弘遠生員次弘城叅奉慶會男長弘器直長次弘

式次弘績武訓鍊副　正墓在縣南五里江南谷亥龍巽向之原配附崇禎九十四년辛丑立　後五十六年丙申改建

의정공 묘갈문

공의 성은 최(崔)요, 휘(諱)는 천부(天符), 자는 응운(應運)이며, 해주인(海州人)이다。고려 태사(太師) 문헌공 휘 충(沖)의 후예로 고조는 영랑장(領郎將) 휘 안택(安澤)인데 고려 말에 정치가 문란해지자 남쪽지방으로 자취를 감추었다。증조의 휘는 기(淇)이고、조부의 휘는 혼(渾)인데 사직(司直)의 벼슬을 지냈고、좌통례(左通禮)에 추증되었다。부친의 휘는 윤범(尹範)으로 진사(進士)이며 좌승지(左承旨)에 추증되었다。모친은 숙부인(淑夫人)에 추증되었는데、고령(高靈) 신씨(申氏) 화숙(和淑)의 딸이다。공은 홍치(弘治) 임술년(서기一五〇二년)에 태어났다。전라도 영광으로부터 화순에 이주한 뒤로 경학에 널리 통하여 유생들의 남다른 신망을 얻었다。사화(士禍)가 일어난 뒤로 세상일에 뜻을 버리고 벼슬하기를 구하지 아니하였다。조정에서 공의 의로운 행실을 보고 발탁하여 장사랑(將仕郎) 훈도(訓導)에 제수하였으나 부임하지 않았다。공은 산야(山野)에 묻혀서 경적(經籍)으로 즐거움을 삼았고、가정의 자제를 교육하여 후학들이 학업을 익히게 하였다。그리하여 자제와 문생 중 과거에 급제한 자가 十여 인에 이르렀다。가정(嘉靖) 임자년(서기一五五二년)에 돌아가셨다。막내아들이 귀하게 된 연유로 영의정에 추증되었다。배필은 순창(順昌) 임씨(林氏) 진사(進士) 철공(鐵恭)의 딸로써、홍치 갑자년(서기一五〇四년)에 태어났고、만력(萬曆) 경인년(서기一五九〇년)에 돌아갔다。슬하의 자녀로 장남은 경운(慶雲)인데 진사(進士)로 정유년에 왜병에게 포로가 되었을 때 적을 크게 꾸짖으면서 굴복하지 아니하여 죽임을 당하였다。둘째 아들은 경장(慶長)으로 문과(文科)에 급제하여 장악원정(掌樂院正)이었는데 계사년(서기一五九三년)에 의병장의 뒤를 이어 활약하였다。이조판서에 추증되었다。막내아들은 경회(慶會)로 문과에 급제하여 정랑(正郎)으로 있었는데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상복을 입고 의병을 일으켰다。그리하여 진주병사(晋州兵使)에 임명되었는데 성이 함락되어 순절(殉節)하였다。좌찬성(左贊成)에 추증되었고、시호는 충의(忠毅)이다。경운의 장남은 홍재(弘載)로 정언(正言)의 벼슬을 하였고、차남은 홍수(弘受)이다。경장의 장남은 홍우(弘宇)로 세마(洗馬)를 지냈고、차남은 홍유(弘有)로 통덕랑(通德郎)이며、삼남은 홍원(弘遠)으로 생원(生員)이며、사남은 홍성(弘城)으로 참봉(叅奉)을 지냈다。경회의 장남은 홍기(弘器)로 직장(直長)을 지냈고、차남은 홍식(弘式)이요、삼남은 홍적(弘績)으로 무과에 급제하여 훈련부정(訓鍊副正)을 지냈다。공의 묘소는 화순현의 남쪽 五리 강남곡(江南谷)의 해룡(亥龍) 손향(巽向)의 자리에 있다。배필의 묘도 합장하였다。숭정(崇禎) 九四년 신축년(서기一七二一년)에 세우고、그로부터 五六년 뒤인 병신년(서기一七七六년)에 고쳐 세웠다。

江南齋
강남재

강남재는 화순의 입향조이며 의정공(贈領議政) 천부(天符)의 재실로 화순군 화순읍 다지리(茶智里) 先山 下에 있다.

강남재는 1869년에 건립되었으나 130여 년의 오랜 세월의 풍우로 건물이 노후하여 2006년 봄에 구 건물을 헐고 후손 길주(吉柱) 종친이 주관 감독하여 다시 지었다.

재실의 元韻
원운

瑞石元精汝水南　天慳一局鎖晴嵐
서석원정여수남　천간일국쇄청람

名家慶福於千歲　昭代文章則百男
명가경복어천세　소대문장칙백남

肯構新簷靈雨霽　增輝先壟夕陽含
긍구신첨령우제　증휘선농석양함

三辰齊沐親親地　從此祭儀可與談
삼진제목친친지　종차제의가여담

무등산의 정기를 받은 화순의 강남곡
하늘이 주신 길지에 서기가 서려 있구나.
명가의 경사스런 행복이 천세까지 이어지고
태평시대의 문장은 수를 헤아릴 수 없다.
조상을 위한 새 재실에 단비가 그치고
선영에 석양빛이 비추니 더욱 아름답다.

한 해 세 때 목욕재계하고 친족이 모인 자리요
정성스럽게 제를 받들면서 서로 담소한다.

11대손 환규(煥奎) 삼가 짓다.



강남재 화순읍 다지리 선산 下

六義錄序
육의록서

我國兵乱莫憯於壬辰之島夷猖獗而當時忠節之盛指不勝搜前後罕　比有若崔氏之六義尤何其壯也三川公之倡義殉節竹溪公之繼義効　勳三溪公之仗義立懂固有以聯芳齊美而其胤子之竝致忠義克承志　業者竹隱忍齋沙村諸公也噫其盛矣忠孝節義之萃於一室有如是夫　朝家之崇褒士林之尊奉迄玆數百載久而靡替惟三川公之尚未蒙　賜典者雖可恨而章甫疏籲近發於南陬益可見其烈烈徽蹟永世不泯　也一日竹隱公七代孫上舍時濬以六義錄一册來示余一繙過六公之　始終事實可歷歷得詳矣其所編摩多出於捃取群賢之説若牛溪之許　以忠義奮發屢摧虜鋒尤菴之論以砥柱屹立足以當之與夫安隱峯之　稱以貞忠大節昭揭宇宙者豈不偉哉嗚呼衰微之世尤宜崇奬節義前　脩之惓惓於斯而表章之者實有以焉人之於先蹟凡有編錄者豈徒爲　闡揚遺徽亦可以激勵頹俗也是錄之編實始於上舍之王考忍菴蘭溪　從昆季而今上舍與蘭溪之胤繼而增修其意不亦善乎覽是錄者苟有　秉彝詎無激慨哉余竊有興感者深遂爲之書如此云

崇禎後三甲子孟冬　恩津　宋煥箕　序

육의록의 서문

우리나라 난리는 임진왜란(壬辰倭亂)때 왜적이 침입하여 날뛴 일이 가장 참혹하였다.

그 당시 충성과 절의를 세운 사람이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아 그런 예를 일찍이 찾아 볼 수 없을 것이다. 그 중에서도 최씨 집안의 여섯 의사(義士)는 더욱 장한 일을 하였다고 할 수 있겠다.

삼천공(三川公 :)1이 의병을 일으켜 싸우다가 순절한 일과 죽계공(竹溪公)2이 계의장으로 세운 공적 삼계공(三溪公)3이 나라를 위하여 의롭게 순절한 일은 모두다 충렬의 표본이요 아름다운 일이었으며 또한 그 분들의 아들도 함께 충의(忠義)를 세워 부모의 뜻을 받들었으니 바로 죽은공(竹隱公)4과 인재공(忍齋公)5 사촌공(沙村公)6들이다.

아! 충효와 절의가 이처럼 한 집안에 모여 있으니 훌륭한 일이 아니겠는가? 이런 업적을 나라에서 높이 포상하고 사림(士林)에서 높이 받드는 것이 지금까지 수백 년 동안 변함없었는데 오직 삼천공 만이 아직 포상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있어 비록 그 일이 한스럽기는 하지만 요즈음 남쪽 지방 선비들이 이 일 때문에 상소(上疏)하고 있다 하니 그 열렬(烈烈)하고 훌륭한 업적이 오래도록 잊혀 지지 않았음을 알 수 있는 것이다.

하루는 죽은 공의 七대손인 진사(進士) 시준(時濬)이 「육의록(六義錄)」한 권을 가져와 내게 보여주어 한번 읽어 보니 여섯 분들의 평생 기록이 하나하나 자세히 적혀 있었다. 거기에 적힌 내용은 여러 현인들의 말을 모아 놓은 것인데 우계(牛溪) 성혼(成渾) 선생은 「충의심을 일으키어 여러 차례 적의 예봉(銳鋒)을 꺾었다」 하였고 우암(尤菴) 송시열(宋時烈) 선생은 「거세게 흐르는 물 가운데 우뚝 서있는 돌기둥과 같다」 하였으며 또 은봉(隱峯) 안방준(安邦俊) 선생은 「그 충성과 절의(節義)가 우주(宇宙)를 뚜렷하게 밝혔다」 하였으니 어찌 훌륭하지 않은가?

아! 풍속이 쇠퇴한 세상에는 정의를 더욱 숭상하고 권장해야 한다는 뜻을 가진 선배들이 관심이 많아 이를 들춰 주려고 애쓴 것은 실로 까닭이 있었던 것이다.

사람들이 자기 조상의 행적을 편찬하는 것이 어찌 꼭 그 아름다운 사실만을 기리려는 뜻에서 그렇겠는가? 퇴폐한 풍속을 바로 잡고자 하는 뜻도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이 책은 진사(進士) 시준의 할아버지인 인암공(忍菴公)과 난계공(蘭溪公) 두 종형제 분이 처음 편찬을 한 것인데 이제 진사 시준이 난계공의 후손과 함께 그 분들의 뜻을 받들어 증보(增補)하니 참으로 훌륭한 일이라 하겠다.

이 책을 읽는 자가 참으로 사람의 양심을 지녔다면 어찌 감동하지 않겠는가? 나도 느낀 바가 있어 이상과 같이 쓴다.

숭정(崇禎) 후삼갑자(後三甲子 : 一八〇四) 孟冬 十월

은진(恩津) 송환기(宋煥箕) 씀

註 : 1。이름은 경운(慶雲)
2。이름은 慶長
3。이름은 慶會
4。이름은 弘載
5。이름은 弘宇
6。이름은 弘器

十七世 三川公 諱 慶雲

삼천공 경운

三川公事實

삼천공 사실

公姓崔諱慶雲字善章號三川其先海州人始祖諱温子文憲公諱冲麗朝官太師設九齋倡明道學時稱海東孔子繼而有文和公諱惟善良平公諱思 齊文清公諱滋忠憲公諱有渰五公德業學問輝映史乘公五代祖領郎將諱安澤見麗運將訖晦跡南鄉子孫因家焉曾祖諱渾司直 贈左通禮祖諱尹範進士 贈左承旨考諱天符贈領議政妣淳昌林氏進士 鐵恭女 贈貞敬夫人嘉靖乙酉生少受業於梁松川應鼎壬子丁外艱一遵朱文公家禮服闋與二弟更遊於松川及奇高峯大升門隆慶 丁卯進士天行健賦行于世時二弟俱登第公遂專心經學教導後進 萬曆庚寅冬丁母憂服未闋值壬

辰島夷之亂公謀于二弟曰吾家受　國厚恩今國危如此當何以效臣節而報涓埃耶於是設義兵廳於所居和順三川里抵書於高霽峯敬命朴懷齋光玉又傳檄於嶺南士友遠近　響應義士雲集遂使長子弘載領數千兵馬馳赴於錦山高霽峯義幕時　高公己敗沒一道義士收餘兵來請公季弟前府使慶會起復登壇公勸　諭曰高公義士也一死有光而社稷危矣時勢急矣羣情願屬禮有經權　強起從戎在所不己遂使之墨縗起義使其子侄隨往左右之及其季弟　殉節於晋州公又勸仲弟前內贍寺正慶長繼起義兵又使子侄區畫贊　助皆如初焉丁酉倭寇再犯時公之伯胤以正言承招諭使之命性關外公收率家僮及五百義旅守烏城山城忽見游賊宿憤所激彎弓直前　射之賊又大至抗戰一晝夜衆寡不敵仍爲被執賊縛公誘脅曰降則生　不降則死公厲聲曰讎賊讐賊爾何屠戮我生民使吾　君播遷於西州　使吾弟殺身於晋陽而更欲劫我以無義人乎遂罵不絶口賊知終不可　屈以凶鋒剚之竟沒於烏城山下是十月十七日也邑人故老至今傳之　謂崔進士罵賊不屈之地云詳見行狀行狀公五代孫通德郎彦著所撰

삼천공 사실(三川公 事實)

공의 성은 최(崔)씨요 휘는 경운(慶雲)、자(字)는 선장(善章)、호는 삼천(三川)이다。그 선조는 해주인(海州人)으로써 시조는 휘 온(溫)이요 아들 문헌공(文憲公) 휘 충(冲)은 고려때 벼슬이 태사(太師)로 구재학당(九齋學堂)을 세워 도학(道學)을 일으키니 당시 사람들이 해동공자(海東孔子)라고 불렀다。그 뒤를 이어 문화공(文和公) 휘 유선(惟善)과 양평공(良平公) 휘 사제(思齊)、문청공(文淸公) 휘 자(滋)、충헌공(忠憲公) 휘 유엄(有淹) 다섯 분은 덕망과 학문이 뛰어나 역사에 빛나고 있다。

공의 五대조 영랑장(領郎將) 휘 안택(安澤)은 고려 왕조가 망하는 것을 보고는 남쪽지방으로 은거하였기 때문에 자손들이 이 곳에 남아 살게 되었다。증조 휘 혼(渾)은 벼슬이 사직(司直)으로 좌통례(左通禮)에 추증(追贈)되었고 할아버지 휘 윤범(尹範)은 진사로 좌승지(左承旨)에 추증되었으며 아버지 휘 천부(天符)는 영의정에 추증되었다。

어머니 순창임씨(淳昌林氏)는 진사 임철공(林鐵恭)의 따님으로 정경부인(貞敬夫人)에 추증되었는데 가정(嘉靖) 을유년(一五二五)에 공을 낳았다。

공은 어려서 송천(松川) 양응정(梁應鼎) 공에게 글을 배웠고 임자년(一 五五二)에는 아버지 상(喪)을 당하였는데 그 때 한결같이 「주자가례(朱子家禮)」의 예법을 따랐다。상복을 벗고는 두 동생과 함께 다시 송천공과 고봉(高峯) 기대승(奇大升)의 문하에 들어가 학문을 닦았다。

융경(隆慶) 정묘년(一五六七)에는 진사 시험에 급제했는데 그 때 지은 천행건(天行健)의 부(賦)가 세상에 알려지고 있다。그 때 두 동생 모두 함께 과거에 급제했기 때문에 공은 경학(經學)에만 전념하여 후배들을 가르칠 수 있었다。

만력(萬曆) 경인년(一五九〇) 겨울에 어머니 상을 당하여 복을 벗기도 전에 임진왜란이 일어났다。그 즉시 공은 두 동생과 의논하기를

「우리 집안이 나라의 두터운 은혜를 입어 왔는데 나라가 이처럼 위태로우니 어찌하면 신하로서의 절의를 세워 조금이나마 보답할 수 있겠느냐?」

하고는 곧바로 의병청(義兵廳)을 화순(和順) 삼천리(三川里)에 있는 所居地에 설치하였다。

그리고는 제봉 고경명(高敬命)과 회재(懷齋) 박광옥(朴光玉)에게 글을 띄웠다。또 영남지방의 선비와 벗들에게도 격문을 보내니 멀고 가까운 곳의 의사(義士)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었다。그래서 큰 아들 홍재(弘載)를 시켜 수천 명의 군사와 말을 이끌고 금산(錦山)에 주둔하고 있는 고경명 휘하의 의병 진영으로 달려가게 하였다。

이때 고경명은 이미 패전한 후여서 일도(一道)의 의사들이 남은 군사를 이끌고 공의 동생인 전부사(前府使) 경회(慶會)에게 찾아와 기복(起復)1하여 지휘를 맡아 줄 것을 청하였다。공이 동생에게 권고하기를、

「고공(高公)은 의사(義士)이다。그는 죽음으로써 빚을 냈지만 여전히 나라는 위태롭고 사태 또한 급하다。여러 사람들의 뜻이 대장이 되어 주기를 청하는데 거절하기 어렵다。예법에는 정상적인 것과 임시변통의 법이 있으니 억지로라도 전쟁에 나가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고는 마침내 검은 상복을 입은 채 의병을 지휘하게 하였다。그리고 아들、조카들로 하여금 함께 따라가 돕게 하였다。

마침내 막내 동생이 진주(晋州)에서 순절하자 공은 다시 둘째 동생인 전(前) 내섬시정(內贍寺正) 경장(慶長)을 시켜 의병을 일으키게 하고 또 다시 아들과 조카로 하여금 지난번과 같이 돕도록 하였다。

정유년(一五九七)에 왜적이 二차로 다시 쳐들어 올때 정언(正言)의 관직에 있는 공의 맏아들이 초유사(招論使)의 명을 받들어 성 밖으로 나가고 없으므로 공의 집안의 하인과 五백여 명의 의병을 모아 거느리고 오성산성(烏城山城)을 지켰다。그러다가 왜군 유격병들이 접근하는 것을 보고는 지금까지 쌓인 울분이 복받쳐 활을 쏘며 달려 나갔다。그러자 많은 적의 병력이 산성으로 공격해와 하룻밤 하루 낮을 버티며 싸웠으나 중과부적(衆寡不敵)으로 마침내 적군에게 사로잡히고 말았다。적군은 공을 묶어 놓고는 달래기도 하고 협박하기도 하면서 「항복하면 살려 주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죽이겠다」 하였다。공은 언성을 높여 「이 원수 놈들아! 너희 놈들이 무엇 때문에 우리 백성들을 함부로 죽이며 우리 임금님께서 서쪽으로 파천(播遷)까지 하게 했으며 내 동생을 진주성에서 죽도록 했느냐? 그리고도 이제 나를 겁주어 의리 없는 사람으로 만들려 하느냐?」 하면서 꾸짖기를 그치지 않으니 적들은 끝내 그 뜻을 꺾을 수 없음을 알고는 공을 흉기로 찔렀다。그래서 끝내 오성산성 아

래서 죽으니 이 날이 十월十七일이다。이 고장 사람들과 늙은이들이 그 곳을 지금까지도 최진사께서 적을 꾸짖으며 끝내 굴복하지 않은 곳이라고 전하는데 이것은 행장(行狀)에 자세히 나타난다。
(行狀은 公의 五代孫 通德郎 彦著가 지었다)

註：1。起復：상중(喪中)에 복직(復職)한다는 뜻。

墓碣銘
묘 갈 명

三川崔公慶雲의 字는 善章이요 貫은 海州요 三川은 自號이다。

公은 李韓 中宗乙酉에 和順 三川里에서 태어났으니 九齋先生 文憲公 冲의 一五代孫이다。曾祖 渾은 忠佐衛司直 贈左通禮요 王考 尹範은 成均進士 贈左承旨요 皇考 天符는 將仕郎訓導 贈領議政이니 처음 和順에 移居하였고 皇妣 贈貞敬夫人 淳昌林氏는 進士 鐵恭의 女이다。

公은 일찍이 二弟 慶長 慶會와 함께 梁松川應鼎 奇高峯大升에게 受業하여 明宗丁卯에 進士에 오른 뒤 經學에 專心하였다。

宣朝壬辰에 二弟와 相議하여 義兵廳을 三川里에 設置하고 高霽峯敬命 朴懷齋光玉과 嶺南의 士友에게 글을 보내 義兵千餘名을 모으고 喪身이 되어 長子 弘載를 代身하여 錦山에 보내 霽峯을 돕게 하였으나 霽峯이 殉節하였으므로 不及되었고 또 慶會가 登壇하자 弘載와 조카 弘宇와 弘器를 보내어 돕게 하였고 慶會가 晋陽에서 殉節하자 慶長에게 권하여 義兵을 일으켰고 丁酉再亂에 七旬이 넘은 公은 五百義兵을 거느리고 烏城山에서 陣를 치고 守城을 하다가 賊이 大至하여 二晝夜抗戰하였으나 마침내 遇害되었으니 곧 十月十七日이다。

江南谷 考墓下에 安葬하였고 正祖壬寅에 朝家로부터 名將古蹟을 그려 올리라는 命이 있어 本縣倅 朴明薄이 싸움터를 그려 올린 후에 判書 李錫圭가 내려와 本縣倅와 더불어 烏城山에 올라 現場을 답사하고 詩를 지어 읊었으니 그 詩에

憶昔將軍起義地에 詩人載酒到斜暉라
억석장군기의지 시인재주도사휘

睢陽月量誰能敵고 五丈星沉事已非라
휴양월량수능적 오장성침사기비

野老爭耕陳壘去하고 山花故向戰場開라
야로쟁경진루거 산화고향전장개

英風不盡千秋後에 一抹烏岑獨自巍라
영풍불진천추후 일말오잠독자외

옛 장군(將軍)이 창의(倡義)하신 곳을 추억하여
시인(詩人)이 술을 싣고와 헌작하니 저녁너울 다가오네
휴양(睢陽)1의 늠름한 의기(義氣) 달 머리에 닿았으니
그 뉘가 당할손가
오장원(五丈原)에 별 떨어져 제갈량(諸葛亮)이 운명하니 만사(萬事)가 글렀구나
진터는 농부(農夫)들이 다투어 서로 경작(耕作)해 오는데

수풀 꽃은 일부러 싸움터를 향해 피어 있구나
영웅(英雄)다운 기풍(氣風) 천추(千秋)에 사라지지 않으리니
한 봉우리 오성산(烏城山)이 홀로 우뚝 솟아있네

하였다。

그 후 朝令에 依하여 本縣倅 朴明淳이 戰亡遺墟碑를 세우다。

配宜人大邱裵氏는 司直 溫의 딸이요 二男 三女를 두었는데 弘載는 文科持平이요 弘受는 丁酉에 公과 함께 殉節하였고 女婿는 贈叅判 閔光鏡과 鄭大觀과 吳業이요 弘載의 男은 宣敎郎 光憲과 奉憲이요 女婿는 文科承旨 鄭麟卿과 高斗一과 卞瑀이다。

이제 後孫 泳鶴 吉柱 등이 不佞에게 墓銘을 請하였다。

文憲之後 纍葉蟬聯 文章宦業 焜耀麗鮮
문헌지후 누엽선련 문장환업 혼요려선
暨公之身 國步顚連 二弟三兒 仗義而前
기공지신 국보전련 이제삼아 장의이전
唯義所在 命不惜捐 烏山月黑 碧血淸涓
유의소재 명불석연 오산월흑 벽혈청연
命畫遺墟 吾王所憐 尙闕褒典 茫茫彼玄
명화유허 오왕소련 상궐포전 망망피현

文憲公 가신後로
누대를 연속해서
문장과 관직으로
麗朝와 李朝때 더욱 빛났도다
公의 代에 이르러서
國運이 극히 艱難하였네
두 아우 세 아들
창의해 앞장섰도다
오직 義가 있는 곳에
목숨 바치기를 아끼지 아니 하여라
오성산에 달빛이 흐려 있는데
푸른 기운 띤 진한 피 맑고 아름다워라
장렬한 유적지를 그려 올리라 命함이여
우리 임금 가상히 여김인데
지금까지 표창한 恩典 궐한 것은
멀고 아득한 저 하늘에 묻고 싶구나

檀紀四三一七年 甲子仲春望後

文學博士 眞城 李家源 謹撰

三川公遺墟碑
삼천공유허비

崔慶雲字善章號三川壬辰倡義丁酉再燹保守和順烏城山竟遇害正廟壬寅本倅朴明淳因 朝命圖畫烏城山戰亡遺墟以進仍立碑

註:1。唐나라 충신(忠臣) 장순(張巡)이 휴양태수(睢陽太守)

최경운(崔慶雲)의 字는 선장(善章)이요 號는 三川이다。임진왜란에 의병을 일으켰고、정유재란(丁酉再亂)에 화순현(和順縣) 오성산(烏城山)을 지키다가 마침내 해를 당하였다。

正祖 壬寅年(一七八二)에 本州 수령인 박명순(朴明淳)이 조정의 명에 의거하여 오성산 전망유허도(烏城山 戰亡遺墟圖)를 그려 바치고 인하여 전망유허비(戰亡遺墟碑)를 세웠다。

十七世 竹溪公 諱 慶長

죽계공 경장

竹溪公事實

죽계공사실

公諱慶長字善林號竹溪三川公仲弟也 嘉靖己丑生早從遊於梁松 川奇高峯門己酉進士甲子文科文經武緯之策鴻鵠保河海中之賦行 于世歷敭內外聲績俱著壬辰亂公時居母憂與伯季二公相議設義兵 廳收聚兵粮器械使侄子弘載從事於高霽峯時高公敗沒其幕下將士共推公之季弟慶會起復從戎公謂其弟曰目今都城失守大駕播越此 宗社危亡之秋也臣子分義區區情禮有不可恤爾從 王事仗義盡瘁 我守几筵以終喪制則公私之義庶得兩全云三溪公遂墨縗起義公與 伯氏三川公益勵籌策以助軍威轉餉給餽未嘗乏絶癸巳六月三溪公 殉節晋州以賊中所奪圖與劍付公之子弘宇使之歸傳曰我兄聞我死 當繼起以此爲識公拊劒大哭曰吾弟精忠壯烈悅若留帶劒面自是 國憂私慽兩不相忘是年八月道內義士來請公繼起遂奮然從之傳檄 郡色忠義之士聞風來會列邑別有司上章 行朝見下附錄李鶴梅宏中姜 睡隱沆等上書于公請貿販魚塩以補軍需見下附錄九月公上疏 行在請申飭列色戮力共濟疏本見下遺稿權元帥慄狀 聞曰前內贍寺正臣崔慶長 收拾亡弟餘衆留屯境上人心賴而稍定備邊司又 啓曰弟死於國兄 又繼起求之古人尠有其侶自 上嘉奬之特除掌樂院正兼授繼義兵 將印公承 命兢惕益勵精忠駐寨於玉果以訓鍊副正宣義問爲副將 前郡守金允明爲從事官約束分明號令嚴肅奬率義旅轉向南原擊破錦山來賊追亡逐北踰八良峙直抵咸陽出精兵襲擊遂控扼於固城之 見乃梁未幾以元帥之關移軍石柱設施區畫咸得其宜時賊新陷晋州 益肆跳踉而弟三溪公曾爲賊大所忌憚故詗知公爲其兄而用兵規模 若合一符莫不聞風褫魄各自撤寨避鋒鳥奔鼠竄矣天將吳宗道歎曰 弟死兄起

忠義激烈陳師耀兵倭虜慴伏儘是古今一人十二月王世子撫軍於全州公馳赴謝恩 分朝嘉其功而憫其老乃 啓于 行朝曰繼義兵將崔慶長一遵亡弟之約束多有沮遏捍禦之功而弟七十老 將精力已衰金德齡以年少勇將方有飛虎之名而軍卒未備請以德齡代之自 上命罷諸道義兵合屬於金忠勇將於是公盡輸其兵粮罷其 陣號以單騎西赴勤王 英廟乙巳因儒疏疏見附錄贈都承旨詳見行狀行狀公曾孫胄海所撰

죽계공사실(竹溪公事實)

공의 이름은 경장(慶長)、자(字)는 선림(善林)、호는 죽계(竹溪)이니 바로 삼천공(三川公)의 가운데 동생이다。

가정(嘉靖) 기축년(一五二九)에 출생하였는데 어려서 송천(松川) 양응정(梁應鼎) 선생과 고봉(高峯) 기대승(奇大升) 선생의 문하에 들어가 수업하였다。

기유년(一五四九)에 진사(進士)가 되고 갑자년(一五六四)에 문과(文科)에 급제하였는데 그때 지은 문경무위(文經武緯)의 책문(策問)과 홍곡보하해중부(鴻鵠保河海中賦)가 세상에 남아 전한다。

내직(內職)과 외직(外職)을 두루 지내면서 치적(治績)이 훌륭하다고 알려졌다。

임진왜란이 일어날 때 공은 어머니의 상(喪)을 당하였는데 형님 아우와 함께 상의하여 의병청(義兵廳)을 설치하고 군량과 무기를 모아 조카 홍재(弘載)를 시켜 제봉(霽峯) 고경명(高敬命)을 따라 싸우게 하였다。

그때 고경명은 이미 싸움에 져 죽었기 때문에 그 휘하의 장병들이 모두 공의 동생 최경회를 의병장으로 삼고자 하였다。공은 동생에게 말하였다。

「지금 서울이 함락되고 임금께서 피난을 떠나 나라가 위급한 시기이다。신하의 도리로 보면 어머니의 상을 당한 것은 작은 일이다。너는 나라를 위해 힘껏 싸우다가 죽거라。나는 궤연(几筵)을 지켜 三년 상을 마치겠다。그렇게 되면 우리 집 일로 보거나 나라 일로 보아도 모두 잘된 일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삼계공(三溪公)이 마침내 검은 상복을 입고 의병을 일으켰다。공과 공의 형 삼천공(三川公)은 이후부터 더욱 힘껏 전략을 세워 군사들의 형세를 도와주는 한편 곡식을 운반하여 군량미가 떨어지지 않게 하였다。

계사년(一五九三) 六월에 삼계공이 진주에서 순절(殉節)하면서 적에게 빼앗은 청산 백운도(靑山 白雲圖)와 언월도(偃月刀)를 공의 아들 홍우(弘宇)를 시켜 전하면서、「형님은 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거든 제 뒤를 이어 의병을 일으킬 줄 믿습니다」하고 전하였다。

공은 그 칼을 어루만지며 울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내 동생의 장한 충렬(忠烈)의 기운이 이 칼에 서려 있는 듯하다」

이때부터 공은 나라를 위한 걱정과 개인적인 분노를 잊지 못하고 있는데 그해 八월에 도내의 의사들이 와서 뒤를

이어 싸워 줄 것을 부탁하니 분연히 그 말을 따르기로 하였다。그래서 이웃 고을에다 의병을 모집하는 글을 보내자 충의(忠義)로운 선비들이 그 소문을 듣고 모여 들었으며 고을의 담당관이 행조(行朝)에 이런 사실을 알렸다(이 말은 다음 부록(附錄)에 나온다)

학매(鶴梅) 이굉중(李宏中)、수은(睡隱) 강항(姜沆) 등이 공에게 글을 보내 소금과 고기를 팔아 군수품을 보충하자고 청하였다(이 말은 다음 부록에 보인다)

九월에 공은 행조에 상소하여 모든 고을이 죽을 힘을 다해 함께 싸우도록 하라고 청하였다。(이때 올린 상소문〈上疏文〉은 다음 유고〈遺稿〉에 보인다)

도원수(都元帥) 권율(權慄)이 임금에게 글을 올려 「전(前) 내섬시정(內贍寺正) 최경장(崔慶長)이 죽은 동생 최경회의 남아 있던 군사를 모아 그 곳에 주둔(駐屯)하였기 때문에 인심(人心)이 안정되어 있습니다。」

하였고、비변사(備邊司)에서는 임금께 아뢰기를

「동생이 나라를 위해 싸우다 죽었는데 그의 형이 또 뒤를 이어 의병을 일으켰으니 이런 일은 옛날에도 찾아보기 힘든 일입니다」 하니、임금께서 훌륭하게 여겨 특별히 장악원정(掌樂院正)을 제수하고 계의병장(繼義兵將)을 겸하게 하였다。

공은 이 명을 받고 더욱 충성을 다할 것을 다짐하고 옥과(玉果)에다 군사를 주둔시켰다。그리고는 훈련원 부정(訓鍊院副正) 선의문(宣義問)을 부장(副將)으로 삼고 전 군수(郡守) 김윤명(金允明)을 종사관(從事官)으로 삼아 군율을 분명하게 하고 기율을 엄격하게 한 다음 남원(南原)으로 향하다가 금산(錦山)에서 오는 적을 쳐부수었다。적이 도망하자 뒤쫓아 팔량치(八良峙)를 넘어 곧바로 함양(咸陽)으로 가 정예 군사를 내어 습격하고는 이어 고성(固城)의 견내량(見乃梁)을 방어하였다。

얼마 후 원수(元帥)의 공문 지시대로 군사를 석주(石柱)라는 곳으로 옮겨 방어시설을 완벽하게 갖추었다。이때 적이 새로 진주를 함락시키고 더욱 함부로 날뛰었는데 공의 동생 삼계공(三溪公)을 두려워하던 터라 공이 그의 형임을 알고 또 전략(戰略)이 똑같은 것을 보고는 모두 소문만 듣고도 넋을 잃고 진영을 철수하여 숨어 버렸다。명(明)나라 장수 오종도(吳宗道)가 이런 공을 보고 감탄하기를

「동생이 죽자 형이 나와 싸우니 참으로 대단한 충성이다。또 군사를 거느리고 용맹을 드날리자 왜적이 모두 도망하니 이런 사람은 옛날에도 없었다。」

하였다。

十二월에는 왕세자(王世子)인 광해군(光海君)이 전주에 와 군사들을 위로(慰勞)하였는데 공이 달려가 뵙자 분조(分朝)에서 그의 공을 장하게 여겼으나 늙은 것을 민망하게 여겨 행조(行朝)에다 아뢰기를

「계의병장(繼義兵將) 최경장은 한결같이 죽은 동생의 전술(戰術)을 따라 싸워 적을 막은 공이 크옵니다。그러나 나이가 七十세인 늙은 장수여서 힘이 쇠약합니다。김덕령(金德齡)은 나이가 젊은 용장(勇將)으로 지금 비호(飛虎)같다고 하는데 군사들이 없습니다。그러하오니 김덕령으로 대임

하도록 청합니다」 하니 임금이 모든 도(道)의 의병을 다 김덕령의 휘하로 들어가도록 명하였다。이렇게 되자 공은 모든 군량을 김덕령에게 보내고 부대를 해산한 다음 의주(義州)로 가 임금을 호위하였다。

영조(英祖) 을사년(一七二五)에 유생(儒生)들의 상소로 인하여(그 상소문은 〈附錄〉에 보인다) 도승지(都承旨)를 추증하였는데 자세한 것은 행장(行狀)에 보인다。[행장 〈行狀〉은 공의 증손자인 주해 〈冑海〉가 지었다。]

擧義時疏 癸巳 九月 거의시소

伏以臣拔迹羊豕偶忝科第仰承 大造得從大夫之後自頂至踵盡歸 造化補天之力雖闕涓垢而傾日之誠每懷縻粉往在家難又值 國變苫塊餘喘僅存形骸旣不能裂裳裹足奔問官守又不能荷戈執殳爲王前驅而哀痛迫切之悰則未嘗食息少懈臣弟慶會迫於一道士子之推 又不忍以一身之慽忘一天之恥割情衰麻循變金革糾率義旅轉鬪經 年頗有折衝捍衛之勞則妄自以爲弟爲王事冒哀從戎臣奉几筵以終 喪制則公義私情得以兩全此臣之所以苟全性命以至今日者也不幸 晉陽之敗賢士大夫健將精卒擧以一鑒臣弟慶會亦同日而死言之至 此痛哭何喻一道之士共激義憤以討賊之擧不可以一敗中沮又以賊 徒猖獗比前尤甚湖南一路危在朝夕苟無奮義之徒共遏方張之勢則 將來 國家之事更無着手之地茲故欲收餘衆更圖後效以臣乃亡將 慶會之兄也迫臣統兵願收桑榆嗚呼臣之壯也猶不如人大馬之年矧 過六十霜露所侵筋力已竭將何以任士友之責雪公私之痛乎第蒲柳餘生所欠一死一家兄弟食祿衣衣已三十年矣主辱臣死乃其職分而 成敗利鈍又何足較況臣子委質循國之義一息尚存不容少懈以茲之 故不揆淺劣謬膺將領以八月初九日誓衆于和順縣撫循瘡痍招集散 亡者今旣月矣所可慮者喪亂之餘衆心離散州縣之官又多牽制軍情 沮撓整槩未由我圉孔棘啓行失期夙夜憂遑置躬無地伏願 殿下燭 發德音申飭列邑調軍轉餉等事使之並加顧助戮力同心共濟 王事 則一號令之下旌旗變色一轉移之際風采立異渙散之士庶懷敗懷之 心而區區殉 國之誠庶有得伸之路矣伏願 殿下試留神澄省焉煩 一紙之綸綍而副一軍之顒望伏願 殿下更加矜察焉

의병을 일으켰을 때의 상소문(계사년 서기 一五九三년九월)

엎드려 생각하오니, 신(臣)은 미천한 곳에서 태어나 우연히도 과거에 급제하게 되니 우러러 성상(聖上)의 크신 공적을 받들어 대부(大夫)들의 후미(後尾)를 따를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정수리에서 발뒤꿈치까지 온몸이 부서지도록 일하되 하늘을 보좌하는 힘이 미약한 정도도 없었지만 군주를 향한 정성은 언제나 온몸이 가루가 될 각오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집에 머물러 있을 적에 비록 나라의 변란 임진왜란을 당하였지만 상(喪)을 당하여 시묘(侍墓)하느라, 겨우 목숨만 부지할 뿐인지라 옷을 찢고 행장을 갖추어서 행재소(行在所)에 달려가 군주의 안부도 묻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창과 칼을 잡고서 대왕을 위하여 선봉에 서지도 못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애통해 하고 급박함을 느끼는 걱정은 한시도 그친 적이 없었습니다。

신의 아우인 경회(慶會)가 도내(道內) 선비들의 추대에 못 이기고, 또 한 개인의 슬픔으로 인하여 차마 한 나라의 치복을 망각할 수는 없다고 하여 상복을 입었던 마음을 가지고 무기를 잡음으로써 변란에 대처하였습니다。 그래서 의병을 규합하여 여기저기에서 전투를 하니, 한 해를 넘기는 동안 적의 공격을 막아내어 국가를 보위하는 수고를 상당히 하였습니다。 신은 망령되게 생각하기를, 신의 아우는 국가의 일을 위하여 상을 당한 슬픔을 무릅쓰고 전투에 참가하고, 신은 영혼을 모신 자리를 받들어 상제(喪制)를 끝마치려고 하였으니, 이와 같이 한다면 공적인 외로움과 사적인 정(情)을 함께 온전하게 지킬 수 있을 것이라 여겼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이 목숨을 보전하면서 오늘에 이른 까닭입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진주성(晋州城)에서 패배를 하여 현명한 사대부들과 용감한 장수 정예한 병졸이 모두 함께 전사하였거니와 신의 아우 경회도 마찬가지로 같은 날 전사하였습니다。 그러한 소식이 이곳에 전해지니 그 애통함을 무엇으로 표현하겠습니까? 도내의 선비들이 함께 의분을 토론하여 적을 토벌하는 의거는 한 번의 패배로 중지할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하고 또 적의 무리가 창궐(猖獗)함이 전보다 더욱 심해져서 호남 일대의 위태롭기가 조석(朝夕)에 달려있으므로 만일 의병이 봉기하여 현을 합쳐서 한 참 왕성해진 적의 세력을 막지 않는다면 장래의 국가의 일은 손을 쓸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를 것이라 생각하였습니다。 이러한 연고로 남아있는 무리를 수습하여 뒷날의 충성을 받칠 것을 도모하였습니다。 그런데 신이 전사한 경회의 형이라 하여 신이 의병을 통솔하라 핍박해서 노년(老年)의 장수를 거두고자 하였습니다。

아! 신은 장년의 때에도 남들보다 못하였거니와 신의 나이 또한 六十을 넘겼고, 세월에 깎이어 근력이 고갈되었으니 장차 무엇으로써 사우(士友)의 질책을 감당할 것이며, 공사(公私)의 원통함을 설욕하겠습니까? 다만 나약한 늙은 몸에 이제 남은 것은 죽는 것뿐입니다。 일가(一家)의 형제가 국가의 봉록을 받은 지 지금껏 三十년이 되었습니다。 그러하오니 「군주가 욕을 당하면 신하는 목숨을 바친다」 한 것이 바로 신등의 직분(職分)이니 성공하고 패하며, 잘 하고

못하고 하는 것을 비교할 필요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물며 신의 아들은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는 의로움에 맡겼고, 자식 하나가 아직도 살아 있어서 조금을 지체함도 용납치 않고 있습니다。이러한 연고로 인하여 천박함과 졸렬함을 염두에 두지 않고 외람됨이 장령(將領)을 거느리고서 八월 초九일에 화순현(和順縣)에서 군중을 앞에 두고 맹세를 하였습니다。그리고서 부상당한 사람을 위문하고 어진 사람을 불러 모은 지가 벌써 한 달이 되었습니다。그런데 염려되는 바는, 난리가 일어난 뒤인지라 백성의 마음이 이산(離散)하고, 또 주현(州縣)의 관리가 견제를 하는 일이 많아서 군대의 사기가 저하되고 군대를 정비할 방도가 없는 것입니다。그리하여 신이 지휘하기가 매우 어려워 진군(進軍)할 시기를 잃고 밤낮 근심하고 뛰어다니나 어떻게 할 바를 모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하오니 엎드려 바라건대, 전하께서 빛나는 조서(詔書)를 내리시어 뭇읍(邑)에 군사의 군량미 조달 등에 관한 일을 신칙(申飭)하심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한층 더 원조를 하게 하시고, 있는 힘을 다하여 한 마음으로 국난을 헤쳐 나가게 하여 주십시오。그렇게 하여 주신다면 한번 호령을 내리면 깃발도 다른 빛깔을 띨 것이며, 한 이동을 할 때에도 풍채가 달라 보일 것입니다。그리고 흩어졌던 선비들이 적개심을 품게 될 것이며,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려는 구구한 정성을 펼칠 수 있는 길이 열어질 것입니다。엎드려 바라옵건대, 전하께서 여기에 잠시 생각을 돌리시어 살펴보시고서 종이 한 장에 윤음(綸音)을 내려 주심으로써 한 군대의 간절한 바람에 부응해 주십시오。

엎드려 바라옵건대, 전하께서 이러한 뜻을 더욱 살펴주시기 바라옵니다。

竹溪公墓碣

죽계공 묘 갈

壬辰之變湖南節義之卓然者世必稱晋陽三壯士故兵使忠毅崔公其 一也而聯芳齊微爲其難兄者掌樂院正 贈都承旨諱慶長字善林是 己公海州人麗朝溫而子文憲公冲其先祖也曾祖渾司直祖尹範進士 贈承旨考天符 贈領議政妣 贈貞敬夫人淳昌林氏進士鐵恭女以嘉靖 中廟己丑生生而雋異器宇軒豁文藝夙就道伯圭庵宋文忠公因課試大加稱賞 明廟己酉司馬 壬子丁外憂居喪盡禮服闋與伯氏進士公慶雲季氏兵使公慶會從遊於梁松川應鼎奇高峯大升德學益進三十六歲甲子占文科第二名栗谷李先生榜也歷禮兵曹正佐郎屢典郡 府欝有聲績盖公括於進取低回下邑而亦急於便養也庚寅拜內贍寺 正是年遭貞敬夫인憂服未闋遭壬乱道內義士共推兵使公起復公曰 主辱臣死何暇顧私我守凡筵爾從王事公

私之義庶得兩全兵使公遂　墨縗從戎及晋州城陷諸義士請公繼起公奮然從之逆上章　行朝傳　檄列邑以繼義爲標都元帥權公慄狀聞　行朝備邊司又啓聞上曰　弟死於國兄又繼起求之古人鮮有其侶　特授繼義兵大將印信以褒　之公承　命兢惕奬率義旅直向南原轉至咸陽連破沿路留屯之敵遂　控扼於固城明將吳宗道歎曰弟死兄起忠義激烈陳師耀兵敵衆慴伏　撫軍司憫其衰老　啓請以義軍移屬於翼虎將金德齡遂單騎赴於龍　灣行在甲午還家乙未八爲掌樂院正戊戌除潭陽府使以其近鄉爲歸休計赴任七月遂辭歸卜築於山陽之竹溪上流優遊自適辛丑正月二日考終葬于和順縣東十里新院洞負乾之原初娶淳昌薛氏叅奉瓊樹　女无育別葬縣東梧谷向午之原再娶尚質張氏護軍俊女附公墓二男　三女長弘宇洗馬次弘有通德郎女李天迪安孝立宗室雲林君宗胤側　出二男弘遠進士弘城叅奉　英廟乙巳因儒疏　贈都承旨正廟己　酉鄉人立祠嗚呼公在恂恂一文吏也周流縣邑無異常調及夫板蕩之　際方在苦塊之中而殉國一心慷慨激烈觀於勉弟一言而有可知者矣　及其繼起不以衰老自懈奬率義旅沮遏強敵　衮衮隆重明將欽服仲　季之間一死一生雖其隨遇而所不同顧何可差殊觀也終乃斂跡歸鄉　以歿其世而　聖朝興感貤贈於曠世公義不泯俎豆於本鄉公之忠烈　於是益彰而所以崇報者可謂無憾矣弟墓尚無顯刻公之八代孫氣浩　來謁余甚勤余床席垂盡久謝筆硬而於公家忠義景仰有素茲強病略　撮狀語俾歸刻焉

崇禎四丙申孟秋

資憲大夫刑曹判書兼

成均館祭酒恩津　宋穉圭　述

죽계공의 묘갈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 호남에서 절의를 지킨 선비 중 우뚝하게 드러난 사람으로 세상에서는 누구나 할 것 없이 진양(晋陽)의 세 장사(壯士)를 칭하는데 고 병사(兵使) 충의공(忠毅公) 최공(崔公)이 그 중의 한 분이다。또 꽃다운 행실을 그와 같이 실행하여 아우에 뒤지지 않는 공을 세운 분은 장악원정(掌樂院正)으로 도승지(都承旨)에 추증된 휘 경장(慶長)、자 선림(善林)이 바로 그 분이다。공은 해주인으로 고려의 문헌공 휘 충이 바로 그 선조이다。증조부는 혼(渾)으로 사직(司直)을 지냈고、조부는 윤범(尹範)으로 승지(承旨)에 추증되었다。부친은 천부(天符)로 영의정에 추증되었다。모친은 정경부인(貞敬夫人)에 추증되었고、순창(淳昌) 임씨(林氏)로 진사 철공(鐵恭)의 딸이다。가정 기축년(서기

一五二九년)에 태어났다。태어날 때 준걸차고 남과 달랐고 기우(器宇)가 헌걸하고 활달하였으며 문예(文藝)가 숙성(夙成)하였다。도백(道伯)인 규암(奎庵) 문충공(文忠公) 송린수(宋麟壽)가 시험을 해보고서 크게 칭찬을 하고 상을 내렸다。명종(明宗) 기유년(서기一五四九년)에 사마시(司馬試)에 합격하였고、임자년(서기一五五二년)에 부친상을 당하였는데 상을 치름에 있어 예를 다하였다。상복을 벗고 난 다음 백씨(伯氏)인 진사공 경운과 계씨(季氏)인 병사공(兵使公) 경회와 함께 송천(松川) 양응정(梁應鼎)과 고봉(高峯) 기대승(奇大升)의 문하에서 공부하니 덕행과 학업이 더욱 진보하였다。二十六세가 되는 갑자년(서기一五六四년)에 문과 제二명에 급제하니 율곡(栗谷) 이선생(李先生)이 주관한 방(榜)이었다。예조와 병조의 정랑(正郎)、좌랑(佐郎)을 거쳐 여러 번 군(郡)과 부(府)의 수령을 하여 명성과 치적을 남기었다。대개 공은 적극적으로 벼슬자리에 나아가는데 대하여 싫증을 느끼어 하급의 읍에 전전하였으니 이 또한 모친의 봉양에 편리하게 하고자 해서였다。

경인년(서기一五九〇년)에 내섬시정(內贍寺正)에 임명되었는데 이 해에 정경부인의 상을 당하였다。삼년상을 다 마치기도 전에 임진왜란이 일어났다。이에 도내의 의사(義士)들이 모두 병사공(兵使公)을 추대하여 의병을 일으키었다。공이 말하기를、「군주가 욕을 당하면 신하는 목숨을 버린다 하였으니 어찌 사적인 일을 돌볼 겨를이 있겠는가? 나는 삼년상을 다 마치고 너는 왕사(王事)에 종사한다면 국가의 일과 사적인 일의 의례를 모두 지킬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였다。이에 병사공은 마침내 상복을 입은 채 의병에 가담하였다。진주성(晋州城)이 함락되자 여러 의사들이 공에게 다시 의병을 일으킬 것을 청하였다。이에 공이 분연히 그들의 청에 응하였다。그리하여 마침내 피난지에 있는 조정에 상소를 올리고 각 읍에 격문을 띄워 앞의 의병을 이어 의거를 일으킨다고 표방하였다。그때 도원수(都元帥)인 권율(權慄) 공이 피난지의 조정에 장계를 올려 그 사실을 전하였고、비변사(備邊司)에서도 장계를 올려 주상께 알렸다。그러자 주상께서 「아우가 국가를 위해 죽자 형이 그 뒤를 이어 의병을 일으킨 일은 옛사람들에게서 그 예를 찾아볼지라도 극히 드문 일이다」라 말씀하시고 특별히 계의병대장(繼義兵大將)의 인(印)을 하사하시어 신임을 보이고 장려를 하였다。공은 왕명을 받고 공경심과 경건함을 가지고 의병을 거느리고서 바로 남원(南原)으로 진군하다가 방향을 바꾸어 함양(咸陽)에 이르렀는데 길가에 주둔하고 있는 적병을 연파하여 마침내 고성(固城)까지 장악하게 되었다。명나라 장수인 오종도(吳宗道)가 감탄하여 말하기를、「아우가 죽자 형이 의병을 일으키니 충성과 의기가 격렬하구나! 진영을 펼치고 군사를 보내니 적의 무리가 무서워 숨는구나!」라고 하였다。무군사(撫軍司)가 공의 쇠약하고 늙음을 민망하게 여기어 장계를 올리어 의병을 익호장(翼虎將) 김덕령(金德齡)에게 옮겨 배속시킬 것을 청하였다。그리하여 공이 단신으로 말을 타고 의주義州)의 행재소(行在所)에 달려갔다가 갑오년(서기一五九四년)에 집으로 돌아왔다。을미년(서기一五九五년)에 조정에 들어가 장악원정(掌樂院正)이

되었다가 무술년(서기 一五九八년)에 담양부사(潭陽府使)에 제수되었다。이는 담양이 고향과 가까웠기 때문에 귀향하여 쉴 의도로 부임하였다。七월에 마침내 사직하고 귀향하여 산양(山陽)의 죽계(竹溪) 상류에 집을 짓고 한가하게 유유자적 세월을 보내다가 신축년(서기 一六〇一년) 정월二일에 돌아가셨다。화순현 동쪽 十리의 신원동(新院洞) 부건(負乾)의 자리에 묻히었다。초취(初娶)는 순창(淳昌) 설씨(薛氏)로 참봉 경수(瓊樹)의 딸인데 자녀가 없었다。화순현 동쪽 오곡(梧谷)의 향오(向午)의 자리에 따로 묻혀 있다。재취(再娶)는 상질(尚質) 장씨(張氏)로 호군(護軍) 준(俊)의 딸이니 공의 묘에 합장하였다。슬하에 二남三녀를 두었으니 장남은 홍우(弘宇)로 세마(洗馬)를 지냈고、차남은 홍유(弘有)로 통덕랑(通德郎)이며、딸은 이천적(李天迪) 안효립(安孝立)、종실(宗室) 운림군(雲林君) 종윤(宗胤)에게로 출가하였다。측실(側室)에게서는 두 아들을 두었으니 홍원(弘遠)은 진사이고、홍성(弘城)은 참봉을 지냈다。

영조(英祖) 을사년(서기 一七二五년)에 유생들의 상소에 따라 도승지(都承旨)에 추증되었고、정조(正祖) 기유년(서기 一七八九년)에 고을사람들이 사당을 세웠다。

오호라! 공께서 살아계실 적에는 한 분의 성실한 문관에 불과하였다。현읍을 두루 거치면서 벼슬할 적에는 특별히 남다른 점이 없었다。그러다 국가의 운명이 위급해지자 삼년상을 치르는 중에 있으면서도 국가를 위하여 목숨을 바칠 마음이 강개하고 격렬하였으니 이는 아우에게 부탁하는 한마디 말을 통해서 알 수 있다。공이 아우의 뒤를 이어 의병을 일으킬 때 쇠약함과 늙음을 핑계로 안락을 구하지 아니하고 의병을 이끌고서 강한 적병을 막았다。그리하여 주상의 융숭한 포상을 받았고、명나라 장수의 흠모를 받았으니 형과 아우 사이에 한 사람은 죽고 한 사람은 살아서 비록 그 처한 경우가 다르기는 하지만 어찌 서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는가? 그리고 마지막에는 자취를 감추어 귀향하여 죽음을 맞으니、조정에서는 감격하여 세상에 드문 증직(贈職)을 내리었고、공의 의로움은 사라지지 않아 고향에서 제사를 받들고 있다。공의 충렬(忠烈)은 이로 인하여 더욱 빛날 것이요 높은 보답을 받았으므로 유감이 없다고 할 수 있으리라。그러나 묘에는 아직도 빛나는 비문이 없는 실정이더니 공의 八대손인 기호(氣浩)가 나를 찾아와 매우 열심히 비문을 청하였다。나는 자리에 누워 죽을 때가 다 된 몸인지라 오래전부터 글쓰기를 사절하였으나 공의 집안의 충성과 의기에 대해서 평소부터 흠모하던 바라 이에 병을 무릅쓰고 가장(家狀)의 말을 모아 글을 지어서 돌아가 새기게 하노라。

숭정(崇禎)후 네 번째 병신년(서기 一八三六년) 초가을에

자헌대부(資憲大夫) 형조판서(刑曹判書) 겸

성균관좨주(成均館祭酒)

은진(恩津) 송치규(宋穉圭)는 쓴다。

十七世 日休堂 諱 慶會
일휴당 경회

日休堂公事實
일휴당공사실

公諱慶會字善遇號三溪又曰日休堂三川公季弟也嘉靖壬辰生從 梁松川奇高峯遊辛酉幷中生進一等隆慶丁卯文科歷敭華顯六典 郡邑皆立石紀績寧海民立生祠以祀之朴思菴淳薦以文武全才試射 加資壬辰倭寇充斥 大駕西狩公身持衰麻不得陪扈與伯仲二兄倡 義募兵使侄弘載領赴高霽峯陣助其聲勢及高公敗幕下文弘獻等上書 書見附錄 請公爲大將遂奪情墨縗哭辭几筵號右義兵將馳奏行朝傳 檄列邑遠近響應軍聲大振旬月之間衆至五千粮餉六七百斛公抆淚 誓死以忠義激勵人皆自奮將直向畿輔扈從 大駕會錦山茂朱賊有 蹂躪湖南之勢公進屯長水以伺之士民以公遺愛輩壺迎勞俄而茂朱 賊果至公抄五百餘騎迎擊大破之錦山賊又悉兵來公據險邀擊無不 披靡奪賊將偃月刀青山百雲圖圖即恭愍王畫牧隱詩安平大君書劒 亦神物也自此轉鬪嶺右所向皆捷時金公時敏在晋州被圍久飛書請援公進兵往救大破賊兵嶺伯金誠一 啓曰今此晋州之捷莫非崔慶會外援之力 上下敎曰嶺南右界湖南一道迄今保全莫非此人之功 特拜慶尚右兵使癸巳清正欲洩前憤合兵數十萬直向晋州兵勢大震 時沈游擊惟敬答都元帥金命元書曰彼因去歲見劒悉兵再擧其鋒不 可當莫若先自空城以快其意公場言於衆曰晋陽乃湖南咽喉今棄不 守是無湖南也當合衆力拒以挫其鋒諸將不應皆引兵去與公同者獨 倡義使金千鎰忠清兵使黃進復讎義兵將高從厚公所領兵僅七百人 合金公黃公其餘諸將兵及本州軍民避亂士女七萬餘人悉力死守賊 果大至圍之三匝公按兵不動屢戰却賊賊築土爲高阜又建大木設板 屋俯而放火公以大砲破板屋賊戴木櫃進逼城公令以大石轉下且砲 且射賊不能支賊將投書示講和之意答以我等已決死 天兵三十萬 朝暮且至當盡剿汝賊益怒築五阜於東西門外結竹爲柵公以火前射 之柵盡焚賊作四輪車進簿置大櫃人各用鐵錐鑿城公東火灌油而投 之櫃焚而賊皆燋死六月二十九日因天大雨城東隅圮賊蟻附而上又 自西北門大至諸軍遂潰或勸提輕銳突出以圖

後功公勵聲曰吾受
國恩任此方面城存我存城亡我亡不可苟且偷生遂脫
朝衣一襲幷賊　中所奪圖與釵寄仲氏曰不可留此藉
寇且我兄聞吾死必繼起以此爲　識我死之後以此衣
幞葬於是一向督戰矢盡力竭知終不可免與金公　高
公登譙樓口占一詩詩見遺稿北向四拜投江而死城遂陷唐
將吳宗道祭　文曰崔公尤爲倭虜所忌憚　宣廟下敎
曰天將稱美倭虜忌憚可謂名　動三國劉總兵綎嘗見
乞師書斂衽改容邢軍門玠稱忠魂義魄凜然如　生牛
溪成先生尤菴宋先生隱峯安先生奬其精忠大節甚悉見下附錄初
贈吏曹判書賜祭命旌閭晋州　賜祠額彰烈　仁廟朝
加贈左贊成綾州　賜祠額褒忠　英廟丁卯晋州官僮
獲公所抱印於南江帥臣狀
聞　上感歎親製銘序見下附錄命於闕營立閣藏之庚午因
相臣啓　賜謚忠毅權贊成褘製謚狀俞判書棨基撰墓
表詳見行狀行狀公從曾孫胄海所撰

일휴당공 사실(日休堂公事實)

공의 이름은 경회(慶會)요、자(字)는 선우(善遇) 호는 삼계(三溪)、또는 일휴당(日休堂)인데 삼천공(三川公)의 막내아우이다。

가정(嘉靖) 임진년(一五三二)에 출생하여 송천(松川) 양응정(梁應鼎) 선생과 고봉(高峯) 기대승(奇大升) 선생의 문하에서 수업을 하였다。

신유년(一五六一)에 생원 진사(生員進士) 시험에 一등으로 합격하였으며、융경(隆慶) 정묘년(丁卯年：一五六七)에는 문과(文科)에 급제하여 육조(六曹)의 여러 관청과 많은 고을을 다스렸는데 모두 훌륭한 치적(治績)을 남겨 송덕비(頌德碑)를 세웠고 영해(寧海) 백성들은 생사당(生祠堂)을 세워 제사까지 지내주었다。

사암(思菴) 박순(朴淳)이 공을 문무(文武)가 겸비한 인물이라 천거하니 임금이 친히 활 쏘는 시험을 보여 품계(品階)를 높여 주었다。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임금이 의주로 피난을 떠났는데 공은 어머니 상을 당하여 부득이 임금을 모시고 갈 수가 없었다。그래서 형님 두 분과 함께 의병을 모집하여 조카인 홍재(弘載)를 시켜서 이끌고 제봉(霽峯) 고경명(高敬命)의 진영(陳營)으로 가 돕도록 하였다。

고 경명이 마침내 싸움에 패하자 그의 부대에 소속되어 있던 문홍헌(文弘獻) 등이 편지를 보내(그 편지는[附錄]에 나온다) 공을 대장으로 추대하고자 하였다。그래서 어머니 상을 끝내지 못하고 검은 상복을 입고 궤연(几筵)에 곡한 다음 우의병장이라 불렀다。그리고 행조(行朝)에 사람을 보내 이런 사연을 아뢴 다음 이웃 여러 고을에 의병 모집하

는 격문(檄文)을 돌렸다。그러자 멀고 가까운 고장에서 호응해 군사들의 위엄이 크게 떨쳐 한 달 동안에 모인 의병이 五천 명、군량이 六、七백섬이 넘었다。

공은 눈물을 흘리면서 군사들에게 죽음을 각오하고 싸울 것을 다짐하니 모든 군사가 다 분발하였다。군사를 이끌고 곧바로 경기도로 가서 임금을 호위하려고 했으나 때마침 금산(錦山)과 무주(茂朱)에 있던 왜적들이 호남지방을 짓밟을 형세에 놓여 있었다。

그래서 공은 장수(長水)에 진을 치고 기회를 엿보기로 하였다。그곳 백성들은 전에 공이 이 곳을 다스리면서 어진 정치를 베푼 것을 사모하고 있던 터라 음식과 마실 것을 가지고 와 군사를 위로해 주었다。

얼마 후 무주에 있던 왜적이 과연 장수로 쳐들어 왔다。공은 날랜 군사 五백 명을 뽑아 적과 싸우게 하여 큰 승리를 거두었다。금산 지방에 있던 적이 다시 군사를 다 모아 쳐들어오니、공은 험악한 지대에 진을 치고 요격(邀擊)해서 모조리 죽였다。그리고 적의 장수가 가지고 있던 언월도(偃月刀)와 청산백운도(靑山白雲圖)를 빼앗았는데 청산 백운도는 바로 고려시대 공민왕(恭愍王)이 그린 그림으로 목은(牧隱) 이색(李穡)의 시(詩)를 안평대군(安平大君)이 쓴 것이며 칼 역시 보검(寶劍)이었다。

이때부터 영남지방으로 가서 싸웠는데 공의 군사는 싸울 때마다 이겼다。이때 김시민(金時敏)이 진주에 있다가 적병의 포위를 받은 지 오래였는데 글을 보내 후원(後援)을 청하였다。그래서 공은 군사를 이끌고 가 진주성의 적군을 크게 무찔렀다。이때 영남의 감사(監司) 김성일(金誠一)이 임금께 아뢰기를

「이번 진주성의 싸움에서 이긴 것은 모두 최경회의 군사가 와서 후원한 까닭입니다」

하니 임금께서는 전교(傳敎)하기를

「영남지방의 오른쪽과 호남지방이 지금까지 적의 수중에 넘어가지 않은 것은 모두 최경회의 공로이다」

하고는 특별히 경상우병사(慶尙右兵使)를 제수하였다。

계사년(一五九三)에 가등청정(加藤淸正)이 지난 번 진주성 싸움에서 진 것을 분하게 여겨 수십만 명의 군사를 모아 곧바로 진주성을 공격하니 그 위세가 크게 떨쳤다。이때 유격(游擊) 심유경(沈惟敬)이 도원수 김명원(金命元)에게 글을 보냈는데 그 내용 가운데 「왜적들이 지난 해 패배한 것을 분하게 여겨 남은 군사를 다 모아 다시 쳐들어가는데 그 기세는 당할 수가 없습니다。그러니 진주성을 미리 텅 비게 하여 왜적들로 하여금 마음대로 하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하는 대목이 있었다。이를 본 공은 군사들에게 다음과 같이 외쳤다。

「진주성은 곧 호남지방으로 들어가는 목구멍과 같이 중요한 곳이다。지금 우리가 진주성을 버리고 지키지 않는다면 이는 호남지방을 잃는 것과 마찬가지이다。마땅히 모두 힘을 합쳐 적의 기세를 꺾어야 한다。」

그러나 겁이 난 여러 장수들은 공의 말을 듣지 않고 군사를 이끌고 떠나버렸다。오직 공과 함께 싸우겠다고 남은 사람은 창의사(倡義使) 김천일(金千鎰)과 충청병사(忠淸兵

使) 황진(黃進)、복수의병장(復讎義兵將) 고종후(高從厚)뿐이었다。

이때 공이 거느리고 있는 군사는 겨우 七백 명뿐이고 김천일과 황진의 군사 및 그 밖의 다른 장수들이 거느린 군사와 진주의 군사와 민간인、또 피난 온 남녀 백성 七만여 명이 죽을힘을 다해 진주성을 지키기로 하였다。얼마 후 과연 적의 대군이 쳐들어 진주성을 세 겹으로 포위하였다。

공은 무기를 손에서 떼지 않고 꿈쩍도 하지 않으면서 여러 차례 싸워 그때마다 적을 물리쳤다。적은 마침내 흙으로 높은 언덕을 쌓고 또 큰 나무로 걸쳐 다리를 놓고는 그 위에서 진주성 안을 내려다보면서 불을 질렀다。그러자 공은 대포(大砲)를 쏘아 그 나무다리를 파괴하니 이번에는 적병들이 나무 상자를 둘러쓰고 성벽 가까이로 다가왔다。공은 큰 돌을 굴러내려 그들을 무찌르는 한편 대포를 쏘아대니 적은 지탱하지 못하게 되었다。

견디다 못한 적의 장수는 마침내 글을 보내 휴전(休戰)할 것을 청하였다。그러나 공은 이런 답장을 보냈다。

「우리들은 이미 죽을 결심을 하였다。그러나 명(明)나라 군사 三○만 명이 곧 후원하러 와서 너희들을 모조리 섬멸할 것이다」

적은 이에 더욱 화가 나서 성의 동문(東門)과 서문(西門) 밖에다 다섯 개의 언덕을 쌓고 대나무를 엮어 울타리를 만들었다。그러자 공은 불화살을 쏘아 그 울타리들을 모조리 불살라 버리니 적은 다시 바퀴가 네 개 달린 수레를 만들어 성 가까이로 다가왔다。그 수레 위에는 큰 상자가 놓여 있는데 그 상자 속에서 군사들이 쇠꼬챙이를 가지고 성벽에다 구멍을 뚫었다。

이를 본 공은 나무다발을 만들어 기름에 적셔 불을 붙여 던지니 그 나무 상자에 불이 붙어 안에 든 적병들은 모두 불타 죽고 말았다。

六월 二十九일、비가 많이 내려 마침내 성(城)의 동쪽이 무너지게 되었다。적이 그 틈을 타 개미떼처럼 붙어 기어오르고 또 서북문(西北門)으로 많은 적병이 몰려들었기 때문에 성이 함락되기 시작하였다。

어떤 사람이 공에게、「날랜 군사 몇 명만 데리고 성을 빠져 나갔다가 후일 다시 공을 세웁시다」하고 권하니 공은 큰 소리로 꾸짖었다。

「나는 나라의 큰 은혜를 입어 이곳을 지키는 책임을 맡았다。성이 함락되지 않으면 나도 살겠지만 성이 함락되면 나도 죽어야 한다。어찌 구차스럽게 살기를 도모하겠느냐?」

그리고는 관복(官服)을 벗어 싸고 또 왜적에게 빼앗은 그림과 칼을 넣어 둘째 형님께 부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이 물건들을 여기에 두어 왜적들이 도둑질해 가도록 할 수는 없다。또 우리 형님께서 내가 죽었다는 말을 들으시면 내 뒤를 이어 반드시 의병을 일으킬 것이니 이 물건으로 징표(徵標)를 삼아야겠다。내가 죽은 후에 이 관복을 호복(呼復)하여 장사를 지내면 된다」

말을 마치고는 여전히 싸움을 지휘하다가 화살이 떨어지고 힘도 지쳐서 끝까지 싸울 수 없음을 알고는 김천일、고종후(高從厚)와 함께 누각으로 올라가 시 한 수씩을 읊고

는 임금님이 계시는 북쪽을 향해 네 번 절한 다음 강물로 몸을 던져 죽었다。진주성이 마침내 함락되자 명나라 장수 오종도(吳宗道)가 제문(祭文)을 지었는데 이런 내용이 들어 있다。「최 공은 왜적들이 제일 무서워하였다」 그리고 선조(宣祖)께서는 전교를 내려 「중국의 장수도 그의 훌륭함을 칭송하고 왜적들도 무서워하였다니 최경회의 이름이 세 나라에 알려진 것이다」 하였다。또 명나라 총병(總兵) 유정(劉綎)은 일찍이 공이 군사를 청하는 편지를 읽으면서 옷깃을 단정히 여미고 얼굴 빛을 변했으며、명나라 장수인 군문(軍門) 형개(邢玠)는 「최경회의 충성스러운 넋은 마치 살아 움직이는 듯하다」 하였다。또 우계(牛溪) 성혼(成渾) 선생、우암(尤菴) 송시열(宋時烈) 선생、은봉(隱峯) 안방준(安邦俊) 선생이 공의 정충대절(精忠大節)을 칭찬하였다。(내용은 부록에 나온다)

조정에서 처음에는 이조판서(吏曹判書)를 추증하여 제사를 지내주고 진주에다 정려(旌閭)를 세우고 창렬사(彰烈祠)라 사액(賜額)하였다。

인조(仁祖)때 좌찬성(左贊成)으로 올려 추증하고 능주(綾州：和順)에다 포충사(褒忠祠)를 내려주었다。

영조(英祖) 정묘년(一七四七)에는 진주의 관노(官奴)가 공이 끌어안고 죽었던 관인(官印)을 남강(南江)에서 건져 내어 그곳 원님이 임금에게 그 사실을 알리니 임금은 감탄하면서 친히 명(銘)의 서문을 지었으며 (내용은 다음 부록에 보인다) 그 곳 병영(兵營)에다 집을 지어 보관하게 하였다。

경오년(一七五〇)에는 재상들의 건의에 따라 충의(忠毅)란 시호를 내려주었는데 시호를 올리는 글은 찬성(贊成) 권적(權適)이 짓고、판서(判書) 유최기(俞最基)가 비문(碑文)을 지었는데 자세한 것은 행장(行狀)에 보인다。행장은 공의 종증손(從曾孫)、주해(冑海)가 지은 것이다。

乞遞寧海府使疏

걸체영해부사소

伏以蟻蟻織微臣濫蒙　天恩位至三品榮華已極揆臣賤分別生感激此身未死之前庶幾奔走服勞圖報鴻恩之萬一而第臣母年今八十四　歲家在全羅和順之地與臣所典邑遠隔千里年近九十之親雖無疾恙　尙不能率來遠地況臣母久患風疾長臥床褥一邑榮養情雖罔極何忍　扶携遠來于千里之外哉各在天涯山河眇眇戀兒慈母思親幼子倚閭　望雲之心爲一矣心驚計路魂悸覺夢物皆惱情事盡撓愁何嘗頃刻之　間忘于懷安于心哉臣母家本貧窮寒生臣等七人撫育反覆艱難長養朝夕　臨食則列坐於前顧此顧彼慮有未飽之兒母鉢之食殆盡分與母則徒　守虛器以過朝夕者屢矣當其時惟知自飽之爲誰知母腹之長餒哉及　旣有知遽失天怙惟母是恃恩報劬勞之情欲盡反哺之恩

幸賴　天恩　添及草野臣兄弟僥倖登弟相繼乞縣率養老母十五餘年天高地博　聖恩無際煦煦焉子母相樂欣涵並育之化日贊華封之祝不幸而臣之兄慶　長以蔚山郡守飄倭一船過境未捕充軍本鎭臣亦遠來于此年近九十　老母不能隨來獨處於饑寒疾病呻吟矣計母之年餘日不多母不繼藜　糲之饌而臣獨享一邑之奉寔昧孝親之道能盡忠君之義乎臣去年冬　受由於監司歸省老母老母年旣昏耄癡若嬰兒見臣撫背而言曰汝兄何歸而不爲率我汝亦何事不爲率我而去乎吾未死之前願復見汝等　官衙之養臣權對唯唯舍淚而退臣意將此人子切迫之至情上達孝理　之　天聰下全母子之至懇以安餘生者決矣適値國運不幸邊鄙多虞　修城池選車馬鍊軍卒治器械遑遑不給之日非臣子告私之時故抑情　忍志以至于今凉秋己届邊報稍息老母之耄以日而衰思母之情與時　而積對腥則思母之口不忍匙見柔則思母之齒不忍茹夫如是則情無　問上下　疑有閼文　况親年七十勿叙三百里外載在　國典此　祖宗之法緣　人情酌天理周流通達而無間者也伏望　聖慈俯察赤悃之陳　特垂　孝理之敎命遞臣職俾養老母則非徒匹夫匹婦之自盡興孝興仁之化將自此而益廣矣烏鳥微誠上達　天聰極知其所逃罪而臣之於君猶　子之於父疴癢疾痛無不號訴於膝下故敢不自量情迫忘鄙以聞

영해부사(寧海府使)의 교체를 청하는 상소 문

엎드려 생각하오니, 개미와 같이 미미한 신하가 외람되이 하늘의 은혜를 입어 지위가 삼품(三品)에 까지 이르렀으니 그 영화(榮華)가 이미 극에 다다랐습니다。신의 천박한 천분(天分)을 헤아려보니 특별한 감격이 일어나옵니다。이 몸이 죽기 전에 바쁘게 뛰어다녀 수고함으로써 크신 은혜의 만에 하나라도 갚기를 도모하고자 합니다。그러나 신의 어미가 나이가 금년 八十四세로 전라도 화순 땅에 거주하고 있으므로 신이 가야할 읍과는 천리나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나이가 九〇이 가까운 모친이 비록 병환이 없더라도 먼 임지(任地)로 모시고 갈 수는 없는 일입니다。게다가 신의 어미는 오랫동안 풍병으로 병상에 누워있으므로 한 읍으로 영광스럽게 봉양을 하는 것이 마음으로는 비록 망극한 일이지만 어떻게 천리나 먼 길을 부축하여 모시고 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다고하여 제각기 하늘 끝에 처하여 아득한 산과 강을 격하여 있으면 아들을 그리워하는 자모(慈母)와 어미를 생각하는 아들이 사립문에 기대어 아들 생각하는 마음과 구름을 바라보며 모친 생각하는 마음은 한가지일 것입니다。멀리 떨어진 길을 계산해 보고 마음이 놀라고 (그리워하는) 꿈을 깨고난 다음 넋이 빠져 일마다 모두 괴

로운 것일 것이며、모두 근심의 정만 생길 것이니 어찌 경각(頃刻)의 사이인들 그리움을 잊고 마음 편할 겨를이 있겠습니까?

신의 모친은 집안이 본래 빈궁하였는데 신 등의 일곱 자식을 낳아서 어루만져 키우기를 반복하시어 어렵게 어렵게 오랜 세월동안 신 등을 길러 내었습니다。조석(朝夕)으로 식사를 대할 때면 앞에 죽 앉게 하고서 이 아들을 돌보고 저 아이를 돌보시었는데 배부르지 않은 아이가 있을까 걱정하여 모친의 그릇에 있는 밥을 거의 다 자식에게 나누어 주시니 모친의 경우는 단지 빈 그릇이나 지키면서 조석을 보내는 때가 자주 있었습니다。그때에는 오로지 자기만 배불리 먹는 것이 좋은 줄만 알았으니 그 누가 모친의 배가 오래도록 굶주린 줄을 생각이나 하겠습니까?

지각이 난 뒤에 갑자기 부친을 여의고 오직 모친만을 의지하여 그 애써 기른 정에 보답하고자 봉양의 도를 다해보려 하였습니다。다행하게도 천은(天恩)이 초야에까지 미쳐서 신의 형제가 요행히 과거에 급제하여 뒤를 이어 현(縣)의 수령이 되니 노모를 봉양해온지 十五년이 넘었습니다。하늘이 높고 땅이 넓은 것처럼 성은(聖恩)이 끝이 없습니다。웃음꽃을 피우면서 아들과 어미가 즐거워하니 기쁘게 병육(幷育)의 교화에 젖어들고、날마다 화봉(華封)의 축(祝)을 찬양하였습니다。그런데 불행히도 신의 형 경장(慶長)이 울산군수(蔚山郡守)로 있을 적에 표류하던 왜선(倭船) 한 척이 경내를 지나갔음에도 잡지 못하여 진영(陣營)에 충군(充軍)1되었습니다。게다가 신 또한 이곳으로 멀리 오게 되니 나이가 九○이 가까운 노모가 신을 따라 올 수가 없어 홀로 기한(饑寒)의 지경에 처하여 질병에 신음하게 되었습니다。모친의 나이를 따져보건대、여생이 그리 많이 남지 않았는데 보잘 것 없는 음식조차도 드시지 못하되 신은 홀로 한 입의 봉양을 누리게 됩니다。어버이에게 효도하는 도리를 모르는 자가 어찌 능히 임금에게 충성하는 의리를 다할 수 있겠습니까?

신은 지난해 겨울에 감사(監司)로 부터 말미를 얻어서 귀향하여 노모는 뵈었는데 노모는 나이 벌써 정신이 없을 정도로 들어 어리숙하기가 어린아이와 같았습니다。신을 보고 등을 어루만지며 말씀하기를、「네 형은 어찌해서 나를 데려가지 않는게냐? 내가 죽기 전에 다시 한번 너희들의 관직의 봉양을 받아보고 싶구나!」 하였습니다。신은 임시변통으로 「알았습니다。알았습니다!」라고 답하고서 눈물을 머금고 물러 나왔습니다。신의 생각으로는 이러한 자식된 자의 절박한 지정(至情)을 가지고 위로 효성으로서 나라를 다스리시는 성상의 밝으신 귀에 하소연하고、아래로 모자의 지극히 간절한 정을 온전하게 지킴으로써 모친의 여생을 편안케 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때마침 국운(國運)이 불행한 때를 만나 변방에 우환거리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성지(城池)를 보수하고、거마(車馬)를 선발하며 군졸을 훈련시키고 기계(器械)를 정비하는데 바빠서 겨를이 없는 시기이오니、신하된 자가 사적인 문제를 고할 때가 아닙니다。그래서 사적인 정을 누르고 마음속의 생각을 참으면서 지금에까지 이르렀습니다。서늘한 가

을도 이제 끝에 다다라 변방의 경보도 점차 잠잠 해지고 있습니다만 노모의 쇠약함이 날로 심해지고 있고 신의 모친을 사모하는 정은 시간이 갈수록 쌓여만 갑니다。비린내 나는 고기를 보면 모친의 입이 생각나서 차마 젓가락을 들지 못하고、여린 것을 보면 모친의 이가 생각나서 차마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대저 이러한 정은 윗사람이나 아랫사람이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하물며 「어버이 나이가 七〇이면 三백리밖의 외직(外職)에 서용(敍用)하지 않는다。」한 규정이 나라의 법전에 실려 있으니 어떠하겠습니까? 이 조종(祖宗)의 법은 인정을 따르고 천리(天理)를 참작해서 만든 것으로서 온갖 것에 통달하여 잘못이 없는 것입니다。

엎드려 바라옵건대、성상께서 자애로서 정성스런 진술을 살펴보시고 특별히 효성으로써 백성을 다스리는 가르침을 베풀어 주시니 신의 직책을 봐주도록 명해서 신으로 하여금 노모를 봉양하도록 해주시기를 원하옵니다。그렇게 하신다면 필부필부(匹夫匹婦)가 스스로 효도를 다할 뿐만 아니라、인(仁)에 흥기되는 교화의 정치가 이로부터 더욱 넓어질 것입니다。(부모의 은혜에 보답하려는) 까마귀 새와 같은 미미한 정성을 상왕께 아뢰오니 신도 직무에서 도망하려는 죄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하오나 신하와 군주의 관계는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와 같아서 질병과 고통을 슬하(膝下)에 호소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그러한 까닭에 감히 앞뒤를 생각하지 않고 절박한 사정을 아뢰옵니다。

註:1。죄지은 사람을 군대에 복역시키는 것

列聖宸章

열성 신장

宣廟傳敎

선 묘 전 교

癸巳正月時慶尙監司金誠一狀聞于朝曰今此晋州之捷莫非崔慶會外援之力

敎曰嶺南右界湖南一道迄今保全亦莫非此人之功也

拜晋州兵使時

열성조(列聖朝)에서 내린 글

선조(宣祖)의 전교(계사「一五九三」년 정월「김성일(金誠一)」이 장계(狀啓)를 올려 아뢰기를、「이번 진주성 싸움에서 이긴 것은 모두 최경회가 응원한 공입니다」 하였다。 이때 경상감사 조정에

전교하시기를

「영남 우계(右界)와 호남지방이 지금까지 보전된 것은 모두 이 최경회의 공이다」(진주병사를 임명할 때 내린 것이다)

宣廟傳敎

선 묘 전 교

癸巳八月時 天將吳宗道操文之曰崔公倭奴夙昔之所忌憚也由是倭奴以重兵歷之圍之數重烏鵲飛不能渡必欲得公後已云云

敎曰天將稱美倭奴忌憚可謂名動三國矣

贈吏曹判書時

선조(宣廟)의 전교 계사년 八월 이때 명나라 장수 오종도(吳宗道)가 제문을 지어 제사하기를

「최공은 왜적들이 예전부터 무서워하였다。 그래서 많은 군사를 데리고 와 여러 겹으로 포위하여 까마귀나 까치도 헤어나지 못하게 하였으니 이는 반드시 공을 잡고 말겠다는 속셈이었다。」 하였다。

전교하시기를 「명나라 장수가 칭찬하고 왜적이 무서워하였으니 가위 이름이 세 나라에 떨친 것이다」(이조판서를 추증할 때 내린 것이다)

宣廟賜祭文 萬曆甲午 선묘사제문

國王遣禮曹佐郎臣楊士衡諭祭于卒兵使崔慶會之靈曰惟靈降自南 嶽克生東方應時抱材渾世含光白首枳棘始予何識蒼松歲寒乃徵今日嗚呼國事尚忍更言方賊猖獗予遭播遷間關奉天敵愾誰倚寂寞江 淮保障無寄歷十一代環三百城泯泯士氣蔑蔑義聲幸賴湖南天命周 楨文武如卿一代不數初無職守與義爲偶不因尺寸應者如響兵以義名師以直壯按節嶠南兇賊遁跡蹴迫星山驕酋褫魄勳克在汝賞未孚 功登壇一拜豈云褒崇專閫千里用畀鎭鑰那知殘孽尚肆狡逆環攻四 隅勢急三匝數月睢陽援絶蜉蟻人謀奈何獸角終圮天之亡我卿豈偸 生范范石崖俯接孤城忠軀所隕峻節高矗一死雖榮長痛何洩事聞以 來宵旰靡寧亟加贈秩貴卿忠貞遠具時差致予哀誠使卿至此無非予 故予實慘怛予尚奚報秋原欲蕪魂魄底處巡遠不孤死亦有侶精忠所存壯氣靡謝山河可作厲鬼當化此賊未滅靈豈瞑目茲宣悲告式佇來格

선조(宣祖)께서 내린 제문(祭文) (만력 갑오년 : 一五九四)

국왕(國王)이 예조좌랑(禮曹佐郎) 양사형(楊士衡)을 보내 죽은 병사(兵使) 최경회의 영혼을 제사하노라。

영령(英靈)께서는 남악(南嶽)의 정기를 타고 우리나라에 태어나셨네。 시운(時運)에 맞는 재주를 가졌지만 어지러운 세상에 빛을 감추고 고생하며 늙었도다。 처음에야 내가 어찌 그 재주 알았으랴。 푸른 소나무가 추위를 이기 듯한 충성 오늘에야 드러났도다。 아! 어려운 나라 일을 지금 다시 말하고 싶지 않지만 날뛰는 왜적 막을 길 없어 임금인 나까지 피난 떠났네。 의주에 이르러 나의 분한 마음 풀어줄 사람 누구였나。 적막한 강회(江淮)를 지킬 사람 없어 역대 열 한분1 임금이 물려준 나라요、三백 개의 성(城)을 가진 나라의 사기(士氣)와 의로움이 꺼져 버린 듯 없었네。 다행이 호남지방에 하늘이 기둥감을 내렸으니 경(卿)은 문무(文武)를 겸비한 당세에 드문 인재였네。 처음에는 관직도 없이 의병을 일으켜 아무 가진 것 없어도 많은 사람이 호응하였네。

의병이라 부른 군사 장하기도 하였다. 경상우병사되자 사나운 왜적 도망하고 성산(星山)으로 쫓아가니 교만하던 왜적의 괴수 넋을 잃었네. 그대가 세운 크나큰 공로에 비해 포상이 너무 작고 장수된 후 한번 내린 벼슬을 어찌 포상이라 하겠는가? 천리를 지킬 병권(兵權) 맡기었는데 어찌 뜻하였으랴. 남아있던 왜적들이 마지막 발악을 하여 사방으로 공격하고 세 겹으로 포위했네. 몇 달 동안 진주성에는 후원군조차 끊어지니 사람의 지혜로 어찌 할 것인가. 뿔 없는 짐승의 형세였다. 하늘이 임금인 나를 망하게 하는 터에 그대가 어찌 살기를 바랐으랴. 높은 바위 절벽에 의지하고 있는 진주성은 바로 충성스런 그대 떨어져 높은 충절을 세운 곳이네. 그대 한번 죽는 것은 영광스럽지만 나의 이 끝없는 슬픔은 어찌할 것인가 그대 죽었다는 소식 들은 이후로 밤낮으로 마음이 편치 않았다. 그래서 벼슬을 추증하여 그대의 충성 빛내주고 멀리 제수(祭需) 장만하여 슬픈 내 마음 달래노라. 그대가 죽은 것 모두 나의 탓이라 생각하니 슬프구나. 내 무엇으로 보답하랴. 가을 맞은 그대 무덤의 풀 시들어 가는데 그대의 넋은 어디를 헤매는가. 장순(張巡)과 허원(許遠)이 외롭지 않으려고 죽어서도 짝을 얻었도다. 충성심 있는 곳에 장한 기운 떨어졌으니 산하(山河)도 되고 여귀(厲鬼)도 되어서 이 왜적들 다 무찌르지 못하면 영령인들 어찌 눈을 감으랴. 이에 슬픈 내 마음 전하노니 영령은 이르러 흠향하라.

註 : 1. 이조(李朝)의 태(太)、정(定)、태(太)、세(世)、문(文)、세(世)、예(睿)、성(成)、중(中)、인(仁)、명(明)의 十一代王。여기서 단종(端宗)은 후일(後日)에 추복(追復)됐고 연산(燕山)은 폐조(廢朝)라서 뺀 것。

王世子賜祭文 年月 上同

왕세자사제문

男兒死耳愍雄圖之未伸忠義凜然想英靈之如在有懷惟烈非慟而誰惟靈文武之才忠孝所性三年血泣共稱子羔之善居一朝登壇衆推元規之宿望人皆棄甲而瓦解卿獨興疾而星馳全保障於江淮作聲勢於湖嶺中興之功第一佇殲賊之可期國士之良無雙庶撥亂之有賴逮晋陽之圍急奈賊勢之日添不與讐戴天肯旋南下之踵願爲鬼殺賊忍聞西向之辭事而至斯天何奪我士爲知己者死固無憾於當時國必得人而昌詎不慟於今日屬余行之聿至思若人而不忘茲命有司用陳薄奠死者可作慨九原之誰歸魂其有知倘一簋之式享

왕세자(王世子)가 내린 제문(祭文)

(임금과 같은 해 같은 날에 내린 것이다)

남아(男兒)가 큰 뜻을 펴지 못하고 죽는 것이 슬프도다. 그러나 충의(忠義)가 늠름하였으니 영령께서 와 계신듯하여 감회가 깊네. 생각할수록 장하였으니 그대를 위해 통곡하지 않고 누구를 위해 통곡하겠는가? 영령께서는 문무를

겸비한 재주와 천성에서 우러나온 충효를 지녔었다。부모상에 삼년 동안을 피눈물 흘리니 모두가 자고(子羔)2처럼 상을 잘 치른다고 칭찬하였으며 하루 아침사이에 장수가 되니 대중들이 원규(元規)1의 덕망(德望)처럼 우러러 보았네。다른 사람들은 모두 무기 버리고 도망하였는데 그대 혼자만은 바쁘게 싸웠도다。그래서 한쪽 지방을 온전하게 지키고 호남과 영남에서 기세를 떨쳐 나라 수복(收復)하는 일등 공로 이루었네。더욱 적을 무찌르기 기대하여 비교할 만한 사람 없어 난리를 평정하기 믿었었네。진주를 포위한 적의 형세 날로 더하여 어쩔 수 없었네。원수와는 같은 하늘 밑에서 살지 않는 법이니 어찌 남쪽으로 한 발짝이라도 물러서겠는가? 귀신이 되어서라도 적을 죽이겠다고 임금 향해 절하고 죽었다는 말 들었도다。이 지경에 이르렀는데 하늘이여 왜 나의 선비를 빼앗아 갔는가? 자신을 알아주는 임금을 위해 죽는 것은 마땅하지만 나라는 반드시 훌륭한 사람이 있어야 번창하는 법 어찌 오늘날 슬퍼하지 않으랴。내가 돌아올 때 이 사람을 생각하고 잊지 못하여 이에 담당관을 보내 변변찮은 제사를 드리게 하노라。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면 누가 황천(黃泉)에 가겠는가。혼령이 아는 것이 있다면 이 한 그릇 음식 흠향하소서。아! 슬프외다。

註：1。자고(子羔)：공자(孔子)의 제자(弟子)。거상삼년(居喪三年)에 읍혈(泣血)을 하고 이빨을 나타내지 아니하니 군자(君子)가 거상(居喪)을 잘 한다 했음。
2。원규(元規)：晋의 대장(大將)으로 위세(威勢)를 부렸음。

肅廟賜祭文
숙묘사제문

一片晋陽雙廟對屹聳矣忠愍殞身亦烈儼其位序列宿是應千載想像孰不添膺粵在龍蛇島夷猖獗湖嶺響震靡不摧覆晋獨截然若破抗流賊所蓄憾兩歲一州歸師環攻蜂屯蟻聚烈烈倡義會兩節度白袍從事以孝以忠有來如雲義胆收同地有必爭人能捨命非謀或忒奈天不靖雲梯百道賊及乘城斂我豪英與堞同平或丸或刃視死如歸或赴于水腋挾青衣北面慟哭義烈愈彰列壁坐觀獨何心腸城雖覆矣氣則不泯 化厲殲賊以洩餘憤亦作山河以壯關防遄掃凶氛寔賴陰相維此冤欝貫徹古今滔滔大江與之共深建宇妥靈崇報靡替歲月寢遙誠禮或怠曠焉相感恍其如昨命官齋沐替此洞酌使臣本道都事金廷潤大祝兼典祀召村察訪鄭壽崗齋郎祝史沙斤察訪任煥

숙종(肅宗)이 내린 제문(祭文)

이 진주(晋州) 한 곳에 두 사당이 나란히 서니 장하다 충의공과 충민공이네 이여 장하게 죽었도다。엄숙한 차례는 열성(烈星)도 응할 것이네。천년 뒤에 상상해도 누군들 가슴 아프리。지난 임진 계사년에 왜적이 창궐했네。호남、영남이

진동했는데 오직 진주성만 우뚝해서 물속의 돌기둥인 듯。 그래서 적의 유감사서 두 해에 이 한 고을을 돌아가던 왜적들이 치니 벌과 개미떼처럼 달라붙었네。열렬한 창의사와 두 절도사가 백의(白衣)로 종군하고 충효로운 선비들이 구름처럼 몰려와 충의를 함께 했네。빼앗길 수 없는 땅이어서 사람들이 목숨 바쳤네。계책은 잘못 없었으나 하늘이 돕지 않아 백 길 되는 운제(雲梯)로 적들이 성으로 기어오르니 죽은 우리의 호걸 성을 가득 채웠네。어떤 이는 칼 날 앞에 어떤 이는 총탄 앞에 죽는 것을 예사로 여겨 더러는 물속으로 뛰어들며 청의(靑衣)를 끼고 어떤 이는 북쪽 향해 통곡했으니 의열이 더욱 장하도다。다른 여러 성에서는 구경만 했다 하니 무슨 심보인가? 성은 비록 함락되었으나 기개는 사라지지 않아 귀신되어 적을 죽여 분한 마음 풀었네。아니면 산이 되고 물이 되어 변방을 튼튼히 하였으리。흉악한 기운 재빨리 소탕한 것은 실로 이분들의 도움에 힘입음이네。그러나 이 원통하고 억울함은 고금에 없어서 유유히 흐르는 저 큰 강물처럼 깊으리。사당지어 영혼 모시고 높은 공훈 보답 변함없더니 세월이 멀어지자 정성스런 예(禮) 태만하게 되었네。멀리 생각하면 어제 일과 같기에 관원을 시켜 목욕재계하고 나를 대신하여 박주 한 잔 올리노라。

이때의 사신(使臣)은 본도의 도사(都事) 김정윤(金廷潤)이었으며, 대축(大祝) 겸 전사(典祀)는 소촌찰방(召村察訪) 정수강(鄭壽崗)이었으며, 재랑축사(齋郎祝史)는 사근찰방(沙斤察訪) 임환(任煥)이었다。

英廟賜祭文 丁卯得印 後致祭

영묘사제문

知製敎 洪啓禧 撰

惟靈龍蛇之難八域蹂躪 毬吞豕食 國步日窘惟卿數子竭賊于晋號召忠義奮勇行陣蔽遮江淮張許是準死守九日無卻有進臣力已竭臣職自盡天愁日慘全城火燼抱印廉丹握槊先軫南江渺瀰 鼇石嶮嶙凜 凜義烈千載霆震間嘗仵祭徃事增愍適茲州氓波心獲印嶺右節度篆章可認百五十年神秘鬼吝釰出豊城光怪騰迅物有顯晦毅跡難泯帥臣馳聞事可徵信摩挲愛玩烈士攸殉髣髴前席手携以覲魂兮不死詩語乃胎萬曆二字我涕如隕匣而銘之藏于舊鎭復 命錄後勿替其引仍想當時後先立懂視死如歸匪丸則刃懷忠念寃一倍傷悶迨於崇報予其可忍遣官致酹我思墨醇感通有理歆此觴

賜祭官禮曹佐郎安致宅 大祝晋州牧使金相重 執禮三嘉縣監徐敏修

영조(英祖)께서 내린 제문(祭文)

정묘년(一七四七) 인장을 얻은 후에 제사지낸 것이다。

지제교(知製敎) 홍계희(洪啓禧) 지음。

왕(王)은 말하노라。임진왜란 때 팔도(八道)가 적에게 짓밟혀 사나운 적의 기세에 나라가 날로 위태롭게 되었다。그

때 그대들 몇몇 사람이 진주에서 적을 막았도다。충성과 의리 있는 사람을 불러 모아 용감하게 행군했네。영남、호남 지킨 것 장순(張巡)과 허원(許遠)에게 비교할 만하네。죽음으로써 九일 동안 성을 지켰으나 적 물리치지 못하고 신하(臣下)들 힘 빠져 죽음에 이르렀네。하늘도 슬퍼하고 해도 빛을 잃었고 성(城)은 온통 불길에 휩싸였네。그대는 관인(官印)을 끌어안고 죽은 염단(廉丹)이요 창을 쥔 채 죽은 선진(先軫)이로다。남강 물 유유하게 흐르고 촉석루 우뚝하게 높은데 그대의 늠름한 의열(義烈)은 영원히 우뢰처럼 전하리。일찍이 사람 보내 제사지내니 슬픔 감회 일었는데 때마침 이곳의 백성이 강 속에서 관인을 찾아내었네。「영남우절도사(嶺南右節度使)」라고 새긴 전자(篆字) 분명하니 一백 五○년 동안 귀신이 간직하여 아꼈나 보다。보검(寶劒)이 풍성(豊城)에서 나오니 광채가 높이 뻗쳤네。물건이란 드러나고 감추어진 때가 있지만 그대의 훌륭한 행적이야 감추기 어렵네。그 곳 부사(府使)가 관인을 찾아 급히 아뢴 일이니 믿을 만하여 사랑하여 어루만지며 살펴보니 순절한 열사(烈士)가 내 앞에 와 서로 손을 잡고 보는 듯 하여라。「영혼은 죽지 않는다」 하는 그대의 시(詩)와 일치하는구나。만력(萬曆)이란 두 글자 보고 나는 눈물이 쏟아져도 장갑을 만들어 명(銘)을 지어 진주 병영에다 간직하게 하고 또 그대의 후손들을 기록하여 영원히 등용(登用)하게 하였도다。당시 일 생각하니 모두가 죽기로 작정하고 죽는 것 두려워하지 않아 탄환이 아니면 칼에 맞아 쓰러져 충성심과 원통한 마음 품어 더욱 슬프구나。높이 포상하고 공로를 갚는데 내어찌 인색하랴。관원을 보내 제사를 지내니 내 마음 진정할 길 없네。느낀 바가 있거든 영혼은 와서 내 잔을 흠향하라。

사제관(賜祭官)은 예조좌랑(禮曹佐郎) 안치택(安致宅)이요、대축(大祝)은 진주목사(晋州牧使) 김상중(金相重) 집례(執禮)는 삼가현감(三嘉縣監) 서민수(徐敏修)였다。

御覽古印朝報 丁卯正月 二十六日

어람 고인 조보

上御歡慶殿藥房入診時都提調趙顯命曰昨於賓廳見晋州兵使金潤 狀啓則壬辰之亂兵使崔慶會殉節抱印投江流傳的實而印久不得矣今春晋州官奴探艾者(黃貴同)於南江淺灘中見有青瑩之氣搜得而出故封進云矣 上曰狀啓予已覽之矣上番兼春秋出外持其印以入也兼春秋安致宅承 命出外持其印以入篆文深處三綠滌不盡矣 上曰上之時日向昏上命中官開房戶親還坐向明詳覺焉 敎曰此印幾年沉水而今春得來可異又可貴也忠臣烈之氣怳若留帶印面而印上萬曆年號尤可愴感也又 敎曰表誌鑄印年號古之事着實也仍 命都承旨洪象漢書傳曰覽狀聞而心有興懷今聞大臣陳達取納舊印宛若其人之獻愴感愈深而又覽印上年月一倍此心其令禮曹遣官致祭於彰烈祠祭文其令詞臣措辭撰進其子孫令該曹即爲調用此印令該

曹精造印匣禮官下去時傳授帥臣都提調曰 聖意欲使帥臣用此而可貴古件易刓於行用且有萬曆年號帥臣用之何如矣 上曰然則使藏于彰烈祠乎都承旨曰閫帥古印置之學宮何如矣 上曰然則使傳于帥臣藏置本營好矣仍 命連書藏置本營一以傳古物一以垂忠烈 上曰承旨書之 御製古印銘書訖使讀之讀訖 上曰印匣以銅鑄之銘則以銀塡字也 命書小序 上曰此印亦以兵使得進可貴也宜書其姓名仍 命連書六日而御題載之別篇之意傳于副學也

임금께서 고인(古印)을 열람하신 조보(朝報)
(정묘년: 一七四七년 丘월二十六일)

임금께서 환경전(歡慶殿)에 나오시니 약방이 진찰하려 들어갔는데 도제조(都提調) 조현명(趙顯命)이 아뢰기를、

「어제 빈청(賓廳)에서 진주병사(晋州兵使) 김윤(金潤)이 올린 장계(狀啓)를 보았습니다。내용은 임진왜란때 병사(兵使) 최경회가 순절할 때 안고 강물에 뛰어든 도장에 관한 것이었습니다。그런 사실이 확실한데도 오랫동안 발견되지 않았는데 올봄에 진주 병영의 관노(官奴)인 황귀동(黃貴同)이 쑥을 캐다가 남강 얕은 물속에서 푸른빛이 나는 물건을 보고는 꺼내었기 때문에 봉하여 올린다고 하였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장계는 나도 이미 보았다。당직(當直) 겸춘추(兼春秋)는 밖으로 나가 그 인장을 가지고 들어오라」

하였다。겸춘추 안치택이 임금의 명을 받고 밖으로 나가 그 인장을 가지고 들어왔는데 전자(篆字) 깊은 곳 세 군데에 녹이 슨 것을 다 씻어내지 않고 있었다。상께서 「올리라」 하셨는데 이 때에 날이 저물어서 상이 중관(中官)을 시켜 방문을 열게 하시고 몸소 둘러 앉아 밝은 곳에서 자세히 살펴보시고는 전교하시기를、

「이 인장은 몇 해 동안을 물속에 잠겨 있다가 금년 봄에야 찾아내었으니 기이하고도 보배스럽다。충신의 뜨거운 정기(精氣)가 인장에 서려 있는데다가 또 인장위에는 만력(萬曆)이라는 연호(年號)가 새겨져 있어 더욱 감회가 깊다」

하시고는 또 전교하시기를、「겉에 기록된 주인(鑄印)의 연호(年號)에서 옛 사람의 착실함을 보겠도다」 하고는 도승지(都承旨) 홍상한(洪象漢)을 시켜 전교(傳敎)를 쓰게 하였는데 다음과 같은 내용이었다。

「장계를 보니 느낀 바가 많다。이제 대신들의 말을 듣고 그 인장을 가져다가 보니 최경회가 가지고 와 바치는 것 같아 감회가 깊다。또 인장위에 새겨진 연월일(年月日)을 보니 슬픈 마음이 배나 더하다。예조(禮曹)를 보내 창 열사(彰烈祠)에 제사를 지내되 그 제문은 글을 잘 짓는 신하에게 짓도록 하라。

또 최경회의 자손을 담당부서에서 찾아 벼슬을 주고 이
도장은 담당부서에서 좋은 도장갑을 만들어 예관이 내려갈
때 진주의 수신(帥臣)에게 주도록 하라」
하였다。도제조(都提調)가 아뢰기를、
「성상의 뜻은 수신으로 하여금 이것을 쓰게 하시고자 하
시나 귀한 물건이 쓰다가 닳아질까 염려되오며 또 만력(萬
曆)이란 연호를 수신이 써도 괜찮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그렇다면 창렬사에 보관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매 도승지가 아뢰기를、
「장수의 고인(古印)이니 학궁(學宮、향교)에 두는 것이 어
떻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그렇다면 사신이 수신(帥臣)에게 전하여 본영(本營)에
두는 것이 좋겠다」
하고는 이미 쓰기를 명하면서
「본영에 두어 오래된 물건을 전하게 하는 한편 또 그 충
렬(忠烈)을 전하게 해야 한다」
하였다。그리고 상께서
「승지(承旨)가 쓰라」하시고는「어제고인명(御製古印銘)」
을 다 쓰자 읽고는 상이 이르기를
「인장의 갑(匣)은 구리를 녹여 만들고 명(銘)은 은(銀)으
로 골자를 메우라」
한 다음 소서(小序)도 쓰라 명하셨다。또 상이 이르시기를、
「이 도장을 병사(兵使)가 주워 올린 일 역시 희귀하다。마
땅히 그의 성명도 쓰라」
하시고 이어서 쓰라 명하시길、
「당직 겸춘추(兼春秋)는 호남사람인데 호남의 충신이 순
절할 때 안고 죽은 인장을 호남의 문관(文官)이 가지고 들
어온 것 역시 기이한 일이다」
하시매 도승지가 아뢰기를、
「세상에는 이처럼 우연히 일치되는 일도 있는 법입니다」
하였다。상이 이르기를、
「명(銘)과 서문 뒤의 연호는 황명(皇明) 기원(紀元)후 고
간지(古干支)와 중순(中旬)후 六일이라 쓰고 어제(御製)는
별도로 실으라는 뜻을 부제학(副提學)에게 전하라」
하였다。

御製古印銘
어제고인명

追憶迄歲百有餘年幸得南江篆猶宛然矗石義烈想像
愴焉命載嶺閫 垂萬世傳傳

임금이 지은 고인(古印)의 명(銘)

지난날 회상하니
백년 남짓 지났네。
다행이 남강 물속에서 찾으니
전각이 아직 뚜렷하네。
촉석루의 그 뜨거운 충성

생각만 해도 슬프구나.
영남 병영에 보관하여
영원히 전하게 하리.

御製古印小序
어제고인소서

覽嶺閫之狀聞大臣之達取看兵使　封進一古印其印何卽古忠臣崔慶會立節也抱而投江者也嗚呼壬辰之於今其將一百五十有六年豈意此印之得於南江獻于金扃古印復見於今日忠骨其猶葬於江中今覽此印若忠臣之手獻命錄用其孫猶有愴懷而此中又尤有追慕者印上年號乃是皇明萬曆也遙憶往歲顧今靑邱寔皇明再造之恩也特叙其事以寓匪風下泉之思仍命鐫印以樹義將烈士之忠云爾皇明崇禎紀元百二十年強圉單閼孟春丙辰題

임금이 고인(古印)을 두고 지은 소서(小序)

영남의 병사가 보낸 장계(狀啓)와 대신들이 아뢴 것을 듣고 그곳 병사(兵使)가 싸 보낸 오래된 인장을 보니 바로 옛날 충신 최경회가 순절하면서 끌어안고 강물에 빠진 인장이었다.

아! 임진왜란이 지금부터 一백五十六년이나 되었으니 어찌 이 인장을 남강(南江)에서 건져 대궐로 보내올 것을 상상이나 하였겠는가? 그 오래된 인장을 오늘날 다시 보니 충신의 뼈가 아직까지 강물에 묻혀 있었던 것이다。이제 이 인장을 보니 충신이 직접 와서 인장을 바치는 듯하도다。

충신의 자손에게 벼슬을 주도록 명령하고도 슬픔이 가시지 않고 더욱 추모(追慕)하는 마음이 이는 것은 도장위에 새겨진 만력(萬曆)이란 연호인데 이는 바로 명(明)나라 신종황제(神宗皇帝)의 연호이다。먼 옛날을 회상해 보니 우리나라는 실로 신종황제께서 다시 살려 준 것이다。

특히 그때의 사실을 기록하자니 명(明)나라가 망한 것이 더욱 슬프구나。이를 인하여 도장갑을 새겨 의로운 장수의 충렬(忠烈)을 기리노라。

황명(皇明) 숭정(崇禎) 기원(紀元) 백이십년 정묘(丁卯)년 맹춘(孟春) 병진(丙辰)일에 씀。

筵奏 英廟 丁卯
연주

右相　趙顯命

丁卯正月二十六日　上御歡慶殿都提調趙顯命奏曰昨於賓廳見晋州兵使金潤狀啓則壬辰之亂兵使崔慶會殉節抱印投江流傳的實而印久不得矣去十二月二十五日卽立春日也晋州營官奴採艾者黃貴同於南江淺灘中見有靑熒之氣後搜得而出故封進云矣云云

경연(經筵)에서 아뢴 말 영조(英祖) 정묘년(一七四七)

우의정(右議政) 조현명(趙顯明)

정묘년(一七四七) 정월 二十六일, 임금께서 환경전(歡慶殿)에 나오시니 도제조(都提調) 조현명이 아뢰기를,

「어제 빈청(賓廳)에서 진주병사(晋州兵使) 김윤(金潤)이 올린 장계(狀啓)를 보았습니다。내용은 임진왜란 때 병사(兵使) 최경회가 순절할 때 안고 강물에 뛰어든 도장에 관한 것이었습니다。그런 사실이 확실한 데도 오랫동안 발견되지 않았는데 지난 十二월 二十五일은 바로 입춘(立春)이었는데 진주 병영(兵營)의 관노(官奴) 황귀동(黃貴同)이 남강(南江)에서 쑥을 캐다가 얕은 여울에서 푸른색 물건이 있어 건져 보니 바로 최경회의 도장이므로 싸서 임금께 올려 보낸 것입니다。」

筵說 同日 연설

上曰狀啓予已覽之矣兼春秋安致宅承 命持印以入篆文深處三綠滌不盡矣 上曰此印幾年沉水而今春得來可異又可貴也忠臣烈烈之氣怳若留帶印面而印上 萬曆年號尤可愴感也仍 命都承旨洪象漢書傳曰覽狀聞而心有興感今聞大臣陳達取納舊印宛若其人之獻愴感愈深而又覽印上年月一倍此心其令禮官致祭於彰烈祠祭文其令詞臣措辭撰進其子孫令該曹即爲調用此印令該曹精造印匣禮官下去時傳授帥臣藏置本營一以傳古物一以垂忠烈

경연(經筵)에서 임금이 하신 말씀 (위와 같은 날이다)

임금께서 말씀하셨다。

「진주 병사가 올린 장계(狀啓)는 나도 이미 보았다。그래서 겸춘추(兼春秋) 안치택(安宅)이 내 명령을 받아 그 인장을 가지고 들어왔는데 전자(篆字)의 깊은 곳 세 군데는 아직 녹을 다 제거하지 못하였다。」

임금이 말씀하셨다。

「이 인장은 몇 해 동안을 물속에 잠겨 있다가 금년 봄에야 찾아내었으니 기이하고도 보배스럽다。충신의 뜨거운 정기(精氣)가 인장에 서려 있는데다가 또 인장 위에는 만력(萬曆)이라는 연호(年號)가 새겨져 있어 더욱 감회가 깊다。」

그리고는 도승지(都承旨) 홍상한(洪象漢)을 시켜 전교(傳敎)를 쓰게 하였는데 다음과 같은 내용이었다。

「장계를 보니 느낀 바가 많다。이제 대신들의 말을 듣고 그 인장을 가져다가 보니 최경회가 가지고 와 바치는 것 같아 감회가 깊다。또 인장위에 새겨진 연월일(年月日)을 보니 슬픈 마음이 배나 더하다。예관(禮官)을 보내 창렬사(彰烈祠)에 제사를 지내되 그 제문은 글을 잘 짓는 신하에게 짓도록 하라。

또 최경회의 자손을 담당부서에서 찾아 벼슬을 주고、이

도장은 담당 부서에서 좋은 도장갑을 만들어 예관이 내려 갈 때에 진주의 부사에게 주어 그곳 병영(兵營)에 보관하여 보물을 전하는 한편 그의 충열(忠烈)을 본받게 하라。」

請諡啓 英廟 庚午 청시계

領府事 金在魯

癸巳倭亂倡義使金千鎰慶尙兵使崔慶會忠淸兵使黃進皆殉節晋州朝家俱贈左贊成立廟同享而三人中崔之樹功立節尤爲卓然尙未擧易名之典此必曾有一體賜諡之成命而因子孫殘微尙未擧行到今後孫始欲請諡而 贈諡成命未能考出云盖崔慶會乃文官兵使而先正臣奇大升門人壬辰亂方居母喪墨縗起義師律嚴整所向皆捷 宣廟至以嶺南右界湖南一道之得全莫非此人之功爲 敎癸巳賊憤年前晋州之敗大悉兵來攻而我無外援崔慶會等合力同心以死固守城陷日北向四拜抱印投江而死今丁卯帥臣金潤得印於江中封進則自上親製銘褒愍之聖意至矣金千鎰黃進高從厚同妥一祠三人皆有諡而崔慶會獨無諡不但三人之靈似瑟縮未安 朝家褒忠尙節之道大爲不均實係欠典使之一體 贈諡何如 上曰依爲之因贈諡忠毅

시호(諡號)를 청하는 계(啓) (영조(英祖) 경오년(一七五〇))

영부사(領府事) 김재로(金在魯)

계사년의 왜란때 창의사(倡義使) 김천일과 경상병사(慶尙兵使) 최경회 및 충청병사(忠淸兵使) 황진은 모두 진주성 싸움에서 순절하였습니다。

그래서 나라에서 모두 좌찬성(左贊成)을 추증하고 사당을 세워 함께 제사를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 사람 가운데서도 유독 최경회가 세운 공로가 더욱 뛰어났는데도 아직까지 시호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반드시 전에 모두 함께 시호를 내려주라는 명령이 있었을 터인데 그의 자손이 한미하여 아직껏 시행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오늘에 이르러서야 그의 자손들이 비로소 시호를 받고자 하는데 시호를 내리라는 명이 옛날에 있었는지 고찰(考察)할 수가 없다 합니다。

최경회는 문관(文官)이었는데 후에 병사(兵使)가 되었으며 훌륭한 학자(學者)인 기대승(奇大升)의 제자입니다。

임진왜란이 일어날 때 어머니 상을 당하여 복을 입고 있다가 검은 상복차림으로 의병을 일으켜 군대의 기율을 엄격하게 하여 싸울 때마다 모두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선조(宣祖)께서 「영남지방 한쪽과 호남지방이 완전하게 보존된 것은 모두 최경회의 공로이다」라고 칭찬하는 전교를 내리셨던 것입니다。

계사년、왜적이 지난해에 진주성을 공격하다가 패배한 것

을 분하게 여겨 대대적인 병력으로 진주성을 다시 공격해 왔는데 아군은 응원병 조차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최경회 등은 마음을 합쳐 죽음으로써 성을 지켰습니다. 죽던 날에는 임금이 계신 북쪽을 향해 네 번 절하고는 관인(官印)을 안고 강물로 뛰어 들어 죽고 말았습니다.

지난 정묘년에 진주 수령 김윤(金潤)이 남강 속에서 그 관인을 찾아내어 왕께 바치자 성상(聖上)께서는 몸소 명(銘)을 지어 충성을 기리는 뜻을 하셨으니 매우 훌륭한 일이었습니다.

김천일(金千鎰)、황진(黃進)、고종후(高從厚)와 같은 사당에서 제사를 받고 있는데 세 사람은 모두 시호가 있으나 최경회 만이 시호가 없습니다.

그러니 세 사람의 영혼도 반드시 불안하게 여길 것이며 또 나라에서 절의(節義)를 포상하는 도리로 보아도 크게 불공평한 일이어서 법이 잘못 시행된 것입니다.

그러하오니 모두 시호를 내리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아뢰자 임금이 그대로 윤허(允許)하여 「충의(忠毅)」란 시호를 내렸다.

純廟賜祭文 御製四回 甲癸巳

순묘사제문

惟靈 穆陵有臣曰惟忠毅家傳道義才全文武抱茲利器韜不自售晩登于朝捷遑州郡運值陽九島夷茲蠢南方繹騷八域震駭 龍馭西狩瞻望揮涕墨縗登壇倡義從權勇如育貴生死向前左躪右轢錦賊先逃一箭殪酋奪畫與刀以寡敵衆所向披靡毅乃甲冑峙乃儲胥靡卿禦侮兩湖其魚惟歲在己捲士重來豕摘益突毬螯莫摧重圍孤城危如一髮彼恇者唉有肝如鐵天實不助匪計之失報以一死同我三士 行朝貤恩天將致誄義巖在彼侍娥亦烈魂兮不爽波兮不渴歲甲重回盡焉興感仵官酹墠靈庶其歆 使臣右兵使安光贊典祀大祝慈仁縣監宋守謙齋郎河東府使任泰錫祝史司儀晋州牧使宋啓洙都預差昆陽郡守朴民煥

순조(純祖)께서 내린 제문 (四回甲의 癸巳 : 一八三三)

영령이시어! 선조대왕때에 훌륭한 신하가 있었으니 바로 충의공(忠毅公)이로다。집안은 도의로 전하였고 재주는 문무를 겸하였네。큰 재능 지녔으나 쓰이지 않더니 늦게야 조정에 나와 고을을 다스렸네。재앙의 운수 만나 섬 오랑캐가 꿈틀대어 남쪽이 소란하고 팔도가 놀랐었네。어가(御駕)가 서쪽으로 피난감에 바라보며 눈물지었네。검은 상복입고 단상에 올라 권도(權道)로 의병 일으켰네。용맹은 분육(賁育)1같아 죽음 무릅쓰고 진격하여 좌충우돌하니 금산의 적이 먼저 도망하고 한 화살에 적의 추장 죽이고 그림과 칼 빼앗았네。적은 군사로 많은 적군 쳐부수어 간 곳마다 휩쓸었네。무기를 단속하고 군량을 저축하여 경이 만약 적을 막지 않았다면 호남、호서는 물고기 밥이 되었으리。지난 계사년에 대지(大地)를 밟듯이 다시 왜적오니 멧돼지의 날뛰과

독사의 독을 꺾지 못하여 달무리 겹으로 낀 외로운 성이 위기일발이었네。비정한 자는 숨을 죽였지만 경만은 철석간장이었네。하늘이 돕지 않았지 계책은 잘못 없었네。죽음으로써 나라 은혜 갚으니 우리 세 장사가 함께 했도다。행조(行朝)에서는 은전(恩典) 내리고 명나라 장수가 만사(輓詞)를 지었네。거기 있는 의암(義巖)에서는 부실(副室) 또한 의로왔네。그 영혼 변함 없으리。물결이 마르지 않는 한 옛 갑자(甲子)가 다시 돌아오니 슬프도다。내 감회여! 관원 보내 단에 술 드리오니 영혼이여 흠향하소서。

(이때의 사신〈使臣〉은 우병사〈右兵使〉안광찬〈安光贊〉이요、전사〈典祀〉와 대축〈大祝〉은 자인현감〈慈仁縣監〉송수겸〈宋守謙〉이었으며、재랑〈齋郎〉은 하동부사〈河東府使〉임태석〈任泰錫〉이며、축사〈祝史〉와 사의〈司儀〉는 진주목사 송계수〈宋啓洙〉、도예차〈都預差〉는 곤양군수〈昆陽郡守〉박민환〈朴民煥〉이었다。)

註：1。분육(賁育)：주(奏)의 용사(勇士)

晋州南江得印 啓

진주 남강 득인 계

兵使 金潤

去十二月二十一日臣營官奴貴同奴得孫等所告內矣徒等當日出往南江邊採艾之際偶見岸下江水則水色清淺之中有一物非石非木所見異常故拯出見之則乃是印信極甚驚惋即爲來納印信看審則印面刻以慶尙右道兵馬節度使印而篆畫完如且以楷字印背一面刻以慶尙右兵使印一邊刻以萬曆十年三月日造一邊刻以來四月十一日爲始行用字畫亦皆不刓此旣萬曆十年壬午所鑄之印而矗石山城之倭變見陷在於萬曆二十一年癸巳則計其年記必是癸巳城陷時殉難兵使臣崔慶會同抱投江之印節義古蹟今於一百五十餘年之後始乃拯得係是異事以綠由馳 啓拯得印信各別監封入盛櫃子貝鎖金臣營軍官出身嚴興周準授上送于該曹

진주의 남강(南江)에서 인(印)을 얻어 아뢰는 글

병사(兵使) 김윤(金潤)

지난 十二월 二十一일에 신의 영(營)의 관노(官奴) 귀동(貴同)과 종인 득손(得孫) 등이 아뢰기를、

「저희들이 그날 남강 가에서 쑥을 캐고 있었는데 우연히 언덕 아래 강물을 보았더니 얕고 맑은 물속에 돌도 아니고 나무도 아닌 어떤 물건이 이상하게 보였습니다。그래서 꺼내어 보았더니 이는 인신(印信)이므로 깜짝 놀라 즉시 와서 바치는 바입니다」 하였습니다。그래서 인신을 살펴보니 인장의 면에는 「경상우도병마절도사인(慶尙右道兵馬

節度使印)」이라 새겼는데 전각(篆刻)한 글씨가 완연하였습니다。또 해자(楷字)로 인의 뒷면에다가 「경상우병사인」이라 새겼고、한쪽 가장자리에는 「만력十년三월 일 만듦」이라 새겼고、또 한 편에는 「오는 四월十一일부터 사용한다」라 하였는데 자획이 역시 모두 이그러지지 않았습니다。이 인장이 이미 만력 十년(一五八二) 임오(壬午)에 주조하였다면 촉석산성(矗石山城)이 왜란 때 함락된 것이 만력 二十一년 계사(一五九三)이니 그 햇수를 계산하여 보면 반드시 계사년 진주성이 함락될 때 순절한 병사 최경회가 함께 끌어안고 강물에 빠진 도장으로 절의(節義)의 고적(古蹟)인 것입니다。이제 一백 五○여년 후에야 비로소 건져졌으니 이는 이상한 일이므로 연유하여 치계(馳啓)하오며 건진 인신은 각별히 봉하여 상자에 넣어 자물쇠로 잠그고 신의 진영 군관 출신인 엄흥주(嚴興周)에게 주어 해당 조(曹)로 올려 보냅니다。

請諡請職疏 全羅道生員李萬英上疏請日休堂諡竹溪公職而乙巳九月入啓

청시청직소

시호(諡號)와 증직(贈職)을 청하는 소(疏) (전라도 생원 이만영(李萬英)이 상소하여 일휴당의 시호와 죽계공의 증직을 청하였는데 을사년(英祖朝元年一七二五) 九월에 입계(入啓)하였음)

비답(批答)하였다。

「상소문을 보고 잘 알았다。이제 그대들의 상소를 보니 두 신하의 늠름한 충절이 살아 있는 듯하다。해당 조(曹)로 하여금 품의하여 처리하겠다」

六義疏覆啓 正廟庚申請褒忠毅公兄弟子侄

육의소복계

左議政 徐龍輔

崇德象賢固 聖朝美事宣額配侑率皆鄭重難愼未嘗以一疏輒許事體所關 恩禮所在愈鄭重而愈美愈難愼而愈光姑侯之何如

육의소(六義疏) 복계(覆啓) (정조(正祖)경신년(一八○○)에 충의공의 형제 자질을 포상하기를 청하였었다)

좌의정(左議政) 서용보(徐龍輔)

덕(德)을 높이고 어진 이를 드러내어줌은 참으로 성조(聖朝)의 아름다운 일입니다。사액(賜額)하고 배향(配享)하는 일은 모두 정중하고 어려운 일이니만큼 일찍이 한 장의 상소로 허락한 바가 없습니다。이는 일의 체모에 관계되고 은례(恩禮)를 베푸는 것이니 정중하게 할수록 더욱 아름답고

어렵게 할수록 더욱 빛나는 법이니 우선 기다리게 함이 어떻겠습니까?

請不祧 筵啓 純廟癸巳六月二十日 청부조 연계

大臣備局堂上引見入 侍時行禮曹判書趙 所啓令春晉陽致侑之擧 特出於舊甲興感之盛意則凡在瞻聆孰不欽嘆臣因此而窃有區區愚見敢此仰達矣 晉陽之役卽倭變中最酷烈者而伊時殉義諸臣又皆炳朗卓絶可與日星爭光以其最著者言之卽故文烈公臣金千鎰忠毅公臣崔慶會武愍公臣黃進是也其精忠大節昭載 國乘而金千鎰黃進則已於 先朝幷蒙不祧之 恩惟崔慶會尙漏並擧之典其在 朝家崇報之義誠爲欠缺而且當是年是月若不偶然者一依金千鎰黃進已例 特許崔慶會祠版不祧之命互合事宜 下詢大臣處之何如 上曰大臣之意何如領議政李曰以一體之三忠而崇報之或有異同實爲闕典臣亦以禮判所奏爲允於公議而是年是月適符舊甲誠不偶然矣 上曰依爲之事道光十三年六月二十一日關全羅道觀察使

부조묘(不祧廟)를 청하는 경연에서의 계(啓)

(순조(純祖) 계사년(一八三三) 六월二十일)

※不祧란 四世가 지난 廟主를 埋安하지 않고 別廟에 永久히 祭享함。

대신(大臣)과 비국당상(備局堂上)1을 인견하시게 되어 입시(入侍)하였을 때에 행예조판서(行禮曹判書) 조모(趙某)가 아뢰기를 「올봄에 진주에 제사를 지내준 것은 구갑(舊甲)을 당하여 감회가 일어난 성대한 뜻에서 나온 것이므로 보고 듣는 사람 그 누구인들 감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신은 이를 인하여 유독 구구한 어리석은 생각이 있으므로 감히 이 자리에서 아룁니다。진주의 싸움은 바로 왜란 중에서도 가장 참혹하였던 일인데 그때에 의롭게 죽은 모든 신하들 또한 다 훌륭하고 장하여 마치 해와 별처럼 빛난다 하겠습니다。그 가운데서도 가장 유명한 자를 말하자면 바로 고(故) 문열공(文烈公) 김천일、충의공(忠毅公) 최경회、무민공(武愍公) 황진이라 할 수 있습니다。그들의 정충대절(精忠大節)은 국사(國史)에도 밝게 실려 있습니다。다만 김천일과 황진은 이미 정조(正祖)때에 부조묘(不祧廟)의 은덕을 입었으나 오직 최경회 만은 아직까지 같이 해주지 못하였습니다。이는 나라에서 높이 보답해 주는 의리로 보아 실로 잘못된 일이오며 또 이 해 이 달을 당하고 보니 우연한 일이 아닌 듯하므로 아룁니다。그러니 김천일、황진의 지난번 예에 따라 최경회에게도 똑같이 부조묘란 사판(祠版)을 특별히 내려주심이 일의 체모에 맞을 것입니다。대신들께

물으시어 처분하심이 어떻겠습니까?」 하였다。
상께서 「대신들의 뜻은 어떠한가?」 하시매
영의정 이모가 아뢰기를、
「똑 같은 세 충신의 높은 보상이 한결같지 않음은 잘못입니다。신 또한 예조 판서가 아뢴 바가 공론에 합당하다고 생각됩니다。또 이 해의 이 달이 마침 당시의 계사년과 부합되니 실로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하였다。
그러자 상께서 「그대로 시행하라」 하시었다。
그래서 도광(道光) 十三년(一八三三)에 전라도관찰사에게 공문을 보냈다。

註 : 1。비국당상(備局堂上) : 비국(備局)은 비변사(備邊司)의 별칭(別稱)이여 당상관(堂上官)(통정이상(通政以上))임。

日休堂不祧廟
일휴당부조묘

崔慶會字善遇號日休堂 癸巳殉節于晋陽
純廟癸巳特命不祧翌年甲午建立于綾州金田里
檀紀四二九二年己亥移建于和順茶山里

최경회(崔慶會)의 字는 선우(善遇)요 호는 일휴당(日休堂)이다。계사년(癸巳年 一五九三)에 진주(晋州)에서 순절(殉節)하였다。순조(純祖) 계사년(癸巳年 一八三三)에 특별히 부조를 명하시니 그 다음 해인 갑오년(甲午년 一八三四)에 능주(綾州) 금전리(金田里)에 묘(廟)를 건립하였다。단기(檀紀 四二九二년(一九五九)) 기해(己亥)에 화순(和順) 다산리(茶山里)에 옮겨 세웠다。

忠毅祠
충의사

충의사는 임진왜란 당시의 충신 충의공(忠毅公) 경회(慶會) 장군의 사당과 기념관과 임란(壬亂)의 충열여인(忠烈女人) 의암(義巖) 논개부인(論介夫人)의 영정각이 있는 곳이다。

가문의 자랑 충의사 비(碑)와 삼장시(三將詩)

충의공 최경회 장군은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백성과 나라를 구하고자 분연히 의병을 일으켜 호남을 지켰으며、영남이 적에게 짓밟히자 호남의 의병을 이끌고 몸을 던져 진주성에서 순국하였다。구국공신 최경회 장군이 우리 선조라는 것은 우리 종문의 자랑이다。
충의사 비(碑) 앞에 서면 당시 호남의 의병을 이끌고 영남을 향할 때、기개 높이 외치던 장군의 구호가 지금도 들리는 듯하다。
지금도 지역을 가르며 아전인수하는 붕당의 폐단을 보아야 하는 우리 앞에 장군의 구호는 준열한 훈계(訓戒)가 아닐 수 없다。
장군의 결연한 충절의 시(詩)를 보면 이 더욱 숙연하다。

湖南我國之地 嶺右我國之地也
호남아국지지 영우아국지지야
호남도 우리나라 땅이요
영남도 우리나라 땅이다。

城存我存城亡我亡
성존아존성망아망
성이 있어 내가 있고
성이 망하면 나도 죽어야 한다。

矗石樓中三壯士
촉석루중삼장사
一杯笑指長江水
일배소지장강수
長江之水流滔滔
장강지수유도도
波不渴兮魂不死
파불갈혜혼불사
촉석루의 세 장수는
한잔 술로 웃으며 긴 강
을 가리키노라。
긴 강물이 도도히 흐르니
저 물결이 흐르는 한 우
리의 혼은 죽지 않으리。



경회장군 시비(詩碑)



충의사 정전 화순읍 동면 백용리(栢龍里)



충의사 내의 의암부인(義巖夫人) 영정각

日休堂神道碑銘
일휴당신도비명

晋陽是南脈之重鎭也國家有事則必先受之故島夷荐食之日糜爛莫慘當時立慤有曰三將者氣薄秋霜忠貫日月雖婦孺賤隷到于今語輒髮竪膽悍其所以樹風聲而裨民彝者無窮焉嗚呼盛哉其後三百有六年而崔生煥翊來請其先祖忠毅公銘墓之文公其三壯士之一也余方病廢謝世閣玄晏之役久矣竊感其義烈奮筆而爲之叙曰公諱慶會字善遇日休堂號也系出海州麗朝名儒文憲公冲其遠祖而簪組相繼輝暎史乘曾祖諱渾 贈通禮祖諱尹範進士 贈承旨考諱天符 贈領議政皆以公貴也妣淳昌林氏進士鐵恭女 嘉靖壬辰十一月二十二日公生焉幼有異質意度軒豁不喜文字小技出入於梁松川應鼎與奇高峯之門講明義理期以遠到作松竹菊爭長説以寓志盖其忠義天性也 明廟壬子丁外憂廬墓盡制辛酉捷司馬兩試丁卯中明經經自典籍遷監察以刑曹佐郎出監沃溝連遷長水茂長陞靈岩郡守甲申入爲戶曹正郎由刑曹旋除寧海府使丁亥又以司導正拜潭陽前後治績皆有赫赫名至於寧海之民建祠祀之思庵朴公薦以文武全才試射禁苑特加官資庚寅丁内憂未闋而遭壬辰之亂 大駕去邠公使從子弘載募士聚糧助高霽峰于錦山比至陣已陷矣文弘献收散亡餘卒請公 爲將公慨然從權墨縗登壇傳檄列邑遠近響應將向幾輔聞茂錦屯賊 有蹂躪湖南之勢欲遏其鋒進兵長水士民以牛酒迎勞已而賊果來遂迎擊破之尋賊又大至以衆寡不敵設伏林藪間出遊騎以尾其後賊披靡住不得退 錦山下寨公扼其咽喉落其距角欲以長策坐制之賊乃逃去追至牛旨峙一箭殪其將奪取寶刀畫軸畫卽恭愍王所畫青山白雲圖也轉鬬嶺右所向無敵慶尚監司金公誠一啓聞于 朝曰今此晋陽之捷莫非崔慶會外援之力 上大加歎賞特拜慶尚右兵使曰嶺右湖南迄今保全皆此人之功也癸巳清正欲報前敗合兵數十萬直犯晋州時沈游擊惟敬在賊酋行長陣中報都元帥金公命元曰其鋒不可當也莫若先自空城以快其意公議于衆曰晋陽宋湖南咽喉今若棄之是無湖南也不如固守遂與倡義使金千鎰忠清兵使黄公進復譬將高公 從厚贊畫方略以死誓守賊築土俯瞰建木放火公隨機應變再發大砲死傷甚衆賊計窮以書投城中而恐動之曰大明兵亦且投降爾等敢爲抗拒乎公與諸將以書答之曰我等死戰而已况天

兵三十萬今方進擊汝賊無遺賊又以木櫃藏兵載四輪車亟推以進用鐵錐鑿城公以火炬灌油而投之櫃中賊皆焚死凡相持七八日戰爲數十合彼勢累挫城守益固會天大雨城隅崩壞敵蟻附而入或勸公突圍而出以圖後功厲聲曰受　國厚恩任此方面城存我存城亡我亡遂脱朝衣及前日所奪釵畫顧謂從子弘宇曰留此不可更藉敵兵又將此衣嘗葬我也一向督　戰矢盡力竭與金高兩公登城南譙樓北向再拜曰孤城受圍外援不至　勢窮力迫一死以報手持印節從容赴水而死即六月二十九日也家人取其朝衣葬於綾州金田村艮坐原天將吳經畧宗道哭以文曰崔公即敵兵所憚以重兵壓之必欲得公後已邢提督玠亦稱忠魂毅魄凜然如生事聞　上震悼敎　曰天將稱美賊兵忌憚可謂名動三國贈吏曹判書　賜祭旌閭　仁廟加　贈左贊成　英廟晉人得銅印於南江殉節處　上親製印銘以寵之錄用其子孫因　賜謚焉公娶羅州金氏敎授遠女生三男二女長弘器直長次弘式早夭次弘績武科訓鍊奉事女適鄭淳文弘猷生員弘器只有一女適張之漢弘式无后弘績有三男宗憲智富準憲通政鄭淳男之推叅奉之援生員文弘猷男瑗内外曾玄不盡錄而公二兄慶雲慶長二侄弘戴弘宇或殉節焉或繼義焉此皆公毅烈所激發而妄論介公死之之日誑誘賊將擠之而投死江中尤亦奇矣嗚呼余讀國乘至壬辰之變輒三復懷慨於晉陽之事曰唐室之中興由睢陽之保障江淮也　我朝之匡恢基晉陽之藩蔽湖嶺也一國之重本係湖嶺湖嶺之衝要在晉陽無晉陽則湖嶺不得守湖嶺不守則國亦難爲國矣當晉陽之陷也敵之精銳亦盡於是故收餘兵撤還而湖嶺賴而得全其偉功盛烈可與幸州之捷露梁之戰相上下矣天道好還善惡必報則當借手於後之人以一釵縱橫于南蠻而掃盡妖氛伏平源而笞其背上以復二陵之讎下以雪三壯士之憤必矣夫何理迫於氣數反使今日之島夷吞噬肆毒有浮於前日直欲髡我頭而緇我服此正祖士雅擊楫之秋而顧乃大小敷同無復有舍忍底意此余所以獨思公而不能已者也嗚呼噫噫銘曰

烈烈忠毅生　穆陵世　穆陵蒙難海寇睥睨都城蕩燹八域陰壎雖　有神武罔能出計公時家食豈曰泄泄爲政於家克孝克弟王事靡監　非我獨勤墨縗從軍厥有古例試之錦山敵己奪勢前之牛旨峙馬躍兵　銳猛夫矯矯一箭以殪千里豕蛇可坐而伏鉞南眠聲威遠逮額額晉城關防攸繫士卒精利

忠義誓死我逸彼勞敗亡相繼皇天不吊兩墜 埤
堄晋水滔滔星日晦暾金田一杯命服是萍我作銘詩
用詔來裔
歲己亥乾之上澣
嘉義大夫司憲府大司憲兼成均館祭酒
侍講院贊善經筵官書筵 恩津宋秉璿 謹撰

일휴당공 신도비명

진양(晋陽)은 남쪽지방의 중요한 성읍이다。국가에 변고가 생기면 진양은 예외 없이 그 해를 남보다 먼저 입었다。그리하여 섬나라 오랑캐가 우리나라를 잠식(蠶食)하려고 할 적에도 완전히 유린되어 그 참담함이 극심하였다。당시에 용맹을 떨친 사람 중에 세 장수라고 있는데 그들의 기상은 가을날의 서리보다 매서웠고、그들의 충성심은 해와 달을 꿰뚫을 정도였다。그래서 아낙네와 어린아이、비천한 종들까지도 지금에 이르도록 그들에 관하여 말을 꺼내면 머릿발이 곤두서고 담력이 굳세어지니 가르침을 수립하고 백성들의 떳떳한 도리를 일깨워준 바가 무궁하다 할 것이니아!그 공이 성대하구나。그로부터 三〇六년이 지나서 최환익(崔煥翊)이 나를 찾아와 그의 선조인 충의공(忠毅公)의 묘비명에 글을 구하니 공이 바로 그 세 장사중의 한 분이다。나는 한참 병으로 쓰러져 세상의 예교(禮敎)에 소용되는 글을 짓는 일을 사절한 지가 오래되었다。그러나 공의 의열(義烈)에 내심 감격한 바가 있어 힘을 내어 붓을 휘둘러 다음과 같이 기록한다。

공의 휘는 경희(慶會)요、자는 선우(善遇)이며、일휴당(日休堂)은 호이다。해주가 본관으로 고려조의 명유인 문헌공 충은 그의 먼 할아버지인데 고관들이 계속 배출되어 역사책에 밝게 빛나고 있다。증조부의 휘는 혼(渾)으로 통례(通禮)에 추증되었고、조부의 휘는 윤범(尹範)으로 진사이며、승지에 추증되었다。부친의 휘는 천부(天符)로 영의정에 추증되었으니 모두 공이 귀하게 된 까닭에 증직된 것이다。모친은 순창임씨로 진사 철공(鐵恭)의 딸이다。가정 임진년(서기一五三二년) 十一월二十二일에 공이 태어났다。공은 어려서부터 남다른 재질을 가지고 있었으며、뜻과 기상이 헌걸차고 활달하였으며、문장과 같은 작은 기예를 좋아하지 않았다。송천(松川) 양응정(梁應鼎)과 고봉 기대승의 문하에 출입하여 의리(義理)를 강론하였고、원대한 기상을 펼치기를 기약하여 「송죽국쟁장설(松竹菊爭長說)」을 지어서 자신의 뜻을 밝혔으니 대체로 충의(忠義)가 그의 천성임을 말하고 있다。명종(明宗) 임자년(서기一五五二년)에 부친의 상을 당하여 묘를 지키며 예를 다하였다。신유년(서기一五六一년)에 사마양시(司馬兩試)에 합격하였고、정묘년(서기一五六七년)에 명경과(明經科)에 합격하였다。이에 전적(典籍)으로부터 감찰(監察)로 전직되고、형조좌랑에서 옥구현감(沃溝縣監)으로 나갔고、계속하여 장수(長水) 무장(茂長)으로 자리를 옮긴 뒤 영암군수(靈岩郡守)로 승진하였다。갑신년(서기一五八四년)에 호조정랑(戶曹正郎)의 내직으로 들어

왔고、형조에서 곧 영해부사(寧海府使)에 제수되었다。정해년(서기一五八七년)에 다시 사도정(司導正)으로서 담양부사에 제수되었다。전후에 치적은 모두 혁혁하게 명성이 난 바가 있다。영해에서는 백성들이 사당을 세워 제사를 지내기까지 하였다。사암(思庵) 박순(朴淳) 공이 문무의 재능을 겸비한 자로 천거하여 대궐 내에서 그 활솜씨를 시험하고 특별히 품계를 올려 주었다。경인년(서기 一五九〇년)에 모친상을 당하였다。묘를 지키는 것을 마치기 전에 임진왜란을 당하여 주상의 거동이 서울을 떠나게 되자 조카인 홍재(弘載)로 하여금 의병을 모집하고、군량미를 모아 금산(錦山)의 제봉(霽峯) 고경명(高敬命)을 돕게 하였다。그런데 고경명의 진에 도착하니 이미 적에 함락된 뒤였다。문홍헌(文弘獻)이 흩어진 사졸을 수습하여 공에게 장수가 되어줄 것을 청하였다。이에 공이 개연히 변통의 방도를 취하여 검은 상복을 입고 단상에 올라 주변 읍에 격문을 띄우니 원근에서 호응하였다。장차 서울로 향하려 할 적에 무주(茂朱)와 금산에 주둔한 적병이 호남을 유린할 기세를 보인다는 소문을 듣고 그 예봉을 꺾고자 하여 장수로 군대를 진격시키니 선비와 백성들이 소고기와 술로 군대를 맞아 위문하였다。이윽고 적병이 과연 내려오는지라 적을 맞아 격파시켰다。얼마 지나지 않아 적병이 또 크게 이르러 오자 중과부적이라 숲 사이에 숨어 있으면서 때때로 유격대를 보내어 그 뒤를 쫓으니 적병이 무너져 주둔하지 못하고 금산에 있는 진영으로 물러났다。공이 그 요충지를 지키고 있으면서 그 후미를 차단하여 장구한 책략으로 그들을 제압하고자 하였다。이에 적병이 도망하자 추격하여 우지치(牛旨峙)에 이르러서 한 개의 화살로 적장을 쓰러 넘어뜨리고 그의 보검과 화축(畫軸)을 탈취하였다。그 그림은 바로 공민왕(恭愍王)이 그린 〈청산백운도(靑山白雲圖)〉였다。이에 영남우도(嶺南右道)로 방향을 바꾸어 싸웠는데 가는 곳마다 대적할만한 적이 없었다。경상감사 김성일(金誠一) 공이 장계를 조정에 올려 말하기를、「지금 이 진양(晋陽)에서의 승리는 최경회가 밖에서 원조를 하지 않았으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라고 하였다。주상께서 크게 감탄하여 칭찬하시고 특별히 경상우병사(慶尙右兵使)에 제수하시고 「영남우도와 호남이 지금까지 보전할 수 있는 것은 모두 이 사람의 공이다」라고 하였다。계사년(서기一五九三년)에 청정(淸正)이 지난 번의 패배를 설욕하고자 수십만의 군대를 불러 모아서 진주를 공략하였다。당시에 유격(游擊) 심유경(沈惟敬)이 적병의 대장 행장(行長)의 진중(陣中)에 있었는데 이러한 사실을 도원수(都元帥)인 김명원(金命元)에게 알리고 「그들의 예봉은 당할 수가 없으니 우리쪽에서 먼저 성을 비워주어 그들의 마음을 풀어주는 것이 낫겠다」고 하였다。이에 공이 뭇사람과 의논하고 말하기를、「진양은 실로 호남의 인후부이니 지금 만약 이 성을 버린다면 그것은 호남을 잃는 것과 같다。성을 고수하는 것이 좋다」고 하였다。그리하여 마침내 창의사(倡義使) 김천일(金千鎰)、충청병사(忠淸兵使) 황진(黃進)、복수장(復讎將) 고종후(高從厚) 등과 더불어 전략을 세워서 죽음으로써 성을 지킬 것을 맹세하였다。적은 흙을 쌓아 올려 성 아래로 내려다보며 나무를 세워 놓고 방화(放火)하였

다。공은 임기응변하여 다시 대포를 쏘니 사상자가 매우 많았다。적은 계책이 궁지에 몰리자 글을 성중에 던져 보내 두려움을 갖게 하기를 「명나라 군대도 투항하였거늘 너희 등이 감히 항거하느냐?」고 하자 공이 여러 장수와 함께 글을 지어 응답하기를、「우리들은 싸우다 죽는 길이 있을 뿐이다。게다가 명나라 군대 三十만이 지금 한참 진격 중에 있으니 너희 도적들은 한 놈도 살아남지 못하리라」라고 하였다。적은 또 나무궤짝에 군사를 숨기어 사륜차(四輪車)에 실어 빠른 속도로 밀어 진격하고、철퇴로 성을 뚫으려 하였다。이에 공이 횃불에 기름을 부어 던지니 궤짝속의 적병이 모두 불에 타 죽었다。무릇 서로 대치한 지가 七、八일에 전루가 수십 차례 벌어졌는데 적의 공세는 번번이 좌절되었고、성의 수비는 더욱 견고해졌다。그때 마침 큰 비가 쏟아져 성의 한 모퉁이가 무너지자 적의 무리가 개미떼처럼 밀려 들어왔다。그러자 어떤 사람이 공에게 포위를 뚫고 탈출하여 뒷날의 공을 도모하라고 권하자 공이 버럭 소리 지르며 말하기를、「나라의 두터운 은혜를 입어 이 고장을 맡고 있으니 성이 보전되면 나도 보전되는 것이요、성이 망하면 나도 망하는 것이다」라 말하고 입고 있던 조의(朝衣)를 벗고、예전에 빼앗은 보검과 그림을 조카인 홍우(弘宇)에게 주며 말하기를、「여기에 남겨두어 다시 적병에게 넘겨 줄 수 없다。또 이 옷으로 나를 장사지내다오」 그리고는 계속 전투를 독려하였다。그러나 화살이 다 떨어지고 힘이 다하자 김천일、고종후 두 공과 함께 성의 남쪽에 있는 남초루(南譙樓)에 올라 북쪽을 바라보고 재배(再拜)한 다음 「고립된 성이 적의 포위를 당하여、외부의 원조도 이르지 아니하고、전세는 불리하고 힘이 다하였으므로 죽음으로써 은혜에 보답합니다」라 말하고 장수의 인장과 부절을 손에 쥔 채 조용히 물에 투신하여 죽으니、바로 六월二十九일의 일이었다。집안사람이 그의 조의를 가져다 능주(綾州) 금전촌(金田村) 간좌(艮坐) 자리에 장사지내었다。명나라 장수인 경략(經略) 오종도(吳宗道)가 골을 지어 곡하기를、「최공은 왜병들이 두려워하는 분이었으므로 그들은 많은 군사로 공을 제압하여 기필코 공을 사로잡으려 하였다」고 하였다。제독(提督) 형개(邢玠)도 충성스럽고 의연한 혼백은 살아있는 듯이 늠름하다」고 칭송하였다。이 일이 상주되자 주상은 크게 슬퍼하여 하교(下敎)하기를、「명나라 장수는 칭송하고、적병은 꺼리는 장수였으니 그 이름 이 세 나라를 진동시켰다」고 하고 이조판서에 추증하고 정려(旌閭)를 세우고 제사를 지내게 하였다。인조(仁祖)께서는 좌찬성(左贊成)에 추증하셨다。영조때 진주 사람이 남강(南江)의 순절한 곳에서 동인(銅印)을 얻었는데 주상께서 친히 인명(印銘)을 지어서 영광되게 하고 그 자손들을 벼슬에 임명하는 한편 시호를 내리셨다。공은 나주(羅州) 김씨(金氏) 교수(敎授) 원(遠)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여 三남二녀를 두었다。장남은 홍기(弘器)로 직장(直長)을 지냈고、차남은 홍식(弘式)으로 요절하였으며、삼남은 홍적(弘績)으로 무과에 급제하여 훈련봉사(訓練奉事)를 지냈다。딸은 정순(鄭淳)과 생원 문홍유(文弘猷)에게 출가하였고、홍식은 후사가 없다。홍적은 三남을 두었으니

종헌(宗憲)、지헌(智憲)、준헌(準憲)으로 준헌은 통정대부(通政大夫)이다。정순의 아들은 지추(之推)로 참봉이며、지원(之援)은 생원이다。문홍유는 아들 원(瑗)을 두었다。내외의 증손、현손은 이루 다 기록할 수 없다。공의 두 형인 경운、경장과 두 조카인 홍재、홍우도 혹은 순절하고、혹은 뒤를 이어 의병을 일으켰으니 이는 모두 공의 의열(毅烈)에 격려되어 일어난 것이다。그리고 공의 첩인 논개(論介)는 공이 죽은 날 적장을 거짓 유인하여 그를 끌어안고 강 속에 투신하여 죽었으니 이 또한 기이한 일이다。

오호라! 내가 우리나라의 역사를 읽다가 임진년의 변란에 이를 적이면 문득 진양의 일에 대하여 세 번씩 반복하여 강개한 심정이 되며 이렇게 생각하곤 하였다。당나라 왕실이 안록산(安祿山)의 난에서 중흥하게 된 것은 수양(睢陽)이 강회(江淮) 지역을 지키는 요충이 되었기 때문이요、우리나라가 광복(匡復)할 수 있었던 기반은 진양이 영남、호남을 엄폐하여 보호하였기 때문이다。우리나라의 중요한 지역은 바로 영남、호남이요 영남、호남의 요충지는 바로 진양이니 만약에 진양이 없다면 영남、호남은 지킬 수가 없을 것이다。그리고 영남 호남을 지킬 수 없다면 나라도 나라라고 할 수가 없을 것이다。진양이 함락될 때에 적의 정예병도 그 곳에서 다 죽었기 때문에 그들은 남은 군대를 이끌고 철수할 수밖에 없었다。그리하여 영、호남이 온전할 수 있었으니 그 위대한 공과 성대한 의기는 행주대첩(幸州大捷)、노량대전(露梁大戰)과 함께 서로 견줄 수 있을 것이다。하늘의 도는 순환을 좋아하여 선과 악이 반드시 응보를 받게 된다。그렇다면 마땅히 후세 사람의 손을 빌려 하나의 검을 가지고 남쪽 오랑캐의 땅에 횡행하여 요괴의 기운을 소탕하고、평원(平源)을 무릎 꿇이고 그 등에 태형을 가함으로써 위로는 조종(祖宗)의 원수를 갚고、아래로는 세 장사의 원통함을 씻어야 할 것이다。그런데 어찌된 이치인지 기수(氣數)의 핍박을 받아 도리어 오늘날 섬 오랑캐가 우리를 잠식해오며 악독한 짓을 행하는 것이 전날보다 심하여 우리들의 머리를 대머리로 만들고자 하고、우리들의 옷을 검은 베옷으로 입히려 한다。이것이 바로 조적(祖狄)1 이 뱃전에 노를 치면서 맹서했던 것(조적이 석록을 공격하러 갈 때 강에 다다르자 뱃전에 노를 치면서 중원을 깨끗이 소탕하기 전에는 살아 돌아오지 않겠다고 맹서하였다)과 같이 하여야 할 시기로되 돌아보면 대소(大小)가 부화뇌동하여 예전과 같은 강인한 의지를 품는 자가 없다。이것이 바로 내가 외로이 공을 사모하는 마음을 그칠 수 없는 까닭이다。오호라! 안타깝구나!

명(銘)을 다음과 같이 짓노라。

열렬한 충의공께서는 목릉(穆陵 : 宣祖)의 시대에 살으셨다네。

선조께서 난리에 피난가시고、섬나라 오랑캐들이 조선을 넘보았네。

도성을 유린당하고、팔도가 참담하게 되었네。

아무리 신통함과 용맹함을 가졌더라도 계책을 세울 수가 없었네。

공께선 그때 집안에 머무셨으니 어찌 기꺼이 정사에 참여할 수 있었으랴?

가정에 대해서는 효도와 공경함을 다하셨네。

나라의 일에 잠시도 안락함을 취할 수 없고、내가 아니면 그 누가 애쓰겠는가 여기셨다네。
상복을 입고 종군하셨으니 옛날에도 그러한 예가 있었네。
금산 땅에서 용맹함을 시험하니 적들은 벌써 기세가 꺾이었네。
진격하여 우지치(牛旨峙)에 이르니 말은 뛰어나가려 하고 무기는 예리하였네。
사나운 적장하나 의기양양하더니 공의 화살하나에 거꾸러졌네。
천리에 횡행하던 도적무리를 앉아서 도끼로 잡아 남쪽지방을 평정하니、명성과 위엄 먼 나라까지 전해졌네。
저 요새의 진주성은 국가방위가 걸려있는 곳이었네。
사졸들은 뛰어났고 매서웠으니、충성과 의기로써 죽기를 맹세하였네。
우리는 편안히 지키고 저들은 애를 써 공격하였으나 패망이 계속되었네。
하늘이 도와주지 않음인지 비가 성을 무너뜨렸네。
진주 남강의 물은 도도히 흘러가고 별과 해는 어둡게 변했다네。
금전(金田)의 한잔 술을 따라 바치며 조상하네。
내 이제 명시(銘詩)를 지어 후세사람에게 보여주네。

기해년(서기一八九九년) 건(乾)의 상한(上澣)에
가의대부(嘉義大夫) 사헌부대사헌
司憲府大司憲) 겸 성균관좨주(成均館祭酒)
시강원찬선(侍講院贊善) 경연관서연(經筵官書筵)
은진(恩津) 송병선(宋秉璿)은 삼가 짓는다。

註:1。晋 范陽人。字는 士進。강개한 절개가 있었다。劉琨과 절친하여 함께 명성을 날렸다。여러 차례 石勒의 군대를 격파하여 황하 이남의 땅을 晋나라의 영토로 만들었다

十八世 竹隱公 諱 弘載
죽은 공 홍재

竹隱公事實
죽은 공 사실

公諱弘載字德與號竹隱三川公長子也 嘉靖庚申生忠孝兼全文武具備器業夙成人皆以遠大期之 萬曆辛卯文科越明年壬辰島夷犯闕 大駕西狩公以新恩在家未及扈 駕北向痛哭倡率同志曉諭 鄕邑設義兵廳收召戰士鳩聚粮餉方欲西赴勤 王以諸父之命使合勢於招討使高公之師公將行訣於諸父曰以此義兵北首爭死以效臣節何必爲人麾下因人成事乎三川公曰子爲忠臣父之所望汝言至此吾無恨矣第今所募義士非訓鍊之兵且汝忠義有素而其於師律曾未講習則何可猝當大任也汝先赴高公試汝之才略效汝之

忠憤亦爲報國之大節汝往勉哉公於是拜命奮身遠冒鋒鏑行且收兵倍道并進及至之日高公軍敗身亡事無可爲者乃與其幕下士文弘獻等收領諸軍方謀再擧以決一死聞大將擬望屬於季父三溪公公喜曰是我成功所日夜馳歸更勅軍旅四方忠義之士一時雲集遂成大陣三川公復勉之曰汝與乃叔協力贊計一以報　國家罔極之恩一以成乃叙不世之功則無憾於恩義之際盡節於忠孝之分一乃心力十分勤勵三溪公亦勉之曰吾己起復許身金革死而後已戮力助我惟爾之責乎公益篤忠憤曉諭鄕邑遠近輻湊遂成大陣錦茂驅逐之績湖嶺前後之捷率多輔佐之功不幸晋州之圍公時往湖西傳檄道內請援鳩粮未及歸城陷而三溪公已殉節矣及其仲父竹溪公繼起義兵公營輸兵餉鞠躬盡瘁以龍灣之耻晋陽之痛爲己任於是聲動遠邇名著朝廷未及分舘直拜正言是丁酉春也秋倭奴再犯　朝廷以公忠義才略　特除招諭使糾合義旅鎭撫人心未能齋崔公尚重亦與公同承是命以詩贈之　詩見附錄　時四方義士懲於壬辰乍合乍散聞公之來濟濟會合咸懷敵愾相講復讐之策矣是年十月賊兵直抵和順大肆剽掠三川公擧義烏城罵賊殉節公泣　血奔還未及復讐賊兵已退遂以爲平生至恨光海癸丑廢　母之凶論初起羣壬咆咻倫綱斁絶公以持平抗疏立貳持正不撓大忤權凶遂黜補蔚山憂憤成疾歿於謫所詳見行狀行狀公曾孫正郎援所撰

죽은공 사실

공의 이름은 홍재(弘載)요 자(字)는 덕여(德與)、호는 죽은(竹隱)이니、바로 삼천공(三川公)의 맏아들이다。

가정(嘉靖) 경신년(一五六〇)에 출생하였는데 충과 효(孝)를 고루 갖추고 문무(文武)의 재주를 겸비하여 학문이 일찍부터 성취되었다。그래서 사람들마다 큰 인물이 될 것으로 기대하였다。

만력(萬曆) 신묘년(一五九一) 문과(文科)에 급제하였는데 이듬해 왜적이 임진왜란을 일으켜 궁궐까지 침범하게 되었다。그래서 임금이 의주로 피난을 떠나게 되었는데 공은 과거에 급제한 후 벼슬을 하지 않고 집에 있었기 때문에 임금을 모시고 떠나지 못한 채 북쪽을 바라보며 통곡하고는 동지(同志)들을 거느리고 인근 고을 사람들을 설득하여 의병청(義兵廳)을 설치한 후 군사를 모집하고 군량을 모았다。그런 다음 곧바로 서쪽으로 달려가 임금을 호위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아버지와 숙부의 명에 따라 초토사(招討使) 고경명(高敬命)의 군사와 합류하기로 하였는데、공은 아버지와 숙부들과 작별하면서

「이 의병을 이끌고 임금을 위해 죽음을 각오하고 싸우다

가 신하의 도리를 다할 뿐입니다。어찌 남의 휘하(麾下)에 들어가 싸우겠습니까?」하니、

삼천공이 말하기를

「아들이 충성스런 신하가 되는 것이 이 아비의 소원이다。네 말이 그러하니 나는 이제 아무런 한이 없다。그러나 지금 모은 군사가 잘 훈련된 군사가 아니며、또 너는 평소 충성심과 의기만 있었지 군사를 거느리는 일은 미처 배우지 못하였다。그러니 어떻게 큰 임무를 맡을 수 있겠는가?

그러니 너는 우선 고경명의 진영으로 가서 네 재주와 전략을 시험해 본 후에 네 충성심과 의분심을 펴는 것 역시 나라의 은혜를 갚는 도리이니、힘쓸지어다」하였다。

공은 그 말을 따르기로 하고 용기를 내어 먼 길에서 적과 싸우며 행군하였다。또 군사를 모으면서 속도를 배나 빨리하며 진군하였는데 금산(錦山)에 이르자 고경명의 군사는 싸움에 패하고 고경명 역시 전사하여 어쩔 수 없는 지경이었다。그래서 고경명의 막하(幕下)에 있던 장수 문홍헌(文弘獻) 등이 모든 군사를 정돈하여 다시 싸우다가 죽을 것을 결심하고는 그 대장에 그의 숙부인 삼계공(三溪公)을 추대한다는 말을 들었다。공은 그 말을 듣고는 기뻐하면서 말하기를

「이번에야 말로 내가 소원을 이룰 기회이다」

하고는 밤낮을 쉬지 않고 다시 돌아와 군사를 모으니、충성심과 의분심이 있는 많은 선비들이 사방에서 구름처럼 모이어 큰 부대가 되었다。이에 삼천공이 다시 이처럼 격려하였다。

「너는 네 숙부와 협력하여 적을 칠 계획을 세워 나라의 무한한 은혜를 갚는 한편、또 네 숙부가 큰 공을 세우도록 해야 한다。그렇게 되면 나라의 은혜를 갚는 길도 되고 충(忠) 효(孝)를 다하는 도리가 되니、네 마음과 힘을 다하여 십분 노력 하거라。」

또 삼계공이 격려하기를

「나는 이미 기복(起復)하여 싸움에 나가 죽을 결심을 하였다。죽을 힘을 다하여 나를 도와주는 것이 네 책임이 아니겠느냐?」하니、

공이 더욱 충성심과 의분심을 발휘하여 인근 고을 사람들을 설득하니 멀고 가까운 곳에서 많은 의병이 모여 들어 마침내 큰 부대를 이루었다。

그래서 금산(錦山)과 무주(茂朱) 싸움에서 왜적을 물리친 것과 호남지방과 영남지방에서 싸워 이긴 것은 모두 공이 보좌를 잘했기 때문이었다。

불행하게도 진주(晋州)가 함락될 때 공은 그때 호서(湖西)지방에 가 도내(道內)에 격문을 전하며 후원군과 군량을 청하고 있었는데 미처 진주로 돌아오기 전에 성이 함락되고 삼계공이 순절하였다。

공의 중부(仲父) 죽계공(竹溪公)이 뒤를 이어 의병을 일으키자 공은 군량을 몸소 운반해 나르느라 몸이 수척해졌는데도 임금께서 의주(義州)로 피난한 수치와 진주성이 함락된 분통을 갚는 것을 자신의 임무로 삼았던 것이다。그래서 공의 명성이 원근에 알려지고 이름이 조정(朝廷)에 까지 알려져서 분관(分館)을 거치지 않고 바로 정언(正言)에 제

수되었으니, 이 때가 정유년 봄이었다.

정유년 가을에 왜적이 다시 침입해 오자 조정에서는 공에게 충의심과 재략(才略)이 있다하여 특별히 초유사(招諭使)를 제수하고 의병을 모집하는 한편 인심을 진정시키게 하였다. 이때 미능재(未能齋) 최상중(崔尙重) 역시 공과 같은 임무를 받았는데, 초유사에 임명된 후 시(詩)를 지어 주었다.(그 시는 부록에 나와 있다)

이때 곳곳의 의병들이 임진년 일에 놀란 나머지 모였다가는 금방 흩어졌는데 공이 왔다는 말을 듣고는 많은 수가 모여들어 모두 적개심(敵愾心)을 품고 원수를 갚을 계획을 세웠다. 그 해 十월, 왜적은 곧바로 화순(和順)으로 쳐들어와 노략질을 마음대로 자행하였다. 이에 삼천공(三川公)이 의병을 일으켜 오성(烏城)을 지키다가 왜적을 꾸짖으며 순절하였다. 공은 피눈물을 삼키며 화순으로 돌아왔으나 원수를 갚기도 전에 왜적들이 물러가 버렸기 때문에 평생 이 일을 원통하게 여겼다.

광해군(光海君) 계축년(一六一三)에 폐모론(廢母論)이 처음으로 일어나자 여러 간신(奸臣)들이 인륜(人倫)을 무너뜨리려는 흉계를 꾸미자 공은 당시 지평(持平)으로 있다가 상소(上疏)하여 정의(正義)를 주장하다가 끝내 자기 뜻을 굽히지 않았다. 그러다가 간신들의 미움을 받아 울산(蔚山)으로 쫓겨났는데 울분을 이기지 못하여 병을 얻어 마침내 유배지에서 죽었다. 자세한 것은 행장(行狀)에 보인다.(행장(行狀)은 공의 증손자인 정랑(正郎) 최원(崔援)이 지었다.)

竹隱公墓碣銘

죽은 공 묘 갈 명

사헌부지평죽은최공(司憲府持平竹隱崔公)의 諱는 홍재(弘載)요 字는 덕여(德輿)요 죽은(竹隱)은 자호(自號)이다. 公은 이한(李韓) 명종경신(明宗庚申)에 태어났으니 구재선생(九齋先生) 문헌공(文憲公) 충(冲)의 十六代孫이다. 증조(曾祖) 윤범(尹範)은 성균진사(成均進士) 증좌승지(贈左承旨)요 왕고(王考) 천부(天符)는 장랑훈도(將郎訓導) 증영의정(贈領議政)이요 황고(皇考) 경운(慶雲)은 성균진사(成均進士)이니 신묘(辛卯)에 문과(文科)에 올랐고 다음해 임진(壬辰)의 亂이 일자 의병청(義兵廳)을 화순삼천리(和順三川里)에 설치(設置)하고 오백의병(五百義兵)을 모아 거느리고 금산고제봉막(錦山高霽峯幕)에 이르자 고공(高公)이 순절(殉節)하였고 계부삼계경회(季父三溪慶會)가 등단(登壇)하자 公의 협찬(協贊)이 컸으며 삼계(三溪)가 진양(晋陽)에서 순절(殉節)한 뒤 중부죽계경장(仲父竹溪慶長)의 군막(軍幕)에 있다가 사간원정언(司諫院正言)에 오르고 병신(丙申)에 영남초유사(嶺南招諭使)를 지내고 丁酉十月에 진사공(進士公)이 오성산(烏城山)에서 순절(殉節)하였다. 병란(兵亂)의 창양(搶攘)과 환도(宦途)의 불공(不公)으로 因하여 청운(靑雲)의 뜻이 점차 쇄삭(鎖爍)되더니 정미(丁未) 여름에 사헌부지평(司憲府持平)에 제수(除授)되어 가을에 동지사서장관(冬至使書狀官)으로 명경(明京)에 갔을 때 행대록(行臺錄)을 저술(著述)하고 돌아와 계축(癸丑)에 다시 지평(持平)에 복직(復職)되

었으나 마침 광해군(光海君) 폐모(廢母)의 變을 당하여 疏를 올려 항논(抗論)하였으므로 울산판관(蔚山判官)에 출보(黜補)되었다。公은 이로부터 국사(國事)의 무위(無謂)에 우분(憂憤)하여 침식(寢食)을 廢하더니 甲寅十二月二十日에 적소(謫所)에서 병몰(病歿)하니 향년(享年)이 五十五세였고 진사공묘(進士公墓)의 동록신좌(東麓辛坐)에 반장(返葬)되었다。임소암숙영(任疎菴叔英)이 公과 교의(交誼)가 깊어 公을 맑은 물과 매운 후추에 比하였고 류서동근(柳西垌根)은 公의 기절풍채(氣節風采)를 칭도하였다。公은 무릇 삼취(三娶)를 하였으니 외구(外舅)는 참봉천안전응남(叅奉天安全應南)인대 墓는 조고묘도남유좌(祖考墓道南酉坐)이고 부사직파평윤덕순(副司直坡平尹德純)인데 墓는 의정공묘후해좌(議政公墓後亥坐)이고 부사청주한영조(府使淸州韓瀛祖)인데 墓는 공묘후(公墓後)이다。二男三女를 두었는데 男은 선교랑(宣敎郎) 광헌(光憲)과 참봉봉헌(叅奉奉憲)이요 女婿는 문과승지정인경(文科承旨鄭麟卿)과 고두일(高斗一) 변우(卞瑀)요 광헌(光憲)의 男은 통덕랑명해(通德郎鳴海)와 진사익해(進士翼海)요 봉헌(奉憲)의 男은 참봉상해(叅奉尙海)와 달해(達海)요 女婿는 이반신(李潘身) 오계찰(吳季札)이요 인경(麟卿)의 男은 순양(純陽) 정양(正陽) 일양(一陽)이요 두일(斗一)의 男은 가원(可遠)과 참봉가관(叅奉可觀)이다。이 碣을 세움에 있어 후손(後孫) 병수(炳洙) 춘수(春洙)의 곤계(昆季)가 경비(經費)를 부담하고 영봉(泳鳳) 종섭(鍾燮)은 행적(行蹟)을 갖추어 銘을 請했다。

父殉于國 子詘于時 直竟難貸 世道之悲
부순우국 자굴우시 직경난대 세도지비
幽幽孤憤 天寒海湄 江南谷深 雲冥草薤
유유고분 천한해미 강남곡심 운명초유
雕此貞石 芊眠我詩 過之者讀 感淚自墮
조차정석 천면아시 과지자독 감루자타

아버지는 나라에 순절하고
아들은 昏政으로 뜻을 다 펴지 못하였네
갚어치 마침내 받지 못함이여
다만 世道를 슬퍼할 뿐이로다
그윽하고 고독한 忠憤이여
서려있네 쓸쓸한 울산 바닷가에
강남실 깊은 곳에
구름 자욱하고 풀이 우거져 있네
이 아름다운 빗돌에 글 새기니
나의 文章 찬연한 듯하여라
오가며 읽은 사람
감격한 눈물 가누지 못하리

檀紀四三一七年 甲子仲春望後

文學博士 眞城 李家源 謹撰
문학박사 진성 이가원 근찬

十八世 忍齋公 諱 弘宇

인재공 홍우

忍齋公事實

인재공사실

原錄

公諱弘宇字德容號忍齋竹溪公長子也 嘉靖壬戌生壬辰亂季父三溪公墨縗起義公常在陣中贊其籌畫遂成錦茂開寧之捷癸巳晋州將陷公在圍中誓以同死三溪公曰汝以韋布徒死亂兵無異溝瀆之爲諒 且二兄雖衰耄志尚慷慨聞吾死必繼起第贊協機務以圖雪復惟汝之責以曾所奪得於倭將之圖與釵俾歸傳於兄而謀其再擧云云公不得已 痛哭辭歸是年八月竹溪公繼起義兵自 上特賜繼義兵大將印公以子弟佐幕常隨在軍中收拾鎧仗協贊左右設寨於玉果控扼於固城屢 效克捷之功未幾朝廷命罷諸義兵移屬於金忠勇將竹溪公即以單騎西赴勤 王公則自陣中歸家仍絶意世事博學經禮深究性理見重於士友世稱高士因爲村名嘗小築於福川之夢橋以琴鶴自娛終老林泉清修高節而口不言功 朝廷嘉之屢徵洗馬別提皆不就盖以未報國耻與私讐爲平生至恨故也甲子适變公奮義發檄募兵聚粟赴義兵將高靜軒循厚陣以作勤 王行至泰仁聞亂平而歸時 朝家有倡義人查啓之 命而完伯啓曰取其表表可據者列錄書啓云詳見家狀

인제공 사실

원록(原錄)

공의 이름은 홍우(弘宇)요, 자는 덕용(德容), 호는 인재(忍齋)이니 죽계공(竹溪公)의 맏아들이다。가정(嘉靖) 임술년(一五六二)에 출생하였는데 임진왜란때 숙부 삼계공(三溪公)이 검은 상복을 입고 의병을 일으키자 공은 항상 진중(陣中)에 있으면서 여러모로 계획을 도와 마침내 금산(錦山)과 무주(茂朱) 개령(開寧) 싸움에서 승리하도록 하였다。

계사년、진주성이 곧 함락되려 할 때 공은 포위된 성안에 함께 있으면서 죽기를 맹세하였다。삼계공이 타이르기를

「너는 한갓 선비로서 적에게 죽을 필요가 없다。또 나의 두 형님께서 비록 나이가 많지만 내가 죽었다는 말을 들으면 분개하여 반드시 내 뒤를 이어 의병을 일으키실 것이다。살아서 그때 잘 도와 복수를 하는 것이 너의 책임이다」

하고는 일찍이 왜장(倭將)에게서 빼앗은 그림과 칼을 주어 형에게 전하며 다시 의병 일으킬 것을 도모하였다。

공은 부득이 통곡하면서 하직하고는 돌아왔는데、그 해 八월、죽계공이 뒤를 이어 의병을 일으키자 임금께서 특별히 계의병장(繼義兵將)이란 인장을 내려주었다。

공은 자제(子弟)로서 진중에서 항상 보좌하고 따라 다니며 무기를 거두어 모아 여러 가지로 도왔다。옥과(玉果)에 다 진을 치고 고성(固城)에 있는 적의 목을 지켜 여러 차례 승리를 거두었다。얼마 후 조정에서 모든 의병을 해산시켜 충용장(忠勇將) 김덕령(金德齡)의 휘하에 예속시켰다。죽계 공은 즉시 홀로 서쪽으로 가서 왕을 호위하고、공은 진영에서 집으로 돌아와 세상일에 뜻을 잃고 오직 학문(學問)에만 전심전력 연구하여 성리학(性理學)으로 선비들의 존경을 받았다。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높은 선비라 일컬었기 때문에 동네이름을 고사촌(高士村)이라 불렀다。

일찍이 복천(福川)[1]의 몽교(夢橋)에다 작은 집을 짓고는 거문고와 학(鶴)으로 스스로 즐기며 말년을 산골에서 지냈다。그러면서 청고(淸高)한 높은 절개를 지키고 자신의 공로를 말하지 않으니 조정에서 훌륭하게 여겨 여러 차례 세마(洗馬)와 별제(別提) 벼슬로 불렀으나 모두 나아가지 않았다。이는 대개 나라의 수치와 개인적인 원수인 왜적에게 복수를 하지 못한 것이 평생 한스러웠기 때문이다。

갑자년(一六二四)、이괄(李适)이 난을 일으키자 공은 의분심을 발휘하여 격문을 보내 군사와 군량을 모아 의병장 정헌(靜軒) 고순후(高循厚)의 진영으로 달려가 왕을 호위하려 하였다。그러나 태인(泰仁)에 이르러 난리가 평정되었다는 소문을 듣고는 집으로 돌아왔다。그때 나라에서 난리 때 의병을 일으킨 사람을 조사해 아뢰라는 명령이 있자 전라감사(全羅監司)가 「의병을 일으킨 자 가운데서도 확실한 사람만 기록하여 아룁니다」 하였는데 자세한 것은 가장(家狀)에 보인다。

註：1。지금의 同福

高士亭
고사정

崔弘宇先生字德容號忍齋明廟壬戌生受業於季父日休堂專心性理不屑功令之業壬亂日休堂公墨縗從戎公常在軍中錦茂開寧之捿頗有力焉晋州之圍公誓死不離日休堂公喩之曰汝韋布無必死之義且有二兄聞吾死必繼起以此圖與劒歸傳於兄以圖再擧云公不得已痛哭辭歸是年八月竹溪公繼起義兵公子弟佐幕常在軍中屢効克捿之功軍聲大振及解兵凱旋公口不言平敵之事投戈講藝敎誨後進爲己任邑薦其行宣祖三十年十月十二日徵以齊郎同三十一年十二月二十六日徵以別提同四十一年十二月初六日徵以世子翊衛司是謂三度授官也仁廟三年授洗馬皆不就故 上特賜高士之號而寵之是以肅廟戊午長子後憲刱建高士亭李圓喬匡士承命書亭額

고사정(高士亭)

최홍우(崔弘宇) 선생의 자는 덕용(德容) 호는 인재(忍齋)로 이조명종(李朝明宗) 임술년(一五六二)에 화순 삼천리에서 최경장(崔慶長)선생의 장남으로 출생하시었다。

어려서부터 학문을 좋아하시고 숙부 일휴당(日休堂) 선생의 문하에서 수업하시었으며 특히 성리 공부에 전심하시고 과거에는 뜻이 없으시었다。

임진(壬辰)왜란을 당하여 일휴당 선생이 상복입고 의병을 일으키시니 선생께서 참모로 활약하시어 금산、무주、개령 전투에서 커다란 공을 세우셨습니다。제二차 진주성 싸움에서 중과부족으로 성이 함락되게 됨에 선생께서 최경회 장군과 함께 순사하기로 맹세하시니 최경회 장군께서 설유하시기를 너는 선비로서 죽어야할 대의명분이 없다하시고 나의 두 형이 나의 죽음을 들으시면 반드시 의병을 일으킬 것이니 그때 힘을 다하여 국가의 원수를 갚으라 하시고 왜적에게 빼앗은 청산 백운도와 언월도 그리고 관복을 주시거늘 눈물을 흘리면서 진주성을 탈출 아버지 죽계공(竹溪公) 최경장 선생에게 복명하시었다。一五九三년八월에 부친 최경장 선생이 의병을 일으키시니 선생께서 다시 참모로 활약하시어 커다란 공을 세우시었다。국명에 의하여 의병이 해산되자 집으로 돌아와 은거하시고 일체의 의병활동 사실을 말씀하시지 않았으며 학문연구에 몰두하시고 후진을 양성하시는 것을 낙으로 삼으시었다。고을에서 그 사실을 나라에 천거하니 선조께서 선조 三十년(一五九七) 十월十二일



◀고사정(高士亭) 화순 三千里 11번지
▼영사재(永思齋) 화순 동면 오곡리



재랑(齋郞)을 제수하시고 동三十一년(一五九八) 十二월二十六일 다시 별제(別提)를 제수하시었으며 동四十一년(一六〇八) 十二월六일 세자익위사(世子翊衛司)로 부르시었으나 모두 불응하시니 세간에서 나라에서 세번 불러도 벼슬을 사양하였다고 전하였다.

그 뒤 인조三년에 세마 벼슬을 주시었으나 사양하시니 인조께서 특별히 고사의 호를 내리시었다。이러한 이유로 선생의 사후에 장자 후헌 선생께서 나라에서 내리신 고사호를 기념하기 위하여 사는 곳에 고사정을 지으시니 숙종무오년(一六七八)이었다。국가의 명에 의하여 당시 명필가이신 이광사께서 고사정액을 쓰시었다。

고사정(高士亭)은 죽계공(竹溪公) 휘 경장(慶長) 후손의 종가(宗家)인데 화순읍 삼천리에 있다。죽계공이 一五八七년에 터를 잡아 거주하던 곳인데 그후 한때 九九間의 큰 집으로 넓히기도 하였으나 현재 이 집은 一九세기 말에 고가(古家)를 철거하게 되어 외(外)사랑을 이축해 놓은 것이라 한다。

인재공이 살던 집이라 하여 仁祖께서 내리신 「고사(高士)」라는 호를 따서 세칭 「고사촌」이라 하였는데、이 高士亭은 죽계공(竹溪公)의 장손인 후헌(後憲)이 이 옥호를 기념하여 一六七八년에 신축한 정자로서 지금까지 四〇〇여 년간 보존해온 화순의 명가 건축물이다。그리고 이곳에서 두 분의 文科와 두 분의 進士가 배출되고、一六二四년의 이괄의 난 때에 弘宇공이 이곳에서 의병을 일으켰으므로 의병청으로도 알려졌다。

배위는 숙인 청풍김씨 부호군(副護軍) 홍한(弘漢)의 따님 1남 1녀를 낳았으며 묘는 광양군 東 五〇리의 진월면 쌍치동 지금의 장재리 뒤 천황봉 아래 신좌에 있는데 공과 합봉이다。표석이 있다。

배위 숙인 이천서씨(利川徐氏) 승지 인복(寅復)의 따님이며 세 아들을 낳았다。묘는 화순 동면 흑토재(黑土峙) 유좌에 있으며 표석이 있다。

忍齋公墓碣銘

인재공 묘 갈명

余方讐校朝鮮史略鋟梓之役見麗朝崔文憲九齋之敎能回海 之狂瀾上接洙泗之眞源繼往開來之功爲多世以海東孔子稱之日者有一章甫排雪欵門以其先祖忍齋公樹阡之銘屬余其淸範端凝有法家風乃按狀而攷之公之再倡義旅文武忠孝無愧爲文憲公胄孫今距公三百有餘年過者指其亭曰此高士之居必式之其傳家之學捍圍之義照耀國史非後世之摹繪萬一而猥以文字載名於碣與天皇峯相景仰有榮耀焉遂不辭而書之公諱弘宇字德容號忍齋姓崔氏籍海州自高麗太師諱冲始顯有二子惟善惟吉俱文科登台司所謂尙書令侍中書令乙壯元甲壯元是也自是厥後世有令德有若

良平公諱思齋翰林諱淪文清公諱滋忠憲公諱有淦赫業崇顯功載旂常六代祖領中郎將諱安澤見國事日非掛冠遯荒時有九逸民而公其一也入　朝鮮簪纓蟻聯曾祖諱尹範進士　贈左承旨祖諱天符訓導　贈領議政考諱慶長號竹溪以文辭闡大小科歷典州郡有冰蘗聲其　贈吏曹判書兩館大提學錄壬辰倡義勞也公以明廟壬戌九月十七日生自孩提已好學受業於季父日休堂諱慶會文藝夙就有高士行專心性理不屑功令之業宣廟龍蛇之亂日休公墨縗從戎公常運籌帷幄茂朱錦山開寧之捷頗有力焉晉陽圍城將陷公誓死不離日休堂公喻之曰汝韋布無必死之義兩兄尚氣節意於雪國恥復私讐寧知白首之心必繼舉義旗其從軍衡親非汝之責乎遂解朝衣而送之公揮淚出城有破敵所獲青山白雲圖及偃月刀携來者至今傳于家竹溪公果散財募義旅　朝廷秦差義兵大將下　諭激勵公扶釵上馬以赴君親之危固城統營之間屢戰告捷軍聲大振及解兵旋凱公口不言乎敵之事投戈講藝以教誨後進爲己任士林慕其風營邑薦其行齋郎洗馬之誥屢至而皆不應　上特賜高士之號而寵之是以稱其所居曰高士里雖兒童走卒皆稱先生而不敢名家後有亭翼然額以高士李圓喬匡士承　命書之作之者誰長子後憲爲公晚節逍遙也甲子适變　車駕蒙塵公已暮痛哭諭衆曰君上　播越臣民敢自安乎遂策馬前進不期而會者數千人鼓行至泰仁聞亂　定而罷兵道臣因　朝命查啓倡義人以公爲首也丙子十月以微感示憊以二十日易簀于止寢享年七十五用禮月窆于光陽津月面長在里天皇峯下負辛之原元配清風金氏護軍弘漢女文平公吉通玄孫繼配利川徐氏承旨寅復女俱有婦德公甚宜之一男一女元配出男後憲以沙溪金先生薦任叅奉凡治十二郡往往有生祠民到今稱之屢蒙褒賞階至嘉義女適進士朴忠廉三男繼配出新憲文科工曹判書笔名擅當世順憲官叅奉謹憲進士後憲生四男一女長自海蔭郡守次由海左海泰海女適吳相一餘不盡記乃銘曰麗稱多士文憲之功竹溪忍齋世篤貞忠龍蛇海氣父義子孝固城大捷麟閣紀效平敵凱旋口不言兵投戈講藝教誨後生聲討逆适黃髮白旄途聞亂定查啓勤勞屢徵不起齋郎桂榜高士亭額　華衮煌煌花朝月夕星會者英峯高天皇片石放光

歲壬戌十月二十五日

前行崇祿大夫禮曹判書兼弘文館提學知經筵

義禁府春秋館事同知成均館奎章閣學士
侍講院日講官 金宗漢 謹撰

인재공의 묘갈명

내가 한참 〈조선사략(朝鮮史略)〉을 교정하여 출판에 넘기려 할 적에 고려조 최문헌공의 구재(九齋)가 능히 세상의 미친 듯한 파도를 되돌이킬 수 있는 것으로써 위로는 공자、맹자의 참된 근원을 이었으므로 전통을 계승하여 미래를 개척하는데 큰 공을 세웠음을 알게 되었으니 그분이 바로 세상에서 해동공자라 칭하는 분이다。근자에 한 선비가 눈길을 헤치고 와서 나의 문을 두드리고 그의 선조 인재공의 묘에 세울 명(銘)을 부탁하였다。그의 맑고 단정한 예의 범절과 몸가짐은 법도가 있는 집안의 풍모를 보여주었다。이에 가장(家狀)을 들어 살펴보았다。공이 다시 의병을 일으킨 것은 문무(文武)와 충효(忠孝)에 있어 문헌공의 후손이 되기에 부끄러울 것이 없었다。공은 지금으로부터 삼백여 년전 사람이로되 그곳을 지나는 사람들은 공이 살던 정자를 가리키며 「이곳은 고상한 선비가 살던 곳이다」라고 말하며 반드시 예를 표한다고 한다。그 가정으로 전해지는 학문과 국가를 보위한 의로움은 국사(國史)에 찬란히 빛나는 바이므로 후세사람이 만에 하나라도 베끼어 꾸밀 수 있는 것이 아니나 외람되게 문자로서 비갈(碑碣)에 이름을 실은 것은 천황봉(天皇峰)1과 더불어 공을 사모하여 빛내고자하기 때문이다。그리하여 사양하지 아니하고 글을 쓴다。

공의 휘는 홍우(弘宇)요、자는 덕용(德容)、호는 인재(忍齋)이고 성은 최씨、본관은 해주이다。고려의 태사(太師) 휘 충(冲)으로부터 비로소 가문이 번창하기 시작하였다。충은 두 아들 유선(惟善)、유길(惟吉)을 두었으니 모두 문과에 급제하여 태사(台司)에 올랐으니 이른바 「상서령(尚書令)이 중서령(中書令)을 부축하네」、「을장원갑장원(乙壯元甲壯元)」하는 말이 바로 그 분들을 가리키는 말이다。그로부터 후손들이 훌륭한 덕을 가진 분들이 나타났으니 예컨대、양평공(良平公) 휘 사제(思齊)、한림공(翰林公) 휘 약(瀹)、문청공(文淸公) 휘 자(滋)、충헌공(忠憲公) 휘 유엄(有淹)이 있어서 빛나는 업적이 숭고하고 밝게 드러나 그 공이 공적을 기리는 사책(史冊)에 기재되어 있다。六대조인 영중랑장(領中郎將) 휘 안택(安澤)은 국가의 운영이 날로 그릇되어 감을 보고 벼슬을 버리고 먼 곳으로 피신하였는데 당시에 아홉 명의 일민(逸民)이 있으니 공이 그 중 한 분이다。조선조에 들어와 벼슬을 한 사람이 계속 이어졌다。증조의 휘는 윤범(尹範)으로 진사이고 좌승지에 추증되었으며、조부의 휘는 천부(天符)로 훈도(訓導)를 제수 받았으며 영의정에 추증되었다。부친의 휘는 경장(慶長)이요、호는 죽계(竹溪)이니 문사(文辭)로써 대과(大科)、소과(小科)에 합격한 다음 두루 주군(州郡)의 수령을 역임하여 청렴하다는 명성이 있었다。부친이 이조판서(吏曹判書)·양관대제학(兩館大提學)에 추증된 것은 바로 임진왜란 때에 의병을 일으킨 공로를 표창한 것이다。공은 명종 임술년(서기一五六二년) 九월十七일에 태어났다。어린 시절부터 배우기를 좋아하여 계부(季父)인 일

휴당공(日休堂公) 휘 경회(慶會)에게서 학업을 받았다。그리하여 문예(文藝)가 숙성하였고 고상한 선비의 행실이 있었다。성리학에 전심하여 과거에 쓰이는 공령문(功令文)을 탐탁하게 여기지 않았다。

선조 때 임진왜란이 발발하여 일휴당공이 상복을 입고 전쟁에 참가하자 공은 항상 장군의 막사에서 작전을 토의하였다。무주와 금산、개령(開寧)에서의 승전에는 공의 힘이 상당히 컸다。진양성이 적에게 포위되어 장차 함락되려 할 적에 공은 죽음을 맹세하며 성을 떠나지 않을 뜻을 비추니 일휴당공이 타이르기를、「너는 벼슬하지 않은 선비이니 반드시 죽어야 할 의무가 없다。두 형님께서는 절의(節義)를 숭상하시는 분이니 나라의 원수를 갚고、동시에 사적인 원수도 갚고자 하실 것이니 백발의 노인이라도 나의 뒤를 이어 의병을 일으킬 마음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그러니 그 의병을 따라서 어버이를 지키는 것이 바로 너의 책무가 아니겠느냐?」라 하고 조의(朝衣)를 벗어주고 전송하였다。공은 눈물을 뿌리면서 진주성을 빠져 나왔는데 그때 무너뜨린 적으로부터 노획한 〈청산백운도(靑山白雲圖)〉및 언월도(偃月刀)를 가지고 왔는데 지금도 집안에 전하고 있다。죽계공은 과연 재물을 희사하고 의병을 모았는데 조정에서도 의병대장의 인을 하사하고 왕의 유지를 내려 격려하였다。공은 검을 차고 말에 올라 군주와 부친의 위급한 싸움에 나아갔다。그리하여 고성과 통영사이에서 여러 번 적과 교전하여 승리를 거두니 의병의 사기가 크게 떨쳐졌다。의병을 해체하고 개선하여 돌아온 뒤 공은 적을 평정하던 이야기를 입에 담지 않았다。그리고 창을 던지고 문예를 강론하면서 후진들을 교육하는 것을 자신의 임무로 여기었다。사림(士林)이 그의 풍모를 사모하여 감영(監營)과 고을에서 그의 행실을 고하고 천거하니 재랑(齋郞)、세마(洗馬)의 벼슬에 임명하는 명이 여러 차례 이르러 왔지마는 모두 응답하지 않았다。이에 주상께서 특별히 고사(高士)라는 칭호를 하사하시어 총애함을 표시하였다。이러한 까닭에 공이 거처하는 곳을 고사리(高士里)라 부르게 되었다。그리고 어린 아이들과 노복이라도 모두 공을 선생이라 칭하고 감히 이름을 부르지 못하였다。집 뒤에 새의 날개처럼 생긴 정자가 있었는데 고사(高士)라고 현판을 달았으니 원교(圓嶠) 이광사(李匡士)가 왕명을 받아 글씨를 쓴 것이다。이 정자를 지은 사람은 누구인가 하면 바로 장남 후헌(後憲)으로 공의 만년에 소요할 곳으로 지었다。갑자년(서기一六二四년) 이괄(李适)의 난때 주상이 피난을 가게 되자 공은 이미 노년이라 통곡을 하고 뭇사람에게 고하기를、「주상께서 파천을 하고 계신데 신민(臣民)이 감히 편안함을 취할 수 있겠는가?」라 하고 말을 채찍질하여 전진하자 약속하지도 않았음에도 모여든 사람이 수천 명이 되었다。모여든 사람의 기운을 북돋으며 행군하여 태인(泰仁)에 이르니 난이 평정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군대를 해산하였다。도신(道臣)이 조정의 명에 의하여 의병을 일으킨 사람을 파악하여 보고할 때 공을 가장 우두머리로 앞세웠다。병자년(서기一六三六년) 十월 감기가 약하게 들어 불편함을 보이다가 二十일에 정침(正寢)에서 돌아가시니 향년 七十五세였다。예에 따라 광양(光

陽) 진월면(津月面) 장재리(長在里) 천황봉(天皇峯) 아래 부신(負辛)의 자리에 장사지냈다。원배(元配)는 청풍(淸風) 김씨(金氏) 호군(護軍) 홍한(弘漢)의 딸이니 문평공(文平公) 길통(吉通)의 현손(玄孫)이다。계배(繼配)는 이천(利川) 서씨(徐氏) 승지 인복(寅復)의 딸이다。두 배필은 모두 부덕(婦德)이 있어 공과의 사이가 매우 화순(和順)하였다。원배로부터는 一남一녀를 두었으니 아들 후헌(後憲)은 사계(沙溪) 김장생(金長生) 선생의 천거로 참봉을 지냈고、무릇 十二개군(郡)을 다스려 왕왕(往往) 생존시에 사당이 세워지기도 하였으며 백성들이 지금까지 칭송하고 있다。여러 차례 포상을 받아 품계가 가의대부(嘉義大夫)에 까지 이르렀다。딸은 진사 박충렴(朴忠廉)에게 출가하였다。계배는 三남을 두었으니 신헌(新憲)은 문과에 급제하여 공조판서를 지냈고、문명이 당세에 유명하였다。순헌(順憲)은 참봉을 지냈고、근헌(謹憲)은 진사를 지냈다。후헌은 四남一녀를 두었다。장남 자해(自海)는 음사(蔭仕)로 군수를 지냈고、그 뒤로 유해(由海)、좌해(左海)、태해(泰海)가 있으며、딸은 오상일(吳相一)에게 출가하였다。그 나머지는 다 기록할 수 없다。이에 다음과 같이 명(銘)을 짓는다。

고려조에 선비가 많다고 칭해짐은 문헌공의 공이라네。
죽계공、인재공은 대를 이어 강직함과 충성심이 돈독하였네。
임진년에 왜놈들이 날뛸 때 아버지는 의로웠고、아들은 효성스러웠네。
고성에서 거둔 큰 승리는 기린각(麒麟閣)에 기록되었네。
적을 평정하고 개선한 다음에는 군대에 관한 이야기를 입에 담지 않았네。
창을 버리고 문예를 강론하였으며、후생들을 교육하였네。
역적 이괄(李适)을 성토하여 백발을 나부끼며 의병을 일으켰네。
진격중 난이 평정됨을 들었으나、근왕(勤王)의 공로가 있다고 주상께 보고되었네。
수차 부름을 받았으나 응하지 아니하고 재랑(齋郎)과 계방(桂榜)에 임명되었네。
고사(高士)라는 정자의 편액은 주상의 은총이 휘황하게 빛나네。
꽃이 된 아침、달 오른 밤에 그 자리에 모여든 손님들 모두 영재들이라네。
천황봉의 봉우리는 높기도 하고、그 속의 한 조각 비석은 빛을 발하고 있네。

임술년(서기一八六二년) 十월二十五일
전행(前行) 숭록대부(崇祿大夫) 예조판서(禮曹判書)
겸 홍문관제학(弘文館提學) 지경연의금부춘추관사
(知經筵義禁府春秋館事) 동지성균관규장각학사
(同知成均館奎章閣學士) 시강원일강관(侍講院日講官)
김종한(金宗漢)은 삼가 짓는다。

註:1。공의 묘소가 있는 산 이름

十八世 沙村公 諱 弘器

사촌공 휘기

沙村公事實

사촌공사실

公諱弘器字德周號沙村三溪公長子也 嘉靖癸亥生萬曆己丑進士壬辰亂三溪公居憂在家迫於士友之推墨縗登壇公隨在軍中周旋左右錦茂開寧之捷多有贊助之力癸巳三溪公守城晋州爲賊所圍遣公轉運粮餉於兩湖地未及歸三溪公己殉節公痛深戴天志切枕戈方圖復讎之計又從仲父繼義兵將所凡諸贊畫輔佐靡不用極屢效克捷之功 朝廷錄其父功 授以察訪直長公無意仕官終不起丁酉倭冠再犯天將劉總兵綎進軍稷山聞公有忠憤之心幹局之才辟爲放糧官公 欲假手湔仇奮起就幕多設方略招募軍兵運調糗粮極力左右之遂成焚巢蕩冗之功公復讐之志抑可爲小洩也詳見家狀

사촌공 사실

공의 이름은 홍기(弘器)요, 자는 덕주(德周), 호는 사촌(沙村)이니, 삼계공(三溪公)의 맏아들이다.

가정(嘉靖) 계해년(一五六三)에 출생하여 만력(萬曆) 기축년(一五八九)에 진사(進士)가 되었다.

임진왜란 때 아버지 삼계공이 상중(喪中)에 있다가 선비들이 추대하는 것을 거절하지 못하고 의병장이 되자 공은 함께 군중에 있으면서 도와 금산(錦山)、무주(茂朱)、개령(開寧) 싸움에서 이긴 것은 공의 조력이 컸다.

계사년、삼계공이 진주성을 지키다 포위당하게 되자 공을 보내 호남과 호서지방에서 군량을 모아오게 하였다. 그러나 공이 돌아오기도 전에 삼계공은 이미 순절하고 말았다.

공은 왜적과 한 하늘 밑에 살 수 없다는 분한 마음을 품고 창을 베고 자면서 복수할 계획을 세웠다. 그래서 다시 중부(仲父)인 계의병장(繼義兵將)을 따라서 전략을 세우는 등 여러 가지 일을 보좌하여 여러 차례 승리하는 전과를 세우게 하였다.

나라에서 그의 아버지 공로로 찰방(察訪)과 직장(直長)의 벼슬을 내렸으나 공은 벼슬에 뜻을 두지 않아서 끝내 나아가지 않았다.

정유년에 왜적이 다시 침범해 오자 명(明)나라 장수 총병(總兵) 유정(劉綎)이 직산(稷山)으로 진군하면서 공에게 충성심과 의분심이 있고 재능이 있다는 말을 듣고는 불러서 방량관(放糧官)을 삼았다.

공은 명나라 군사의 힘을 빌어서라도 원수를 갚아야 한다고 생각하여 유정의 진영으로 가 계획을 세우고 군사와 군량을 모으는 등 적극 협력해 마침내 왜적을 소탕하는 공로를 세웠으니, 공이 평소 품은 복수의 뜻을 조금이라도 풀

었다 하겠다。가장(家狀)에 자세한 내용이 보인다。

十九世 倡義義兵將 諱 瑞生

창의의병장 서생

忠孝烈 三綱門 碑文

충효열 삼강문 비문

[19세 휘 최서생(崔瑞生)과 류씨부인、아들 기종(起宗)]

인륜 가운데 국난에 충성과 효행은 만행의 근본이며 우리 선조들의 숭고한 호국에 충효열(忠孝烈)의 정신은 국가의 대강(大綱)이라는 화순은 충효열에 고장이며 고창은 충효열에 시원지(始源地)라는 강남곡에 충효열의 정기가 흐르는 동방의 명문세가인 해주최씨 일가문이라。의병장의 휘는 최서생(崔瑞生)으로 서기1570년에 출생하였으며 본관은 해주최씨라 시조는 해동공자로 알려진 동방유학의 비조 성재 최충의 부친인 최온(崔溫)을 시조로 모시는 집안의 대를 이으니 아름다운 동방명문이로다。공의 성품은 청렴하고 용맹기상으로 정의정신이 투철했다。1597년 정유재란 때 나라에서는 양반들의 당파싸움과 관군의 무능으로 국토가 왜적에 침략짓밟힘에 지역방위를 위해 창의(倡義) 하였다。전주지방에 왜적이 침입함에 의병을 왜적소탕을 위해 북진 흥덕(興德)사진포(고창군덕면사포리)에서 왜적을 만나 장열이 싸우다 불행하게 적탄에 전사하심에 국난에 목숨 바쳐 충성을 다하셨다。부인은 문화류씨로 참의 덕용(德容)의 딸로서 남편이 흥덕에서 전사함에 어린 아들을 노비 순동에게 양육을 부탁하고 남편사랑에 일편단심 사진포 바닷물에 몸을 던져 순절하니 훗날 열부정려(烈婦旌閭)하다。효자에 흥덕현감 최기종이라 자(字)는 효숙(孝淑)이며 서기 1595년생 3세 때 일찍 부모를 잃은 혈혈단신의 고아 4대 독신으로 노비 순동에 기탁 양육되어 성장함에 어려서부터 문일지십(聞一知十)하고 총명예지에 청렴강직하고 학문노력에 문예초매하고 천성효우로 부모의 원수를 갚기위해 와신상담(臥薪嘗膽)으로 무예를 연마하였다。1645년 무과에 급제하여 초직으로 진해현감을 제수 받았으나 인조대왕에게 사진포에서 정유재란에 흥덕에서 왜적에 의하여 부친은 구국위해 창의의병장으로 전사하시고 모친은 원통하게 순절하셨음에 그 원혼위로를 위해 흥덕현감을 원함에 인조대왕께서 부모사랑에 효성이 지극함을 가상에 측은지심(惻隱之心)으로 흥덕현감에 제수하다。화순읍지에 의하면 춘추마다 사진포에서 원혼을 달래는 수제를 지냄에 산진포바닷물이 끓어 올라 붉게 물들이니 지극효성에 천동감응설(天動感應設)이 전한다。부모에 효성지심으로 흥덕현감에 정사를 돌봄에 만백성들이 효제찬사하다。원통순절하신 모친의 행적을 누차 나라에 상소하여 서기 1657년에 열부명정(烈婦銘旌)하다。공의 빛나는 구국창의전사에 업적은 호남충의효열록과 삼강행실록에 등재되었으며 화순 다지리에 전주 우석 이진백(李鎭白) 찬에 유적비가 있다。그러나 충효열에 삼강의 기록만이 전하고 흥덕 사진포(全北高敞沙浦里)에 의병장 전사지와 열부순절지에 유적의 흔적이 없어 항상 아쉬움 속에

400여년의 세월이 지남에 옛날 흥덕현은 고창군으로 변하고 열부 류씨가 투신 순절한 사진포구는 지각변동으로 옛날 깊은 바닷물이 높은 파도에 출렁이던 해수는 거사방죽으로 남아 있다가 오늘날 잡종지로 변했으며 열부 류씨의 아들이 흥덕현감으로 부임하여 모친원혼에 위령제지라 해주최씨 30세손 죽송 일수(竹松 佚洙)는 위선치성에 효손이라 삼강흔적(三綱痕迹)을 찾아 충효열의 시원지인 고창현장에 정려각에 삼강비를 세우다。명호(嗚呼)라 충효열(忠孝烈)에 삼강이여! 정유재란에 창의의병장으로 국난에 목숨바쳐 충(忠)이루시고 남편사랑 일편단심 순절로 열(烈)이루시니 효자 흥덕현감에 효(孝)사랑으로 모모의 원혼 달래네。

2013。10。

鞠香之節 和順 行政事務官 公州 이영일 謹撰

海州崔氏三十世孫 竹松 일수 謹竪

해주최씨삼강문은 원래 1984년 화순군 화순읍 다지리 1구 다산마을 해동공자 최충영당(崔冲影堂) 옆에 세워졌으나 정작 고창군 흥덕면 사진포에는 옛 선조님의 흔적이 없음을 한탄(恨歎)한 화순 향토문화연구자이며、문중대부인 최재양 종친의 발의와 11대손 죽송(竹松) 일수종친의 사재헌납으로 충효열 삼강문이 고창군 흥덕면 사포리 469의 2번지 (대지229㎡)에 2013년 10월 완성되어 조상의 얼을 기리면서 공은 헌시「의병장 최서생」과 헌가「류씨부인의 노래」를 받치었다。공은 또한 전란의 영웅 무명의병



무명의병충의위령탑



고창 흥덕면 사진포 충효열삼강문

충의위령탑을 세워 위로하였다。이를 계기로 화순문화원에서는「화순이 해주최씨 시원지인데 고창 흥덕 보다 못해서 되겠냐。」라며 해동공자 최충영당 옆 화순 충효열 장려각을 다시 손보게 되니 화순 충의사에 모신 충의공(忠毅公) 경회(慶會) 선조님의 위대함과 더불어 충효열 삼강의 업(業)을 더하게 되니 문헌공 충조로부터 해주최씨의 애국애민(愛國愛民) 충절(忠節)을 더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十九世 入鄕祖 諱 吉憲

입향조 길헌

선조을유(宣祖乙酉)년(1585)에 태어났다。승지공(承旨公) 윤범(尹範)의 4대 손이며、증조(曾祖)는 16세 천두(天斗)이다。官은 통덕랑(通德郎)이며、배(配)는 연일 정(鄭)씨이다。외동 아들을 두었는데 증병조판서 선무원종공신 억수(億水)이다。(공신록권 2 및 44쪽 - 羽林衛 崔億水)

입향조 길헌(吉憲)님께서 혼란한 정체를 피해 선조님들이 살던 함평과 영광을 떠나 복성현(現 寶城郡 福內)의 산수(山水)마을에 자리를 잡았다。

400여년간 30여호 이상 집성촌을 이루고 살았지만、세월이 지나는 동안 자손들이 외지로 떠나 지금은 10여호 미만이 선영을 지키고 있다。

매년 가을 향사(享祀) 때는 자손들이 흩어져 있는 각 묘소에 숭조(崇祖)의 제(祭)를 올리는데 귀가길이 바빠 불편함이 많은 실정이었다。

그 불편을 덜기 위해 중심이 되는 묘역을 택해 추모제단 설립을 결의(2003。11)하고、근래에 드문 문중의 사업을 29세(世) 주현(柱鉉、東錫)、30세 영수(泳洙、岩松)、영구(泳球、一龍)、영래(泳來) 등이 주도하여 자손들의 모금(5천여만 원)으로 2005년도에 지금의 추모제단(海州崔氏 承旨公派 追慕碑)을 완공하였다。



입향조 19세 길헌(吉憲) 추모제단
보성군 복내면 계산리 산수

[추모비 측면-선조계통도(先祖系統圖)]에는
시조 온(溫) - 2세 충(冲) - 3世 유선(惟善) - 4세 사제(思齊) - 5世 약(淪) - 6世 윤인(允仁) - 7世 민(敏) - 8世 자(滋) - 9世 유엄(有渰) - 10世 계통(繼通) - 11世 공(珙) - 12世 안택(安澤) - 13世 기(淇) - 14世 혼(渾) - 15世 윤범(尹範) - 16世 천두(天斗) - 17世 경홍(慶弘) - 18世 준남(峻南) - 19世 길헌(吉憲)으로 되어 있다.

매년 11월 둘째 일요일에 26세 이상의 선조님의 祭를 합동으로 모시는 데 30여명 이상의 자손이 참여하고 있다.

十九世 敦寧府都正公 諱 後憲

돈영부도정공 후헌

공의 자는 사술(士述)、호는 취간(就間)이다。인제공(忍齋公) 홍우(弘宇)의 장남이며 죽계공(竹溪公) 경장(慶長)의 손자이다。수 86세。

관은 통정대부 상주목사(通政大夫 尙州牧使、正三)이며 늦게 가의대부(嘉義大夫、從二)에 올랐다。

공은 성품이 엄정하고 포부가 큰데 체격이 장대하여 어릴 때에 천장하경략문진(天將河經略文進)이 공을 기이하게 여기고 발을 어루만지며 감탄하기를 「이 아이는 후일에 반드시 큰 그릇이 될 것이다」라고 감탄하면서 칼을 풀어주었다。

사계(沙溪、김장생) 선생이 조정에 추천하여 유능참봉(裕陵參奉)에 제수케 하고 곧 이어 상의원(尙衣院、왕의 의복과 금、보화 등 궁중의 용품을 공급함)의 직장(直長、종七)으로 전임되었다。

인목왕후(仁穆)의 상(喪)을 당하여 모든 치상범절을 예법에 따라 초호당상이 칭송하였다。이어 주부(主簿)、정랑(正郎)으로 승진하고 또 외직 열두 읍(12개읍)을 거치면서 가는 곳마다 송덕비(頌德碑)가 세워졌다。강화에는 생사당(生祠堂)、한성에는 청직비(淸直碑、청렴과 정직)가 있다。(생략)

묘는 동복읍(同福邑) 십리내 남면(南面) 평촌 앞 양하산(揚荷山) 독상동(篤上洞) 辛坐이며 7세손 진사 시준(時濬)이 쓴 비갈이 있다。

배위는 정부인 나주임씨(羅州林氏) 선교랑(宣敎郎) 지(地)의 따님으로 묘는 합봉이다。

소생은 현령(縣令) 자해(自海)와 통덕랑 유해(由海)、통덕랑 좌해(左海)、윤해(允海)、통덕랑 태해(泰海)의 五형제와 따님 한 분이 있다。

十九世 工曹判書公 諱 新憲

공조판서공 신헌

자는 현술(顯述)、호는 취정(就靜)이다。인재공(忍齋) 홍우(弘宇)의 2남이며、죽계(竹溪) 경장(慶長)공의 손자이다。

인조5년(1627) 정묘 생원시에 오르고、현종7년

(1666) 병오 문과 식년시(式年試) 을과 6위에도 56세에 급제하였다.

관직은 자헌대부 공조판서 겸지경연 의금부사 홍문관제학 지춘추관성균관사(資憲大夫工曹判書兼知經筵義禁府事弘文館提學知春秋館成均館事)를 역임하였다.

공의 배위는 정부인 낙안오씨(樂安吳氏)、父는 희학(喜鶴)이다。묘는 오곡(梧谷)의 우치동(右峙洞) 조비 묘하에 자좌쌍봉으로 위치한다.

소생은 무과 선전관(宣傳官) 중해(重海) 한 분이다。

(국조문과방목)

十九世 石門居士公 諱 繼憲

석문거사공 계헌

자는 백술(伯述)、호는 석문거사(石門居士)이다。부친은 통덕랑 홍유(弘有)의 큰아들이요 죽계공(竹溪公) 경장(慶長)의 손자이다.

공은 어려서부터 재주와 사람됨이 남다르고 경학(經學)에 정통하였다.

병자호란에 안우산(安牛山)과 더불어 근왕의병을 일으켰는데 여산(礪山)에 이르러 강화가 이루어졌다는 말을 듣고 통곡하며 돌아와 세상을 멀리하고 초야에 숨어 살면서 동지들과 같이 향약(鄕約、계문서)을 닦고(修)、선비들을 교훈하고 당세(當世)의 사표(師表)가 되었다。산양지(山陽誌)에 기록하기를 당시에 오현(五賢)이 있었다 하였는데 공이 그 중의 한 사람이다。후에 그 고을 사람들이 사당을 세우고 제사를 지냈다.

배위는 전의이씨(全義) 주부 근(勤)의 따님으로 묘는 보성군 백야면(白也面) 덕음(德音) 지금의 겸백면 운덕리 산92번지 조손동 庚坐에 上下이고 지석이 내계에 묻혀있으며 비갈이 있다。이 山은 문중에 유래하는 산이다。

슬하에는 종해(宗海)、원해(原海)、주해(胄海)、관해(觀海)、신해(信海)의 5형제와 두 따님이 있다。

二十一世 三洲公 諱 援

삼주공 원

자는 지세(持世)요、호는 삼주(三洲)이다。아버지는 익해(翼海)、증조는 죽은공(竹隱公) 홍재(弘載)이며 삼천공(三川公) 경운(慶雲)의 현손이다.

현종(顯宗) 3년(1662) 임인(壬寅) 생원시(生員試)에 합격하고、다시 현종(顯宗) 14년 (1673) 계축(癸丑)년 식년시(式年試) 文科 을과(乙科)에 6위로 급제하였다。[국조문과방목(國朝文科榜目)] 관은 일곱 고을의 직위를 두루 지내고、통훈대부(通訓大夫) 이조정랑을 역임하였다.

공은 문장과 덕행으로 한 세상에 명망이 높았다。당시의 시배들이 공을 배제하고자했으나 청렴하고 벼슬이 높아 어쩌지 못했다.

기사년에 우암 송시열(尤菴 宋時烈、文正公)의 관(棺)이 명을 받고 돌아올 때 공은 고부(古阜)고을의 부관(副官)으로서 글을 지어 치전을 올렸다.

공의 가집(家集) 두 권이 있다.

배위는 숙인 진원박씨(珍原朴氏) 장사랑 진형(震亨)의 따님이다. 묘는 화순 동면 동림리(桐林里) 뒤 하제봉(下啼峰) 계좌에 합봉하였으며 비갈이 있다. 슬하에는 언보(彦普)、언저(彦著)、언회(彦會)의 세 아들과 따님 한 분이 있다.

二十八世 東學義士 諱 在範

동학의사 재범

자는 범구(範九)이다。죽계공(竹溪公) 경장(慶長)의 11대손이며、증조는 사간공(司諫公) 시순(時淳)이며、부친 병학(炳鶴)의 독자로 태어났다。

공은 학문이 깊고 박식하였으며、필법이 특이하다。키가 팔척(八尺)의 거구로 그 모습이 출중하여 보는이마다 위압감이 들었다고 한다。

공이 동학(東學)에 가담하여 의거할 때에 왜군이 동학을 진압함을 빙자하여 국정(國政)에 간섭하니 이에 분개하여 공이 직접 선봉장이 되어 화순과 담양 두 곳에서 공방을 벌렸다。담주산성(潭州山城) 아래 신흥리에 망초단을 설치하여 (지금의 신흥리 633번지 건물) 동지들을 규합하니 연락책으로 최재기(崔在基)、최재희(崔在希)、김우일(金宇一) 등도 동참했다。

고종31년 11월、큰 눈바람이 몰아치던 날 담양군 남면 외동리(外東里) 굿굴에서 왜병을 만나 항거하다가 붙잡혀 화순으로 압송되던 도중 장터에서 포박된 채로 장작불에 화형을 당하였다。이에 주변 친인척들은 사방으로 흩어져 숨어살게 되었고、유물들은 모두 태우고 묻어서 없애 버리니 전하는 것이 없다。

공의 묘는 증손 병관(秉寬)이 1986년 공의 사후 93년 만에 동림동(東林洞) 뒷산 기슭에 석의(石儀)를 갖추어 배위 한양조씨와 함께 합장으로 이장하니、자손들과 이 성역을 지나는 사람들은 구천에서나마 공의 영면을 빌게 되었다。(해주최씨종지 2호、30세손 永澤 씀。)

進士公(尹望)派

진사공 윤망

一五世 進士公 諱 尹望

진사공 윤망

공의 자는 망지(望之)、호는 시포(詩圃)이며、충헌공(忠憲公) 유엄(有淹)의 7세손이오、증조부는 영랑장(領郎將) 안택(安澤)、부친은 충좌위사직(忠佐衛司直) 혼(渾)이다。

연산군 7년(1501)에 형 승지공 윤범(尹範)과 함께 식년시 사마시(司馬試) 3등 51위에 합격하고 관직으로는 부사맹(副司猛、오위의 從八)을 지냈다。(사마방목)

문장과 필치(筆致)로 이름을 날렸으며 가전(家傳)에 60권의 책을 펴냈다는 기록이 있다.

배위는 완산이씨(完山李氏)로 대호군(大護軍) 이리경(李利敬)의 따님이다.

소생으로는 통덕랑(通德郎) 천우(天祐)와 문충공(文忠公) 천범(天凡)이 있다.



파조 윤망(尹望) 묘비
화순읍 다지리 先山

十六世 文忠公 諱 天凡

문 충 공 천 범

공의 자는 여명(汝明)。호는 석헌(石軒)이다。진사공(進士公) 파조(派祖)인 시포(詩圃) 윤망(尹望)의 차남으로 조부는 충좌위사직(忠佐衛司直) 혼(渾)공이며 충헌공(忠憲公) 유엄(有淹)의 8세손이다。

선조13년(1580) 경진 文科에 급제하여 관은 예조좌랑(禮曹佐郎、正六)에 이르렀는데 100여 년이 지난 영조조(英祖朝)에 이르러 통정대부(通政大夫) 증좌승지(贈左承旨、正三)에 추증되고 시호 문충(文忠)이 제수되었다。

공은 어릴 때부터 지극한 효성을 다하였고、일찍이 학문을 겸하여 활 쏘고 말 다루는 무예에도 능하였다。임진왜란(壬辰倭亂、1592)을 당하여 동지들과 의병을 일으켜 나주(羅州)로부터 북창(北倉)、금성진(金城鎭)下 율원(栗原) 들판을 누비며 여러 차례 전투를 벌였으나 전투 중 순절(殉節)하고 말았다。맏아들 수황(壽晃)이 그 변을 듣고 통곡하며 시신(屍身)을 찾아보았으나 얻지 못하였다。그리하여 초혼장(招魂葬)으로 치룰 수밖에 없었다。삼현영당(三賢影堂、전남 담양군 금성면 와룡리)에 배향되었다。

묘는 금성진(金城鎭)下 율원(栗原、지금은 율로 부른다원)들 뒤편 남여(藍輿) 언덕 비탈 계좌이다。

배위는 숙부인 안동권씨요、父는 득형(得衡)이요、文科에 오르고 장악원정(掌樂院正)이다。묘는 쌍봉으로 비석이 있다。

소생으로는 사마(司馬) 수황(壽晃)과 응제진사(應製進士) 수형(壽亨)이 있다.

將仕郎公派
장사랑공파

十五世 將仕郎公 諱 孝宗
장사랑공 효종

충헌공(忠憲公) 유엄(有渰)의 7세손이며 영랑장(領郎將) 안택(安澤)의 증손이며, 녕(濘)의 외동아들이다。관은 장사랑(將仕郎 : 종9품의 문관직)이다。

배위는 경주이씨(慶州李氏)로 부사(府使) 이신(李信)의 따님이다。묘소는 실전하여 승주군 송광면(松光面) 구룡리(九龍里) 오룡동(五龍洞)에 영모단(永慕壇)을 설치하여 향사를 올리고 있다。소생으로는 형(衡)이 있다。

進士公(尹卓)派
진사공 윤탁 파

十五世 尹卓
윤탁

자는 자고(子高)、충헌공(忠憲公) 유엄(有渰)의 7세손이며 영랑장(領郎將) 안택(安澤)의 증손(曾孫)이며、순(洵)의 외동아들로 진사(進士)이다。42세에 조졸하고 묘는 현 광주직할시 선교동 사동중촌후(蛇洞中村後) 유좌(酉坐)에 위치하며、배위는 완산이씨(完山李氏)이다。소생은 천원(天源)이다。

左尹公派
좌윤공파

十二世 三司左尹公 諱 安德
삼사좌윤공 안덕

충헌공(忠憲公) 유엄(有渰)의 증손이며 사재령공(司宰令公) 공(珙)의 삼남(三男)이다。관은 삼사좌윤(三司左尹、금납을 다루는 관서 從三)이다。

배위와 묘소에 관한 기록이 없고、아들로는 고성군수(高城郡守) 치(値)와 중랑장(中郎將) 연흥(漣興)이 있다。

監察公派
감찰공파

十二世 監察御使公 諱 仲濕
감찰어사공 중습

충헌공(忠憲公) 유엄(有渰)의 증손이며 사재령공(司宰令

公) 공(珙)의 사남(四男)이다。여러 관직을 거쳐 조선 태종(太宗)조(1400~1418)에 감찰어사(監察御使)에 오른 것으로 추정한다。

배위는 여산 송씨이며、아들로는 순(洵)、식(湜)、연(演)、온(薀)、지(芝)、릉(菱)、화(華)와 제(悌)가 있는데 제는 사평공파(司評公派)의 파조이다。(경오보8권775)

十六世 入鄕祖 諱 沃晟
입향조 옥성

字는 사옥(士沃)이다。부친은 사간원 정언(司諫院正言) 몽근(夢根)이며、감찰공(일명、어사공) 중습(仲濕)의 현손이다。함평군지(咸平郡誌)에 공이 입향조로 기록된 사료가 있어 이를 소개한다。

어사공파의 입향조는 시조의 16세손인 옥성(沃晟)이며 전북 무장에서 1592년 임진란 때 함평읍 석성리 성재로 옮겨 잠시 살다가 함평읍 대덕리 고양촌에 정착했다。

아들 금수(錦壽)와 용수(龍壽)가 무과에 급제하고、금수의 두 아들 이형(以亨)과 이급(以岌)이 역시 무과에 급제하였으며、그들의 아들 경헌(景憲)과 유헌(裕憲)이 또 무과에 급제하는 등 3세에 걸쳐 내리 10여 명의 무과 급제자를 내어 무과 집안이라는 말을 듣게 되었다。입향조 옥성의 묘소는 함평읍 대덕리 백곡 뒷산에 있다。

배위는 진주정씨(晉州鄭氏) 장(樟)의 따님으로 묘는 함평 성북 창기에 손좌(巽坐) 합폄(合窆)으로 장사 지냈다。슬하에는 위 郡誌의 두 아들이 있다。

十七世 入鄕祖 諱 雲國
입향조 운국

자는 자고(子固)이며 아버지는 진위현령(振威縣令) 진방(振昉)이고 파조 감찰(어사) 중습(仲濕)의 次子인 식(湜、초휘 雲澈)의 현손이다。

공의 관은 첨추오위장(僉樞五衛將)이었으며、아버지 진방(振昉)공이 임진왜란 당시 가솔을 안성(安城)으로 피란케 하니 후손들은 집성촌을 이루어 번성하게 되었다。

그 후손 일부는 고삼면 쌍지리(雙芝里) 사동(寺洞)으로 들어와 정수산 남향 자락 양지바른 곳에 20여 가구가 집성촌을 이루어 화목하게 살아오고 있다。



감찰공파세장비
운국祖의 시제일은 음10월 첫 일요일

공의 묘는 안성군 고삼면 쌍지리(雙芝里) 봉지곡(奉芝谷) 괴동(槐洞) 황산(荒山) 유좌에 있으며 床石이 있다. 1993년 자손들이 공의 묘역을 치산할 때에 공이 썼던 창과 칼이 나왔는데 그것들을 다시 묘전에 묻었다. 시제는 매년 음력 10월 첫 일요일이다.

배위는 진주강씨(晉州姜氏)이며 묘는 합봉이고, 슬하에는 참봉(參奉) 언호(彦灝)와 장사랑(將仕郎) 언옥(彦沃)의 두 아들을 두었다.

十九世 忠武公 諱 景憲

충무공 경헌

字는 여식(汝式), 호는 매헌(梅軒), 감찰공 중습(仲濕)의 8세손이며 이원(以元)의 큰아들로 무과(武科)를 거쳐 관직이 훈련원 판관(訓練院 判官, 從五)에 이르렀는데 효종대왕이 귀국할 때에 의주 용만(龍灣)에 이르러 병환이 위중함에 공이 이 소식을 듣고 탕약을 지어 삼백리 길을 마다않고 달려가서 약을 바쳐 옥체를 회복시켰다. 효종대왕이 즉위한 후에 그 노고의 공로로 공이 살던 함평(咸平) 고양(高陽) 땅 인근 16호(戶)를 하사하며 부역을 면제시켰다. 훗날 공이 졸하매 나라에서는 향현사(鄕賢祠)를 세워서 배향하게 하고 춘추(春秋)로 제사를 올리게 하였으며, 숭록대부 의정부 좌찬성(贈崇祿大夫 議政府 左贊成)을 추증하였다. 시호는 충무공(忠武公)이다.

배위는 증 정부인(貞夫人) 진주 임씨(任氏), 묘는 함평군 북창(北倉)터 손좌에 있다. 후사는 부호군(副護軍) 후상(后相)이다.

효종대왕은 인조14년(1636) 병자호란으로 인하여 인조22년(1644) 형인 소현세자와 볼모로 청나라에 있다가 인조23년 1645년 2월에 소현세자가 먼저 돌아왔고, 그는 그대로 청나라에 머무르고 있다가 그해 4월 세자가 갑자기 죽자 5월에 귀국하여 세자로 책봉되었다.

十九世 判官公 諱 裕憲

판관공 유헌

자는 방도(邦度)이며 사과(司果, 正六) 이형(以亨)의 큰아들로 조부는 참봉(參奉) 금수(錦壽)로 감찰공(監察公) 중습(仲濕)의 8세손이다. 公의 관직은 훈련판관(訓練判官, 從五)이며 과거 기록은 아래와 같다.

- 무과 : 효종(孝宗)2년(1651) 신묘 별시(辛卯 別試) 병과 659위
- 거주지 : 함평(咸平)
- 부(父) : 최이형(崔以亨), 관직(官職) : 사과(司果)
- 출전 : 신묘별시문(무)과 방목(辛卯別試文(武)科 榜目)

배위는 함평이씨(咸平李氏) 정용(挺龍)의 따님이며 묘는 함평 창기에 사좌(巳座)로 합봉(合封)이며, 수(壽)는 73歲

이다.

소생은 큰아들 판관(判官) 백윤(伯崙)、둘째 중윤(仲崙)、셋째는 계윤(季崙)이다.

二十六世 覽溪公 諱 文默
람계공 문묵

자는 기문(基文)、호는 람계(覽溪)、父는 이조정랑(吏曹正郎) 익용(翼龍)이며 감찰공(監察公)의 15세손이다.

공은 가선대부(嘉善大夫)이며、문학(文學)으로 이름난 교수(敎授)로서 생도가 수천일 뿐 아니라 학당이 여러 곳에 있었는데 일찍이 기서학교(箕西學校)가 성했던 것이 실로 공으로 인한 것이었다고 향리에서 칭송하였다.

배위는 정부인 청주한씨(淸州韓氏) 종교(鍾敎)의 따님이다。공이 병이 깊이 들어 3년이 되어 운명할 즈음에 이르니 부인이 손가락을 잘라 입에 피를 넣어주어 간신히 회생되었다。그후 3일 만에 또 위독해지니 부인이 울면서 어린 조카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들의 수부(남편)의 죽엄을 차마 볼 수 없으니 내가 차라리 대신 죽겠다고 하고는 목을 매어 죽었다。그때 나이 22세 기사년 정월 29일이었다。이날 슬픔의 안개가 사방에 자욱했고 음산한 비가 내리니 이것은 반드시 정열(貞烈)의 혼백으로 인한 것이리라。이날 공의 병이 즉시 나았다。가히 모범된 부인이라고 향리에서 그 정열을 칭송하였다。부인의 묘는 창기(倉基)의 선영 오른편의 未坐에 있다。

배위(재취)는 정부인 광산김씨 승지(承旨) 익진(益振)의 따님이며 묘는 합봉이고 슬하에 동몽(童蒙) 교관 병균(炳畇)과 따님 한 분이 있다。

司評公派
사평공파

一三世 司評公 諱 悌
사평공 제

충헌공(忠憲公) 유엄(有淹)의 현손이며 사재령공(司宰令公) 공(珙)의 사남(四男) 중습(仲濕)의 막내아들이다。

공은 처음 의주(義州)로 이사하였다。관직은 통정대부 장예원 사평(掌隷院司評)에 이르렀다。어전에서 고려사에 관하여 논하면서 우왕(禑王)과 창왕(昌王)의 두 왕에 이르러 신(辛、신돈)씨가 되었다고 직언하여 말하기를 이 일은 간신의 속임수이었으니 청컨대 (역사) 기록을 바로 써야 된다고 말하니 드디어 왕의 노여움을 사서 의주(義州)로 귀양을 가게 되었다。인하여 집에서는 효도와 우애가 잘 전해왔다。

배위는 경주이씨(慶州李氏) 아들은 한보(漢輔)와 성보(聲輔)이다。

(경오보 8권 775 기록 참조)

十九世 義州判官公 諱 鴻
의주판관공 홍

사평공(司評公) 제(悌)의 7세손이며 응준(應峻)의 장자로 武科에 장원으로 급제하고 현신교위(顯信校尉) 훈련원 판관(判官、從五)에 이르렀다.

인조 정묘(1627)년에 인조반정(仁祖反正)을 구실로 金나라 軍이 쳐들어오자 자청하여 의주판관(義州判官)이 되어、나아가 적을 맞아 용감히 싸웠다。적장을 사살하고 목벤 자만도 수십 급(級、두루미)이 넘었으나 결국은 중과부적으로 의주성이 함락되고、공은 장렬한 최후를 마쳤다。그후 백마산성 구암사(龜岩祠)에 배향하여 제를 올렸고 또 월화면(月華面)에 있는 부친의 묘 옆에 설단하였다。

배위는 미상、후사는 없고 계자(系子) 지호(至灝)로 대를 이었다。

十九世 訓練院判官公 諱 岦
훈련원판관공 입

공의 부친은 부사과공(副司果) 응준(應峻)이며 사평공의 7세손이다。

공은 광해조(光海朝) 경신(庚申) 무과에 등과하여 현신교위(顯信校尉) 훈련원 판관(訓練院判官、從五)을 지냈다。

공은 향중(鄕中)의 사족(士族) 24인과 더불어 율곡향약(栗谷鄕約)을 창설하여 (지역사회)풍기를 바로 세웠다。

배위는 정선전씨(旌善全氏) 산규(産奎)의 따님 묘는 고성면(古城面) 묘도곡(墓道谷) 황철령(黃鐵岺)재 아래 계좌에 합봉으로 있다。석물을 갖추었으며、비문은 순욱(純煜) 문태형(文泰炯)이 찬하였다。

소생은 장남 지호(至灝)는 백부 홍(鴻)의 뒤를 이었고、차남은 지해(至海)、삼남은 지염(至濂)이다。

少尹公派
소윤공파

一二世 禮賓寺少尹公 諱 德海
예빈시소윤공 덕해

충헌공(忠憲公) 유엄(有淹)의 증손이며、사재령공(司宰令公) 공(珙)의 막내아들로 예빈시소윤(禮賓寺少尹、正四)을 지냈다。

배위는 알 수 없으며 소생은 사재정(司宰正、正三) 희범(希範)이다。

(갑자보 제5권、경오보 8권 843)

典書公(河)派
전서공 하 파

一三世 典書公 諱 河
진서공 하

고려 문하시랑평장사(高麗國門下侍郎平章事) 관(灌)의 8세손인 양무공(襄武公) 영지(永祉)의 장남으로 관직은 전서(典書、正三)를 지냈다.

배위는 풍천임씨(豊川任氏)로 순의(純義)의 따님이다。소생는 외동아들 도총부 경력(都摠府 經歷) 연정(沿汀)이다。

태종실록3집 619면에 『진주도(晉州道)로 파견된 구구유전관(購求遺典官) 어효첨이 별시위(別侍衛、조선조의 장교부대, 五衛의 龍驤衛군대) 최하(崔河)의 집에 소장했던 호삼성(胡三省)의 음주본(音註本)인 《자치통감》 192권부터 260권까지를 구해 바치매、임금이 보고 기뻐하였다。』고 기록된 것이 있으나 고증이 필요한 기사이다。

海陵君派
해릉군파

十七世 海陵君 諱 賓
해릉군 빈

海陵君忠勳傳
해릉군충훈전

文獻 宣祖實錄 傳敎 忠勳府回啓 海陵君派譜
公字光國號花谷生于中宗二十四年己亥 宣祖朝武科登第官至忠勤貞亮竭誠效節協策扈聖功臣宣傳官贈資憲大夫兵曹判書兼判義禁府事五衛都摠府都摠管 海陵君
公天資英偉勇略絶倫少業武藝橫騖萬里之氣忠義之心終始不替宣祖壬辰亂扈駕龍灣中路御馬病斃公身負玉體行五晝夜得達仍憤憂成疾平亂後執勒還京未及陞用吐血而卒 上嘉其誠忠特加褒恤贈職
王若曰危不避死當險服勞自始至終罔失貞亮惟爾稟性忠勤起身竭誠予熟斟酌今緣賊虜之艱危時值馬斃之憂急絶塞孤城幾備營乎歎苦頓置周官之四星宋臣之七字何往而不助也際閃所操忽爾老脚能突請負勢

乃迫矣弗辭駄幾至旬日至于此處豈非天或祚宋之期乎嘉乃丕賞策勳自有後日先特給書以無忌勞爾之父母超一階贈爵直孫世世收用支庶甥姪女婿加階宥及永不失其祿肆此紀功庶母忘鍾鼎之訓故茲　教示想宜知悉

萬曆三十二年四月十六日

教

忠勤貞亮竭誠效節協策扈聖功臣宣傳官　贈資憲大夫兵曹判書兼判義禁府事五衛都摠府都摠管　海陵君　崔賓　書

王若曰無所避久從險阻之中當不失勞式擧褒祿之典茲稽舊制用答新勳卿之稟性予雖素知猶未知若是之強能也其於侍從御閔非正也曾備周官之四星有自來不讓宋臣之七宇頃緣賊虜之侵突遂致時事之艱危奄遭去邠之患天或祚宋幸得監國之賢良爰擇文武之從官誰可性哉莫如武臣之忠勤汝其往哉士辰六月十六日車駕出避平壤城時馬熱忽斃路漫五百誰能扶予以濟此急也臣皆棄予卿躬負予晝宵十日達于龍灣得避急危何忘其勞特給尺紙素書自慰服勞俾望陞用矣幸值興唐之期聿回自西之駕率皆徇國而忘身分等級而報之敢緩定功而行賞則卿獨嘔血而卒雖肆策勳爲扈聖功臣三等圖形而卿獨至此已作九原誰使知之以茲垂後超一階爵其父母妻子亦超一階無子則甥姪女婿加階嫡長世襲不失其祿宥及永世仍賜伴倘四人奴碑七口兵史二名田六十結銀子五兩表裏一段內廐馬一匹至可領也於戲不幸身死雖未叅狗馬之盟忠無始終庶無忌鐘鼎之訓故茲敎示想宜知悉

英祖乙亥忠勳府回

啓

宣廟龍灣播遷之時御馬中途發熱蹶死故上憂甚急乙仍于其時扈從功臣崔賓代馬背負玉體五日五夜達于龍灣故

宣廟大加褒賞特命叅扈從功臣一賜牌田六十結奴碑七口是乎故今十月初七日良中傳敎內自該府考其古功臣錄案敎是細細考見則果有之是乎等以緣由覆啓則聖敎內功臣之子孫代遠僻居殘微不蒙先靈之澤極爲矜惻而如是之事自下若不告達則予何以知之乎此功臣直孫則自該曺收用是遺當初畫給田六十結奴婢七口則折其新贖　結中折給事奉承傳敎是乎所待其子孫改呈訴田結及奴婢依傳敎折給事敢稟何如

公墓所忠南青陽郡化城面基德里荒谷坤坐
不祧廟自洪州移建于全北益山郡朗山面虎岩里敦山
洞

해릉군충훈전

공의 자는 광국(光國) 호는 화곡(花谷)이다。
중종(中宗)二十四년 기해(己亥、西紀一五三九)생으로 양무공 영지(襄武公 永祉)의 五대손으로 조선무신(朝鮮武臣)이다。
공은 타고난 천품이 영명하고 위대하며 용맹과 지략이 만인에 뛰어난지라 소시부터 무예를 익힐세 만리평원을 유성과 같이 단숨에 가로지를 기상이었으며 충성심과 곧은 의리는 시종일관 변함이 없었도다。
무과급제(武科及第)하여 벼슬은 선전관(宣傳官)으로 충근정양 갈성효절협책 호성공신 선전관 증자헌대부 병조판서 겸 판의금부사 오위도총부 도총관 해릉군(忠勤貞亮 竭誠效節協策 扈聖功臣1 宣傳官 贈資憲大夫兵曹判書 兼 判義禁府事五衛都摠府都摠管 海陵君)이다。
서기一五九二년 임진왜란(壬辰倭亂)에 선조대왕(宣祖大王)을 호위하고 의주용만(義州龍灣)으로 피난 가는 도중에서 왕이 타신 말이 심한 열로 쓰러져 죽으니 공이 몸소 왕을 업으시고 오주야(五晝夜)를 행하여 용만2에 득달(得達)하였으나 그때 해릉군께서 왜적(倭賊)에 대한 증오(憎惡)하는 울분(鬱憤)과 나라에 대한 근심으로 병(病)을 얻어 난리가 끝나도록 근실하게 직무를 수행하고 환도(還都)하였으나 미처 승용(陞用)에 이르지 못하고 피를 토하고 세상을 떠나시니 왕이 그 충성을 가상(嘉賞)히 여기사 특별히 포상구휼(褒賞救恤)3하고 증직(贈職)하다。
왕이 하교(下敎)하시기를 위태하되 죽기를 피하지 아니하고 험난을 당하되 수고로움에 종사하기를 시종일관하며 곧고 밝음을 잃지 아니하는 너의 타고난 천성과 충성 근실함은 내가 익히 짐작하는 바이나 이제 오랑캐의 침공으로 인하여 심히 어려운 때에 마침 말이 죽는 일까지 있어 절박하고 위험한 고비를 당할 줄이야 예측이나 했을까 미리 예방 예비가 없었다하여 어찌 돕지 아니하랴。
이리된 일을 딱하게 여기던 차 네가 늙은 몸으로 선뜻 엎기를 청하여 나섰으니 사세는 절박한지라 무겁고 괴로움을 사양치 아니하고 끝까지 십일이나 애써 이곳에 득달하였으니 하늘이 송(宋)나라를 복되게 한 것과 무엇이 다르랴。가상한 큰 상이나 책훈(策勳)은 후일에 있을 것이나 먼저 서찰(書札)을 주고 꺼림이 없게 하니 너의 부모는 일계급의 벼슬과 록(祿)을 올리고 직손(直孫)은 대대로 거두어 쓰게 하고 지손(支孫) 서손(庶孫) 생질(甥姪) 여서(女婿)도 계급을 더하여 넉넉히 길이 그 록을 잃지 않게 하라。널리 그 공적을 기념케 함이니 이 교시를 마땅히 알아두라。

만력(萬曆) 三十二년(一六〇四) 四월十六일

교(敎)

충근정양갈성효절협책호성공신 선전관 증자헌대부 병조판서4 겸 판의금부사 오위도총부도총관 해릉군 최빈(忠勤

貞亮竭誠效節協策扈聖功臣宣傳官 贈資憲大夫兵曹判書 兼判義禁府事五衛都摠府都摠管 海陵君 崔賓)이라 서(書)하다。왕약왈(王若曰) 피할 수 없이 오래 험하고 절박한 일에 종사했으니 이를 상주고 포록(褒祿)하는 식전(式典)을 차릴지라 옛 제도(制度)를 상고(想考)하여 새로 훈공(勳功)을 보답하리로다。경(卿)의 타고난 성품을 내가 비록 알았으나 이토록 강인(強忍)하고 능(能)할 줄은 미처 알지 못했노라。그때의 시종(侍從)들이 올바르지 아닌 게 아니고 예비가 있었지만은 오랑캐들의 돌발적 침공으로 이런 어렵고 위태한 일을 만나 이리저리 뿔뿔이 헤어지는 환난을 당했으나 하늘이 이 나라를 도우사 현량한 무신(武臣)의 종관(從官)을 얻게 되었으니 누가 나아가 이를 막아내겠느냐。무신의 충근이 아니면 불가능하리니 네가 가늠해 보라 하다。임진 六월 十六일 왕의 일행이 평양성(平壤城)을 피해 나갈 때 별안간 왕이 탄 말이 열이 올라 죽으니 평탄(平坦)치 못한 오백여리(五百餘里)를 누가 능히 나를 부축하여 이 급함을 피하게 할소냐。신하들도 모두 나를 버리고 가거늘 경(卿)만이 나를 업고 밤낮으로 십일 동안에 겨우 용만에 도달하여 위급을 피하게 되었으니 그 수고를 어찌 잊으랴 특히 문서를 써 주어서 복로(服勞)함을 자위(自慰)케 하고 후일 승용을 기다리게 한다。다행히 개선(凱旋)하여 나라로 돌아가게 되면 신분(身分)과 등급(等級)을 가리지 아니하고 공로(功勞)를 정하여 상을 주려 하였거늘 경(卿)만이 피를 토하고 졸(卒)하니 비록 책훈(策勳)을 넓히어 호성공신三등(扈聖功臣三等)으로 도형(圖形)의 은전(恩典)을 내렸으나 이미 저승에 가 있으니 누구에게 이 일을 알려 후세에 전하랴。일계급(一階級) 벼슬을 올리고 그 부모처자 역시 일 계급씩 올리게 하고 무자(無子)하거든 생질 사위들도 가계(加階)하고 적장손(嫡長孫)은 그 록을 영세(永世)토록 세습(世襲)케 하라。이에 반당四인(伴倘四人) 노비七구(奴婢七口) 병사二명(兵士二名) 전六十결(田六十結)5 은자단양(銀子五兩) 표리 한단(表裏一段) 내구마한필(內廐馬一匹)을 받아 두도록 했다。아! 불행히 신사(身死)하여 구마지맹충(狗馬之盟忠)6에 미참(未叅)하고도 시종일관(始終一貫)하여 종정지훈(鍾鼎之勳)7을 꺼림이 없게 함이니 이 교시를 올바르게 알아두라。

영조 을해(英祖乙亥 1755) 충훈부8회(忠勳府回)

계(啓)

선묘용만파천(宣廟龍灣播遷)하실 때 왕이 탄 말이 중도에서 열이 나서 쓰러져 죽으니 왕의 우려가 심히 급하게 되니 호성공신 최빈(扈聖功臣 崔賓)이 말 대신 왕을 등에 업고 五일五야(五日五夜)만에 용만에 득달한 고로 선조(宣祖)께서 크게 포상하사 특명으로 호성공신에 참여케 하시고 패(牌) 전六十결(田六十結) 노비七구(奴婢七口)를 하사하라는 처분을 내리신 고로 금十월초七일양중(今十月初七日良中)에 전교내(傳敎內)에 부서(府署)로부터 옛 공신록안(功臣錄案)을 자세히 상고(想考)하여 본즉 과연 이런 일이 기록되어 있고 시호(是乎)가 분명한지라 이 연유를 복계(覆啓)하였더니 성교내(聖敎內)에 공신의 자손으로 대수가 멀고

잔미(殘微)하게 벽촌에서 선영충절(先靈忠節)의 혜택을 받지 못함을 극히 딱하게 여기노라.

이런 일은 하부로부터 고하지 아니하면 내가 어떻게 알 수 있으랴. 이러한 공신의 직손들은 그 조(曺)로부터 수용(收用)토록하고 당초에 그어준 전六十결과 노비七구는 신속결중(新贖結中)에서 꺾어주라는 전교시호(傳敎是乎)를 받으러 그 자손의 정소(呈訴)를 기다려 전결과 노비는 전교에 의하여 꺾어 줄 것이나 감히 품고(稟告)하오니 어찌 하올지(라고 쓰여 있다。)

공의 묘소(墓所)는 충남 청양군 화성면 기덕리 황곡곤좌(忠南 靑陽郡 化城面 基德里 荒谷坤坐)이며

부조묘(不祧廟)는 충남 홍주(洪州)에서 이전되어 전북 익산군 남산면 호암리 돈산(全北 益山郡 朗山面 虎岩里 敦山)에 모셨다。

註：1。扈聖功臣(호성공신)：임진왜란 때 왕을 모시고 피난을 간 신하들 중에서 李恒福 등 八十六명의 공신에게 주어진 칭호。
2。龍灣(용만)：지금의 신의주만。
3。褒賞敎恤(포상구휼)：칭찬하여 상을 주고 구제함。
4。兵曹判書(병조판서)：지금의 국방부장관。
5。田六十結(전六十결)：이조 때 토지의 표시 단위。
6。狗馬之盟忠(구마지맹충)：신하가 왕 앞에서 충성할 것을 맹서함。
7。鍾鼎之訓(종정지훈)：집안이 화목하여 여러 대를 한 집에 살아 수백 명 되는 식구에 종으로 식사시간을 알리는 화목된 좋은 교훈, 여기서는 가문에 복되게 함을 뜻함。
8。忠勳府(충훈부)：공훈관계를 다루는 부서。

十八世 副司正公 諱 繼勳
부사정공 계훈

자는 인보(仁甫)、초휘는 계립(繼立)이다。해릉군(海陵君) 빈(賓)의 아들(繼子)로 생부는 관(寬)이다。

관직은 음서(蔭敍、부친의 음으로)로 어모장군(禦侮將軍) 행충좌위(行忠佐衛)1 부사정(副司正、종七)을 지냈다。묘는 청양군 화성면(化城面) 화암리(花岩里) 산124의 1번지 증조(漢宗)고 묘하 자좌에 있다。

배위는 숙인 한양조씨로 부사(府使) 경후(慶厚)의 따님이며、묘는 합봉이다。아들은 부사간(副司諫) 홍(泓)、통덕랑 상(湘)、통덕랑 준(濬)、담(淡) 등 넷을 두었다。

註：1。충좌위：조선조의 군대。오위(五衛)의 전위부대。

二十一世 判官公 諱 泰休
판관공 태휴

자는 미재(美哉)、부친은 사옹직장(司甕直長) 극양(克良)이며 해릉군 빈(賓)의 현손이다。

관직은 통훈대부한성부판관(通訓大夫行漢城府判官、從五)을 지냈다。

묘는 임천(林川) 지장동(芝長洞) 동록 건좌에 있으며 비갈이 있다。

배위는 숙인 청주이씨(淸州李氏)로 원백(元伯)의 따님이

다。묘는 합봉이고、소생으로는 장자 군자감정 몽(夢)과 차자 대수(大壽)를 두었다。

二十一世 訓練院僉正公 諱 夢吉
훈련원첨정공 몽길

자는 여직(汝直)、부친은 예빈시 봉사(禮賓寺奉事) 업용(業龍)이며、해릉군 빈(賓)의 현손이다。

갑인(甲寅) 무과에 급제하여 선략장군(宣略將軍) 훈련원 첨정(僉正、從四)을 지냈다。수는 78세。묘는 익산군 낭산면(朗山面) 호암리(虎岩里) 교산(轎山) 16번지 해좌에 있다(묘비 있음)。

배위는 영인(令人) 수원나씨(羅氏)로 종사랑 윤희(允希)의 따님이다。묘는 합봉、후사로는 외아들 통덕랑 경상(景祥)이 있다。

二十二世 軍資監正公 諱 夢
군자감정공 몽

공은 한성부 판관 태휴(泰休)의 큰아들이며、해릉군 빈(賓)의 6세손이다。관직은 통훈대부(通訓大夫) 군자감정(軍資監正、正三)을 지냈다。

공의 지조와 행실이 고결하고 옳고 그름을 분별할 줄 알고 효행이 돈독하여 이웃의 모범이 되었다。묘는 홍산(鴻山) 하서면(下西面) 응서리(鷹棲里) 후록의 정좌(丁坐)에 있으며 비문이 있다。

배위는 숙인 밀양전씨(密陽田氏)로 참봉 윤석(允錫)의 따님이며 묘는 합봉이다。

소생은 외아들 공조참의(工曹參議) 명(命)이 있다。

二十三世 工曹參議公 諱 命
공조참의공 명

자는 명원(命元)、호는 약재(藥齋)이다。부친은 군자감정(軍資監正) 몽(夢)이며 조부는 판관 태휴(泰休)、해릉군 빈(賓)의 7세손이다。

관은 통정대부(通政大夫) 공조참의(工曹參議、正三)를 지냈다。묘는 홍산(鴻山) 하서면(下西面) 응서리(鷹棲里) 후록의 고묘(考墓) 위에 있다。

배위는 숙부인 김해김씨 현석(顯錫)의 따님이며、묘는 임천(林川) 지장동(芝長洞)의 조부 묘하에 있다。

슬하에는 부호군 임성(任聖)。가선대부 한성부좌윤(漢城府左尹) 신업(信業)。동 신입(信立) 등 세 아들을 두었다。

二十四世 漢城府左尹公 諱 信業
한성부좌윤공 신업

字는 태우(太佑)、부친은 공조참의(工曹參議) 명(命)이고、

조부는 군자감정(軍資監正) 몽(夢)이며, 해릉군 빈(賓)의 8세손이다.

관은 가선대부 한성부좌윤 겸오위도총부부총관(嘉善大夫漢城府左尹、兼五衛都摠部副總管、從二)에 이르렀다. 묘는 안서(雁棲) 후록 丁坐이며 표석이 있다.

배위는 정부인(貞夫人) 능성구씨(綾城具氏)로 익현(翼賢)의 따님이며 묘는 합봉이다.

슬하에는 진생(辰生)、진걸(辰傑)、정헌대부동지중추부사(正憲大夫同知中樞府事) 진방(辰方)의 삼형제가 있다.

二十五世 知中樞府事公 諱 豪亮
지중추부사공 호양

자는 제세(濟世)、부친은 부총관(副摠管) 신립(信立)이요、해릉군의 9세손이다.

관은 자헌대부(資憲大夫) 동지중추부사(同知中樞府事)를 지냈다.

영조 戊申년 이인좌란(李麟佐亂)에 충성과 의리에 분발하여 각 읍의 군병을 거느리고 한밤중에 전지(戰地)에 나가게 됨에 부인이 옷깃을 잡고 우는데 공은 부인의 손을 뿌리치고 떠났다。도중에 적장들이 패멸했다는 소식을 듣고 집으로 되돌아오게 되니 공은 칼을 내치며 탄식해 가로되『사람이 세상에 나서 이미 활 쏘고、말 타기를 업으로 했으니 나라를 위해 공을 세우는 것이 남자의 일이거늘 마침내 적을 베이지 못했으니 어찌 분하지 않겠는가。』하였다。이 충성됨은 읍지(邑誌)에 실려 있다。

묘는 상서면(上西面) 비홍산(飛鴻山) 하 자좌에 있다。

배위는 정부인 능성구씨(綾城具氏) 근석(根錫)의 따님이며 묘는 쌍봉이다。

후취배위는 정부인 光山金氏 배근(培根)의 따님이며 묘는 역시 상서면 모호리(毛虎里) 앞산 기슭 건좌에 있다。

소생은 참봉 경국(敬國)、경해(敬海)와 경규(敬奎) 등 삼형제가 있다。

二十五世 入鄕祖 諱 道亨
입향조 도형

자는 학여(學汝)、부친은 기준(起峻)이며 해평군수(海平郡守) 극지(克智)의 6세손으로 해릉군 빈(賓)의 9세손이다。

공은 고양군 중면(中面) 마두리(馬頭里) 정발산(正鉢山、鼎發山) 아래 냉천부락(冷泉部落)에 정착하였다。이후 후손들이 누대에 걸쳐 살면서 선조의 음덕(蔭德)을 기리고 숭조와 종친 간의 화목으로 가문의 긍지를 지켜왔다。일산 일대에 거주하는 후손들의 수가 20여 가구이며 외지에 나가서 사는 가구도 30세대에 이른다。

공의 묘는 본래 고양군 중면 마두리 정발산 동편 기슭 간좌에 있었으나、1989년 4월 27일 일산 신도시 개발로 부지를 수용당하게 되어 5대조 극지(克智、20世) 이하

응천(應天)、계천(啓天) 그리고 두벽(斗壁)、두성(斗星)、두표(斗杓)、태규(泰奎)、기준(起峻)祖의 묘와 기타 40여기의 門中묘와 함께 연천군 왕징면(旺澄面) 노동리(盧洞里) 산38로 면례하였다.

배위는 문화유씨(文化柳氏)로 병현(炳鉉)의 따님이다。묘는 합봉이며、슬하에는 영화(永華)와 영석(永錫) 두 아들을 두었다。



종중 묘역 노동리(盧洞里) 산38

縣監公(瑀)派
현감공(우)파

十一世 縣監公 諱 瑀
현감공 우

고려태사 문하시중 충경공(高麗太師門下侍中 忠景公) 사추(思諏)의 8세손、문하시랑평장사 진(門下侍郎平章事 湊)의 7세손이며 계달(繼達)의 외동아들로 현감(縣監)을 지냈다。묘는 해주 금암산(錦岩山) 동쪽 기슭의 선영 아래 있다。배위는 의령남씨(南氏)이며 묘는 공의 묘와 나란히 있다。소생은 외아들 영해(盈海)이다。

僕射公派
복야공파

五世 僕射公 諱 溥
복야공 보

문장공(文莊公) 유길(惟吉)의 손자이며 4世 사묵(思默)의 외동아들이다。관은 복야(僕射)를 지냈으며、배위는 알 수 없고 소생으로는 윤중(允中)이 있다。